


# The Korean War

발간등록번호

11-1290472-000167-01

ISBN-979-11-5598-046-0



# 6·25 전쟁 주요 전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The Korean War



## 6·25 전쟁 주요 전투 1



## 발간사

6·25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Joseph Stalin)의 승인과 마오쩌둥(毛澤東)의 동의를 받아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한 이후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공식적으로 체결될 때까지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와 영향 등을 정치, 역사, 군사, 외교, 문화,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6·25전쟁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왔습니다. 특히 전투사에 관해서 그동안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11권에 이르는 전쟁사와 27권의 주요 전투사를 발간하였고, 신뢰성 있는 통계정리를 위해 『통계로 본 6.25전쟁』 등을 발간해 왔습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2020년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당 연구소와 국내외 축적된 전쟁사 연구를 토대로 전쟁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정리하여 이를 군 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사전 편찬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는 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 성과 확산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우선 6·25전쟁 사전을 위한 첫 시도로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전투 및 작전 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단계로 피·아 전투서열과 무기 및 장비 분야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우방 16개국과 공산군 측 3개국이 참전한 대규모 국제전쟁인 6·25전쟁은 전례 연구의 보고(寶庫)입니다. 전쟁시 매 전투는 대소(大小)를 막론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생사와 승패를 결정짓는 극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전쟁사가 일반 국민을 비롯해 특히 군에서 중요한 까닭은 평시에 전쟁의 교훈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상 항목의 선정은 연구소에서 발간한 『6·25전쟁사』(1~11)를 저본으로 하여 전쟁 전 기간의 전투 및 작전을 경중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이를 위해 1차로 전투항목 258개, 작전항목 118개 등 376개의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전쟁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38선 초기전투, 한강방어선 전투, 낙동강선 방어작전, 중공군 참전, 고지쟁탈전 등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연대급 이상 전투를 기준으로 소항목과 비중에 따라 316개 항목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집필진 구성은 육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소의 전쟁사부 연구원이 맡았고, 해·공군, 해병대, 중공군 항목은 관련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켰습니다. 항목별 서술 방식은 먼저 개요 부문에 전투 및 작전의 성격을 정리하고, 이어 지형의 특징, 전략 혹은 전술적 가치 평가, 전투 결과 및 영향 등을 기술하여 개별 전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본서가 6·25전쟁사의 주요 전투 및 작전에 대한 종합적이면서 압축적으로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군 장병 및 일반 독자의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교육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무기 및 장비, 전투서열 분야가 완성되어 『6·25전쟁 사전』이 발간되면 전쟁에 관한 이해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전쟁사부 연구원 및 외부 집필 위원, 감수를 맡아주신 양영조 군사사부장과 김광수 교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김철수





# CONTENTS

## I. 기획 주제

1. 38도선 초기 전투 [38度線 初期 戰鬪, 1950. 6. 25.~28.] • 017
2. 한강방어선 전투 [漢江防禦線 戰鬪, 1950. 6. 28.~7. 3.] • 025
3. 지연작전 [遲延作戰, 1950. 7. 1.~31.] • 030
4. 낙동강선 방어작전 [洛東江線 防禦作戰, 1950. 8. 1.~9. 23.] • 038
5. 인천상륙작전 [仁川上陸作戰, 1950. 9. 15.~18.] • 049
6. 서울탈환작전 [서울奪還作戰, 1950. 9. 16.~28.] • 057
7. 북진작전 [北進作戰, 1950. 10. 1.~20.] • 064
8. 중공군 참전 [中共軍 參戰, 1950. 10. 19.~1953. 7. 27.] • 072
9. 압록강-두만강 진격작전 [鴨綠江-豆滿江 進擊作戰, 1950.10. 21.~11. 30.] • 076
10. 38도선 철수작전 [38度線 撤收作戰, 1950. 12. 8.~1951. 1. 14.] • 085
11. 유엔군의 재반격작전 [UN軍의 再反擊作戰, 1951. 1. 15.~6. 14.] • 095
12. 휴전회담 [休戰會談, 1951. 7. 10.~1953. 7. 27.] • 105
13. 고지쟁탈전 [高地爭奪戰] • 112
14. 반공 유격전 [反共 遊擊戰, 1950. 6.~1953. 7.] • 118
15. 군사분계선 설정 [軍事分界線 設定] • 127
16. 포로교환 협상 [捕虜交換 協商, 1951. 12.~1953. 6.] • 132
17. 상병포로교환 작전 [傷病捕虜交換 作戰, 1953. 4. 20.~5. 3.] • 139
18. 포로송환 [捕虜送還, 1953. 8. 5.~9. 6.] • 142

---

## II. 전투 항목(육군편)

---

1. 웅진반도 전투 [甕津半島 戰鬪, 1950. 6. 25.~26.] • 149
  2. 청단-연백 전투 [靑丹-延白 戰鬪, 1950. 6. 25.] • 151
  3. 개성 전투 [開城 戰鬪, 1950. 6. 25.] • 154
  4. 고랑포 전투 [高浪浦 戰鬪, 1950. 6. 25.] • 155
  5. 임진강방어선 전투 [臨津江防禦線 戰鬪, 1950. 6. 25.~26.] • 158
  6. 양원리-초성리 전투 [兩遠里-哨城里 戰鬪, 1950. 6. 25.] • 162
  7. 동막동 전투 [同莫洞 戰鬪, 1950. 6. 25.] • 163
  8. 추동리-양문리 전투 [楸洞里-梁文里 戰鬪, 1950. 6. 25.] • 166
  9. 만세교-포천 전투 [萬世橋-抱川 戰鬪, 1950. 6. 25.~26.] • 167
  10. 송우리 전투 [松隅里 戰鬪, 1950. 6. 25.~26.] • 170
  11. 내촌 전투 [內村 戰鬪, 1950. 6. 25.~26.] • 172
  12. 옥산포 전투 [玉山浦 戰鬪, 1950. 6. 25.] • 174
  13. 어론리 전투 [於論里 戰鬪, 1950. 6. 25.~26.] • 176
  14. 현리 521고지 전투 [縣理 521高地 戰鬪, 1950. 6. 25.] • 178
  15. 잔교리-정족산 전투 [棧橋里-鼎足山 戰鬪, 1950. 6. 25.] • 179
  16. 연곡천 전투 [連谷川 戰鬪, 1950. 6. 25.~26.] • 181
  17. 광원리 전투 [廣院里 戰鬪, 1950. 6. 25.~26.] • 184
  18. 안목-옥계 전투 [安木-玉溪 戰鬪, 1950. 6. 25.] • 185
  19. 군선강 전투 [群仙江 戰鬪, 1950. 6. 25.~27.] • 187
  20. 김포 도하저지 전투 [金浦 渡河沮止 戰鬪, 1950. 6. 26.~27.] • 189
-

21. 장림-운유산 전투 [長林-雲遊山 戰鬪, 1950. 6. 26.~27.]	• 192
22. 동두천 역습 [東豆川 逆襲, 1950. 6. 26.]	• 193
23. 백석천 전투 [白石川 戰鬪, 1950. 6. 26.~27.]	• 196
24. 축석령-금오리 전투 [祝石嶺-金梧里 戰鬪, 1950. 6. 26.~27.]	• 198
25. 소양교 전투 [昭陽橋 戰鬪, 1950. 6. 26.]	• 201
26. 창동 전투 [倉洞 戰鬪, 1950. 6. 27.~28.]	• 203
27. 미아리 전투 [彌阿里 戰鬪, 1950. 6. 27.~28.]	• 205
28. 봉일천 전투 [奉日川 戰鬪, 1950. 6. 27.~28.]	• 207
29. 말고개 전투 [馬峴 戰鬪, 1950. 6. 27.~29.]	• 210
30. 서울시가지 전투 [서울市街地 戰鬪, 1950. 6. 28.]	• 213
31. 노량진 전투 [鷺梁津 戰鬪, 1950. 6. 28.~7. 3.]	• 215
32. 영등포 전투 [永登浦 戰鬪, 1950. 6. 28.~7. 3.]	• 218
33. 신사리 전투 [新沙里 戰鬪, 1950. 6. 28.~7. 3.]	• 220
34. 김포지역 전투 [金浦地域 戰鬪, 1950. 6. 28.~29.]	• 222
35. 원창고개 전투 [原昌峙 戰鬪, 1950. 6. 28.~29.]	• 224
36. 원미산-오류동 전투 [遠美山-梧柳洞 戰鬪, 1950. 6. 29.~7. 3.]	• 226
37. 울진 전투 [蔚珍 戰鬪, 1950. 7. 1.~2.]	• 228
38. 이천지역 전투 [利川地域 戰鬪, 1950. 7. 2.~3.]	• 230
39. 시흥-안양-군포 전투 [始興-安養-軍浦 戰鬪, 1950. 7. 4.]	• 232
40. 풍덕천 전투 [豐德川 戰鬪, 1950. 7. 4.]	• 234



## Ⅱ. 전투 항목(육군편)

- |   |       |
|---|-------|
| 41. 죽미령 전투 [竹美嶺 戰鬪, 1950. 7. 5.]            | • 236 |
| 42. 오산 갈곶리 전투 [烏山 葛串里 戰鬪, 1950. 7. 5.]      | • 239 |
| 43. 평택 전투 [平澤 戰鬪, 1950. 7. 6.]              | • 241 |
| 44. 무극리 전투 [無極里 戰鬪, 1950. 7. 5.~6.]         | • 243 |
| 45. 동락리 전투 [同樂里 戰鬪, 1950. 7. 6.~7.]         | • 245 |
| 46. 천안 전투 [天安 戰鬪, 1950. 7. 7.~8.]           | • 247 |
| 47. 진천 전투 [鎭川 戰鬪, 1950. 7. 7.~9.]           | • 249 |
| 48. 전의 전투 [全義 戰鬪, 1950. 7. 9.~10.]          | • 252 |
| 49. 조치원 전투 [烏致院 戰鬪, 1950. 7. 11.~12.]       | • 255 |
| 50. 미호천 전투 [美湖川 戰鬪, 1950. 7. 11.~13.]       | • 257 |
| 51. 가장동 전투 [佳壯洞 戰鬪, 1950. 7. 11.~13.]       | • 259 |
| 52. 공주 전투 [公州 戰鬪, 1950. 7. 12.~14.]         | • 260 |
| 53. 대평리 전투 [大坪里 戰鬪, 1950. 7. 12.~16.]       | • 262 |
| 54. 영덕 전투 [盈德 戰鬪, 1950. 7. 14.~8. 9.]       | • 265 |
| 55. 풍기-안동 전투 [豊基-安東 戰鬪, 1950. 7. 14.~8. 1.] | • 267 |
| 56. 미원 전투 [米院 戰鬪, 1950. 7. 15.~23.]         | • 271 |
| 57. 고은리 전투 [高隱里 戰鬪, 1950. 7. 16.~18.]       | • 273 |
| 58. 화령장 전투 [化寧場 戰鬪, 1950. 7. 17.~24.]       | • 276 |
| 59. 대전 전투 [大田 戰鬪, 1950. 7. 19.~20.]         | • 279 |
| 60. 함양-거창 전투 [咸陽-居昌 戰鬪, 1950. 7. 25.~29.]   | • 282 |
| 61. 하동 전투 [河東 戰鬪, 1950. 7. 25.~27.]         | • 284 |
| 62. 함창 전투 [咸昌 戰鬪, 1950. 7. 28.~29.]         | • 286 |

63. 강경 전투 [江景 戰鬪, 1950. 7. 28.~31.]	• 289
64. 진주 전투 [晉州 戰鬪, 1950. 7. 28.~31.]	• 290
65. 권빈리 전투 [勸賓里 戰鬪, 1950. 7. 30.~8. 1.]	• 291
66. 용기동 전투 [龍基洞 戰鬪, 1950. 8. 1.~11.]	• 293
67. 낙정리 전투 [洛井里 戰鬪, 1950. 8. 2.~12.]	• 296
68. 의성 전투 [義城 戰鬪, 1950. 8. 3.~13.]	• 299
69. 영산 전투 [靈山 戰鬪, 1950. 8. 5.~19.]	• 301
70. 킨 특수부대 작전 [Kean 特殊部隊 作戰, 1950. 8. 7.~12.]	• 304
71. 금무봉 전투 [錦舞峰 戰鬪, 1950. 8. 9.~13.]	• 307
72. 보현산 전투 [普賢山 戰鬪, 1950. 8. 9.~28.]	• 308
73. 기계 전투 [杞溪 戰鬪, 1950. 8. 9.~18.]	• 311
74. 포항 전투 [浦項 戰鬪, 1950. 8. 9.~9. 14.]	• 313
75. 수암산-유학산 전투 [水岩山-遊鶴山 戰鬪, 1950. 8. 13.~30.]	• 316
76. 다부동 전투 [多富洞 戰鬪, 1950. 8. 13.~28.]	• 318
77. 작오산 전투 [鵲烏山 戰鬪, 1950. 8. 14.~17.]	• 322
78. 군위-의흥 지역 전투 [軍威-義興 戰鬪, 1950. 8. 15.~28.]	• 323
79. 비학산 전투 [飛鶴山 戰鬪, 1950. 8. 18.~26.]	• 325
80. 안강 전투 [安康 戰鬪, 1950. 8. 27.~9. 13.]	• 327
81. 가산-팔공산 전투 [架山-八公山 戰鬪, 1950. 8. 30.~9. 14.]	• 329
82. 조림산 전투 [鳥林山 戰鬪, 1950. 8. 30.~9. 4.]	• 332
83. 창녕 전투 [昌寧 戰鬪, 1950. 8. 31.~9. 9.]	• 334
84. 마산 서북방 전투 [馬山 西北方 戰鬪, 1950. 8. 31.~9. 6.]	• 337

## Ⅱ. 전투 항목(육군편)

- |  |       |
|--|-------|
| 85. 수암산 전투 [水岩山 戰鬪, 1950. 9. 2.~5.]                                | • 339 |
| 86. 가산 전투 [架山 戰鬪, 1950. 9. 2.~11.]                                 | • 342 |
| 87. 기룡산 전투 [騎龍山 戰鬪, 1950. 9. 2.~5.]                                | • 344 |
| 88. 호명리 전투 [虎鳴里 戰鬪, 1950. 9. 4.~13.]                               | • 346 |
| 89. 화산 전투 [花山 戰鬪, 1950. 9. 5.~15.]                                 | • 347 |
| 90. 영천 전투 [永川 戰鬪, 1950. 9. 6.~13.]                                 | • 349 |
| 91. 314고지 전투 [314高地 戰鬪, 1950. 9. 11.~12.]                          | • 351 |
| 92. 다부동 방면 돌파 [多富洞 方面 突破, 1950. 9. 16.~22.]                        | • 353 |
| 93. 창녕-영산 방면 반격전 [昌寧-靈山 方面 反擊戰, 1950. 9. 16.~22.]                  | • 354 |
| 94. 마산 방면 반격전 [馬山 方面 反擊戰, 1950. 9. 16.~23.]                        | • 357 |
| 95. 신녕 방면 반격전 [新寧 方面 反擊戰, 1950. 9. 16.~22.]                        | • 358 |
| 96. 의성 방면 반격전 [義城 方面 反擊戰, 1950. 9. 16.~22.]                        | • 360 |
| 97. 형산강 전투 [兄山江 戰鬪, 1950. 9. 16.~22.]                              | • 362 |
| 98. 양양-통천 진격전 [襄陽-通川 進擊戰, 1950. 10. 1.~9.]                         | • 364 |
| 99. 서림-안변 진격전 [瑞林-安邊 進擊戰, 1950. 10. 1.~9.]                         | • 366 |
| 100.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 [湖南地區 Guerrilla 討伐作戰, 1950. 10. 4.~1951. 4. 6.] | • 368 |
| 101. 춘천-신고산 진격전 [春川-新高山 進擊戰, 1950. 10. 5.~19.]                     | • 370 |
| 102. 개성-금천 진격전 [開城-金川 進擊戰, 1950. 10. 9.~14.]                       | • 372 |
| 103. 구화리-시변리 진격전 [九化里-市邊里 進擊戰, 1950. 10. 11.~14.]                  | • 374 |
| 104. 원산 탈환작전 [元山 奪還作戰, 1950. 10. 10.~11.]                          | • 376 |
| 105. 황주-울리 진격전 [黃州-栗里 進擊戰, 1950. 10. 15.~17.]                      | • 379 |
| 106. 영흥-함흥-성진 진격전 [永興-咸興-城津 進擊戰, 1950. 10. 16.~30.]                | • 381 |

107. 평양 탈환전 [平壤 奪還戰, 1950. 10. 18.~20.]	• 383
108. 숙천·순천 공수작전 [肅川-順川 空輸作戰, 1950. 10. 20.~22.]	• 386
109. 순천-개천-희천 진격전 [順川-介川-熙川 進擊戰, 1950. 10. 20.~22.]	• 388
110. 영변-운산 진격전 [寧邊-雲山 進擊戰, 1950. 10. 22.~31.]	• 390
111. 초산 진격전 [楚山 進擊戰, 1950.10. 23.~26.]	• 392
112. 덕천-희천 진격전 [德川-熙川 進擊戰, 1950. 10. 24.~26.]	• 395
113. 온정리-초산 전투 [楚山-溫井里 戰鬪, 1950. 10. 24.~30.]	• 396
114. 운산 전투 [雲山 戰鬪, 1950. 10. 26.~11. 3.]	• 399
115. 혜산진 진격작전 [惠山鎭 進擊作戰, 1950. 10. 27.~11. 28.]	• 401
116. 합수-백암 진격작전 [合水-白岩 進擊作戰, 1950. 10. 27.~11. 30.]	• 403
117. 구성-정거동 진격작전 [龜城-停車洞 進擊作戰, 1950. 10. 29.~11. 1.]	• 405
118. 개천-비호산 전투 [介川-飛虎山 戰鬪, 1950. 11. 1.~7.]	• 407
119. 길주-청진 진격작전 [吉州-淸津 進擊作戰, 1950. 11. 1.~30.]	• 409
120. 덕천 전투 [德川 戰鬪, 1950. 11. 22.~26.]	• 411
121. 영원-맹산 전투 [寧遠-孟山 戰鬪, 1950. 11. 23.~27.]	• 413
122. 구장동 전투 [球場洞 戰鬪, 1950. 11. 24.~28.]	• 416
123. 와원 전투 [瓦院 戰鬪, 1950. 11. 27.~30.]	• 417
124. 군우리 전투 [軍隅里 戰鬪, 1950. 11. 29.~12. 1.]	• 419
125. 평양철수 작전 [平壤撤收 作戰, 1950. 11. 30.~12. 4.]	• 422
126. 합수-청진-흥남 철수전 [合水-淸津-興南 撤收戰, 1950. 12. 1.~16.]	• 424
127. 흥남철수 작전 [興南撤收 作戰, 1950. 12. 14.~24.]	• 426
128. 춘천-인제 부근 전투 [春川-麟蹄 附近 戰鬪, 1950. 12. 24.~1951. 1. 6.]	• 429

## II. 전투 항목(육군편)

- |  |       |
|--|-------|
| 129. 임진강 부근 전투 [臨津江 附近 戰鬪, 1950. 12. 31.~1951. 1. 3.]          | • 434 |
| 130. 동두천 부근 전투 [東豆川 附近 戰鬪, 1950. 12. 31.~1951. 1. 3.]          | • 438 |
| 131. 원주 전투 [原州 戰鬪, 1951. 1. 6.~12.]                            | • 441 |
| 132. 적성리 전투 [赤城里 戰鬪, 1951. 1. 12.~15.]                         | • 444 |
| 133. 남대리 전투 [南大里 戰鬪, 1951. 1. 15.~19.]                         | • 446 |
| 134. 영월 전투 [寧越 戰鬪, 1951. 1. 19.~24.]                           | • 449 |
| 135. 김랑장 전투 [金良場 戰鬪, 1951. 1. 25.~27.]                         | • 452 |
| 136. 수리산 전투 [修理山 戰鬪, 1951. 1. 31.~2. 6.]                       | • 455 |
| 137. 모락산 전투 [慕洛山 戰鬪, 1951. 1. 31.~2. 4.]                       | • 458 |
| 138. 관악산 전투 [冠岳山 戰鬪, 1951. 2. 9.]                              | • 460 |
| 139. 라운드업 작전 [Round-up 作戰, 1951. 2. 5.~11.]                    | • 461 |
| 140. 횡성 전투 [橫城 戰鬪, 1951. 2. 11.~12.]                           | • 465 |
| 141. 평창 부근 전투 [平昌 附近 戰鬪, 1951. 2. 12.~18.]                     | • 468 |
| 142. 지평리 전투 [砥平里 戰鬪, 1951. 2. 13.~16.]                         | • 470 |
| 143. 태백산지구 게릴라 토벌작전 [太白山地區 Guerrilla 討伐作戰, 1951. 2. 13.~4. 8.] | • 474 |
| 144. 킬러 작전 [Killer 作戰, 1951. 2. 21.~3. 7.]                     | • 476 |
| 145. 리퍼 작전 [Ripper 作戰, 1951. 3. 7.~25.]                        | • 479 |
| 146. 제2차 서울탈환작전 [第二次 서울奪還作戰, 1951. 3. 7.~16.]                  | • 483 |
| 147. 러기드 작전 [Rugged 作戰, 1951. 4. 3.~9.]                        | • 486 |
| 148. 돈틀리스 작전 [Dauntless 作戰, 1951. 4. 11.~22.]                  | • 489 |
| 149. 설마리 전투 [雪馬里 戰鬪, 1951. 4. 22.~25.]                         | • 492 |
| 150. 금굴산 전투 [金窟山 戰鬪, 1951. 4. 22.~23.]                         | • 496 |

151. 파평산 전투 [坡平山 戰鬪, 1951. 4. 22.~25.]	• 499
152. 장승천 전투 [長承川 戰鬪, 1951. 4. 22.~23.]	• 502
153. 울동 전투 [栗洞 戰鬪, 1951. 4. 22.~23.]	• 504
154. 사창리 전투 [史倉里 戰鬪, 1951. 4. 22.~24.]	• 507
155. 가평 전투 [加平 戰鬪, 1951. 4. 23.~25.]	• 511
156. 서울 방어작전 [서울 防禦作戰, 1951. 4. 26.~30.]	• 514
157. 매봉-한석산 전투 [鷹峯-寒石山 戰鬪, 1951. 5. 7.~10.]	• 517
158. 설악산 부근 전투 [雪嶽山 附近 戰鬪, 1951. 5. 8.~13.]	• 519
159. 현리 전투 [縣里 戰鬪, 1951. 5. 16.~22.]	• 522
160. 벙커고지 전투 [Bunker高地 戰鬪, 1951. 5. 17.~19.]	• 528
161. 용문산 전투 [龍門山 戰鬪, 1951. 5. 17.~22.]	• 531
162. 캔자스선 진출작전 [Kansas Line 進出作戰, 1951. 5. 20.~28.]	• 534
163. 철원-김화 진격전 [鐵原-金化 進擊戰, 1951. 6. 3.~11.]	• 539
164. 신캔자스선 진출작전 [New Kansas Line 進出作戰, 1951. 6. 4.~19.]	• 541
165. 대성산-취봉 진격전 [大成山-鷲峯 進擊戰, 1951. 6. 5.~11.]	• 546
166. 노전평 전투 [盧田坪 戰鬪, 1951. 8. 9.~9. 18.]	• 549
167. 924고지 전투 [924高地 戰鬪, 1951. 8. 18.~23.]	• 552
168. 884고지 전투 [884高地 戰鬪, 1951. 8. 18.~29.]	• 555
169. 피의 능선 전투 [血의 稜線 戰鬪, 1951. 8. 18.~9. 5.]	• 558
170. 가칠봉지구(1211고지) 전투 [加七峰地區 (1211高地) 戰鬪, 1951. 8. 31.~10. 14.]	• 561
171. 단장의 능선 전투 [斷腸의 稜線 戰鬪, 1951. 9. 13.~10. 15.]	• 565
172. 백석산 전투 [白石山 戰鬪, 1951. 9. 24.~10. 1.]	• 569





6·25 전쟁  
주요 전투

기획 주제

---







## 38도선 초기 전투

(기획)

[38度線 初期 戰鬪, 1950. 6. 25.~28.]

### 개요

38도선 초기전투는 국군이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38도선 전 전선에서 남침하는 북한군을 방어하면서 치른 전투로서 서부지역인 웅진반도와 개성·문산 지역 전투, 중서부지역인 동두천·포천·의정부 지역 전투, 중동부지역인 춘천·홍천지역 전투, 그리고 동부지역인 동해안지역 전투로 구분할 수 있다.

### 전개과정

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던 북한군의 야포들이 남쪽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시작하면서 북한군 기동부대가 웅진반도로부터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한군 제766부대와 제945육전대가 동해안의 정동진과 임원진에 각각 상륙하였다.

북한군은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의 격멸’이라는 제1단계 작전목표를 가지고 제1·제2군단이 협조된 공격을 감행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군단장 김웅 중장)은 경기도 연천과 운천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축선과 개성에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접근로에 전투력을 집중하였고, 중부전선의 춘천과 동부전선의 강릉 북쪽에서는 북한군 제2군단(군단장 김광협 소장)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북한군 제2군단의 3개 사단은 화천-춘천, 인제-홍천, 동해안 등 3개 축선에서 남하하였다.

따라서 6·25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개시된 38도선의 초기전투는 ①웅진반도와 개성·문산 지역 전투, ②동두천·포천·의정부 지역 전투, ③춘천·홍천지역 전투, ④동해안 지역 전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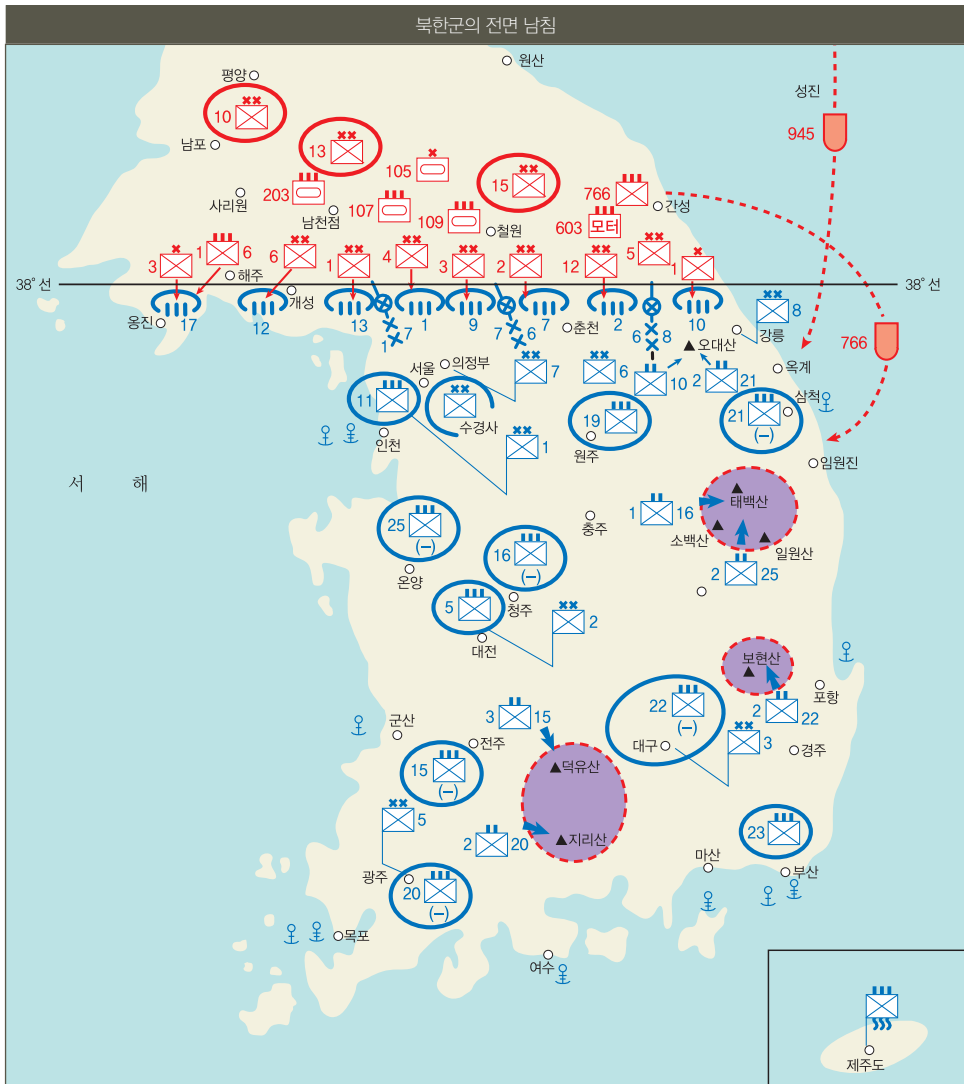
#### (1) 웅진반도와 개성·문산 지역 전투

남침을 시작한 북한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으로 국군의 38도선 방어진지를 곳곳에서 돌파하는 가운데 국군은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웅진, 개성·문산, 동두천·포천, 춘천·홍천 그리고 강릉지역에서 결사적으로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황해도 웅진반도에는 국군 제17연대가 45km의 넓은 정면을 담당해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제17연대는 2개 대대를 38도선에 배치하고, 1개 대대는 예비로 웅진 부근에 배치하여 불과 7~8km의 중심을 가진 전투지대를 방어하고 있었다.

6월 25일, 용진을 공격한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와 제3경비여단은 용진반도를 조기에 장악한 다음 연백-개성-문산 방향으로 병력을 전환하여 서울 공격을 증원하겠다는 기도 하에 6월 23일부터 병력과 차량을 공격대기지점에 이동시키는 등 공격징후를 보였으며 25일 새벽 4시를 기하여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국군 제17연대는 오전 7시경에 용진 정면이 위급하게 됨으로써 예비대를 투입하여 북한군을 방어하고자 하였으나 북한군이 대대 간의 전투지경선인



취야-양원, 취야-강령 국도를 통하여 제1연대를 공격하여 국군 방어지역은 이날 오후 1시경에 동서로 분리되었다.

주저항선이 동서로 분리되자 국군 제17연대는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연대본부와 직할대 및 제3대대가 부포항에서 26일 오전 해군 함정을 이용하여 철수하였고, 제1·제2대대와 연대직할대 낙오병들이 백령도 사곶항에서 민간선박을 이용하여 철수하였다. 웅진에서 철수한 국군 제17연대는 27~28일 사이에 인천을 경유, 수원으로 집결하여 육군 본부의 예비가 되었다.

개성에서 문산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접근로에는 국군 제1사단이 청단에서부터 고랑포까지 약 94km의 넓은 정면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1사단은 제12연대와 제13연대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예비인 제11연대가 경기도 수색(現 서울 수색동)에서 교육훈련 중이었다. 사단은 천연 장애물인 임진강 남안을 주진지로 정하고 예성강 철교와 임진교의 방어 및 파괴 계획을 세워 두고 있었다.

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는 북한군 제203전차연대(-)의 지원을 받는 제1사단(사단장 최광 소장)과 제6사단(-)이 공격해 왔다. 북한군 제1사단은 25일 오전 4시~4시30분에 제13연대 정면으로, 제6사단(-)은 좌측 연백지구의 제12연대 정면으로 각각 전면 공격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의 강력한 기습공격으로 38도선에 배치된 부대들이 각 개 격파되었다.

국군 제1사단은 38도선 경계진지에서 철수한 부대들을 임진강 남쪽 주저항선에 배치하는 한편, 예비연대인 제11연대를 수색에서 급히 문산지구로 진출시켜 임진교를 중심으로 한 문산돌출부 일대에 중심으로 배치하고 공병대대에는 제12연대 주력이 임진강 철교를 건너 철수하면 철교를 폭파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명령 전달과정의 혼란과 기술 부족으로 철교폭파는 실패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문산 북쪽의 임진강변과 적성-덕현리-장파리를 연결하는 파평산(△496) 전방에서 동시에 북한군 제1사단 주력 부대에 대항하여 공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6월 26일 국군 제11연대 전방의 폭파되지 않은 임진강 철교를 통해 5대의 전차를 선두로 보·전·포 협동으로 일제히 공격을 하면서 제13연대의 동측방으로 우회 공격을 가하였다. 이 공격으로 국군 제11연대는 문산 남쪽 구릉지대에 일시적으로 철수를 하였다가 반격하여 주진지를 회복하였지만, 파평산의 제13연대 주저항선이 무너짐으로써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제1사단 주력은 이곳을 통해 금곡리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27일 아침까지 봉일천 북쪽의 위전리-도내리를 연하는 최후저항선으로 주력의 이동을 완료한 국군 제1사단은 제13연대와 증원된 제15연대를 전방에, 제11연대를 예비로 하여 문산-

서울 간 국도를 중심으로 중심 배치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이곳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정하고 28일 오전까지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주저항선 진지를 회복하기 위한 반격작전을 시도하였다.

## (2) 동두천·포천·의정부 지역 전투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의정부 북방 국군 제7사단 정면에서는 북한군 제3사단이 운천에서 포천으로, 제4사단이 연천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각각 제109·제107전차연대와 협동하여 남하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은 동두천 축선에 제4사단과 1개 전차대대를, 포천 축선에 제3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을 각각 투입하고, 제13·제15사단을 제2계대로 운용하였다. 이 지역에서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투력은 국군보다 병력면에서 7배, 화력면에서 18배나 우세하였다.

북한군 주공이 지향된 의정부 북방의 국군 제7사단은 적성에서 사직리까지 47km 정면을 방어하였다. 제1연대가 동두천 정면을, 제9연대가 포천 정면을 각각 담당하였는데 각 연대에서는 1개 대대만을 38도선 경계임무에 투입하고 주력은 교육훈련 중이었다. 그리고 당시 국군 제7사단은 예하의 제3연대가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 변경되고, 그 대신 온양의 제3사단 제25연대가 편입되도록 명령이 하달되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아 사단예비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북한군이 공격을 시작하자 국군 제7사단은 전방에 배치된 경계부대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하면서 의정부에서 교육훈련 중이던 제1연대와 제9연대를 북한군 접근로의 주진지인 감악산-마차산-소요산-가랑산-천주산을 연하는 주저항선에 배치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동두천 북방 제1연대 정면의 북한군 제4사단은 전곡-초성리-동두천 축선에 전차 2개 대대로 증강된 제16연대를 주공으로 투입하고, 그 서쪽의 적암-봉암리 축선에 제18연대를 조공으로 투입하여 병진공격 하였다. 이들은 전곡에서 한탄강을 건너 국군 제1연대의 38도선 경계진지를 돌파하고 초성리를 거쳐 동두천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그 동안 국군 제1연대 주력이 소요산 일대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

국군 제1연대는 정오 무렵에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제16연대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오후 3시경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으로 소요산 일대 주저항선에서 철수하였고, 해질 무렵에는 북한군이 동두천 시내까지 진입하였다. 국군 제1연대는 밤 10시경 덕정 지역으로 철수하였으나 제1연대의 38도선 경계부대였던 제2대대는 본대와 합류하지 못하고 평촌을 거쳐 퇴계원으로 철수하였다.

포천의 제9연대 지역에서는 북한군 제3사단에 배속된 기계화 부대가 오전 11시경에 포천을 점령하고, 전차의 엄호 하에 보병부대 주력이 오후 2시경 천주산과 가랑산을 연하는 연대의 주저항선을 돌파해 오후 4시경 포천 읍내까지 진입하였다. 국군 제9연대는 개전 당일 주저항선이 조기에 붕괴되자 야간을 이용하여 광릉으로 철수한 후 다음 날 태릉까지 철수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는 통신 두절로 철수명령을 받지 못해 계속 진지를 지키다가 철수시기를 놓쳐 많은 피해를 입고 좌인접 제1연대 지역인 덕정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이 25일 오전 중에 포천을 점령하고, 제4사단이 이날 해질 무렵 동두천 시내에 진입함으로써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위태롭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서울 부근에 주둔한 부대뿐만 아니라 대전의 국군 제2사단, 대구의 국군 제3사단, 광주의 국군 제5사단 등 후방에 있는 부대들을 의정부지역으로 투입시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서울에 도착한 각각의 단위부대들은 후속하는 본대와 합류하지 못한 상태로 전선에 투입되어 대부분의 부대들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다음 날인 26일 아침 제1연대와 증원된 제18연대를 역습에 투입하여 동두천을 탈환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2사단의 포천 공격이 실패하고, 포천 축선에서 공격하던 북한군 제3사단에 의해 동두천 후방인 의정부가 함락되면서 동두천에 진입한 부대들의 퇴로가 차단되었다. 이에 따라 제1연대는 창동지역으로, 제18연대는 고양을 경유해 28일 김포반도로 분산 철수하였다.

### (3) 춘천·홍천지역 전투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6사단은 제7연대를 춘천, 제2연대를 홍천 북동쪽에 배치하고, 제19연대를 예비로 원주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사단은 적목리(現 경기도 가평군 북면 소재)에서 진흥동(現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소재)까지 84km에 이르는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국군 제6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국군을 포위 섬멸하고 고속기동부대를 수원 이남으로 우회시켜 국군의 퇴로 및 병력증원을 차단한다는 총참모부 남침계획의 제1단계 작전목표에 기여하도록 이 지역에 제2군단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화천-춘천 축선에는 제2사단이, 인제-홍천 축선에는 제12사단과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가 투입되었으며, 제5사단(-)이 제2제대로 운용되었다. 이 지역에서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투력은 국군보다 병력면에서 4배, 화력면에서 10배나 우세하였다.

화천-춘천 축선을 담당한 국군 제7연대는 북한군의 주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천-춘천 방면에 1개 대대를, 조공 축선으로 예상되는 양구-춘천 방면에 1개 대대를, 그리고 화천-가평 간 접근로에 2개 중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이 지역으로 공격하는 북한군 제2사단은 춘천과 가평을 점령한 후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한다는 작전계획에 따라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를 화천-춘천과 화천-가평 축선에 투입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화천-춘천 간 도로에 있는 모진교(소양강댐 공사로 수몰됨)는 북한군 기계화 부대가 북한강을 건너 춘천으로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교량이었다. 그러나 모진교 폭파에 실패한 국군 제7연대는 SU-76 자주대전차포를 앞세운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38도선 경계진지로부터 철수하여 소양강 북안 164고지와 우두산 일대에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소양강을 도하하여 춘천을 점령하고자 했던 북한군은 개활지에 노출된 채로 정면공격을 반복하여 국군 제6사단 제16포병대대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결국 개전 첫날 소양강을 건너 춘천을 점령하려던 북한군의 계획은 실패하였다.

6월 26일에는 원주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9연대가 춘천지역으로 증원되었다. 이로써 이 지역은 국군 제6사단 주력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사단은 소양강변 및 봉의산 일대에 예비진지를 편성하고 6월 27일까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한 후 춘천 외곽의 원창고개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또한 화천-가평 축선의 제3대대(-)도 고수령과 홍적령 등에서 북한군을 저지한 후 6월 27일 금곡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홍천 북방의 국군 제2연대 정면에는 북한군 제12사단이 자주대전차포를 앞세우고 공격해 왔다. 북한군 제2군단의 주공부대인 제12사단은 국군의 퇴로 및 증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제-홍천 축선으로 진출하여 홍천을 점령한 후 홍천-여주 방향으로 진격하려 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을 받은 국군 제2연대 주력은 38도선 경계진지에서 철수하여 어론리(現 강원도 인제군 남면 소재) 일대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이후 자은리(現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소재)를 거쳐 말고개 일대에 최후저항선을 구축한 제2연대는 홍천을 점령하기 위해 4차에 걸쳐 총공격을 감행한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한 후 지연전을 펼치면서 홍천으로 철수하였다. 또한 인제-현리 축선의 국군 제2연대 제3대대도 하담-운니산에 이르는 38도선 상의 경계진지에서 북한군과 교전한 후 철수하여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서 본대와 합류하였다.

춘천·홍천지역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춘천의 옥산포와 소양교, 그리고 홍천 북방의 말고개 등지에서 특공대원들이 대전차포와 수류탄으로 북한군의 SU-76 자주대전차포 10여 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국군 제6사단이 3일 동안 춘천과 홍천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지연함으로써 수원 방면으로 우회하여 국군의 퇴로와 증원병력을 차단하려던 북한군 제2군단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국군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한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 (4) 동해안지역 전투

동해안지역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8사단은 제10연대를 38도선에 배치하고, 제21연대를 예비로 삼척에 집결·보유하고 있었다. 사단의 책임지역은 제6사단과 협조점인 진흥동(現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소재)에서 동해안 기사문리(現 강원도 고성군 소재)에 이르는 26km였다. 사단의 방어계획은 유사시 예비인 제21연대를 전방에 투입하여 2개 연대로 38도선에서 북한군을 저지·격멸하고 강릉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6월 중순에 침투한 북한의 무장유격대를 토벌하기 위해 각 연대에서 1개 대대씩 2개 대대를 차출하여 오대산과 계방산 일대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북한군이 전면남침을 개시하였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가용병력은 4개 대대뿐이었다.

국군 제8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제5사단 제10연대를 제1경비여단에 배속시켜 주력으로 동해기도 북쪽에서 국군 제10연대를 정면 공격하게 하고,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 상륙한 제945육전대와 제766부대로 국군 제21연대의 증원을 차단하는 가운데 일부 병력을 북상시켜 강릉 북쪽 연곡천 일대에서 국군 제10연대를 협공하려 하였다. 그리고 일부 경비여단 병력을 산악지대로 침투시켜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북한군 제1경비여단은 6월 25일 새벽에 공격준비사격과 동시에 38도선을 돌파해 주공부대가 주문진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조공부대가 장리와 서림리의 계곡 접근로를 따라 남하하였다. 그리고 인제 방면에서 제1경비여단의 경보병 4개 대대가 내린천을 따라 남하하였다.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으로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는 화상천에서 주저항선인 연곡천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제21연대는 게릴라 소탕작전을 위해 광활한 지역에 분산 배치되었다가 동해안에 상륙한 북한군 상륙부대를 색출 격멸하고 전방 방어부대 증원을 위해 북상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북한의 제1경비여단과 동해안 상륙부대로부터 남북 협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자 제21연대의 일부 병력을 안인리-언별리를 연하는 군선천 선에 투입하여 북한군 상륙부대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국군 제8사단 주력은 연곡천과 사천 일대에서 27일까지 강릉을 사수해 북한군의 초기전투 작전계획에 큰 차질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제8사단은 작전지역 내 공공기관과 군인 가족을 포함한 주민들을 피난 및 소개시키는 등 장기전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



하기도 하였다.

27일 대관령으로 철수한 국군 제8사단은 재편성을 마치고 다음 날 강릉을 목표로 반격을 감행하여 강릉 부근까지 진출하던 중에 다른 사단과의 전선 균형을 위해 하달된 육군본부 철수명령에 따라 반격을 중단하고 대관령으로 철수한 후 대화를 거쳐 제천으로 이동하였다.

### 결과 및 영향

6·25전쟁 첫날 대한민국의 모습은 국가정책차원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실질적인 비상계획과 구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안보정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북한군의 남침 준비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도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남침 이후에도 전 전선에 걸친 전면남침이라는 사실 파악이 지연되어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정부 및 군 수뇌부의 비현실적인 현황분석으로 조치가 다소 부적절하였으며 전방에 배치된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조차 북한군의 전면남침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축차적인 병력투입으로 초기전투에서 다소 전력 소모가 있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지휘력은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다.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현저하게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 유엔이 참전을 결의하고 미국이 지상군을 한국전선에 파병하기까지 서부전선에서 거의 무방비로 있던 국군은 북한군 주력부대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강선 북쪽에서 거의 육탄으로 싸우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관문인 중서부지역 전선이 붕괴되자 그 파급영향은 거의 전 전선에 미치게 되었고, 특히 의정부전선의 붕괴는 북한군에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는 결과까지 도래하게 되었다.

중동부지역인 춘천과 홍천 등에서는 북한군 제2군단이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섬멸하기 위하여 수원 이남으로 위회하여 공격하려 하였으나 국군 제6사단에 의해 춘천과 홍천 방면으로의 진출이 5일이나 지연되었다. 동부지역에서도 국군 제8사단에 의해 5일이나 지체되어 삼척을 점령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②, 200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교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란1년지』, 19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한강방어선 전투

(기획)

[漢江防禦線 戰鬥, 1950. 6. 28. ~7. 3.]

### 개요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서울이 함락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와해된 부대를 수습하여 북한군 보다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 한강 남쪽에 방어선을 구축해 북한군 제1군단 예하 보병 3개 사단 및 전차 1개 여단의 한강 도하를 6일간 저지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한강은 평균 강폭이 700~1,000미터, 수심이 3.5미터에 이르러 이곳을 건너지 않고는 왕래가 불가능했으므로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시키는 데에 가장 양호한 천연 장애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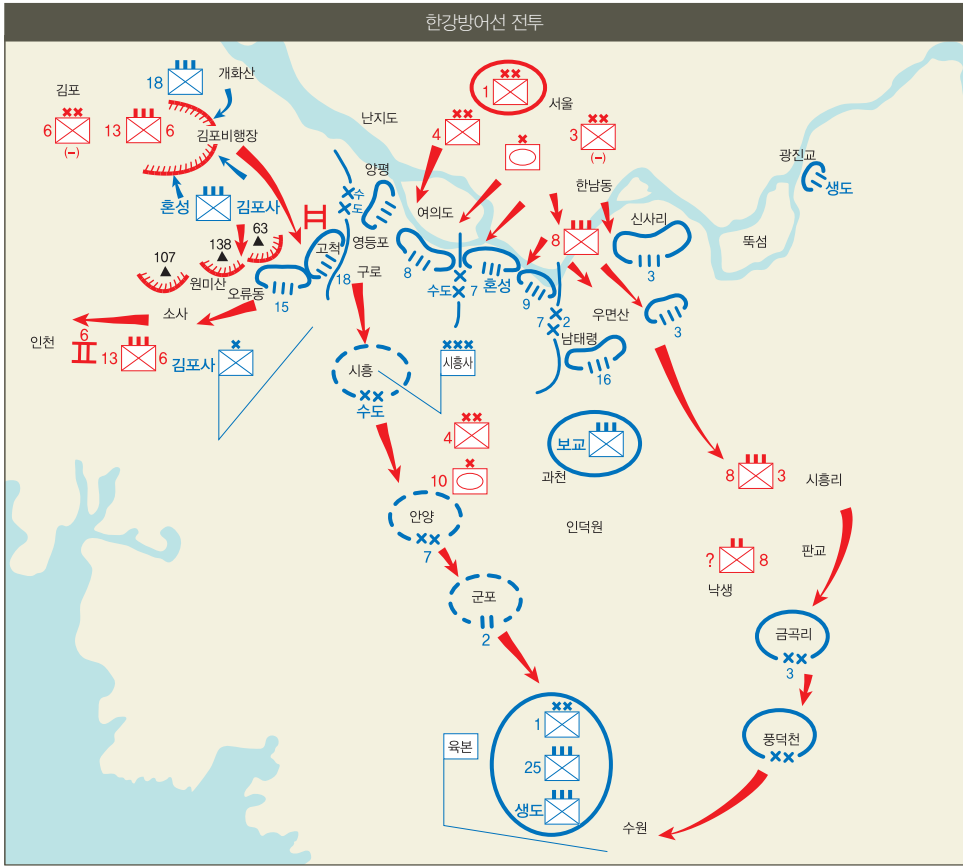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제1군단(군단장 김웅 중장)은 주력인 제3,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으로 한강도하를 서두르는 한편, 미군 참전을 의식해 제6사단으로 경인가도를 차단해 영등포에서 한강방어선을 펴고 있는 아군의 좌측면을 위협하면서 인천항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에 맞서 육군본부는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기 위해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한강 이북과 이남을 잇는 한강인도교와 함께 철교를 함께 폭파시켰다. 또한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 병력을 규합하여 오늘날 양화교에서 광진교에 이르는 24km 구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군의 한강도하 및 남진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 시흥지구전투사령부 편성

북한군 전차가 1950년 6월 28일 새벽 1시에 미아리 고개를 넘어섬으로써, 서울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졌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서울을 점령하였다고 공식 선포했으나, 곧 한강을 도하하지는 않았다. 이 사이 국군은 철수한 병력을 수습해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여 한강선에서 미 지상군이 지원할 때까지 현 전선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채병덕 육군참모장은 28일 오전 육군본부를 수원 농업시험장으로 이동시킨 후, 광복군 참모장 출신으로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 지휘 경험이 있는 육군참모학교장인 김홍일 소장을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한강선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은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을 혼성제7사단장, 수도사단장 이종찬 대령을 혼



성수도사단장, 제2사단장 임선하 대령을 혼성제2사단장에 임명하여 한강 이남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혼성수도사단은 제8연대, 제18연대, 기갑연대 제1장갑대대 등이었고, 혼성제2사단은 제3연대, 제5연대, 제16연대, 보병학교 혼성연대(혼성대대), 기갑연대(제2기병대대) 등이었다. 혼성제3사단은 제22연대, 제25연대, 사관학교 생도대 등이었고, 혼성제7사단은 제1연대 혼성대대, 제9연대 혼성대대, 제20연대 혼성대대, 제25연대 혼성 제2대대, 제15연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그렇지만 혼성수도사단, 혼성제7사단, 혼성제2사단은 각각 연대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병력이었고, 공용화기도 연대 당 박격포 2~3문, 기관총 5~6정에 지나지 않아 M1 소총이나 카빈총으로 무장한 소총 부대 수준이었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제한된 병력과 무기로는 역습이나 기습에 의한 조직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한강 남안에 병력을

배치하여 자연 방어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의 도하를 저지시키려 했다.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주요 작전지역은 여의도 비행장을 포함한 영등포, 노량진, 신사리에 이르러 오늘날 양화교에서 말죽거리를 잇는 선이었다. 혼성제7사단은 7개 대대 병력으로 노량진-영등포간 강변 지역과 동작동-노량진 간 고지 지대를 맡았다. 혼성수도사단은 3개 대대 병력과 1개 장갑대대, 57mm 대전차포 2개 소대로 김포 방면과 여의도 비행장을 포함한 영등포 지역에 배치했다. 혼성제2사단은 신사리-말죽거리 방면에 배치되었다. 이산포-행주에서 도하 철수한 제1사단은 시흥에 집결하여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예비대가 되었다. 또한 혼성제3, 5사단의 일부 병력을 전방부대에 보강하여 한강 남안을 잇는 선에 배치하고 적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김포지역에서는 김포지구전투사령부가 북한군 제6사단(-)의 영등포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실제로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통신망의 미비로 주로 혼성제7사단과 혼성수도사단이 지키고 있는 노량진-영등포의 방어에 치중하였다. 혼성제2사단은 관악산에 가로막혀 수원에 있는 육군본부가 직접 지휘했다. 김포지구사령부는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용되었지만, 6월 28일 북한군 제6사단은 국군 지휘부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김포반도로 도하해 김포비행장을 점령했고 영등포 방면 한강방어선 측 후방을 위협했다.

### 공방전 전개

북한군은 6월 29일부터 국군의 방어선을 탐색하면서 선발적인 포격과 주공인 제4사단을 여의도 방면으로, 제3사단은 흑석동 및 신사리 방면으로 도하시키려 했다. 그들은 서울 시가지 점령 과정에서 국군의 추격과 한강교 장악보다는 수도를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하루 반 동안 지체했다. 북한군이 한강 도하에 필요한 도하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점도 크다.

29일 여의도 밤섬을 장악한 북한군은 본격적인 한강 도하를 위해 흑석동·여의도·신사리 일대에 탐색전을 전개했다. 이날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H. MacArthur) 미 극동군사령관은 한강방어선을 직접 방문하여 전황을 살피고 국군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김홍일 사령관은 “앞으로 3일 동안 한강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가름 된다”라는 점을 예하 부대 지휘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전선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29일 야간에 북한군 제3사단과 제4사단은 전차포와 화포의 집중적인 지원 아래 여의도와 흑석동, 신사리 일대에서 탐색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노량진 부근의 고지군과

능선을 장악하면 그 엄호 아래 경인 상행선 철교를 이용해 전차를 도하시켜 한강선을 돌파하려 하였으나, 국군의 저지작전에 그들의 기도는 좌절되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30일 새벽부터 여의도비행장으로 진출을 기도하였으나 혼성수도사단의 계속된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또한 제3사단도 흑석동 일대와 신사리 방면으로 본격적인 도하를 개시하였으나, 혼성제7사단 제9연대의 결사적인 저지와 미 공군의 지원으로 도하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가 방어하고 있던 신사리는 포병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 제3사단의 일부 병력에 의해 돌파되어 지원부대인 제3연대마저 위태롭게 되자 혼성제2사단장은 재편중인 제5연대와 제16연대를 제3연대와 함께 남태령-우면산-95고지를 잇는 방어선에 배치하여 적을 저지하였다.

30일 북한군 제3사단은 신사리~말죽거리 방면으로 본격적인 도하를 개시했고, 김포 지역에서는 김포비행장을 놓고 피아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은 김포반도를 방어하기 위해 편성된 우병욱 김포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에게 김포비행장 탈환을 지시했다.

7월 1일 새벽 영등포 대안의 북한군 제4사단이 여의도~영등포 지역으로 도하를 감행하자, 노량진과 여의도에서 전투가 전개되어 격전 끝에 그들을 저지시켰다. 그들은 경부선 철교를 확보할 목적으로 편의대 1개 소대를 노량진 방면으로 침투시켜 아군을 교란하면서 제5연대를 선두로 대규모 도하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제8연대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소화기와 수류탄으로 북한군의 돌파를 분쇄하였다. 여의도 정면으로의 도하 작전이 여의치 않자, 그들은 전차의 지원 없이는 도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부선 철교의 복구 작업을 은밀히 실시하였다.

한편 말죽거리 일대에서는 혼성제2사단 주력이 95고지 및 남태령 일대의 진지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였고 제25연대는 판교 방향으로 침투한 북한군의 저지에 나섰다. 그리고 적의 주공을 방어하고 있는 혼성수도사단 및 혼성제7사단의 후퇴에 필요한 말죽거리-수원선 확보를 위해 혼성제3사단 제22연대가 판교 남쪽 금곡리 일대에서 저지진지를 구축하였다.

2일 국군은 영등포 진지와 노량진역 부근의 강변진지에서 공방전을 지속하였다. 노량진 대안의 북한군 제3사단은 대체로 소강상태에 있었으며, 여의도 대안의 제4사단은 여의도비행장을 점령하고 혼성수도사단 제8연대 진지의 돌파를 기도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여의도 방면의 전황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미 공군은 계속된 폭격으로 적 전차의 도하 기도를 저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말죽거리 정면의 상황은 신사리로 도하한 북한군 제3사단 제8연대가 제5연대

의 저지선을 돌파해 95고지까지 진출함으로써 위기에 처했으나 미 공군기의 폭격으로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성제2사단이 주력 병력이 철수할 1번 국도의 엄호 임무를 부여받아 말죽거리 지역에서 철수하자, 판교 금곡리에 배치된 혼성제3사단이 말죽거리-판교 축선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김포지구사령부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오류동 일대에서의 공방전으로 한강방어선 서측방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좌절시켰다. 이들은 오류동 일대에서 자연 장애물을 이용하여 적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아군 주력의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극복해 주었다. 여기서 적을 방어하지 못하고 돌파되었다면 아군 주력이 배치된 영등포-노량진 일대가 위협받게 되고 결국 퇴로가 막혀 한강방어선도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군은 남아 있는 1개의 한강철교를 복구하여 7월 3일 제105전차여단을 도하시킴으로써 한강 이남으로 진출이 가능했다. 북한군 제4사단은 복구된 경부철교를 통해 4대의 전차를 도하시킨 데 이어 후속병력을 영등포 방면으로 우회하는 등 노량진과 영등포 일대를 침공하기 시작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은 노량진 방면으로 도하여 일부 병력이 영등포의 배후를 위협하고, 제6사단 14연대 일부 병력은 오류동을 돌파하여 영등포로 진출하였으며, 여의도 정면의 병력도 도하에 성공하여 영등포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이처럼 영등포 함락이 눈앞에 다가오자,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은 국군 주력을 부대별로 안양과 과천으로 후퇴시켰다.

### 결과 및 영향

7월 3일 복구한 경부선 철교를 통해 북한군 전차가 노량진으로 진입하고 말죽거리에서도 북한군 제3사단이 판교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강방어선 전투는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6일 동안 북한군의 한강도하 및 영등포 진출을 지연시킴으로써, 국군은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고 미 지상군이 참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6·25전쟁사에서 성공적인 작전의 하나이다.

###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2006).  
 강석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조성훈 집필】



## 지연작전

(기획)

[遲延作戰, 1950. 7.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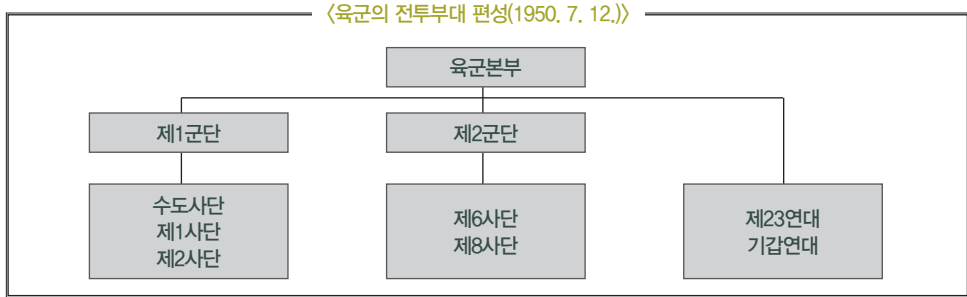
### 개요

한강방어선이 붕괴된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행한 지연작전은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경부국도를 포함한 서부지역과 동부산악지역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켜 미 지상군의 증원병력이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교두보를 확보하여 차후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작전경과

북한군 제1군단은 주공방향을 경부국도 축선으로 하여 1950년 7월 3일 한강선을 돌파하고, 일거에 부산까지 진격할 태세를 유지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중동부 지역에서의 진출이 부진한 가운데, 제2·제15사단은 7월 초에 한강을 도하한 후 국군이 배치되지 않은 장호원, 이천, 여주 일대까지 은밀히 기동하고 있었고, 제1·제12사단은 충주 및 제천까지, 제5사단은 동해안에서 삼척까지 진출해 있었다. 즉 북한군은 최초 계획했던 제1군단의 서울 공격과 제2군단의 서울 동 측방 및 수원으로의 우회 기동에 의한 수원 이북에서의 국군 주력을 섬멸하려던 작전을 변경하여 북한군 제1·제2군단을 모두 남쪽 방향으로 신속히 공격하여 미 지상군이 증원되기 전에 부산까지 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국군은 육·해·공군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하여 차후 한미 연합전선 형성과 지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지연작전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버는’ 작전이었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 지원군인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작전이었다. 육군은 38도선 초기 방어전투에서부터 한강방어선 전투를 거치면서 전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사단 및 연대를 해체하여 다른 사단 및 연대에 통합시키고, 육군본부와 사단 사이에 고급사령부인 제1군단과 제2군단을 각각 창설하여 육군본부의 지휘부담을 줄여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7월 5일부터 경부국도의 서측은 미군이, 동측은 국군이 작전을 전담하는 체제가 이루어졌다. 7월 14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함으로써 국군이 유엔군, 육군은 미 제8군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지연전을 시행하였다.



육군의 재편성 및 연합전선의 형성과 때를 같이하여 해·공군도 전력을 보강하고, 육군과의 합동작전 및 유엔 해·공군과의 연합작전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해군은 실질적으로 6월 27일부터 미 해·공군과 연합작전에 들어가 동·서해안에서 해상작전 및 지상군 지원작전을 실시하였고, 6월 30일부터는 해상을 봉쇄하여 37도선을 경계로 그 북부를 미 해군이 담당함에 따라 그 남쪽은 한국해군이 분담하여 작전을 실시하였다.

공군은 7월 2일 F-51 전투기 10대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6일에는 비행단과 정찰비행단으로의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지상군에 대한 정찰지원과 미 공군과의 연합작전으로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다. 미 공군은 7월 5일 대전에 공지합동작전본부를 설치하고 6개 전술항공통제반을 운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이를 증강시켜 공지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전 간에 발생하는 오폭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때부터 국군은 지연작전이라는 새로운 작전개념과 새롭게 개편된 국방체제 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수행하였다.

#### (1) 초기 지연작전

초기 지연작전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강방어선이 붕괴된 이후 1950년 7월1일부터 13일까지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수행한 작전이다.

헌성 수도사단과 제7·제2사단은 7월 3일 방어선이 붕괴되자 축차적인 지연진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국군 제6사단(안성, 음성, 충주 일대)과 제8사단(충북 체천)은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군 제2군단의 진출을 지연시키고 있었고, 특히 중부지역(이천, 장호원)으로 은밀히 기동하는 북한군 제2·15사단의 기도를 간파하고 제6사단 예하 연대를 신속히 출동시켜 지연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는 동해안 울진 지역으로 출동하여 북한군 제5사단의 진출에 대비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미연합작전의 합의에 따라 평택-안성선에 전개한 미 지상군이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국군은 경부국도 우측에서 동해안까지 전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는 미 지상군의 투입이 결정되고, 선두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Smith TF)가 부산에 전개한 1950년 7월 1일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이 대전의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에서 처치(John H. Church) 준장과의 작전협의를 따라 미 지상군이 투입되기 전에 북한군 남진을 조금이라도 더 지연시키기 위해 국군의 축차진지 점령과 부대 재배치 등에 따른 조치였다. 따라서 7월 4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전투지역에 도착하자, 서부 작전지역을 미군에게 인계하고, 국군은 평택 일대에서 재편성한 후 그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즉 국군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한강방어선을 지탱하고, 차후 경부국도 연변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미 제24사단의 진출을 엄호하며, 미군이 진출한 이후에는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은 미군이 담당하고 동부지역은 국군이 담당하되, 한미 양군은 남한에서 가장 폭이 좁은 평택-안성-충주-울진선에서 북한군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 ① 서부지역 지연작전



서부지역에서는 초기 지연작전 기간 중인 1950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6·25전쟁에 참가한 최초의 미 지상군인 제24사단이 경부국도를 포함한 서부 지역 축선에서 북한군의 최정예부대인 제105전차사단, 제3·제4보병사단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였다. 미 제24사단의 선발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7월 1일 부산에 도착한 후, 7월 4일 경부국도 상의 죽미령에 배치됨으로써 미 지상군에 의한 작전이 서부지역에서 수행된 것이다.

### ② 중서부지역 지연작전

중서부지역에서는 이천, 진천, 청주, 음성 지역에서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 제1사단, 그리고

제2사단이 북한군 제1군단 예하의 제2사단과 제2군단 예하 제15사단의 남진을 저지·지연하기 위해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기습남침으로 수도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제1군단 예하의 각 사단을 경부축선에 투입하는 한편 중동부전선을 담당했던 제2군단을 내륙으로 집중하여 위력적인 공격을 계속하였다. 북한군 제2사단이 춘천-가평-광주 축선을 따라 진천 방면으로 서남진하였고, 제2군단의 예비로 전선에 투입된 제15사단이 홍천-이천-장호원 축선을 따라 음성 방면으로, 그리고 제2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된 제1사단이 수원-김량장리-장호원 축선을 따라 충주 방면으로 동남진하였다.

반면에 국군은 신림-목계-장호원-죽산-안성을 연하는 차령산맥 북쪽에 제2차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선두부대가 지역 내로 쇄도하고 서부전선 방어를 담당할 미군이 오산에서 철수하여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중앙지대에 새로운 진지를 편성함에 따라 국군은 진천을 기준으로 그 동쪽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즉 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 제7연대는 음성 일대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의 남진을 저지하였으며,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와 수도사단은 이천-곤지암 및 진천 일대에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저지·지연하였다. 이후 축차적인 지연작전을 실시하여 소백산맥과 금강을 연하는 선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 ③ 중동부지역 지연작전

중동부지역에서는 충주, 제천, 단양 등 중부 내륙의 차령산맥으로부터 소백산맥에 이르는 지역에서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2사단과 제1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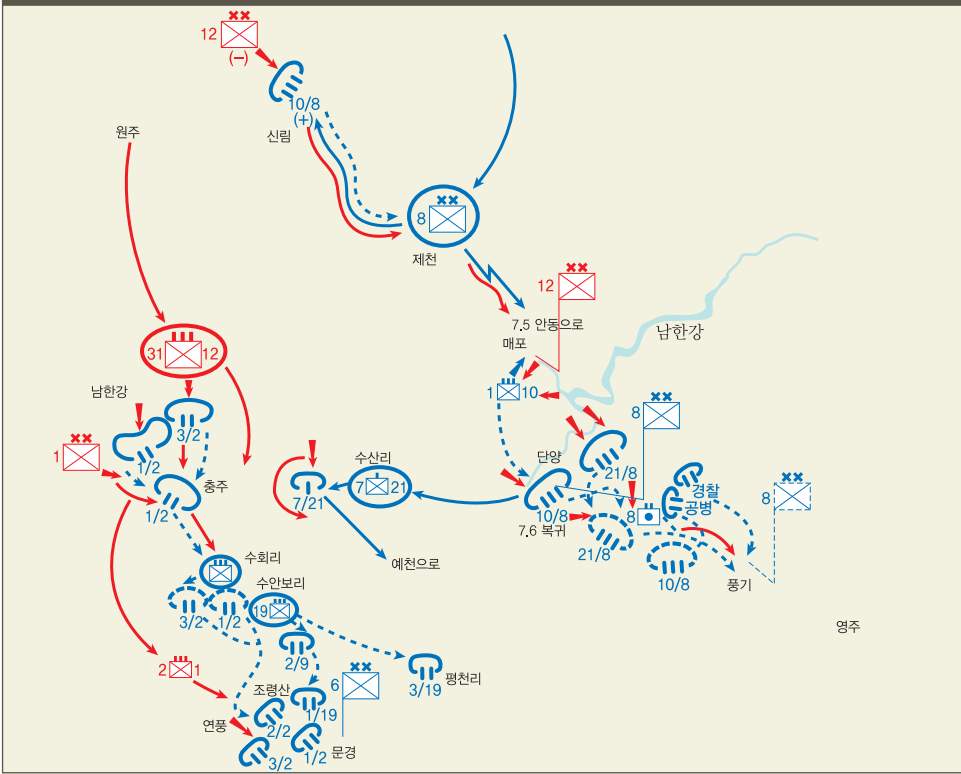
육군본부 직할인 제6사단 예하의 제2연대가 충주 일대에 배치되어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와 제1사단의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제천 및 단양 일대에서 북한군 제12사단(-1)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며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하는 한편 소백산맥과 금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중부 및 동부전선의 제2군단 병력을 중동부지역으로 집중시켜 강력한 공격을 전개하였다. 개전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기도 전에 북한군의 공격을 받은 국군은 축차적인 철수를 통해 부대를 재편하는 한편 미군과 작전지역을 분담하여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앙지대에 새로운 진지를 편성하였다.

### ④ 동해안지역 지연작전

동해안지역에서는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가 주축이 되어 내륙으로 침공한 북한군 제5사단과 동해안으로 상륙한 제766부대, 제945육전대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공방전을 전



중동부지역 지연작전



개하였다. 6월 27일 강릉을 점령한 북한군은 주력인 제5사단을 동해안 도로를 따라 남하시키기에 앞서 상륙부대인 제766부대와 제945육전대를 울진 방향으로 진출하게 하였다.

육군본부는 6월 28일에 국군 제8사단을 강릉에서 제천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그 대신 부산에 주둔하던 제3사단을 투입해 지연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개전 초기 2개 연대로 편성된 국군 제3사단은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하자 육군본부의 긴급명령으로 제22연대를 서울 수도권방어선으로 급파하고 제23연대로 하여금 동해안 전선을 전담하게 하였다. 동해안지역을 담당하던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는 기차로 대구를 경유하여 포항에 도착한 다음, 29일 차량 행군중대로 영덕-영해-평해를 거쳐 울진 남쪽의 왕피천(王避川)까지 진출하였다.

7월 1일 국군 제23연대는 큰 병력 손실을 감수하면서 울진을 점령하였지만, 점령 3시간 만에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울진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국군 제23연대는 상급부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정규전과 대비정규전을 병행하면서 울진에서부터

영해까지 60km의 공간에서 지연작전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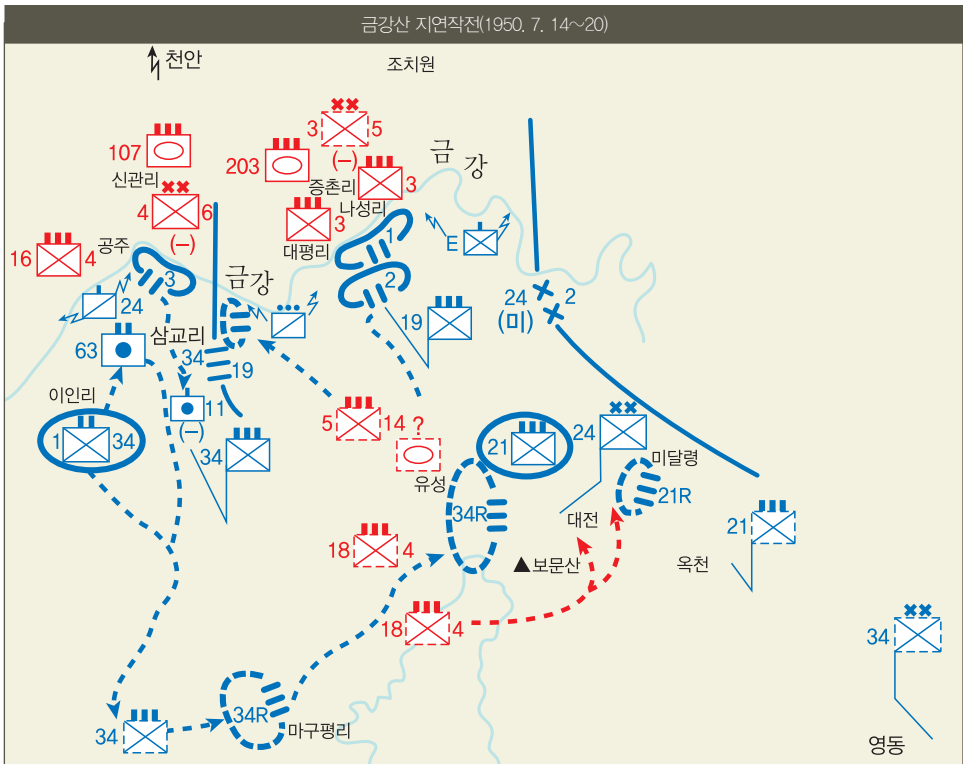
또한 유엔 해군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에 대해 함대를 해안에 접근시켜 북한군의 보급로와 집결지를 포격하였으며, 함재기를 출격시켜 북한군 부대와 주요시설 및 교량 등에 대해 폭격을 가하였다. 특히 북한군 제5사단의 남하로 포항에 대한 위기가 점점 고조되자 이 지역에 대한 유엔 해군의 지원이 강화되어 북한군의 남진속도를 크게 둔화시켰다.

## (2)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1950년 7월 14일부터 31일까지는 금강선, 소백산맥선, 동해안지역, 그리고 서남부지역 등에서 지연작전이 이루어졌다. 당시 아군의 방어책임은 한·미군이 작전협외에 따라 크게 미군이 공주-대전 지역 방어를 담당하고 국군이 그 동쪽 일대인 소백산맥 지역의 방어를 분담하고 있었다.

### ① 금강선 지연작전

금강선에서는 미 제24사단이 7월 14일 제19연대와 사단포병 주력을 대평리 정면에,



제34연대를 공주 정면에 배치하고 북한군 제3·제4사단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금강선에 방어선을 편성한 미 제24사단은 7월 14일에 공주 지역의 미 제34연대가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7월 16일에는 대평리 지역의 미 제19연대가 북한군 제3사단의 도하 공격을 받고 부대가 와해된 상황에서 대전으로 철수하였다. 이어 19일에는 3개 방향으로 공격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전을 방어하였으나 다음날 사단장(William F. Dean 소장)이 실종되는 등 많은 병력 손실을 입고 영동 북쪽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포항으로 상륙한 미 제1기병사단이 7월 19일부터 영동 부근으로 진출하여 전선을 인수받아 영동-김천 일대에서 북한군을 지연시켰다. 미 제1기병사단은 7월 22일부터 협준한 경부국도변 영동 정면에서 북한군 정예사단인 제3사단과 격돌하고, 7월 27일에는 황간 측방의 북한군 제2사단과 전투를 수행하였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Walton H. Walker 중장)은 미 제25사단을 상주 부근으로 급히 투입시켜 국군 제1사단과 연결시켜 상주-김천에서 미 제1기병사단과 협조된 작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격 기세에 밀려 미 제25사단이 7월 31일에 상주 부근에서 철수한 다음 미 제1기병사단과 함께 김천-왜관으로, 남부통로 주변의 미 제24사단은 합천~진주로 각각 철수하고 있었다. 이때 아군 전선은 불균형한 형태로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 제8군사령관은 전 부대를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시켜 조정하였다. 이 작전계획에 따라 미 제25사단이 마산 서측 지역을 점령하고 지금까지 넓은 방어정면을 담당했던 미 제24사단은 제17연대를 배속 받아 그 북쪽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

## ② 소백산맥선 지연작전

소백산맥선에서는 국군 5개 사단(수도·제1·제2·제6·제8사단 등)이 주로 중동부 산악지대인 미원-이화령-조령-풍기 일대를 잇는 소백산맥선 일대로 철수하여 북한군 제2군단(제1·제8·제12·제13·제15사단 등)의 공격을 지연시켰다.

국군 수도사단과 제2사단은 청주 일대에서 큰 접적 없이 전선조정을 위해 보은 일대로 철수하고 있었으며, 국군 제1사단이 미원-상주 일대에서 북한군을 지연시키고 북한군 제15사단을 격퇴한 후 함창 정면에 이르러 북한군 제13사단의 일부부대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 무렵 국군 제17연대는 안동으로 이동 중에 7월 17일부터 23일間に 상주 부근 화령장에서 이동 중인 북한군 제15사단을 기습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이화령-조령-문경선에서 북한군 제1·제13사단 등 2개 사단을 견제 하면서 영강(문경 남쪽 8km)-유곡리-점촌에 이르렀으며, 국군 제8사단이 풍기-영주-

안동 일대에서 북한군 제8·제12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었다.

육군본부는 7월 25일 북한군의 기동로를 분석하여 방어부대 배치를 부분적으로 재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은 미 제25사단에게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7월 26일부터 점촌 정면의 국군 제6사단 좌측으로 이동하여 전선의 간격을 조정하였다. 국군 수도사단은 1개 연대로 국군 제6사단을 증원하고, 주력 2개 연대를 통합 편성하여 예천 부근 미 제25사단 제24연대와 교대하여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 ③ 동해안지역 지연작전

동해안지역에서는 국군 제3사단이 유엔 해군의 지원 하에 북한군 제5사단과 제766부대의 공격을 지연시켰다. 국군 제3사단은 유엔 해군과 함께 북한군 제5사단의 공격을 지연시켰으며, 7월 21일에는 영덕에 이르러 유엔 해군의 함포지원 하에 수차례 공방전을 거듭하면서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또한 국군 제3사단에 배속된 독립기갑연대는 진보 일대에서 북한군 제766부대의 내륙침투를 저지함으로써 아군의 방어선이 양분되는 위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

### ④ 서남부지역 지연작전

서남부지역에서는 호남지역과 거창-하동 일대에서 지연작전을 전개하였다. 호남지역에서 방어준비를 갖추고 있던 병력은 재편성 중인 국군 병력과 경찰을 합하여 약 2,500여 명에 불과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선두부대가 7월 16일 강경 부근에 도달하고 급속한 남진을 기도하였다. 아군 방어병력은 축차적으로 북한군을 방어하였으나 절대적인 전투력의 열세로 인해 전주-김제-정읍-남원-순천 일대로 철수하였다.

북한군은 제6사단이 하동-진주로 지향 중이었고, 대전-무주로 진출한 제4사단이 안의-거창으로 향하였다. 아군 서측방의 위기를 느낀 미 제8군사령관은 신임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에게 거창-진주선을 방어하도록 명령하였다. 처치 소장은 재편성중인 사단을 즉시 7월 24일부터 26일간 거창-진주선으로 축차 전개시킴으로써 25일부터 북한군의 공격을 지연시켰다.

국군과 미군은 국군이 부대를 재편성하고 미군의 후속지원부대가 진출할 때까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버는’ 지연작전을 전개하여 낙동강 일대의 최후 방어보루까지 철수하게 되었다. 왜관에서 동해안 영덕까지의 방어는 국군 제1사단, 제6사단, 제8사단, 수도사단, 제3사단이 담당하고, 왜관 서남쪽의 방어는 미 제1기병사단, 제24사단, 제25사단이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8월 초에 이르러 미 제2사단, 해병 제1여단, 그리고 제5연대전투단과 3개의 전차대대 등이 계속 증원됨으로써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한미 양군의 지연작전은 미 지상군의 증원병력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교두보를 확보하여 차후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대비나 준비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군은 북한군의 기습남침을 저지·격퇴하기 위하여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서부지역은 미 지상군이, 그 동쪽지역은 한국군이 담당하여 지연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와같이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벌겠다는 국군과 미군의 지연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지연작전 기간 중 미군 2개 사단이 추가로 증원되고 국군도 점차 부대 정비와 전력 증강이 이루어져 낙동강선에 최후 방어선을 형성하고 이후 공세 이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과 유엔의 해군 및 공군은 이러한 지연작전의 수행을 위해 개전 초기부터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한 가운데 합동작전을 통해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하여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일조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④, 20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낙동강선 방어작전

(기획)

[洛東江線 防禦作戰, 1950. 8. 1. ~9. 23.]

## 개요

낙동강선 방어작전은 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반도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치른 방어전이다.

## 작전기간과 배경

낙동강 방어선은 일명 ‘부산교두보(釜山橋頭堡·Pusan Perimeter)’ 또는 ‘워커라인(Walker Line)’이라고 한다. 부산교두보의 의미는 부산을 기지로 총반격을 위한 교두보라는 뜻이다. 워커라인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이 설정한 최후의 방

어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낙동강선 방어작전동안 국군은 왜관 북쪽으로부터 동해안까지의 산악지형을 맡고, 미군은 왜관 이남으로부터 마산 서부에 이르는 비교적 교통이 잘 발달되고 기동성이 보장되는 평야지대를 책임지역으로 방어를 실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7월말까지 ‘공간을 내주는 대신 미국 본토의 증원군이 한반도에 전개할 시간을 얻는데 필요한 지연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제공 및 제해권 장악에도 불구하고 소련제 T-34전차와 자주포 등 현대장비와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군은 13개 사단 가운데 11개 사단을 투입하고, 주력을 대구-부산 축선으로 지향한 후 전 전선에서 압박을 가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으로서는 북한군의 남진을 막고 유엔군 반격의 발판이 될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교두보 확보가 절대적이었다. 부산교두보는 유엔군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였다. 왜냐하면 유엔군은 부산항을 통해 병력·무기·장비·군수물자를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 7월 31일부터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국군과 유엔군은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그것은 충청도, 전라남도를 거쳐 마산 서부 축선으로 북한군 제6사단의 대우회기동에 따른 부산 서부지역의 위협이었다. 이로 인해 미 제8군은 한 때 긴장하였으나, 미 제25사단을 신속히 전용·배치함으로써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였다. 다른 하나는 중동부전선의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편성하기 위해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과 제8사단은 안동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엄호부대인 수도사단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북한군이 철수하는 제8사단의 뒤를 바짝 추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군이 강을 건너기도 전에 안동 인도교와 철교를 조기에 폭파해 제8사단이 재편성을 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이러한 험난한 철수과정을 거치며 8월 4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점령하여 북한군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미군 증원부대의 관문이자 전략적 거점인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을 따라 연결된 지역을 최후 방어선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한미연합군은 1950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천연장애물인 낙동강을 따라 연결된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게 되었다.

낙동강 방어선은 최초 낙동강을 연해 편성된 방어선(X선)과 후에 다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편성된 방어선(Y선)으로 구분된다. 최초 편성된 낙동강 방어선은 동서 길이 90km, 남북 길이 150km로 총 240km에 달하는 ‘역 기역자(Γ)’ 형의 방어선이다. 그 가운데 국



군이 128km를 담당하였고, 미군이 112km를 담당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중동부 및 동부의 산악지역을 국군 2개 군단 예하 5개 사단(제1·제3·제6·제8·수도사단)이 담당하였고, 중부 및 서부방면의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와 교통이 발달한 지역은 미 제8군의 직접 통제를 받는 미군 4개 사단(제1기병·제2·제24·제25사단) 및 미 해병 제1여단이 담당하였다.

〈낙동강 방어선(X·Y선)의 종류〉

구분		구간	기간
낙동강 방어선형성시	X선	마산-합천-김천-상주-예천-안동-영덕	8. 1.~ 8. 3.
	Y선	마산-남지-왜관-낙정리-영덕	8. 4.~ 8. 12.
낙동강 방어작전시	X선	왜관-수암산-유학산-신주막-군위-보현산	8. 13.~ 9. 14.
	Y선	Y선 후방의 집결지	

국군과 유엔군은 최초 낙동강 연안(X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다가 8월 12일에는 축소된 방어선이자 최후의 저항선인 ‘Y선으로 철수하여 이곳에서 북한군과의 결전을 통해 대구를 사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 제8군은 북한군 주공이 지향된 대구 북쪽의 전략적 요충지인 다부동 일대의 국군 제1사단 방어지대에 미군 2개 연대를 긴급 투입해 북한군의 보·전·포 협동공격을 저지하고 대구를 사수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대안에 집결된 북한군 병력 및 물자를 파괴하기 위해 대규모 융단폭격을 실시하여 북한군에게 심리적 타격은 물론이고 그들의 전투력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낙동강선 방어작전시 미 제8군은 군단이 편성되지 않은 채 직접 예하 사단을 통제하며 전투를 수행하였다. 반면 북한군은 개전 이후 1950년 7월 말에 낙동강 방어선 외곽지역인 영덕-안동-함창-상주-김천-진주를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8월 초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방어진지를 편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기습적으로 낙동강을 도하한 뒤 대구와 부산을 점령함으로써 그들의 작전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북한군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들의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공세를 실시하였다. 8월 공세 때 북한군은 그들의 13개 보병사단 가운데 11개 사단을 투입하여 전 전선에 걸쳐 총공세를 펼쳤다. 이때 북한군은 대구 정면과 아군의 배치가 취약한 마산 정면에 주공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곳에서 부분적인 돌파에는 성공하였으나, 국군과 유엔군의 조직적인 방어와 성공적인 공·지 합동작전 수행으로 돌파구 확장에는 실패하였다.

9월 공세 때 북한군은 13개 사단 모두를 5개 공격집단으로 편성하여 대구·영천·경주·창녕·마산 정면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북한군은 9월 공세도 실패하였고,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이은 낙동강 전선에서의 총반격작전에 밀려 38도선 이북으로 퇴각하였다.

**작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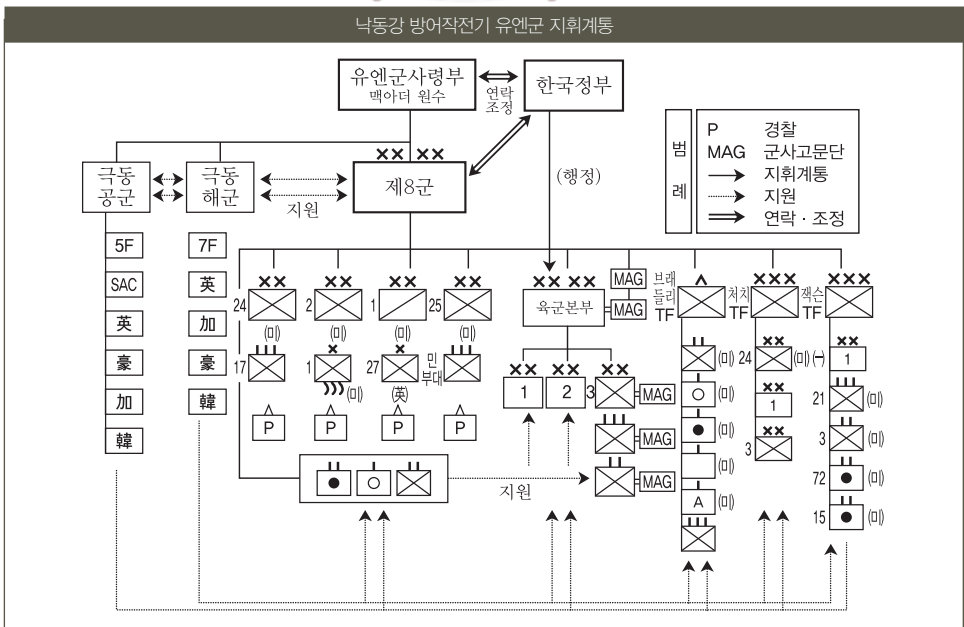
(1) 지상작전

낙동강선 방어작전은 중서부지역 작전,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 중동부지역 작전, 동부지역 작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중서부지역 작전

중서부지역 작전은 대구 북방의 다부동-왜관-팔공산지역에서 한미연합군(국군 제1사단·미 제1기병사단)은 전차로 증강된 북한군 5개 보병사단(제1·제3·제10·제13·제15사단)을 방어하였다. 다부동-왜관의 서측에서는 미 제24사단(이후 미 제2사단)이 현풍에서 낙동강 돌출부에 이르는 지역까지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고, 동측에서는 국군 제6사단이 의성-신녕 축선에서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었다.

낙동강 중서부지역 작전은 2단계로 전개되었다. 제1단계는 북한군이 8월 공세 때 대



구-부산으로 진출해 전쟁을 종식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국군 제1사단이 대구의 관문인 다부동지역을 사수하여 무산시켰던 시기이다. 이 때 미 제8군사령부는 다부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군 2개 연대(미 제23·제27연대)를 국군 제1사단 지역에 투입하여 전투력을 증강하고 방어중심을 깊게 함으로써 전차를 동반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낙동강 대안의 구미 일대에는 융단폭격을 실시해 북한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군이 한 곳에 전투력 및 군수물자를 집중할 수 없게 하였다. 이후 제1사단은 다부동 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에게 인계하고 경북 신령으로 이동하여 팔공산-가산전투를 수행하였다.

제2단계는 북한군이 8월과 9월 공세기간 중 왜관-다부동-대구 북방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미 제1기병사단과 북한군 제3·제10사단이 격전을 벌였던 시기이다. 이 때 미 제1기병사단은 북한군의 집요한 공격으로 다부동과 왜관을 빼앗기고, 대구 북방의 가산산성 일대로 물러나 총반격작전을 할 때까지 이곳에서 대구를 사수하였다. 이 무렵 대구가 북한군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국군과 경찰도 증원되어 전투를 수행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전력의 절반가량인 5개 사단을 투입해 부산 관문의 최단거리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대구를 점령한 후 부산으로 진출하고자 총력을 집중하였다. 즉 국군 제1사단 정면에는 북한군 제1·제13·제15사단의 3개 사단을, 미 제1기병사단의 정면에는 북한군 제3사단(후에 10사단 합류)과 제105전차사단(-)을 투입해 대구를 북쪽과 서쪽에서 공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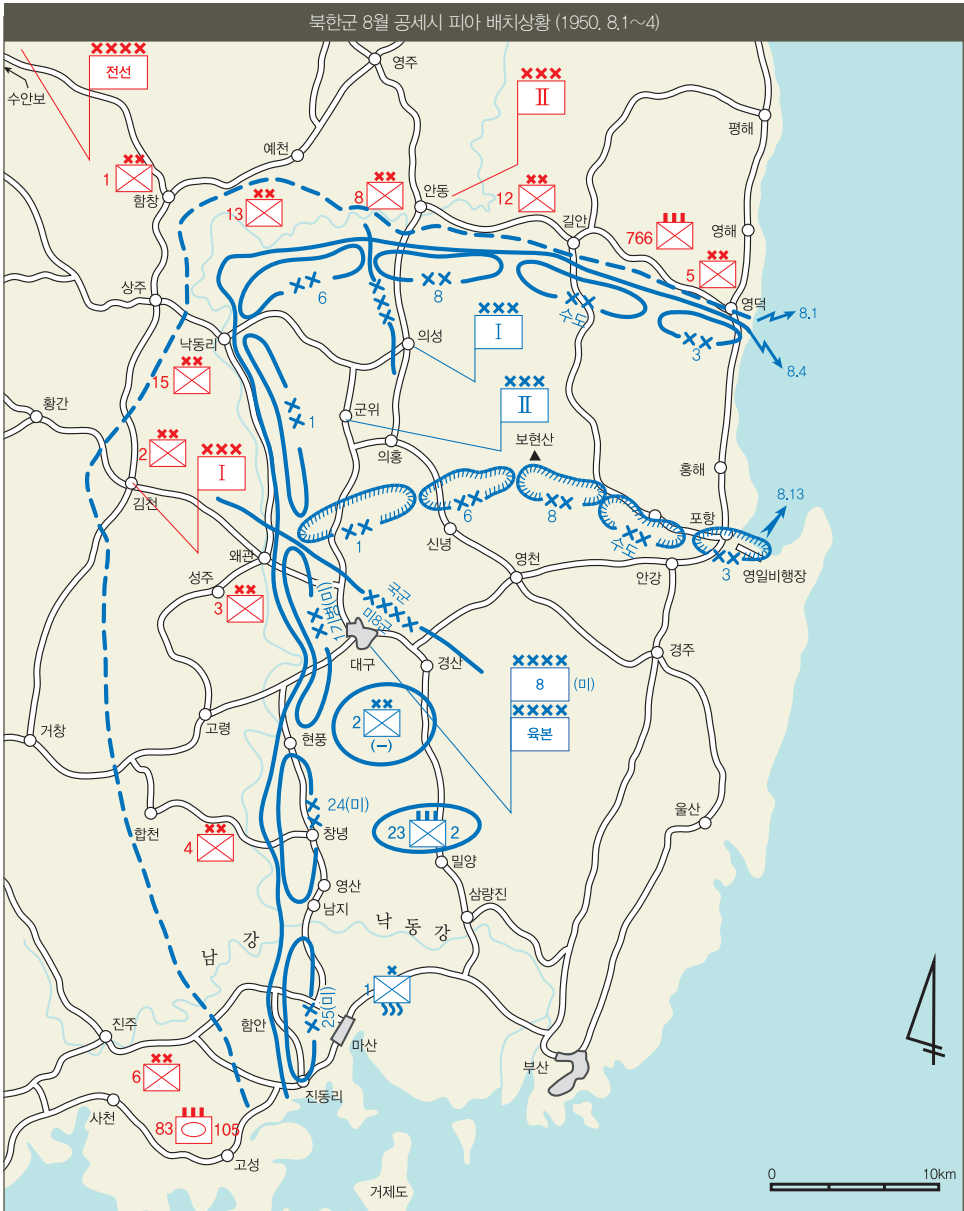
국군 제1사단은 1950년 8월 3일 낙동강 방어선 상에 42km에 달하는 넓은 정면을 담당하여 진지편성과 부대 전개를 마쳤다. 그러나 사단의 병력수준은 70%였고, 중화기도 30~4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사단 정면은 북한군의 우세한 병력, 장비, 그리고 전차의 위협을 고려할 때 이곳에서 방어는 전술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사단에서는 각 연대를 북한군의 예상 도하 지점별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후에는 다부동 일대의 주저항선과 새로운 방어지역인 팔공산과 가산 일대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며 대구를 사수하였다.

국군 제1사단의 인접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은 1950년 7월 중순 한국전선에 투입돼 지연전을 수행하다가 8월초 미 제8군의 명령에 의해 왜관 일대에서 낙동강선 방어작전을 수행한 후 9월에는 대구 북쪽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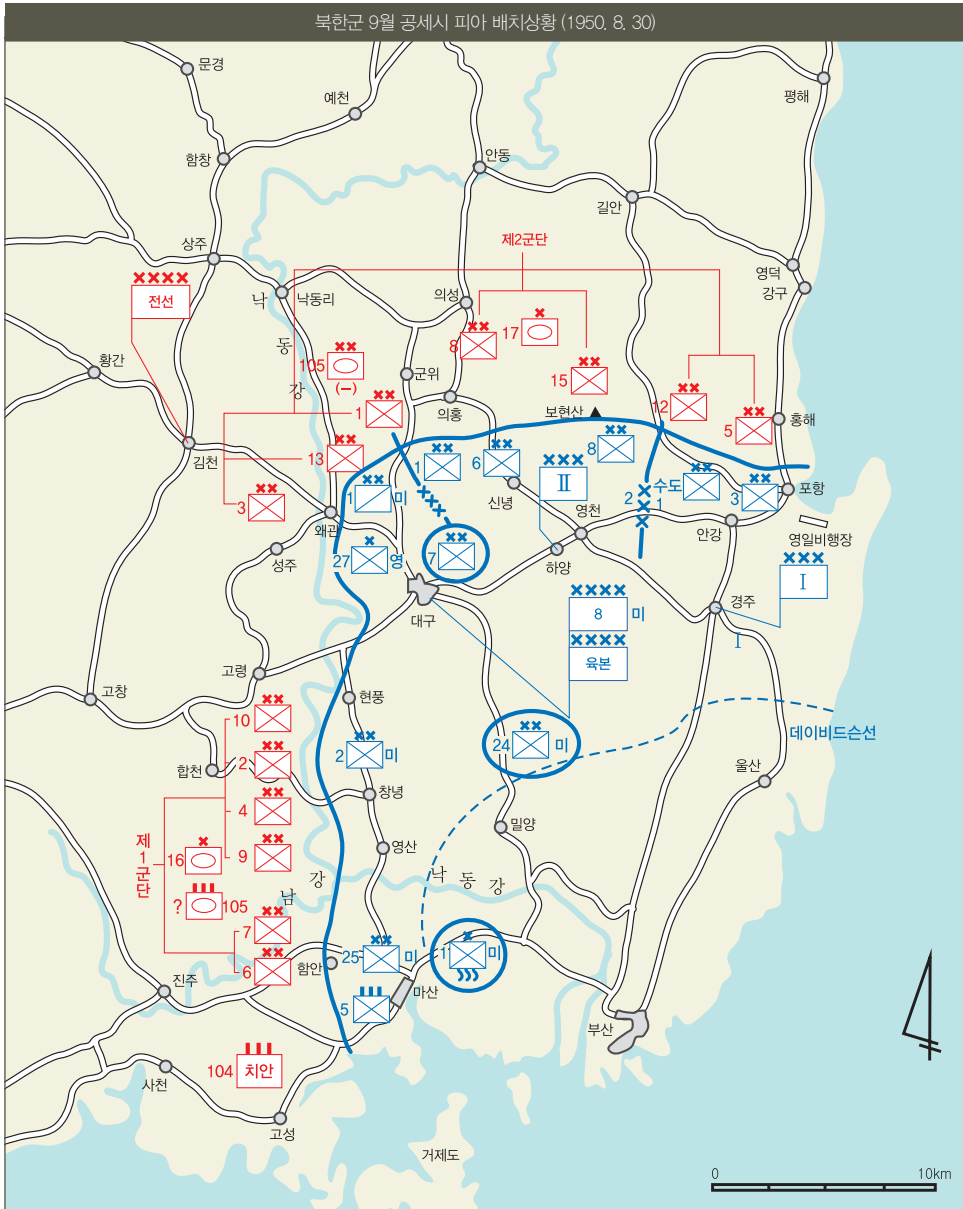
## ②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

서부 및 남부지역 작전은 부산에 이르는 창녕-영산 축선과 진주-마산 축선에서 미 해병 제1여단으로 증강된 미 3개 보병사단(제2·제24·제25사단)이 전차로 증강된 북한

군 5개 사단(제2·제4·제6·제7·제9사단)을 방어하였다. 작전기간 동안 미군은 한국 해병대와 한국 육군부대를 배속 받아 북한군의 최종목표인 부산교두보를 방어하기 위해 영산과 마산 지역에서 북한군 5개 보병사단과 격전을 치렀다.



창녕-영산 축선을 담당한 미 제24사단은 대전 전투 이후 전투력이 약화된 상태였으나, 미 해병 제1여단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 제4사단의 8월 공세를 저지하였다. 이후 미 제24사단은 이 지역을 미 제2사단에 인계하고, 미 제8군의 예비가 되어 경북 경산으로



이동하였다. 8월 20일 이 지역의 방어임무를 인수한 미 제2사단도 새로 투입된 북한군 제2·제9사단의 9월 공세를 맞아 대구-부산간의 미 제8군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좌절시켰다.

마산 서쪽지역의 방어임무는 미 제25사단이 담당하였다. 미 제25사단은 상주지역에서 이곳으로 이동하여 낙동강선 방어작전에 투입되었다. 최초 미 제25사단은 국군 제1사단 지역인 왜관 북쪽 지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북한군 제6사단의 호남방면으로의 대우회 기동으로 인해 부산의 관문인 마산 서부가 위협을 받게 되자 미 제8군 긴급명령에 의해 이곳을 방어하게 되었다. ‘킨 특수임무부대(Kean Task Force)’로 편성된 미 제25사단은 8월 초 마산 서부에서 진주를 목표로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북한군 제6사단의 부산 진출을 저지하고, 진주 동쪽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반격작전 이후에는 함안-마산 지역에서 유엔군이 총반격을 개시할 때까지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미 제25사단은 8월 공세시에는 북한군 제6사단을 맞아 격전을 치렀고, 9월 공세시에는 북한군 제6사단과 제7사단을 맞아 치열한 공방전을 치렀다.

### ③ 중동부지역 작전

중동부지역 작전은 낙동강 방어선상의 군위, 의성, 신녕, 영천 일대에서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 및 제8사단과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제6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제8·제13·제15사단, 제17기갑여단, 제73독립연대 그리고 제103치안연대의 총공세를 저지한 방어작전이다.

북한군 제2군단은 1950년 8월 5일부터 개시된 8월 공세에서 주공 방향을 대구로 지향하고 김천 북방에서 영덕까지의 공격을 담당하여 대구와 영천, 포항을 점령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15사단을 선산-다부동-대구 방면에, 제13사단을 상주-다부동-대구 방면에, 제1사단을 문경-군위-대구 방면에, 그리고 제8사단을 안동-의성-대구 방면에 각각 투입해 낙동강 도하를 시도하였다. 낙동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2군단은 예하의 제1사단이 가산-도덕산-팔공산 선, 제8사단이 신녕 북쪽의 조림산 부근, 그리고 제12사단과 제15사단이 보현산 지구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낙동강 방어선을 편성한 후 북한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직면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장차 작전의 주도권을 탈취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산교두보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끊임없는 공세 행동으로 북한군을 교란하고 공세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방어기간에도 공세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증원부대와 보급수송을 위한 병참선을 확보하고 우세한

포병과 항공기로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편, 국군 제2군단(제1·제6사단)을 왜관-의성간, 제1군단(제8·수도사단)을 의성-청송간의 낙동강 상류의 산악지대에 주로 배치하였다.

북한군의 8월 공세는 부산교두보 확보를 위한 국군과 유엔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완전히 좌절되었다. 북한군은 국군의 지연작전으로 인해 전투력이 50~60%로 격감하였고, 300여 km로 연장된 병참선과 제해권 및 제공권의 상실로 막대한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8월 공세에 실패한 북한군은 제2군단을 제3공격집단(제1·제3·제13사단과 제17기갑여단)으로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을 돌파하여 대구를 점령하고, 제4공격집단(제8·제15사단)은 국군 제6사단 및 제8사단을 돌파하여 하양과 영천을 점령한다는 세부계획 하에 '9월 공세'를 개시하였다.

북한군의 9월 공세에 직면한 국군 제2군단은 방어정면을 축소하기로 하고 제1사단을 신녕 지구에서 작전하고 있는 제6사단의 좌측으로 이동시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대구 외곽선을 고수하였다. 또한 제6사단은 운산동-화산간 방어정면에서 북한군의 침공을 저지함으로써 대구 점령 기도를 좌절시켰다. 제8사단은 영천을 점령하고 경주방면으로 남진하던 북한군 제15사단을 제5연대와 함께 임포동 부근에서 섬멸하고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 ④ 동부지역 작전

동부지역 작전은 낙동강 방어선상의 동부전선인 영덕, 포항, 기계, 안강 등에서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과 육군본부 직할의 제3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5사단과 제12사단, 독립 유격부대인 제766부대의 최후 공세를 저지한 방어작전이다. 개전초기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북한군은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7월말에는 진주-김천-점촌-안동-영덕을 연결하는 선의 북쪽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1950년 8월 5일부터 개시된 8월 공세에서 주공 방향을 대구로 지향하고 김천 북방에서 영덕까지 공격을 담당해 대구와 영천, 포항 점령을 시도하였다. 특히 제12사단과 제5사단을 청송-현동-죽장-기계 축선 및 영덕~포항을 연하는 동해안 축선에 각각 투입해 경주-울산-부산 축선으로 진격할 발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현산 일대의 북한군 제766부대는 그들의 침투기도를 은폐하기 위해 의성-구산동-자천 축선에서 양동작전을 실시하였다.

국군은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육군본부 직할인 제3사단으로 낙동강 남안의 상아동-구수동-진보-영덕을 연결하는 주저항선의 편성을 계획하였지만 철수작전 실패로 낙동강 남안의 방어선 대신 도로가 남북으로 양호하게 이어진 안동-의성 축선과 전략적

요충지인 포항 방어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길안과 청송 일대에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한 수도사단이 부대 간격으로 침투한 북한군 제12사단의 포위공격에 의성으로 철수함에 따라 의성-영덕간 방어정면 중 주저항선이 편성된 지역은 의성 북방 제8사단의 약 10km와 영덕 및 강구 일대 제3사단의 약 10km에 불과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은 험준한 산악지대인 청송-죽장-기계-안강-경주 축선으로 침투해 8월 9일 경주 방어의 요충지인 기계를 점령한데 이어 11일에는 포항을 점령하였다. 이로 인해 강구 부근에 배치된 국군 제3사단이 고립되고 경주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국군 제1군단은 미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Bradley Task Force)와 함께 포항지구전투사령부를 안강으로 급파해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또한 8월 14일 수도사단 주력을 현동-죽장-기계 축선에 투입해 포항 일대의 북한군을 북쪽에서 협공함으로써 8월 18일 기계와 포항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8월 22일 제1군단은 보현산-침곡산-도음산-93고지를 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고 반격준비에 착수하였다.

한편 기계·포항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북한군 제12사단은 비학산에서 제766부대를 흡수해 전투력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8월 24일 야간 기습공격으로 수도사단의 주저항선 좌측을 돌파, 8월 27일 기계를 재점령하였다. 이날을 전후하여 총공세를 위한 발판을 확보한 북한군 제5사단과 제12사단은 9월 2일에 공격을 재개하였고, 5일에는 안강과 포항을 점령한 후 일부 병력은 경주 북서쪽 4~5km 지점까지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9월 5일 무릉산-근계봉-형산강 선에 최후의 방어선을 편성하여 11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공세 이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2) 해·공군작전

해군은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이 제해권을 장악한 가운데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국 해역에서 해상활동을 주도하며 지상작전을 지원하였다. 낙동강선 방어작전시 한국해군과 유엔해군의 작전 책임지역은 북위 37도를 경계로 구분하여 활동하였다. 37도 이남의 해역에 대한 봉쇄 및 연안작전은 제96.7기동전대로 지정된 한국 해군이 담당하였고, 37도 이북 해역에 대해서는 유엔해군 동·서해안 지원전대가 작전을 수행하였다. 동해안 해역에서는 미국 히긴스(Higgins) 제독의 96.5기동전대가, 서해안 해역에서는 영연방 해군으로 구성된 96.8기동전대가 봉쇄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들 유엔해군의 봉쇄작전에 대한 북방 한계선은 동해안이 북위 41도이고, 서해안은 북위 39.30도까지였다.

한국해군은 서·남해안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면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군수물자를 수



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봉쇄작전을 전개하여 연안에서 북한군의 해상침공과 병력 및 군수물자의 전방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육지에서의 국군 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한국해군은 작전 기간 동안 통영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승리함으로써 낙동강선 방어작전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편 유엔해군은 작전기간 동안 대폭적인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다. 전쟁 초기 항공모함은 미 제7함대 소속의 벨리포지(Valley Forge)호와 영국 항공모함 트라이엄프(Triumph)호 2척 뿐이었는데 7월 말 미 항공모함 시실리(Sicily, 트라이엄프와 교대)호와 바둥 스트레이트(Badoeng Strait)호가 도착해 96.8기동전대에 배속돼 해병대 비행전대를 탑재하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근접항공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또 8월 1일 극동해역에 도착한 미국 항공모함 필리핀 씨(Philippine Sea)호가 미 제77기동부대에 배속되어 한국전선에서 근접항공지원을 위해 8월 5일부터 한국 해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한국 해역에서 작전에 투입된 유엔 항공모함은 4척에 이르렀다.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지상전 상황이 악화되자 8월 8일부터 함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를 근접항공지원과 후방차단작전에 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항모기동부대는 북한군의 전선에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근접항공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한국공군은 1950년 7월 말 비행단과 항공기지사령부를 대구비행장(K-2)에, 정찰비행대를 경북 의성에 배치하고 북한군의 후방차단작전과 국군 제1군단 및 제2군단에 대한 정찰작전을 지원하고 있었다. 작전기간 중 한국 공군본부는 경북 대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7월 24일 미 제5공군전방사령부가 대구로 이동하고 낙동강 방어선이 편성되자 비행단을 대구비행장에서 진해비행장(K-10)으로, 정찰비행대를 의성에서 신녕으로 이동하여 작전활동을 시작하였다. 또 F-51비행부대의 한국군 조종사는 8월 1일부터 미 공군조종사와 1개 조를 이루어 비행훈련을 실시한 후 8월 15일부터 미 공군조종사와 함께 편대를 조직하여 출격을 개시하였다. 한국의 T-6비행부대(부대장 소령 신유협)는 8월 17일 한국 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을 지원하였고, 9월 영천 전투시에는 이 지역에 대한 정찰임무를 수행하였다.

미 극동공군은 낙동강 방어작전 기간 동안 지상군 후방차단작전과 근접항공지원에 우선권을 두었다. 미 극동공군의 작전구역은 대체로 한강을 경계로 이북지역은 미 폭격사령부가, 이남지역은 미 제5공군이 담당하였다. 미 폭격사령부는 8월 16일 왜관일대에 용단폭격을 제외하고는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작전을 실시하였다. 즉 8월 7일에는 평양 조차장, 8월 8일에는 함흥조차장을 폭격하였다. 미 제5공군은 미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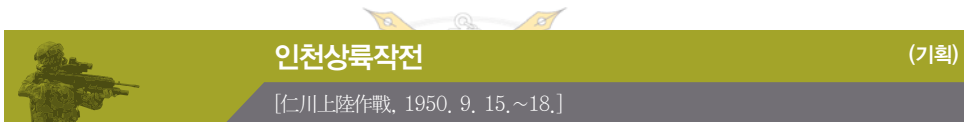
## 결과 및 영향

작전기간 동안 미 본토에서는 미 제2사단과 미 제1해병여단, 하와이의 미 제5연대전투단이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이 때 미 본토의 6개 전차대대가 한국전선에 투입되어 낙동강선 방어작전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작전 기간 동안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제27여단이 증원됨으로써 낙동강선 방어작전은 한미연합군 중심의 작전 편성에서 구색을 갖춘 유엔군 체제로 전환되어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낙동강선 방어작전 초기의 불리한 전세를 극복하고 점차 병력과 장비 면에서 북한군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공세이전을 위한 총반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박종상 집필】



## 개요

1950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 제10군단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서울로의 우회 기동을 통해 북한군의 후방을 차단하여 공세 이전의 계기를 마련한 작전이다.

## 전개과정

### 인천의 지형적 특성

인천은 수도 서울을 서해안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지구는 당시 한국의 상업 중심지이자 공업 중심지였고, 주요 도로와 철도의 교차 지점이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수도 서울과 인천의 점령은 적 후방에 대한 병참수송로 차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인구 25만의 인천시는 상륙군의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해안에 발판을 구축하고 목표를 탈취하여 야간전투에 대비한 진지 편성을 하기에는 일조시



간이 너무나 짧았다. 작전이 내륙으로 진전되면, 김포비행장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하며 수도 탈환에 앞서 한강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다. 인천은 상륙작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서해로부터 인천으로 접어드는 해상 접근로는 크고 작은 섬들과 암초, 그리고 해저에 산재해 있는 모래톱이나 갯벌로 인해 지형이 험한 편이다. 접근로상의 초입에 해당하는 덕적도(德積島)와 영흥도(靈興島)에는 좁고 굴곡이 심한 동서 수로 2개가 있다. 동서 수

로는 인천으로의 길목을 팔미도(八尾島) 전방에서 합류하므로, 결국 거기서부터 인천항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는 넓은 갯벌 사이로 뻗어있는 단 하나의 수로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수로를 통해 가까스로 인천항에 접근하면 눈앞을 가로막는 월미도(月尾島)가 나타난다. 방파제로 인천과 연결된 월미도는 남쪽의 소월미도와 이어져 그 후방에는 소규모의 내항(內港)을 형성한다. 인천에는 상륙에 적합한 해안이 없는 편이지만 부족하나마 적색, 청색, 녹색 해안으로 각각 지정되었다. 월미도에서는 인천 본토로 연결되는 방파제가 대체로 직각을 이루며 북쪽으로 뻗은 이 섬의 꼬리 부분에 서쪽으로 약 200m 폭의 해안(녹색해안)이 있다. 인천 본토 쪽에서는 월미도와 방파제가 이어지는 곳으로부터 북쪽에 암벽이 있는 약 300m 길이의 해안과, 당시의 인천 시가지 남쪽 염전, 즉 원도의 동쪽 제방으로 이어지는 작은 해안이 각각 적색과 청색 해안으로 지정 사용되었다.

#### 전선 상황

당시 인천 지역에는 월미도에 북한군 제226독립육전연대 제3대대 소속의 400여 명과 제918해안포연대 예하 부대가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인천 시가지에는 신편 제9사단 예하 제87연대가 8월 12일부터 인천 지역 방어 임무를 인계받아 담당하고

있었다. 인천 시가지 중 월미도 제방으로부터 북동쪽 주안 염전까지 5~6km의 해안 방 어는 단대호 미상의 여단인 제884군부대 예하 1개 대대가 배치되어 방어하였다. 미 제 10군단의 정보 판단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 규모는 서울에 약 5,000명, 인천에 약 1,000명 그리고 김포비행장에 500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될 무렵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은 김천에 전선사령부를 두고 2개 군단 13개 사단을 배치하여 마산-왜관-포항의 전선으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총 공세를 감행하고 있었다. 이들 병력의 총수는 약 10만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대해 국군과 유엔군은 3개 군단 예하에 10개 사단과 1개 여단 등 총 병력 15만여 명을 배치하여 방어하고 있었다.

미 제8군은 인천상륙작전과 동시에 낙동강 전선에서의 반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현 접촉선인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 개시선으로 하여 인천상륙작전보다 하루 뒤인 9월 16일 오전 9시에 일제히 반격을 개시한다는 것이었다. 제8군은 서부 및 서남부지역에서 미군 1개 군단과 4개 사단이, 동부지역에서 국군 2개 군단이 일제히 반격을 개시하도록 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1950년 8월 초 한국에 도착하는 미국의 증원부대를 마산 정면에 집중시켜 진주를 탈환하기 위한 일대 반격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 상륙작전의 구상

1950년 6월 29일 서울이 함락되고 북한군의 진격이 가속화되자, 한강 방어선을 시찰한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는 북한군이 남진을 계속할 경우 장차 인천으로의 상륙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때 맥아더의 구상은 사단 규모의 병력에 의한 상륙을 감행하여 조기에 전쟁을 종결짓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최초의 상륙작전 구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이 한강 전선을 시찰하고 복귀한 직후인 1950년 7월 첫주에 그의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에게 하달한 지시와 더불어 조기에 계획이 진척되었다. 이 계획은 작전참모부장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이 이끄는 합동전략기획단(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 JSPOG)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블루하츠(Blue Hearts)’라는 작전명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맥아더는 미 지상군의 참전이 결정된 나흘 뒤에 이미 일본에 주둔한 미 제1기병사단으로 7월 하순에 인천상륙작전을 단행할 수 있도록 상륙 훈련을 지시하였다. 7월 4일에는 미 극동군사령부에서 상륙작전을 위한 최초의 공식 회의가 소집되었다. 블루하츠 계획은 북한군을 38선 너머로 격퇴시키려는 기도하에 작전 일자리를 7월 22일로 하

였다. 이 계획은 전선 남쪽에서 미 제24사단 및 제25사단으로 반격작전을, 미 해병 1개 연대전투단 및 미 제1기병사단을 돌격상륙부대로 삼아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7월 6일 게이(Hobart R. Gay) 소장을 불러 인천에 상륙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전선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이 계획은 10일경에 무산되었다.

#### 크로마이트 작전계획

이후에도 상륙작전 구상은 비밀리에 계속 추진되고 있었다. 합동전략기획단은 인천, 군산, 해주, 진남포, 원산, 주문진 등 가능한 모든 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이 마련한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 계획 초안이 7월 23일 완성되어 극동군사령부 관계자들에게 회람되었다.

맥아더사령관이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자, 극동군사령부는 작전 100-B, 작전 100-C, 작전 100-D의 세 가지 안을 제출하였다. 작전 100-B는 서해안 중 인천에 상륙하는 것이고, 작전 100-C는 군산에, 그리고 작전 100-D는 동해안 주문진 근처에 상륙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세 가지 작전에서 최종적으로 작전 100-B가 채택되었다. 잠정적인 D-Day는 9월 15일이었다.

1950년 가을 인천 해안에서 상륙작전이 가능한 만조일은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과 이 날짜를 포함한 전후 2~3일 뿐이었다. 10월은 기후 관계상 상륙하기에 늦은 시기로서 가장 적절한 시일은 9월 15일로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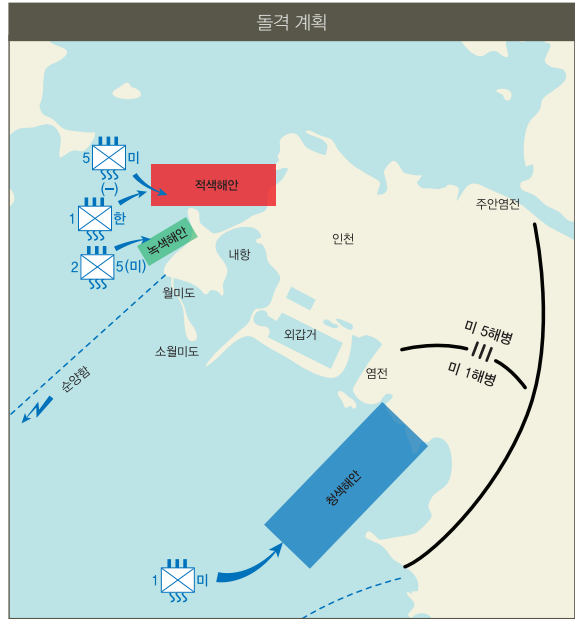
1950년 7월 24일 맥아더는 도쿄에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극동군사령부의 참모진을 유엔군사령부의 직책에 활용하였다. 사실상 유엔군사령부는 부가적인 임무를 부여 받은 극동군사령부 그대로였다.

맥아더는 상륙작전을 위한 군단참모 구성에 앞서서 극동군사령부 참모들로부터 인원을 차출하여 임시 계획 참모진 편성을 지시하였다. 그는 8월 15일 이 새로운 참모진을 극동군 사령부내의 특별계획참모부(Special Planning Staff)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참모장에 러프너(Clark L. Ruffner) 소장을 임명했다.

합동전략기획단은 8월 12일 극동군사령부 작전 계획 100-B를 하달하였다. 맥아더는 상륙작전의 기본 계획을 확정된 후 상륙 부대의 편성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8월 26일 상륙작전을 담당할 제10군단을 공식적으로 편성하였다. 미 제10군단의 주요 부대는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이었다. 미 제7사단은 한국에 파병된 다른 부대에 많은 장교 및 기간 요원들을 차출하여 그 병력이 부족하자, 한국 청년 8,000여 명을 선발하여 일본에서 훈련시킨 후 배치시켰다. 이들이 바로 카투스사(KATUSA)의 시초였다. 한편, 국

군으로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부대는 한국 해병연대와 국군 제 17연대였다.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맥아더의 계획은 9월 9일 미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 인천상륙에 앞서 인천 지역에 대한 수로, 해안조건, 방파제 및 북한군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첩보대를 파견하여 인천 연안에 대한 각 섬들과 해안을 정찰하여 관련 정보를 확보하였다.



**상륙작전의 임무와 과업**

상륙작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륙군의 임무와 과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하게 인천항만과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고, 둘째, 해안 교두보 확보 후에 신속하게 동쪽으로 진출하여 김포비행장을 확보하며 경인가도를 탈취하고, 셋째, 영등포를 통해 한강 남쪽으로 접근하여 이를 도하하고, 넷째, 중앙청 및 북쪽으로 진격하여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건물을 탈취하고 탈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쪽에서 북상하는 미 제8군과의 연결 작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원 방면으로 진격 및 북상하는 북한군의 차단 진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륙군은 작전을 개시하였다. 1950년 9월 5일 인천을 목표로 상륙전대가 요코하마에서 출항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게 될 제7합동기동부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TF-90 공격부대 미 해군소장 도일
- TF-92 제10군단 미 육군소장 알몬드
- TF-91 봉쇄·엄호작전 영 해군소장 앤드류스
- TF-99 초계·정찰부대 미 해군소장 헨더슨
- TF-77 고속항모부대 미 해군소장 어윈
- TF-79 군수지원부대 미 해군대령 오스틴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기에 앞서 상륙 부대는 양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즉 9월 5일부터 북으로는 평양에서부터 남으로는 군산까지,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의 상륙작전 가능 지역에 폭격을 실시하였다. 9월 12일부터는 미국과 영국의 혼성 기습부대가 군산을 공격하고, 동해안 전대는 9월 14일과 15일 삼척 일대에 포격을 가하였다. 포항 장사동에도 9월 14일 소규모 상륙작전을 실제 감행해 북한군을 혼란시키는 등 양동작전을 전개하며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한편, 9월 12일부터 관문인 월미도를 제압하기 위한 폭격이 시작되었다.

### 인천상륙작전의 개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7합동기동부대는 미 제7함대 세력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261척의 함정과 미 제10군단 예하 한국군 2개 연대를 포함한 미군 2개 사단 등 총 병력 7만여 명으로 구성된 지상군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9월 15일에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였다.

9월 15일 00시 00분 선견공격전대가 일군의 구축함을 선두로 인천수로에 진입하였다. 선견공격전대(APD 3척과 LSD 1척) 함선에는 최초 상륙돌격을 감행할 미 해병 제5연대 제3대대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을 선도 호위하는 구축함과 순양함 외에도 로체스터호와 맥아더 장군이 동승하고 있는 도일 제독의 기함 마운트 매킨리호도 여기에 합류하고 있었다. 월미도를 강타할 미 해병 항공기와 내륙의 정찰 및 폭격을 담당할 고속항모부대의 함재기들이 출격하였다. 모든 함정들은 전투 배치를 완료하였고, L시는 오전 6시 30분으로 확정되었다. 드디어 선견공격전대가 목표 지역으로 이동을 완료하여 월미도 상륙을 위한 돌격단계로 들어갔다.

오전 5시 45분경 구축함이 월미도에 포격을 시작했고, 30분이 지난 6시 15분 로켓포함이 해안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로켓포함이 월미도에 포격을 가하는 동안 상륙정에 탑승한 미 해병 제5연대 제3대대가 공격 개시선을 통과하였다. 이들은 적에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오전 6시 33분에 월미도 해안에 상륙하였다. 이어 제2상륙부대와 제3상륙부대도 월미도 해안에 차례로 상륙하였다. 이들은 북한군의 수류탄 공격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매우 미미하였다.

상륙 후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45분 미 해병대대장은 월미도를 완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소월미도에 대한 공격은 오전 10시경에 시작되었다. 월미도 남쪽으로 1킬로미터 정도의 방파제로 연결된 소월미도는 약 1개 소대의 북한군 병력이 방어하고 있었다. 미 해병 제5연대 제3대대의 1개 소대가 공격하여 1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이를 확보하였다. 월미도와 소월미도에 대한 소탕작전은 정오경 완전히 종료되었다.

포로들의 진술에 따르면 월미도와 소월미도에는 제918해안포대 제2대대의 2개 포대 지원을 받는 북한군 육전대 소속 제226연대의 예하 부대원 약 400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미군은 손쉽게 교두보를 확보했다. 9월 16일 미 해병사단이 전진 교두보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진격작전의 토대를 마련할 때까지 총 손실은 전사자 4명과 부상자 21명뿐이었다.

월미도의 상륙작전 성공 이후 공격 부대 사령관 도일(James H. Doyle) 소장은 오후 2시 45분 상륙부대의 상륙을 명령하였다. 여기에는 미 해병 제5연대와 이에 배속된 한국 해병 제3대대, 미 해병 제1연대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500정이 넘는 상륙 주정과 수륙양용 차량에 탑승하여 상륙 준비를 완료하였다.

함포와 더불어 잘 짜인 계획에 따라 미 해군·해병대 항공기들이 해안에 대한 폭격을 시작하였다. 미 해병 제5연대와 미 해병 제1연대가 중심이 된 상륙부대는 공격 개시선에서 상륙작전을 전개했다. 작전 구역인 적색해안과 청색해안에 상륙해야 할 각각의 부대 공격 개시선은 적색해안은 2km, 청색해안은 5km에 설정하고 있었다.

미 해병 제5연대와 한국해병 제3대대는 인천과 월미도로 이어지는 방파제 북쪽으로 상륙하여 인천역 및 지금의 자유공원 지역 쪽으로 상륙하여 점령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이들은 10시경에 목표지역을 점령하였다.

청색해안으로의 상륙작전 임무를 부여받은 미 해병 제1연대는 서울로 향하는 경인가도가 위치한 동인천역 및 수봉산 지역 쪽으로 상륙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그러나 미 해병제1연대는 조류의 영향으로 인해 상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목표 지역을 9월 16일 새벽 1시경에야 점령할 수 있었다.

공격부대와 함께 지원부대의 상륙도 이루어졌다. 9월 15일 중 인천에 병력 약 1만 3,000명에 450대의 차량을 포함한 장비와 보급품이 양륙되었다. 이러한 속도로 상륙이 이루어질 경우 연합군 모든 부대가 상륙을 하려면 적어도 5일정도 예상되었다. 청색해안은 9월 16일 오후 9시에 폐쇄되었다. 9월 16일까지의 양륙 현황은 병력이 1만 5,000명, 차량 1,500대 그리고 화물이 1,200톤이었다.

#### 인천 시가지 전투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 해병사단은 9월 16일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을 시작하였다. 이는 상륙지역에 대한 방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인가도를 통해 서울로 진출할 경우 후방 지역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은 미 해병 제5연대의 작전 통제아래 실질적으로는 한국 해병대 사령관 지휘로 실시되었다.



시가지에 놓인 경인 철도를 경계로 남쪽의 응봉산 일대와 도심 지역 소탕은 한국해병 제3대대가 맡고, 그 외곽 즉 경인 철도 북쪽의 공장지대를 한국해병 제1대대가 담당하였다. 북한군 대부분은 이미 인천 지역을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보였으나, 일부는 민간인으로 변장하여 주택가에 숨어 있었다. 제3대대가 담당한 지역에서는 좌측의 철로 연변을 제9중대가, 우측의 도심으로 뻗는 주택가를 제10중대가, 그리고 제11중대와 제12중대가 중앙에서 응봉산의 공원 일대를 담당하여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제1대대는 해안선 철도를 따라 만석동, 화수동 일대를 거쳐 송림동까지 진출하여 소탕작전을 전개하였고, 오후 15:00 경에는 도심지를 장악하였다. 인천 지역의 소탕작전은 미미한 피해를 입고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결과 및 영향**

인천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동안 미군은 전사 415명, 부상 2,029명 및 실종 6명의 손실을 보았으며 한국해병대는 전사 7명, 부상 300명, 실종 16명의 피해를 보았다. 한국군과 유엔군의 총 손실은 약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군은 북한군 사살 14,000명, 포로 7,000명과 적의 전차 50여 대를 파괴하는 등 상당한 전과를 달성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의 전반적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적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된 인천상륙작전은 직접적으로 낙동강 전선의 적군을 급속히 와해시켰다. 둘째, 서울을 탈환하여 적의 전 병참선이 차단되었으며 여타 부대들의 공격이 이에 수반됨으로써 적의 참패가 동시에 초래되었다. 셋째, 성공적으로 완수된 이 작전에 의해서 인천항만 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시설이 북진작전을 위하여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인천상륙작전이 가지는 전사적 의미는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었다는 점과 북진정책을 통한 북한으로의 반격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이후 김포-부평으로 작전 지역을 전개하여 서울로 향하는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완화시켜 대반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유엔군



은 김포 및 부천, 영등포 지역을 차례로 수복하고 한강을 넘어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탈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1983.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서울탈환작전 (기획)

[서울奪還作戰, 1950. 9. 16. ~28.]

### 개요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해안교두보를 확보한 미 해병 제1사단과 한국 해병 제1연대, 미 제7사단이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경인국도를 통해 서울을 공격하여 중심부를 탈환한 작전이다.

### 전개과정

#### 경인국도 진격과 김포비행장 탈환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이 서울 방면으로 진격하려고 할 무렵 북한군은 제107연대와 제18사단 분산 병력을 모아 4개 대대로 재편성한 후 김포-부평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하고 있었다.

미 해병 제1사단은 해안두보의 확보와 차후 내륙 진격 작전을 위해 9월 16일 경인국도를 축선으로 하여 미 해병 제5연대와 제1연대 등 2개 연대가 병행 공격하였다. 한국 해병 제1연대는 미 해병 제5연대 예비부대로서 9월 15일 오후 적색해안에 상륙하였다. 16일에는 미 해병 제5연대의 후미를 따라 인천 시가지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서울을 향하여 해안교두보선을 넘어서는 한미 해병부대들 앞에는 중간 목표로서 장악해야 할 김포비행장과 영등포, 그리고 자연 장애물로서 극복해야 할 한강 등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김포비행장의 조기 확보였으며, 아울러 영등포 탈취를 위해 경인(京仁) 국도가 중요한 공격축선으로 설정되었다.

미 해병대의 돌격부대는 인천-서울 국도를 중심으로, 제1연대는 국도 남쪽을 미 해병 제5연대는 국도 북쪽 지역을 할당 받아 공격 전진하고 있었다. 16일 야간 미 해병 제5연대와 제1연대는 부평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까지 진출하여 부평 지역의 서측 경인국도를 통제하게 되었다. 미 해병 선두대대가 전진하고 있을 때 한국 해병 제3대대는 17일 아침 6시경 부평역 서남고지에 진출하여 미 해병대대를 지원하였다. 그후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들이 진출하기에 앞서 아침 7시부터 부평 지역 탐색전을 개시하였다.

미 해병 제5연대는 9월 17일 오전 9시 김포비행장 탈환을 위해 진출을 재개하였다. 연대는 김포비행장 남쪽 몇 개의 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여 18일 오전 8시에 김포비행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는 서울 공격을 위한 공군력을 전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의 적을 격퇴하는데 긴요한 기지였다. 이와 같이 이미 확보된 김포비행장에는 18일 오전 10시에 해병대 헬리콥터 1대가 착륙했는데, 6월 이후 처음이었다. 9월 20일부터는 거의 모든 항공기가 김포에서 출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17일 한국 해병대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즉 한국 해병대는 미 해병 제5연대와 같이 인천시까지 전투를 마치고 경인국도를 따라 진격하여 부평을 점령한 다음 계속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는 것이었다. 북한군 패잔병들이 도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포 일대가 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김포비행장에 대한 엄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 해병 제3대대는 9월 18일 독립적으로 김포와 부평간의 모든 지역을 경비하고 잔적을 색출하여 격멸하는 임무를 맡았다.

한국 해병대는 9월 21일까지 김포반도의 적 주력부대를 거의 소탕하여 제1단계 작전을 완료하였다. 이어 제2단계 작전에 따라 김포읍 이북에서부터 한강 연안 지역, 그리고 강화도에 이르기까지 평정과 잔적 소탕을 담당하였다.

미 제7사단의 제32연대는 17일 저녁 상륙하자마자 상륙군 우익인 미 해병 제1연대 제1대대 진지를 인계 받았다. 이날 저녁까지 미 해병 제1사단은 소사-영등포간 도로 북쪽 한강 연안의 모든 고지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미 해병 제1연대의 영등포 진입은 여전히 난관이 있었다. 즉 북한군 제18사단은 1개 연대로 영등포를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였다. 미 해병 제1연대는 김포 방면으로 공격한 미 해병 제5연대와 한국 해병대보다 더 고전하였다.

미 해병 제1연대가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미 제32연대가 우측으로 진격하여 영등포 남쪽 도덕산(△182고지)을 확보하였다. 이어 국군 제17연대와 미 제7사단 잔여부대들이 18일 상륙하여 19일 전선에 참가하였다. 미 제7사단은 경인국도의 남쪽인 미 해병 제1연대 우측을 책임지게 되었다.

## 한강도하

미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은 9월 18일 오후 미 해병 제1사단에 대하여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북쪽 고지를 점령하라는 작전명령 제1호를 하달하였고, 미 해병 제1사단은 예하부대에게 도하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의 요지는 미 해병대 제1연대가 국도를 따라 영등포를 향해 진격하고 미 해병 제5연대가 19일 도하 지점을 선정, 준비를 갖춘다는 것이다.

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은 9월 19일 아침 제10군단장에게 미 해병 제5연대의 상륙지점으로 행주나루를 선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행주 도하작전에 참가한 부대는 미 해병 제5연대와 한국 해병 제2대대, 미 해병사단수색중대, 미 해병 제1전차대대 A중대 등이었다.

미 해병 제5연대장 머레이(Raymond L. Murray) 대령은 김포비행장 지하실에서 참모들과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연대 작전 계획은 한강을 도하하는 즉시 대안의 행주 125고지를 점령하고, 이후 철로를 따라 서울 남동쪽으로 진격하여 간선도로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사단 수색중대는 오후 9시 경 수륙양용차 8대에 분승하여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125고지로부터 적의 기관총과 박격포 사격을 받았다. 미 해병 제5연대장은 기습 도하 계획이 좌절되자 부득이 강습 도하할 것을 결심하였다.

9월 20일 새벽 4시 미 해병 포병연대는 15분간 공격 준비 사격을 실시하였다. 이 일대의 북한군은 제45사단 예하 제76연대와 제513포병연대 일부 병력이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미 해병 제5연대 제2대대가 도하하고 이어 한국 해병 제2대대가 미 해병 제56수륙양용차(LVT)대대 A중대와 함께 도하하였다. 이날 연대본부와 12대의 M-26 퍼싱 전차 그리고 미 해병 제1대대가 도하를 완료하였다.

9월 21일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미 해병 제1사단은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여 한국 해병 제1대대와 미 해병 제5연대를 주공부대로 선정하였다. 이는 정치적 고려와 심리적인 면에서 국군과 한국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날 미 해병 제1연대가 영등포 방면에서 악전고투 중이었고, 미 해병 제5연대가 215고지와 68고지 등을 점령하였으며 한국 해병이 104고지까지 진출해 있었다.

영등포 방면의 미 해병 제1연대는 북한군 제9사단 제87연대와 제18사단 예하부대에 고전을 겪고 있었다. 즉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북한군은 저지대의 폭넓은 개활지와 연대전방의 안양천 제방을 이용하며, 영등포 시가지를 요새화하고 있었다. 21일 오전 6시 30분 미 해병 제1연대는 공격 준비 사격에 이어 제2대대를 주공으로 영등포의 서북쪽과 서남쪽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때 연대 우측

의 미 제32연대도 동시에 공세를 취하였다.

연대 주공인 제2대대는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도 목표 고지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미 해병 제1연대의 주력은 22일 아침에 영등포 시내로 진격할 수 있었고 23일 노량진을 경유하여 한강 인도교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미 제7사단은 9월 20일 새벽에야 인천-안양간 도로를 중심으로 작전에 돌입하였다. 사단은 미 해병 제1연대가 영등포에 진출하고 있을 때 그 우측을 방어하면서 적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수원비행장을 조기 확보하도록 임무를 받았다. 미 제7사단은 안양에서 남진한 사단 정찰중대와 미 제31연대가 9월 22일 수원비행장을 점령하여 중요한 항공기지를 확보하였으며, 미 제32연대는 한강 남안으로 진출하였다.

### 서울탈환전

수도 탈환의 제1선 부대인 한국 해병 제1대대는 9월 21일 오후 미 해병 제5연대와 함께 서울 북서쪽 외곽에 진출하였다. 이 일대의 북한군은 1개 보병연대와 서울 치안연대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북한군 치안부대는 전선에서 도주하던 병사들을 모두 모아 방어진지에 투입시키고 아울러 시가지에 바리케이드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다.

미 해병 제5연대와 한국 해병 제1대대는 수색 방면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와 철로



를 따라 본격적인 공격 준비를 갖추었다. 한국 해병 제1대대가 중앙을 담당하였고, 미 해병 제5연대 제1대대가 좌측, 미 해병 제5연대 제3대대는 우측방의 공격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 지역의 공격 목표들은 홍제동에서 서교동쪽으로 뻗어 야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북쪽 105고지(의령터널 고지)와 중앙 105고지(노고산), 그리고 남쪽 105고지(와우산) 등 3개의 105고지로 형성되어 있었다.

한국 해병 제1대대는 20일 새벽 0시경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수색을 무혈점령한 후 모래내의 104고지(염산) 전방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21일 미 해병 제5연대 좌일선 제3대대는 안산(△296)으로 향하고 제1대대는 105(와우산)고지를 향해 공격하였다. 곧이어 한국 해병 제1대대도 오후 2시경 104고지를 공격하였다. 2시간 동안의 혈전에서 대대는 8명의 전사와 20명의 부상자를 내고 마침내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104고지에서 패주한 북한군은 다음 날 22일 새벽 4시 다시 역습을 감행하였다. 적은 약 600명이 120mm박격포와 기타 화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3시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공격해 왔다. 한국 해병 제1대대는 화력을 집중, 격전을 치루면서 적을 격퇴하였다. 104고지는 아군의 서울 돌입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제고지로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요지였다.

연희고지 주변의 지형은 서울 북쪽 인왕산(△338) 남서로 296고지(안산)가 위치해 있으며, 고지 남동쪽에 3개의 105고지와 연세대학을 중심으로 한 좌우 전후에 낮은 능선이 있다. 적은 이미 9월 18일부터 안산과 와우산을 연하는 방어선에 총력을 집중하여 보강하고 있었다. 안산의 적은 제18사단 예하부대와 인천에서 철수한 부대들이었으며, 연희고지 방면의 적은 제78독립연대와 제25교육여단이었다.

미 해병 제1사단은 연희고지 능선을 넘어 좀 더 진출해야 적의 주저항선 진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104고지를 점령한 한국 해병 제1대대는 계속 105고지(의령터널고지)를 목표로 향해 진격의 기세를 멈추지 않았다. 좌측 미 해병 제5연대 제3대대는 296고지(안산)를 목표로, 그리고 우측의 미 해병 제1대대는 철로를 횡단하여 서교동의 105고지를 목표로 하여 각각 공격을 강행하였다.

한국 해병 제1대대는 105고지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200m도 안 되는 연희고지를 향해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적으로부터 치열한 저지사격을 받았다. 한국 해병 제1대대는 개활지를 건너는 동안 사격에 노출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대대는 지금까지 전투에 참가한 이래 가장 치열한 적의 저항에 부딪쳤고 종일 반복된 공격에서도 선두가 불과 100m도 전진하지 못하였다. 한국 해병 제1대대의 연희고지 공격은 다음 날(23일)까지 계속

되었으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국 해병 제1대대가 105(노고산)고지에 이르는 중간 목표인 연희고지를 2일간이나 공격하고 있을 무렵, 서울 서측방 우일선에서 105(와우산)고지를 공격하고 있던 미 해병 제5연대 제1대대도 역시 치열한 적의 저항을 받고 있었으나, 23일 오후 5시경에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날 미 해병 제5연대 제3대대는 안산 산정에서, 제1대대는 105(와우산)고지에서 각각 하루 종일 적의 반복되는 역습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한편, 한국 해병 제1대대와 임무를 교대한 미 해병 제5연대 제2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이들 역시 적의 탄막사격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제2대대는 24일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마침내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대장 스미스 대위가 전사하는 등 병력 중에 26명만이 생존하였다. 후일 미 해병들에 의해 스미스 능선이라 이름 붙여진 안산에서 56고지로 이어지는 능선이 확보됨으로써 서울 서측방 적의 주진지를 돌파하게 되었다.

최초 미 해병사단이 적의 가벼운 전초진지 정도라고 판단했던 연희고지 능선은 사실상 적의 서울 서측방 방어의 최후 보루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해병 제1대대와 미 해병 제5연대 제2대대에 의해 수행된 연희고지 일대의 전투는 서울 돌파전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였으며, 서울 서측방의 적 방어선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전투였다.

미 제10군단의 서울 공략계획은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를 기간으로 삼아 서울을 탈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월 23일 적의 저항으로 미루어 보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 해병사단은 9월 24일 미 해병 제1연대로 하여금 한강을 도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미 해병 제1연대는 미 해병 제5연대 제1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절두산-당산철교 북쪽 지점에서 도하를 개시하였다.

한국 해병대는 전 병력을 재정비하여 제1대대가 미 해병 제5연대에, 제2대대가 미 해병 제1연대에, 제5대대가 미 해병 제7연대에 각각 배속되어 서울 돌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한편, 9월 24일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미 제7사단을 방문하여 제32연대로 하여금 서빙고로부터 서울로 돌입할 것과 국군 제17연대를 배속시킨다는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9월 25일 미 제32연대와 국군 제17연대는 서빙고로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도하 즉시 적의 저항 없이 남산으로 진격하였다. 이날 밤 한국 해병대는 삼각지 쪽으로 서울에 돌입하였다.

9월 25일 미 해병 제1사단은 서울 진공작전을 재개하였다. 우측방 제1연대는 서울 서측에서 동쪽으로 고려대 방면으로, 제5연대는 서울 북서쪽으로 진출하여 미아리고개로,

제7연대는 사단 좌측방 개성-서울간 국도를 장악하여 서오릉 일대로 각각 진출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미 해병사단 각 연대의 진격에 대해 북한군은 서대문형무소 방향과 마포 방면에서 역습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북한군의 반격으로 미 해병 제1사단은 계획대로 진격할 수 없었다.

적의 주력 부대는 영등포 지역을 방어한 제18사단이었다. 이들은 사단의 일부 부대를 남겨 놓은 채 25일 저녁 주력을 의정부 방면으로 철수시켰다. 북한군은 서울-의정부간의 방어를 위해 제31서울여단을 사단으로 증편하여 투입하고, 제17기체화사단 제33연대를 서울로 투입하고 있었다.

9월 26일 미 해병사단은 예하 연대에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하지만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하루 종일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날 저녁까지 미 제10군단이 탈환한 지역은 서울의 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서울 탈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9월 27일까지 서울 시내에서는 건물과 북한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둘러싼 치열한 시가전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한미 해병대는 북한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 하나하나를 제거하면서 전진할 수밖에 없었다.

마포로 돌입한 한국 해병 제2대대 소속의 제6중대 제1소대는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기 위해 대대의 통제를 벗어나 9월 27일 새벽에 태극기를 지참하고 중앙청을 향해 출발하였다. 소대 병력을 이끌고 중앙청에 도달한 박정모 소위는 병사 2명과 함께 새벽 6시에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국 9월 27일 서울 중심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미 해병사단은 9월 28일 국군 제17연대에게 중앙청 및 경무대 경비임무를 인계하였다.

한편, 미 제7사단의 전투는 서울 동쪽 외곽 도로를 따라 퇴각하는 적과 조우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예하 제32연대는 9월 26일 새벽 남산 일대에서 적의 역습을 격퇴한 후 종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여기에 미 제32연대에 배속된 국군 제17연대가 한강을 도하해 응봉을 장악한 후 면목동, 망우리 고개에 진출함으로써 서울-춘천 간 중요 도로를 차단하였다. 28일 아침에는 서쪽에서 동진하여 중심부의 잔적을 소탕하고 서울 중심지로 입성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미 해병 제1사단과 한국 해병 제1연대가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적의 전 병참선이 차단되었고, 이를 통해 전선에서 적의 참패를 불러 올 수 있었다. 서울 탈환 작전의 전과는 적



사살 14,000여 명, 그리고 포로가 7,000여 명에 달한 반면 아군의 전사자도 3,500여 명에 달했다. 미 해병 제1사단에서 2,383명, 미 제7사단에서 572명, 한국 해병대에서 약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서울이 완전히 탈환된 28일 낮부터 시정을 재개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시설을 복구하기 시작하였다. 9월 29일 오전 10시 맥아더사령관과 일행이 도쿄에서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으며, 잠시 후 이승만 대통령 일행도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여 함께 서울로 이동하였다. 이후 정오인 12시에 중앙청에서 수도 서울 환도식이 거행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3], 19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북진작전** (기획)  
 [北進作戰, 1950. 10. 1.~20.]

**개요**

국군 제3사단이 1950년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한 후에 수도사단과 함께 10일 원산을 탈환하고,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이 서부전선으로 진격하며, 국군 제7사단 제8연대가 중부전선으로 진격해 10월 20일 평양을 완전히 탈환할 때까지 공격작전이다.

**38도선 돌파 결정**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 그리고 낙동강 선에서 반격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9월 말까지 38도선 남쪽의 북한군을 격멸하고 사실상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했다. 이때 국군과 유엔군이 전쟁 전의 분계선이었던 38도선으로 접근함에 따라 그 돌파 여부가 최대의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이 기회에 북한 공산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결정과 상관없이 국군 자체적으로 북진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미국 내에서도 38도선 돌파에 대해 미 국무부는 중국과 소련의 전쟁개입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유보입장을 나타냈으나, 국방부는 북한군을 완전히 분쇄해야 한다는 맥아더 유엔군사령관과 미 합동참모본부의 의견을 수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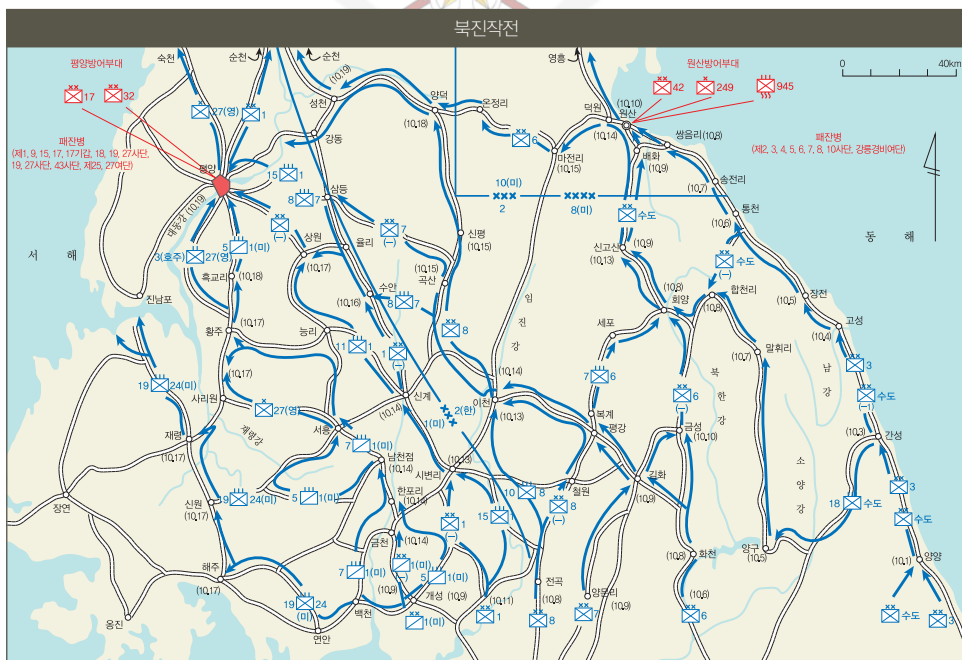
고 있었다.

공산 진영에서는 타이완 문제에 집착해 온 중국이 인도대사를 통해 “중국은 미국이 38도선을 돌파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을 전하고, 말리크(Yakov A. Malik) 유엔 소련 대표도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전쟁을 불가피하게 확대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의한 전황의 호조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미 합동참모본부에서는 ‘9.27훈령’으로 알려진 북진작전에 따른 군사작전 지침을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유엔군사령관에게 정책의 세부지침을 내렸다.

‘9.27훈령’은 유엔군이 한국군의 38도선 돌파를 허용하되, 작전의 목표를 북한군의 격멸이라는 군사목표에 엄격히 한정하고, 정치적 문제로서 한국군이 아닌 어떠한 지상군도 소련과 인접한 동북 지역이나 만주 경계선 지역에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의 선두부대가 강릉을 탈환하고 38도선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던 9월 29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예하 모든 부대에 38도선에서 일단 진격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단행의 심각성을 육군 수



뇌부와 논의하여, 정일권 총참모장이 우선 미 제8군사령관과 협의하고자 하였다.

총참모장은 김백일 제1군단장으로부터 38도선 북쪽 어느 고지의 북한군 진지로부터 아군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워커 미 제8군사령관을 방문해 협의한 결과 순 군사적 고려에 의해 이 고지에 대한 공격을 승인받았다. 30일 총참모장은 제1군단사령부를 방문해 제3사단 제23연대 진지를 돌아보고 군단장으로 하여금 38도선 이북 이역이라고 할지라도 정면의 적을 공격해도 좋다고 38도선 돌파를 구두로 명령하였다. 성문화된 작명은 제1군단 작명 제103호와 제3사단 작명 제44호였다.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패주를 거듭하고 9월 말까지 약 2만 5,000~3만여 명이 38도선을 넘었다. 나머지 3만여 명은 퇴로를 잃고 지리산과 소백산맥, 태백산맥 일대에 잠입하여 유격활동을 하거나 38도선 이북으로의 북상을 시도하였다. 북한군 사단 병력은 편제의 20% 수준에 불과하였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38도선 일대 방어선을 서부 지역은 최용건 민족보위상이, 동부 지역은 김책 부수상 겸 산업상이 담당해 10월 5일까지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최용건이 지휘하는 서해안 방어사령부는 황해도와 경기도 북부 일대에서 북한군 제19·제27·제43보병사단과 제17기갑사단을 배치해 유엔군의 북진을 지연시키려 했다. 동해안에서도 김책이 지휘하는 전선사령부가 낙동강전선에서 간신히 탈출한 제5·제12·제15사단을 지휘해 국군의 북진을 막으려 했다.

10월 7일에는 유엔에서 마침내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북진을 뒷받침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유엔군의 북진에 대한 외교적 걸림돌이 제거되자 9일 미 제1기병사단이 공격을 시작하면서 미군의 38도선 돌파도 시작됐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미군이 38도선 돌파를 시작하기 7일 전인 10월 2일에 이미 북진계획을 내렸다. 그 요지는 미 제1군단이 임진강선에서 공격 준비를 마친 후, 공격명령에 따라 제1기병사단이 주공부대 자격으로 사리원을 거쳐 평양을 공격하도록 돼 있었다.

미 제1군단 예하 제24보병사단은 주공부대의 왼쪽을 보호하면서 해주·사리원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이 임무였으며, 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군단에 배속돼 제1기병사단의 오른쪽에서 고랑포·시변리·신계를 거쳐 평양을 공격하도록 했다.

이미 공격을 시작한 국군 제1군단 예하 제3사단은 양양과 고성을 거쳐 원산을 공격하고, 수도사단은 인제, 회양을 거쳐 동쪽에서 원산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다. 동해안으로 진격하는 국군 제1군단과 달리 제6·제7·제8사단으로 구성된 국군 제2군단은 철원·김화·화천 등 중부 및 중동부전선에서 한반도의 중심지대를 가로지르며 북진하도록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서부에서는 제8군 소속의 미 제1군단이, 중부지역에서는 국군 제2군단이, 그리고 동부에서는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주로 도로를 따라 경쟁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 미 제10군단의 독립작전과 한국군의 맥아더라인 북방 담당

‘9.27훈령’에 따라 38도선 이북으로 작전 확대를 승인받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북진작전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예하 부대에 지시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작전명령 제2호의 요지는 “미 제8군은 주공으로서 38도선을 돌파, 개성-사리원-평양의 축선을 따라 공격하고, 미 제10군단은 주공이 공격을 개시하면 1주일 이내에 원산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원산-평양 축선을 따라 서북으로 진출하여 미 제8군과 연결, 적의 퇴로를 차단 및 포위하고, 유엔군은 정주-군우리-영원-함흥-홍남을 연결하는 선까지만 진격한다. 그 이북지역에 대한 작전은 한국군이 전담한다.”라는 것이었다.

이때 미 제10군단은 미 제8군에 배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이 작전지휘의 통일을 원했지만, 유엔군사령관은 동서 지형상의 문제와 군수지원의 이유를 들어 미 제10군단의 독립작전을 명령하였다. 군수지원 문제는 미 제10군단으로 하여금 원산 상륙을 한 후 독립작전을 하도록 해, 미 제8군의 북진작전을 위한 공격개시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 제1군단의 1일 보급 소요량이 약 3천 톤으로 인천항의 1일 4천~5천 톤의 물동량 수송능력을 활용하면 충족 가능하였지만, 제10군단의 승선작업으로 인해 제8군은 인천항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1일 1만 톤의 양륙능력을 가진 부산으로부터 수송을 위해 파괴된 경부선 철도와 국도를 복구한 후에 비로소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원산상륙작전이 성공하면 미 제10군단에 포함된 미 제7사단이 원산에서 다시 서쪽으로 전진해 미 제1군단과 함께 평양을 공격한다는 계획이었다. 결국 지상으로 북진은 워커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 제8군에 맡기면서, 미 제10군단은 제8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별도의 상륙작전을 실시하도록 했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10월 2일 원산상륙작전계획을 확정하고, 7일에는 원산에 상륙하기 위한 부대이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 동부 지역 돌파

동부 지역에서 38도선 돌파 및 진격작전은 국군 제1군단이 담당하였다. 이종찬 제3사단장은 제1군단장으로부터 군단작명 제3호를 통해 양양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0월 1일 제23연대 제3대대를 선봉으로 인구리 북쪽에서 38도선을 넘어 양양을 목표로 진격해 이튿날 오후 2시 양양에 돌입하고, 같은 시간 서림리 북쪽에서 38도선을 돌파한 수도사단 제18연대도 양양을 점령하였다. 이후 간성을 거쳐 고성을 점령한 후 한 차례 격전을 치르고 장전을 거쳐 6일 통천을 점령하였다.

9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최후 항복권고문이 발표된 가운데, 국군 제3사단은 원산 외곽 4km 지점까지 진출해 제23연대가 남대천을 도하하여 상사고리를 통과하였다. 이어서 지경리 부근까지 진출하여 원산 공략의 최후거점을 확보하고, 제22연대도 남대천을 감제하는 아산까지 이동함으로써 원산으로 진출할 태세를 갖추었다.

좌측의 수도사단 제18연대는 10월 1일 새벽에 제1대대를 선두로 38도선을 돌파해 이튿날 양양에 돌입하였다. 제1기갑연대도 대화-광원리를 경유하여 오후에 양양에 진입하였다. 4일 수도사단장이 군단으로부터 1개 연대를 간성에서 진부령 방향으로 진격시키라는 명령을 받아, 제18연대는 진부리로 진출하여 태백산맥 동측에서 준동하는 패잔병을 소탕하도록 하고, 제1기갑연대는 고성 남강의 적을 격퇴한 후 남강 북안을 점령하였으며, 제1연대는 후방경계 및 조산리-간성 사이에서 잔적을 소탕하였다.

5일 육군본부는 수도사단에 “양구, 말회리, 화천(化川), 안변을 점령한 후 원산을 점령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수도사단 제18연대는 새벽 5시를 기해 제1·제2대대가 진부리를 출발해 진부령을 경유하여 원통-양구를 공격하여 광치령에서 북한군 약 300명과 교전해 이를 격퇴한 후 저녁 양구 동쪽 송우리까지 진출하고, 제3대대는 인제 방면으로 진격해 잔적을 소탕하고 원대로 복귀하였다.

9일 아침 신고산을 점령해 경원선을 차단하고 그 부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북한군 1개 사단분의 장비와 물자를 노획하였다. 제1기갑연대가 도남리를 점령한 후 안변까지 진출함으로써, 수도사단은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역사적인 38선 돌파에 이어 안변 북쪽까지 진출함으로써 원산 돌입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10월 10일 국군 제1군단은 원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북한군은 동원 가능한 전력을 최대한 집결시켜 제12·제42사단과 제249여단 등 2만여 명을 원산 일대에 배치하였다. 하지만 북한군의 방어 결의는 국군의 거센 공격 앞에 단 만나질 만에 무너졌다. 12일에는 북진을 명령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원산을 직접 방문해 국군 제1군단 전 병사에게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겼다.

### 중부 지역작전

중부 지역에서 38도선 돌파 및 진격작전은 국군 제2군단이 담당하였다. 제2군단 예하

3개 사단은 1950년 10월 3일부터 8일 사이에 38도선에 도달하였다. 북진명령이 내려진 후 제2군단은 5일 제6사단이 모진교에서 38도선을 돌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8사단이 초성리 북쪽에서, 제7사단이 포천 북방 양문리로 진출하였다.

제6사단은 8일 오후 늦게 북한군 제9사단 예하 2개 연대를 격파하고 화천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신고산-원산을 경유하여 양덕-강동 선으로 진출하기로 하고, 제7연대를 선두로 화천을 출발해 금화를 경유 평강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11일 제6사단은 금성을 출발해 회양에 도착한 후 13일 신고산에 이르렀고, 사단 선두 부대인 제2연대는 덕원까지 진출하였다. 15일 오전 7시 덕원을 출발하여 태백산맥의 마식령고개를 넘어 평양을 향한 장거리 진격을 개시해 저녁 9시에 마식리에 도달하였다. 북한군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동양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17일에는 제7연대가 저녁 8시에는 온정리 북쪽고지 진출하여 양덕을 탈환할 수 있는 선두부대가 되어, 이튿날에는 저항하는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양덕 읍내에 돌입하였다. 이어 성천까지 진격해, 제6사단은 평양 우측 방면을 경유해 성천에서 곧바로 순천-개천-희천을 거쳐 압록강까지 북진하는 데 최선봉이 되었다.

한편 좌측의 제8사단은 선두인 제10연대가 동두천 초성리 북쪽에서 38도선을 돌파하고 북한군 제27사단 일부 병력을 격퇴하면서 한탄강을 건너 전곡에 진출하였다. 전곡을 점령한 제8사단은 제10연대와 제16연대를 공격제대로 하고 제21연대를 예비로 하여 연천을 점령하였으며 철원을 탈환하였다. 이어서 평강에 진입한 후 제16연대를 선두로 하여 평강 북서쪽 북계리에서 도로를 따라 이천을 향해 진격하였다.

14일 제10연대가 이천 지역에서 뒤늦게 패주하는 북한군 패잔병 2개 연대 병력을 격파하고, 제16연대를 초월하여 신계를 경유, 곡산으로 진격하였다. 신계를 점령한 후 평양을 향해 진격하려던 당초 계획이 군단 계획에 의해 변경되었다. 사단은 곡산을 경유하여 18일에는 제10연대가 양덕까지 진출하여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와 조우하였다.

### 서부 지역작전

서부 전선에서 38도선 돌파 및 진격작전은 미 제1군단이 담당하였다. 제1기병사단이 미 제1군단의 주공으로서 개성 일대로 진출한 후 10월 9일 38도선을 돌파했고, 국군 제1사단은 좌인접 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 보다 늦게 11일부터 38도선을 넘어 북진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제19사단, 제27사단, 제43사단 및 제17기갑사단 등 4개 사단 규모의 병력이 개성 북방에 38도선 방어진지를 3선으로 구축하고 저지하고 있었다. 군단장은 이를 격파하면 평양으로의 진격작전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9일 오전 9시 미 제7·제8·제5연대를 좌중우로 하여 금천을 양익을 포위하는 형태로 계획된 축선을 따라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튿날 새벽 2시 예성강을 도하한 제7기병연대가 서쪽으로 공격을 계속하여 북한군을 물리치고 오후에 배천과 그 북쪽 고지를 점령하고, 중앙의 제8기병연대는 북한군 제19사단의 강력한 방어거점인 봉명산(△411) 탈취에 성공하고, 우측의 제5기병연대는 북한군 제27사단의 산발적인 저항을 격퇴하면서 화장산 북쪽 10km까지 진출한 뒤 야간 급편방어에 들어갔다.

11일 제7기병연대는 한포리를 목표로 철야행군하고, 제8기병연대는 적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2km도 진출하지 못하였다. 우측의 제5기병연대는 화장산 북쪽에서 공격을 재개하여 능선을 향해 계속 진격하였다. 그러나 적의 공격으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자 사단장이 사단 예비인 영연방 제27여단에게 사단의 중앙과 우익 연대 사이로 진격하여 금천의 우측방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국군 제1사단도 38도선을 돌파해 첫 공격목표는 금천보다 북쪽인 교통의 요충지 시변리였다. 사단은 제11연대를 좌일선, 제15연대를 우일선으로 전방 공격부대로 하고 제12연대를 사단 예비로 하여 11일 일제히 38도선을 돌파하여 계획된 축선을 따라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백선엽 사단장은 진출상황을 확인하고 고랑포 면사무소의 지휘소로 돌아와 진격 속도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자 사단을 지원해 온 미 제10고사포단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단장에게 전차 지원을 요청하고 M-46형 전차 21대로 편성된 미 제6전차대대 C중대를 배속받아 예비인 제12연대에 배속시켜 보전포협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2연대는 제1대대를 연대에 배속된 미 제6전차대대 C중대에 탑승시키고 구화리를 목표로 진격하였다.

12일 미 제7기병연대가 공격을 계속하여 한포리로 진출함으로써 금천 일대에서 제8·제5기병연대의 진출을 방해하는 북한군 제19·제27사단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너무 빨리 차단한 이 부대를 유엔공군의 전폭기가 북한군으로 오인하여 폭격과 기총소사를 가하고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2번 전차에 탑승한 사단장의 지휘로 보전포협동부대는 사미천 하안을 따라 구화리로 진출하였다. 구화리 서북쪽 북우 근처에서 미 제5기병연대를 만나 사단의 전투지대가 침범되었다. 사단장은 미 제5기병연대가 8km 전진 후 서진할 것을 고려하여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였다.

13일 제8기병연대가 적의 강한 저항을 격퇴하면서 금촌을 포위하기 위해 진격하고, 제5기병연대는 북한군 약 300명으로 추산되는 병력과 조우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 제1대대는 이날 새벽 1시 토산리로부터 시변리를 목표로 우

회기동하여 오전 7시 30분에 시변리 동쪽 끝부분을 점령하였다. 제12연대는 오후에 시변리에 도착하여 제15연대와 연결하였고, 일몰 무렵 제11연대도 도착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이 이 지역 교통의 요충지인 시변리를 확보하자, 미 제6전차대대 D중대가 추가로 증원되었다.

14일 미 제5기병연대 제2대대장이 한포리의 제7기병연대와 연결하기 위해 북상하여 정오경 연결에 성공하고, 제3대대도 북상 중인 제8기병연대와 연결하기 위해 남하하여 정오경 금천 남쪽 6.5km 지점에서 연결에 성공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의 금천 포위작전이 작전을 개시한 지 5일 만인 14일에 종결이 되었다.

국군 제1사단은 배속된 미군 M-46패튼 전차에 병사들을 분승시킨 제12연대를 선두로 제11연대를 후속시키고, 제15연대를 예비로 하여 신계-곡산 쪽으로 후퇴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여 시변리-신계 도로와 남천점-신계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인 미우동까지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T-34 전차 6대를 위시한 각종 포의 지원을 받는 연대 규모의 북한군과 충돌해 전차전을 벌이며 이를 격퇴하고, 밤에 신계까지 급속도로 진출하였다.

평양탈환작전은 10월 18일에 황주-울리 선에서 포위망을 압축한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1사단, 그리고 국군 제2군단에 의해 실시되었다. 황주 일대의 미 제1기병사단이 남쪽에서 정면공격을, 국군 제1사단이 동쪽에서 측면공격을 국군 제2군단은 원산-평양 선에서 평양을 향해 압박하고 있었다. 정면공격을 한 미 제1기병사단은 황주에서 비교적 도로가 양호한 경의선 철도와 국도를 따라 북으로 진출하였다.

10월 9일 38도선을 돌파한 이래 만 11일 만에 국군 제1사단 제11·제12연대, 미 제1기병사단 제5기병연대가 동평양을,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와 국군 제7사단 제8연대가 본평양을 각각 점령함으로써 평양탈환작전이 종료되었다. 이후 미 제1군단은 좌전방에 미 제24사단을 배치해 신의주 방향으로 공격하게 하고, 우전방에는 국군 제1사단으로 하여금 운산을 거쳐 수풍발전소 방향으로 진출하게 했다.

### 결과 및 영향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을 격멸하고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동부전선에서 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확보함으로써 동북지방으로 패주하던 북한군 퇴로를 봉쇄하게 되었으며 동해의 여러 항구와 연결된 영흥만을 장악하게 되었다. 아울러 평양, 나진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서부 지역에서 평양탈환작전의 성공은 정주-영원-함흥을 잇는 '맥아더 라인'의 미군 전진한계선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평양 북방의 숙천과 순천에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전과확대를 하고, 10월 24일에는 전 유엔군이 한중 국경을 향해 총진격



하였다. 중부 지역에서는 제6·제7·제8사단으로 구성된 국군 제2군단은 철원·김화·화천 등 한반도의 중심지대를 가로질러 진격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주공이 서울-평양-신의주 방향이었다면 병력을 서부지역에 집중해야 했으나 동부 지역에 5개 사단, 서부 지역에 6개 사단으로 전투력을 분산했고, 신속한 추격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해 북한군에 재편의 기회를 주었고 중공군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평양탈환전』 (1986).

**【박동구/조성훈】**

**중공군 참전** (기획)  
[中共軍 參戰, 1950. 10. 19. ~ 1953. 7. 27.]

**개요**

중공군은 중국공산당 주석이자 중국국가주석 마오쩌둥(毛澤東)의 참전 결정에 따라 1950년 10월 19일부터 휴전협정이 조인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3개월 4일 동안 국군과 유엔군을 상대로 시작된 5차례에 걸친 대공세를 비롯해 진지전을 수행했다.

**개입과정**

6·25전쟁은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Iosif V. Stalin)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동의한 전쟁이다. 1949년 중국 대륙의 공산화가 성공에 다다르자, 김일성은 공산화의 다음 차례는 한반도이고 그 주역은 자신이 될 것을 생각하고 전쟁 도발을 계획하였다. 김일성은 1949년 3월에 스탈린을 찾아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무력도발 승인을 요청하고, 4월에는 마오쩌둥을 찾아가 남침전쟁 지지를 요청했다.

마오쩌둥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동의하고, 군사적 준비 차원에서 중국공산당 소속 한인병력을 1949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동북군구 소속 제164사단과 제166사단을 북한으로 인계해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마오는 10월 신중국을 수립하고 중국국민당 잔당 소탕, 타이완 해방, 경제재건, 국가통합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국외 전쟁 문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우선 국내 과제 해결을 위

해 소련의 지원을 얻는 것이 필수불가결이라 보았다.

그런데 1950년 1월 스탈린은 동북아전략을 가다듬고,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에게 대남침략전쟁 도발을 승인하였다. 5월 김일성이 마오쩌둥을 만나 스탈린의 전쟁 허락을 설명하였다. 마오쩌둥은 소련이 미국과 38도선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알타협정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38도선을 허무는 전쟁 참여는 곤란하다는 소련의 입장을 이해하였다.

6·25전쟁 발발 후에도 중국은 타이완 공격을 포기하지 않고 한동안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미국 제7함대의 타이완해협 급파, 미군의 한반도 전개 등으로 타이완해방작전을 포기하고 전국적인 방어태세로 전환됐다.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자 마오쩌둥은 미군이 북한을 거쳐 중국 동베이(東北)지역으로 진격해올 것으로 예상해 동베이변방군(東北邊防軍)을 편성하였다. 7월 15일 변방군 병력 25만여 명을 동북으로 이동시키고 제13병단사령부를 안동(지금의 단동)에 설치하고, 한반도 군사개입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수뇌부는 한반도보다 타이완문제 해결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두었다.

그후 1950년 9월 하순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이어 서울을 수복했다. 이때 38도선 이북으로 후퇴한 김일성은 먼저 스탈린에게 소련군을 직접 파병하거나 혹은 공산권 국가들의 군대로 국제의용군을 조직해 파병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으로 패망일보 직전의 최악의 위기상황이었다. 스탈린은 소련군의 직접 파병을 거절했고, 대신 마오쩌둥에게 중공군을 파병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련군 파병이 거부되자 다급해진 김일성은 중국의 참전을 꺼려해 온 그간의 입장과 달리 부득이 마오쩌둥에게 특사를 보내 군대파병을 요청했다.

10월 1일~2일 사이 김일성과 스탈린으로부터 연이은 파병요청을 받은 마오쩌둥은 긴급히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 및 정치국확대회의를 소집해 참전을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고위 당 간부들은 물론, 비공산당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건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전쟁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며, 소련 공군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참전할 수 없다는 게 반대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그후 연이어 소집한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반대자들을 설득하거나 제압하면서 소련 측의 공군 지원이 없이도 참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8일 동베이변방군은 이른바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이하 ‘중공군’으로 통일함)으로 개칭됐다. 그리고 중공군은 19일부터 세 갈래로 나뉘어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전개했다. 동시에 동베이군구 후방근무지원부(‘후근부’)도 3개의 ‘출국후근분부(出國後勤分部)’

로 개편돼 10월 19일부터 25일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요 교통로에 배치됐다. 제1차로 북한지역에 투입된 중국군 병력은 4개 군단으로 편성된 지상군 25만여 명이였다. 중공군 총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펑더화이(彭德懷)였고,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은 덩화(鄧華)였다. 이때 해군과 공군은 참전하지 않았지만 전쟁 후반기에 가서 소수의 해군 특수요원들이 서해안의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극비리에 투입됐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항거하여 붕괴 직전의 북한정권을 구원하고, 가정과 나라를 지킨다[抗美援朝, 保家衛國]’는 명분으로 대군을 파병한 마오쩌둥의 숨겨진 참전 동기는 여러 가지가 서로 얽힌 것이었다. 순망치한(唇亡齒寒)이라는 중국의 전통적 안보관에서 북한정권의 붕괴를 방지하고자 한 점, 국경 지역의 안전 확보, 그 해 2월 중순에 체결된 중소동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득이 참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스탈린의 간접적 외압, 한반도 전진공격을 통한 적극적 방어, 중국 국내 전장화 회피 그리고 기타 몇 가지 국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등이었다. 중국의 참전은 공산주의 이념보다 중국의 현실정치와 중국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북한정권 구제에 나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사전에 마오쩌둥의 남침전쟁 동의를 김일성의 남침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이 됐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 5차례 공세와 진지전

다섯 차례의 공세는 1950년 10월 25일~11월 5일의 제1차 전역, 1950년 11월 25일~12월 24일의 제2차 전역, 1950년 12월 31일~1951년 1월 8일의 제3차 전역, 1951년 1월 25일~4월 21일의 제4차 전역, 1951년 4월 22일~6월 10일의 제5차 전역 등이다.

제1차 전역은 청천강 이북의 주요 군사 요소에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이 평양 점령 후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한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함에 따라 시작됐다. 중공군으로부터 불의의 기습공격을 당한 국군과 유엔군은 청천강 이남으로 물러났지만 이내 11월 24일 재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제1차 전역 종결 전후 총 9개 군단 46만 명으로 증강된 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을 동서로 양분하여 서부에서는 청천강 선에서 포위 격멸한 후 남진한다는 계획 아래 11월 25일 야간에 대반격을 시작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동서의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어서, 12월 6일 평양을 내주고 38도선 이남으로 물러났다.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 이남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자 소련, 중국과 북한의 수뇌부 사이에는 여세를 몰아 휴식 없이 공격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극도로 지친 중국군을 부대 정비와 휴식을 취하게 한 뒤 다음 해 봄에 공격을 재개할 것인지를 두고 한때 이견이 발생했다. 스탈린,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계속 공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펑더화이

중공군총사령관은 휴식과 부대정비 그리고 병력을 충원한 후 재공격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세 사람의 의지가 반영되어 공격을 계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군은 1950년 12월 31일부터 제3차 전역을 개시했다. 제3차 전역 시부터 중국군지휘부는 12월 초순 설립된 조중연합사령부를 통해 북한군까지 지휘하고 통제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중국군의 제3차 공세에 밀려 결국 1951년 1월 4일 또 다시 서울을 포기하고 수원-이천-원주선까지 철수하게 됐다. 아군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의 후임으로 새로 미 제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의 지휘 아래 1951년 2월 중순부터 반격을 개시해 3월 서울을 재탈환했다. 그후 피아간에 휴전회담 개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전투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반복됐다. 미국과 소련, 중국 및 북한의 수뇌부는 공히 누구라도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거나 격퇴할 정도로 결정적 승기를 잡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대한 전쟁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영국과의 갈등과 조율을 거친 미국 행정부는 더 이상 전쟁을 확대하지 않고 38도선쯤에서 휴전하는 것으로 전쟁을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수뇌부는 유엔군이 추구한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통일이라는 북진 초기의 목표를 폐기했다. 동시에 **확전방지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원자폭탄의 사용과 전쟁을 중국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하고 건의해온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를 유엔군사령관직에서 해임했다.

같은 시기 중공군의 전술도 남한 전 지역의 적화라는 참전 초기의 목적을 포기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까지 진지전을 구사하면서 점령한 지역을 지키려는 국지전, 지구전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 주요 전투는 계룡산전투(1951년 6월 24일~6월 29일), 사기막전투(1951년 7월 14일), 1951년 하계-추계 방어전역(1951년 8월 18일~11월 31일), 상감령(上甘嶺, 즉 저격능선 전투) 방어전역(1952년 10월 14일~11월 25일), 금성전역(1953년 7월 13일~27일) 등이 있다.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지속됨으로써 사상자가 늘어나고, 전쟁 지속에 필요한 병력의 충원과 군수물자의 확보가 어렵게 된 것은 소련이 아니라, 전쟁 수행 당사자인 중국과 북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휴전을 원했다. 하지만 휴전은 오랫동안 지연됐다. 막후에서 전쟁을 지원하고 사주하면서 지속시키려고 한 스탈린의 의향이 영향을 미친 데다 포로교환문제 등 쌍방 간 휴전조건이 서로 달라 휴전회담이 여러 차례 결렬됐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53년 3월 스탈린이 갑자기 사망하고, 6·25전쟁의 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회담은 급진전 되어 그해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 결과 및 영향

정전협정이 성립될 당시 북한에 주둔한 중공군은 총 17개 군단과 1개 사단 및 각종 병과부대 병력 약 120만 명이었다. 병력들은 1954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주둔지인 북한을 떠나 1958년까지 철군을 완료하였으나, 전후에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되었다.

중국 정부는 참전을 통해 강대국의 이미지를 회복하였고, 소련과 동맹관계 구축을 확고히 하여 국내적으로 통치의 안정을 가져왔으며 중공군 현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쟁에서 중공군은 총 40만 860명이 전사했고, 2만 1,000여 명이 포로가 됐다. 이밖에 민간인 신분으로 전투에 동원된 비전투원 노무자 약 77만 명이 전사했다.

## 참고문헌

선즈와(김동길 역), 『조선전쟁의 재탐구』 (선인출판사, 20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3, (2002~2005).

【서상문/조성훈】



## 압록강-두만강 진격작전

(기획)

[鴨綠江-豆滿江 進擊作戰, 1950. 10. 21. ~ 11. 30.]

## 개요

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에서는 주공부대인 미 제8군이, 동쪽에서는 조공부대인 미 제10군단이 한중 국경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향해 총공격을 감행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 작전준비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북한군은 주력을 청천강 이북으로 철수시켰다. 이때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안주-개천-덕천선에 제1차 방어선을, 희천과 강계선에 각각 제2·제3차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북한군 병력은 청천강선 이북에 약 4만 명, 철의 삼각지대(철원-평강-김화)를 비롯한 제2전선에 약 2만 명 등 총 6만여 명

으로 추정되었다.

이 무렵 유엔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는 전쟁의 승리를 낙관하면서 추수감사절 이전에 주요 작전을 종결하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 제8군을 일본에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그는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할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하였다. 맥아더 원수는 평양 점령 전날인 10월 17일 유엔군의 진출제한선을 서해안 선천에서 동해안 성진에 이르는 선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존 정주-함흥선보다 약 48km 북쪽에 위치한 이 선에서 한중 국경까지는 대략 48~64km에 불과하였다. ‘신(新) 맥아더라인’으로 불리는 이 선의 북쪽은 국군의 단독작전 지역이었다.

압록강-두만강으로의 진격에 앞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지휘체계도 조정하였다. 이 조정에 따라 미 제10군단이 유엔군사령부의 직접 통제 아래 미 제8군과는 별개로 동북부지역 작전을 책임지게 되었다.

## 작전과정

### 1. 서부전선 진격작전

#### ① 청천강선 진격

압록강-두만강 진격작전은 1950년 10월 21일 서부전선에서 미 제8군이, 동부전선에서 미 제10군단이 각각 선천-성진을 잇는 신맥아더라인을 향해 진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10월 20일에는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이 북한군의 퇴로를 막고 병참선을 차단하며 북한 관리들을 포획하고 미군포로를 구출할 목적으로 평양 북방의 숙천과 순천 지역에서 공수작전을 전개하였다.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8군은 10월 21일 미 제1군단을 좌로, 국군 제2군단을 우로 하여 압록강을 향해 진격하였다. 미 제8군의 첫 번째 목표는 청천강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서부전선의 진격작전은 미 제8군의 조공부대인 국군 제2군단이 먼저 시작하였다. 10월 21일 국군 제6사단이 미 제8군의 선봉부대로 순천에서 공격을 개시해 청천강변의 개천으로 진격하였으며, 국군 제8사단이 제6사단을 후속하여 이날(21일) 성천에 집결한 후 가창-북창-덕천을 거쳐 희천을 향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공격 첫날 국군 제6사단의 선봉부대인 제7연대는 전 병력을 차량화하여 후퇴하는 북한군 행군대열 중앙을 과감하게 돌파하면서 개천을 점령하였다. 국군 제7연대는 이곳에서 북한군의 보급품 수송열차를 두 번씩이나 기습하여 T-34전차 8대를 포함해 화차 16대 분량의 각종 무기와 보급품을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연대는 다음 날(22일)에도 안주에서 개천으로 후퇴하던 연대 규모의 북한군을 기습 공격해 또다시 큰 전과를 올리



기도 하였다. 공격을 개시한 지 3일째인 10월 23일, 국군 제7연대는 압록강까지 불과 72km밖에 남지 않은 희천을 점령하였다. 제7연대가 희천을 탈환하자 국군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제2연대를 온정리 탈환을 위해 구장동 남쪽의 자작으로 진격시키고, 제19연대를 사단예비로 군우리에 대기시켰다. 이날(23일) 국군 제2군단의 우측 부대인 국군 제8사단도 제10연대가 맹산에서 영원으로 북진하였으며, 제16연대가 맹산을 경유해 사단목표인 덕천을 탈환하였다.

한편 국군 제2군단 좌측에서도 미 제1군단이 10월 21일 청천강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군단은 미 제24사단(영국군 제27여단 배속)과 국군 제1사단을 각

각 좌우측 공격부대로 하고, 미 제1기병사단을 예비로 하여 진격하였다. 미 제1군단의 우측 공격부대인 국군 제1사단은 제12연대가 선두부대로 22일 개천을 점령하고, 23일에는 사단 전 병력이 안주에 집결하여 청천강선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무렵 경의선 축선을 따라 진격한 미 제24사단도 국군 제1사단의 안주 진입보다 4시간 늦게 신안주에 도달하여 청천강선을 점령하였다.

## ② 압록강 진격

미 제8군 주력이 청천강선에 도달하고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이 임박해지고 있을 때,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과 미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에게 모든 부대를 동원하여 최대 속도로 국경선까지 진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10월 24일자로 하달된 이 명령은 신맥아더라인으로 불리는 유엔군의 전진한계선이 폐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만 국경선 부근의 작전

은 한국군이 담당하라는 단서가 붙었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유엔군에 대한 북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10월 24일을 기해 일제히 공격 개시를 명령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미 제1군단장에게 가능한 한 국경선 부근의 작전을 배속된 국군 제1사단과 국군 제7사단 등 한국군이 담당하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미 제1군단장은 미 제24사단에게 청천강을 건너 선천을 경유해 신의주를 목표로 진격하게 하고, 국군 제1사단에게 안주-운산 축선을 따라 수봉호로 진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미 제1군단의 우측에서 작전 중이던 국군 제2군단은 국군 제6사단에게 벽동과 초산을, 국군 제8사단에게 만포진과 중강진을 점령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미 제1군단은 10월 24일 국군 제1사단이 운산 방향으로, 미 제24사단이 선천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공격개시 첫날 제15연대가 영변을, 제12연대가 용산동을 각각 점령하고, 다음날(25일) 오전에 제15연대와 제12연대가 동쪽과 남쪽에서 협공하여 운산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국군 제1사단은 청산장시를 향해 북쪽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의 선두부대인 제15연대가 청산장시에 이를 무렵 국군 제1사단은 38도선을 돌파해 북진을 시작한 이래 적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았다. 교전이 벌어진 지 30분 후 제15연대는 이들이 중공군임을 식별하고 사단에 즉시 보고하였으며, 곧이어 중공군 포로 1명을 생포하였다. 이 포로는 운산과 희천 일대에 2만 여명의 중공군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사단장은 이러한 사실을 즉각 미 제1군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국군 제1사단은 예비인 제11연대까지 운산에 투입하였으나 진격로를 더 이상 개척할 수 없었다. 10월 28일 국군 제1사단을 대신하여 군단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이 운산지역에 투입되었으나 이마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국군 제1사단이 운산으로 진격하는 동안에 미 제1군단의 좌측 공격사단인 미 제24사단은 신의주를 목표로 10월 24일 새벽에 진격을 재개하였다. 미 제24사단의 선두부대인 영국군 제27여단은 공격 첫날 박천을 점령한 후 대령강을 도하하기 위해 구진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대령강 북쪽에 견고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있던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영국군 제27여단은 27일에 가서야 대령강 도하를 완료할 수 있었다. 여단은 점차 증가하는 북한군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30일 오전에 정주를 점령한 후 진격임무를 미 제21연대에 인계하였다. 정주에서 영국군 제27여단을 초월한 미 제21연대는 전차를 앞세우고 신속히 진격해 11월 1일 정거동(신의주 동남쪽 33km)을 점령하였다. 정거동은 신의주 동남쪽 33km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서 만나절이면 압록강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미 제21연대에는 “진격을 멈추고 중심방어태세를 갖추라”



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이 사단장으로부터 하달되었다. 미 제21연대뿐만 아니라 중공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이날 저녁에 미 제1군단 예하의 모든 공격부대들이 공격을 중지하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한편 총반격작전이 시작된 이래 중부전선의 험준한 산악지역을 따라 북진을 계속한 국군 제2군단은 제6사단과 제8사단이 각각 좌우로 하여 초산과 만포진을 목표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우일선의 제7연대를 풍장-고장을 경유하여 초산으로 진격하게 하고, 좌일선인 제2연대를 온정-북진을 경유해 벽동을 점령하게 하였다. 국군 선봉부대로 나선 제6사단 제7연대는 좌우 인접부대들이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 연대 진출로가 중공군의 남침 경로와 엇갈려 적으로부터 경미한 저항만을 받고 10월 26일 오후 2시 15분에 제1대대 침병소대가 압록강변 초산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제7연대의 좌인접 부대인 제2연대는 온정리 서북방 동림산 일대에서 중공군 제40군으로부터 매복공격을 받아 크게 고전 중이었다. 이에 국군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사단예비인 제19연대를 온정리에 급파하여 제2연대를 증원케 하였으나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국군 제7연대는 퇴로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 철수해야만 하였다.

국군 제6사단 우측의 국군 제8사단도 10월 26일 공격을 중지하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이날(26일) 오후 2시에 선두부대인 제21연대가 구장동(덕천 서북방 25km) 동북쪽 7km 지점의 신흥동에 이르렀을 때 군단으로부터 공격중지 긴급명령을 수령하였다. 이에 국군 제8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제21연대와 제10연대의 진격을 중지시키고 방어로 전환시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방사단의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도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중공군 정규부대와 조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때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8군사령부는 북한에 들어온 중공군을 단지 북한군 증강을 위해 중공군에서 차출한 한국인들로 판단하고 있었다.

## 2. 동부전선 진격작전

### ① 원산교두보 확보와 원산상륙작전

원산교두보는 본래 미 제10군단이 원산상륙작전을 통해 확보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미 제10군단이 인천항에서 승선하기 전인 1950년 10월 10일 동해안으로 북진한 국군 제1군단이 원산을 점령함으로써 원산교두보 확보는 국군 제1군단의 임무로 전환되었다. 국군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10월 15일 제3사단에게 원산 일대의 경계임무를 부

여하고, 수도사단을 함흥과 흥남으로 진격시켰다.

군단으로부터 진격명령을 받은 수도사단은 제18연대와 제1연대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격하여 10월 17일 각각 함흥과 흥남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수도사단은 제18연대가 장진호와 부전호 방향으로,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가 각각 풍산과 성진 방향으로 진격하였다. 사단은 10월 29일까지 제1연대가 함경산맥을 넘어섰고 제18연대가 개마고원지대에, 제1기갑연대가 백두산에서 뺏은 마천령산맥에 도달하여 한중 국경선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리고 원산 일대 경계임무를 맡은 국군 제3사단은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20여 일간 원산·함흥지구에서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면서 수동리-마전리-고저 선을 점령하여 영흥만을 확보하였다.

국군 제1군단이 계획대로 원산과 영흥만 교두보를 확보한 가운데 미 제10군단의 원산 상륙작전은 예상보다 늦은 10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미 제10군단은 10월 1일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원산상륙에 관한 준비명령을 받았지만, 선견부대인 미 해병 제1사단이 인천항을 출발한 것은 10월 16일이었다. 미 해병 제1사단은 인천항이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병력승선에 20시간, 보급품과 장비 탑재에 8일을 소요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 제10군단 병력을 실은 함정들이 10월 19일 원산의 영흥만에 도달했지만 북한군이 설치한 수많은 기뢰 때문에 상당기간 소해작업을 수행해야만 하였다. 미 제10군단은 기뢰제거 작업으로 거의 1주일이나 해상에서 대기한 후 10월 25일에 가서야 21척의 수송선과 15척의 LST가 원산항에 닿을 내리고 다음날(26일)부터 상륙을 시작하였다.

원산 외항에 대기하는 동안에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10월 20일 정오를 기해 한반도 동북부전선의 작전책임구역과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였다. 그가 지휘할 전술부대는 미 해병 제1사단, 미 제7사단, 국군 수도사단, 국군 제3사단 그리고 각종 지원부대를 포함하여 총 9만 4,000명이었다. 이중 10월 19일 부산항에서 출발한 미 제7사단은 원산항의 기뢰제거작업으로 부산 앞바다에서 10일간 머물다가 10월 29일 이원으로 상륙하였다.

미 제10군단의 상륙이 완료되자 1950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군 제1군단과 상륙부대 사이에는 작전지역의 임무교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군 제1군단은 제3사단이 미 해병 제1사단에 임무를 인계하고 동해안 축선으로 진격하게 되었고, 수도사단이 미 제7사단에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제1연대와 제18연대를 길주-청진 방향으로 진격 중인 제1기갑연대를 후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마천령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의 함경남도에서는 미 제10군단이, 동쪽의 함경북도에서는 국군 제1군단이 북진작전을 담당하게 되었다.

## ② 장진호 · 해산진으로의 진격

원산상륙을 완료한 미 해병 제1사단은 10월 29일부터 임무수행에 착수하였다. 미 해병 제1연대는 저고에서 원산을 경유하여 마전리로 이동해 국군 제3사단 제22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고, 미 해병 제5연대는 원산과 흥남 간의 연포비행장을 중심으로 군단 서측방의 경계를 담당하였다. 미 해병 제7연대는 수동 부근에서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함흥으로 향하였다.

장진호로 진격할 예정인 미 해병 제7연대는 11월 2일 수동에 도착하여 국군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후 고토리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공격 초기 5일 동안에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진격속도가 늦었지만, 공격 6일째부터 진격이 비교적 순조로워 11월 10일에 고토리를, 16일에 하갈우리를 각각 점령하고 24일에는 장진호 서쪽의 유담리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장진호 북쪽에는 이미 대규모 중공군이 매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미 제10군단사령부에서는 새로운 적의 증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불길함 속에서 기온마저 급강하하여 밤에는 영하 20~25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혹한에 익숙하지 않은 미군 장병들에게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었다.

한편 미 해병 제7연대가 장진호를 향해 진격하고 있던 11월 14일, 미 제10군단의 우측 사단인 미 제7사단은 선두부대인 제17연대가 혹한을 무릅쓰고 한중 국경으로부터 48km 지점에 위치한 웅이천 남안까지 진출하였다. 연대는 11월 15일 갑산도로와 삼수도로 교차점인 상리까지 진출한 후 다음날(16일) 갑산 남쪽 16km 지점의 석우리 부근에 도달하였다. 이후 연대는 11월 19일 갑산을 점령하고, 11월 21일 오전 10시경 해산진과 압록강 연안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미 제17연대의 해산진 점령은 북한군과의 치열한 교전뿐만 아니라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극복하며 얻어낸 결과였다. 이 전투로 미 제17연대는 국군 제7연대에 이어 두 번째로 압록강변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유엔군으로서는 최초로 한중 국경에 도달한 부대가 되었다.

## 3. 두만강으로의 진격

1950년 10월 15일 이후 예하의 각 연대가 단독으로 진격하던 국군 수도사단은 내륙의 작전지역을 미 해병 제1사단과 미 제7사단에 인계하고 동해안도로를 따라 두만강으로 진격하기 위해 10월 30일 성진에 집결하였다. 사단은 두만강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점인 길주를 첫 번째 진격 목표로 삼았다.

1950년 11월 1일 진격을 개시한 국군 수도사단은 11월 5일 제1기갑연대가 미 제1해병비행단 전폭기들의 근접항공지원 아래 길주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무렵 청진

과 나남 방면에서 해안선을 따라 남하 중인 적이 항공정찰을 통해 확인되자 국군 수도사단장은 사단에비로 함흥 북쪽에 집결해 있던 제18연대를 명천 방면으로 추진시켰다.

두만강 진출의 교두보인 길주를 점령한 국군 수도사단은 11월 8일 한중 및 한소 국경으로 진출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명천에 진출한 제18연대에게 어랑천 일대의 적을 공격하게 하였다. 당시 어랑천에는 봉강리를 중심으로 북한군 제507여단 패잔병과 청진에서 증원된 해안경비부대와 전차대 등이 합류하여 반격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미 해병 전폭기들의 맹폭격과 수도사단 제18연대의 강력한 공격에도 북한군은 봉강리 일대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로 인해 제18연대는 16일에 가서야 봉강리 일대의 북한군 주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 이 무렵 제18연대 좌측에서도 제1연대가 어랑촌으로 진출하였다.

국군 수도사단이 봉강리 일대를 점령하자, 북한군은 회문을 경유하여 주을 방면으로 추차 철수하면서 사단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에 사단은 제18연대를 정면과 동쪽의 양개 축선으로 공격시키고, 제1연대를 주남천 상류로 북진시켜 적의 서측방 퇴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제18연대는 11월 22일 주을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진격을 감행해 나남을 거쳐 25일 청진에 도달하였다. 수도사단은 11월 27일 군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제18연대를 회령 방면으로 진출시키고, 제1기갑연대를 웅기방면으로 진출시켰다. 그러나 사단의 진격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 북한군의 저항으로 크게 둔화되었다. 결국 11월 30일 군단장으로부터 흥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면서 수도사단의 진격작전은 중단되었다.

한편 국군 제3사단은 10월 29일 미 해병 제1사단에게 원산지역의 방어임무를 인계하고 11월 4일 미 제10군단과 국군 수도사단의 전선 연결을 위해 모든 병력을 흥원-신포-신북청으로 추진시켰다. 이후 국군 제3사단은 군단의 주력부대인 수도사단이 성진을 점령하고 길주로 진격하자, 군단사령부와 함께 11월 13일 성진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수도사단이 봉강리 일대에서 진격작전 이래 최대 고비를 맞게 되자, 군단장은 수도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16일 국군 제3사단을 합수 공격에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좌우 인접부대인 미 제7사단 및 국군 수도사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중 국경선을 목표로 진격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때 국군 제3사단의 제26연대는 장진호를 공격 중인 미 해병 제7연대의 오른쪽 측방 엄호를 위해 미 해병 제1사단에 배속되어 있었다.

국군 제3사단의 작전지역인 길주-합수-혜산진 축선은 백두산에서 뿔어 내린 마천령 산맥을 종주하는 통로로서 내륙산악에서 동해안으로 최단 시간 내에 진출할 수 있는 중

요한 지역이었다. 국군 제3사단은 제23연대를 선두부대로 하여 22일 합수를, 25일 백암을 각각 점령하였다. 그리고 11월 27일 군단으로부터 무산과 혜산진 공격명령이 하달되자 국군 제3사단은 무산 공격을 위해 제23연대를 30일까지 나남으로 집결시켰으며, 제22연대를 혜산진 방향으로 복진시켰다. 이때 제22연대 제1대대 제3중대가 선두부대로 11월 30일 오후 1시경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혜산진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3사단이 한중, 한소 국경에 다다를 무렵, 좌인접 부대인 미 제7사단과 미 해병 제1사단이 중공군의 대규모 포위작전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으며, 우인접 부대인 수도사단도 청진 북쪽 30km 지점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북한군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진출이 어렵게 되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1950년 11월 30일 모든 예비부대에 공격중지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3사단도 복진작전을 중단하고 방어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1950년 10월 21일부터 약 40일간 진행된 국군과 유엔군의 압록강-두만강 진격작전은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11월 30일을 기해 완전히 종료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0년 10월 24일부터 계속된 유엔군의 압록강-두만강 진격작전은 예상치 못한 중공군의 기습으로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이 11월 1일 철수작전에 들어가고, 11월 30일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마저 방어로 전환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작전기간 중 중공군과 북한군은 군단급의 대부대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선을 서부와 동부로 구분하여 지역작전 개념으로 작전을 전개하고 포위와 침투, 유인과 매복 등 재래식 전술로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산군은 서해안 저지대와 기동에 유리한 지역을 개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주공방향을 기만하여 서부전선 미 제1군단을 유인하였고, 동계 혹한기를 이용하여 계절과 지형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부전선 유엔군을 무력화시킨 후 동부전선 미 제10군단마저 대규모 포위망에 가두었다.

반면에 유엔군사령부는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의 지휘체계를 분리시킴으로써 통일된 지휘체계를 갖지 못한 채 연대단위의 각개약진으로 북한군을 쫓아가는 추격작전을 전개하여 중공군의 기습을 자초하였다. 특히 중공군 개입 사실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잘못된 정보판단은 더 큰 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후 유엔군은 1950년 12월 8일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5호에 따라 미 제8군이 평양에서 38도선으로,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이 흥남에서 남·동해안 지역으로 각각 철수를 개시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⑦,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⑧,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박동찬 집필】



## 38도선 철수작전

(기획)

[38度線 撤收作戰, 1950. 12. 8. ~ 1951. 1. 14.]

## 개요

한중 국경선까지 진출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3차에 걸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1950년 12월 8일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평택-원주-단양-정선-삼척으로 이어지는 북위 37도선 남쪽으로 철수한 방어작전이다.

## 전개과정



## 유엔군의 철수작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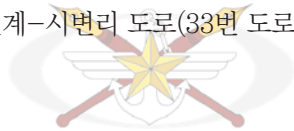
중공군의 제2차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선을 포기하고 철수하던 1950년 12월 초, 유엔군 측에서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는 공세에서 방어로 전환한 유엔군이 병력의 열세로 강요에 의한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본국에 추가적인 병력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 합동참모본부(이하 '미 합참')는 유엔군의 방어전략 채택을 승인하면서도 추가병력 증원에는 반대하였다.

미 합참과 유엔군사령부 간에 의견 대립이 나타나자,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은 상황을 조기수습하기 위해 1950년 12월 4일 도쿄를 방문하여 맥아더 사령관과 2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12월 7일 콜린스 미 육군참모총장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을 통합한 후 단계별 방어선을 설정하여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부산으로 철수한다는 계획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 계획은 낙동강 방어선을 최종 방어선으로 하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9개의 방어선을 설정하여 지연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서울을 중점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서울 북쪽에 4개의 방어선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 계획은 1950년 12월 8일 유엔군사령부 작전명

령 제5호로 하달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라 미 제8군은 평양에서 38도선으로,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은 흥남에서 남·동해안 지역으로 각각 철수를 개시하였다.

### 서부전선 철수작전

서부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 교두보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진 숙천-순천-성천을 잇는 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을 때, 중공군은 1950년 12월 2일 새벽 5시에 하달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숙천-순천선 이북에서 4·5일간의 휴식과 부대정비를 하면서 차후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날(2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은 중공군에게 포위되기 전에 평양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12월 4일을 기해 평양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미 제8군 예하부대에는 평양 철수에 앞서 군수물자의 후송과 파괴 지시가 하달되었다. 서부전선 부대들은 12월 2일 평양과 진남포에 산적한 군수물자 후송작전의 시간을 얻기 위하여 우선 평양 북쪽 32km 지점에 위치한 영유-사인장-강동을 잇는 선으로 철수하였다.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주보급로이자 철수로인 평양-사리원-개성 도로(1번 도로)와 그 우측방의 방어를 강화할 목적으로 평양-울리-신계-시변리 도로(33번 도로) 동쪽에 미 제24사단과 국군 제2군단을 각각 배치하였다.



서부전선의 유엔군은 12월 4일 오전 8시를 기하여 평양 남쪽의 검이포에서 곡산에 이르는 선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미 제1군단은 공병부대들이 평양에 산재한 산업과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가운데 미 제25사단을 선두로 1번 도로를 따라 평양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여 오후 무렵에 예하 전 부대가 평양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때 미 제9군단도 울리 일대로 진출한 미 제24사단을 배속 받아 33번 도로로 철수하여 울리-곡산 일대를 점령하였다.

서부전선의 전방 군단들이 철수하는 동안에 진남포에서는 군수물자 후송작전이 이어졌다. 12월 5일 저녁까지 진행된 후송작전에는 미 해군 구축함 4척과 영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의 엄호 아래 미 해군 LST, 미 해군 수송전대, 소형선박 100여 척 등 가용한 선박이 총동원되었다. 이 작전에서는 부상병과 포로, 군수물자 그리고 진남포에 모여든 3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수송되었다. 마지막 철수제대가 철수하자 진남포 독크는 화염에 휩싸였고, 이때 미처 후송하지 못한 보급물자는 모두 파괴되었다.

평양에서 철수한 미 제8군은 12월 6일 송림-중화-수안-곡산 남쪽을 잇는 선에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나 적과의 접촉을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 12월 8일 또다시 해주-신계-이천-김화로 이어지는 제2방어선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날(8일)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38도선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김포반도-입진강-화천-양양을 잇는 선을 주저항선으로 선정하고 김화-포천 간 도로를 중심으로 미군이 서쪽을, 국군이 동쪽을 전담하는 방어계획을 수립하였다.

유엔군이 38도선에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12월 8일 공산군도 새로운 공격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날 중·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마오쩌둥(毛澤東)에게 “12월 17일 중화, 상원, 수안 지역을 집중 공격하여 유엔군 주력부대를 격멸하면 기회를 보아 38도선을 돌파하여 서울을 다시 탈취 할 것이며, 만약 적 주력을 격멸하지 못하면 38도선 북쪽에서 추격을 중지하여 유엔군이 38도선을 점령하도록 유인한 다음 내년에 새로운 공격으로 적 주력을 격멸한다.”라는 공격계획을 보고하였다. 12월 17일로 계획된 공산군의 공격계획은 미 제8군이 서둘러 38도선으로 철수함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결국 서부전선의 유엔군은 주력부대 전투력을 유지한 채 38도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고, 공산군은 38도선 일대에서 새로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게 되었다.

#### 동부전선 해상철수작전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최초 함흥-원산 일대에 강력한 거점인 해안교두보를 확보



할 계획이었으나 12월 8일 유엔군사령관의 홍남 철수지시를 받고서 서둘러 철수계획을 준비하였다. 미 제10군단은 12월 11일 미 해병 제1사단이 장진호 철수작전을 완료하자, 미 제3사단(국군 해병 제1연대 배속)을 연포-오로리에, 미 제7사단을 홍남 북쪽에 그리고 국군 제1군단(수도사단, 제1기갑연대, 제3사단 제26연대)을 함흥 동쪽에 각각 배치하여 교두보를 구축하였다.

홍남을 통한 해상철수작전은 단계적 철수가 이루어지도록 3개의 작전통제선을 설정하고 미 해병 제1사단을 선두로 미 제10군단사령부와 국군 제1군단, 미 제7·제3사단 순으로 철수하며, 이를 엄호하기 위해 홍남 부근 해상에 순양함 2척, 구축함 7척, 로켓발사함 3척을 배치하여 화력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 당시 미 제10군단이 철수시켜야 할 물동량은 병력 10만 5,000명, 차량 1만 8,422대, 각종 전투물자 3만 5,000톤 등이었다. 이 물동량을 해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미 해군은 125척의 수송선을 동원하였다. 이때 미 극동공군의 전투화물사령부도 연포비행장을 통하여 수송작전을 지원하였다.

미 제10군단의 홍남철수계획은 12월 11일 연포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한 후 공식적으로 하달되었다. 홍남항에서는 12일부터 미 해병 제1사단의 병력과 장비가 승선되고 15일 오전 9시에 첫 출항이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성진항에서도 12월 10일부터 국군 제3사단의 해상철수가 시작되었다. 미 제10군단이 해상 철수

를 하는 동안에 중공군과 북한군은 연합전선을 형성하면서 파상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미 제10군단은 해·공군의 지원 아래 공산군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철수작전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이 무렵 홍남지역에서는 공산군의 접근보다 더 우려할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장사진을 이루어 홍남부두로 접근하는 피난민 대열이었다. 미 제10군단은 장은 피난민이 쇄도하자 이들을 홍남부두 서쪽의 서호진에 집결



시켜 선편이 닿는 대로 후송시키기로 하였다.

미 해병 제1사단에 이어 12월 21일까지 미 제10군단사령부, 미 제7사단, 국군 수도사단 등이 흥남항을 출발하였다. 그 동안 미 공군수송부대도 12월 18일 연포비행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병력 3,600명, 차량 196대, 화물 1,300톤과 수백 명의 피난민을 후송시켰다. 그리고 최후방어부대인 미 제3사단이 제3통제선으로 철수한 12월 23일, 흥남부두에서는 대규모 피난민 후송작전이 전개되었다. 이 작전으로 북한 주민 약 10만 명이 안전지대로 후송될 수 있었다.

흥남외곽선 1.5km에 대한 함포사격과 공중폭격이 집중된 가운데 12월 24일 오후 2시경 수송선단의 모든 출항준비가 완료되었다. 수송선단이 흥남 외항을 빠져나갈 무렵 부두와 탄약적재소가 거의 동시에 폭파되었고, 방파제 및 크레인 등 주요 시설은 요란한 폭음과 치솟는 폭연, 불기둥을 내뿜으며 파괴되었다. 이로써 흥남철수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 유엔군의 38도선 방어선 구축

육상으로 철수한 미 제8군은 1950년 12월 14일경 김포반도-임진강-화천-양양을 잇는 38도선 부근에 주저항선을 설정하고, 미군이 서부와 중서부전선을, 국군이 중동부와 동해안전선을 전담하는 임무 분담 체제를 갖추었다.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김포반도에 터키여단을, 개성-문산 도로를 가로지르는 임진강 하류에 미 제25사단을, 고랑포-적성 일대에 국군 제1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편성하였고 영국군 제29여단을 군단에 비로 고양군 신둔리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은 국군 제6사단을 전곡 일대에, 미 제24사단을 영평 일대에 배치하고 영국군 제27여단을 군단예비로 덕정 부근에 집결시켰다.

국군이 담당하는 중동부와 동해안 전선에서는 국군 제3군단이 군단 창설 이후 최초로 전선에 투입되어 제2사단이 가평 북쪽에, 제5사단이 춘천 북쪽에, 제7사단이 춘천 동쪽에, 제8사단이 화천에 각각 배치되었다. 국군 제3군단 우측에는 국군 제2군단의 유일한 예하부대인 국군 제3사단이 인제 방면을 방어하고, 그 우측에는 국군 제1군단 예하 제9사단이 관대리-서림리에, 국군 수도사단이 서림리-양양에 각각 주저항선을 구축하였다.

서부전선과 중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로부터 “서울 방위에 주력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군 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을 퇴계원 일대에 배치해 춘천 방면에서 서울로 진

출하는 공산군을 차단하게 하였다. 또한 서울 북방에 저장된 보급품은 한강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인천항에 비축된 물동량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제8군사령부도 최소 인원만을 서울에 잔류시키고, 주력은 대구로 이동시켜 장기전을 대비하게 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의 예비대는 미 제10군단(미 제3·제7사단, 미 해병 제1사단), 미 제2사단,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예비대는 아직 부대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미 제7사단과 미 해병 제1사단은 부대정비 중에 있었고, 마지막에 흥남항을 출발한 미 제3사단은 상륙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미 제2사단(프랑스대대와 네덜란드대대 배속)은 군우리 전투에서 입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충주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타일랜드대대 배속)은 수원에 집결해 있었다.

유엔군의 38도선 방어계획은 고정불변이 아닌 가변적인 계획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은 약 220km로 제1선 사단의 정면이 20~30km에 달하여 각 사단은 소대와 중대 단위의 거점식 진지로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한 개의 지점이 공산군에게 돌파된다면 국군과 유엔군의 전 전선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은 총 36만 5,000명이었으나, 그 중 전투 병력은 국군 14만 명과 미군 10만 명 그리고 그 외 유엔군 1만 명으로 25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38도선 부근에서 불안정한 방어선을 구축한 유엔군에게 12월 23일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시련이 겹쳤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전선 부대를 시찰하기 위해 서울에서 의정부 전선으로 향하던 중 덕정 부근(의정부 북쪽 16km)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불의의 사고로 12월 26일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이 워커 중장의 후임으로 한국에 도착하였다.

신임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피·아 전력과 전선 상황을 고려하여 38도선에서 반격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연작전을 통해 적의 전력을 소모시킨 후 공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그는 지연작전을 위한 단계별 방어선을 확정하였다. 제1방어선은 38도선 진지로 임진강 하구에서 양양에 이르는 선이었으며, 제2방어선은 수원-양평-홍천-주문진선이었다. 제3방어선은 37도선 진지로 평택-안성-원주-삼척선이었으며, 제4방어선과 제5방어선은 각각 금강과 소백산맥선이었고, 제6방어선은 낙동강 방어선이었다. 낙동강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유엔군은 일본으로, 국군은 연안도서(沿岸島嶼)로 철수시킬 계획이었다. 이 방어계획은 미 제8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몇 개의 선으로 구성되는 방어진지를 준비하여 한 선에서 적에게 최대의 타격을 가하고 다음 선으로 이동하는 소위 기동방어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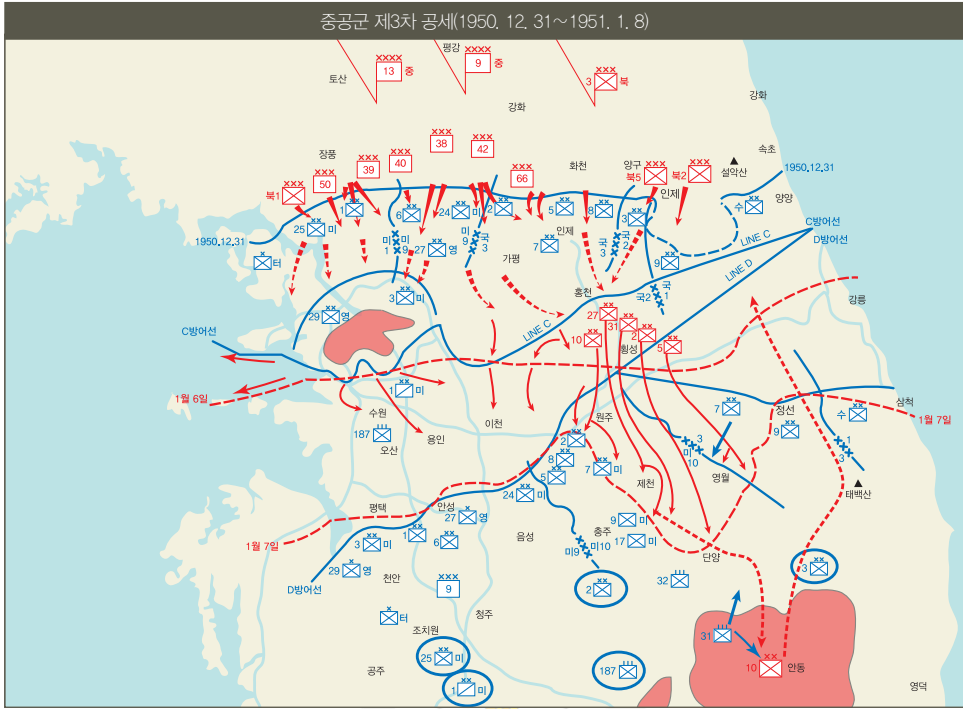
유엔군의 축차방어 개념은 낙동강 방어선까지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미 제8군

사령관은 37도선을 최후저항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작전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열린 한미 연합작전회의에서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38도선에서 낙동강까지 약 300km의 중심에 위치한 “6개의 방어선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까지 물러나기 위하여 설정된 단계별 저지선이 아니라 아군이 각 단계마다 공산군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고, 기회를 보아 즉시 반격으로 전환하여 적을 섬멸하기 위한 선”이라고 주지시키고, “37도선 아래로는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 제8군사령관은 전방부대들이 서울 남쪽으로 철수할 경우를 대비하여 혼란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서울 북쪽에 새로운 저지선을 설정하였다. 이 저지선은 한강에 설치된 부교들이 공산군의 포격 사정권에 들지 않도록 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주 부근 한강제방-의정부 남쪽-서울 동쪽을 잇는 반원형으로 이루어졌다.

#### 중공군의 제3차 공세와 유엔군의 37도선 철수

유엔군이 김포반도-임진강-화천-양양을 잇는 38도선 부근에 주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에 공산군은 제3차 공세를 준비하였다. 중·조연합사령부는 1950년 12월 23일 전선의 각 부대에 38도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차후 공격명령에 따라 돌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25일 중·조연합사령부는 제3차 공세 개시일을 12월 31일 오후 5시로 최종 확정하였다. 중·조연합사령부가 확정된 작전계획은 중공군 6개 군과 북한군 3개 군단의 연합작전으로 38도선을 돌파하고, 임진강 동쪽과 북한강 서쪽에 배치된 국군 제1·제2·제5·제6사단의 일부를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중·조연합사령부는 상황이 순조롭게 전개될 경우 신속하게 서울, 춘천, 홍천, 양양, 강릉 일대를 점령한 후 휴식과 부대정비를 실시하면서 춘계공세를 준비한다는 차후작전 방침도 정하였다. 공격부대의 총 병력은 중공군이 6개 군 23만여 명, 북한군이 3개 군단 7만 5,000여 명 등 총 30여만 명이였다. 공산군은 제3차 공세에 앞서 보급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급창고를 증설하고, 철도·도로·교량 등을 수리·복구하였으며, 약 3만 톤의 식량을 북한 현지에서 조달하였다.

공산군 공격부대들은 12월 27일까지 공격준비 위치로 진출하였다. 이 때 중공군은 제50군이 개성 동쪽에, 제39군이 구화리 지역에, 제40군이 삭녕 지역에, 제38군이 연천 지역에, 제42군이 철원 동남쪽에, 제66군이 김화 남쪽에 각각 집결하였다. 북한군은 제1군단이 사리원 남쪽에 집결하였고, 북한군 제2전선부대와 연계하여 중부내륙으로 침투할 예정인 북한군 제2·제5군단이 양구와 인제 방면에서 홍천을 목표로 계속 남하 중이었다. 중동부전선의 북한군은 주력부대의 작전개시에 앞서 12월 하순부터 제2전선 부대



들을 중부내륙으로 침투시켰다. 이들 북한군 제2전선부대는 중공군의 제3차 공세가 있기 하루 전인 12월 30일에 양덕원리(홍천 서남 10km)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제3차 공세는 1950년 12월 31일 오후 5시 전 전선에서 공격준비사격과 함께 시작되었다. ‘신정공세’라고도 불리는 중공군의 제3차 공세는 6개월 전 북한군의 남침 양상과 흡사하였다. 중·조연합사령부는 주공부대로 중공군 4개 군(중공군 제38·제39·제40·제50군)과 북한군 1개 군단(북한군 제1군단)을 서울 점령을 목표로 공격하게 하고, 조공부대를 2개 집단으로 편성하여 가평과 서울 동쪽 방면으로 중공군 2개 군(제42·제66군)을, 홍천-원주 방면으로 북한군 2개 군단(북한군 제2·제5군단)을 각각 투입하였다.

공산군의 주공부대가 투입된 서부와 중서부 전선에서는 문산 우측의 국군 제1사단과 동두천의 국군 제6사단이 집중공격을 받았다. 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는 중공군 제39군(제115·제116·제117사단)이 임진강을 건너 12월 31일 오후 6시경에 국군 제11연대와 제12연대를 공격하여 방어진지를 붕괴시켰다. 국군 제6사단 지역으로는 중공군 제40군(제118·제119·제120사단)이 아미리(연천군 미산면)-고탄(연천군 전곡읍)에 이르는 지역에서 임진강과 한탄강을 건너 1951년 1월 1일 해가 뜨기 전에 동두천시 상패

동까지 진출하였으며, 중공군 제38군(제112·제113·제114사단)이 포천 방면에서 남하해 1월 1일 저녁까지 칠봉산(동두천시 동남쪽)-신읍리(포천시 신읍동) 선을 점령하였다.

중공군은 1951년 1월 2일 의정부 지역의 국군과 유엔군을 섬멸한다는 목표로 기존에 투입한 제38·제40군에 더하여 국군 제1사단 지역을 공격하던 제39군의 일부 병력을 이 지역으로 전환시켰다. 중공군은 포천 방면의 제38군을 의정부 남쪽으로 신속히 기동시켜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로를 차단하고 새로 투입된 제39군 주력을 서쪽에서, 그리고 제40군을 북쪽에서 각각 의정부를 공격하게 하였다.

중공군의 의정부 공격으로 1951년 1월 2일 저녁부터 3일 오전까지 회룡사(의정부시 호원동) 일대에서는 미 제24사단 제21연대와 중공군 제116사단 제346연대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의정부 서쪽 부곡리(양주시 장흥면)에서는 영국군 제29여단과 중공군 제116사단 제347연대 간에 격전이 벌어졌다. 이 시기 의정부 지역 전투는 6·25전쟁 초기 의정부 고수작전과는 달리 서울 남쪽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작전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유엔군은 일시적인 방어 작전만을 전개하고 철수하였다.

이 무렵 중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이 돌파구를 확대하면서 중부내륙으로 침투하고 있었다. 중공군 제66군(제116·제117·제118사단)이 가평과 춘천 북방에 배치된 국군 제2·제5·제8사단을 공격하고, 북한군 제2·제5군단이 화천과 양구 방면에서 춘천과 인제 방면으로 공격한 후 계속 남하해 북한군 제2전선부대와 연결을 시도하였다.

중공군이 수도권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자 1951년 1월 3일 오후에 미 제8군사령관은 지연전을 펼치면서 한강 남쪽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예비부대에 하달하였다. 리지웨이 중장은 곳곳에서 돌파구가 형성되고 있는 전선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을 지체할 경우 중공군의 제1·제2차 공세 때처럼 포위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도 서울의 포기는 무초(John J. Muccio)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국정부에도 전달되었다.

한강 이북의 모든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4일 오전까지 한강에 임시로 설치된 부교를 통해 철수를 완료하였다. 피난령(避難令)이 내려진 가운데 시민들도 함께 한강 남쪽으로 피난하였다. 당시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피난민은 약 220만 명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764만여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것이 이른바 ‘1·4후퇴’였다. 1월 4일 오후 1시에 마지막 부대가 통과한 후 한강에 설치된 임시교량은 폐쇄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개전 초기와는 달리 한강을 방어선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은 계절이 겨울이라 한강이 얼어 장애물로서의 가치가 제한되었다는 점과 중부내륙의

로 침투하는 북한군이 흥천-원주 방향으로 진출하여 큰 돌파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철수한 국군과 유엔군은 1월 7일 평택-삼척을 잇는 북위 37도선에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유엔군의 꼬리를 물고 공세를 감행할 것으로 여겨졌던 중공군은 1월 8일을 기해 갑자기 전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는 중·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1월 8일을 기해 중부내륙으로 침투 중이던 북한군을 제외한 전군에 추격정지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중공군은 수원-김량장리(용인)-이천-여주-원주선에서 전선을 형성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계속된 동절기 전투에서 전력이 저하되고, 과도한 병참선의 신장과 유엔군의 공중공격에 보급품이 고갈되었으며, 그들의 후방지역에 대한 유엔군 상륙작전을 우려하고 있었다.

중공군이 처한 상황과 의도를 알 수 없었던 유엔군은 전선에서 갑자기 사라진 중공군으로 초조감이 더욱 커지고 장병들의 사기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여기에 중동부전선의 원주 돌파구가 확대되면서 유엔군 내에서 패배의식은 점점 더 커져갔다. 반면에 공산군은 원주를 점령하여 중앙선을 통제하고 나아가 대전 또는 대구로 진출할 수 있는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부내륙 지역에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될 위기에서 미 제2사단이 북한군 제5군단과 1주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12일 원주를 탈환하여 중동부전선의 위기는 일단 수습되었다.

1951년 1월 12일을 기점으로 모든 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자, 1월 14일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미 제8군사령관은 전선에서 사라진 공산군의 배치와 규모 등을 탐색하고 중동부전선에 대한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제한된 규모의 위력수색작전을 계획하고 이를 예비부대에 하달하였다. 이것은 1950년 12월 8일 이후 철수만을 계속했던 유엔군이 새롭게 공세작전으로 전환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결과 및 영향

1950년 12월 8일부터 계속된 유엔군의 철수작전은 1951년 1월 7일 평택-삼척선을 잇는 북위 37도선에 유엔군의 방어선이 형성되고 1월 14일 위력수색작전이 결정되면서 종료되었다. 이 기간 중 중공군은 압록강을 넘어 6·25전쟁에 개입한 이후 청천강선으로부터 1일 평균 10km의 속도로 남진하였으며, 공격개시 약 38일 만에 수원-강릉선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 선이 중공군의 능력으로는 최대한 진출할 수 있는 한계선이었다. 반면에 유엔군은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자의에 의한 철수로 인적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화력으로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유엔군은 장병들

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됨은 물론 전의마저 상실되었고, 지휘관들의 통솔력에도 결함이 나타났다. 따라서 유엔군은 전투력을 보존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지휘통솔력을 제고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는 작전개념을 ‘방어에서 공세로’ 바꾸었다. 이 작전개념에 따라 이후 유엔군은 ‘울프 하운드 작전(Operation Wolfhound)’, ‘썬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 등 강력한 위력수색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⑦,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⑧,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박동찬 집필】

## 유엔군의 재반격작전 (기획)

[UN軍의 再反擊作戰, 1951. 1. 15. ~6. 14.]



### 개요

중공군의 제3차 공세로 평택-원주-단양-정선-삼척으로 이어지는 북위 37도선까지 철수한 국군과 유엔군이 1951년 1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물리치고 임진강 하구에서 철원-김화-해안분지-향로봉-거진 북방을 연결하는 방어선인 신칸자스선까지 진출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 위력수색작전 준비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2월 31일에 시작된 중공군의 제3차 공세(일명 ‘신정공세’)로 1951년 1월 4일 서울에서 철수한 후 1월 7일 평택-삼척을 연하는 북위 37도선에서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37도선은 유엔군의 계획된 방어선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는 가변적인 방어선이었다. 포기와 사수의 결정은 전적으로 공산군의 공세능력과 유엔군사령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정해질 사안이었다.

유엔군은 계속해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지만, 예상과 달리 갑작스럽게 너무 평온한 전선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는 중공군사령관 평더화이(彭德懷)



가 1월 8일을 기해 중동부전선으로 침투 중이던 북한군을 제외한 전군에 추격정지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중공군은 서울을 점령한 후 전력이 소진되어 평택까지 진출할 능력도, 더 이상 밀어붙일 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이 쉽게 방어선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남쪽으로 철수한 것을 두고서 자신들을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수원-김량장리(용인)-이천-여주-원주선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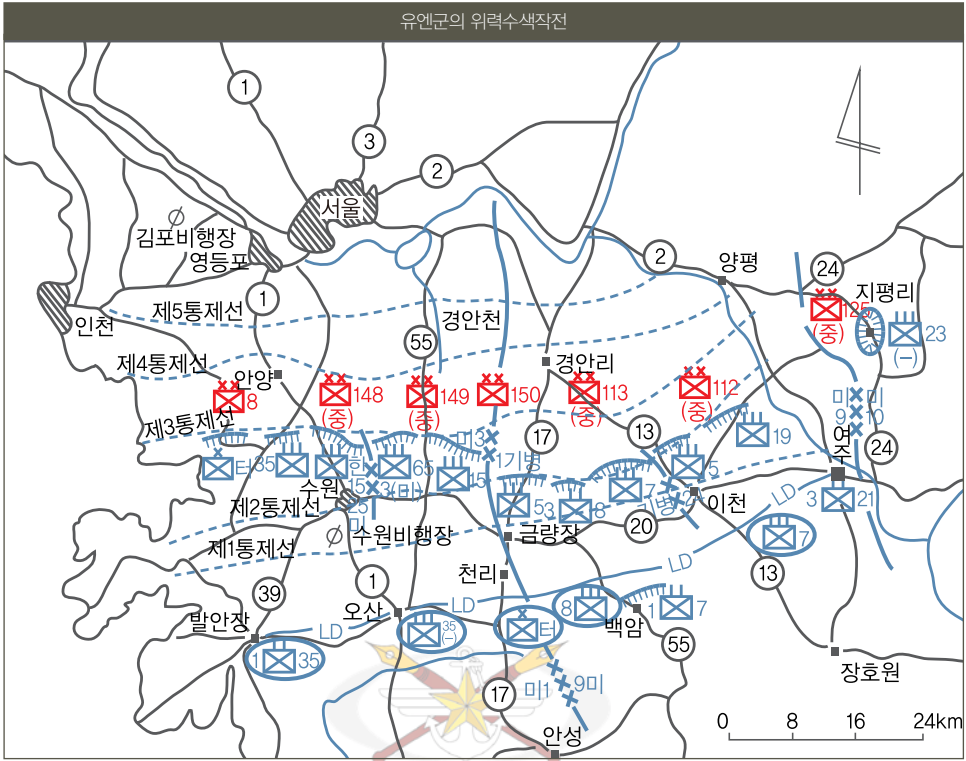
중공군이 처한 상황과 의도를 알 수 없었던 국군과 유엔군은 잡자기 전선에서 사라진 중공군으로 초조감이 더욱 커지고 장병들의 사기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여기에 중동부전선의 원주 돌파구가 확대되면서 국군과 유엔군 내에는 패배의식이 넓게 퍼져 나갔다.

평온함 속에서 긴장감이 감돌던 서부전선과는 달리 중동부전선의 전황은 매우 숨가쁘게 전개되었다. 공산군은 서울을 점령한 후 주공(主攻)을 중동부전선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서부와 중서부전선의 미군에 비해 전투력이 약하고 산악지형으로 화력지원이 어려웠던 중동부전선의 국군을 무력화시켜 그곳에 대규모 돌파구를 형성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이 공격에는 북한군 2개 군단이 동원되었으며, 중동부전선의 요충지인 원주가 그들의 주요 공격 목표였다. 공산군은 원주를 점령함으로써 중앙선을 통제하고 나아가 대전 또는 대구로 진출할 수 있는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주 방어에 투입된 미 제2사단이 북한군 제5군단의 공격에 맞서 1주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1월 12일 북한군을 격퇴하고 원주를 탈환함으로써 중동부전선의 위기는 일단 수습되었다. 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자,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전선에서 사라진 중공군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강조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전면적인 공격에 앞서 먼저 공산군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작전 기도 등을 탐색하고 중동부전선에 대한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부전선에서 제한된 규모의 위력수색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작전은 ‘울프하운드 작전(Operation Wolfhound)’이라고 명명되었으며, 미 제1군단이 담당하였다.

위력수색작전은 1951년 1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었다. 이 작전의 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방어선이 수원-이천을 연하는 선이며, 화력지원과 보급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공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의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작전의 성과 중 가장 고무적인 것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사기가 저하된 유엔군 장병들의 공격의지가 고양되었다는 점이었다.

울프하운드 작전의 결과로 유엔군은 총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미 제8군사령관은 작전의 신중함을 기하고자 이전보다 더 강력한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하



기로 하였다. 이는 공산군의 조직적인 방어활동을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울프하운드 작전 때보다 더 강력한 부대로 신속하게 중심 깊이 실시하는 파괴적 위력수색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썬더볼트 작전 (Operation Thunderbolt)’이라고 명명하였다.

썬더볼트 작전의 기본개념은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에서 각각 증강된 1개 사단을 투입해 1월 25일부터 한강선까지 수색작전을 펼친다는 것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작전 부대 간의 연결을 유지하고 공격제대의 안전한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군단지역 전방에 8km 간격으로 5개의 작전통제선을 설정하고, 통제선 통과 권한을 군단장들에게 위임하였다. 작전이 시작되면 유엔 공군과 해군의 근접항공지원과 함포사격이 최대한 지원될 예정이었다.

#### 서부전선 위력수색작전

서부전선의 작전은 1951년 1월 25일 미 제25사단이 선봉부대가 되어 시작되었다. 미

제25사단은 공격제대를 5개로 편성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사단수색중대로 구성된 제1제대가 서해안을 따라 진격하고 미 제35연대의 1개 대대로 구성된 제2제대가 화성 발안장에서, 미 제35연대 주력으로 구성된 제3제대가 1번 국도를 따라 각각 북상하였다. 그리고 사단에 배속된 터키여단의 제1·제3대대로 구성된 제4제대가 오산 동쪽에서, 터키여단 제2대대로 구성된 제5제대가 군단의 가장 동쪽에서 김량장리의 남동쪽으로 진격하였다.

공격 첫날 미 제25사단은 울프하운드 작전에서 수색을 완료한 제1통제선을 쉽게 통과했지만, 제2통제선에 접근하면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단의 우측 공격부대인 터키여단이 용인 부근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1월 27일까지 진행된 전투에서 터키여단은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용인의 김량장리와 151고지를 탈환하여 군우리 전투의 패배를 만회하였다.

미 제25사단은 예하부대들이 1월 27일 제2통제선인 구룡곡(수원 서쪽 12km)-부곡리-미륵동(수원 북쪽 4km) 선까지 진출하자, 다음 날 한강선 진출의 교두보인 수리산 탈환작전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1월 31일 아침에 미 제35연대가 주공부대로 수리산을 점령하고 좌측에서 터키여단이 소사 방면으로, 우측에서 국군 제15연대가 모락산을 목표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수리산 전투는 1월 31일 오전에 미 제35연대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수리산은 수원-서울, 수원-인천 간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전술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중공군도 이곳에 연대 병력을 투입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때문에 수리산 전투는 유엔군의 위력수색작전 기간 동안에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며, 미 제24사단에서는 제35연대 이외에도 소사 방면으로 진출하던 터키여단과 사단 예비부대인 제27연대 병력까지 투입하였다. 일주일간 지속된 전투는 2월 6일 미 제24사단이 수리산 능선상의 마지막 고지인 440고지를 점령함으로써 완료되었다. 이 전투 이후 중공군은 수원 일대에서 물러나 안양 방면으로 후퇴하였고, 유엔군은 한강선으로 계속해서 진격할 수 있었다.

한편 수리산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우측에서는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가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모락산과 관악산 일대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였다. 제15연대는 1월 31일 미 전차의 지원을 받으며 2개 병진대형으로 공격을 개시해 2월 4일 모락산을, 2월 9일 관악산을 각각 점령하고 계속해서 중공군을 추격해 2월 10일 오전에 노량진-영등포 선에 도달하였다.

한강선에 진출한 미 제1군단은 더 이상의 진격을 멈추고 정찰활동을 강화하면서 한강 도하 준비에 주력하였다. 이는 '서울 탈환'이 군사적으로 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

라 한강 이북에 부대를 배치할 경우 배후의 한강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미 제8군사령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서부전선의 방어선을 한강 이남으로 제한하고 중서부와 중동부전선 부대들의 복상 속도에 맞춰 서울탈환 작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중서부전선 위력수색작전

서부전선에서 ‘썬더볼트 작전’이 시작된 1월 25일, 미 제9군단도 미 제1기병사단을 선두부대로 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미 제9군단은 1951년 1월 15~16일 이틀간 서부전선에서 미 제1군단이 실시한 울프하운드 작전의 결과에 따라 17일부터 이천 방면으로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한 바가 있었다. 이 작전에 이어 실시된 미 제9군단의 위력수색작전은 경기도 광주지역의 남한산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남한강을 도하해 양평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광주지역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미 제9군단은 1951년 2월 8일까지 무난히 한강변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남한산과 양자산으로 연결된 산악지대로 접근하면서 선두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의 진격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의 공격이 여의치 않자, 군단에서는 미 제24사단을 추가로 투입하고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를 미 제24사단에 배속시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2월 9~10일 양일간 실시된 전투 결과, 이 지역이 중공군의 강력한 교두보임을 확인하였다. 후에 판명된 바로는 한강 남안에 중공군 제38군을 주축으로 하는 약 4만 명의 병력이 한 달에 걸쳐 산악지대에 구축한 동굴이나 엄체호 진지를 거점으로 포진하고 있었다. 특히 광주지역의 내비산, 문형산, 무갑산, 국주봉 일대에서 중공군은 유엔군의 공격을 강력하게 저지하였다.

결국 미 제9군단은 남한산-양자산을 연하는 중공군의 교두보를 남겨둔 채 한강선 진출작전을 일단 종료하였다. 이는 우인점 군단인 미 제10군단이 중공군의 제4차 공세(2월 공세)로 전선에서 철수함에 따라 현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전술상 유리했기 때문이다. 미 제9군단은 우인점 부대인 제10군단이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반격에 나설 때까지 현 전선을 유지하면서 남한강 도하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 중동부전선 반격작전

서부와 중서부 전선의 유엔군이 중공군의 제3차 공세(1950. 12. 31.~1951. 1. 8.)로 평택-안성 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에 중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 제2군단 이하의 4개 사단(제2·제9·제10·제31사단)이 흥천-횡성-원주 축선으로 안동 일대까지 중심

깊게 침투하여 제2전선을 형성하였다.

미 제8군사령부는 이러한 상황을 중동부전선 최대 위협요소로 판단하여 미 제10군단에게 지역 내의 통로차단과 북한군 격멸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미 제10군단은 1951년 1월 12~15일 단양 적성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시작으로 제천과 영월 등 산악지역에서 차단작전을 전개해 북한군 제2군단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북한군전선사령부는 중심 깊게 진출한 북한군 제2군단이 미 제10군단의 차단작전예의해 큰 손실을 입자 1월 20일 후방 침투작전을 종료하고 평창 부근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2군단은 1월 말에 이르러서야 편제가 대부분 와해된 상태로 겨우 분산 철수하였다. 특히 공격의 첨병부대인 북한군 제10사단은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미 해병 제1사단이 전개한 수색작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차단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미 제10군단은 1월 29일부터 지평리와 횡성 일대에서 위력수색작전과 흥천 포위공격 작전을 연이어 실시하였다. 위력수색작전 동안에 미 제2사단은 지평리와 원주 사이의 쌍터널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공방전 끝에 승리하였다. 쌍터널 전투 후 미 제10군단은 중공군 집결지인 흥천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다. ‘몰이’, 즉 포위한다는 의미의 ‘라운드업 작전(Round-up Operation)’으로 명명된 흥천 포위공격 작전은 2월 5일 시작되었다. 공격은 대체로 서부전선의 썬더볼트 작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험준한 산악지형 때문에 철저한 수색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전개시 후 약 3일 동안에는 계획된 제한목표들과 통제선을 예정대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 공산군의 주저항선에 부딪치면서 더 이상의 전진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맞게 되었다.

유엔군으로부터 강력한 반격을 받은 중공군은 서부전선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중동부전선으로 집중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른바 2월 공세로 불리는 중공군의 제4차 공세는 2월 11일 밤에 시작되었으며, 중공군 9개 사단이 투입되었다. 이 공격으로 전술적 요충지인 지평리와 횡성지역에서는 피아 간에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이 때 미 제2사단 제23연대가 지평리에서 전면방어로 진지를 끝까지 사수면서 중공군을 격퇴시켰으며, 미 제10군단 주력이 원주-제천까지 남하한 중공군의 퇴로를 차단해 큰 전과를 올렸다.

결국 중공군의 제4차 공세는 실패로 끝났다. 공세가 끝난 후 유엔군은 중공군의 보급지원능력이 매우 취약해 작전지속 가능기간이 5~6일밖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유엔군은 중공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중공군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중공군의 제4차 공세를 격퇴한 유엔군은 재반격작전으로 전환해 중동부지역으로 침

투한 적을 격멸하기 위한 ‘킬러 작전(Operation Killer)’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의 결과로 유엔군은 1951년 3월 초에 한강 남안-횡성-강릉을 잇는 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엔군은 서울 재탈환과 38도선 진출을 목표로 한 ‘리퍼 작전(Operation Ripper)’을 3월 말까지 전개해 문산-동두천-춘천-현리-양양을 잇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 38도선 확보작전

리퍼 작전으로 유엔군이 문산-춘천-양양으로 이어지는 38도선 부근까지 진출하자, 한국과 미국 정부 내에서는 38도선의 돌파문제가 또다시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한국정부는 일찍이 북진통일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재북진 여부는 작전권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었으며 미국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협상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던 미국정부는 약 2개월간의 성공적인 군사작전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된 것에 매우 고무되어 있었다. 하지만 3월 말의 전선 상황이 유엔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 공산군은 언제라도 대규모 공세를 취할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 만약 유엔군이 38도선에서 전면 휴식 상태에 들어간다면 그 틈을 이용해 공산군은 다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할 공산이 컸으며, 미국과 유엔군이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정치적 부담이 큰 전면적인 북진작전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술적 차원에서 38도선을 넘는 것은 유엔군사령관과 미 제8군사령관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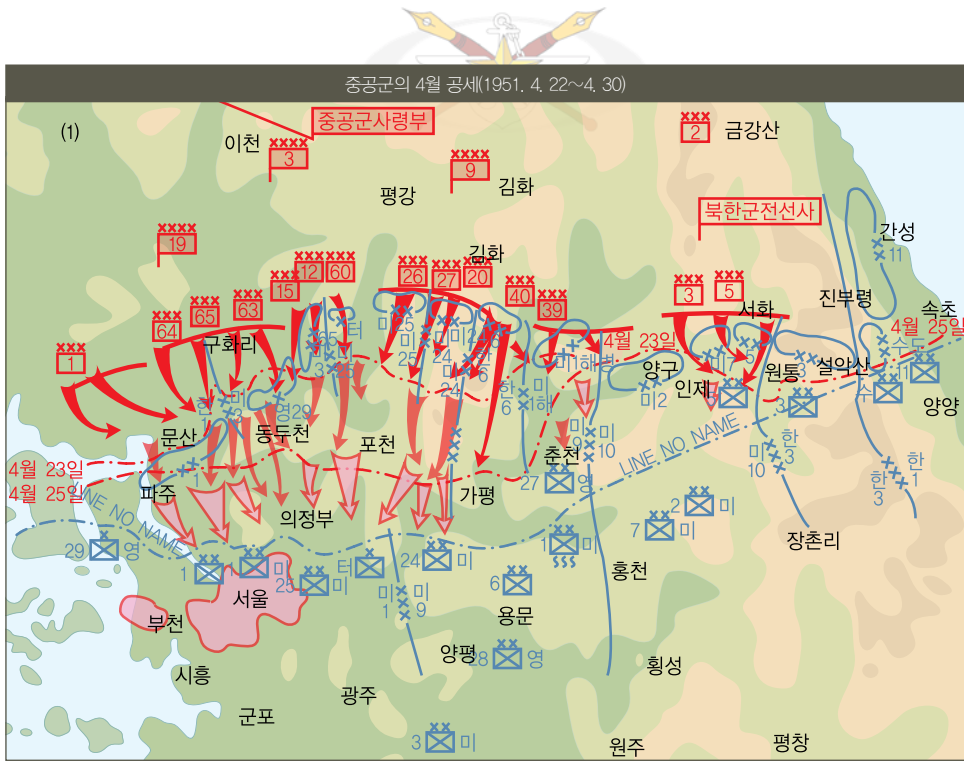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승인아래 재북진작전을 계획하였다. 러기드 작전(Operation Rugged)과 돈틀리스 작전(Operation Dauntless)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제한된 목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작전의 목표는 각각 캔자스선(Kansas Line)과 철의 삼각지대였다.

‘전선의 요철을 정리한다’는 의미를 지닌 러기드 작전은 1951년 4월 3일 시작되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철의 삼각지대 공격에 앞서 중공군의 공격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고 38도선 확보를 위해 비교적 유리한 방어지역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 이때 선정된 목표방어선이 임진강-연천-화천저수지-양양으로 이어지는 캔자스선(Kansas Line)이었다. 러기드 작전에서는 중앙공격부대인 미 제9군단이 화천댐을 이용해 수공작전으로 맞선 중공군과 격전을 벌인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계획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였다.

리기드 작전에 이어 미 제8군은 4월 11일부터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주축이 되어 철의 삼각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돈틀리스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공산군은 유엔군을 유인하여 공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아래 유엔군과의 접전을 피하면서 공세를 준비해 나갔다. 4월 21일 유엔군이 돈틀리스 작전의 목표지역인 철의 삼각지대에 근접하자, 다음날(4월 22일) 중공군은 제5차 공세(4월 공세)를 강행하였다.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에 직면한 유엔군은 서부전선의 국군 제1사단이 파평산 일대에서, 영국군 제29여단이 설마리 일대에서 격전을 펼쳤고, 중부전선의 국군 제6사단이 사창리 일대에서 붕괴되는 대참사를 겪었다. 그러나 공산군의 4월 공세는 유엔군의 강력한 방어와 중공군의 치명적인 한계였던 보급문제 등으로 공세개시 약 일주일 만에 종료되었다. 4월 공세에서 중공군은 항공폭격과 포병화력을 활용한 유엔군의 조직적인 지연작전으로 10만 명이 넘는 인명손실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유엔군은 보급능력이 부족한 중공군의 결정적인 취약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약 일주일 만에 중단되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1951년 4월 30일을 기해 노네임선(No Name Line)을 요새화하는 동



시에 적정 파악을 위한 위력수색을 강화하도록 예하부대에 지시하였다. 이때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공산군의 공격 중단이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이며, 전력을 다시 강화해 공세를 취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공산군의 주공방향을 서부나 중서부전선으로 예상하였다.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에 대비해 중서부전선을 보강하는 부대배치를 하고 전 전선에서 위력수색작전을 실시하였다. 5월 9일경 김포반도-봉일천-의정부-가평-춘천선을 확보한 데 이어 동부전선의 인제와 속초까지 탈환하는 등 상황이 점차 호전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38도선을 향한 반격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5월 10일 이후 전 전선에서 공산군의 활동이 현저히 증가하고 새로운 공세 징후들이 나타나자 유엔군은 반격계획을 취소하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중공군은 5월 16일에 이전의 그 어떤 공세 때보다도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 '5월 공세'를 강행하였다.

중공군의 5월 공세는 중동부 산악지역에서 국군 격멸로 미군을 고립·분산시켜 미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중·조연합사령관 핑더하이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중공군은 4월 28일부터 5월 공세를 준비하였으며, 5월 8~9일 북한군전선사령부와 연합작전회의를 열고 현리의 국군을 섬멸한다는 작전계획을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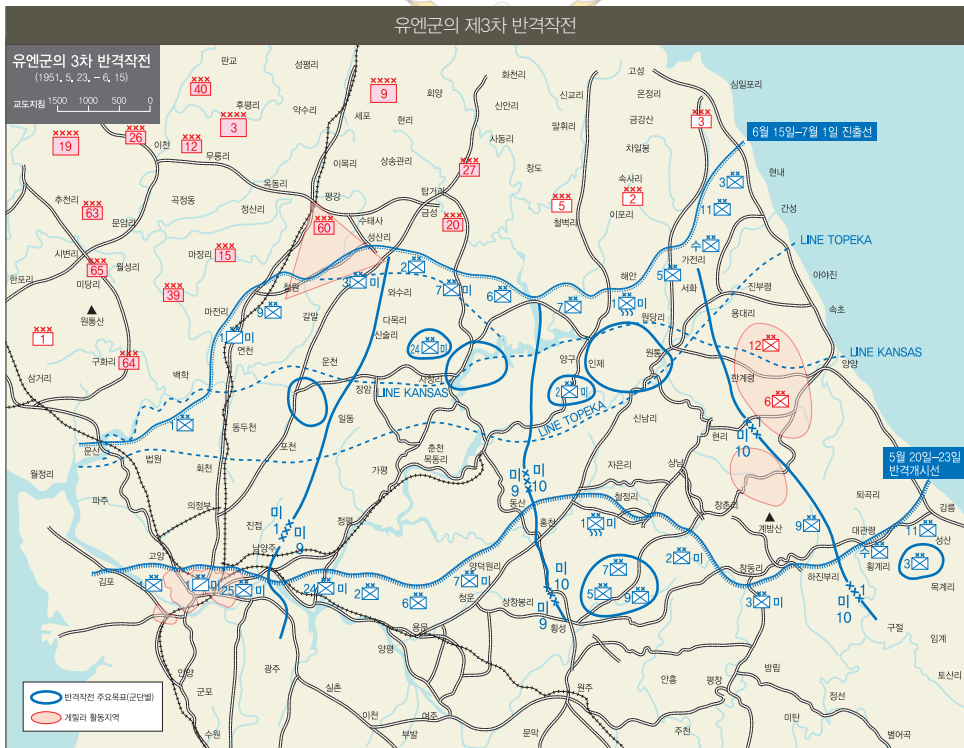




그들은 4월 공세의 양익포위전술을 발전시켜 3중으로 국군을 포위·섬멸하는 다중포위전술을 구사하기로 하였다. 공산군 측이 의도한 대로 중동부지역에 배치된 국군 6개 사단이 붕괴될 경우 이 지역의 전선은 완전히 개방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중서부 전선의 유엔군이 고립되는 최악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공세를 단행한 공산군은 현리 일대를 돌파해 국군 제3군단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일부 부대가 중심 깊이 국군을 추격하여 하진부리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단기간 내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승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동전 전법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은 돌파구를 확장하지 못하여 그들이 의도했던 국군에 대한 3중 포위에 실패하였고 더구나 6월 초에는 공세의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오히려 유엔군의 퇴로차단과 중심 깊은 포위작전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 북으로 퇴각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춘계공세를 통해 중공군 지도부는 우세한 병력만으로 유엔군의 현대화된 무기와 장비를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제한적인 군수지



원 능력을 전쟁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조연합사령부는 5월 공세를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하고, 장기작전을 통해 미군을 섬멸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지구전(持久戰)’으로 전환하였다.

반면에 유엔군은 두 차례에 걸친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는데 성공하자 즉시 공세로 전환하여 5월 23일을 기해 제3차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캔자스선, 와이오밍선, 신캔자스선 등의 작전통제선을 설정하여 단계별 작전을 실시하여 5월 말에 다시 38도선을 돌파하고, 6월 중순에는 임진강 하구-전곡-연천-철원-김화-해안분지-거진을 연결하는 주요 지역을 점령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중공군은 제1·제2차 공세에서 기습 효과로 전과를 확대했고, 제3차 공세(신정 공세)에서는 유엔군의 사전 철수계획에 따라 큰 접전 없이 37도선 북쪽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3차 공세까지는 양측이 정면 승부를 건 전투를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 양측이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사활을 걸고 공방전을 전개한 것은 중공군의 제4·제5차 공세 때였으며, 그 결과 중공군은 큰 타격을 입고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에 유엔군은 다시한번 반격작전을 전개해 신캔자스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공산군과 유엔군 간의 접촉선은 대체로 현재의 군사분계선과 비슷하게 형성되었으며, 이후 양측은 이 선을 따라 대치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진지전 및 고지쟁탈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1996.

【박동찬 집필】



## 휴전회담

(기획)

【休戰會談, 1951. 7. 10.~1953. 7. 27.】

### 개요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1951년 7월 10일부터 정전협정 조인식이 거행된 1953년 7월 27일까지 개성과 판문점에서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159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거쳐 합의한 회담이다.

## 전개과정

### 휴전회담의 수용 배경

6·25전쟁이 개시된 이후 남과 북을 오르내리며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1년이 지나고, 쌍방은 다시 형성된 38도선 부근의 새로운 전선(임진강구-연천-철원-김화-산양리-장평리-서화-간성)에서 상호 대치하게 되었으며, 전투는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되고 유엔군과 공산군 모두 대규모 공세로써 전쟁을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전쟁의 정치적 해결, 곧 휴전협상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 개입 이후 전쟁 정책을 놓고 한국정부는 '한반도통일'을 위한 군사작전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정부의 입장은 한국정부와 확연히 달랐다. 미국은 중공군의 개입 이후 유엔군의 37도선으로의 철수와 서울 재탈환, 그리고 춘계공세 이후 38도선 부근에서의 교착상태를 지켜보면서 휴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에 참전한 이후 1951년 6월까지 78,800명의 인명 손실을 보았고, 전쟁비용도 1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첫 1년 동안의 지출보다 두 배가 넘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주적이 아닌 중국과, 그것도 한반도에서 싸워야 한다는 데 곤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에 미국정부는 한국에서의 전쟁을 군사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한 후에 군사적 승리가 아닌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명예로운 휴전정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공산군에게도 1951년 춘계공세는 전쟁 수행 면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특히 1951년 중공군 5월 공세는 자신들의 군사적 한계를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대규모 군대를 파병한 중국은 여섯 차례의 대규모 공세를 통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 중공군은 6·25전쟁 개입 이후 약 46만 명의 손실을 입었고, 북한군도 개전 이후 56만 명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입장에서 중국도 전선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뿐 진격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휴전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1951년 6월 13일에 모스크바에서 있는 조·중·소 회담에서 스탈린·김일성·가오강은 '38도선을 경계로 휴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소련의 휴전 제의와 미국의 대응

한국에서의 명예로운 휴전 정책을 채택한 미국정부는 소련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소련 전문가인 케난(George F. Kennan)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미 국무장관(Dean G.

Acheson)이 케난을 방문하여 한국에서 미국의 의도를 설명하고 유엔주재 소련대표인 말리크(Yakob Malik)와 접촉하여 휴전에 대한 소련 측의 의도를 탐색해 보도록 지시하였다.

케난은 유엔주재 미국 외교관의 중재로 1951년 6월 1일 뉴욕 근교에 있는 말리크의 숙소를 방문하였으나 소련 측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다. 1951년 6월 5일 다시 같은 장소에서 케난과 말리크는 두 번째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케난은 회담 참가국, 의제, 정전감시위원회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미국 정부는 말리크와의 접촉으로 소련도 정치적 협상을 통해 6·25전쟁을 종결할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련 정부의 협상 제의를 파악하고 있을 무렵인 1951년 6월 23일 말리크가 유엔 라디오 특집 방송프로그램인 ‘평화의 가치(Price of Peace)’라는 연설을 통해 교전 상태의 중지과 38도선에서의 상호 철군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휴전 제의에 대해 전쟁 당사국인 중국은 6월 25일에, 북한은 27일에 각각 지지를 표명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휴전협상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말리크의 연설이 소련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한 미국정부는 소련의 의도를 고려하여 군사적 수준에서 회담을 갖기로 하고, 유엔군사령관이 공산군사령관에게 휴전회담을 제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다. 휴전 회담 제의에 관한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은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Mattew B. Ridgway) 장군을 통해 1951년 6월 30일 라디오 메시지의 형식을 빌려 전달하였다.

리지웨이 장군이 휴전회담을 제의하자, 마오쩌둥(毛澤東)은 6월 30일에 스탈린에게 휴전회담 개시일을 7월 15일로, 회담 장소를 개성으로 통보하겠다고 보고하며, 김일성에게 휴전협상에 관한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마오쩌둥의 전문을 접수한 스탈린은 6월 30일 북경 주재 소련군사고문단장 크라소프스키를 통해 회담은 마오쩌둥이 주도하고 소련은 조언만을 하겠다는 회답을 보냈다. 결국 공산군 측은 스탈린과 마오쩌둥 및 김일성 사이에 휴전회담 전략에 대해 합의한 후 7월 1일 북경방송을 통해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의 휴전회담 제의를 수락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유엔군 측 휴전회담은 미국 주도하에 한국과 유엔 참전 16개국을 배제시킨 채 워싱턴에서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직접 휴전회담을 통제하였다. 유엔군 측 수석 대표에는 극동해군 사령관 조이(C. Turner Joy) 해군중장이 임명되었고, 그 밖의 휴전회담 대표로 미국 육해공군 장성과 한국군 장성이 포함되었다.

공산군 측의 휴전회담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스탈린에게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마오쩌둥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산군 측 수석 대표에는 북한군 총참모장 겸 부수상인 남일이 임명되었고, 그 밖의 휴전회담 대표로 북한군에서 2명, 중공군에서 2명이 임명되었다.

양측은 휴전회담에 앞서 예비회담을 갖게 되었다. 예비회담은 1951년 7월 8일 개성의 민가에서 진행하였고, 이 회담에는 양측 모두 중령 및 대령 급 연락 장교들이 참석하였다. 연락 장교단은 먼저 휴전회담 대표들의 명단을 서로 교환하고, 1951년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성의 내봉장에서 제1차 본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 휴전회담의 시작

이렇게 유엔 측의 제의를 북한과 중국이 수락함으로써 휴전협상의 서막이 7월 10일 시작되었다.

휴전회담이 개시될 때,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쌍방은 협상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전제 하에 회담을 시작하였다. 이에 휴전회담 기간 중의 군사작전은 휴전회담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 하에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전선이 소강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의 전투는 휴전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한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휴전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의 협상 기간, 쟁점, 합의 내용 등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 〈휴전협상의 주요 내용〉

사안	기간	쟁점	합의 내용
의제 및 의사일정	1951. 7. 10.~7.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측 : 군사 문제 중심</li> <li>• 공산 측 : 정치 문제 포함</li> </ul>	• 5개항 채택
군사분계선 문제	1951. 7. 27.~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측 : 제공제해권을 보장한 현전선</li> <li>• 공산 측 : 38선</li> </ul>	• 현 지상전선, 양측 2km 비무장지대
휴전 감시문제	1951. 7. 27.~1952.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내 비행장 복구 및 건설 금지</li> <li>• 휴전 감시 출입 지역</li> <li>• 휴전 감시 기구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전 감시 출입 지역 : 쌍방 5개소</li> <li>• 휴전 감시 기구 구성 : 체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li> </ul>
전쟁 포로문제	1951. 12. 11.~1953.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측 : 자유 송환 원칙</li> <li>• 공산 측 : 강제 송환 원칙</li> </ul>	• 자유 송환 원칙에 유리하게 합의
관련 각국 건의문제	1952. 2. 6.~1952. 2. 19.		• 협정 조인 후 3개월 내 정치 회의 개최

휴전협상에 임하는 유엔 측은 군사 문제만을 취급하고자 했고, 반면 공산 측은 외군철수 등의 정치 문제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정치 문제는 관련 각국에 대한 건의 문제로 처리되어 전후로 넘겨지게 되었다. 의제는 ① 의제 및 의사 일정 채택, ② 군사분계선 설정, ③ 휴전 감시 방법 및 기구 구성, ④ 전쟁포로 처리, ⑤ 관련 각국 정부에 대한 건의 등 5개 항목으로 합의되었다.

휴전협상에 임하는 미국 측은 기본 입장은 군사적 완전 승리가 불가능한 이제 ‘영예로운 해결’을 통하여 정치적·심리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교섭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적 압력을 수시로 사용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상에 시종일관 반대하였고, 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조차 미국으로부터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끌어내고자 했다. 반면 공산측은 휴전협상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전쟁을 끝내고자 시작되었던 휴전교섭은 거꾸로 전쟁을 2년여나 더 지연시켰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협상과 군사적 압력이 교대로 이어지면서 전쟁의 피해를 증대시켰다.

#### 휴전회담의 경과

1951년에는 주로 군사분계선 문제가 논의되었다. 유엔 측은 자신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보상해주는, 따라서 지상 접촉선보다 북쪽의 선을 제시했다. 공산 측은 38도선을 제시했다. 양측의 교섭은 8월 22일에서 10월 25일까지 한 차례의 중단을 거친 후에 재개되어 지상 접촉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 측이 공산측이 점령하고 있던 개성을 포함한 서부전선 일부와 유엔 측이 점령하고 있던 동부전선 일부를 교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교섭은 다시 난관에 봉착하였다. 결국 유엔 측이 자신의 제안을 철회함으로써 11월 27일 쌍방은 지상의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이로부터 양측 2km를 비무장지대로 합의하였다. 그 사이에 유엔 측은 공산 측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미 공중 폭격을 통하여 북한의 대부분을 초토화시켰던 유엔군은 8월 15일부터 공산 측의 통신망과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교살(Strangle)’작전을 수행하였다. 9월과 10월에는 ‘허드슨항(Hudson Harbor)’작전에 의해 북한 상공에서 모의 원폭투하비행을 실시하였다. 한편, 지상 전선에서도 유엔군은 8월 중순 이후 10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하계 공세와 추계 공세를 감행함으로써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켰다.

1952년에는 휴전 감시와 포로 처리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휴전 감시 문제에 대한 유엔 측은 입장은 북한 내 비행장의 복구와 건설을 중지하고, 휴전 감시 출입 지역을 남북한 전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1951년 중반 이후 점차 강화되고 있는 공산 측의

공군력을 약화시키고, 대부분의 병참 지원을 일본에서 지원받는 유엔군의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 전역을 감시 지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반면 공산측은 비행장 복구 건설 문제 논의를 거부하고, 휴전 감시 출입 지역을 제한하며, 감시 기구로서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ttee)와 별도로 중립국감시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를 구성하자고 하였다. 결국 휴전감시 문제는 1952년 5월 2일 휴전 감시 출입 지역을 쌍방 5개소로 하고, 휴전 감시 기구로 체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등 4개국의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합의하였다. 한편, 관련 각국에 대한 건의 문제는 양측에 특별한 이견이 없어 협정 조인 후 3개월 내에 ‘정치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1952년 5월 현재 합의되지 않은 문제는 전쟁 포로 문제뿐이었다. 포로 문제는 유엔 측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원하는 포로만 송환하자는 ‘자유송환원칙(자원송환원칙)’을 내걸고, 공산 측이 제네바협약에 의한 ‘자동송환원칙(강제송환원칙)’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해결이 지체되고 있었다. 유엔 측의 주장대로라면 원래 유엔 측이 제시한 13만 명의 공산 측 포로 중 8만 명만이 송환될 수 있었다. 공산 측은 이에 격렬히 반대하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포로 심사와 그 과정에 저항하여 공산 포로들이 수차례에 걸쳐 폭동을 일으켰다. 결국 포로 처리 문제의 이견으로 인해 휴전협상은 1952년 10월 8일 다시 중단되었다.

휴전협상이 1952년 중반에 들어 지지부진해지자,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폭격을 통하여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켰다. 북한과 중국은 1952년 2월부터 5월까지 미국이 세군전을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6월에는 미 공군이 수풍댐 등 4개의 주요 댐과 발전소를 폭격하였다. 7월과 8월에는 평양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이 실시되었다. 8월 5일에는 북한의 78개 도시에 대한 타격 계획이 발표되었다. 10월 중순에는 유엔군이 지상전선에서 공세를 펼쳤다. 요컨대 1952년 후반에 들어 군사적인 대결은 다시 격화되고 있었다.

휴전의 분위기는 1953년에 들어서야 분명해졌다. 새로이 미 대통령에 취임한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는 한국전쟁을 종료하도록 여론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스탈린이 죽은 소련의 새 지도부 역시 종전을 원했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는 군사적 압력을 통하여 종전을 모색했다. 그는 연초에 공산 측에 대한 ‘신공세’를 실시하는 한편, 원자폭탄 사용의 위협을 가했고, 5월에는 평양 근교의 저수지들을 폭격함으로써 대홍수를 야기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공산 측도 5월과 7월 사이에 전선에서 세 차례의 공세를 펼쳤다. 이제 전쟁의 막바지에 돌입하여 양측은 상대방에게 최후의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 휴전회담의 합의와 정전협정의 조인

이러한 가운데 양측은 포로 문제에 합의하였다. 우선 4월에 상병 포로가 교환되었다. 4월 26일에는 중단되었던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결국 양측은 귀국 희망 포로는 송환하고 귀국 반대 포로는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인계하여 그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은 포로들은 '정치회의'에 넘기며, '정치회의'에서도 결정되지 않은 포로들은 민간인으로 석방하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6월 반공포로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의 행동이 양국 정부가 신뢰로 맺은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재고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 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특사를 파견했다.

6월 25일 방한한 로버트슨은 정전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전협정의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대한공약의 강화를 약속함으로써 그를 달랬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는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으며, 이날 밤 10시를 기하여 모든 적대 행위가 종식되고 휴전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 중에 진행되었던 휴전회담은 회담이 개시된 지 장장 2년 만에 타결이 되었다. 회담 중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으나, 양측이 대치 상태 하에서 제한된 범위의 포격전, 수색정찰전, 고지쟁탈전 등 상호의 의지를 시험하는 국부적인 공방전을 되풀이하는 데 불과하였으며, 전선의 변화는 중심 20km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 중 휴전회담이 개시된 초반에 실시되었던 약 3개월간에 걸친 유엔군의 공세와 휴전 직전 약 1개월간 중공군이 실시한 중동부전선의 금성 돌출부에 대한 공세를 제외하면, 휴전회담 기간 중의 전투는 전선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교착된 전선에서의 전투였다.

### 결과 및 영향

휴전은 남북한에 막대한 고통과 출혈을 가져온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반도 내에서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금지를 보장할 목적으로 쌍방 군사령관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이며 군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6·25전쟁은 정전협정에 따라 적대 행위의 중단과 더불어 휴전으로 전환되었다.

정전협정 체결을 두고 참전국들 사이의 반응은 달랐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참전국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전쟁당사국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정전이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 조인 직후의 발표된 성명에서 정전을 원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 회담 기간 중에 정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북한 동포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정전협정의 조인에 따라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과 비무장지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정전협정에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한강하구에서부터 임진강하구를 지나 판문점-고양대-유정리-신탄리를 거쳐 동해안 감호를 잇는 선이었다. 또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의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이후 정전협정에서 규정된 적대 행위와 무장 행동의 금지를 보장할 것을 다루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위반 사건을 공동으로 협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립국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전협정 조인 후 한반도에서 새로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금지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의 지상 전력은 국군을 포함하여 92만 명에 달하였고, 공산군은 북한군과 중공군을 합쳐 180만 명에 달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고는 하나 한반도 내의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의 군사력은 약 300만 명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는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⑨, 201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⑩, 201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⑬, 2013.

【이상호 집필】

**고지쟁탈전** (기획)  
[高地爭奪戰]

**개요**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휴전회담 기간 동안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결렬된 회담을 재개하거나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실시한 제한적인 군사작전으로 주로 중부 및 중동부전선의 산악지대에서 중요 고지군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공방전이다.

## 전개과정

6.25전쟁 기간 동안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2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휴전회담은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의 정치 및 군사적 목적으로 인해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다.

1951년 5월 16일 중동부전선에 주공을 지향하고 5월 공세(제6차 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은 현리 일대에서 국군의 전선을 돌파해 약 60km를 남하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조직적인 지연작전과 강력한 포병 및 항공폭격에 많은 피해를 입고 5월 21일 화천저수지를 향해 철수를 시작하였다. 참전 이래 가장 처참한 피해를 입은 중공군은 재래식 장비와 전술로는 결코 유엔군을 축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대규모 공세 대신 소규모 국지전으로 전환하였다.

반면에 중공군 공세를 격퇴한 유엔군은 이후부터 중공군을 압도하며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유엔군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한중 국경선까지 다시 진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소련의 개입과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물론 수많은 인명손실과 전비를 감당하면서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할 명분이 약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에 밀려 38도선 북쪽으로 물러선 공산군 측은 더 이상 휴전을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였다. 중공군은 보급의 제한과 함께 인명손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북한군은 설 새 없이 계속된 유엔공군의 공습으로 한계상황에 처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만은 영원인 조국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단독북진까지 주장하며 이러한 휴전 움직임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양측의 공통된 생각이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휴전에 관한 암중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번째 휴전회담이 개최되었다. 유엔군 측은 “빠르면 2주, 늦어도 4주 정도면 협정조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회담은 첫날부터 정치 선전장으로 변모하였고, 공산군 측의 고의적인 지연전술로 의제채택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휴전협상은 159회의 본회담과 765회의 부수회담이 거듭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특히 군사분계선 설정과 포로송환 문제는 협상 타결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고, 급기야 회담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휴전협상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자, 양측은 휴전협상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전면공세는 자제하면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제한공격에 주력하였다. 유엔군 측은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난항에 빠질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산군 측에 휴전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군사작전을 실시하였다.

이에 반해 공산군 측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증강을 도모하는 한편 일부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는 등 군사력 과시를 통하여 휴전회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투에 임하였다. 이로써 휴전회담은 ‘일면 협상, 일면 전투’의 양상으로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양측은 회담결과에 따라 야기될 상황에 대비해 진지를 보강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는 등 전력증강에 주력하였다. 전력증강에 있어 공산군 측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이들은 회담기간 중 전선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탄약을 포함한 제반 전쟁 물자를 비축하고 전선 일대의 진지를 보강하는 등 병력 재정비를 강화해 차후작전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참전국 반발과 유럽지역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에 투입된 전력을 더 이상 증강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유엔군 측은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한 해군 및 공군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산군의 전력증강을 저지하고 후방시설을 파괴하는데 주력하였다.

한편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의 군사작전은 회담의 추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되었다.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이 스스로 회담장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강력한 화력과 공군력을 이용해 공산군에 대한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군사작전에 임하였다. 이때 유엔군의 주 작전지역인 와이오밍선(Wyoming Line)은 임진강 하구-화전저수지-간성을 잇는 캔사스선(Kansas Line)으로부터 10~20km 북쪽에 설치된 방어선으로 대략 현재의 휴전선과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최초의 와이오밍선은 캔사스선 방어를 위한 전초진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산군이 공세를 감행할 경우, 이 선에 배치된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의 공격을 지연시키며 후퇴하여 캔사스선에서 강력하게 방어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전개념은 대규모 공세에 맞선 방어책으로는 적절했으나, 당시 상황과 같은 제한적이고 소규모의 국지적인 전투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즉, 제한공격은 단일 고지군을 목표로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후퇴를 할 경우 유엔군은 패배의식만 팽배해질 뿐만 아니라 공산군에게 승리의 환상을 심어주게 되어 휴전협상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장군은 와이오밍선에 대한 방어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현재와 같이 공산측이 고의로 휴전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회담기간을 이용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재정비해 군사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의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와이오밍선의 방어진지를 캔사스선과 동일한 강도로 축성해 공산군의 제한공격을 와이오밍선에서 격퇴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작전은 와이오밍선 일대에서 고지군을 확보하기 위한 고지쟁탈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한편 회담을 고의로 지연시킨 공산군 측은 소강상태를 이용해 와해된 그들의 군사력을 정비한 다음 유엔군에게 압력을 가할 경우 한반도 자체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유엔군이 과감하게 양보를 거듭해 적당한 수준에서 휴전에 응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계산 하에 공산군은 회담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전력정비에 주력하였다. 공산군 측의 이런 의도를 간파한 미 제8군사령관은 공산군에게 전력을 정비할 여유를 주지 않고, 유리한 지형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과감한 공세를 감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이 서부지역에서 공세를 취할 경우 휴전회담장이 위치한 개성이 전장(戰場)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전쟁은 또다시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공산군 또한 서부전선에서 결전을 감행하게 되면 유엔군의 강력한 화력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산군은 서부지역을 주 전장으로 선정할 수 없었고, 상대적으로 방어가 취약한 중동부 산악지역에 전선을 집중하게 되었다.

고지쟁탈전은 당시 전황과 양측 작전기도에 따라 중동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주로 실시되었다. 동부전선 351고지·월비산, 중동부전선 편치불 지역·피의 능선·단장의 능선 그리고 중부전선 수도고지·지형능선, 저격능선, 백마고지 등이 대표적인 격전지였다. 이밖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고지에서 공방전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고지쟁탈전의 특징적인 현상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주로 국군이 방어를 담당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었다. 이러한 바탕에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거국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휴전반대 운동을 저지시키고 휴전제의를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전투력은 공산군에 비해 병력면에서는 여전히 열세였으나, 화력과 기동력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장이 해발 1,000m 이상의 험준한 산악지역에 집중되어 유엔군은 화력과 기동력의 우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차량보다는 지계와 같은 원시적인 장비가 운반수단으로 유리하였고, 야포보다는 박격포와 같은 야전용 무기가 더욱 효과적이었다.

고지 하나를 둘러싸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고지쟁탈전은 공격과 방어, 후퇴와 역습을 되풀이하면서 양측에게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손실을 안겨 주었다. 특히 인명손실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인해전술을 사용한 중공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였으며, 국군과 유엔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인해전술을 사용하는 중공군에 비해 국군과 유엔군은 필사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진적인 후퇴를 실시하고, 다시 준비된 포병으로 진지를 공격한 후 보병이 반격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지를 사이에 두고 공격과 방어, 후퇴와 반격이 되풀이된 고지쟁탈전은 공격자와 방어자, 승자와 패자를 가릴 것 없이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일레로 미 제8군은 휴전회담이 중단되었던 1951년 8월 중순부터 중동부전선의 편지불 및 피의 능선 지역에서 공산군의 강력한 저항에 고전하였다. 특히 피의 능선 전투에서는 4×5km 정도의 작은 고지를 탈취하는데 3주의 시간과 3,000여 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고, 포탄 41만 여 발을 소모하였다. 이에 반해 전과는 방어선을 약간 북상시키고 공산군 1만 5,000여 명을 추정 살상한 것이었다.

고지쟁탈전의 폐해를 실감한 미 제8군사령관은 고지쟁탈전을 지양하는 대신 원산 부근에서 상륙 및 공수작전을 실시해 공산군의 배후를 공격하는 동시에 지상군이 대규모 공세로 전환해 전선을 일거에 김화-금강산-장전선으로 밀어 올리는 '제압작전계획(Plan Overwhelming)'을 수립하였다. 이 작전은 전선에 투입된 중공군을 섬멸하고 평양-원산 선을 점령하는 대대적인 공격계획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인명과 물자의 손실이 심각한 고지쟁탈전을 회피하면서 공산군에게 치명타를 안겨주어 전선을 북상시키고, 전선의 굴곡을 일직선으로 정리하면서 공산군을 휴전회담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군에게 치명타를 안길 경우 오히려 휴전회담에 장애가 될 것이라 판단한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의 제한조치로 고지쟁탈전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유엔군사령관은 휴전협상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원활한 협상의 진전을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의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52년에도 양측은 전 전선에 걸쳐 대병력이 대치하고 있었으나, 서로 대규모의 전면공세를 취할 태세는 보이지 않았다. 휴전회담의 진행 결과를 주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상 결렬에 대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 결과 공산군은 병력

수, 화력, 공군력, 진지구축 등 모든 면에서 군사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양측은 상대방의 돌발적인 대규모 반응을 자극하지 않으며, 전면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전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찰 및 탐색전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요 고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탐색전 정도가 아닌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공산군 측 군사력이 대폭 강화된 1952년 하반기 이후 감제고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공산군이 중요 감제고지를 모두 확보한 후 전면공세를 감행할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으로부터 감제될 수 있는 고지군을 확보하고 전초기지를 보다 더 전방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1952년 6월초 미 제45사단이 철원 서쪽 포크찹(Porkchop) 고지 및 볼모(Old Baldy) 고지 상의 전초거점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이래 전초진지 쟁탈전은 모든 전선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전초진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방전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고지쟁탈전 양상은 화력 면에서는 유엔군이, 병력면에서는 공산군이 우위를 유지했으나 평지와 달리 고지에서는 병력, 화력, 기동력 등 물질적 전력의 우열로 승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백병전을 포함한 몇 차례 공방전과 소모전을 거친 후에 궁극적으로 고지를 확보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전투의지의 시험장이었다.

### 결과 및 영향

고지쟁탈전은 휴전협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양측은 군사적 승리보다는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공방전을 감행하였다. 고지 하나를 탈취하기 위해 무수한 인명이 희생되는 기형적인 고지쟁탈전이 전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전쟁에 지친 양측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하게 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한국전쟁사』 7~9 (1974~1975)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下(199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 (2005)
-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 중공군 개입과 새로운 전쟁』 제5권 (1992)

『손규석 집필』



## 반공 유격전

(기획)

[反共 遊擊戰, 1950. 6. ~1953. 7.]

### 개요

반공유격대 활동은 6·25전쟁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북한군이 점령한 강원도, 경기도 지역 등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격대를 결성하여 활동했다. 국군도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해 유격사령부, '명부대', '결사유격대' 등을 창설해 작전을 전개했고, 미국도 군 당국에서는 물론 중앙정보국(CIA)에서도 유격전을 수행하였다. 민간자생유격대와 국군유격대의 활동은 일시적이었지만, 미군 지원 아래 유격전은 규모만도 2만 명을 넘었고, 무기와 장비 등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다.

### 자생적 반공유격대

민간인 유격대원들은 징병제 혹은 용병제에 의해 조직 편성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일어나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죽음으로써 지키겠다는 자연발생적인 의병이나 구한말 일본의 침략 당시에 봉기한 의병의 활동과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으로 이를 방어하기 어렵게 되자, 민간인들은 '군번 없는 용사'가 되어 전투에 참가했다. 학도의용군이나 무기 수송을 했던 노무자, 현지입대 등으로 국군을 지원하는 경우와 달리, 적 후방에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한 경우도 많았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 이루어진 빠른 남진 속도에 남한 지역 주민들은 북한군이나 좌익세력들에게 대항하기 어려웠다. 북한군은 이미 1950년 8월초에 낙동강 선에 도착했다. 그렇지만 북한군이 남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모두 피난을 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자원해 국군에 입대하거나 반공유격대를 결성해 곳곳에서 항전을 벌였다. 반공유격대에 가담한 이들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거나 청년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반공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군정이나 공무원 가족 등이 주동이 된 경우가 많았다. 유격대원들은 국군 전투복, 인민군복, 민간복 등 다양한 복장을 하고, 무기도 국군이나 경찰이 남기고 갔거나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카빈, 파발총, 소련제 소총 등으로 무장했다. 주요 활동은 선전 전단 제작 및 살포, 북한으로 끌려가는 반공인사 구출, 야간에 이동하는 적의 차량 기습이나 내무서 습격 등이었다.

북한군 점령 시기 주민들의 무장투쟁은 1950년 7월 20일 이후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서 그 지역 방위를 위해 학도병, 의용경찰대, 청년방위대 등이 합세하여 격전을 벌인 것

과 같은 형태가 많다. 유격대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소수 인원이 일시적으로 활동한 경우도 많았다.

민간유격대가 활발한 곳은 지역별로는 38도선과 근접한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로, 이곳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북한군의 잦은 도발을 겪었기 때문에 국군이 후퇴한 후에도 북한 치하에서 반공투쟁 활동을 계속한 경우가 많았다. 유격대 가운데 규모가 있는 경우는 강원 춘성군 ‘화무결사대(花武決死隊)’, 인제군 남면 수산리 결사대, 경기도 강화군 대한정의단과 강화특공대, 고양군과 파주군의 태극단, 가평군 ‘임산 의혈대,’ ‘초옥동 결사대’, ‘반공 산악공작대’, 전라북도 진안결사대, 전라남도 완도 청산리결사대 등이 활동했다. 북한 지역에서 개마고원유격대, 함경남도 고원지역 청년유격대, 함경북도 경성군 주을 반공유격대 등이 활동했다. 국군이 후퇴할 때와 중공군의 개입으로 재차 후퇴할 때, 북한 지역에서 반공활동은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시기 여러 투쟁에 비해 크게 제한적인 수밖에 없지만 어려운 때인 만큼 더욱 의미가 있다.

### 국군유격대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낙동강에서 방어전을 치르고 있을 때, 정일권 육·해·공군 총사령관은 유격대를 편성해 적 후방에 침투시켜 동부전선의 포항 지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1950년 8월 초순 강문봉 육군본부 작전국장은 작전계장으로 있던 방원철 소령에게 예비 병력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편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편성된 부대는 서해에서 인천상륙작전을 기만하기 위해 동해안의 영덕에서 상륙작전을 수행한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이다.

이승만 대통령도 미군으로부터 무기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었지만 유격대를 활용하려는 구상이 있었다. 그는 1950년 7월 16일 맥아더 미 극동군사령관에게 군대 경험에 있는 사람을 의용군으로 모으거나 유격대원을 무장시키는 데에도 무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게릴라부대가 아군 후방 특히 미군 지역을 교란시켜 타격을 주었듯이 경험 있는 유격대원들을 적 후방으로 침투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에도 리지웨이 사령관에게 중공군의 전술에 맞서 “우리도 게릴라가 될 수 있다”라며 유격전을 활용하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격대는 육군본부, 일선 부대, 낙오 장병 등에 의해 편성되었다. 첫째, 육군본부는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후퇴하는 정규군의 병력을 정비 및 재편하면서 유격대를 편성했다. 이는 북한 측의 활발한 게릴라 활동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육본 직할 유격대로는 유격사령부,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 을지병단, 결사



유격대, 제9172부대 등이 있다. 부대 창설 주체로 살펴보면 유격사령부, 을지병단, 제9172부대 등은 육본 작전국에서 추진했고, 결사유격대는 육본 정보국에서 주도했다. 그 후 1951년 3월 30일 육본 정보국장 통제에서 육군 유격군 부대에 관한 업무를 작전교 육국으로 이관했다.

유격대의 창설은 전세가 매우 어려웠던 북한군 남진 시기와 중공군 개입 이후 38도선 이남으로 재차 후퇴했을 때 주로 편성되었으나, 특수부대로 발전한 제9172부대는 1952년 여름에 이루어졌다. 또한 유격대들은 모두 단기간 작전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적 후방에서 조직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유격전을 전개하지 않았다.

둘째, 일선 부대에서도 편성했다. 제1사단 제15연대에서 정규군 병력 가운데 차출해 유격중대를 운용한 경우 외에, 일부 일선 부대에서는 비정규 병력을 모집해 유격대를 편성했다. 제1사단이 조직한 제5816유격부대, 제2사단 독수리유격대, 제8사단 유격대 등이 있었고, 해군에서 편성한 부대도 있었다.

셋째, 낙오병 가운데 일부가 후방 지역에서 유격대를 편성해 포로가 된 아군 구출, 북한군 자동차 기습 등 일시적 활동한 경우도 있다. 서울 동부지역 태릉 방면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던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가 다른 부대들이 철수한 후에도 1950년 6월 28일 불암산에서 유격대를 결성하였다. 같은 해 7월 15일 헌병사령부 범죄정보계 문관 김관철은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양원리에서 지역 주민들과 낙오된 병사들과 함께 '의혈단유격대'를 결성했다.

주요 유격대 활동으로 결사유격대는 1951년 1월말부터 4월초까지 60여 일간, 강원도 영월·평창·양양·인제 등지의 적 후방에서 지휘소 습격, 보급로 파괴, 귀순 공작 등을 전개하였다. 육군 제1사단에서 운용한 제5816부대는 황해도 연백군, 경기도 개성시와 개풍군 일대에서 선무공작을 비롯해 피난민을 구출하고 적진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 미군 통제 반공유격대

#### 배경

전쟁 발발 후, 미군은 북한군에 의해 밀리는 유엔군에 대한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 비정규전 부대의 편성을 계획하였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얀마와 필리핀, 유럽 지역에서와 같은 비정규전을 수행하려 했다. 그러나 전쟁 초기 북한에서 피난 나온 한국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유격 대원으로 싸울 것을 두려워해 계획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에서는 한국인 게릴라부대 편성 계획을 중단하고 낙동강 전선의 포항 지역 후방에 침투하여 적정을 확인할 수 있는 특공대를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렇지만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진할 때는 유격대의 창설이나 게릴라 작전을 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후, 남한 지역에서 낙오된 북한군과 무장한 좌익 세력의 규모는 1950년 10월~12말경, 3만 2천~3만 5천 명으로, 지리산에 1만 명 정도의 규모를 비롯 해 단양, 대전, 삼척 등지에서 교란 활동을 했다. 이러한 북한측의 활발한 게릴라 활동으로, 미군은 그들의 게릴라 작전 방식을 주의 깊게 연구하여 이들을 진압하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유격 투쟁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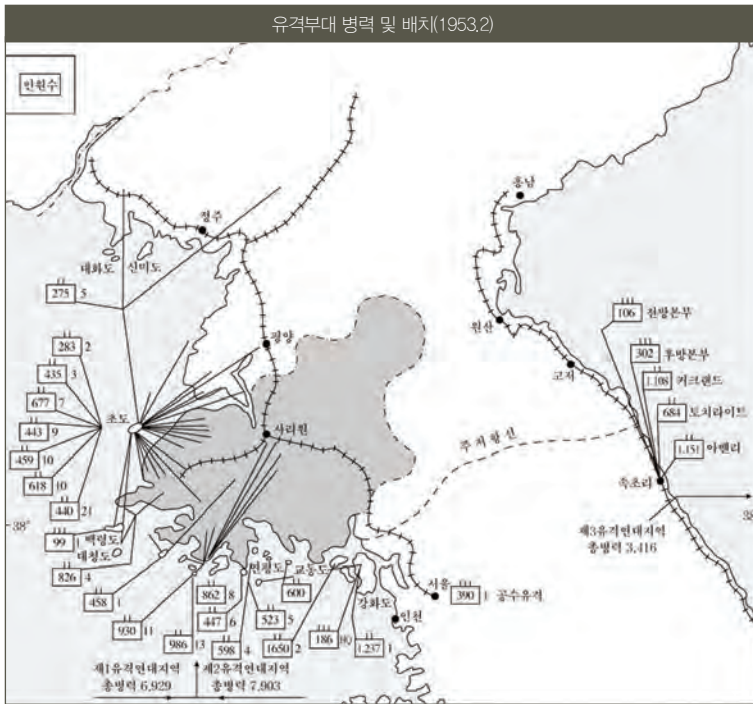
중공군의 개입 이후, 전세는 아군에 다시 불리해졌다. 1950년 말에는 계속 밀리다가 북위 37도선에서 전선이 안정되자, 유엔군은 다소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 무렵 미 제8군 작전참모부는 후방 작전에서 북한 출신을 활용할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었다. 미군이 유격부대를 운용하려는 목적은 양측이 교착 중인 38도선에서 소규모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군과 중공군을 분산시켜 유엔군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었다.

미군 당국이 유격대 활동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국 해군이 서해안 도서에서 공산군에 대항하는 유격대 활동을 알리고, 탄약 지원을 요청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1951년 1월 8일, 한국 해군 95.7 기동전대장이 해주와 사리원 등 황해도 서쪽으로 후퇴해 온 약 1만 명의 의용군 중 일제 99식과 38식 소총, 소련제 소총, 약간의 카빈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일제와 소련제 무기의 탄약 보급이 가능한지를 미 제8군사령관에게 요청했다. 또한, 미군은 동부지역에도 원산과 전선 사이에 소규모의 유격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부터 미 극동군사령부는 미 제8군으로 하여금 반공유격대에 관심을 갖고 게릴라부대를 편성해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반공의용군이 공산군과 싸울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충분한 보급품을 지급하고 잘 조직하여 적절히 운용만 한다면 공산군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당시 동·서해안에는 해군 제61함, 301·302·506·518정 등과 미군 구축함 등 유엔함대 CTE 9512, TE 9571 등이 제해권을 장악하여 해안을 경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격대에 대한 함포와 함재기 지원이 가능했고, 더욱이 유엔 공군의 지원도 가능했다. 또한, 해군 소속 해병대 병력이 백령도, 교동도, 원산 영흥만 여도, 신도 등 주요 도서에 병력을 주둔해 근거지를 마련했던 점도 안정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유격전을 펼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 부대 편성

1951년 2월 중순경, 미 제8군은 작전참모부 예하 지구전과(持久戰課) 책임 아래 첩보



수집, 침투계획, 대원 모집, 훈련, 지원 등을 수행할 작전기지사령부로 백령도에 윌리엄 에이블(William Able)기지와 부산 근교에 공수훈련 및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베이커기지(Baker Section)를 창설하였다.

1951년 3월 윌리엄 에이블기지가 레오파드(Leopard)기지로 바뀌면서, 유격부대는 건제순으로 숫자를 부여하여 '동키부대'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레오파드기지가 담당할 작전지역은 북쪽으로 평안북도 연안 도서인 신미도와 대화도로부터, 남으로는 웅진군 홍미반도의 등산곶까지였다. 그후 서해안에서 '울팩부대'가 추가로 창설되었다.

1951년 4월 미 제8군 작전참모부 지구전과에서는 서해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유격 작전과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 동해안 지역에도 유격부대를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군 지휘 아래 있던 동해안지역 유격부대인 육군 을지 제1병단의 작전통제권을 인수하여 주문진에서 커크랜드(Kirkland) 부대를 창설하였다. 이 무렵 부대명도 미 극동군 사령부 연락과전대(FEC/LD)에서 제8240부대로 바뀌었고 나중에 주한 유엔군 유격부대(UNPIK)로 개편되었다.

1951년 중반 이후 서해안 지역의 유격대가 계속 증가되자, 이 지역의 유격작전 지역

을 2개의 독립 지역 사령부로 분할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웅진반도 등산곶을 기점으로 레오파드기지사령부는 웅진반도의 서부 및 서북부지역의 유격대를, 울팩(Wolfpack)기지사령부는 웅진반도의 동쪽과 남쪽으로 한강 어귀와 인천 앞 바다의 모든 도서를 포함했다. 백령도 레오파드기지사령부는 산하에 20개에 이르는 부대를 두었고, 울팩 작전기지는 산하에 8개 부대가 있었다.

유격대원의 기본 구성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북한 지역에서 피난을 나온 반공청년 6,000~10,000여 명이었으나, 현지 주민을 포함해서 남한 출신들도 상당수 모집되었다. 동키부대의 경우는 북한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나, 울팩부대와 동해안부대 등은 남한출신도 많았다.

유격대원들의 규모는 1951년 7월경, 5,000~6,000명이었고, 1951년 12월경에는 레오파드기지 3,650명, 울팩기지 4,400명, 커크랜드기지 290명 등 8,340명이었다. 1952년 9월 하순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유격대의 작전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병력을 1953년 3월까지 2만 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7월까지 4만 명으로 배가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1953년 5월 유격대의 병력이 22,227명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격대의 증강계획은 휴전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무모한 것이어서 결국 1953년 봄에 중단되었다.



#### 작전 목표와 활동 형태

유격대가 창설되었던 1951년 초기, 작전목표는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적 후방에 대한 전술적 차단과 교란 작전을 실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병력을 주 전선에서 유격대 토벌임무로 전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1951년 12월까지 적 교란 위주로 다음과 같은 작전활동을 전개했다. ① 적 부대 공격, ② 병커, 참호, 포상, 지휘소, 기타 유사표적 공격, ③ 수송 수단 및 시설 공격, ④ 식량 및 탄약저장소, 창고 등 저장 시설 공격, ⑤ 내무서, 분주소, 공산당 시설 등 행정시설 공격, ⑥ 첩보활동, ⑦ 심리전용 물자 살포 등이다.

1951년 6월 중순 캔자스선~와이오밍선에 도달한 후, 마침 시작된 휴전협상과 맞물려 미국 전략은 기본적으로 휴전협상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이 선의 이복에 대한 유엔군의 전면적인 진출을 금지함으로써 유엔군의 북진한계가 명확해졌다. 협상이 교착되어 진전이 없을 때는 화전양면정책을 써서 지상, 공중, 해상작전을 시행해 주요 고지 확보를 위한 전투, 공군에 의한 북폭 강화, 도서 해안의 상륙작전 계획 등을 계획하거나 수행했다.

따라서 휴전협상이 시작된 후 대규모 공세 작전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실현될 가능성은 없었다. 그러나 1951년 12월 10일 유격부대 작전통제권이 제8240부대로 전환되었다. 미 극동군사령부에서는 전체적인 전략 목표 아래 작전을 구상하였기 때문에 전선에 상륙하는 것보다,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하여 장기적인 결과 도출과 첩보수집을 강조했다. 그러나 극동군사령부는 유격전의 목표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전과 같이 적을 교란시키는 작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격부대는 전반적인 계획이 없이 개략적으로 근거리 침투에 의한 소규모 습격전 위주의 작전을 전개했다. 이 때문에 게릴라전이 사실상 소모적인 경비병 작전이 계속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점은 1951년 7월 이후, 휴전이 모색되면서 유격대원들도 유격대의 작전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북한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고향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줄어들자, 그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이탈자가 발생했다.

유격대의 구체적인 작전 활동 형태는 적 부대 공격 49.3%, 차량과 수송 시설 파괴 13.1%, 첩보 활동 10.1%, 일반행정 시설 파괴 7.9%, 보급품 저장소 공격 5.1%, 함포사격 유도 4.3% 등이다. 그 외에 심리전을 실시했다. 그러므로 작전이 게릴라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송수단이나 보급품 창고 파괴 등에 대한 공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에, 적 부대 공격 비중이 높아서 사실상 경비병 전투 성격이 강했다.

유격전이 소규모 전투를 의미하듯이, 전투 활동이 대부분 소규모로 수행되었다. 1952년 5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보고서에서 1~10명 이하 39.3%, 11~25명 32.4%, 26~50명 21.1%, 51~100명 4.7%, 100명 이상 2.5% 등으로 25명 이하가 70%를 넘었다. 유격대 지도자들은 해군 포격 지원을 선호해 간혹 직접 지원사격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격부대 사이에서 협동 작전도 전개되었다.

## 전과

유격대는 전쟁 중 정규군이 아니었지만, 공산주의자들과 투쟁하면서 수 많은 전우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면서 때로는 실패를 했지만,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51년 5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유격대는 4,445회의 작전을 보고했다. 월 평균 작전 횟수는 1951년 101회였으나, 1952년 1월부터 1953년 4월까지 221회로 늘어났다가, 정전이 다가옴에 따라 161회로 감소하는 수세적 시기였다. 1951년 7월 휴전협상이후에도 유격전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월별 작전 활동에서 여름과 가을 시기에 활발했다. 이 시기에는 보리와 쌀 등의 현물

세 징수, 수송, 창고에 대한 공격이 많았던 점이 특징이다. 1952년 6월 10일, 동키 제4부대는 보리 1,500가마, 쌀 500가마 불태웠다. 1952년 10월 8일, 동키 제3부대 대원 16명이 현물세 징수 장소를 습격하여 8명을 사살하고, 25,000파운드의 벼를 불태웠다. 봄부터 다시 활발한 작전을 전개하여, 작전을 용이하게 해 준 자연적인 엄호가 가능한 여름 동안 공격이 활발하였다.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 초까지 혹독한 겨울 한파 때문에 작전 활동이 축소되었다. 겨울 동안, 소규모 매복작전과 첩보수집 활동을 주로 했다. 각 사령부에서는 유격대에게 보급품은 제공되었지만, 전과가 없기 때문에 조바심이 났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의 지원을 받아 작전을 수행해 성과를 얻었다. 1953년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과를 보면, 유격대는 해군과 공군의 지원으로 적군 5,450명을 사살하고, 1,430명을 부상시켰다. 유격대원은 110명이 전사하고, 152명이 부상을 입었다.

유격대의 활동으로 적에게 입힌 인명 손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1년 3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유격대는 6만 9,094명을 살상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전과에는 유격대가 요청한 항공폭격과 함포사격에 의한 전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951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09명의 손실을 입혔고, 1951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살 9,095명, 부상 4,809명 등이었고, 1951년 12월부터 1953년 3월까지 사살 3만 8,469명, 부상 9,602명이었다.

전과 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살자의 규모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1951년 12월부터 1953년 3월까지 미 제8군의 전과 통계에서는 사살자와 부상자의 비율이 1.3:1에 그쳤던 점에 비추어, 유격전이 기습적인 근접전투로 인한 사살자 비율이 높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과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요소도 되었다.

1951년 5월부터 11월까지 포로의 수는 385명에 이르러 매월 평균 55명에 이르렀고, 1952년 1월부터 1953년 3월까지 총 552명으로 월 평균 35명이었다. 이 통계에는 귀순자는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축과 식량도 많이 노획했다. 특히, 농우의 노획이 두드러진다. 1952년 6월부터 1953년 3월까지 597두의 소를 노획했다. 이러한 약탈 행위로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심리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당시 유격대에서는 ‘인민군의 트럭을 먹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 왜냐하면, 북한군들은 기동력이 없어서 소달구지로 탄약, 식량 등을 군수물자를 수송하는데 이용되는 소를 노획하거나 없애는 것은 그들의 주요한 수송수단을 파괴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피난민과 추락한 미군 공군 조종사 구출도 중요한 성과였다. 1952년 6월 8일, 동키부대에서 추락한 미군 조종사 1명을 구출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울팩부대에서 미 공군 조종사 1명과 한국인 1명 구출했다. 많은 피난민을 구출했다. 대원들이 작전을 나가면 탈출을 원하는 현지 주민들은 해안가로 몰려왔다. 예를 들면, 1951년 9월 무장대원들이 들어온다는 연락이 며칠 전에 전해지자, 무장대원 가족 20세대가 그들을 따라서 함께 초도로 나왔다.

백령도 레오파드기지사령관인 다이 소령은 유격대의 활동으로 중공군 1개 군단이 해안선 경비를 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패트리지(Earle E. Partridge) 미 제5공군 사령관은 유격부대의 활동으로 전선의 북한군 2개 군단 병력을 묶어 놓은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격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유격대활동으로 인해 공산측이 약 2만 명~5만 명의 병력을 증강 배치한 것으로 평가했다.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도 북한 연안의 섬에서 활동했던 유격대의 역할을 인식했다. 대원들도 최소한 1개 야전군을 견제한 것으로 여겼다.

미군의 평가에 따르면, 유격대가 보고한 사상자 수는 실제보다 3~10배 차이가 될 것 이어서, 이를 환산하면 실제로는 7,000명으로부터 2만 3,000명의 범위로 추산했다. 이러한 성과만으로도 유격대의 역할은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전과가 크게 과장된 점을 가감한다 해도 유격대를 지휘하는 미군들이 유격대 활동 경험 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지 않는 유격대가 적들에게 1만 명 정도를 살상케 하고, 2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배치케 했던 것은 커다란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유격대는 적군으로 하여금 군사적·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을 지키기 위해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 결과 및 영향

자생적 유격대를 비롯해 국군 및 미군이 운용한 반공유격대의 활동은 적 후방에서 첩보수집과 교란을 통해, 공산군의 동·서해안 진출을 저지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주전선의 전력을 해안선 일대로 분산시켜 그들의 활동을 제약했다. 특히 미 제8240유격부대는 강화도로부터 대화도까지 서해 5도를 고수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일시적으로 활동했던 자생적 민간유격대와 국군통제 유격대와는 달리 미 제8240유격대는 2년이 넘는 활동 기간에 1만 명 이상을 살상시켰고, 군수물자 집적소·철도·교량 등을 파괴했으며, 피난민과 유엔군 비행사를 구출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인하여 북한군과 중공군은 2개 사단 규모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게 했던 것은 커다란 성과이다. 북한군과 중공군을 분산하는 역할만으로도 유격대의 역할은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중 동키 제3부대 최동하 부대장, 제7부대 박철성 부대장을 비롯해 3,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 참고문헌

육본 군사연구실 편, 『한국에서의 유엔군 유격전』 (1988).  
 조성훈, 『6.25전쟁의 유격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3).  
 Partisan Command, FECLD(K), "Monthly Report" Feb. 1, 1953, "Command Report", Jan. 1953(군사편찬연구소, SN 1964).  
 "BG(R), Muggelberg's Interview" Nov. 15, 1985, USAWC/USAMHI, Senior Officer Oral History Program, 군사편찬연구소, SN 1958.

[조성훈 집필]

## 군사분계선 설정 (기획)

[軍事分界線 設定]

### 개요

휴전협상에서 공산군 측의 38도선안과 유엔군의 당시 접촉선 주장이 서로 대립되다가, 1951년 11월 27일 양측은 대치선을 분계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잠정 합의하였다. 이후 계속된 고지쟁탈전의 전황이 반영된 정전협정에는 양측의 경계선으로 지상으로는 임진강 북쪽 연안의 표지 번호 0001부터 500m 간격으로 동해안 쪽으로 강원도 고성외의 1292호까지 총길이 248km이나 해상분계선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협상 과정

휴전회담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쌍방이 벌인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논쟁은 정전선을 어디에 설정하느냐는 것이었다. 공산군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군사분계선으로 38도선을 내세웠지만, 유엔군은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것을 거부하고 당시 전선으로 해야 한다고 대립하였다.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협상 의제에 합의한 후, 1951년 7월 26일부터 제2항인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의 설정에 대해 토의했으나, 유엔군의 현 전선 정전안과 공산군 측의 38도선 정전안의 대립으로 회담은 고착 상태에 빠졌다. 이 고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유엔군은 제2항의 토의를 유보하고 제3항인 휴전 감시 및 기능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공산군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양측은 군사분계선 문제를 합동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임하기로 했다. 합동분과위원회에서도 유엔군이 현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다. 반면에 공산군 측은 유엔군이 현 접촉선을 포기하고 38도선을 수락한다면 서부전선의 연백평야와 웅진반도를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중동부 지역과 교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38도선을 고집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휴전 반대 속에 38도선 안에 적극 반대했다. 6·25전쟁으로 이미 없어진 38도선을 부활시켜 분할선을 그대로 두려는 것은 공산당을 도와서 재차 전 한반도를 점령하려는 야망을 달성하게 하도록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8월 6일 군산에서 열리고 있는 ‘정전 반대 총궐기대회’에서 38도선은 영영 없어야 하며 압록강 이남에 선을 그어 우리 국토를 분리하는 어떠한 결정도 절대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군사분계선으로 38도선을 반대하는 이유는 침략 전 상황으로 복귀하는 것에 그칠 뿐이어서 정치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 컸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이 포함된 16개 국가들에 대항하여 군사적 성과 이상의 것들을 얻어 냈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공산 측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1951년 8월 25일 휴전 회담장을 떠나 버렸다. 이에 유엔군 측은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압력을 통해 그들을 회담장으로 복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한된 범위의 공격작전을 단행하였다. 10월 말까지 계속된 이 공격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당시의 대치선에서 평균 10km를 전진하여, 서부전선에서는 판문점-역곡천까지, 중부전선에서는 금성 남방까지, 동부전선에서는 고성 남쪽까지 각각 전선을 밀어 올렸다. 이때 10km의 중심지대 내에서 밀도 높은 전투가 전개됨으로써 쌍방 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특히 해안분지(편치불) 부근의 전투에서는 쌍방 간의 피해가 컸다.

이러한 현상은 쌍방 간의 방어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어진지가 견고하게 구축되고 전투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진지전 형태의 격전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공산군측은 이와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전선에서 일부 물러서게 되자, 1951년 10월 25일 휴전협상을 재개하여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월 30일까지 양측 대표는 군사분계선과 개성 문제로 논란을 계속하다가 11월 7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2km, 즉 폭 4km의 비무장지대 설치에 대해 합의를 보게 됐다. 이어서 17일 정전선 위치에 관해 공산 측은 정전선이 교섭 중의 전투선을 따라 변경되는 점에 동의했다. 26일에는 피아 접촉선 획정에 합의를 보게 되어 이튿날 만 5개월 동안 논의됐던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설정에 대해 유엔군이 제안한 잠정적 군사분계

선 설정에 합의하게 됐다. 30일 이내에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쌍방은 11월 27일 당시의 접촉선(임진강 하구-판문점-상명리-금성-송정-가마우골-신대리-남강)을 잇는 선을 임시 휴전선으로 책정하였다.

임시 휴전선의 설정으로 전선은 다시 소강 상태가 유지되었고, 곧 전쟁이 종식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쌍방이 30일 이내에 합의하기로 한 임시 휴전선은 1951년 12월 말을 기해 백지화되고 말았다.

### 비무장지대 설정

1951년 7월 26일 휴전협상에서 쌍방은 전투행위를 정지하는 기본 조건 아래 양군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자는 의제에 합의했다. 완충지대로 공산 측이 10km를 제안했고, 유엔 3인위원회와 미 합참은 20mile(약 32km)의 설정을 구상했다.

1951년 7월 10일 회의에서 남일 공산 측 수석대표는 38도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하고 쌍방의 무장부대는 동시에 38도선에서 10km를 철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7월 초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전신(電信) 협상을 통해 스탈린의 의견을 물었을 때, 스탈린은 휴전회담에서 “38도선 남북 10km를 비무장지대로 삼는다”라는 방침에 동의했다.

같은 해 7월 29일 남일은 “쌍방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각각 38도선으로부터 10km를 철거하여 비무장지대를 건립하자”라는 제안이 “조선 전장의 군사 실세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쌍방에 대하여 모두 공평합리하며, 동시에 조선 문제를 화평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리하므로 이번 정전 담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이(Turner Joy) 유엔군 수석대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접촉선(Line of Contact)을 분계선으로 제시하면서 남북 각각 24mile(약 38.6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1951년 10월 25일 재개된 협상에서 비무장지대의 폭을 4km로 할 것을 공산 측에 제안했다.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휴전 협상을 위한 중립지대의 침범 논란을 의식해서 중립지대를 가급적 줄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1951년 10월 26일 이상조 북한군 소장은 양측이 각각 5km를 철수하여 이 지대를 적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의 비무장지대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조는 31일 양측이 당시 전선으로부터 완충 지대로 2km씩 철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공산 측이 그동안 주장 했던 38도선으로부터 당시 접촉선으로 수정하면서 완충 지대의 폭을 줄인 것이다.

1951년 11월 5일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대표는 비무장 지대는 약 4km 폭으로 할 것, 정전경계선 및 비무장 지대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하여 쌍방으로부터 각각 3명의 장교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결국 11월 27일 양측은 대치선을 분계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면서, 각각 2km씩 후퇴할 것을 규정했다. 비무장지대는 양측의 완충지대 혹은 중립지대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

### 고지쟁탈전과 군사분계선

1951년 11월 27일 합의된 접촉선을 기준으로 한 분계선은 쌍방이 30일 이내에 정전에 합의하면 전선의 변화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분계선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정전협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접촉선이라는 조건에 맞게,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 합의 직전의 것으로 재조정되어야 했다.

1개월간의 잠정적인 휴전 기간이 끝나 가는 1951년 12월말이 되어서도 회담의 진척은 지지부진해서 잠정 합의는 서명되지 않아 또 다시 군사력으로 승부를 가려야만 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가 협상이 파국에 빠지는 것만은 원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의 사용은 접촉선 일대의 극히 제한된 목표에 한정되고 있었다.

1951년도 12월부터 1952년 1월 사이에는 양구 북방 백석산 정면의 크리스마스 고지 일대에서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어서 1952년의 중반에 접어들었으나, 휴전 협상은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비교적 쉽게 타결될 것으로 판단하였던 제4항 포로 관련 협상에서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었다.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비교적 전선이 안정된 서부와 동부지역보다는 불모고지(△266)-포크참고지(△255)-화살머리고지(△281)-백마고지(△395)-저격능선-지형능선-수도고지(△633) 등 중부전선에서 유리한 지형 확보를 위한 고지쟁탈전이 계속되었다. 이후에도 휴전 직전 중동부전선의 금성돌출부에 대한 공세까지 국지전 형태의 고지쟁탈전을 전개했다.

정전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쌍방의 실제 접촉선이 변화가 있었으므로, 협정체결 직전에 다시 군사분계선 확정에 대해 논의했다. 1953년 6월 10일 이후 쌍방 대표단 회의가 휴회됐고, 쌍방 참모들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확정하는 문제와 정전협정에 관한 마지막 문구 수정을 진행했다. 휴전회담 쌍방 참모들의 회의를 거쳐 16일 군사분계선 재확정 업무가 완료된 후 이튿날 쌍방 대표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9일 유엔군사령부는 서해5도 이북주민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 24일에 가서야 비로소 획정되었다.

## 해상분계선

6·25전쟁 이전에도 38도선 이남인 서해 5도와 그 주변 수역은 남한 관할권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쌍방 간의 견해 차이로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 같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협정 체결 당시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반대 때문이었다. 1952년 1월 말 집중적으로 전개된 연해 수역(coastal waters)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엔군 측은 당시 국제적 영해 관행에 따라 3해리를 주장했으나, 유엔군 측에 의한 해상 봉쇄를 우려한 공산군 측은 12해리를 주장했다.

유엔군 측은 해상 봉쇄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정전협정 제15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산군 측은 그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관련 조항의 전면삭제를 요구했다. 당시 유엔군 측의 해군력이 우세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정전을 위해 당시 아군 유격대와 해병대 등이 장악하고 있던 서해 5도 이북에 있는 섬에서 철수하는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영해의 범위에 대해 양측은 ‘합의하지 않은 데’ 합의했다.

결국 해상경계선에 관한 규정이 정전협정(제2조 13항 ㄴ목)에 포함되지 못한 채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 부속 문서에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는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끝점(임진강 하구 교동도 인근)’까지만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군사분계선에 대한 언급없이 서해 5도의 유엔 관할만을 확인함으로써 정전 후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유엔군 측은 남북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방위수역이 철폐된 후 3일만에 북방한계선(NNL: 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했다. 해상분계선이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1953년 8월 30일 클라크(Mark W. Clark) 유엔군사령관은 남북한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이 선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한 이래,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 결과 및 영향

휴전협상에서 군사분계선의 설정이 당시 접촉선으로 타결된 것은 지상에서는 쌍방의 군사적 역량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군사분계선은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다.

정전 후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로 군사분계선 일대는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사실상

무장화 되어 남북한 사이에 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이 지난 반세기 이상 남북한 사이의 경계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특히 서해상에서 북한 측이 정전협정에서 해상분계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경계선이 불분명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경계선이 분명한 지상분계선 일대에서도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휴전사』(1989).  
 조성훈, 『군사분계선과 남북한 갈등』(군사편찬연구소, 2011).

**【조성훈 집필】**

**포로교환 협상** (기획)  
 [捕虜交換 協商, 1951. 12. ~ 1953. 6.]

**개요**

6·25전쟁 시기 포로 협상은 1951년 12월 논의가 시작되어 1953년 6월 포로협정 체결 시까지 거의 20개월이나 걸린 오랜 논쟁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의 존재와 송환 협상 지연, 북한군의 국군포로 편입과 미 귀환 국군포로 발생, 수용소에서 포로들 사이 및 포로와 수용소 당국과의 갈등 등이 일어났다.

**포로 규모와 명단 교부**

북한군이 전쟁 초기에 국군 포로를 많이 획득하였던 반면에,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그들보다 더 많은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를 붙잡았다. 유엔군 수용소 아래 공산포로는 17만 명이 넘었고, 국군 및 유엔군포로는 10만 명에 이르렀다.

포로 문제는 종전 후 전원 송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 속에 일어났던 6·25전쟁에서는 가장 복잡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전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포로 문제를 통해 각각의 이념적 우세를 실현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로 문제는 휴전협상에서 양측이 가장 첨예한 대결을 보였다.

국군과 유엔군 포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유엔군 측은 1951년 11월 27일 포로명단 교부 이전에 포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관련 자료 요구와 국제적십자사

의 수용소 방문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포로 전원송환이 핵심 문제라면서 유엔군 측에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포로명단 교부에 동의하였으나, 국제적십자사의 포로수용소 방문요구가 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식 거부하였다.

유엔군과 공산군 측은 1951년 12월 4일을 기준으로 포로 명단을 교부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18일 포로교환 명단을 교부했다. 그런데 유엔군 측이 제시한 공산포로의 수는 13만 2,474명(북한인 9만 5,531명, 중국인 2만 700명 및 남한출신 1만 6,243명)이었는데 비하여, 그들이 통보한 국군과 유엔군포로의 수는 1만 1,599명(국군 7,142명, 유엔군 4,417명)에 불과하였다.

#### 〈공산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아군포로 규모(1951.12)〉

(단위: 명)

계	국군	미군	영국군	터키	필리핀	프랑스	호주	남아공	기타
11,559	7,142	3,198	919	234	40	10	6	4	6

이 가운데 국군포로는 단지 7,142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공산 측이 일부 발표한 포로의 수와 크게 차이가 있었다. 1951년 6월 북한군 총사령부에서 발표한 국군 및 유엔군 포로의 수는 10만 8,257명이었다.

미 육군부에서는 전쟁 이후 1951년 9월 중순까지 유엔군 실종자는 미군 10만 681명, 기타 유엔군 1,415명, 한국군 6만 5,262명 등 모두 7만 7,358명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휴전협상에서 포로명단 교환 시,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최소한 국군포로 6만 명과 유엔군포로 1만 명 등 총 7만 명을 기대했다.

#### 협상 경과

유엔군 측은 공산 측이 언론에 공표한 국군포로의 수와 실종자 규모를 근거로 '5만 명'의 국군포로가 사라진 것으로 주장했다. 5만 명의 근거는 북한이 발표한 전쟁 발발 후 9개월간 포로 규모 6만 5,000명에서 1951년 12월 그들이 교환한 아군 포로 명단 1만 1,000여 명을 제외한 대략적인 수치이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이 제시한 한국군 포로 명단의 수는 첫 9개월간 붙잡았다고 인정한 6만 5,368명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추궁하였다. 또한 포로 명단 교부 당시 한국군의 8만 8,000명과 유엔군의 1만 1,500명으로 총 9만 9,500명에 이

르는 실종자를 제시하여 반박하면서, 북한군과 중공군포로의 실종자와 대비한 약 6만 2,0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6만 2,000명 가운데 공산측이 제시한 포로 명단의 수인 약 1만 2,000명을 뺀 나머지 5만 명 이상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공산측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포로 누락 문제’에 대해 주장한다면, 유엔측이 ‘실종’ 인원을 전부 포로로 계산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오히려 유엔측이 제출한 포로 명단은 본래 국제적십자사에 보낸 17만 6,733명(1951년 6월 8일 현재) 가운데에 4만 4,000여 명이 누락되었다고 상세한 명단을 요구했다.

그후에도 유엔측은 포로문제 소위원회에서 공산측이 포로명단 이외에 아군포로의 존재에 대한 부인을 거듭 항의하였다. 아군포로에게 정치적 교육을 통해서 강제로 북한군에 편입한 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그중 일부를 중국으로 이송시킨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였다. 1953년 5월 28일 한국군 휴전협상 대표인 최덕신 장군은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유엔측 수석대표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적군은 제네바협정을 비인도적으로 위반하여 5만 명의 한국인을 임의로 처리하여 그중 대부분을 북한군에 편입시켰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유엔측의 비판을 받은 공산측은 한때 그들이 획득한 국군포로와 유엔군포로 5만 명을 전선에서 석방했다고 변명했다. 또한 유엔측이 국제적십자사에 통보한 인원 중 제외된 남한 출신 의용군포로 4만 4,000여 명을 문제 삼았고, 전쟁 중 월남한 50만 명 이상의 북한인이 강제로 붙잡혀 있으므로 그들의 송환을 주장할 수 있지만, 포로를 볼모로 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

당시 중국 정부의 외교부차관이었던 리커농(李克農)은 마오쩌둥(毛澤東)에게 4만 4,000여 명으로 상대방의 5만여 명의 포로문제를 계속 대항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고하여 그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므로 중국 측도 이러한 대응이 매우 유효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송환원칙의 대립과 협상 지연

포로 문제만으로 휴전협상은 1년 반 이상 지속되었다. 포로협상에서 유엔측은 공산측과 송환원칙을 둘러싸고 자발적 송환과 강제송환원칙을 둘러싸고 대립했지만, 사실은 포로 명단 교부에서 나타난 것처럼 양측이 서로 교환할 포로 규모의 차이에 비롯되었다. 포로 명단의 교부를 계기로 유엔측이 사라진 국군포로를 요구하면, 공산측은 남한 의용군 출신 민간인억류자 석방과 1953년 6월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 반발했다.

휴전협상에서 공산측이 처음부터 포로의 의사에 관계없이 전원송환을 주장했지만, 유

엔군 측은 아군포로의 귀환을 확보하기 위해 1:1 송환원칙을 제시하였다. 포로문제에 대한 유엔군의 목표는 휴전협상에서 공산군 측이 억류하고 있는 포로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원 귀환시키는 데에 있었다.

이에 대해 공산 측은 포로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포로는 종전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내세우면서, 1952년 1월 3일 유엔군 측이 1:1 제안으로 포로의 다수를 인질로 삼아 민간인과 교환을 요구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16만 명의 포로를 억류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 포로를 남한과 타이완에 인계해 주려는 책략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공산 측의 반발과 제네바협약 규정을 고려해, 유엔군 측은 전쟁포로의 교환문제에 대해서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포로의 자발적 송환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자신들의 포로를 강제로 억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포로의 전원송환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미국 측이 전원송환에 동의한다면, 정전협정은 한 달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포로명단에 근거한 전원송환 원칙을 고수했다.

이제 가장 큰 쟁점은 공산포로 가운데 북한이나 중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포로의 처리였다.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는 공산포로 중에서 발생했다. 북한군 포로 가운데 송환거부 포로가 많았던 이유는 투항자의 존재, 강제로 징집된 남한출신 의용군 포로 등이 있었고, 중공군의 경우에는 전 국민당군 출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에 대한 유엔군의 포로 우대정책 및 포로 교육의 영향 등이다. 이 때문에 공산군 측이 유엔군이 송환거부 포로를 의도적으로 확보하였다고 불신하면서, 협상의 지연과 수용소 내의 갈등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대립을 초래한 데에는 먼저 공산 측 포로정책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 송환원칙으로 내세운 전원송환 방침과는 달리 포로의 수를 정확하게 공표하지 않는 채, 국군 포로 중 대다수를 북한군에 입대시키거나 주민으로 편입시켜서 포로 명단을 교환할 때에 이들을 아예 제외시켰다. 이는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이전에 북한 측에서 이미 국군포로의 규모를 전부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한 것이다. 휴전 후 군사정전회담과 남북회담에서도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북한 측은 반공포로의 석방 문제를 꺼내며 반박하는 것은 전후 관계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공산포로 중 송환 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포로 심사의 결과, 북한이나 중국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가 7만 명에 불과하자 휴전협상은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그렇게 많은 포로들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세계를 선택한 사실은 공산 측의



체면을 여지없이 손상시켰기 때문이었다.

유엔군 측은 공산 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산포로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의 수가 8만 3,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공산 측의 반발을 잠재울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의 협상목표는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의 귀환을 위한 노력보다는 송환을 거부한 공산포로의 인도적 고려를 우선하였으므로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는 밀리게 되었다.

공산 측이 '전원송환'의 원칙을 고수하자, 1952년 10월 초부터 휴전협상은 무기한 휴회로 들어갔다. 그후 1953년에 들어오면서 미국에는 공화당 정권이 등장하고, 공산 측에서는 휴전을 희망했던 북한·중국과 달리 이를 완강히 반대했던 스탈린이 사망하는 등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화로 이제 그들도 '스탈린의 전쟁'이 끝나기를 바랐다.

한편, 송환원칙과 국군포로의 규모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유엔군이 남한출신 의용군 포로였던 민간인억류자와 반공포로를 석방함으로써, 공산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간인억류자란 전쟁 중 적군과 함께 하거나 복무한 민간인들을 보안상 이유로 억류하는 이들로 6·25전쟁의 경우,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징집한 남한출신 의용군을 주로 의미하였다. 수용소에 있던 민간인억류자의 규모는 약 4만 9,000여 명에 이르렀다. 유엔군은 민간인억류자의 이적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지구 포로심사위원회를 통해 1950년 11월 20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약 3만 8,000명을 제10수용소(부산)와 제14수용소(영천)로 옮겼다가 1952년 6월과 10월 사이에 석방시켰고, 나머지는 휴전 후 북한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공산측은 민간인억류자를 모두 포로로 간주하여 석방된 인원에 대한 해명을 계속 요구했다. 민간인억류자의 심사와 석방 과정에서 북한군 측이 참석을 거부해 일방적인 조치였지만, 남한 출신이 모두 석방된 것이 아니라 송환을 희망하는 민간인억류자는 상병포로를 교환할 때 449명, 휴전 후 일반포로 교환 시 9,352명 등 모두 9,801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남한 출신이면서도 이념적 성향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희망하였다.

#### 포로협정과 반공포로 석방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한 후 휴전협상은 반전되었다. 먼저 양측은 상병포로 교환으로 그 돌파구를 모색했다.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2월 22일 상병포로를 즉시 송환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고 공산군 측도 그들의 억류 하에 있는 상병포로의 송환을 촉구했고, 같은 해 3월 28일 상병포로 교환원칙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 휴전회담

이 무기한 연기된 지 6개월이 지난 1953년 4월 6일 회의가 재개되어 11일에 상병포로 교환협정이 조인되었다.

이어서 1953년 4월 26일 1952년 10월 8일 이래 6개월간 휴회되었던 휴전회담 본회의가 열렸다. 쌍방의 상병포로의 교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남아있는 포로의 문제도 서로 양보와 협의로써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성숙했다. 5월 25일 양측은 송환거부포로를 중립국에 인도하여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6월 8일 판문점에서는 포로송환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이제 휴전협상에서 양측과의 정식 조인만이 남게 되었다. 1953년 6월 16~17일 회담에서 유엔군 측은 휴전회담의 교착 상태를 조속히 타결하려고 18일 오후에도 다시 회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18일 새벽 기습적인 반공포로 석방으로 공산 측은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반발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 출신 반공포로들도 한국의 시민이라면서 송환거부포로를 판문점에서 중립국으로 보내지는 공산 측의 주장은 사실상 강제송환이므로 그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동안 휴전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미국정부에 휴전 전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호소하였지만, 그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송환거부포로를 중립국에 의하여 처리하려는 방안에 대한 반발로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 2만 7,000여 명을 석방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포로석방 사건이 공산포로의 강제 억류를 위한 것으로 비난하였다. 중국과 북한 측은 석방된 반공포로를 즉시 재수용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전협정을 파기시키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반공포로의 석방이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처리 과정을 무시하여 최근까지도 북한 측에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요구에 대한 반대 명분을 제공했으나, 이미 북한 측은 1951년 12월 포로의 대부분을 인민군에 편입시켰고 나머지만 포로 명단 교부 수준에서 송환시켰다.

그러나 중공군은 휴전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군사력 우세를 과시하고 반공포로 석방을 보복하기 위해 7월 중순 김화와 금성천 사이의 돌출부를 점령하기 위한 대규모 공세를 가해왔다. 중국군은 7월 13일에서 중국군 6개 군단을 동원하여 국군 제2군단의 제 6·8·3·5사단과 인접한 미 제9군단 휘하의 국군 수도사단과 제9보병사단 일부가 방어하고 있는 금성돌출부를 공격했다.

한편, 송환희망포로는 정전협정 후 교환되었으나, 포로교환협정에서 “송환을 선택하지 못한 이들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 그후 90일 동안 포로의 소속 국가 대표가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복귀할 권리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했다.” 설득 기간은 공산군

측이 처음에 6개월간을 주장하였으나, 유엔군 측의 60일간 주장과 타협하여 90일간으로 결정되었다. 판문점으로 이송된 송환거부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회(NNRC :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에서 90일간 설득 기간을 거쳐 628명이 공산 측으로 송환되었고, 76명이 중립국을 택했으며, 중공군포로 가운데 1만 4,000여 명이 타이완으로 이송되었으며, 나머지는 한국에서 석방되었다.

〈포로교환 현황〉

(단위: 명)

처리 결과	송환포로			송환거부포로				총 계	
	상병포로 교환시	휴전후 포로 교환시	소계	공산측 복귀/ 잔류	UN측 잔류/ 복귀	중립국 (인도) 선택	도피/ 행불/ 사망		소계
북한군	5,640	70,183	75,823	188	7,604	74	34	7,900	83,723
중공군	1,030	5,640	6,670	440	14,236	12	17	14,704	21,374
소계	6,670	75,823	82,493	628	21,839	86	51	22,604	105,097
한국군	471	7,862	8,321	325	8	2	-	335	8,656
미군	149	3,597	3,746	21	2	-	-	23	3,769
영국군	32	945	977	1	-	-	-	1	978
기타	31	369	400	-	-	-	-	-	400
소계	684	12,773	13,444	347	2	-	-	359	13,803

영향

포로협상에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국군과 유엔군 측은 북한과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반공포로를 보호할 수 있었으나, 국군포로를 송환시키지 못해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었다.

공산군 측은 국군포로의 대다수를 포로 명단에서 누락시킨 채 북한군이나 주민으로 편입함으로써, 북한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많은 국군포로들이 남아 있다.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북한 탈출 이후 최근에는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탈북해 오면서 그 유골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실종자 문제도 있다.

미귀환 국군포로가 발생하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포로정책에 기인한다. 그들은

유엔군측과 달리 포로의 수를 정확하게 발표하거나 국제적십자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국군포로 중 상당수를 북한군에 입대시키거나 주민으로 편입시켜서 포로 명단을 교환할 때에 이들을 아예 제외시켰다.

북한 측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 후 40년이 지난 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출해 왔을 때,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 포로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의 탈북은 북한에 있는 포로에게도 영향을 미쳐, 2010년 12월 현재 80명이 탈출해왔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휴전사』 (1989).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출판사, 2011).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군사편찬연구소, 2014).

【조성훈 집필】

## 상병포로교환 작전 (기획)

【傷病捕虜交換 作戰, 1953. 4. 20.~5. 3.】

### 개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상병포로교환협정에 따라 1953년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판문점에서 유엔군 상병포로 684명과 공산군 상병포로 6,670명을 송환한 상병포로 교환 작전이다.

### 전개과정

6·25전쟁이 발발한 후 약 1년이 경과할 무렵에 개최된 휴전회담은 4개의 주요 의제를 다루었고, 그 중 하나가 ‘포로교환에 관한 제 조치’였다.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포로 교환 문제는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하였는데, 그 원인은 공산군 측이 국군포로의 대부분을 제외시킨 채 명단을 교부하였고, 유엔군 측이 억류하고 있던 포로 14만 명 중 약 5만 명의 공산군 포로가 그들 지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공산군 측이 억류된 포로 전원의 강제송환을 요구하였고, 유엔군 측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포로는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무렵 공산군 측은 국군과 유엔군 포로가 7만 5,000명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휴전협상이 회담 개시 1년 반이 지나도록 포로교환 문제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자, 유엔군 측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양측이 억류 중인 상병포로를 우선 교환하자는 제의를

공산군 측에 제기하였다. 1953년 2월 22일 유엔군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은 제네바협약 제109조에 근거하여 상병포로의 즉각적인 교환을 제의하는 서신을 공산군 측에 발송하였다. 이에 한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던 공산군 측은 스탈린의 사망 직후 “언제라도 상병포로들을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김일성과 펑더화이(彭德懷) 명의의 3월 28일자 서한을 클라크 대장에게 회신하였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1953년 3월 31일 클라크 사령관은 상병포로 교환과 판문점 휴전회담의 재개를 공산군 측에 제의하였다. 다음날 소련 외상 몰로토프(Vyacheslav M. Molotov)는 모스크바방송을 통해 이를 환영하는 한편 북한과 중공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공산군 측은 연락장교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4월 2일자 유엔군 사령관의 서한에 긍정적으로 답신하였다.

마침내 4월 6일, 양측 휴전회담 대표인 미국의 다니엘(John C. Daniel) 제독과 북한의 이상조 소장은 연락장교들과 함께 판문점에서 상병포로교환을 위한 첫 번째 회합을 가졌다. 이날 유엔군 측은 인원 수에 따른 상병포로 교환을 제의한 반면 공산군 측은 유엔군 측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수락하면서 국적별 교환을 주장하였다.

4월 8일, 양측은 상병포로 교환 숫자를 제시하였다. 공산군 측은 한국인 약 450명과 비한국인 약 450명이 포함된 상병포로 약 600명을, 유엔군 측은 중국인 약 700명과 한국인 약 5,100명 등 상병포로 약 5,800명을 각각 제시하였다. 공산군 측이 제시한 상병포로 숫자는 유엔군 측의 예상 수치를 훨씬 밑돌았다. 그들은 억류하고 있던 유엔군 포로 1만 2,000명 중 약 5%에 불과한 약 600명만을 상병포로로 통고한 반면 유엔군 측은 공산군 포로 13만 2,000명 중 5,800명을 상병포로로 제시하였다.

상병포로교환과 관련한 이어진 회담에서 양측 연락장교들은 상병포로 송환원칙에 대한 종합토의를 마치고 송환기간 중 판문점 경비병 숫자 등과 같은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4월 11일에 양측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담긴 상병포로교환협정에 조인하였다.

“상병포로 송환은 본 협정 조인 후 10일 이내에 판문점에서 시작한다.

첫째, 공산군 측은 1일 약 100명 정도의 상병포로를 송환한다.

둘째, 유엔군 측은 25명을 단위로 하여 1일 약 500명 정도의 상병포로를 인도한다.

상병포로는 성명, 계급, 포로번호 또는 군번을 포함하여 국적별로 준비한 명부와 함께 인도한다. 송환기간 중 상병포로를 개성과 문산으로 수송할 모든 철도와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며, 판문점에 이르는 자유통로의 통과는 다음 제 조건에 따른다.

- 1) 자동차 호송대의 이동은 주간에 한하며, 각 호송대는 5대 이상의 밀집대형으로 구성한다.
- 2) 철도로 이동하는 차량과 자동차 호송대의 각 차량은 명백히 볼 수 있는 식별용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3) 차량호송대 및 철도 차량의 식별에 사용되는 표지의 상세한 설명을 상대방 연락장교에게 제고한다.”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리틀 스위치(Little Switch)라 명명된 상병포로 송환을 4월 20일부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 측은 공산군 상병포로를 거제도과 제주도 등지에서 판문점으로 이송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유엔군 상병포로 송환대상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유엔군 측은 더 많은 유엔군 상병포로를 송환해오기 위해 공산군 상병포로 550명의 추가 송환을 공산군 측에 제안하였다. 4월 23일에 이러한 제의에 동의하였던 공산군 측은 3일 후 태도를 바꿔 더 이상 추가송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으로 상병포로 송환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유엔군 측은 공산군 측이 더 이상 추가로 상병포로를 송환할 의사가 없음을 인식하고, 5월 3일 마지막 송환포로들에 대한 수송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군 측이 수용하고 있던 북한군 포로 5,194명, 중공군 포로 1,030명, 민간인 억류자 446명을 포함하여 총 6,670명을 공산군 측에 넘겨주었다. 반면에 유엔군 측은 한국군 포로 471명, 미군 포로 149명, 영국군 포로 32명, 터키군 포로 15명, 콜롬비아군 포로 6명, 호주군 포로 5명, 캐나다군 포로 2명, 그리스군·남아공화국군·필리핀군 포로 각 1명씩이 포함된 684명을 넘겨받았다.

### 결과 및 영향

상병포로의 교환은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포로교환협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공산군 측은 휴전협정 중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조항에 합의함으로써 포로는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되어야 한다는 유엔군 측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포로교환협정이 조인되는 바탕이 되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 (2013)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2014)

【손규석 집필】



## 포로송환

(기획)

[捕虜送還, 1953. 8. 5.~9. 6.]

### 개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포로교환협정에 따라 1953년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기간 동안 판문점을 통해 유엔군 포로 1만 2,773명과 공산군 포로 7만 5,823명을 그들의 희망지역으로 송환한 포로교환 작전이다.

### 전개과정

6·25전쟁이 발발하고 약 1년이 경과한 1951년 7월 10일에 개최된 휴전회담은 7월 26일 양측이 협상의제와 토의 순서에 합의한 후 협상을 통해 각 의제에 합의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서에 조인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양측이 채택한 의제 중 제4항인 포로교환에 관한 협정 문제는 전쟁을 약 15개월이나 더 지속시킬 정도로 휴전협상 과정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웠던 문제였다.

포로문제에 관한 협상의 초점은 휴전협정 조인 후 전쟁포로를 상호 송환함에 있어 유엔군 측의 주장대로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원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산군 측이 주장한 포로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원 강제송환을 원칙으로 할 것인가에 있었다. 이는 결국 본국 송환을 원치 않는 공산군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으며, 강제송환을 거부하는 공산군 포로들의 대다수가 반공주의자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복잡하였다.

1952년 4월 10일 유엔군사령부가 공산군 포로 중 강제송환을 희망하는 포로와 이를 거부하는 포로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인 억류자가 포함된 공산군 포로 17만 명 중 북한이나 중공으로 송환을 희망하는 포로는 불과 7만 명인데 반해 나머지 10만 명의 포로들은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군 포로들은 수용소 내에서 반공파와 친공파로 양분되어 주도권 다툼을 하였으며, 이는 1952년 5월 7일 거제도 제76포로수용소에서 친공포로들이 포로수용소장 도드(Francis T. Dodd) 준장을 납치하는 원인이 되었다. 북한군 통제를 받고 있던 거제도 포로수용소 내의 친공포로들은 포로송환에 관한 문제로 판문점 휴전회담이 교착될 때마다 포로수용소 내에서 계획적인 폭동을 일으켜 휴전협상을 방해하거나 또는 유엔군 측 대표에게 그들의 억지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하였다.

1952년 10월 8일 이후 포로송환에 관한 원칙문제로 또 다시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던

휴전회담은 1953년에 들어서며 국제정세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1월 20일 미국에서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가 대통령에 취임한데 이어 3월 5일 소련의 스탈린(Joseph Stalin)이 사망하자, 공산군 측도 휴전협상에 다소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공산군 측은 연락장교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4월 2일자 유엔군사령관의 서한에 긍정적으로 답신하였다.

마침내 4월 6일, 판문점에서 상병포로교환을 위한 첫 번째 회합을 가진 미국의 다니엘(John C. Daniel) 제독과 북한의 이상조 소장은 4월 11일에 열린 회담에서 상병포로 송환원칙의 세부사항 등 관련협정에 서명하고 본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담의제 제4항 포로교환에 관한 문제는 표면상으로 비교적 간단해 보인 것과는 달리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6월 8일 유엔군 측 대표 해리슨(William K. Harrison) 중장과 공산군 측 대표 남일은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의제 제4항 포로교환에 관한 문제 중 본국송환을 거부하는 포로 처리에 관한 문제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포로교환 2개월 후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에 대하여는 90일간의 설득기간을 거쳐 그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정치회담에서 30일간 토의한다. 그렇게 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송환거부 포로들은 민간인 신분을 갖게 되며, 포로가 원한다면 인도 적십자사나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의해 중립국으로 송환되어 그 곳에서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난 1년 반 동안 양측이 끌어왔던 송환불원포로에 대한 송환원칙이 마련되었으며, 휴전회담은 급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다음날부터 양측은 휴전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하였으나, 회담은 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을 응징하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진행되어 갔다.

회담이 계속되던 6월 18일 자정, 한국 정부는 억류 중인 반공포로 3만 4,900명 중 2만 7,000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하였다. 이에 미국은 한국이 유엔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항의하였고, 공산군 측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공모했다고 비난하며 전원 재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휴전회담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이 무렵 조속한 휴전협정 체결이 주요 정치쟁점이었던 미국은 6월 25일 대통령 특사를 한국에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국군 증강 등을 제시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한 끝에 7월 12일 양국은 휴전성립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9일부터 회담을 재개한 양측 대표단은 포로인도 장소를 휴전 발효 전에 결정하기 위해 본국송환을 원치 않는 공산포로들을 비무장지대 남쪽지역에서 포로송



환위원회에 인계하는데 동의하였다. 이후 양측은 본국으로 송환될 포로 수와 송환위원회에 인계될 포로 수를 발표하였는데, 유엔군 측 송환불원포로 숫자는 중공군 1만 4,500명, 북한군 7,800명이었고, 공산군 측은 한국군 8,186명과 미군 3,313명을 포함한 1만 2,746명이었다.

포로송환 교환비율에 있어, 양측의 수송시설이나 행정능력을 감안하여 유엔군 측은 상병포로 360명을 포함하여 1일 1,800명을, 공산군 측은 상병포로 외에 1일 3,000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수송시설이 빈약하고 포로수용소가 원거리에 산재해 있다는 구실로 1일 300명 만을 인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양측 수석대표는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조인하였고, 이 후 휴전협정에 따라 포로송환 임무를 수행할 포로송환위원회가 양측에서 각 3명씩 임명 한 총 6명의 영관장교들로 구성되었다. 7월 30일 첫 회합을 가진 포로송환위원회는 양 측 포로교환을 8월 5일부터 개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포로교환에 있어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송환불원포로의 처리였다. 유엔군 측은 휴전회담 이후 송환희망포로 전체를 교환하기 위해 소위 '빅 스위치 작전(Operation Big Switch)'과 '빅 스와프 작전(Operation Big Swap)'을 실시하였다. 전자는 공산군으로부터 국군 및 유엔군 포로를 인수하는 일을 다루었고, 후자는 유엔군이 수용하고 있던 포 로 중에서 송환희망포로를 공산군 측에 인도하는 일을 취급하였다.

송환을 희망한 친공포로는 대부분 거제도와 제주도에 수용되어 있어 교환지점까지 해로 와 육로를 이용해 이동해야만 하였다. 이들 중 부상자 및 병자와 여성 그리고 어린이는 섬 에서 부산까지 배편으로, 부산에서 문산까지는 기차를 이용한 후 최종교환지점에는 자동차로 이동하였다. 남성포로들은 섬에 있는 수용소로부터 인천까지 LST를 이용한 후 철로 와 도로를 통해 문산으로 이동하였다.

국군과 유엔군 포로는 압록강 부근에 산재해 있던 포로수용소로부터 트럭에 실려 철도 역이 있는 곳으로 수송되었으며, 평양과 개성을 경유해 중립지대로 이동하였다. 개성에 도착한 유엔군 포로들은 여러 개 천막에 분리 수용되어 송환을 기다렸고, 하루에 몇 명 씩 송환지점으로 수송되어 유엔군 측에 인계되었다.

1953년 8월 5일 오전 9시 예정대로 포로교환이 시작되었다. 손원일 국방장관과 백 선엽 육군총참모장, 테일러(Maxwell D. Taylor) 미 제8군사령관과 웨이런드(Otto P. Weyland) 극동공군사령관 등 국군 및 유엔군 수뇌부와 많은 장병이 이곳에 나와 있었다. 소재 엠블런스 2대와 트럭 4대가 도착하며 포로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앞서 양측 실 무장교들은 교환포로명단을 교환한 후 먼저 유엔군 측 포로들의 송환을 시작하였다. 제

1진 1조로 편성된 국군포로들이 앰블런스에서 하차하기 시작해 정오까지 4차에 걸쳐 국군 포로 250명과 유엔군 포로 150명 등 총 400명이 귀환하였다.

유엔군 측은 2,576명의 북한군 및 중공군 포로를 공산군 측에 송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산군 포로들은 공산군 사진반원들이 비참한 모습을 촬영하도록 새로 지급된 의복과 약품을 찢거나 내동댕이쳤고, 알몸 차림으로 붉은 기를 휘두르며 공산군 군가를 제창하였다.

이후 포로송환은 여러 가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실시되어 병들거나 부상당한 포로들과 여성포로들은 8월 15일까지 1회에 120명씩 날마다 3회에 걸쳐 공산군 측에 인계되었다. 포로교환은 연일 계속되어 공산군 측은 매일 약 400명을, 유엔군 측은 포로 약 2,400명을 송환하였다. 9월 4일에는 대전 전투에서 포로가 된 미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이 귀환하는 등 9월 6일까지 33일간에 걸친 포로송환은 계획대로 완료되었다. 이 포로송환을 통해 유엔군 측은 북한군 포로 7만 183명과 중공군 포로 5,640명 등 총 7만 5,823명을 공산군 측에 넘겨주었고, 공산군 측은 국군 포로 7,862명과 미군 포로 3,597명이 포함된 유엔군 포로 4,911명 등 총 1만 2,773명을 유엔군 측에 인계하였다.

한편 송환불원포로들은 인도,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 중립국송환위원회와 포로를 인수하고 관리임무를 맡은 인도관리군에 9월 10일부로 인계되기 시작하였다. 9월 23일까지 유엔군 측은 송환불원포로 총 2만 2,604명을 인도관리군에게 인계한데 반해 공산군 측은 9월 24일 단지 359명 만을 인계하였다.

송환불원포로에 대한 설득작업은 인도관리군의 친공 성향과 공산군 측의 강제성으로 양측 의견대립으로 지연되던 중 10월 7일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공산군 측의 강제설득 주장을 부결시키고 10월 15일부터 송환불원포로들에 대한 설득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0월 15일에 시작되어 12월 23일에 종료된 공산군 측의 설득기간 중 실제 설득 일수는 포로들의 거부와 비협조로 10일에 불과하였고, 귀환을 희망한 포로는 628명이었다. 국군과 유엔군 포로에 대한 설득은 12월 2일부터 개시되었으나, 포로들이 설득 장소에 나오기 전에 공산군 측에 세뇌되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8일간의 유엔군 측 설득 기간 중 귀환을 희망한 포로는 1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대부분의 잔여 송환불원포로의 거취문제는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국인 인도정부의 “기한이 만료되어도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포로들은 즉시 양측의 관하로 넘긴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반공포로 2만 1,000여 명은 1954년 1월 20일과 21일 중립지대 포로수용소로부터 유엔군 측에 인수되어 1월 23일 0시를 기해 민간인 자

격으로 복귀하였다. 이날 거행된 반공포로 인수식 직후 중국인 반공포로는 15척의 LST에 분승하여 타이완으로 송환되었다. 친공포로 인수를 거부하던 공산군 측도 1월 28일 북한 및 중공 적십자사 명의로 이들을 모두 인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포로송환은 6.25전쟁의 휴전협상 자체를 좌우한 주요 쟁점이었다. 이의 타결에 2년의 시일이 소요되었고, 처리과정도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매우 특이하고 이질적이었다. 1953년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33일의 기간 동안 유엔군 측은 북한군 포로 7만 183명과 중공군 포로 5,640명 등 총 7만 5,823명을 공산군 측에, 공산군 측은 국군 포로 7,862명과 미군 포로 3,597명이 포함된 유엔군 포로 4,911명 등 총 1만 2,773명을 유엔군 측에 각각 송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 (20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조성훈, 『6.25전쟁과 국군포로』 (2014).



【손규석 집필】



전투 항목(육군편)

---





## 웅진반도 전투

[甌津半島 戰鬪, 1950. 6. 2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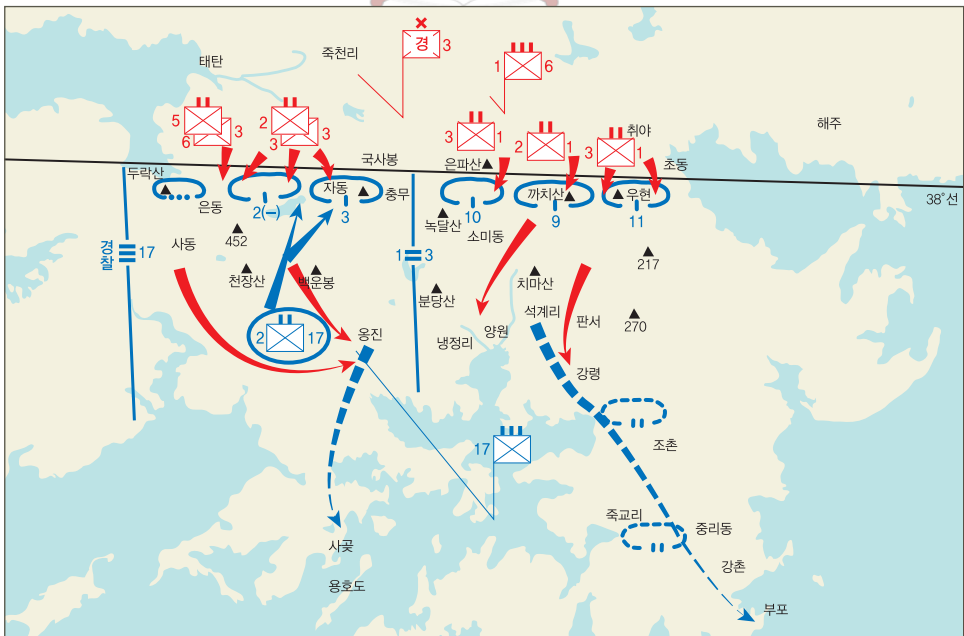
### 개요

국군 제17연대가 1950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웅진반도로 남침하는 북한군 제3경비여단과 제6사단 1연대의 기습 공격을 받아 수행한 방어 전투이다.

### 전개과정

38도선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웅진반도는 인천에서 해로로 90km 거리이며, 38도선과 해주만에 의하여 내륙과 육로가 차단되어 있다. 웅진반도는 38도선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국사봉(△527)을 비롯하여 계명산, 은파산(△283)이 있고, 그 남쪽에는 두락산, 421고지, 충무고지, 녹달산, 까치산(△350) 등이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국군 제17연대는 일단 유사시 이 지역을 고수하지 못하는 한 해상으로 철수해야 하는 전술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웅진반도 지역을 점령하려는 북한군은 먼저 개성반도를 장악하고 이어 김포-영등포선으로 진출하여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며, 공격 당일 개성반도를 장악하여 2일차에



영등포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 하에 웅진반도 지역에 8개 대대로 구성된 제3 경비여단과 제6사단 1연대를 배치하였다. 그들의 주요 장비는 자주포와 장갑차 각 8대, 122mm곡사포 12문, 76mm 곡사포 36문, 기타 각종 포를 합하여 총 196문이었고, 이에 동원된 병력은 1만 1,000여 명이였다.

웅진반도 정면을 담당한 국군 제17연대는 45km에 달하는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웅진반도의 특성상 중심 깊은 방어지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던 제17연대는 38도선 분계선 남쪽의 두락산-412고지-녹달산-까지산-초동을 연결하는 방어선이 주저항선이자 최후저항선이었다. 제17연대의 웅진반도 방어계획은 국지적인 소규모 분쟁 시에는 38도선을 고수하는 것이었으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북한군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한 후 해군의 지원 하에 해상으로 철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어계획 하에 제17연대는 총 병력 3,300여 명으로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각각 좌우 정면에 배치하고, 제2대대를 예비로 배치하였다. 또한 배속된 제7포병대대의 1개 포대씩을 각각 제1, 3대대에 배치하였다.

남침 전날 백인엽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17연대 전 병력은 진지를 점령하여 경계태세에 임하고 있었다. 25일 새벽 4시를 기하여 공격 준비 사격과 동시에 웅진지구 북한군 제3경비여단과 제6사단 예하의 제1연대가 공격하였다. 서측에서는 북한군 제3경비여단의 제2, 제3, 제5, 제6대대가 기마대를 앞세우고 국군 제17연대 제1대대 정면으로 공격하였고, 동쪽에서는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의 제2대대, 제3대대가 자주포와 장갑차를 선두로 국군 제17연대 제3대대를 공격하였다.

새벽 5시에 제17연대 제1대대는 자동-은동 전면에 2개 대대, 두락산에 1개 대대로 추산되는 적과 교전하였으나 오전 6시10분에 제1대대장 김희태 소령이 전사하는 등 위기에 처하자 연대장은 제2대대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주진지로부터 2~3km 철수한 곳에서, 수 십대의 자주포를 선두로 한 1개 연대로 추산되는 적을 저지하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지나면서부터 제2대대의 반격과는 반대로 제3대대는 오전 11시에 석계리(강령 북쪽 5km)-치마(양원 북쪽 4km) 선마저 돌파 당하게 되었다.

백인엽 연대장은 이미 새벽 5시에 적의 침공상황을 육군본부 작전국에 보고하고 병력 증원도 요청하였다. 이곳에 파견된 미 군사고문관 브라운(Frank Brown) 소령도 오전 6시에 미 군사고문단(KMAG)에 “제17연대는 북한군의 강력한 침공에 부딪쳐 전선의 유지가 곤란하다”라고 알렸다.

연대장은 오전 10시에 위급한 전황을 육군본부에 재차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지만, 육군본부에서는 적을 돌파하여 육지를 돌아서 철수하라는 지시만을 하달

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오전 11시에 연대본부를 강령으로 옮기고 부대철수를 준비하였다.

제17연대는 적의 전면침공을 맞아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분투하였으나, 북한군의 자주포와 장갑차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8시간 만에 양원이 차단되어 강령으로 철수하였다. 연대본부와 포병부대를 포함한 우측 제3대대는 연대장 지휘 하에 적의 공격을 계속 저지하면서 이미 계획된 부포항으로 집결한 다음날인 26일 오후 2시에 해군에서 보내 온 LST편으로 인천까지 해상 철수하였다. 좌측 제1, 제2 양 대대는 적이 웅진읍-부포항의 중간지구를 돌파하였으므로 사전 계획이 없는 사곳을 목표로 철수한 다음 민간 선박으로 나누어 이동하였으며, 29일 이후부터 개별적으로 철수한 병력을 수습하여 대전에서 새로운 임무를 받고 재편성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제17연대는 육군본부가 특별경계령을 해제했음에도 부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군의 남침 시 즉각 대응을 통해 적의 기도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세부적인 철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철수작전 시 많은 혼란을 유발하였다. 제17연대는 해상 철수 이후 대전에서 북상하여 오산 남쪽에서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서부전선편』, 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청단-연백 전투

〔靑丹-延白 戰鬪, 1950. 6. 25.〕

### 개요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제3대대가 1950년 6월 25일 연백지구에서 북한군 제3경비여단의 치안대대 및 제3대대의 남침공격을 받아 방어전투를 치른 후 강화도로 해상 철수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청단-연백 일대의 지형은 38도선의 북쪽이 그 주변 지세의 영향으로 구릉 및 고지군이 형성된 반면에 그 이남은 배천과 청단평야를 비롯하여 임진강과 예성강 등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북쪽을 제외한 3면이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반도가 되고 있다.

청단-연백 지역에서 38선을 넘어 공격한 북한군 부대는 제3경비여단의 치안대대와 제3대대였다. 치안대대는 국군 제12연대 제3대대의 9중대 정면의 문화동 지역으로 공격하여 청단지역으로 침투하였고, 제3대대는 대흥리 지역의 국군 제12연대 제3대대의 제10중대와 제11중대 정면으로 공격을 기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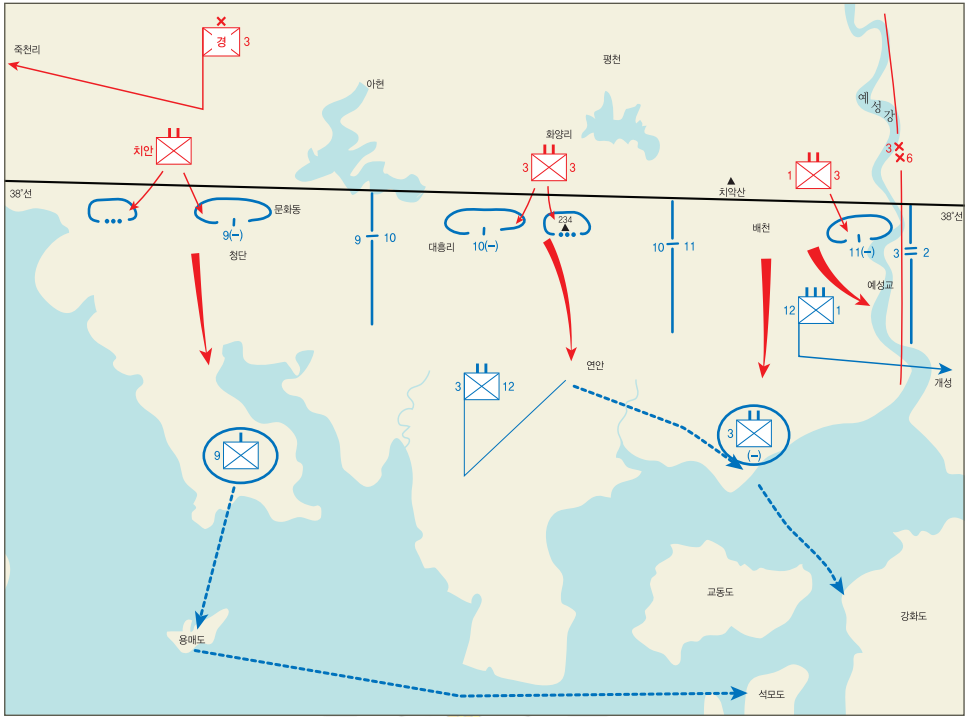
1950년 4월 22일부로 부임한 신임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곧 사단의 전 지역을 돌아본 뒤 청단-고량포에 이르는 94km의 넓은 정면을 방어하기 위한 현행 작전계획을 전면 수정하였다. 이 계획은 유사시에 개성, 연백, 청단 등의 주요 지구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사단장은 육군본부에 출두하여 설명하고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의 승인을 얻었다.

38선 경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제12연대의 경우, 총 병력 2,600여 명 중 휴가, 외출, 외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병력이 1,460명이었으며, 연대 방어정면의 경계초소 및 거점에 배치된 병력은 고작 800여 명에 불과하였다.

청단-연백 지역을 담당하는 제1사단 12연대 3대대는 제11중대를 좌일선으로서 대흥리에서 청단간, 제10중대를 중앙일선으로서 포운리에서 대흥리(청단 동쪽 11km)까지, 제9중대를 우일선으로 배천에 주둔시켜 예성강에서 포운리(배천 북쪽 4km)까지 각각 담당하게 하였다. 군 병력이 배치되지 않는 곳에는 경찰 초소 8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방어진역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경계상의 공백 지대가 존재하였다.

25일 새벽 4시경 북한군 제3경비여단의 치안연대와 제3대대가 연백지구의 제12연대 정면에서 공격하였다. 북한군은 포격을 가하며 순식간에 38도선을 돌파하였다. 좌일선인 청단에 배치된 제11중대는 25일 새벽 4시 30분부터 적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 이에 많은 피해를 입은 제11중대는 대대본부로 이동하라는 임무를 받고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이때 북한군 기마대 약 30여필이 청룡반도를 따라 남하하자 이를 격퇴하고 청룡지서를 중심으로 한 외곽선에 배치하고 이날 밤까지 경계 임무를 수행하였다. 연안의 중앙일선 제10중대는 북한군 제3경비여단 제3대대의 집중 사격을 받아 순식간에 분산 철수하였다.

대대 우일선인 제9중대는 배천에 주둔하고 있던 중 새벽 4시 30분 북한군 제3경비여단 제3대대의포탄 사격을 받았다. 즉시 전방진지로 예비소대를 출동시켰으나 북한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아 철수하였다. 이후 제3대대 부대대장의 강화도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철수를 시작하였다.



제12연대 3대대는 오후 1시에 석포(백석리)에 도착하여 2척의 어선으로 강화도로 철수하였고, 청룡반도의 제11중대는 남쪽 해변에 집결하여 대형목선 1척으로 교동도로 철수하였다. 일부 병력은 간조에 맞추어 용매도를 거쳐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결과 및 영향**

병력에 비해 관할 구역이 너무 넓은 제12연대 제3대대는 전쟁 이전에 준비한 계획에 따라 북한군의 전면남침에 대비 방어 작전을 펼치며 비교적 건재를 유지하며 지정된 철수로를 따라 강화도와 서산, 군산 등지에 상륙하여 7월 4일 수원에 집결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서부전선편』, 198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Ⅰ,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Ⅱ,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개성 전투

[開城 戰鬪, 1950. 6. 25.]

### 개요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제2대대가 1950년 6월 25일 개성지역에서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의 기습 남침에 방어를 하며 영정포에서 김포로 철수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국군 제1사단의 작전지역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북방과 남방으로 구분되며, 북방지대인 38도선 분계선 일대는 예성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 지역으로 세분한다.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제2대대가 방어하고 있는 개성지역은 개활지와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고, 동쪽 9km 지역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사천과 임진강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개성에는 38선에 걸쳐 있는 송악산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산의 정상인 488고지는 38선 북쪽에 있지만, 475고지는 38선 남쪽에 있다. 따라서 전쟁 이전부터 이 지역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국군 제1사단은 송악산의 292고지, 유엔고지, 비둘기 고지 등에 진지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개성으로 공격하는 북한군은 제6사단 13연대와 15연대의 예하 대대로 개성의 조기 점령을 위하여 1번 도로를 연한 접근로와 송악산을 경유 남쪽 방향으로 전투력을 집중 투입하였다.

개성 서쪽 지역에 대한 38도선 방어임무를 수행 중이던 제1사단 제12연대는 63km에 달하는 연대의 방어정면에 제3대대를 예성강 서쪽 연백지역에, 제2대대를 개성 북쪽에 배치하였다. 제1대대를 연대 예비로서 개성 남쪽 강릉동에 있는 연대본부 지역에 배치하였다. 연대 우일선에 배치된 제2대대는 서측 예성강 동안에서부터 동측 제13연대와 경계를 이룬 대원리까지 경비구역에 제5, 6, 7중대 순으로 일선 배치하여 지대 내의 감제 고지인 송악산과 그 주변 경비에 역점을 두었다.

25일 새벽 5시 10분 북한군 제6사단(-1)은 연백지구의 제12연대 정면에서 포격을 가하며 전면 공격하였다. 좌측 여현 일대에 배치된 제5중대는 청학동에 배치된 소대거점이 피탈되고, 북한군 6사단 제15연대 주력이 개성으로 진출하자 퇴로가 차단되어 소대단위로 분산철수하기 시작하였다. 대대 중앙일선으로 송악산(△488)남쪽 능선 일대의 무명고지에 배치된 제6중대는 새벽 4시 적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통신 두절과 안개로 인한 시계 제한 때문에 더욱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6중대장이 피탄되어 쓰러지자 중대병력은 분산되었다.

한편, 대대 유일선인 제7중대는 개성에서 시변리에 이르는 국도 좌우측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제7중대는 적의 전면공격이 이루어진 새벽 4시보다 1시간 이른 새벽 3시에 비둘기고지의 소대로부터 적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후 적의 본격적인 공격 준비 사격이 시작되었고, 제7중대로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의 한 개 대대가 침입하고 있었다. 제7중대장은 대대본부로부터 자남산(△103)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자남산으로 향하였으나, 이미 북한군의 수중에 점령당한 것으로 알고 문산으로 가는 도로상에서 대대본부와 합류하였다.

제12연대 제2대대장은 철수 도중 연대장으로부터 북한군에게 일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받고, 배속받은 제1중대 병력으로 특공대를 편성하여 오전 10시에 개성 시내로 반격을 개시하였다. 제2대대장은 기습 공격에 성공한 특공대를 이끌고 철수하여 강릉동 연대본부 부근에 당도했지만 연대본부도 화염에 휩싸여 있으므로 다시 남쪽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대대는 오후 5시에 영정포에 도착하여 어선으로 저녁 7시에 김포로 도하하여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제12연대 제2대대는 북한군 제6사단 13연대의 공격을 방어하였으나, 많은 피해를 입고 방어선이 돌파되자 지정된 철수로를 따라 영정포를 거쳐 김포로 철수하였다. 이후 제12연대 제2대대는 철수병력을 수습하여 김포반도로 이동, 그곳에서 김포지구방어사령부에 편성되었고 이후 김포 도하저지 전투에 참가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서부전선편』, 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1,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고랑포 전투

[高浪浦 戰鬥, 1950. 6. 25.]

### 개요

국군 제1사단 제13연대 제3대대가 6월 25일 북한군 제1사단 3연대의 기습 남침을 고랑포 지역 진지에서 방어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인해 금곡리 부근으로 철수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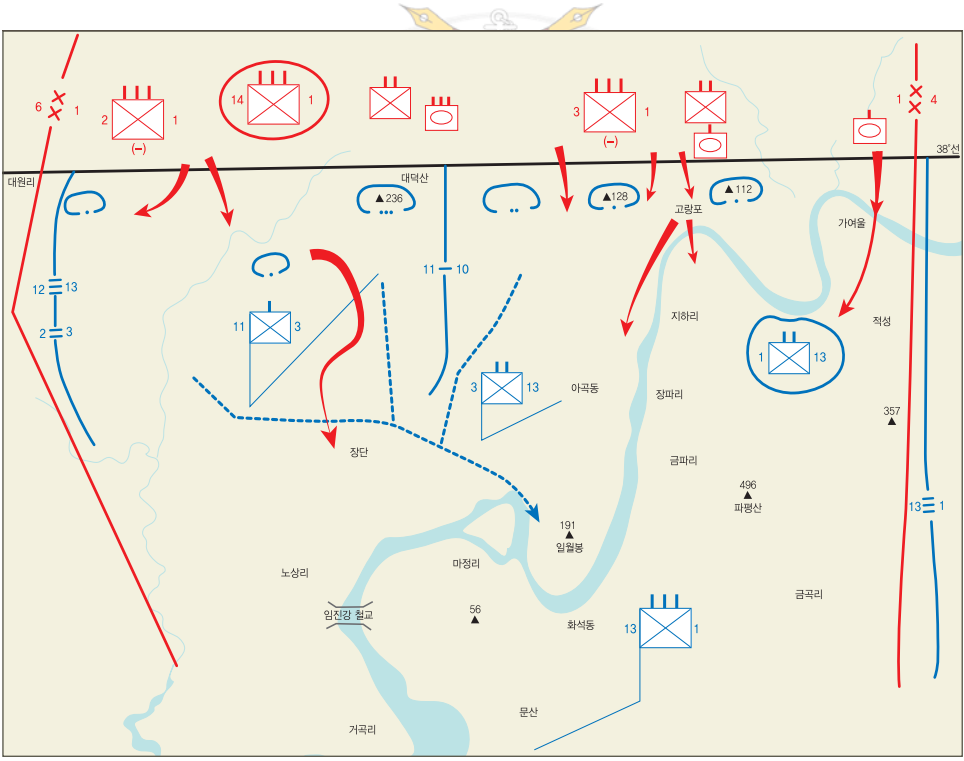
## 전개과정

임진강 중류 지역에 위치한 고랑포는 38선 접경 바로 남쪽에 위치한 나루터로 강의 북안에 위치해 있다. 고랑포 지역은 남북 교역이 성행하여 하루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왕래하던 지역으로 피아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북한군 제1사단(소장 최광)은 남천에 주둔하며 그 예하에 제2, 제3, 제14연대와 포병연대를 두었다. 북한군 제1사단은 6월 23일 대부대 기동훈련으로 가장하여 남천에서 고랑포 북쪽의 구화리로 이동하였다. 고랑포-장단 방면으로부터 침공한 북한군 제1사단은 임진강 상류 지역에 배치된 국군 제13연대에 공격을 지향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개전 당시 94km 정면의 38도선상에 제13, 제12 양 연대를 배치하고 사단예비인 제11연대는 수색에서 교육 훈련 중이었다. 사단은 자연 장애물인 임진강의 남안을 주진지로 정하고 예성강 철교와 임진교 방어 및 파괴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있었다.

고랑포에서 대원리간의 38도선 경비임무를 맡은 국군 제13연대 제3대대는 대대지휘소를 아곡동(장단 북쪽)에 두고 예하중대를 대대의 중앙 전면에 있는 두매동(박골)에서 남으로 신장단에 이르는 소로를 경계선으로 하여 배치하였다. 즉 제11중대를 좌일선으



로 하고, 제10중대를 우일선으로 하였으며, 대대에비로서 제9중대를 대대본부 부근에 배치하였다.

25일 새벽 4시 30분 적 3개 소대규모가 중대 대형으로 북쪽 두매동-장단 도로를 따라 접근하고 적의 침병분대가 제3대대 좌일선인 제11중대의 소대진지에 접근하였다. 이에 전 소대가 이들을 200m 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전 화력으로 격퇴하였다.

우일선 사내동(고랑포 서남쪽 3km)에 있는 제10중대본부에 북한군의 공격 준비 사격이 이루어진 것은 새벽 4시 30분이었다. 적의 포격이 시작되자 제10중대는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하고 이를 대대에 보고하였다.

제10중대 주력은 차량으로 제1소대가 주둔하고 있는 112고지로 향하였다. 그러나 출동부대가 고랑포 시내에 접어들자 이미 적의 선두부대가 고랑포 북쪽 외곽의 구릉을 선점하여 중대에 사격을 집중하였다.

제10중대장은 적이 중대와 가까운 아곡동의 대대본부 지역까지 침공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중대를 이끌고 일단 석포(임진강변)로 철수한 다음 이날 오후에 동판리(임진나루터 대안)에 도착하여 전방에서 철수하는 대대와 합류하였다.

대대본부를 포함한 제9중대와 제12중대 등 아곡동의 대대에서는 전방에서 들리는 포성과 더불어 전투준비를 하였다. 대대장 유재성 소령은 북한군의 침공규모가 큰 것을 확인하고 즉각 대대에 비상을 발령하며 중대별로 출동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때 제3대대는 연대로부터 현 위치에서 최대한 적을 지연시키면서 주력은 임진나루터로 철수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수령했다.

그 직후 제3대대는 대대숙영지 전방의 개활지를 사이에 두고 교전 상태에 들어갔고, 적은 좌측방의 도로를 따라 7대의 전차를 투입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은 제9중대 제1소대장 장두철 중위 등 8명의 특공대를 선발하여 이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이들은 공격 행동 중에 모두 산화하고 말았다.

2차에 걸친 전차공격이 무위에 그치자 대대장은 현 위치에서의 지탱은 어렵다고 보고, 대대(-2)를 남쪽 2km 지점인 85고지로 철수시켰다. 저녁 무렵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 밤 10시 30분 금곡리 부근에 집결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제1사단 제13연대 제3대대는 압도적인 북한군 제1사단의 불법 침공을 받아 방어 전투를 수행하였으나 전력의 열세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은 채 임진강을 넘어 금곡리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대대는 금곡리에서 부대를 정비하면서 적의 남침에 대비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①, 19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서부전선편』, 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②,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임진강방어선 전투

[臨津江防禦線 戦闘, 1950. 6. 25. ~26.]

### 개요

국군 제1사단이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제1사단의 불법 남침을 받고 문산 부근 파평산과 임진강변 일대에서 전투를 치르며 철수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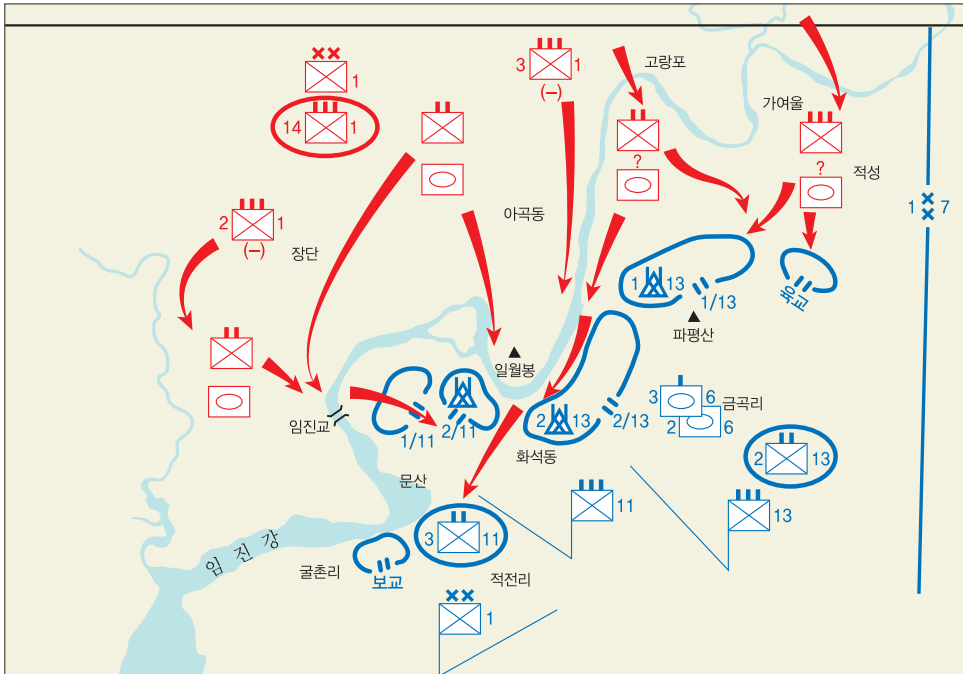
### 전개과정

국군 제1사단이 주저항선을 형성한 문산리-적성 사이의 임진강은 그 너비가 300~1000m에 이르고 수량이 풍부하며 강 양안에는 천연인 단애(斷崖)가 강변을 따라 형성하고 있어 여울이나 나루터를 제외한 지점에서는 강을 건너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조수의 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만조 시에는 수심이 1~1.5m 정도까지 증가되며 주월리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이러한 여건으로 기갑부대의 기동이 제한되며, 가능한 도하 지점은 임진강 철교와 적성 북쪽의 가여울 등 두 곳밖에 없었다. 따라서 임진강 철교를 적절할 시기에 폭파한다면 도하장비를 설치하지 않고는 도하가 불가능했다.

제13연대의 제1대대가 방어하고 있는 파평산(△496)은 임진강을 향하여 횡격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고지 북쪽 일대의 넓은 개활지와 도로망을 강제하므로 방어에 매우 유리하였다.

고랑포-장단 방면으로부터 침공한 북한군 제1사단 3연대는 임진강 상류지역에 배치된 국군 제13연대(김익렬 대령)에 공격을 지향하고, 개성을 장악한 제6사단(소장 방호산)은 제13연대 2대대를 추격하여 개성 남쪽으로 향하였다. 이에 사단은 적성-덕현리-장파리를 잇는 파평산(△496) 전방과 문산 북쪽의 임진강변에서 동시에 북한군 제1사단 주력을 맞이하여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사단 예비로 수색에서 긴급 투입된 제1사단 제11연대장(최경록 대령)은 우선 개성으로부터 철수하는 제12연대의 엄호와 연대의 경계부대로서 임진강 북안에 부대 배치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정오 무렵 우일선 제2대대로 하여금 1개 중대를 차출하여 임진강 북쪽에 병력 배치를 지시하였다. 또한 제1대대장에게 임진강 철교의 방어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제2중대를 임진강 철교 부근에 배치하였으며, 제2중대는 1개 소대를 대안의 무명고지에 배치하였다.

오후 3시 무렵 한 무리의 적 기마대가 개성-문산 간의 도로를 따라 제11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진지로 접근하였다. 이에 제7중대가 사격을 집중하니 적 기마대는 큰 피해를 입고 장단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들이 패주한 얼마 뒤 대규모의 적 부대가 임진강 3km 전방에 이르러 공격 징후를 보이자 제7중대는 본진으로 철수하였다.

제11연대는 좌일선에 제1대대, 우일선에 제2대대 그리고 연대예비로서 제3대대를 적전리(문산 동남쪽 1km) 부근에 배치하였다. 원래 임진강 철교 폭파는 제12연대가 철수한 직후에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11연대장은 북한군이 임진강 철교 대안에 접근하고 있을 때 철교 폭파를 건의하였고, 이후 철교 폭파 임무를 제3대대 제3중대장에게 부여하였다. 그러나 제3중대장이 행방이 묘연해지자, 공병대대장은 대대 작전장교에게 폭파 임무를 명령하였다. 대대 작전장교인 정극서 대위가 폭약을 장전하고 점화하였으나 불발이 되었고, 끝내 철교를 폭파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결국 이후 북



한군은 그들의 병력과 군수물자를 임진강 철교를 통해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자정이 지나자 임진강 철교를 건넌 5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북한군 대대규모의 병력이 순식간에 제1대대 중앙을 돌파, 예비대 지역인 문산 부근까지 진출함으로써 치열한 교전상태에 돌입하였다.

제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문산 돌출부의 제1대대 주진지가 무너지자 임진강선을 연하는 전 방어선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한시라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하여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적전리의 예비대인 제3대대가 제1대대의 저지선까지 2km의 거리를 신속히 이동하여 제1대대와 협조하여 역습을 감행하게 되었다.

국군 제1사단 우전방의 화석동-적성 간의 방어를 담당한 13연대(연대장 김익렬)는 38선 경계 지역에 배치된 제3대대가 북한군과 접촉을 유지하며 철수하는 동안 제1대대 및 제2대대를 주저항선에 배치하였다. 제13연대 제1대대는 대대 기동훈련 기간 중 24일 밤을 문산초등학교의 자하리 분교 부근에서 야영하고 있었다. 대대는 25일 새벽 4시 30분에 고랑포 방면에서 들려오는 포성으로 북한군의 남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대는 각 중대에 주저항선의 준비된 지지를 점령하라고 명령한 뒤 탄약 추진을 연대본부에 요청하였다.

오전 8시를 전후에 제13연대장 김익렬 대령이 외출에서 귀대하자 작전주임은 그간의 상황을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연대장은 이를 사단장에게 보고한 뒤 주진지의 병력배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전주임을 대동하고 전방으로 이동했다. 오전 10시30분을 전후 1개 대대규모의 적이 제1대대 정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대대로 몰려오는 적에 대해 105mm 포탄과 81mm 박격포탄 사격을 집중하여 물리쳤다. 이날 오후 2시에 적 전차가 제1대대 앞 도로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36" 로켓포가 일제히 사격을 가하며 포탄이 전차에 명중하는 것을 보고 파괴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전차가 잠시 뒤에 다시 움직이더니 방향을 돌려 대대 좌일선에 배치된 제2중대 전방의 개석 동쪽으로 서진하는 것이었다.

공격에도 파괴되지 않는 적의 전차에 놀란 병사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군 전차를 저지하기로 결심한 제1대대장은 특공대 2개 분대를 엄선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박격포탄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특공대는 적 전차 궤도를 공격하여 5대의 전차를 파괴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대대규모의 적이 다시 덕현리와 개석동 북쪽의 무명고지 간에서 산개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에 대대는 연대의 지원포병인 제3포대와 제2포대 화력까지 지원받아 전 화력으로 이를 30분 만에 도로 북쪽으로 격퇴시켰다.

제1사단은 25일 저녁 육군본부의 증원 조치에 따라 보병학교 교도대대 및 사관학교 교도대대인 2개 대대로 편성된 서울특별연대를 증원 받아, 보병학교 교도대대를 제11연대에, 사관학교 교도대대를 제13연대에 배속하였다.

제1사단 제13연대 제1대대는 26일 오후 1시가 넘자 대대 우전방 도로변에 집결하고 있는 새로운 대대규모의 공격을 받았다. 대대는 81mm 박격포를 집중하였고 이어 금곡리에 포진한 105mm 곡사포가 포문을 열자, 적은 도처에 시체를 남긴 채 357고지로 패주하였다.

제2대대는 오후 2시 40분경 장파리로부터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중대규모의 적을 발견하고 기관총 화력을 적에게 집중하여 15분 만에 격퇴하였다. 그러나 20분 후인 오후 3시에 적의 일부 병력이 다시 장마루쪽으로 접근하고 주력이 교량 쪽으로 접근해 오자 저지사격을 집중하였다. 다음날 제2대대는 고랑포쪽에서 임진강을 도하한 대대규모 이상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날 아침부터 적은 장파리와 개석동 북쪽의 무명고지 간에 전개하여 제2대대지역에 사격을 집중하더니 수미상의 전차와 더불어 대대 중앙을 직접 공격하였다. 적 전차는 57mm 대전차포의 화력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였다. 이에 대전차포중대가 철수하고 적 전차가 박석고개까지 추격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적의 일부가 공격을 가해오자, 우일선 중대가 분산되면서 제1대대와와의 사이에 돌파구가 확대되고 말았다. 연대본부는 제3대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감행하도록 명령하였다. 밤사이에 몇 차례의 전투를 치른 제13연대는 진지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

제13연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1사단장은 제13연대의 퇴로마저 차단될 위협에 직면하자 병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철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고랑포로부터 문산포까지 하천선을 따라 이어지는 사단의 주저항선은 크고 작은 수개의 만곡부 때문에 적 수중에 들어가면 아군 퇴로가 차단되는 전술상의 취약점이 있었다. 이에 사단장은 최후저항선인 봉일천으로의 철수명령을 내리고 사단 전술 지휘소를 봉일천초등학교로 이동시켰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와 제13연대는 북한군 제1사단의 전면 공격을 방어하면서 반격을 개시하였고, 특히 선두에서 남하하던 적 전차를 제11연대는 특공대를 조직하여 5대나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지형상 사단의 주저항선의 퇴로 차단을 주시하던 사단장의 결심으로 제1사단은 금촌 북쪽 용산골에 최후저항선 진지를 보강함으로써 새로운 방어선을 금촌 동북쪽 8km 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①, 19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서부전선편』, 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②,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양원리-초성리 전투

[兩遠里-哨城里 戰鬪, 1950. 6. 25.]

### 개요

국군 제7사단 제1연대 제2대대가 1950년 6월 25일 연천 지역 인근 초성리와 양원리 일대에서 북한군 제4사단 예하 부대의 공격을 받아 방어한 경계진지 전투이다.

### 전개과정

연천-동두천 지역은 38선 북쪽의 연천 일대가 평탄하지만 그 이남 지역으로는 마차산(△588), 소요산(△535)을 비롯한 고지군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다. 이 지역에는 철원-연천-동두천-의정부-서울로 이어지는 3번 도로(경원도로)가 남북으로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북쪽에서 진격하는 공격부대에게는 유리하지만, 방어에는 불리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은 신망리-의정부 축선에 주공을 지향하고,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의 주공인 제16보병연대는 사단포병인 제2·제3포병대대, 독립공병대대, 2개 전차중대를, 조공인 제18보병연대는 제1포병대대, 1개 독립전차대대, 1개 독립 공병대대를 배속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4사단 정면의 38도선 경계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부대는 국군 제7사단 제1연대 제2대대였다. 제2대대는 사단 경계책임지역의 좌측인 중현산(588고지)-초성리-적성간의 21km에 달하는 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7사단 제1연대 제2대대장은 제6중대를 좌일선으로 양원리-적암 간에, 제7중대를 우일선으로 동두천 북쪽의 초성리 부근에 각각 배치하였고, 제5중대는 예비로 대대본부와 함께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연대 예비로 연대 내에서 교육훈련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 제4사단은 6월 25일 새벽 3시 40분경 국군 제1연대 방어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최초 포병 공격준비사격으로 시작된 북한군의 포격은 초성리와 양원리 일대에 집중되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30분 동안에 걸친 포병 공격준비사격으로 국군 제1연대의 경계진지인 적암-양원리-초성리를 연하는 지역 일대를 강타한 후, 제16연대를 선봉으로 전곡-동두천 간의 3번 도로를 따라 정면 공격을 실시하였다.

북한군은 대대규모의 병력으로 한탄강을 도하하여 국군 전초소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즉, 제16보병연대는 전곡에서 한탄강을 건너 초성리 방향으로 공격하고, 제18보병연대는 동이리(전곡 서쪽 6km) 부근에서 임진강을 건너 도감포-화방촌 간의 소로를 따라 공격했다. 또한 북한군 전차대는 3번 도로를 따라 초성역 쪽으로 공격해 왔다.

동두천에 위치한 대대본부에서는 북한군의 공격 상황을 보고받은 후 적의 주력이 초성리 방향으로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인 제5중대 1개 소대와 중화기소대(박격포 1개 반과 기관총 1개 반으로 편성)에 제7중대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새벽 4시 50분경 북한군 전차대의 선두가 초촌교 북쪽 500m까지 접근하고 있을 때 이들 지원부대가 초성역에 당도하였다. 초촌교를 넘어서는 북한군 전차대를 향해 국군은 기관총과 박격포 그리고 소총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전차는 피해를 거의 입지 않고 그대로 전차포 사격을 가하며 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초소대 병사들은 거의 전사하였고 몇 명만이 청산리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제7중대 우측에 있던 제6중대는 중대본부를 봉암리(동두천 서쪽 3km)에 두고, 이곳에서 8km 떨어진 전방 경계는 제2소대가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2소대는 양원리(초성리 서쪽 3.5km) 부근에서 북한군 제18연대의 선봉과 교전하였다.

제6중대장은 간파리 좌우측 구릉에 급편진지를 편성한 후 1시간 동안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펼쳤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중대장이 전사하고 병사들도 각개 분산하여 황방리(봉암리 북쪽 2km) 고개를 통해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7사단 제1연대 제2대대는 전차로 증강된 북한군 제4사단 병력과 교전에서 3시간 동안이나 경계진지를 지켜냄으로써 연대주력이 주저항선을 점령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였다. 제2대대는 주진지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기로 하고, 동막골-하봉암리 간에 저지진지를 급편하면서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며 차후 전투를 준비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동막동 전투

[同莫洞 戦闘, 1950. 6. 25.]

### 개요

국군 제7사단 제1연대가 1950년 6월 25일 주저항선인 동막동에서 북한군 제4사단 제

16연대의 공격을 받아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동막동은 38선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역으로 포천에서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3번 도로에 있다. 동막동 남쪽에는 양쪽으로 마차산과 소요산이 각각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공격하는 측에게는 유리하지만 방어에는 불리한 지형이다.

동막동 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한 북한군은 제4사단 제16연대로 제107전차연대 예하 2개 전차대대를 증원받아 3번 도로에 집중 투입되었다. 여기에 추가로 제203전차 연대 제3대대와 양의 포위를 위해 제5연대 1개 대대를 동원하였다.

이 지역의 국군은 제7사단 제1연대로 당시 연대본부 및 직할대는 의정부에, 제2대대는 38도선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제1대대 및 제3대대가 연대 예비로 연대 영내에 집결하여 주둔하고 있었다.

6·25전쟁 개전 당일 제7사단 제1연대 당직사령은 제1대대 제4중대장이었다. 그는 동두천의 제2대대 본부에서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난 후, 새벽 4시 20분에 연대장으로부터 “연대비상을 발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비상에 돌입한 연대는 주력의 출동태세를 갖추면서 우선 대기 중인 제3중대를 차량으로 동두천으로 급파하였다. 선두 부대가 동두천초등학교를 지나 초성리를 향해 북상하고 있을 때 2대의 전차를 선두로 하여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2열중대로 남하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오전 7시 10분경이었다. 제3중대는 산개하여 북한군 행군대열 선두에 집중 사격을 퍼부었으나 적의 보병과 전차의 화력에 의해 사상자가 속출하자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때 제3중대는 제2대대로부터 소요산으로의 이동 명령을 받고 소요산 입구의 능선에 재배치되었다.

제1연대는 제1대대(-1) 잔류병력 300명을 부대대장 인솔하에 동두천으로 이동시키고, 제3대대의 집결된 200명의 병력을 대대장(김황목 소령) 인솔하에 연대 좌일선인 봉암리로 출발시켰다. 사단에서는 제5포병대대 제2포대를 동두천으로 보내 연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제1대대(-)가 오전 9시에 동두천에 도착하였을 때, 동두천 시내까지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져 금융조합, 우편국, 역사(驛舍) 등이 파괴되고, 전선의 제2대대 진지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제5포병대대 제2포대는 09:30에 동두천에 도착한 즉시 주진지 남쪽 5km 지점의 보산리(동두천 북동쪽 2km) 부근에 화포 5문을 방열한 후 포병화력을 지원하였다. 정오경 북한군은 보전포 협동으로 3번 도로를 따라 전차 5~6대를 앞세워 진출하기 시작

하였다. 제2포대는 250여 발의 포사격으로 제2대대 방어 전면인 동막동 부근 3번 도로에 집중 사격을 가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때 국군 대전차포 중대는 창말고개에서 북한군 전차에 포격을 가해 전차 측면을 관통하여 전차 2대를 파괴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초성리 쪽으로 퇴각하였다.

제3대대는 25일 오전 11시에 봉암리에 도착 하자마자 마차산 서측으로 진격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오금동에 병력을 배치하였는데, 정오가 지날 때까지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대는 적이 전혀 기동을 하지 않자 간파리 부근에 위협사격을 가하면서 진지보강 작업을 실시하였다.

국군 제7사단 제1연대(-)는 북한군 제4사단 제16연대의 1차 공격을 격퇴하게 되었다. 오후 3시에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재차 공격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제203전차연대 제3대대의 일부 전차를 앞세우고 3번 도로를 따라 남진하였다. 동시에 북한군 제16연대 및 제5연대 1개 대대를 이용하여 동두천 좌우측에서 포위를 시도하였다.

주저항선인 소요산-마차산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고, 북한군이 동막동-소용동 간의 진지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국군은 동두천 시내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북한군 전차가 저녁이 되어 시내로 돌입하기 시작하자 국군 제7사단 제1연대의 장병들은 시가전까지 벌이며 저항하였으나, 연대장은 밤 10시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한편, 좌일선인 제3대대는 봉암리 전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저녁 6시에 10여 분 동안 집중포격으로 제3대대 진지를 강타한 다음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봉암리 뒷산의 252고지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결국 대대장은 밤 8시에 덕정으로의 철수를 명령했다. 이로써 연대는 개전 18시간 만에 동두천을 포기하고 덕정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7사단 제1연대는 동막동 지역에서 북한군 제4사단 제16연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측후방에서 국군을 협공하기 위해 2개 연대를 동원하여 우회 포위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에 제1연대는 결국 덕정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제1연대는 동두천 탈환을 위해 차기 전투를 준비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추동리-양문리 전투

[桴洞里-梁文里 戰鬪, 1950. 6. 25.]

### 개요

국군 제7사단 제9연대 제2대대가 6월 25일 북한군 주공집단인 제3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2개 전차연대를 맞아 포천지역의 38선 경계진지를 방어한 전투로 6·25전쟁의 최초 교전이다.

### 전개과정

포천 일대는 38선 북쪽에 해발 773m의 관음산을 정점으로 한 산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내리면서 점차로 고지의 높이가 낮아지는 북고남저(北高南底)의 야산 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역 내에는 철원-운천-포천-의정부로 이어지는 43번 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따라서 북쪽에서 진격하는 공격부대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방어에는 불리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의 전투대형은 2개 제대로 편성되었다. 제1제대인 제7보병연대와 조공인 제9보병연대이다. 제105전차여단의 제107전차연대는 주공연대인 제7연대를 후속하다가 전쟁 2일차에 포천-의정부-서울 동북쪽으로 진출하도록 하였고, 제109전차연대는 조공연대인 제9연대를 후속하다가 일동-서파-서울 동쪽으로 진출하여 신속히 한강상의 교량을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에 반해 국군 제7사단 제9연대(윤춘근 중령)는 추동리(포천 서북쪽 11km)-사직리(기산리 동북쪽 5km) 간의 26km의 책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9연대도 1개 대대가 38도선 경계를 담당하고, 2개 대대는 38도선에서 26km 후방에 연대본부가 위치한 금오리에서 소부대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2대대는 전쟁발발 2일 전인 6월 23일에 제3대대와 진지를 교대하였다. 제2대대는 본부를 포천에 두고 제6중대를 좌측 경계부대로 가양리와 추동리 지역에 배치하였다. 또한 제7중대를 우측 경계부대로 43번 도로와 38도선이 접하는 양문리 일대에 배치하였다.

북한군은 6월 25일 새벽 3시 40분을 전후하여 공격준비사격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좌측의 제6중대 지역에서는 추동리-가양리 지역이 집중 포격을 받았다. 우측의 제7중대 지역에서도 양문리 일대와 그 서쪽의 287고지 북쪽에 북한군의 포병화력이 집중되었다. 북한군의 30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으로 국군은 기관총진지를 제외한 모든 교통호

가 붕괴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국군의 방어체계를 화력으로 무너뜨린 북한군은 새벽 4시30분에 전차를 앞세워 공격해 왔다. 먼저 좌측의 제6중대 제3소대도 추동리에서 한 차례 교전을 하였다. 그러나 325번 도로를 따라 침공한 북한군 전차의 공격을 받고 붕괴되고 말았다. 이에 제6중대는 분산병력을 수습하여 무이산(포천 북쪽 7km)쪽으로 이동하였다. 우측의 제7중대 정면에서는 양중교(일명 삼팔교)를 통과한 북한군 전차 3대가 양문교 부근까지 진출하여 제1소대의 진지를 강타하였다. 그 결과 제7중대는 43번 도로를 북한군에게 빼앗기고 823고지 서쪽 능선으로 철수하여 분산병력을 수습하였다.

한편, 12km후방의 포천에 위치한 대대본부에서는 예비인 제5중대에게 북만세 좌우지역에 저지진지를 급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미 북한군이 양문교를 넘어 만세교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소총만으로 무장한 제5중대는 이를 저지할 수 없었다.

### 결과 및 영향

제7사단 제9연대 제2대대는 북만세 진지가 돌파된 후 퇴로가 차단되어 조직적인 철수를 하지 못하고 각개 분산된 채 남으로 이동하였다. 제2대대는 전투력을 거의 상실하여 후에 연대에 수용된 제2대대 병력은 겨우 30명에 불과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전차여단과 포병화력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없었던 것이 패전의 주요인이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만세교-포천 전투

[萬世橋-抱川 戰鬪, 1950. 6. 25. ~26.]

### 개요

국군 제7사단 제9연대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북한군 주공집단인 제3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2개 전차연대의 공격을 포천 일대에서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포천 일대는 북고남저의 야산 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43번 도로를 따라 의정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요충지로 축선상에는 만세교와 가랑산, 천주산의 종격실 사이로 이어지는 지역에 탄장리가 포천 시내로 연결된다.

운천 지역에서 포천 지역으로 이동 공격을 시작한 북한군은 제3사단으로 제7연대를 주공으로 제109전차연대 예하 2개 대대를 증원하여 43번 도로에 투입하였다. 제9연대를 조공으로 우회 공격하도록 하였고, 사단 예비로 제8연대를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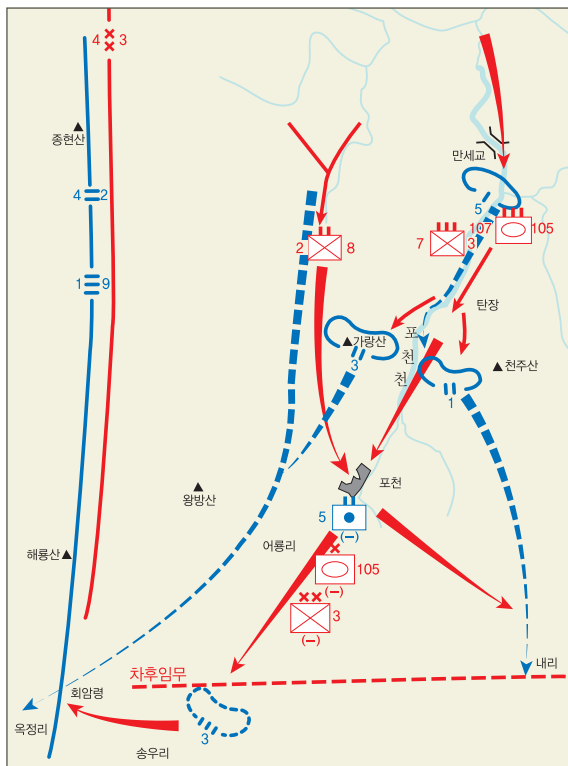
이에 맞서는 국군은 제7사단으로 의정부에 사단사령부를 두고 포천 지역의 방어에는 제9연대를 배치하였다. 제9연대는 연대본부를 의정부 북쪽 1km에 위치한 금오리에 두고 당시 1대대와 제3대대를 연대본부 영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9연대의 2대대가 경계진지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격에 돌파당한 이후인 25일 오전 9시에 연대 주력이 주둔지를 출발하게 되었고, 연대에서 급파된 대전차포 중대(-)가 만세교에 도착했다. 3문의 대전차포를 인솔해 온 대전차포 중대장은 만세교 남쪽 20m

의 도로변에 대전차포를 방열하였다. 대전차포 중대장은 북한군 전차가 50m 전방까지 오기를 기다렸다가 첫 탄을 발사하여 명중시켰다. 그러나 전차는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대전차포진지에 대해 전차포 사격을 가하며 계속 공격해 왔다.

북한군 전차가 만세교를 지나 포천 방향으로 진출하자 이번에는 신대(탄장 북쪽 2.5km, 현 새터) 부근에 잠복해 있던 2.36인치 로켓포 특공대가 선두에 나타난 적 전차 2대에 공격을 가했다. 그러나 전차는 파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전차의 기관총 사격으로 국군은 피해만 입게 되었다.

제1대대(-2)는 새벽 5시경에



비상과 함께 출동준비를 신속히 갖추었다. 제1대대(-2)는 포천을 지나 만세교로 북상하여 탄장 북쪽 1km 지점의 내촌리 부근에 이르렀다. 제1대대(-2)는 제3중대를 219고지(탄장 동북쪽 1.5km) 서쪽에 매복하고, 1개 박격포반을 그 서쪽 계곡에 방열시켰다. 그 후 벌말(포천 북쪽 5km) 부근에서 보병의 엄호도 받지 않고 북한군 전차 2대가 제3중대 방어정면으로 접근함에 따라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공격하였다. 이에 적 전차는 더 이상 진출하지 않고 몇 차례 기총사격을 한 후 만세교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제1대대장은 25일 아침 전공을 세운 제3중대에서 1개 소대를 선발하여 219고지 서쪽에 배치하여 전초부대로 운용하였다. 제1대대(-2)는 천주산(424고지) 서쪽의 195고지 일대의 주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제3대대(대대장 이철원 소령)도 도착하였다. 제3대대는 바로 신북대교 서측의 가랑산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제9중대(중대장 최규관 중위)를 좌측 제일선으로 북쪽 산기슭에, 제10중대(중대장 임운선 중위)를 우측 제일선으로 동쪽 산기슭에 배치하였다.

오전 10시 반경에 북한군은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3사단 제7연대(연대장 대좌 김창봉)가 43번 도로를 따라 정면공격을 실시하였다. 제3사단 제9연대는 1개 대대를 서측의 325번 도로로 우회시켜 포천을 양의포위로 점령하고자 하였다.

국군 제7사단 제9연대(-)는 43번 도로 양측방의 천주산과 가랑산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선두 전차 8대를 포함하여 북한군 전차는 차량을 후속하며 내려오고 있었다. 선두 전차가 신북대교 부근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 매복해 있던 제3대대 제10중대 로켓포 사수가 제1탄을 발사하여 궤도에 명중시켰다. 그러나 북한군 전차중대는 멈춰선 선두차를 관개수로 밀어버리고 전차포 사격으로 로켓포 진지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신북대교를 통과하여 연대 주저항선의 중앙 지대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북한군은 국군의 보병화력이나 105mm 포병사격에도 끄덕하지 않고 포천으로 직행하였다.

국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북한군 기계화부대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오전 11시에 포천을 점령하였다. 적의 기계화부대가 국군의 주저항선을 통과한 지 1시간 후에 보병부대가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보병부대들은 국군 제9연대 제1대대 진지에 박격포로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43번 도로를 따라 2열중대로 진격해 왔다.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포천 북쪽 4km의 탄장 지역에 들어오자 주변 고지에서 준비하고 있던 제1대대는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철수한 북한군은 정오에 다시 전차를 앞세우고 재공격을 감행하였다. 전차의 엄호 하에 북한군 보병 주력이 오후 2시에 신북교를 통과함으로써 연대 주저항선은 무너지고 말았다.

## 전과 및 영향

제9연대는 포천정면에서 열세한 전력으로 인해 북한군 제3사단 및 제105전차여단과 교전 끝에 분산되어 전투력을 거의 상실하고 제1대대(-2)만이 겨우 의정부로 철수하였다. 연대본부와 제1대대는 의정부가 이미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져 국군이 창동선으로 철수함에 따라 다시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26일 밤에 육군사관학교에 집결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송우리 전투

[松隅里 戰鬪, 1950. 6. 25.~26.]

### 개요

국군 제7사단 제3연대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북한군 제3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2개 전차연대의 공격을 송우리에서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송우리는 서쪽으로 천보산맥의 회암령을 넘어 동두천 가도의 덕정과 황으로 연결되는 요충지였다.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하면 8km 후방의 축석령 사이에 방어를 할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국군은 태봉산(△182)과 해룡산 동남쪽의 178고지를 방패삼아 이곳에서 적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송우리 지역으로 공격하여 의정부 방면으로 공격을 지향한 북한군은 제3사단과 제105전차 여단의 제107 및 제109전차연대였다.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 포천 지역에 급파된 국군은 수도경비사령부의 제3연대였다.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는 원래 제7사단의 예속부대로서 전쟁 발발 10일 전까지 사단 예비였다. 그러나 육본 일반명령 제43호에 의해 6월 15일부로 예속이 변경되어 수도경비사령부로 배속되었다. 하지만 북한군의 전면 남침에 따라 육군본부에서 육본 작전명령 제85호를 발령하여 제3연대를 제7사단 예하로 예속을 변경하여 이 지역에 급파하도록

하였다.

출동할 당시 제3연대(-)는 장병 대부분이 주말 외출 중이거나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우선 1개 대대를 혼성 편성하게 되었다. 제3연대(-)는 오후 12시 반경에 징발차량 20대에 분승하여 서울 서빙고의 연대본부를 출발하여 오후 2시에 의정부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제9연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탄장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이미 제9연대의 주저항선이 무너져 적의 도보부대가 탄장을 통과한 지 1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이 3시간 전에 포천을 점령한 후였다. 연대장은 3시 30분경 수색소대장으로부터 어룡동(포천 남쪽 3km) 부근에 적 전차가 나타났다고 보고를 받고 연대(-)로 하여금 3km 후방인 송우리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연대(-)는 송우교를 중심으로 좌우 측방에 각각 2개 중대씩 배치하고, 혼성 제11중대는 43번 도로를 포함한 중앙 지역에 배치하였다. 제3연대(-)는 중대가 혼합 편성되고 대전차 방어책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등 방어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오후 5시경 제3연대(-)가 구축한 진지 전방의 도로상에 적 기계화부대가 나타나자 제3연대(-)의 진지에서 일제히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적 기계화부대는 계속 아군의 방어지대로 진격해오며 선두에선 전차 2대가 장승거리 부근에 멈추어 서면서 제3대대 관측소에 전차포 사격을 하였다. 이어 적 전차 8대가 이에 가세하여 포격과 기총으로 양대대의 진지를 위협하였다. 특히 중화기 진지에는 적의 포격이 집중되어 아군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제3연대(-) 진지에서는 57mm 대전차포로 적 전차에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적의 화력에 무너지고 말았다. 제3연대는 송우리 방어진지가 적 전차에 의해 돌파되자 후미의 보병만이라도 격멸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적의 보병이 전차와 협동으로 공격해오자 제3연대(-)의 방어진지가 무너지게 되었고 병력은 분산되고 말았다. 이에 각 대대는 철수명령을 받고 의정부 방향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7사단 제3연대는 송우리에서 북한군 제3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남진을 저지하였지만 전력의 열세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채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제3연대의 송우리 방어선이 무너짐으로써 포천 지역은 무인지대가 되어 의정부 동북쪽의 방어가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제3연대의 송우리 전투는 부대 건제를 유지한 지휘 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전례를 남겨 놓았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①,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②,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내촌 전투

[內村 戰鬪, 1950. 6. 25.~26.]

### 개요

육사 생도대대가 1950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내촌면 부근에서 포천을 점령하고 내촌면 부근으로 진출한 북한군 제3사단 제9연대를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내촌면 내리 부근은 송우리에서 내촌까지 연결되는 325번 도로와 기산리에서 서파를 지나 퇴계원에 이르는 391번 도로상의 분기점의 요지이며, 내촌 북쪽의 312고지는 두 도로와 내촌을 감제하는 중요 지형이다. 이 지역은 적이 점령하면 퇴계원, 태릉방면으로 진출하여 동북방에 접근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당시 북한군은 포천을 지나 서파를 우회하여 내촌으로 공격하던 제3사단 제9연대였다. 한편, 이 지역에 투입된 부대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구성된 생도대대와 수도경찰국 산하의 별동대인 전투경찰대대였다.

포천과 동두천, 그리고 의정부 부근에서 치열한 교전이 거듭되는 동안 의정부 동측방의 391번 도로상의 내촌면과 진접면 일대는 완전히 방어의 공백 상태로 남아 있었다. 채병덕 총참모장은 6월 25일 오전 10시에 의정부 전황을 확인한 후 제3연대를 제7사단에 배속하도록 명령하면서 재경 지역에 있는 각 군사학교의 기간병력으로 하여금 수도경비에 임하도록 하였다.

육군사관학교장은 총참모장의 명령을 받은 후 사관학교 교무처장을 대대장으로 임명하여 생도대대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육군사관학교에는 임관을 2주일 앞둔 생도 제1기생 263명과 입교한 지 불과 25일밖에 되지 않은 생도 제2기생 334명 등 총 597명이 있었다.

전투편성을 마친 생도대대는 25일 오후 4시에 학교 본부에서 징발한 민간 차량을 이용

하여 기산리 방향으로 출동하였다. 생도대대는 391번 도로와 326번 도로가 맞닿은 “Y” 자형 교차로 남쪽고지(372고지)에 진지를 급편 방어하게 되었다. 6월 25일 밤을 372고지에서 철야 경계태세로 보낸 육사 생도대대는 다음 날인 26일 날이 밝아오자 진지작업을 서둘러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날 오전 6시경 서울시경 경찰대대 병력 300명이 이곳에 도착하였다. 개인화기는 일본제 99식 소총과 칼빈 소총으로 휴대 실탄은 개인당 10~15발이었고, 중화기는 보유하지 않았다. 생도대대장은 경찰대대에게 372고지 동북쪽의 330고지를 점령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생도대대와 경찰대대는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6일 오후 4시경 북한군 제3사단 제9연대의 대대규모 부대가 국사봉(△547) 남쪽으로 우회 기동하여 내리 북쪽에 배치된 경찰대대 방어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경찰대대와 적과의 교전은 10분 만에 경찰병력이 330고지 남쪽의 음현리 부근으로 철수하며 끝났다. 경찰대대를 물리친 북한군은 이어서 생도대대의 방어정면으로 공격해 왔다.

북한군이 82mm 박격포와 45mm 대전차포 및 기관총의 엄호를 받으며 내리 서남쪽의 개활지를 횡단하여 공격하자, 생도대대는 전 화력으로 집중사격을 가해 북한군에게 많은 손실을 입혔다. 오후 6시경 적이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여 동서 양 측방의 산기슭으로 은밀히 접근한 후 생도대대의 좌우 양 측면으로 재공격을 감행하였다.

생도대대는 총검을 휘두르며 백병전을 벌이는 등 치열한 혈투 속에서 진지를 사수하였다. 하지만 학교본부로 철수하라는 육군사관학교장의 명령으로 생도대대는 적과 접촉한 상황에서 오후 7시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밤 9시경 학교본부로 집결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육사 생도대대가 전투부대로 편성된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투준비태세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긴 하였으나, 비교적 신속하게 전투편성을 마치고 내촌 전투에 출동하였다. 또한 내촌 지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소화기 수준이나마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27일 생도대대는 제9연대와 함께 불암산 일대에 배치되어 미아리-태릉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Ⅱ,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②,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옥산포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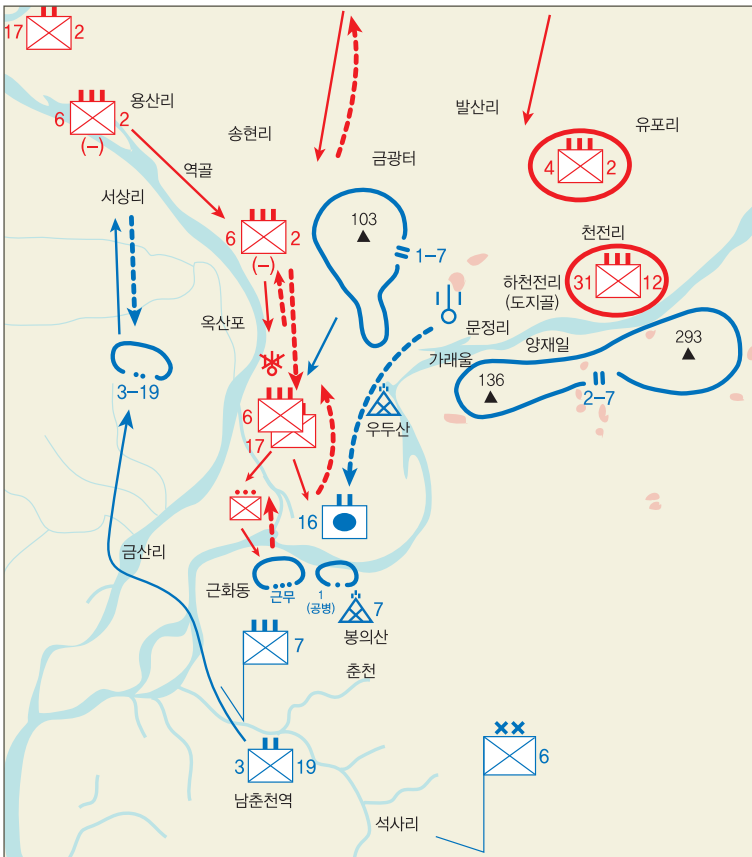
[玉山浦 戰鬪, 1950. 6. 25.]

### 개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1950년 6월 25일 경계진지를 돌파하고 내려오는 북한군 제2사단 제6연대를 맞아 5번 도로상의 옥산포 지역에서 격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옥산포는 춘천 북쪽 5km에 위치한 북한강 상의 작은 포구로 5번 도로를 따라 화천에서 춘천호를 거쳐 춘천으로 내려오는 길목의 요충지이다. 강 하류를 따라가면 소양강과 합류하는 중도섬이 있다. 북쪽에서 기계화부대가 접근하기 좋은 교통로로써 5번 도로는



춘천을 공략하여 가평으로 진출하기 위한 우회로의 입지를 갖고 있다.

경계진지에서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옥산포 지역으로 남하하는 북한군은 제2사단 제6보병연대였다. 제6연대에는 대전차포대 제2중대와 공병대대 제2중대가 배속되었고, 포병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 자주포대대의 지원을 받았다.

옥산포 지역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부대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였다. 제7연대는 보병 3개 대대와 대전차포중대가 편성되었고, 제16야전포병대대와 사단공병대대 1개 중대가 배속되었다.

국군 제7연대의 경계진지를 돌파한 북한군 제6연대(-)는 SU-76 자주포를 앞세우고 5번 도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7연대 57mm 대전차포 중대장은 제2소대를 속칭 모테이버루 도선장(용산리 남쪽 1.5km)으로 급파하였다.

오전 9시 경 포 방렬을 마친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는 2발의 포탄을 발사하여 북한군 자주포에 모두 명중시켰으나, 자주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밀고 내려오며 따라 대전차포를 거두어 작전계획상 제2진지인 옥산포에 재배치였다.

한편, 정오에 용산리(한계울 부근)를 통과한 북한군의 주력이 넓은 보리밭에 나타나자 제7연대 제1대대장(김용배 소령)은 사격개시 명령을 내렸고, 보·포 협동으로 일제 사격을 가한 후 역습을 실시했다. 불시에 협격을 받은 적은 많은 시체를 남겨놓고 도주하였다.

병력 손실을 입고 북쪽으로 퇴각한 북한군은 이날 오후 2시 경 자주포 10대를 앞세우고 다시 옥산포로 공격해 들어왔다. 이때 모테이버루 도선장에서 옥산포로 철수하여 포를 방렬하고 있던 57mm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는 적 자주포가 대전차포 사거리 내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2소대장(심일 중위)는 적 자주포에 대한 대전차 육박공격을 결정하였다. 자주포가 가까이 다가오자, 57mm 대전차포로 SU-76 자주포(직사포)의 캐터필러를 타격하여 정지시켰다. 그런 다음 특공조가 준비한 휘발유병과 수류탄으로 적 자주포 3대를 파괴하였다. 이어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는 자주포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려던 승무원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뒤따르고 있던 적 자주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자 서원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옥산포 전투의 성과로 제7연대는 소양강 남안 진지로 철수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었다. 옥산포에서 북한군 자주포를 격퇴한 제7연대는 가래모기에서 전투를 거친 후 최후저항선인 소양강 남안에서 차후 전투를 준비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어론리 전투

[於論里 戰鬪, 1950. 6. 25.~26.]

### 개요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1950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홍천북방 어론리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을 맞아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홍천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술적으로 중요하며, 인제-홍천-서울 간 44번 도로와 춘천-홍천-원주를 연결하는 5번 도로, 그리고 인제-현리-홍천을 잇는 451번 도로가 모두 통과한다. 어론리는 38도선에서 9Km 남쪽에 위치하며 44번 도로를 따라 자은리를 거쳐 홍천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홍천 지역으로 남침 공격하는 북한군은 제12사단으로 이들은 중공군 중남군구 독립 15사 소속의 조선족부대가 모체로서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 경위중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고속기동부대로 편성된 제603모터사이클 연대가 제12사단을 후속하고 있었다.

어론리 지역에 배치된 국군은 제6사단 제2연대로서 예하에 3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8연대 대전차포중대와 연대 헌병대가 부대교대와 더불어 제2연대로 예속 변경되었다.

북한군 제12사단은 6월 25일 새벽 4시경 국군 제2연대의 방어지역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 제32연대가 국군 제2연대 제1대대 제1중대의 방어정면인 응봉산-부소현 선에서 각종 포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가해왔다. 아울러 북한군 제12사단 제30연대 또한 하수내리-막장골을 통해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국군 제1대대 제2중대와 교전이 전개되었다. 대대는 모든 화기를 동원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1차 공격이 실패한 후 아군 진지에 대해 포격을 재개한 다음 다시 소양강 도하를 시도하였다. 결국 그들의 강력한 공격에 진지가 돌파됨에 따라 제1중대는

어론리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연대는 자은리로 연대전술지휘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방으로부터 철수하는 낙오병을 수습하였다.

경계진지를 돌파한 북한군은 자주포를 선두로 공격을 재개하였으며,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제1대대는 11:50부터 이들과 교전을 전개하였다. 어론리 북쪽 2km 지점에 배치된 로켓포 및 대전차포는 일제히 포구를 열어 보병의 공격을 지원하였으며, 불의의 기습적인 포 공격을 받은 북한군은 자주포 2대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고 사치리 북쪽 1km 지점까지 철수하였다.

제1대대는 철수와 전진을 반복하면서 치열한 격전을 계속하였지만 역부족으로 어론리 일대의 방어진지로부터 부대를 철수하여 자은리에 집결하였다. 국군 제6사단 제2연대장(함병선 중령)은 제1대대의 전황이 악화되자 제2대대로 하여금 자은리 북쪽 2km 지점인 어구촌의 양쪽 능선에 방어태세를 갖추고 제1대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2연대는 주진지로 철수하기로 하고 제3대대를 자은리에 제1대대를 연대의 좌일선으로 배치하였다.

제2연대장은 연대병력을 동원하여 자은리에서 반격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6월 26일 새벽 6시를 기해 공격을 개시했다. 제1대대는 가마봉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한편, 제2대대 또한 연대의 반격계획에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선제 포격에 공격이 둔화되었다.

북한군은 제1대대의 공격에 맞서 오전 11시에 대대가 점령한 고지에 대한 포격을 집중하였다. 동시에 자주포 2대를 앞세워 제1대대와 제2대대의 전투지경선을 뚫고 침공해 오자, 연대장은 주진지로 철수할 것을 각 대대장에게 명령하였다. 결국 연대는 오후 2시 철수를 개시하여 북창-한계리 선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자은리선에서 제1대대와 제2대대가 북한군의 압도적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자 제6사단 제2연대는 한계리에서 재편성을 하고 말고개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전술적 배치를 서둘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현리 521고지 전투

[縣理 521高地 戰鬪, 1950. 6. 25.]

### 개요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제3대대가 1950년 6월 25일 38선 접경인 현리에서 북한군 제38경비 제1여단 예하의 4개대대 병력의 공격을 맞아 치른 전투이다.

###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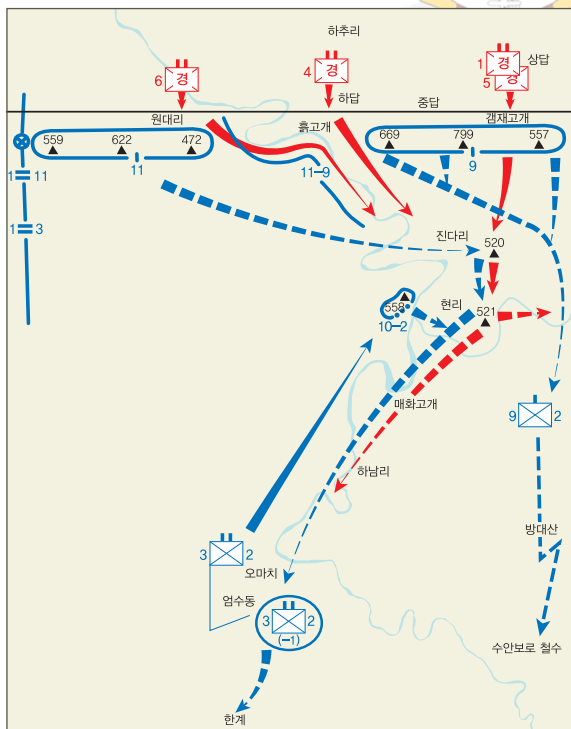
451번 도로가 통과하는 현리는 인제에서 홍천으로 가는 길목으로 453번 도로가 교차되어 지나간다. 38도선 남쪽 1km에는 접근로의 요충지인 흘고개가 있다.

동해 연안의 소로를 따라 진격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북한군은 38경비 제1여단(제1경비여단) 예하의 제1, 제4, 제5, 제6대대 병력이었다. 북한군은 현리정면에는 전차와 자주포를 투입하지 않고 보포협동으로 공격해왔다.

당시 현리 지역의 방어전을 전개하던 부대는 제6사단 제2연대 제3대대로 25일 개전 직

후 제3대대는 자은리로 집결하여 연대의 예비로 대기 중이었다. 현리 동북쪽 9km에 위치한 789고지로부터 관대리 동북쪽 8km 지점의 오목골간을 방어하고 있던 제2연대 제3대대는 6월 25일 새벽 4시에 연대장으로부터 전투태세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5시 30분에 이르러 각종 포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이 하답 부근으로 침입하여 제3대대 제9중대 정면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북한군의 공세가 강력해지자 제3대대장(이운산 소령)은 현리선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기로 하였다.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10중대와 제11중대는 강력히 저



항하는 소규모의 적과 교전을 전개하여 이를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대대는 오후 1시 20분에 적 2개 대대의 공격을 받고 교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병력 부족으로 대대는 대대장의 구두명령에 의하여 오후 3시에 철수를 개시하였다.

한계리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3대대장은 26일 새벽 4시에 통신이 두절된 제9중대를 제외한 대대(-1)를 도보로, 부상병과 보급품은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통신망이 두절되었던 제9중대는 철수를 개시하여 방대산을 경유 사단 우익의 제8사단 제10연대의 철수병력과 함께 수안보에 이르러 병력을 유지한 채 대대에 흡수되었다.

### 결과 및 영향

한계리에 도착한 대대는 연대의 좌일선으로 진입하여 293고지-381고지간의 방어임무를 부여받았다. 이후 제3대대는 제2연대의 최후저항선 전투인 말고개 전투에 연대의 좌측선에 배치되어 참가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잔교리-정족산 전투

[棧橋里-鼎足山 戰鬪, 1950. 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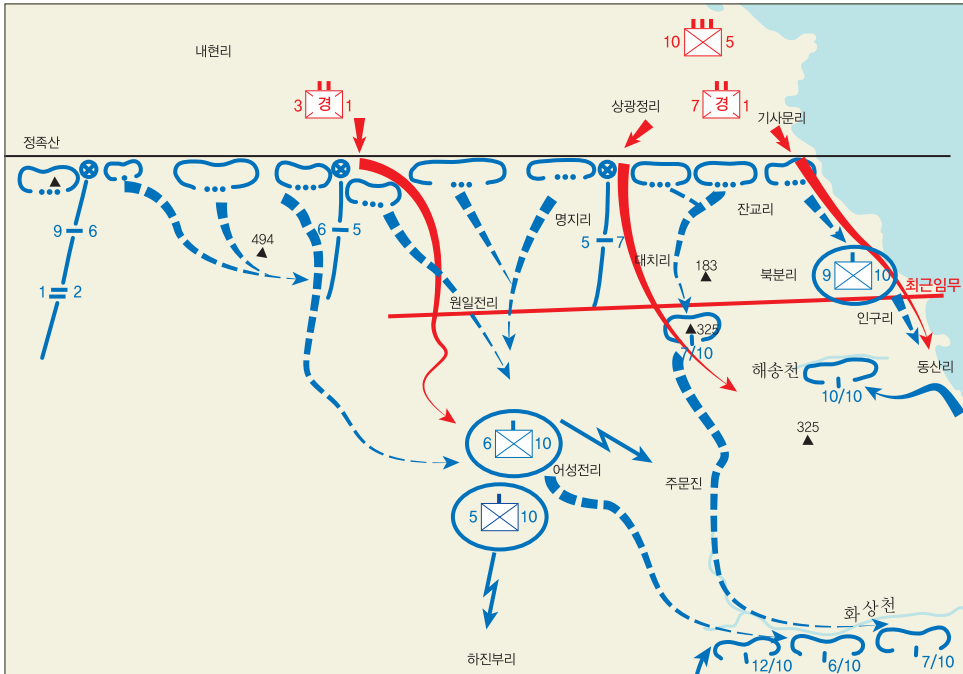
### 개요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 제1, 2대대가 1950년 6월 25일 38선 접경 잔교리와 정족산에서 침투하는 북한군 제1경비여단을 맞아 방어전을 전개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강원도 동부 지역은 해안선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험준한 산악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 내의 주요 작전로는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연해 있는 7번 도로와 연곡에서 진부로 횡단하며 태백산 줄기를 횡단하여 서울로 이어지는 6번 도로이다.

잔교리와 정족산으로 침투하는 북한군 공격부대는 제1경비여단으로 예하에 7개 보병



대대와 45mm 대전차포 중대로 구성되어 있고, 제5사단의 제10연대가 배속되었다. 제1 경비여단은 전투대형을 2개 제대로 편성하고 주문진-강릉 축선에 주공을 지향하였다.

제1경비여단의 정면에서 방어중인 부대는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의 제1·제2대대였다. 고근홍 중령이 지휘하는 제10연대는 강릉비행장에 연대본부를 두고 연대 좌일선으로 제1대대, 우일선으로 제2대대를 배치하고 연대 예비로 3대대를 강릉비행장에 주둔시켰다.

연대 우일선으로서 38선 경계임무를 담당한 제2대대는 주문진에 대대본부를 두고 제6중대, 제5중대, 제7중대를 순으로 좌일선으로부터 우일선에 배치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 제1경비여단의 주공이 주문진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 우일선으로 동해안의 잔교리에서 정족산에 이르는 정면을 담당한 제2대대의 제6, 제5, 제7중대는 적의 급습을 받았다. 제2대대본부는 새벽 4시 35분에 인구리의 제7중대 장으로부터 적의 공격 소식을 보고받았다.

대대장은 제10중대를 인구리로 출동시키면서 경계진지에서 분산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북쪽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제10중대의 역할은 경계진지에서 분산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주문진 북쪽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제5, 제6중대도 제7중대 정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지선이 붕괴되어 철수 중일 것으로 판단한 대대장은

제7중대에게 인구리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제10중대에게 286고지(북분리 남쪽 2.5km)를 확보하여 제5, 제6중대의 철수를 엄호하며 반격거점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였다.

제10중대는 기관총소대의 사격과 함께 죽리에서 294고지를 향해 반격하였으나 적의 직사포화에 의해 더 이상 진출이 불가능하였다. 이때 연대로부터 제2대대장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지자 제2대대는 주문진으로 이동하였다.

오전 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적은 직사포 2문을 북분리 고지에 추진시켜 인구리와 제10중대의 진지선을 향해 포격을 가하며 공격하자 제2대대장(조원영 소령)은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해 병력을 대대 주저항선인 화상천으로 철수시켰다.

정족산에서 진흥동까지 12km에 이르는 정면을 담당한 제1대대 지역에서는 북한의 제1경비여단 제2보병대대가 서림리의 제9중대 정면을 돌파해 산간계곡을 따라 구룡령으로 급진하였다. 제9중대는 중대본부를 하서림에 두고 제3소대를 좌, 제1소대를 중앙, 그리고 제2소대를 우로 하여 38도선 경계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38도선 경계위주의 거점을 확보한 제3소대와 중대본부에서는 적과 일진일퇴의 혈전을 벌였으나 곧이어 포위 공격하는 적에게 밀리기 시작하여 결국 분산된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 결과 및 영향

사단장(이성가 대령)의 명령으로 제10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사단 방어계획에 따라 각각 주저항선인 광원리와 연곡천으로 이동하여 진지점령을 한 이후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연곡천 전투

[連谷川 戦闘, 1950. 6. 25. ~26.]

### 개요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가 주저항선인 1950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연곡천에서 제18포병대대와 함께 북한군 제1경비여단 및 제5사단 제10연대의 공격을 받아 방어전을 전개하며 대관령으로 철수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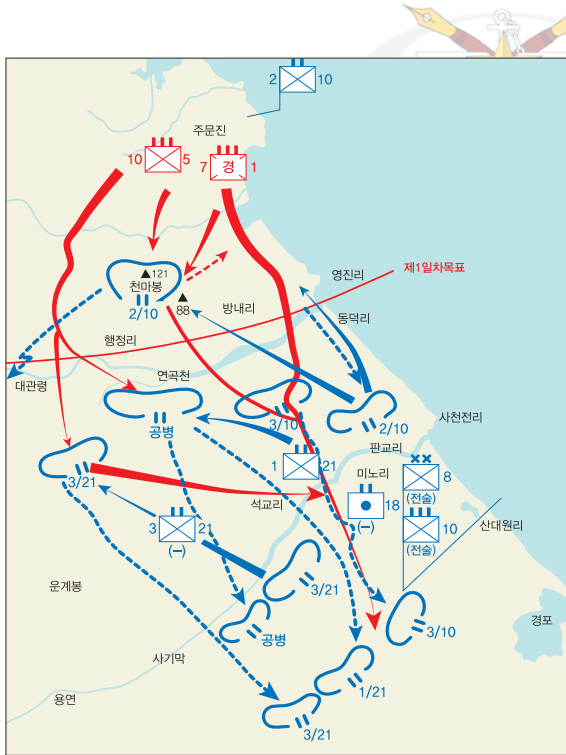
## 전개과정

연곡천은 제8사단 10연대의 주저항선으로, 연곡천은 오대산을 상류 지역으로 하여 서에서 동으로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평창군의 진고개에서 시작하는 이 하천은 북동쪽으로 이어져 주문진 방향으로 흐른다.

연곡천 지역으로 공격한 북한군은 제1경비여단 산하 7개 대대와 제2제대인 제5사단 제10연대였다. 이러한 북한군의 공격에 방어전을 전개한 국군은 제8사단 제10연대 제2대대를 주축으로 제18포병대대가 포격을 지원하였고, 사단 공병대대가 예비대대로 지원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밤 11시에 인구리에서 철수한 제10연대 제2대대는 연곡천 남안의 주저항선에 진입하였다. 제2대대가 연곡천을 도하할 당시에 주저항선에는 이미 제3대대의 제12중대와 사단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한 사단 예비대대가 배치 완료된 상태였다. 또한 제18포병대대의 제1포대가 석교리에, 제2포대가 미노리의 사천초등학교에 각각 포진하여 결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제10연대 제2대대가 인구리로 철수를 시작할 무렵 제18포병대대에는 사단장으로부터 사천선 진출 명령이 하달되었다. 제18포병대대는 저녁 8시 40분에 제10연대 제2대대가



연곡천의 주저항선으로 철수를 개시하자 일제히 포문을 열어 이를 엄호하였다. 또한 자정 무렵부터는 주문진으로 포격을 집중하여 적의 공격을 견제하였다.

사단은 공병대대를 주축으로 예비대대를 급편하였다. 26일 오전 8시부터 수류탄 투척법을 훈련 중이던 사단 예비대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1·제3중대가 연곡천의 주저항선으로 출동하여 연곡천 남안의 능선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주저항선으로 이동해 온 제10연대 57mm 대전차포중대와 삼척에서 북상한 제21연대 57mm 대전차포중대가 동해가도 좌우측

능선에 포진하였다. 26일 오후 1시에 1개 분대규모의 적 정찰대가 방내리로 공격을 감행한 것을 신호로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적의 포 사격이 개시되어 피아간에 치열한 포격전이 전개되었다. 포격 간에 1개 소대규모의 적 기병대가 해안선으로 우회하여 동덕리 부근까지 공격해 왔으나 아군의 81mm 박격포 사격과 제7중대의 반격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주문진으로부터 계속 남하한 적이 영진리-방내리에 이르는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자 제10연대장(고근홍 중령)은 제2대대에게 이를 격퇴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제2대대장(조원영 소령)은 저녁 8시경 제7, 제10중대에게 공격을 감행하게 하였다. 양 중대는 포병과 57mm 대전차포, 그리고 박격포의 엄호사격 아래 연곡천을 건너 공격을 개시하여 밤 9시에 영진리를 점령하고 33고지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적이 직사포 사격을 집중하면서 방내리 방면에서 역습을 감행하여 일진일퇴의 격전 끝에 철수하였다.

단독으로라도 반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사단장 이성이 대령의 명령에 따라 제10연대장은 제2대대장에게 적이 점령한 천마봉(△121)을 탈취하고 주문진 공격의 거점을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연대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제2대대는 영진리로부터 돌아와 밤 11시에 연곡천 남안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또다시 공격을 감행하여 27일 새벽 1시에 천마봉을 무혈점령하였다.

27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은 제1경비여단의 제2제대인 제5사단 제10연대를 투입해 공격을 가하였다. 제10연대 제2대대는 적 포화에 큰 타격을 받았으나 전 화력을 집중하면서 진내로 침입하는 북한군과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천마봉의 제2대대는 후속하는 북한군이 점차 증가하자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포위망을 뚫으면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북한군의 추격으로 인해 제10연대 제2대대는 병력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분산된 채 철수해 27일 저녁 대관령에서 병력을 재편성하였다. 제18포병대대 역시 포병사격을 전개하며 제10연대 제2대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27일 오후 1시에 오죽헌을 거쳐 보병과 함께 대관령으로 철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광원리 전투

[廣院里 戰鬪, 1950. 6. 25.~26.]

### 개요

제8사단 제10연대 제1대대가 주저항선인 광원리에서 북한군 제1경비여단 제2대대를 맞아 방어전을 전개하며 철수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홍천군 내면 광원리는 오대산 자락에 위치하며 내린천의 발원지로서 38선 경계진지인 정족산과 서림리로부터 능선을 따라 영월로 가는 중간 길목에 있다. 광원리는 제10연대의 주저항선이었다.

정족산-서림리의 38선 경계진지에서 광원리로 공격하는 북한군은 제1경비여단 제2대대이고, 이를 방어하는 국군은 제8사단 제10연대 제1대대였다.

제1대대 지역에서 적의 침공 사실이 대대본부에 보고된 것은 오전 8시경이었다. 전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제1대대장은 오대산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전개 중이던 제3중대를 긴급 소집하여 광원리의 주진지를 점령하도록 했다. 그리고 적과의 일전을 결심하고 광원리의 주민과 군인가족을 진부리로 철수시켰다. 오후 1시 제1대대는 주저항선 진지를 점령하였다.

계방천 남안의 주진지를 점령하고 결전태세를 갖춘 제1대대는 연대 및 사단과 통신이 두절된 채 강릉 방향의 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5일 밤을 보냈다. 26일 오전 9시가 되자 청도리로 남하한 1개 대대규모의 적이 공격을 개시하였다. 유리한 지형적인 조건과 앞서 구축한 일부 진지가 큰 역할을 하여 오후 3시까지 세 차례나 거듭된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주진지를 확보하였다. 한편, 우탄리에 배치된 좌일선의 제11중대에는 적의 공격이 없어 개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었다.

광원리의 주진지에는 26일 저녁 8시에 연대로부터 연락장교가 도착하여 예비진지로의 철수명령을 전달함으로써 대대는 운두령으로 축차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 결과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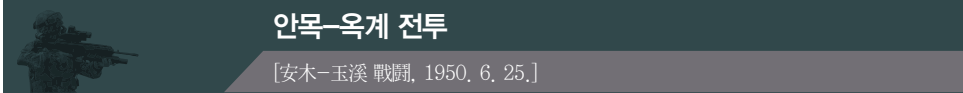
광원리 방어선을 고수하던 제10연대 제1대대는 운두령을 거쳐 하진부리로 철수하였다가 유천리로 나가 분산되었던 주력과 합류하였다. 우탄리에 주둔중인 제11중대의 철수를 위해 대대장은 특공대를 편성하여 제11중대를 단양으로 철수시키고, 이후 대대는 영월을

거처 제천까지 철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이상호 집필】



#### 개요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와 제21연대의 병력이 동해안의 안목과 옥계 지역에 상륙한 북한군 제766부대와 제945부대를 저지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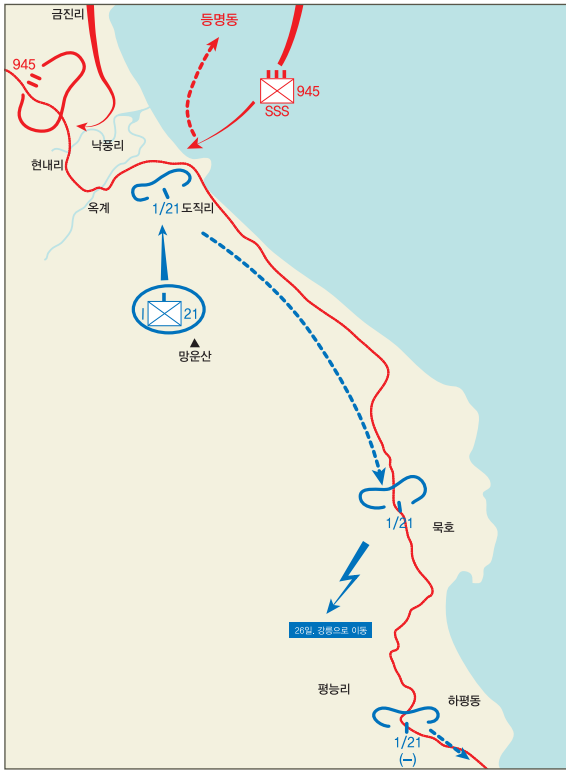
동해안 지역은 특별히 군대에 의한 경계 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도처에 적의 상륙이 가능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정동진은 강릉에 인접한 해안으로 4km 남쪽에 옥계가 있으며, 임원진은 삼척과 울진의 중간에 있다.

북한군 제766부대는 유격부대로서 3개 보병대대, 포병대대, 통신대대로 편성되었고, 이중 2대 대대가 상륙부대였다. 북한 해군의 제945육전대는 3개의 상륙보병대대와 1개 통신 중대, 1개 후방근무대로 편성되었다. 두 부대의 병력은 약 3,000여 명이었다. 이들의 상륙부대에 맞서 전투를 전개한 국군 부대는 제8사단 제10연대와 제21연대의 일부 병력이었다.

북한군 제766부대는 6월 25일 새벽 3시경 주문진 앞바다를 통과하여 오전 7시 삼척 남쪽 임원진 부근으로 상륙하였다. 일부는 태백산맥으로 침투하고, 일부는 삼척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육전대인 제945부대는 1개 중대가 새벽 3시경 정동진 해안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1개 대대규모가 강릉을 목표로 산두곡(山頭谷)쪽으로 북상하고 1개 대대규모는 일부 병력이 밤재를 차단하고, 옥계를 목표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북한군의 상륙 사실이 제8사단 사령부에 보고된 것은 새벽 5시 40분이었다. 제10연대는 우선 연대본부 요원으로 급편한 1개 소대로 증강된 제4중대를 출동시켰다. 제4중대는 오전 8시에 대포동-247고지에 급편방어 진지를 편성하고 대기하였다.

오전 11시를 전후하여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전술 행군 대형으로 접근해 왔다. 제



4중대는 이들이 근거리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린 후, 4문의 박격포와 8정의 기관총으로 포격과 사격을 집중해 기선을 제압한 후 1개 소대가 공격을 감행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이후 새로운 적의 상륙에 대비하기 위해 연대는 57mm 대전차포중대 주력을 출동시켜 제4중대를 엄호하게 하였다.

대전차포중대가 안목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적의 선발대가 상륙하고 있었다. 대전차포중대는 상륙하는 적에게 고퍡탄 사격을 퍼부어 이들을 격멸하고 한 명을 생포하였다. 이후 대전차포중대는 접안을 시도하는 적 선단에 사격을 집중하여 이를 격퇴하는 동시에 증원을 요청하여 제18포병

대대 제3포대가 증강되었다.

한편, 옥계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상륙하여 밤재를 점령한 북한군이 새벽 5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제21연대 제1대대 수색대는 옥계지서에서 적정을 설명 받은 후 오후 1시경 현내리 뒷산(△120)을 거쳐 교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따라 대열을 지어 남하하는 1개 중대 규모의 적을 낙풍리에서 발견하고 급습하였다.

약 1시간 후인 2시경 현내리에서는 적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얼마 후 옥계지서가 적에게 피탈되자 옥계지서 남동쪽 1km 지점인 233고지로 진출한 제21연대 제1중대가 이를 목격하고 60mm 박격포를 동원해 포격을 가하였다. 첫 탄부터 지서에 명중하여 이곳에 집결한 적을 강타하자, 적은 밤재로 철수하였다. 제21연대 제1중대도 대대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묵호로 철수하였다.

**결과 및 영향**

7번 도로를 따라 북상하던 북한군은 산두곡으로 우회하여 강릉을 향해 북진하였다. 이

에 제8사단은 제10연대로 하여금 군선강을 따라 방어선을 편성하게 하고, 삼척의 제21연대가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 방어선을 고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이상호 집필】

## 군선강 전투

[群仙江 戰鬪, 1950. 6. 25. ~27.]

### 개요

국군 제8사단이 195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군선강 남안 언별리에서 북한군 육전대 제945부대를 저지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군선강은 만덕봉에서부터 강릉 남동쪽 12km 지역을 북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으로서 강가에는 방어를 유리한 횡격실 능선이 연결되어 있다.

군선강으로 북상하는 북한군은 북한 해군 육전대인 제945부대로 이들은 정동진 해안에 상륙하여 7번 도로를 따라 강릉을 향하여 북상하고 있었다. 군선강 방어의 주요 국군 부대는 제10연대의 혼성 제3대대와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 및 제2대대였다. 제10연대의 혼성 제3대대는 예하에 제21연대 제10중대와 사단 예비대를 통합 편성하였고, 제21연대의 혼성 제1대대는 제2대대 병력 일부와 제18포병대대 제3포대를 혼합 편성하였다.

제10연대 혼성 제3대대는 제4중대를 군선강 북안의 108고지(안인리 서남쪽 1.5km)에 배치하여 강릉에 이르는 주접근로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21연대 제10중대를 140고지에 배치하여 적의 상륙부대가 우회 공격하는 것을 대비하였다.

제21연대 제10중대가 6월 25일 오후 2시 모전리에 도착하였을 무렵 북한군이 공격해 오자 10중대는 즉각 공격을 감행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저녁 6시경 두 차례에 걸친 교전에서 패배한 적이 2개 중대 규모로 또 다시 제21연대 제10중대 정면을 공격하였으나 이를 1시간 만에 격퇴하였다.

한편, 제21연대장(김용배 중령)은 25일 새벽 6시에 삼척경찰서로부터 적의 상륙상황



을 보고받았다. 오전 7시 30분에 연대본부로 돌아온 연대장은 57mm 대전차포중대를 해안선에 배치하고, 북평에 위치한 제1대대에 상륙한 적의 남하를 저지하며 북평을 사수하라고 명령하였다.

연대장으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은 제1대대는 오전 8시 30분에 북평 북쪽의 동해안에서 천곡리에 이르는 118고지-356고지-531고지를 연한 능선 일대를 점령하고 제1중대를 옥계쪽으로 추진시켜 망운산에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오후 3시경 망운산에 배치된 제1중대는 적 1개 중대 규모가 도직리 부근에서 남하하는 것이 목격되자 일제히 사격을 가해 이를 격퇴하였다. 한편, 오전 10시에 제21연대본부에는 사단장으로부터 강릉으로 집결하라는 전문명령이 전달되었다.

저녁 7시에 삼척을 출발한 제21연대본부의 제1제대는 북평에서 제1대대와 합류한 다음 26일 강릉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후 군선강 방어진지에 투입되었다. 연대장(김용배 중령)은 연대지휘소를 운산리로 추진하여 예하대에 제10연대 일부 병력의 진지를 인수 진지선을 재편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사단사령부에 대기 중인 제18포병대대 제3포대가 운산리로 진출하였다.

27일 사단의 주문진 공격계획에 따라 운산리에 위치한 제21연대장과 제1대대장이 혼성 제1대대를 지휘하여 연곡천 주저항선으로 진출하였다. 군선강 지역의 작전지휘는 제2대대장(조규영 소령)이 담당하여 북한의 제945육전대의 북상을 저지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국군 제21연대 제2대대에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면서 탐색 공격을 가하였다. 27일 정오에 운산리로 추진된 제18포병대대 제3포대가 도로변에 포진하고 대대장의 진두지휘 아래 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북한군의 남북협공 기도는 해안 상륙부대가 국군의 군선강 방어선을 뚫지 못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다.

### 결과 및 영향

군선강 방어선에서 적과 대치한 채 협공을 저지 중이던 제21연대의 혼성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사단주력이 철수 완료한 27일 저녁 6시에 대관령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운산리로 출동하여 제21연대의 혼성 제2대대를 지원한 제18포병대대 제3포대는 시내를 횡단하여 무사히 대관령으로 철수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이상호 집필】



## 김포 도하저지 전투

[金浦 渡河沮止 戰鬥, 1950. 6. 2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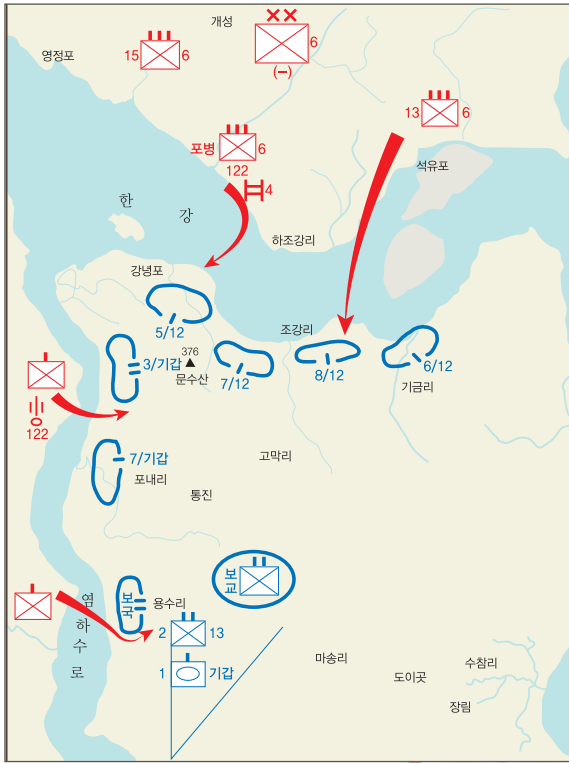
### 개요

국군 김포지구전투사령부가 1950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김포반도에서 북한군 제6사단의 한강 도하를 저지하고자 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한강 하구 지역인 영정포-김포반도 북단 사이의 한강은 하폭이 2,000~3,000m에 이르며,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아 간만조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1.0m~1.5m/sec의 격심한 유속에 의해, 간조기에는 노출된 강바닥의 갯벌로 도하가 매우 제한된다.

6월 25일 당일에 개성 일대를 석권한 북한군 제6사단(소장 방호산)은 강화도와 김포반도에 상륙하여 김포반도를 돌파함으로써 김포비행장을 확보한 다음, 시흥-영등포 방면으로 우회하여 경부국도에서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배후를 기습하려 하였다. 김포반도로 향한 도하공격의 징후는 26일 오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김포반도를 공격하는



북한군 제6사단의 주요 부대는 제 13연대와 포병연대였다.

육군본부에서는 영정포-김포반도 북단 사이의 한강하구의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강화도와 김포반도 일대에는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구에 대한 방어계획 또한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육본 수뇌부는 김포지구 한강하구의 넓은 강폭으로 적이 쉽게 도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온적인 조치만을 취하였다. 즉 보병학교의 고급반 학생이던 계인주 대령을 이날 아침 남산학교장으로 복귀 시킴과 동시에 김포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김포지구에 있는 모든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적

의 도하를 막도록 하였다. 그곳으로 도하한 제1사단 제12연대 제2대대를 포함하여 남산학교, 보병학교 후보생, 공병학교 학생, 보국대대 병력과 독립기갑연대 일부 부대를 통합 편성하여 적의 도하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병력이 김포읍에 도착하는 대로, 반도 북단의 문수산(△376)을 중심으로 북쪽 한강변의 조강리-강녕포와 그리고 북쪽의 염하변에 각각 배치하여 반도의 서북쪽 지역에 방어의 중점을 두었다.

25일 제12연대 제2대대는 이날 김포지구전투사의 통제 하에 들어가 통진 부근에서 도하를 막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편, 한남동에 위치한 기갑연대는 육본의 작전명에 따라 오후에 1개 소대를 김포반도에 배치하였다. 이리하여 제12연대의 혼성대대는 북쪽의 한강변을 기갑연대 혼성대대는 서쪽의 염하변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육군 보국대대(방원철 소령)는 귀순장병 174명으로 편성된 부대이다. 보국대대는 자진하여 김포반도로 출동 통진 남쪽의 180고지에 독자로 병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시흥의 보병학교는 육본 명령에 따라 보병학교대대를 편성하여 김포지구로 출동시켰다. 후

보병 500여 명으로 4개 중대로 편성된 보교대대는 보국대대 진지 동쪽의 야산지대에 각 중대를 배치하였다.

제12연대와 기갑연대의 혼성병력의 진지편성이 대충 끝난 26일 오후 4시경 한강에 대한 적의 도하정찰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은 석류포에서 조강리로 상륙을 기도하였다. 이에 조강리에 증원된 장갑소대가 장갑차로 적선을 격침하였다. 서쪽의 염하변에서도 북한군이 갑곶에서 도하를 하였고, 보국대대가 항전하였으나 결국 철수하고 말았다.

27일 날이 밝자, 북한군의 도하가 본격화하였다. 북한군은 강녕포 동남을 확보한 가운데 날이 새자, 북안의 영정포에 122mm 야포를 방열하여 조강리와 강녕포 일대를 강타하는 지원사격을 시작하였다.

영정포 부근에는 병력과 중장비를 선박에 분승한 적이 포병의 엄호하에 강녕포로 도하를 강행하였다. 강녕포 일대에 배치된 제12연대 제5중대와 제7중대 사이의 무명고지로 침투한 북한군은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들의 사격유도로 122mm 곡사포 사격을 개시하자, 강안에서 적의 도하를 막던 제12연대 제1중대와 장갑소대는 후방차단의 위기에 봉착하고 또 적의 포격을 감당하지 못해 통진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염하변에서도 북한군이 이른 아침 어선을 이용하여 갑곶 일대에서 도하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강화부근에 120mm 박격포를 추진하여 대안의 도선장과 통진 일대에 대한 사격을 개시하였다. 그곳의 기갑연대 제3대대와 제7대대가 적의 도하를 저지하려 했으나, 180고지의 적으로부터 배후 교란과 강녕포쪽에서의 침공을 고려하여 오전 9시에 통진으로 철수하였다.

통진에 집결한 제12연대와 기갑연대 혼성병력은 장갑차의 엄호하에 통진에서 김포와 인천으로 갈라지는 도로의 삼거리인, 장림(통진 동남쪽 6km) 부근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김포지구전투사령부 예하부대들은 김포와 강화 일대에서 한강을 도하하려는 적을 일시 저지하였지만, 적과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인해 도하를 허용하고 말았다. 이후 김포지구사 부대들은 장림 및 운유산 일대로 물러나 적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장림-운유산 전투

[長林-雲遊山 戰鬪, 1950. 6. 26.~27.]

### 개요

국군 김포지구전투사령부가 1950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김포방면 한강 남안으로 도하한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을 김포반도의 장림사거리 및 운유산에서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장림은 통진-김포-서울 도로(48번)와 장림-인천 도로(305번)의 분기점으로서 전술적으로 중요한 길목이다. 한편, 305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어져 58고지 동쪽 2km 지점에 있는 운유산은 남하하는 북한군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요충지로서 김포방어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장림 지역으로 공격해 오는 북한군은 제6사단 제13연대로 1대 포병대대와 자주포 포대 및 전차소대로 편성되었다.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김포반도 북쪽에서 북한군의 도하와 공격에 의해 철수하여 이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였다.

26일 새벽 김포반도의 서쪽 염하변으로 상륙한 북한군 제6사단 예하 소부대는 08:00 무렵 보병학교의 후보생대대의 좌일선인 제1중대의 진전에 출현하였다. 이때 180고지로부터 대대의 좌측방이 공격을 받고 후방의 화기중대 진지에 적이 먼저 침투함으로써 철수하게 되었다. 이들은 오전 11시에 장림선에서 제12연대 제2대대와 합세하였다.

후보생대대는 장림 삼거리 북쪽 구릉 지대에 진지를 점령하여 장림-김포읍의 도로를 제압하고, 제12연대 제2대대는 일부가 한강변에서 분산되었으므로 제2중대로써 그 남쪽의 천마산(60고지) 일대에 진지를 급편하여 장림-양곡(장림 남쪽 4km)간의 도로를 차단하였다.

이 동안에 적은 1개 대대규모로써 각종 중화기와 함께 문수산 일대를 석권하고, 곧 통진-김포가도를 따라 공격을 계속하였다. 후보생대대와 제12연대 제2대대가 장림에서 적의 침공을 막고자 하였으나 실패했다. 오후 1시를 전후하여 장림선이 무너지자, 후보생대대는 김포읍쪽으로, 제12연대 제2대대는 양곡쪽으로 각각 철수하였다. 이로써 북한군은 이날 오후 김포평야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한편, 후보생대대(장영문 소령)는 김포평야를 지나 오후 3시에 운유산(△110) 북쪽에, 제12연대 제2대대(한순화 소령)는 양곡 부근에 각각 진지를 다시 편성하였다. 후보생대대는 2개 중대를 제일선에 배치하고 1개 중대를 예비로 확보하여, 지형지물만을 이용하

여 급편진지를 편성하고 있던 중 적의 기습을 받았다. 후보생대대의 전열이 일시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때를 틈 탄 북한군의 기마대가 김포 가도를 따라 돌진함으로써 김포읍이 적의 수중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기갑연대의 장갑중대와 도보중대가 김포읍으로부터 출격하여 북한군의 기마대를 격퇴함으로써 운유산선의 돌파를 가까스로 막아 내었다.

### 결과 및 영향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급편부대였으나 장림사거리와 운유산 일대의 자연 장애물을 이용하여 적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아군의 퇴로가 차단되는 위기를 극복해 주었다. 즉 부족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방어전투를 수행, 지연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북한군 제6사단의 계획된 시간 하의 영등포 진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북한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김포읍으로 철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1,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a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동두천 역습

[東豆川 逆襲, 1950. 6. 26.]

### 개요

국군 제7사단 제1연대와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가 1950년 6월 26일 동두천 재탈환을 목표로 북한군 제4사단 제16연대가 점령한 지역에 대해 역습을 수행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동두천은 철원에서 연천을 지나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가는 축선상의 요충지로서 주요 산맥이 남북으로 연해 있고 38선 분계선으로부터 서울까지의 최단거리의 접근로인 3번 도로가 지나가는 도시이다.

동두천을 점령한 북한군 제4사단은 서측의 316번 도로를 따라 봉암리-덕정 축선으

로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었다. 제4사단은 제16연대와 제18연대로 편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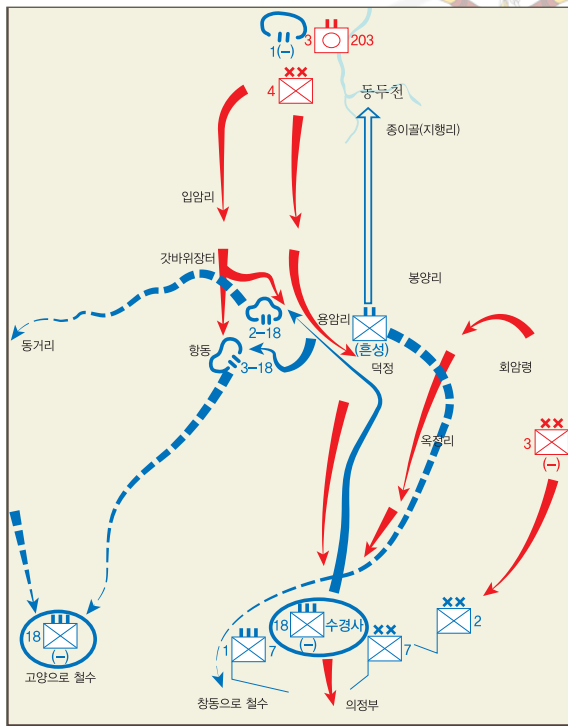
동두천 역습에 참가한 국군은 제7사단 제1연대(연대장 함준호 대령)와 수도경비사령부의 제18연대(연대장 임충식 중령)였다. 특히 제18연대는 육군본부 명령에 의해 6월 25일 야간에 의정부 지역에 도착하여 이튿날 제7사단의 좌측을 담당하였다.

6월 25일 첫날 전투에서 동두천이 함락되고 적이 의정부를 위협하게 되자, 육군본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도 서울의 운명과 직결되는 이 지역을 고수하기 위해 이때부터 직접 지휘 통제하였다. 제7사단은 초기 전투에서 과반수 병력을 잃었고, 잔류 병력도 분산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예비사단을 신속히 전선으로 전개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채병덕 총참모장은 강경한 어조로 역습강행을 촉구하였다.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은 총참모장으로부터 반격명령을 받은 후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제1연대장 함준호 대령이 사단장으로부터 반격 명령을 받고 연대 집결지인 덕정초등학교에 도착한 것은 6월 26일 오전 6시였다. 이곳에서 제1연대장은 제1대대장과 제3대대장을 소집하여 제

1대대장에게는 혼성 1개 대대 병력을 지휘하여 송내리-지행리(현 종이골)를 거쳐 동두천의 남쪽에서 공격하게 하고, 제3대대장에게는 용암리(덕정 북서쪽 2km)에 배치되어 있는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혼성대대와 병진하여 측방을 엄호하면서 서측에서 협공하도록 하였다.

연대장으로부터 반격명령을 받은 혼성대대와 제3대대는 적정도 파악하지 못한 채 26일 오전 8시에 역습을 실시하였다. 특히 좌측에서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가 제1연대와 병행하여 공격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동두천 탈환을 목표로 북진하였다.



혼성대대는 26일 오전 10시경 주력을 동두천 시내로 투입하였으나 경계병 몇 명만이 산발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적의 행방이 묘연하였다. 이에 혼성대대는 특기할 만한 교전이 없이 동두천을 탈환한 후, 소요산 진지를 목표로 진격하여 그 일대의 진지를 모두 회복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쉽게 동두천을 탈환하였으나, 동두천 서북쪽의 마차산을 점령하고 있는 제1대대(-)와는 연결하지 못하였다.

6월 26일 오후 2시에 연대장으로부터 무전을 통해 창동으로 철수하라는 긴급명령이 혼성대대에 떨어졌다. 철수명령은 이날 오후 1시에 포천쪽으로 밀려든 북한군 제3사단이 축석령을 넘어 의정부로 들어온 데다, 봉암리(동두천 서쪽 4km)로 진격한 제4사단의 일부 부대가 덕정을 돌파함으로써 내린 조치였다. 오후 5시 덕정동에서 철수를 시작한 혼성대대는 옥정리를 거쳐 의정부로 철수하던 도중 2개 중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병력이 분산되었다. 그러나 대대장은 병력을 수습하여 녹양동에서 적의 포위를 뚫고 백운대 계곡으로 야간행군을 강행한 끝에 28일 오전 9시에 우이동의 연대본부에 합류하였다.

한편, 26일 아침 좌측에서 함께 공격하기로 한 제3대대는 오전 8시에 용암리에서 출발하여 신천을 건넌 다음 동두천 서측으로 올라갔는데, 적정이 없어 선암리(덕정 북서쪽 3.5km)-하패리(덕정 북서쪽 6km)를 거쳐 신흥동(동두천 서쪽 1km)에 이르렀다. 그러나 갑자기 상패리 부근의 측후방에서 규모 미상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에 제3대대는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분산되고 말았다. 결국 제3대대도 우이동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6월 26일 역습에서 제7사단의 좌측을 맡은 수경사 제18연대(-)는 봉암리 탈취를 위해 오전 9시에 덕정에 도착하였다. 10시에 제18연대(-)는 제2대대를 선두로 공격대형을 세우고, 제3대대를 후속시켜 봉암리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제7사단장으로부터 현지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오후 1시에 용암리 부근에 급편 진지를 편성하였다. 잠시 후 전차를 앞세우고 북한군의 기계화 부대가 남하하자 별동대를 조직 공격하였으나 반격으로 철수하였다. 하지만 기계화 부대가 통과한 후 적 우마차부대가 남하하자 제18연대(-)는 이들을 공격하여 포탄을 노획하고 12명의 병력을 생포하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야간경계태세로 들어간 제18연대(-)는 27일 새벽 1시부터 고양을 경유하여 구과발 부근의 삼송리로 철수를 결정하고 이를 각 대대에 전달하였다. 28일 오전 9시 삼송리에 병력이 모두 집결한 제18연대(-)는 한강을 도하하기로 결정하고 행주나루터에서 김포반도로 도하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동두천 역습에 참가한 국군부대는 동두천을 탈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가 조기에 함락됨에 따라 퇴로가 차단된 가운데 철수하게 되었다. 국군 제7사단 제1연대와 수도경비사령부 제18연대(-)는 각각 창동과 김포반도로 철수하였다. 이후 제1연대는 창동전투에 참가하였고 제18연대(-)는 이후 한강방어선 전투에 참가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백석천 전투

[白石川 戰鬪, 1950. 6. 26.~27.]

## 개요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가 1950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의정부 남쪽지역인 백석천에서 북한군 제105전차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치른 방어 전투이다.

## 전개과정

중랑천으로 흐르는 백석천은 의정부 남쪽 1km 지점에서 동서로 흐르고 있으며, 그 너비는 10m 안팎인 실개천에 불과하다. 천연 장애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백석천은 창동-미아리 선에 방어선을 설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어해야 할 지역이었다.

의정부에서 백석교를 지나 서울로 공격하는 북한군은 제109전차연대였다. 제105전차여단의 소속 부대로 제109전차연대는 3개 대대로 구성되었으며, 전차는 4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109전차연대는 북한군 제3사단의 제9연대를 후속하여 서울 방면으로 진격할 계획이었다.

이에 맞선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는 당시 온양에 주둔하고 있다가 25일 밤 육군본

부의 명령에 따라 26일 아침 용산역에 도착, 이동하여 창동에 주둔하였다.

의정부의 함락과 함께 3번 도로가 차단되자, 전선에서 싸우던 국군 부대는 철수를 하게 되었다. 이때 창동에서 대기하던 제2사단 제25연대는 총참모장으로부터 의정부에서 남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백석천에서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고 26일 오후 3시경 2개 대대 병력으로 이곳에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제25연대(-)는 서쪽의 하직동으로 잇닿는 제방에 제2대대를 배치하였다. 동쪽의 제방을 따라 동막까지 이르는 800m 정면에는 제3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에게 중앙에 위치한 교량에 2.36인치 로켓포 4문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제25연대(-)는 앞으로의 전투에 대비하여 진지작업을 하였다. 제25연대(-)는 26일 오후 5시경 3번 도로를 따라 남진하는 적의 전차대열에 대해 각종 소총과 기관총 및 박격포로 집중사격을 가했다.

이때 선두전차가 백석교로 다가오자 이곳에 잠복해 있던 제5중대 2.36인치 로켓포 4문이 연속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첫 번째 전차가 그대로 교량을 통과하고 그 뒤를 3대의 전차가 지나갔다. 이에 화기소대 분대장이 사수 포를 빼앗아 들고 직접 교량 서남쪽으로 달려가 다섯 번째 전차의 궤도를 명중시켰다. 그 결과 10여 대의 후속전차가 진로를 잃고 의정부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만일 이곳에서 북한군의 전차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미아리 방어선까지 그대로 돌파될 수 있었다.

그후 제25연대(-)는 6월 26일 밤 야간 경계태세로 들어가 계속 진지를 지키고 있었다. 27일 새벽 북한군 보·전·포 협동부대가 공격해오자 백석천과 약수암 부근에서 일진일퇴의 지연전을 펴며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2사단 제25연대의 백석천에서의 선전으로 북한군 전차부대의 진출을 지연하였으며, 미아리에서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제25연대는 시흥지구전투사령부 혼성 제7사단에 배속되어 한강방어선 전투에 참가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축석령-금오리 전투

[祝石嶺-金梧里 戰鬪, 1950. 6. 26.~27.]

### 개요

국군 제2사단 제5연대가 1950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북한군 주공집단인 제3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2개 전차연대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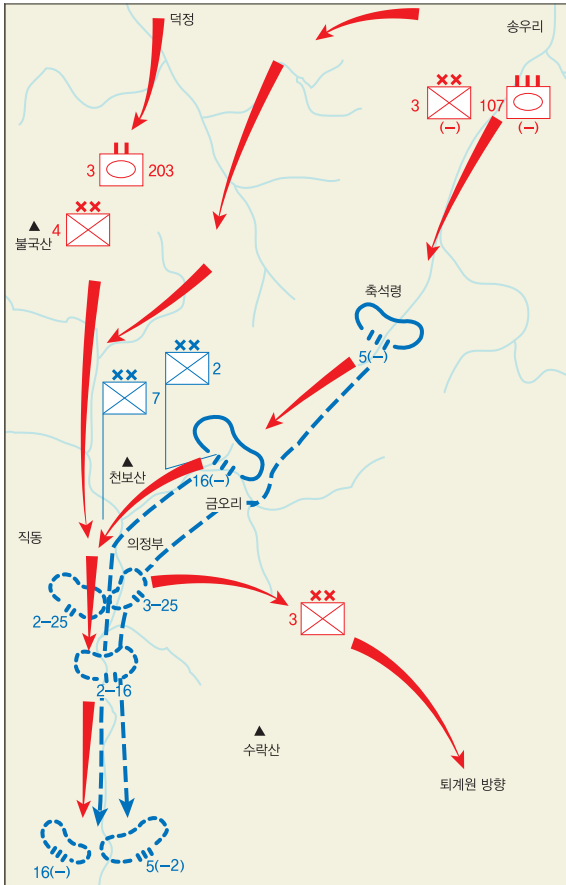
### 전개과정

의정부 일대의 지형은 칠봉산(△423)에서 비롯된 천보산맥이 의정부 북쪽 천보산까지 약 20km의 종격실을 형성하고 개활지와 야산으로 이어져 있으며, 호명산, 축석령에서

시작한 중랑천이 남쪽 한강으로 흐르고 있다. 이곳의 축석령은 포천시 소흘읍과 의정부시 자일동의 경계에 위치한 고개로 3번 도로를 따라 서울로 이어지고 있다.

축석령 지역으로 공격하는 북한군은 송우리에서 국군 제3연대(-)를 격파한 제3사단과 제107전차연대였다. 이에 맞서 축석령으로 투입된 국군은 제7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재경 지역 및 청주에서 북상한 제2사단(-) 및 육군 포병학교 제1, 제2교도대대와 육군 사관학교 생도대대였다. 이외에도 전투경찰 1개 대대가 배속되었다.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은 6월 26일 새벽 채병덕 총참모장으로부터 역습명령을 받고나서 사단 지휘소가 위치한 금오리로 돌아와 사단 주력의 이동 상황을 점검



하며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제2사단의 예하부대들은 금오리에 먼저 도착한 제5연대 제2대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을 향해 북상 중에 있었다.

전날 오후 6시 30분경 북한군 보·전 협동부대의 공격으로 제3연대(-)의 방어진지가 무너지자 연대 병력이 분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장이 행방불명됨에 따라 각 대대는 대대장의 결정에 따라 철수하게 되었다. 제3연대(-)의 송우리 방어선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포천 지역은 무인 지대가 되어 의정부 동북쪽의 방어가 급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제2사단의 선봉이 된 제5연대 제2대대는 송우리 방어선에서 제3연대(-)가 무너진 상황도 모른 채, 6월 26일 새벽 3시 제3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오리를 출발하여 축석령을 향해 이동하였다. 적정도 모르고 축석령으로 복진하던 제2대대의 선두가 본자일(本自逸) 북쪽 300m까지 진출했을 때 북한군 전차와 만나게 되었다. 제2대대장은 병력을 208고지 부근으로 이동시켜 방어태세로 전환하면서 사단에 증원을 요청하였다.

제2대대는 겨우 소총으로 응수하면서 30분간 교전하였으나, 북한군의 화력 앞에 방어선이 무너지고 적은 다시 자일동쪽으로 남진하기 시작하였다. 제2대대는 축석령 진지에서 본자일 남쪽의 131고지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다. 26일 오전 8시경에는 제5연대 제1대대가 본자일쪽으로 증원되었다. 제1대대는 병력을 전개할 겨를도 없이 적의 급습을 받고 분산되고 말았다.

한편, 의정부 동북쪽의 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군 제2사단에 배속된 포병학교 제2교도대대(대대장 김풍익 소령)가 금오리로 긴급 출동하였다. 제2포병대대는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95호에 의해 26일 새벽 1시부로 제2사단에 배속되었다. 그후 대대는 서울 용산동 주둔지를 출발하여 상금오리로 이동, 포를 방열하고 자일동 부근의 전선에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야포로 북한군 전차의 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자 김풍익 소령은 전차를 저지하기로 하고 포를 끌고나와 자일동 서남쪽 1km의 교량 부근의 43번 도로상에 오전 9시경 포를 방열하고 대기하였다. 대대장은 적 선두전차가 50m 전방까지 다가오자 제1탄을 궤도에 발사하여 명중시켜 막았다. 그러나 제2탄을 장전하던 중 후속하던 적 전차포 사격에 의해 대대장 이하 포반원 전원이 전사하였다. 이에 전차의 진로가 막히자 제2포병대대가 전 화력을 집중하였고, 북한군 전차 대열은 북쪽으로 물러났다.

국군 제2사단이 축석령에서 북한군의 제1차 공격을 물리친 후 제5연대(-)의 분산병력을 수습하여 축석령에서 다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때 제2사단 예하 제16연대(-)가 금오리에 도착하였다. 도착 즉시 사단장으로부터 축석령 방어의 임무를 부여받은



제16연대장(문용채 대령)은 43번 도로 동측의 208고지 일대에 제2대대를 배치하였다.

한편, 북한군 제3사단은 축석령에서 퇴각한 후 이동교리 부근에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 43번 도로를 따라 보전협동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일부 병력을 서측으로 우회시켜 회암령을 넘어 의정부 북쪽에서 공격을 시도하였다. 제16연대(-)는 정오에 적의 보전협동부대가 축석령으로 공격해 오자, 소총 및 박격포로 응사하였고, 제2교도대 대도 105mm 야포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전차부대는 좌우 양측방의 아군 방어인지에 몇 차례 포격을 가한 다음 의정부 방향의 자일동으로 직행하였다.

제2사단의 축석령 방어는 제5연대와 제16연대가 병력을 집중 운용하지 못하고 축차로 투입한 관계로 적의 월등한 화력 및 기습공격에 의해 조기에 퇴로가 차단되거나 분산되었다.

이렇게 전황의 급전으로 부심하고 있을 정오 무렵에 적의 포탄이 금오리의 사단지휘소에 떨어졌다. 이 포격은 자일동을 통과한 적의 전차부대가 상금오까지 진출하여 43번 도로상에서 사격한 전차포격이었다. 이때 적 후속부대가 의정부 방향으로 계속 다가오고, 특히 북한군 전차가 의정부 시내에 들어와 위협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지휘소가 적의 전차포 사격을 받게 되자 이형근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은 도보로 의정부를 우회하여 동측의 소로를 따라 창동쪽으로 철수하였다. 총참모장은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에게 후퇴 책임을 물어 사단장직에서 해임하고 대신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을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양 사단을 통합 지휘하라고 명령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축석령-금오리 지역에 증원된 제2사단(-)의 부대들은 건제를 무시하고 축차적으로 전선에 투입되었으며, 무리한 역습을 전개하게 되어 의정부를 조기에 상실하는 사태를 불러오게 되었다. 제2사단은 수락산과 백석천간에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분산 병력은 철수하여 27일 오전 창동 지역에 집결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①,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②, 2005.

Roy E. Appel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소양교 전투

[昭陽橋 戰鬪, 1950. 6. 26.]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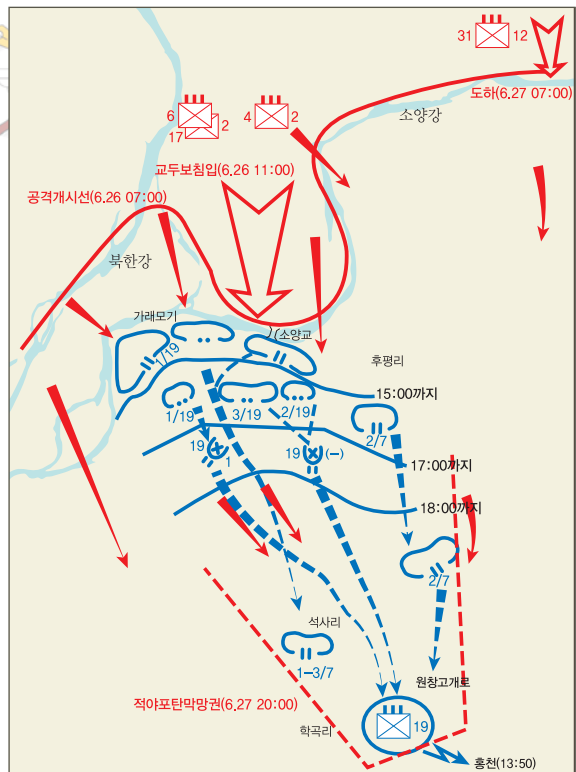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1950년 6월 26일 소양강 남안의 주저항선에서 북한군 제2사단의 총공격을 받아 남하를 저지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소양교는 춘천의 소양강에 설치된 가교로서 우두동과 춘천 시내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소양교를 거쳐야 춘천 시내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다리 남쪽의 봉의산에는 제6사단 제7연대의 전술지휘소가 위치해 있어 소양강 및 우두산 지역을 감제할 수 있다. 북한군은 이 지역을 자주포를 동원하여 돌파하려고 하였다.

전날 옥산포 전투에서 피해를 입었던 북한군은 다시 제2사단 제6연대에 더해 제17연대를 보강하였다. 제17연대는 북한군 제2사단의 제2제대로 사단 교도대대와 함께 제6연대를 후속 지원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국군은 제6사단 제7연대가 방어 전투를 계속 수행하였다.

전날 실시한 제7연대 1대대의 역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군은 26일 새벽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1대대는 옥산포 우측 능선 진지를 확보 중에 있었으나 새벽 3시 우두산 진지에 적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교전이 전개되었다. 새벽 5시에 제1대대는 적의 남하를 저지하며 소양강을 도하하여 차안의 계획된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부터 적은 아군의 방어지역 확보를 목표로 하여 치열



하게 포격을 가하였다.

소양강 방어선 일대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군 제2사단은 다수의 화포와 8대의 SU-76 자주포를 직접조준사격 위치에 배치하고, 새벽 5시 40분부터 20분간 포병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봉의산 일대의 소양교 정면에 주공을 투입하고 제19연대가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근화동 일대에 조공을 투입하여 공격을 가해왔다.

오전 10시부터 북한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주포를 소양강 북안에 두고 봉의산 연대관측소는 물론이고 산 중턱과 소양강 제방에 구축해 놓은 화기진지에 직격탄을 퍼부어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북한군 자주포 3대가 소양교를 통해 남안의 아군 대전차포 진지를 향해 공격해 오자, 이를 목격한 제2소대장(심일 중위)는 진지로 뛰어 들어 직접 사격을 하여 3대의 북한군 자주포를 파괴하였다.

제16포병대대 제1포대와 제2포대는 새벽 5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보병의 이동과 소양강 남안으로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포병 집중사격을 가하면서 적의 공격을 차단하였다.

제19연대 1대대는 오전 10시에 소양강변에 부대를 배치하고 있던 중 적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격렬하게 교전을 전개했다. 정오부터 포병의 지원 아래 적이 다시 공격을 가해오자 제1대대는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확보하며 제2대대를 지원하였다. 제2대대는 오전 11시에 정면의 적을 공격하여 소양강을 도하하였으나 곧바로 돌아왔다. 이후 대대는 종일 전진과 철수를 반복하면서 적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6월 27일 북한군 제2사단은 총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오전 10시에 소양강 일대의 최후저항선 진지가 돌파되었다. 소양교 입구까지 진출한 북한군 자주포는 교량 위에 산적한 그들의 시체를 강으로 밀어붙이고 다리를 건너 소양강 남안의 일각을 점거하였다. 또한 가래모기로 도하한 적도 근무대대의 최후 저지사격을 뚫고 근화동까지 진출하였다. 정오경 제7연대는 병력을 철수시켜 춘천시가지에서 적의 남하를 지연시키기로 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소양강 남안의 방어진지를 점령한 후 전개된 공방전에서 상당한 타격을 적에게 안겨주었던 제7연대는 축차로 밀려드는 적으로부터 이탈하여 춘천 동쪽에 위치한 486고지를 점령하고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제6사단 제7연대는 옥산포와 소양교 전투를 통해 북한군 제2사단의 진출을 지연시킴으로서 서울을 우회 포위하려는 북한군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Ⅰ,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②, 2005.

"Interrogation Report, Issue no. 71"(1951. 1. 20), MA, RG 7, GHQ, FEC.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개요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가 1950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창동지역에서 북한군 제4사단, 제3사단, 제105전차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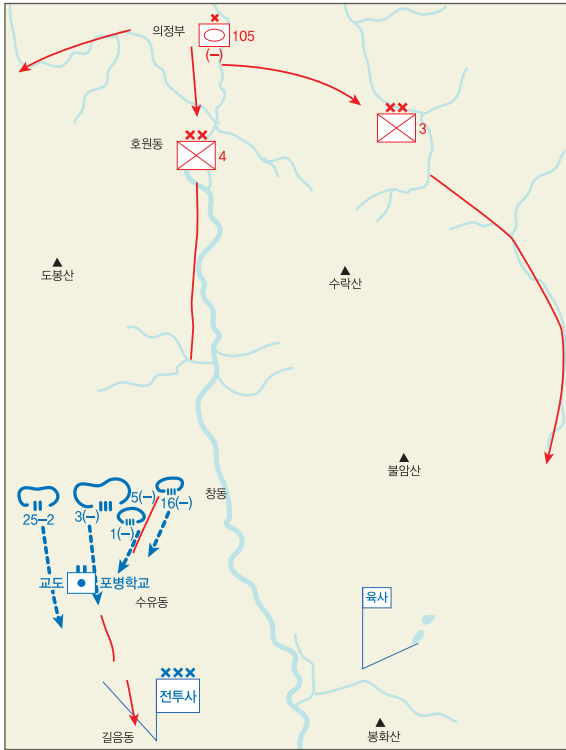
## 전개과정

서울-의정부 사이는 3번 도로가 남북으로 이어지며, 이 도로의 동측에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이어져 태릉으로 연결되고, 서측으로는 도봉산과 북한산이 둘러싸여 있다. 의정부에서 창동에 이르는 도로는 좌우로 낮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측 고지를 확보하며 적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요충지이다.

창동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은 2개 사단과 1개 여단으로 제4사단은 제5·제16·제18보병연대와 포병연대를 주축으로 공격에 가담했고, 제3사단도 제7·제8·제9보병연대와 포병연대를 주축으로 공격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제105전차여단(-)은 제107·제109·제203전차연대로 총 18개 대대에 전차 90여 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한편, 의정부에서 철수하여 창동 지역에 방어 진지를 편성한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는 이 지역의 전 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통신망이 마비된 관계로 가용부대의 소재와 병력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27일 오전 8시경 유재홍 사령관이 파악한 창동 지역에 있던 국군 부대는 모두 5개 연대였다. 즉 제7사단 제1연대, 제2사단 제5연대, 제16연대, 제25연대, 수도경비사령부의 제3연대였다. 그러나 실제병력은 1개 연대에도 못 미쳤다.

6월 27일 북한군 제4사단은 서울 북쪽에서 공격하기 위해 3번 도로를 따라 수유리 지역까지, 제3사단은 서울 동측에서 공격하기 위해 43번 도로를 따라 화양리 부근까지 진출해 있었다. 제105전차여단(-1)은 서울 동북쪽 4km의 정릉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6월 27일 새벽 4시에 백석천 저지선이 무너지고 4시 30분 경 북한군 전차가 창동선까지 진출하자 유재홍 사령관은 수락산-우이동에 이르는 분지에 저지선을 편성할 것을 구상하였다. 이에 제25연대 제2대대로 하여금 우이동 남쪽 무명도로 서쪽 산기슭을 점령하고 우이고개에서 출몰하는 북한군 유격대의 침투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제3연대(-)는 62고지 일대, 제5연대(-)는 3번 도로 서쪽 구릉 지대에, 제16연대(-)는 제5연대 우측의 3번 도로 동쪽 구릉 지대를 점령하였다. 예비로 편성된 제1연대는 71고지에 집결하여 사령부 경계임무를 수행하면서 역습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포병학교 포병대대는 교장대리 김계원 중령의 지휘하에 제2교도대대 105mm 6문을 71고지 남쪽에 배치하였다. 또한 제2사단과 제7사단 및 공병학교의 공병으로 혼합 편성된 공병대는 공병학교장(엄항섭 중령)의 지휘하에 교량파괴반을 편성하여 창동-미아리 간의 교량에 폭파장치를 하고 북한군 전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석천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 전차부대가 방어선 정면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자 진지에 배치된 국군 105mm 곡사포 6문이 북한군 전차부대 대열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보병부대도 일제히 소총사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전차대열은 국군의 사격에 타격을 받지 않고 계속 남진하였다.

창동 방어선이 붕괴될 무렵 부대 사이에 연락이 유지되지 않자 국군 각 부대는 분산철수하게 되었다. 전황을 주시하던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은 지형적으로 불리한 창동 방어선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각 부대를 철수시켜 미아리고개에서 저지하기로 결심하였다. 결국 창동 방어선에 배치된 일선 전투부대는 분대·소대·중대

단위로 그 철수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창동 방어선이 붕괴되면서 일선에 배치된 전투부대들도 철수하게 되었다. 북한군과 제일 먼저 교전한 국군 제5연대(-)는 불암산-태릉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그 좌우측에 배치된 국군 제16연대(-)와 제3연대(-)는 태릉·미아리·삼각산 등지로 분산되었다. 71고지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제1연대(-)도 부연대장 이희권 중령이 지휘하여 미아리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미아리-홍릉 선상의 후방에서 증원된 국군 제5사단(-) 2개 대대와 수도경비사령부의 제8연대 1개 대대를 사전에 중심 배치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어 창동 방어선에서 분산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여 미아리 방어선을 보강할 수 있었다.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는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27일 정오경 지휘소를 미아리고개로 이동하고 철수병력을 규합하여 미아리고개 좌우측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Ⅱ,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Ⅱ,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미아리 전투

[彌阿里 戰鬪, 1950. 6. 27. ~28.]

### 개요

미아리전투지구사령부가 1950년 6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서울 미아리고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미아리는 서울 동북 교외의 돈암동에서 고개 하나로 경계를 이루어 이를 ‘미아리 고개’라고 한다. 이 고개의 북쪽에는 정릉천이 동남으로 흘러 중랑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 하천은 창동-미아리를 연결하는 길음교와 중랑교로 연결되어 있다.

미아리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은 제4사단으로 제5·제16·제18보병연대와 3개 포병 대대를 주축으로 편성되었으며, 창동전투에서 국군을 돌파하고 서울 지역으로 진입한 부대였다.

한편, 미아리 지역에서 북한군을 방어하는 국군은 미아리지구전투사령부로 제5사단 제20연대와 제2사단 제16 및 제25연대,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로 구성되었다. 미아리 지구전투사령부 사령관에는 제5사단장이었던 이응준 소장을 임명하였고, 그는 27일 오전 10시에 미아리에 도착하여 103고지를 전방지휘소로 정하였다. 수도 서울의 고수 여부를 결정짓게 될 미아리-회기동 방어선은 대체로 27일 오후에 편성 완료하였으나 총병력은 3,000명에 불과하였다.

창동 방어선을 무너뜨린 북한군은 20여 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기마부대를 후속시켜 27일 오후 5시에 미아리 방어선으로 육박하기 시작하였다. 제20연대 제1대대(대대장 김한주 소령)가 집중사격을 가하자 그들은 1대의 전차를 버린 채 도주하였다.

이 짧은 교전에서 북한군은 국군 제20연대 제1대대의 기습적인 화력 집중과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창동 쪽으로 철수하였다. 다시 공격을 시작한 북한군은 전차의 화력으로 국군 제20연대 제1대대를 견제하면서 5~6대의 전차와 기마병을 포함한 수 미상의 보병부대를 제1대대 방어정면으로 통과시켰다.

국군 제20연대 제1대대는 다음 날인 28일 아침 서울 시내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총소리를 듣고서야 이미 서울에 북한군이 진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1대대장은 상급부대와의 교신이 두절된 것을 알고 철수명령을 내렸다.

국군 제20연대 제1대대의 방어정면을 통과한 북한군 전차는 국군 제1연대(-) 방어정면을 통과하여 길음교 전방에서 일단 정지하였다. 이때 길음교 일대에 지향된 국군의 모든 화기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여 약 20분 동안 북한군 전차대열을 집중 공격하였으나 단 한 대의 전차도 파괴하지 못하였다. 길음교에 매복한 제1연대(-) 및 제15연대 제2대대 전차특공대가 2.36" 로켓포를 쏘고, 김순(제15연대 제5중대장) 대위가 지휘하는 결사대가 전차에 육탄공격을 감행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국군의 저항이 느슨해진 것을 포착한 북한군 전차는 다시 전진하여 28일 새벽 1시 경에 미아리고개를 넘어 돈암동으로 진입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미아리고개 일대에 배치된 모든 국군 부대는 견제를 유지하거나 혹은 분산되어 한강 이남의 노량진, 시흥, 수원, 김포반도, 광주 일대로 철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장병

들이 방어진지에 남아 끝까지 저항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국지적인 시가전을 펼치면서 북한군에게 타격을 주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봉일천 전투

[奉日川 戰鬪, 1950. 6. 27.~28.]

### 개요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6월 27일에서 28일까지 봉일천 지역에서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역습을 전개하면서 적을 저지하였으나, 전황의 변화로 인한 철수 명령에 따라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국군 제1사단이 최후저항선을 형성한 지대의 문산천(汶山川)은 앵무봉과 매봉 일원에 서 발원하여 동에서 서로 흐르다가 위전리 부근에서 북으로 방향을 바꾸어 임진강으로 흐른다. 이 문산천은 그 너비가 10~20m에 불과하고 수심이 얇아서 어느 지점에서든 도하가 가능하며, 전담용수의 관개로 이용되는 실개천에 지나지 않는다. 문산-서울 축선상의 주접근로가 되는 1번 도로와 법원리-벽제로 이어진 307번 도로는 기갑부대의 접근이 용이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사단의 최후저항선인 방어선은 서에서 동으로 229고지-47고지-151고지 신산리-창만리(금촌 동북쪽 8km)를 연하는 선이었다. 이곳은 문산 일대에서 남하하는 적을 감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에는 문산천을 중간에 끼고 남북으로 펼쳐진 수전지대를 이루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봉일천 지역의 공격을 담당할 북한군은 제1사단 제2연대와 제3연대로서, 제2연대는 1개 전차중대와 자주포 포대로 편제되었고, 제3연대 역시 1개 전차대대와 자주포 대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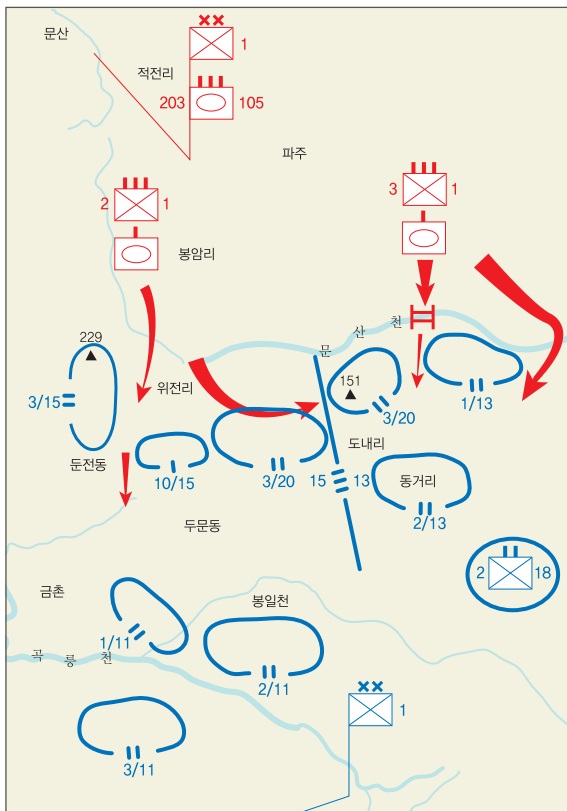


구성되어 보전포 합동 공격을 시도하였다.

봉일천 최후방어선에는 국군 제1사단의 제15연대를 좌전방에 제13연대를 우전방에 배치하였으며, 사단 예비로 제11연대를 봉일천에 주둔시켰다.

6월 26일 야간 임진강 방어선으로부터 철수를 개시한 제1사단의 예하부대들은 27일 아침, 봉일천 전방의 방어선을 점령하게 되었다.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 및 보병학교 교도대대는 사단으로부터 철수명령을 적 주력부대와 교전 중에 수령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이 말단부대까지 고루 전달되지 못하여 차질을 빚었다. 반면 제13연대는 북한군이 퇴로를 차단하기 전에 교대진지에 의한 지연전을 전개하였으므로 비교적 손실이 적은 가운데 최후저항선을 점령할 수 있었다. 제15연대는 문산리 일대에서 철수하는 제1사단 직할대 및 제11연대를 엄호하고 낙오병을 수습하고 있었다. 사단장은 공세적인 방어 작전으로 전환하여 주저항선을 회복하기 위한 국지적인 역습계획을 세웠다.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27일 오전 사단방어선 좌일선에 제15연대의 1개 대대와 제20



연대의 제3대대를 제11연대 전방에 추진시켜 사전에 진지를 점령하게 함으로써 2중방어선을 편성하였다. 오전 10시 무렵에 1번 도로와 서측방의 구릉지로부터 각각 북한군 1개 대대규모가 나타났다. 제15연대 제3대대장(최병순 소령)은 즉각 제9중대에 사격을 개시하게 하여 이들을 30분 만에 격퇴하였다.

정오가 되자 100여 필 가량의 기마대를 선두로 한 전차가 1번 도로를 따라 문산천까지 남하하였는데 그 후방 봉암리까지 연해 있는 적 전차는 18대에 달하였다. 제15연대 제3대대장(최병순 소령)은 적 전차에 대해 수류탄으로 공격할 것을 결심하였다. 대대장은 제11중대장(이선도 대위)에게

수류탄 돌격을 명령하며 자신이 먼저 수류탄을 들고 앞장섰다.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나오는 분전 끝에 1번과 6번 전차의 포탑 속에 수류탄을 던져 넣음으로써 대열속의 4대의 전차와 함께 6대의 전차를 포획하였다. 그러나 이 와중에 제11중대장이 전사하는 동시에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제15연대는 27일 오후 5시 무렵까지 전면의 적을 저지하고 격퇴하였으나, 밤이 되자 포격과 함께 주간보다 많은 전차를 동반한 연대규모의 적이 문산천을 도하하여 일제공격을 가하였다. 연대는 탄약 고갈로 인해 봉일천으로 철수하였다.

임진강방어선에서 봉일천으로 철수한 제13연대는 이날 아침에 도착한 제1대대로 창만리의 구릉을 점령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앞서 151고지를 점령한 좌일선 제3대대에 이어 우일선의 병력배치가 완료되었다. 저녁 7시경이 되자 돌연 연대정면으로부터 전차를 앞세운 적 부대가 문산천 북쪽에 나타나 포격과 더불어 공격을 시작하였다. 연대의 좌우 일선 대대가 약속이라도 하듯 즉각 전 화력을 집중한 데 이어 제1대대 서측방 노변에 배치된 57mm 대전차포가 화력을 집중하였다.

제13연대의 좌일선인 제3대대 서측방으로 침투한 규모 미상의 적이 공격을 재개하였다. 적은 151고지 후방으로부터 제3대대를 야습한 데 이어 대대규모 이상이 우일선 제1대대 동측방을 우회하여 2대대가 배치된 동거리까지 침투하였다. 연대는 폭우 속에서 치열한 격전을 치렀다.

사단은 우일선 제13연대에 동측방 경계를 강조하는 한편, 교도대 제1중대를 고양리 동측의 206고지를 점령시켜 의정부로부터 벽제에 이르는 312번 도로를 봉쇄하게 하고, 신성동의 나머지 병력을 예비로 명봉산(△248) 서쪽에 배치하여 사단 후방지역에 대한 경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 제15연대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제15연대의 철수에 따라 사단은 금촌 북쪽의 주진지 회복을 위한 반격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밤사이에 우회침투한 적의 야습으로 우일선 제13연대가 태반의 주진지를 상실함으로써 동거리 남쪽에서 저지진지를 편성하였다. 또 제2선에 배치된 제11연대는 밤사이에 갑자기 주저항선부대가 되어 28일 새벽 5시30분에는 좌일선 제1대대가 적의 침공을 맞게 되었다.

제11연대장은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29일 오전 8시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좌우일선에 전개하고 제1대대를 예비로 하여 2개 대대의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오전 11시를 조금 지났을 무렵에는 좌우 인접부대와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한 후 공격을 계속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날 정오 무렵에 사단장은 갑자기 서울 함락 소식을 보고받게 되었으며, 이

후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사단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각 부대별로 이산포와 행주나루를 통해 도하철수를 개시하며 6월 30일까지 시흥에 집결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6월 27일 봉일천의 배치는 제13연대와 증원된 제15연대를 전방에, 제11연대를 예비로 하는 도합 8개 대대로써 문산-서울간의 국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 배치였다. 사단장은 이곳이 서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으로 28일 조기에 주진지 회복을 위한 반격작전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북한군의 서울 진입 소식으로 인해 전선의 재정비에 들어가질 수 없었던 제1사단은 행주와 이산포 2개 지점에서 한강을 도하하여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사단은 최후저항선인 봉일천에서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을 맞아 방어전을 치르며 특공대를 조직하여 북한군 전차 7대를 파괴하는 등 전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서울 진입으로 제1사단은 최후방어선을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제1사단 제13연대는 개화산을 피하여 영등포 방면으로 야간 행군을 계속하여 김포가도를 횡단, 시흥보병학교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철수 도중 북한군의 사격으로 많은 병력을 잃게 되었다. 이산포에서 도하한 제11연대도 김포반도를 경유하여 소집단으로 행동 시흥과 수원으로 철수하였다. 그 밖의 부대들도 29일 오후에 시흥보병학교에 집결하여 먼저 철수한 부대들과 합세한 다음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부대의 재편성에 들어갔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말고개 전투

[馬峴 戰鬪, 1950. 6. 27.~29.]

### 개요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홍천 북쪽 말고개에서 북한군 제12사단 제32연대와 제30연대를 맞아 싸운 전투이다.

**전개과정**

말고개가 위치한 철정리 일대의 지형은 큰말고개와 작은말고개가 44번 도로와 부근의 저지대를 강제하며, 작은말고개를 통과하는 도로는 굽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전차 방어에 유리하다. 또한 철정리 남쪽에서 내촌천과 합류하는 화양강이 말고개를 끼고 흐르고 있어 측방이 보호되고 현리에서 나오는 451번 도로가 한계마을에서 44번 도로와 합쳐진다. 따라서 말고개는 북한군 기계화부대가 통과하게 되는 관문으로서 흥천 방어를 위해 중요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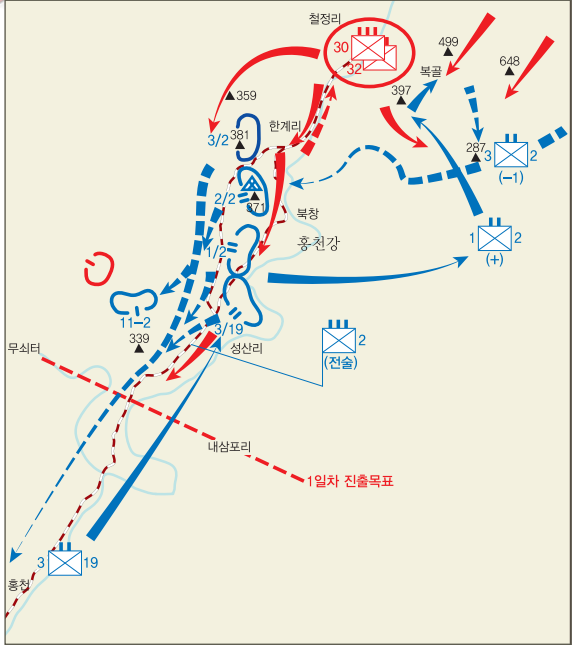
말고개를 통해 흥천을 공격하는 북한군은 제12사단의 제1제대인 제32연대와 제30연대로 각각 3개 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제603모터사이클 연대가 지원하였다. 말고개에서 방어선을 견지하고 있는 국군은 어론리 전투에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한 제6사단 제2연대였다.

어론리 전투에서 철수한 제6사단 제2연대는 한계리로 철수하여 철정초등학교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재편성하였다. 병력을 재편한 제2연대는 26일 오후 5시에 좌일선에 제2대대와 우일선의 제1대대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진지를 구축하였다.

6월 27일 오전 7시에 제2연대지휘소가 설치된 정산리를 방문한 사단장은 제19연대와 포병 주력을 흥천으로 전용하여 말고개에서 북한군의 침공을 저지하기로 결심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 제30연대와 제32연대는 춘천지구에서의 총공격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27일 새벽부터 제2연대에 포격을 집중하면서 자주포를 선두로 하여 침공을 시작하였다.

이에 국군은 오전 9시를 기해 정산리로 전진한 제3포대로 하여금 북한군의 집결지인 철정리에 집중포격을 가하도록 하였다. 제3포대의 포격은 북한군의 공격기도를 분쇄함은 물론 야간에 다시 침투하는 그들을 격퇴함으로써 연대의 진용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제2연대장은 반격계획을 구상하였고, 반격작전의 주 임무는 제1대대가 맡았다.

한편, 제19연대장 민병권 중령은 북한군의 자주포를 파괴할 11명의 특공대를 선발하여 파괴방법 등의 교육을 시킨 후 연대수색대장(박준수 중위)의 인솔하에 목적지로 출발시켰다. 이들은 2인 1개조로 편성하였고, 말고개의 정점으로부터 한계리 방면으로 도로 양편에 10~20m의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6월 28일 새벽 5시 무렵 홍천 동북쪽 15km 지점의 한계리를 점령한 북한군 제12사단(-1)은 그 직후 산발적인 사격을 가하며 점차로 병력을 증강하였다. 마침내 예정된 공격 개시 시간인 5시 30분에 접어들자 역습을 준비했던 제2연대 제1대대는 공격개시선을 출발하였다. 북한군의 중앙 지역을 돌파한 대대는 중간 목표인 397고지에 전초로 배치되어 있던 20여 명의 적을 격퇴하고 복골을 완전 포위하였다. 대대의 기습으로 한때 혼란에 빠졌던 북한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복골에 집중포격을 가하면서, 대대의 진출로를 차단하기 위해 397고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역포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1대대는 연대의 화력지원을 받으며 방어진지인 말고개로 복귀하였다.

북한군은 제2연대의 방어진지가 구축된 말고개 일대에 대해 포격을 가하며 SU-76 자주포의 화력엄호와 함께 말고개를 돌파하려는 전술을 시도하였다. 적의 자주포가 다가오자 제2연대와 제19연대는 일제히 사격을 집중하였다. 이로 인해 보병과 분리된 북한군의 자주포는 말고개를 향해 포격과 기관총사격을 난사하며 다가왔다. 57mm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의 제1번포가 포격을 가했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적 자주포의 포격으로 제1번포가 파괴되었다.

제2번포가 북한군의 선두 자주포에 포격을 가하여 자주포가 일시 기동이 저지되자 제19연대 특공대원이 수류탄 2발을 포탑으로 투척하여 폭파시켰다. 아군 제2번포의 저지 사격과 육탄특공대의 수류탄 투척으로 북한군 자주포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였다. 포탑을 열고 탈출하던 일부 승무원들은 고지 위에서 가해지는 제2연대와 제19연대의 사격으로 전원 사살되었다. 이날 전투에서 국군은 북한군 자주포 10대를 노획 및 파괴하고 40여 명의 적을 사살하였다.

밤 10시 30분에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제2대대는 일진일퇴의 격전을 거듭했으나, 북한군의 화력과 병력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어 371고지로 철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연대장은 제2대대장에게 제1대대와 협동으로 반격을 실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양 대대는 집중포격과 집중사격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6월 29일 0시에 주저항선을 회복하였다.

다음 날 북한군은 춘천 외곽선의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오전 8시를 기해 홍천가도로

돌파를 시도하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격전 4시간 만에 격퇴하였으나 오후 2시 사단장으로부터 홍천으로 철수할 것을 지시받자 이를 각 예하대에 전달하였다.

### 결과 및 영향

6월 30일 오후 목계리 성남국민학교에 집결한 제2연대는 홍천에서 사단에 합류하였다. 제6사단은 홍천에서 징발차량으로 원주로 철수하였다. 원주에서 제6사단은 서쪽의 국군 주력이 한강선 남안으로 이동한 것을 알고 7월 1일 오후 원주를 출발 제천을 거쳐 충주로 철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서울시가지 전투

[서울市街地 戰鬥, 1950. 6. 28.]

### 개요

북한군의 선공부대인 제4사단과 제3사단 및 제105전차여단이 서울로 진입한 1950년 6월 28일에 철수 도중의 국군 잔여부대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규모로 타격을 가한 시가전이다.

### 전개과정

남침 공격에 따라 의정부-포천 정면에서 서울을 공격하는 북한군 제4사단은 3번 도로에서 국군을 견제하고, 제3사단은 좌익에서 43번 및 47번 도로를 따라 서울 동측에서 포위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제1사단이 제4사단의 우익에서 개성-문산-서울에 이르는 1번 도로로 진출하여 서울 서측에서 국군을 포위하도록 하였다. 고속기동부대인 제105전차여단은 2일차에 투입하여 한강교를 점령하는 것이 북한군의 기도였다.

6월 28일 서울 시내에 진출한 북한군 부대는 북한군 제4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제105

전차 여단으로 제4사단은 제5·제16·제18보병연대와 3개 포병대대를 주축으로 공격에 가담했고, 제3사단도 제7·제8·제9보병연대와 3개 포병대대를 주축으로 공격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제105전차여단(-)은 제107·제109·제203전차연대로 편성되었다.

이에 맞선 국군은 창동방어전투사령부와 미아리방어전투사령부의 부대로 각각 탈출하는 도중 분산된 소부대와 수도경비사령부의 제18연대와 육군본부 장병들로 이루어진 전차폭파조 등이었다.

미아리 방어선이 돌파될 무렵 육군본부는 중요 지점에 차량과 기타 물체로 바리케이드를 구축하여 도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주요 지점에는 수도경비사령부와 육군본부 장병들에 의해 북한군 전차의 진입에 대비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다.

육군본부 지시에 의해 공병들로 전차특공조가 편성되었다. 육군본부의 김백일 참모부장은 공병감에게 공병으로 전차폭파조를 편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제1공병단 제1전투중대장(전유형 중위)이 지휘하는 전차폭파조가 편성되었다. 전차폭파조는 창경원 앞에 구축된 바리케이드 옆에 매복하고 있었다. 28일 새벽 1시 반경 전차폭파조는 바리케이드 앞에 전차를 정지하고 밖으로 나오는 전차장을 사살하였다. 이때 폭약을 전차의 무한궤도 옆에 놓고 폭발시켰다. 그러나 북한군 전차는 오히려 기총소사를 가하면서 바리케이드를 밀어붙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수도경비사령부로부터 시가전을 전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18연대 제1대대는 삼각지 일대 민간 건물과 도로변에 배치되어 있었다. 제1대대는 6월 28일 오전 10시를 전후하여 삼각지 로터리로 들어서서 선두전차를 57mm 대전차포로 사격하여 명중시켰다. 그러나 북한군 전차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어 10여 대의 전차가 연이어 지나갔다. 57mm 대전차포의 사격이 무위로 끝난 것을 본 제1중대 제3소대장(강성탑 소위)은 준비해 둔 화염병과 수류탄을 전차대열에 던지면서 육탄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실패하고 전사자만 발생하자 곧바로 철수하였다.

한편, 28일 아침 미아리 방어선에서 청량리로 철수한 제5연대 제3대대의 일부 병력도 북한군 전차 12대가 청량리역 앞을 통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북한군에게 기습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9명의 하사관이 민가에서 사복 차림으로 변장한 후, 일제히 전차에 뛰어올라 수류탄을 전차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 결과 7대의 전차 안에서 수류탄이 폭발하였다.

이외에도 국군 장병들이 시내 곳곳에서 북한군과 교전하거나 그들의 통신과 보급 시설을 파괴하는 등 북한군에게 타격을 가한 소규모 교전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28일 이른 아침 남산으로 올라간 참모학교 부교장 이용문 대령은 그곳에 모여든 낙오병들로

유격대를 편성하고, 백호부대라고 이름 붙여 유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교전이 거듭될수록 병력 손실이 증가되고, 탄약과 식량획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저히 부대행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6월 28일 미아리 방어선이 돌파되고 한강교가 폭파된 이후 서울 북쪽에 배치된 국군은 서울 시내에서 간헐적으로 북한군에 맞서 소규모 교전을 치른 후 개별적으로 서울 외곽 지대로 진출하여 광나루, 뚝섬, 마포, 행주, 이산포 일대에서 한강을 건넜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노량진 전투

【鷺梁津 戰鬪, 1950. 6. 28. ~ 7. 3.】

### 개요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혼성제7사단이 1950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한강방어선 노량진 일대에서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한강 도하를 6일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노량진 지역은 용산에서 한강대교와 철교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강을 경계로 북한군 도하를 저지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 일대는 강바닥의 폭이 1~1.5km이며 강물의 폭은 300~500m, 그리고 수심이 평균 3.5m로 어느 곳에서든지 도섭이 불가능했다.

6월 28일 새벽 미아리 저지선이 무너지자, 북한 제1군단은 제105전차여단과 함께 그날 한강 북쪽의 도하 지점을 점령하는 한편, 밤부터 한강 도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유재홍 혼성제7사단장은 28일 하행선 철교의 침목을 통해 오전 7시를 전후해 노량진



역에 도착하여 역사에 임시지휘소를 개설하여 병력 수습에 나섰다. 사단장은 오후 3시에 사단지휘소를 대방동의 수도육군병원(구 공군본부)에, 사단수용소를 인접한 성남중학교에 개설하여 병력을 재편하였다. 이때 사단장은 철교가 반파 상태였으므로 공병으로 하여금 이를 완전 절단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폭파 수단을 확보할 수 없었고, 북한군의 방해로 교량폭파에 실패했다.

29일 낮부터 북한군의 정찰대가 전차의 화력 엄호 아래 작은 목선을 이용하여 분대 규모씩 도하를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아군이 수원지 일대의 수도고지와 사육신묘가 있는 39고지 일대에서 방어하고 있었으므로, 흑석동과 본동 사이의 강변 능선(도당재, 현 10용사기념탑지)과 동작동-흑석동 지경의 능선 쪽으로 도하하려 했다.

이에 맞서 혼성제7사단은 시흥지구사령부로부터 급히 증원된 제1연대와 제9연대의 혼성 1개 대대 및 제20연대와 제25연대 혼성 각 1개 대대, 그리고 제15연대 제3대대로 방어력을 보강하였다. 또한 유재홍 사단장은 노량진-영등포 도로의 북쪽 강변지역에는 제1연대를 증원하여 그 정면의 혼성공병대대와 방어를 나누어 맡도록 지시하였다. 제9연대 혼성대대는 동작동-흑석동 사이의 능선, 제10연대 혼성대대를 흑석동-본동 사이의 능선, 제15연대 제1대대는 수도고지 북쪽(수원지 남쪽), 제25연대 제2대대를 수도고지 서북쪽(사육신묘 남쪽), 제15연대 제3대대를 수도고지 서쪽 당산(△76)에 각각 배치하였다.

일부 도하한 적 소대 규모가 흑석동-동작동 능선이 끝닿는 강변 무명고지를 점령하고 진지를 급편하자, 제9연대 제1대대는 즉시 역습을 개시하여 그들을 제압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제20연대 제1대대는 흑석동-본동고개 너머의 도당재 일대에서 적 소대 규모가 도하 거점을 마련하려 호를 파고 있을 때 공격해 격퇴시켰다.

30일 날이 밝자, 북한군 일부가 다시 강변 고지를 발판으로 포병의 지원 아래 도하를 시작하였다. 이에 맞서 고지 정상의 제9연대가 능선을 따라 올라온 적을 물리쳤다. 오전 중으로 미 공군의 제19폭격전대 B-29 15대가 강 북안의 제방을 따라 집결 병력과 도하 주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지원했다.

수도고지 정면에서도 30일 새벽에 북한군 1개 대대 규모가 다시 강을 건너 재차 도당재에 접근함으로써 도하 거점을 집요하게 확보하려 하자, 제15연대 제3대대는 제20연대 제1대대와 같이 수도고지-도당재 능선을 따라 공격한 결과 오전 10시를 전후하여 또 한번 그들을 저지했다. 다시 북한군 1개 소대 규모가 정오 경 흑석동 고지 일대로 침투하였으나, 제20연대 1대대는 그들을 포위 공격하여 격퇴하였다. 이렇게 낮 동안 수도고지 부근에서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었으나, 강변 무명고지 정면에서 제9연대는 이

날 강 남안에 올라 온 북한군을 1개 대대 규모로 판단하고 제25연대 제2대대 지원을 받아 진지를 확보했다.

7월 1일 혼성제7사단은 방어정면인 노량진-흑석동 지역의 강안에 올라 온 북한군 제4사단의 본격적인 도하작전에 타격을 주면서 전선을 고수하였다. 전날 밤에 사단장으로부터 “강변고지-수도고지의 능선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25연대 제2대대는 2개 중대로 수도고지 부근에서 능선으로 침투한 북한군 1개 분대 규모를 격퇴했다. 그러나 대대가 그 능선 위에 올라서는 순간에 강 건너로부터 박격포탄이 쏟아져서 대대장이 전사하는 등 적지 않은 병력 손실을 입게 되었다.

또한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강안에 배치된 공병대대의 지휘소인 월파정(현 수산시장 지역)에 아군 복장으로 위장한 적 편익대 1개 분대 규모가 침투해 대대 지휘소를 급습해 지휘소는 와해되었고, 대대장도 흉부에 관통상을 입게 되자 대대는 안양으로 철수했다. 이에 사육신묘 일대에서 제20연대 제1대대가 철교 쪽으로 도강하는 북한군을 저지하자, 연대 지휘소까지 적의 포탄이 집중되었다.

2일 노량진역 일대의 강변 진지는 제20연대와 제1연대의 각 혼성대대가 적의 접근을 저지함으로써 공방전이 반복되었다. 사단은 대체로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단 우측 반포-과천 일대에 침투한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3일 새벽 4시경 파괴된 경부선 철교를 보수한 북한군 제4사단은 무개 열차를 이용해 전차 4대를 앞세우고 한강을 건너왔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군은 화력을 집중했으나, 그들의 전차는 노량진으로 돌입하였다. 전차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장병들의 의지가 순식간에 동요하기 시작해 수도고지-사육신묘 부근에서 일부 병력이 진지를 이탈하였다. 이에 따라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은 더 이상 이 전선을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혼성제7사단에 안양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 결과 및 영향

혼성제7사단은 한강 남안에서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6일간 저지해 그들의 작전에 차질을 빚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미 지상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강방어선이 돌파 당하자, 혼성제7사단은 수원·평택으로 물러나면서 계속 지연작전을 수행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2006).

【조성훈 집필】



## 영등포 전투

[永登浦 戰鬪, 1950. 6. 28. ~ 7. 3.]

### 개요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혼성수도사단이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한강방어선 영등포 일대에서 북한군 제4사단의 한강도하를 6일간 저지한 방어 전투이다.

### 전개과정

영등포 일대는 노량진 지역과 함께 한강방어선의 핵심지역으로 수원-평택의 경부국도로 돌파하려는 북한군 제4사단의 길목을 저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한강변에 있고 안양천·도림천 등이 합류하는 낮은 지대를 이루고 있어서 방어하기는 용이하지 않았다. 북한군 제4사단은 한강을 도하하여 영등포-안양-수원 축선으로 공격하려 했다.

이에 맞서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영등포 일대에 혼성수도사단을 배치했다. 병력이 재편되기 전에 당시 이곳에는 영등포학원 병력 170여 명이 경인국도 확보에 주안을 두고, 공장지대에 대한 좌익 세력의 소요 방지에 힘쓰고 있을 뿐이었다. 다행히 이 무렵 제18연대 제1대대 제3중대가 마포로 도하하여 양화나루의 돌출고지(현 인공폭포) 일대에서 독자적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28일 오후 3시에 혼성수도사단장으로서의 임명된 이종찬 대령은 사단 지휘소를 1번국도 바로 옆에 위치한 우신초등학교에 개설하였다. 이때 김포지구로부터 철수한 제8연대 제3대대는 시흥에 집결하였는데 비교적 병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단의 기간으로 삼았다. 사단사령부는 제8연대로 하여금 제1대대와 3대대를 신길동-안양천에 이르는 여의도 맞은편 강변에 진지를 구축하게 하고 기갑연대에서 장갑차를 지원하였다.

서종철 제8연대장은 김포지역을 장악한 북한군이 장차 여의도 쪽에서 진격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비하였다. 제8연대는 29일 한강방어선을 직접 살펴본 맥아더(Douglas MacArthur) 미 극동군사령관 일행이 수원으로 돌아간 다음, 미군 지원을 기대하면서 방어태세를 한층 강화했는데, 이때 삼각지의 연대본부에 있던 제18연대 제1대대와 57mm 대전차포 1개 소대가 증원되었다. 연대장은 동 대대를 안양천 동쪽 언덕에 배치해 김포 방면의 북한군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고, 제1, 제3대대는 여의도 정면 방어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전차포소대는 동양맥주공장 남쪽의 고개에 포좌를 설치하였다.

29일 정오를 넘어서자 북한군 제4사단 일부가 뗏목을 타고 하중리나루에서 여의도 북쪽 끝에 있는 밤섬으로 산발적으로 도하를 시도했다. 여의도를 사이에 두고 피아가 공방

을 치르는 동안, 6월 30일 날이 밝았다. 북한군은 정면의 국군 제8연대 진지를 돌파하지 못한 채 일부 병력으로 여의도 비행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제8연대장은 여의도에 북한군 진지가 구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3대대 11중대를 여의도에 투입시켜 비행장을 확보했으나, 적의 계속된 포화로 많은 희생을 내고 철수해야 했다.

북한군 제4사단은 제5연대를 내세워 7월 1일 새벽 4시부터 여의도-영등포 방면으로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전날 제3사단이 신사리 방면으로 도하 공격을 한 데 이어, 마포와 하중리나루터에서 대규모 도하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뗏목과 거룻배에 병력과 장비를 나누어 싣고 밤섬에 전진 거점을 강화한 다음 제8연대 정면인 김포가도의 제방으로 육박하였다. 이에 맞서 제8연대 장병들은 제방에 파 놓은 호 속에서 북한군보다 유리한 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수적인 우세만을 믿고 개활지로 밀어닥치는 적에게 집중적인 조준사격으로 그들을 격퇴하였다.

7월 2일 동양맥주공장의 수도사단 지휘소가 시흥의 보병학교로 이동하는 가운데 여의도에서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전날 밤에 북한군 1개 대대 규모가 다시 비행장을 점거하고 제8연대 진지를 집요하게 돌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제8연대장은 제1대대 1중대로 하여금 비행장을 역습하였다. 중대는 적의 집중적인 사격을 받고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적을 밤섬으로 격퇴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제8연대의 좌일선인 제18연대 제1대대 역시 하루 종일 난지도 쪽에서 양화진으로 도하하려는 적을 저지하였다. 북한군 일부가 그 서안을 따라 오류동으로 남하하는 것을 관측하고 제3중대를 제방을 따라 측방으로 배치하였다.

북한군은 이날 항공기를 투입하여 8~9회 정찰을 실시함과 아울러 아군 진지에 기총사격과 폭격을 감행하였다. 그들의 집중적인 폭격으로 혼성수도사단은 방어선을 지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빠졌다. 사단은 즉시 여의도와 난지도 일대에 항공 폭격을 긴급히 요청하였다. 이날 오후 9시 북한군 약 2개 대대가 여의도로 건넜으며, 1개 연대도 도하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영등포 정면의 제8연대 역시 한강철교로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워 건넜고, 또 오류동 쪽에서 경인가도를 따라 영등포 시내로 진입해 연대의 배후를 교란함으로써 이 전선을 지탱할 수 없었다. 3일 이른 새벽부터 영등포 일대에 북한군의 대대적인 포격이 시작되었다. 영등포구청 부근 연대 전방지휘소에서 철야한 연대장은 급히 제1선인 김포가도 제방으로 피하는 도중 포탄에 부상을 입어 시흥으로 후송되었다.

이미 오전 7시 이전에 북한군 전차 6대가 영등포로 진입하자, 제8연대 일부 병력이 분산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연대는 철수 명령에 따라 시흥선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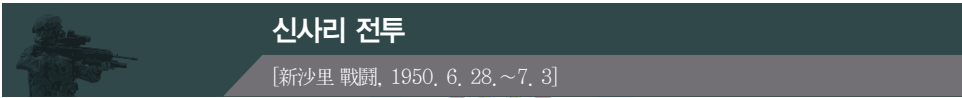
7월 3일 새벽 전차를 앞세우고 노량진으로 도하한 북한군에 의해 공격을 받고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에 방어선 정면의 적도 여의도로 도하함으로써, 혼성수도사단은 영등포 일대에서 시흥으로 철수하였다.

영등포 전투는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을 지연시켜 수원 이북에서 국군의 주력을 붕괴시키려는 그들의 계획에 큰 차질을 주었으며, 국군의 전략적 후퇴와 미 지상군의 참전시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북한 측이 이 전투에서 국군 3,400명을 살상시키고 화포 및 박격포 28문을 노획했으며 장갑차 4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할 만큼 격전지이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강석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조성훈 집필]



## 신사리 전투

[新沙里 戰鬥, 1950. 6. 28. ~7. 3]

## 개요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혼성제2사단이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한강방어선 신사리-말죽거리 일대에서 북한군 제3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 전투이다.

## 전개과정

신사리-말죽거리 일대는 남태령-인덕원-군포선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이다. 북한군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한강방어선에 배치된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주력이 포위될 수 있으며, 신사리-판교-풍덕천-수원으로도 우회로 진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6월 28일 오후 새로 임명된 임선하 혼성제2사단장은 사단지휘소를 과천에 개설하여 원래 사단의 견제부대인 제5, 제16연대를 수습했고,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를 과천 북쪽의 우면산-관악산 사이의 요충지인 남태령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신사리 일대에서는 독립 기갑연대 기병대대가 아군 철수병력을 수습하고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29일에는 북한군의 도하에 대비해 사단장은 남태령 부근의 제3연대를 말죽거리에, 제16연대를 우면산-남태령에, 증원받은 보병학교 연대를 과천에 예비로 각각 배치하였다. 또한 수원에 집결중인 생도 제1, 제2기생 300여 명으로 편성된 혼성생도 대대가 광나루 건너편 천호리 일대에서 적의 도하를 막도록 하였다. 이날 해질 무렵에 기병대대 제3중대 3소대가 청담리 부근에서, 압구정 쪽으로부터 거룻배로 도하한 1개 소대 규모를 포착하여 격퇴하였다.

30일 새벽 한남동-이촌동 부근의 북한군 제3사단 8연대가 신사리 방면으로 도하공격을 본격화하였다. 이날 새벽에 도하한 일부 병력이 반포리 부근의 야산에 엄호거점을 확보한 후 기병대대 진지 서측을 위협하였고, 남산 기슭의 북한군 포병도 기병대대의 진지를 강타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혼성제7사단의 장갑차 2대와 포병이 지원되었으나, 기병대대는 절대적으로 열세한 화력으로 인하여 군포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역삼리 부근의 제3연대는 북한군의 공격이 개시되기 전에 먼저 역습을 감행하여 이를 격퇴하였으나, 화력의 열세로 다시 밀리게 되었다. 제3연대는 온종일 격전을 벌인 후 제5연대와 교대하면서 과천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제16연대 역시 우면산을 중심으로 새로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7월 1일 새벽에 제16연대 수색중대 75명이 말죽거리로 추진되어 도로를 경계하였다. 그러나 전날 밤 북한군 일부가 이미 제5연대의 공간으로 침투해 말죽거리를 지나 판교로 진출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3사단은 이날 아침 병력의 50%를 강남으로 도하시켰다.

이날 새로 임명된 정일권 총참모장은 말죽거리 정면의 북한군 도하를 어떻게 저지하느냐에 방어작전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육군사관학교 부교장인 이한림 대령을 제2사단장으로 기용하고 전력을 보강하였다. 이날 미 제19폭격전대 B-29, B-26 폭격기와 F-80, F-82 전투기들이 한남동-판교 일대를 폭격해 적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2일 새벽부터 북한군의 일부가 다시 신사리 부근에서 도하해 말죽거리 부근의 제5연대 진지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면서, 연대장이 다리에 부상을 입는 등 많은 병력 손실을 입었다. 결국 제5연대는 더 이상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해 과천으로 철수하게 되었고, 말죽거리-시흥리간의 도로는 그들에게 완전히 개방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이한림 사단장은 과천에 예비로 배치되어 있던 보병학교 병력을 말죽거리 남쪽 193고지로 이동시켜 말죽거리-시흥리 도로를 방어하고자 하였다. 보교연대

는 193고지의 동쪽에 이르렀을 때, 마침 시흥리 쪽으로 동남향 중인 적의 차량중대를 포착해 박격포로 선두와 후미의 장갑차를 격파해 보급대를 무찌른 후 193고지에 진지를 급편했다. 제16연대는 우면산 진지를 고수하도록 하여 우선 과천 정면으로의 적의 공격을 막아내게 하였고, 말죽거리에서 철수한 제3연대를 과천 동남 348고지에 배치하였다. 사단은 사령부도 오후에 지휘소를 군포장으로 옮겨, 과천-군포장 도로 확보에 전력했다.

한편, 육군본부와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말죽거리 정면의 전황이 급변함에 따라 판교-풍덕천-수원에 이르는 수원 동북쪽을 강화하기 위해 혼성제3사단에 맡겼다. 이에 따라 금곡리 부근에서는 제22연대가 제25연대 및 육사 생도대와 함께 진지를 강화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 제3사단 선두부대가 전날 판교 삼거리 부근으로 진출한 뒤부터는 그동안 전투에서 손실이 컸고 뒤따라야 할 보급부대가 혼성제2사단 제16연대 수색대에 의해 길이 막혀 남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 결과 및 영향

혼성제2사단이 신사리-말죽거리 일대에서 지연전을 전개했으나, 북한군 제3사단은 한강을 건너 말죽거리를 거쳐 판교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그렇지만 북한군은 한강방어선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수원 이북에서 국군 주력을 섬멸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예비인 제1사단을 풍덕천에 투입해 금곡리 일대에 전개한 북한군 제3사단의 공격을 지연시키도록 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조성훈 집필】



## 김포지역 전투

[金浦地域 戰鬪, 1950. 6. 28.~29.]

### 개요

국군 김포지구전투사령부가 1950년 6월 28일에서 29일까지 김포비행장에서 소사에 이르는 지역에서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김포지구 전투는 김포반도의 동남쪽인 김포비행장과 오류동 부근에서 전개되었다. 이 지역은 남쪽으로 소사, 동쪽으로 영등포로 이어지는 요충지로 이곳이 북한군에게 돌파 되면 바로 수도 서울의 서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곳을 공격한 북한군은 제6사단 제13연대를 주공으로 1대 포병대대와 자주포 포대 및 전차소대로 편성되었다. 국군부대는 김포지구전투사령부 예하부대와 육군본부의 명령으로 추가 투입된 제3사단 22연대 3대대 및 수도사단 제8연대 제3대대가 배치되어 방어를 준비하였다.

6월 28일 날이 밝자,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아침 6시 어선으로 김포반도 동쪽 한강을 역류하여 접근한 적의 일부 부대가 선상에 82mm 박격포를 장치하고 사격을 가하면서 63고지의 동북쪽 강안에 상륙하였다. 이에 강안을 경계하던 기병 제7중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이를 저지하였으나 역부족으로 63고지를 철수하게 되었다.

63고지 일대가 적중에 들어감으로써 그 남쪽의 72고지의 제22연대 제3대대와 접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운유산 쪽에서 적 연대규모의 병력이 포병화력의 지원 하에 오전 8시에 전차 2대를 앞세우고 개활지를 횡단하여 후보생대대의 진전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오전 8시에 제12연대 제2대대의 잔여병력을 운유산으로 추진하였다.

이동안 적의 포화가 김포읍에 떨어지게 되어 오전 10시에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공군의 경비사령부와 함께 지휘소를 김포읍 동남쪽 2km의 도로로 철수하고, 계인주 대령과 최용덕 준장 등이 차후의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서울 함락으로 전세가 결정적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하게 된 김포지구사는 적이 영등포쪽으로 도하를 한다면 퇴로를 차단 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김포반도 중부에서 교착상태에 있는 동안 부대를 우선 부평지구로 철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후 1시에 공군의 경비사령부가 김포비행장을 비우고 수원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오후 2시에 지휘소를 김포비행장으로 옮기고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여 개화산 진지 보강에 주력하였다.

28일 늦은 오후부터는 문산 지구의 제1사단 병력이 행주와 이산포 부근에서 한강을 도하하여 일부는 영등포를 경유하여 시흥으로 향하고, 일부는 비행장으로 모여들게 되어, 사령부는 이들 철수병력의 수습에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김포읍을 석권한 북한군 제6사단(-)은 부대를 전면 재정비하였다. 날이 저물자 적의 일부가 다시 비행장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사령관 대리 최복수 중령은 비행장을 방어하려 하였으나 아군의 희생이 늘어나, 소사로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날 저녁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소사읍 사무소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대오를 수습하였다. 후보생대대와 기갑연대, 도보대대 및 부평경찰대로써 계양산 동쪽 능선에 배치하여 김포-부평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제22연대와 제12연대 병력으로써 비행장 남쪽 구릉지대의 107고지 일대에 배치하여 적이 소사로 남진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조치하였다.

29일 새벽 김포전투사령부는 예정대로 김포 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계인주 대령의 실종으로 새로이 전투사령관에 임명된 최복수 중령은 각개 장병의 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 소사-김포가도를 따라 북진하여 공격개시선에 부대를 전개하였다. 비행장 탈환을 위해 재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적의 강력한 저항으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최복수 중령은 기관총이 장착된 1/4톤 차량을 몰고 비행장 활주로를 돌입하여 기관총을 난사하다가 북한군 총탄에 전사하였다.

결국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장비와 병력의 열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는 김포비행장을 교전 없이 점령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급편부대였으나 부족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방어전투를 수행, 지연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북한군 제6사단(-)의 영등포 진출을 지연시켰다.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이날로부터 7월 3일까지 소사-영등포 부근으로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방어준비를 갖추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1,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원창고개 전투

[原昌峙 戰鬪, 1950. 6. 28.~29.]

### 개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춘천에서 홍천으로 철수하던 중 원창고개에서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를 맞아 수행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원창고개는 표고가 600m로서 횡격실을 이루고 있으면서 북쪽은 급경사로 수목이 거의 없는 지대이다. 춘천으로부터 이 고개 정상에 이르는 도로는 많은 굴곡을 이루고 있고 관측과 사계가 양호함으로써 방어에 유리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는 6월 28일 오전 8시를 기해 엄호나 정찰을 실시하지 않은 채, 종대대형으로 진격을 시작하여 주력을 춘천-홍천간 5번 도로에 지향하고 자주포와 포병을 이곳에 집중하여 연대 정면을 공격해 왔다.

오전 10시경 북한군은 최대한의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석사리에 주력을 두고 공격을 시작하였다. 연대의 철수엄호 임무를 맡았던 제2대대는 북한군의 침공을 맞아 제2포대의 직접 지원 아래 3시간에 걸쳐 4~5차례의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하였다. 연대장은 불리한 지형 조건과 화력의 열세 그리고 주보급로를 차단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간파하고 원창고개 선에서 방어전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다. 정오에 연대는 원창고개에 방어진지 편성을 완료하였다.

오후 12시 30분에 북한군은 석사리 일대에 포진지를 구축하고 국군 제7연대 진지에 대해 포격을 가하면서 원창고개의 좌우측인 금병산과 매내미에 육박하였으나, 제7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철수하였다. 북한군의 압력이 예상보다 강력하여 연대의 보급로 차단이 우려되자, 연대장은 원창고개 선에서 물러나 사현선을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연대 주력과 제2포대를 철수시켜 사현 선에 배치하였다.

저녁부터 북한군의 주력은 포병과 자주포를 석사리로 추진하여 밤새 원창고개에 대한 포격을 집중하였다. 다음 날인 29일 오전 6시경에는 포병사격과 함께 대규모의 병력이 고지를 향해 돌진해 왔다. 제2대대 병사들도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이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등 쌍방 간에는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오전 11시에 북한군은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여 다시 공격을 가해왔다. 이들은 투항의 표시인 백기를 들고 접근하는 기만전술을 펼치며 대대 진지로 접근함으로써 양측은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결국 제2대대는 백병전을 펼쳐가며 적의 돌파를 저지하였다. 제2대대는 오후 1시에 연대주력이 집결해 있던 사현에 도착하여 합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사현에 집결한 제7연대는 화양강 남안으로 철수하여 제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차량과 도보행군으로 출발하여 새벽 0시경에 화양강 남안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급편방어에 돌입하며 다음 전투를 대비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①, 197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②, 200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원미산-오류동 전투

[遠美山-梧柳洞 戰鬪, 1950. 6. 29. ~7. 3.]

### 개요

김포지구전투사령부가 1950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김포비행장 남쪽 원미산과 오류동 일대에서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을 지연한 방어 전투이다.

### 전개과정

오류동 일대는 서울 영등포에서 인천항을 잇는 경인국도(현 경인로)의 일부 구간이면서, 영등포 방면에서 한강 방어선을 펴고 있는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서쪽 측면 보호를 위해서도 확보해야 할 곳이었다. 북한군이 이곳을 점유하여 영등포 방향으로 진격하면 한강 남쪽의 방어가 위협했다.

김포 일대를 장악한 북한군 제6사단은 1950년 6월 30일 날이 밝자 김포비행장에서 부천 소사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전차를 앞세우고 오류동을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들은 전차 2대와 자주포의 엄호 아래 107고지 부근의 후보생대대와 도보대대의 진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일부는 오류동 쪽으로 향했다.

새로 임명된 임충식 김포지구전투사령관은 북한군이 오류동을 거쳐 시흥을 목표로 접근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18연대 제3대대는 오류동 동북쪽에, 제2대대는 오류동 서북쪽에 배치해 그들의 침투로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제22연대 제3대대를 비롯한 혼성 병력을 원미산 북쪽에 전개시켰다.

제18연대 2개 대대는 북한군이 오류동으로 접근해오자 2.36인치 로켓포를 집중하여 저지사격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워 오전 9시 138고지-여명리 일대의 진지 일부를 장악하고 소사 북쪽 2km까지 진출하자, 경인가도는 차단될 위기에 몰렸다. 이에 따라 제18연대 제2대대가 138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역습을 전개하였으나, 지원 화력의 열세로 손실만 입고 말았다.

한편, 원미산 진지에서 후보생대대와 도보대대는 부평경찰대로부터 전투경찰 1개 소대를 지원받아 역습에 나서, 하루 종일 결전을 벌인 결과 오후 5시에 목표를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

오류동-소사지구가 위협을 받자, 시흥지구전투사령관은 제5사단 제15연대장 최영희 대령을 김포사령관으로 새로 임명했다. 신임 사령관은 제15연대 제1·제2대대, 제20연대 1대대, 사단 공병대대 등 4개 대대와 제18연대의 제2, 제3대대 등 6개 대대로 7월 1일 오후 1시에 비행장 남쪽의 138고지-107고지를 확보하려 공격했다. 장갑차의 엄호를 받은 좌측의 제1대대는 오후 5시에 공병대대의 지원을 받아 107고지를 점령했다. 우일선인 제20연대 제1대대의 혼성중대도 67고지를 점령하여 이날 77고지-138고지-107고지선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경인국도를 빼앗길 위협을 제거하게 되었다.

2일 날이 밝자, 사령관은 북한군을 138고지 북쪽의 126고지 너머로 격퇴하기 위해 제15연대 제2대대로 하여금 126고지를 역습하도록 하였다. 제18연대 제2, 제3대대도 투입해 연대는 오류동 북쪽 76고지와 63고지를 점령하였으나, 126고지 쪽에서 북한군의 반격으로 138고지로 물러나, 저녁 전선은 다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날 김포사령부가 기갑연대의 장갑차를 모두 소사에 집결시켜 급유와 포탄의 재장비 등을 실시하고 있을 때 우군기로부터 오인 공습을 받아 장갑차 3대를 잃게 되었다.

전날 밤과 3일 새벽 난지도에서 한강을 도하한 연대 규모의 적이 오류동 정면으로 가세하였고 비행장 쪽에서 북한군 보병을 지원하던 전차 2대가 경인가도에 진출함으로써 영등포지구를 위협하였다. 더욱이 노량진 일대에서 한강을 도하한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 부대들이 영등포 지역을 석권하자, 오류동에서 지연전을 벌였던 김포지구사 병력들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 결과 및 영향

김포지구전투사령부는 원미산-오류동 일대에서 열세한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북한군 제6사단(-)의 진출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한강방어선을 측면에서 방어하였다. 그 결과 김포지구사는 북한군 제6사단(-)의 영등포 진출을 저지하여 한강방어선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7월 3일 오전 한강방어선이 무너져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시흥 일대로 철수하기 시작하자, 안양천을 따라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2006).

【조성훈 집필】



## 울진 전투

[蔚珍 戰鬥, 1950. 7. 1.~2.]

### 개요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가 1950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울진 부근에서 동해안 7번 도로를 따라 포항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766부대의 공격을 이틀간 지연시킨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울진 부근 작전지역은 서쪽으로 오미산(△1,071), 통고산(△1,067), 일월산(△1,219) 등 1,000m 이상의 준령이 이어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200m 전후의 구릉지대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바다에 이른다. 하천은 대체로 태백산맥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데, 비교적 작은 규모로 북에서부터 부구천·남대천·왕피천과 그 지류인 광천·매화천·평해천 등이 있었다. 이 중 울진 남쪽의 남대천과 왕피천이 하천선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다. 지역 내 교통망은 7번 도로(동해가도)가 해안선을 따라 양양에서 포항까지 연결되어 있고, 울진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36번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였다. 그러나 36번 도로의 경우 산악도로로 노퍽이 좁고 굴곡이 심해 내륙과의 연결이 크게 제한되었다. 기간 중 작전지역에는 비가 자주 내렸으며, 25℃를 오르내리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 아침·저녁으로 끼는 해안 특유의 안개가 시계에 제한을 주었다.

1950년 6월 27일 강릉을 점령한 북한군은 주력인 제5사단을 동해가도로 남하시키기에 앞서 상륙부대인 제766부대와 제945육전대를 울진 방면으로 선행하게 하였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국군의 증원부대 차단과 비정규전 활동을 전개하여 북한군 제5사단이 포항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들 북한군 중 제766부대가 울진을 점령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북한군 제766부대는 개전 당일 임원진에 상륙한 후 일부 병력이 일월산-영양-청송을 향하여 태백산맥으로 들어갔으며, 또 다른 일부 병력이 울진 북방의 죽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동해안의 요충지인 강릉이 북한군에게 피탈되고 국군 제8사단이 대관령을 넘어 제천으로 후퇴하게 되자, 강릉에서 울진에 이르는 약 92km의 지역이 무방비 상태로 북한군에게 개방되었다. 이 지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남하해 올 북한군을 저지할 임무를 띤 국군 제3사단은 제1차 저지선을 편성하기 위해 제23연대를 이곳에 투입하였다. 6월 28일 부산을 출발한 제23연대는 열차편으로 대구를 경유하여 29일 오전 10시 포항에 집결한

후 제1대대를 선발로 하여 울진으로 향하였다. 7월 1일 제23연대는 울진 북쪽 해안도로와 울진 시가지 확보에 주력하면서 남대천과 왕피천을 이용하여 제2·제1·제3대대 순으로 중심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남하에 대비하였다.

북한군 제766부대는 7월 1일 주력을 동해가도로 기동시키고, 일부 병력을 산간지역으로 우회시켜 국군 제23연대를 협공하고자 하였다. 이날 오전 8시 30분에 동해가도에는 북한군 침병중대와 6대의 장갑차가 출현하였다. 국군 제23연대 제2대대의 제6·제7중대는 북한군의 화력에 밀려 교전도 제대로 못한 채 오전 9시에 대대지휘소가 위치한 138고지(울진 북쪽 1km)로 퇴각하였다. 138고지는 해안도를 따라 남진하는 북한군을 울진 북쪽에서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고지 동쪽으로는 울진에 이르는 유일한 고갯길에 있어 이곳에서 북한군을 제압하지 못하면 울진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북한군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2개 중대를 138고지 정면에 그리고 또 다른 2개 중대를 138고지 우측의 외봉동(울진 동북쪽 1km)에 각각 투입하였다.

초전에 북한군에게 밀리는 형세가 되자 제23연대 제2대대장은 연대에 전황을 보고하고, 병력보전을 위해 남대천 이남으로의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전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제2대대에 철수불가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연대 작전주임과 정보주임이 방어선을 고집하여 제2대대를 상실하는 것보다 철수시켜 차후 작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여 제2대대의 철수가 승인되었다. 울진 북쪽에서 제2대대가 철수함으로써 울진시가지는 오전 10시경 북한군에게 점령되었다.

제2대대의 방어진지가 초전에 붕괴되자 제23연대장은 울진부근의 방어계획을 시급히 수정하였다. 연대장은 전력이 우세한 북한군에 아군이 일방적으로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대천과 왕피천이 오히려 신속한 전선 수습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대장은 제1·제2대대에 이날 정오까지 전 병력을 왕피천 이남으로 철수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이로써 제23연대는 왕피천 북쪽 지역을 전투 한번 없이 비어지게 되었다. 이후 제23연대는 울진을 점령한 북한군이 포병의 화력지원 아래 왕피천 남안으로 진출하자, 7월 2일 영해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0년 7월 1일 울진 전투에서 국군 제23연대는 울진만이라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희망을 이루지 못한 채 방어진지편성 3시간 만에 울진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후방지역에서 공비특별작전만을 수행해 왔던 제23연대는 정규전에 대한 경험과 준비가 크게 부족하였으며, 북한군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어 북한군 제766부대를 기존에 상대했던 유격

부대 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울진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은 비록 정규사단은 아니었지만 종전에 국군 제23연대가 상대해 온 유격부대와는 규모나 훈련, 그리고 장비 면에서 월등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제23연대는 북한군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고 울진에서 철수를 강요당하였다. 이후 전열을 재정비한 국군 제23연대는 해군의 함포 지원과 함재기 지원 아래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병행하면서 울진에서 영해까지 60km의 공간에서 지연작전을 수행하였다.

#### 참고문헌

육군본부, 「제3사단 제23연대 전투상보」 『한국전쟁사료』 (50), 19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2006.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서울 : 오비기획, 2002).

【박동찬 집필】

## 이천지역 전투

[利川地域 戰鬪, 1950. 7. 2.~3.]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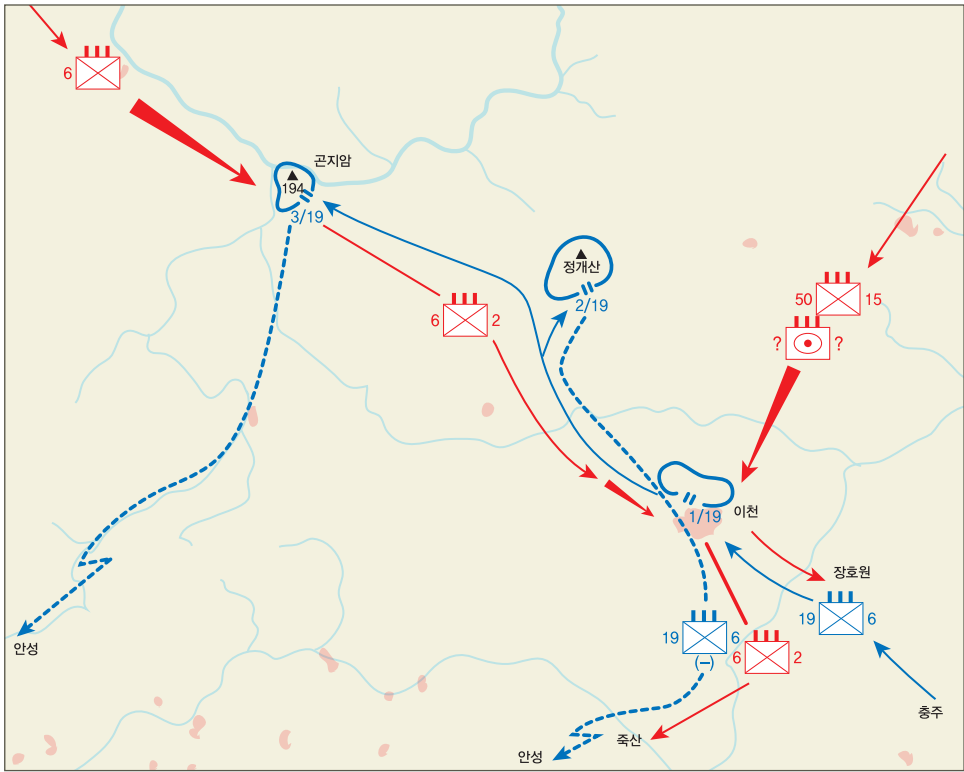
이천지구전투사령부가 1950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이천 지역 부근에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이천은 경기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경기도 중서부의 평야 지대와 강원도 및 충청북도의 내륙 산간 지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3번 국도는 서울-충주를 잇는 도로로 광주와 충주 방면으로 뻗어 있으며, 안성과 여주로 이어지는 국도가 가로지른다. 또한 도시 한가운데로 남한강의 지류인 복하천이 북동쪽으로 흐른다.

북한군 제2사단은 제2군단에서 제1군단으로 예속이 전환되어 군단의 조공 임무를 부여받았다. 제2사단은 예하 3개 보병연대 중 제4연대와 제6연대를 제1제대로 편성해 병진 공격하도록 했으며, 제17연대를 제2제대로 편성해 제1제대를 후속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4연대는 주공 방면인 광주-김량장-안성 방면의 공격을, 제6연대는 광주-이천-죽산 방면으로 우회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편, 한강방어선이 붕괴되자 육군본부는 제6사단의 1개 연대를 이천으로 이동시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서부 지역의 국군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1950년 7월 1일 총참모장으로 임명된 정일권 소장은 제2사단장이었던 이형근 준장을 이천지역에 급파하여 병력을 수습하도록 하였고, 이에 '이천지구전투사령부'를 창설했다. 이천지구전투사령부에는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이천 지역에 배치된 제6사단 예하의 제19연대와 증파된 제2연대 제2대대가 소속되었다. 사령부는 약 3,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연대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는 400~500명의 기마경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군 제2사단은 6월 30일 오전 10시 무렵 하변천리와 경안리 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하루 동안 전투를 전개하였다. 7월 1일 아침에는 595고지(남한산성 동쪽 7km) 부근에서 북한군 제2사단 제17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여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한편, 횡성에 집결해 있던 제6사단 제19연대는 열차편으로 이동하여 7월 1일 밤 12시에 이천지역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연대의 진지배치는 이천으로부터 194고지(곤지암리 남쪽 0.5km)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서로부터 동쪽으로 제3대대와 제2대대, 그리고 제1대대 순이었다.



7월 2일 오전 7시 곤지암리 인근 194고지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3대대 예하 제10중대는 이동하던 북한군을 공격하여 격퇴시켰다. 또한 우제일선인 제1대대는 7월 2일 오전 9시 무렵 2개 대대로 추정되는 북한군과 이천 북쪽의 복하천 일대에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여 북한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7월 3일 새벽 북한군은 122mm 곡사포 등 강력한 포격을 가하면서 1개 연대규모로 공격을 가해왔다. 북한군 제2사단 제6연대의 강력한 공격에 직면한 제19연대 제1대대는 철수를 시작하였다. 연대를 증편으로 이동시켜 사단의 제2선을 구축하기로 계획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19연대는 7월 4일 정오에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안성을 거쳐 진천 북쪽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이천 지역에 배치되었던 국군과 기마경찰대는 진천-청주 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북한군 제2사단의 남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다. 이 지연작전으로 인해 북한군 제2사단은 진천-청주 방면으로 진출해 국군의 전선을 양단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반면에 이 전투는 국군의 병력수습과 부대재편 등 전열을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이상호 집필]

## 시흥-안양-군포 전투

[始興-安養-軍浦 戰鬪, 1950. 7. 4.]

### 개요

한강방어선에서 철수한 시흥지구전투사령부의 혼성수도사단, 혼성제7사단, 혼성제2사단 등이 1950년 7월 3일 오후부터 4일 오후까지 하루 동안 시흥-안양-군포-수원 일대에서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남진을 지연시킨 전투이다.

### 전개과정

시흥-안양-군포 지역은 수원으로 가는 1번 국도가 이어져 있어서, 북한군 주력의 가장 유력한 예상 공격로였다. 국군은 시흥 남쪽 2km 국도 도로 동쪽의 284고지의 서쪽

과 도로 서쪽의 덕안리 무명고지 등에 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북한군 전차의 남진을 저지시키는 데는 불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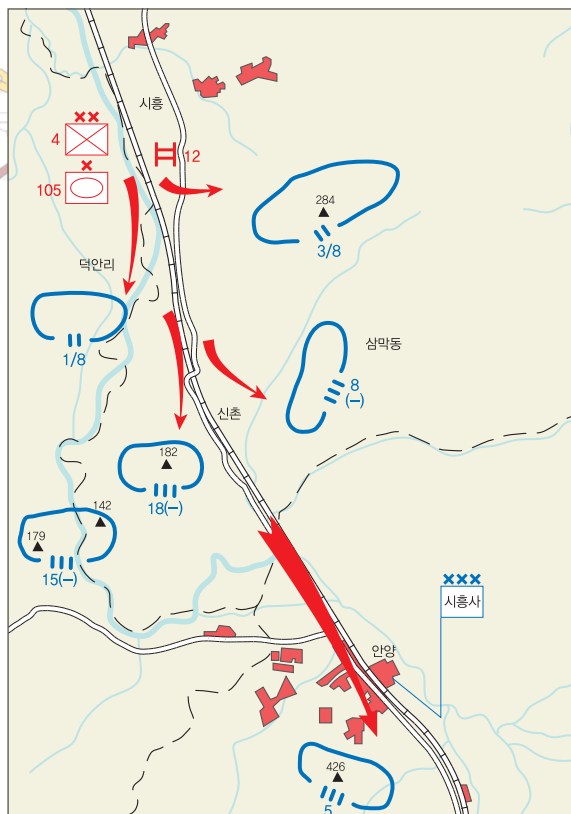
영등포를 점령한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은 그동안 전투에서 입은 손실로 인하여 일단 공격을 멈추고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 기회에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부대는 낙오병을 수습하면서 방어진지를 보강할 수 있었다.

1950년 7월 3일 오전 노량진-영등포 방어선이 와해되자, 육군본부는 당시 상황으로는 수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지상군을 투입하고 있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전개할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 시흥지구전투사령부로 하여금 지연작전을 전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때 미 제24사단의 특수임무부대인 스미스부대가 평택-안성선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김포가도 진지에서 철수한 혼성수도사단은 시흥으로 이동해서 저지선을 구축했고, 제7사단은 안양천 남쪽 고지대에 제2선 진지를 마련했다. 말죽거리-판교 일대를 방어하던 제2사단이 제3사단에 인계하고 군포 일대로 철수하여 시흥, 안양, 군포의 1번 국도에는 3중의 저지선을 마련하게 되었고, 시흥지구사령부도 이날 오후 2시에 안양으로 이전했다.

7월 4일 오전 6시에 북한군 제4사단이 제105전차여단 소속의 T-34 전차 12대를 앞세우고, 경부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들의 선두 전차가 야크(YAK)기 3대의 엄호 아래 시흥을 지나 삼막리 부근의 혼성수도사단 제8연대 진전에 모습을 드러냈고, 보병부대는 안양천을 따라 진출하여 중박격포와 전차포의 화력지원 아래 제18연대의 진지를 공격하였다.

제8연대의 대전차공격에도 불



구하고 북한군 전차가 제18연대 사이의 도로를 돌파함으로써 오전 10시를 전후하여 양 연대는 분산되어 수원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안양의 전투사령부와 재편성 중인 일부 병력도 철수했다.

정오 무렵에는 북한군 제4사단 선두부대가 제2선의 혼성제7사단 진지까지 돌파하여 안양읍 내로 진출하였다. 이때 안양역 부근에서 2개 대대 규모가 조직적으로 반격을 했고 때마침 미 공군기 편대가 나타나 공중전을 전개하여, 야크기 1대를 격추시키고 나머지는 격퇴시켰다. 그 결과 북한군이 안양에서 군포에 진출한 것은 오후 2시에 이르러서였다.

군포에서는 426고지의 제5연대와 수원에서 재편되어 도로변에 배치된 보병학교의 일부 병력이 북한군 전차의 접근을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저지하려 했으나, 그들의 전차는 1번 국도를 그대로 돌파하면서 군포의 저지선도 무너졌다. 이에 따라 김홍일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은 공병을 직접 지휘하여 지지대고개에 기갑연대 장갑대대의 반궤도차와 함께 임시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여 전차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막을 수 없었다. 이처럼 군포 일대의 전선이 무너짐에 따라, 과천 348고지의 제3연대도 하는 수 없이 판교로 철수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시흥지구전투사령부 예하 부대는 7월 3일 오후부터 시흥, 안양, 군포 일대에 저지 진지를 구축하여 북한군 제4사단과 전차부대의 남진을 저지하였으나, 절대 열세인 전력으로 인해 수원 선으로 후퇴하였다.

그렇지만 이 전투로 북한군 주력의 남진을 하루 동안 지연시켜 미군 선발대가 배치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조성훈 집필】

## 풍덕천 전투

[豊徳川 戦闘, 1950. 7. 4.]

### 개요

풍덕천 전투는 국군 제1사단이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신사리-말죽거리 방면에서 철

수한 후인 1950년 7월 4일 하루 동안 판교-금곡리-풍덕천-수원에서 북한군 제3사단의 남진을 지연시킨 전투이다.

### 전개과정

풍덕천은 수원으로 북동쪽으로 불과 6km 지점에 불과한 곳으로, 판교 일대까지 진출한 북한군 제3사단이 말죽거리-금곡리-풍덕천을 거쳐 수원으로 향하는 길목이다.

신사리에서 도하하여 판교 일대에까지 진출한 북한군 제3사단은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안양-군포-수원 공격에 발맞추어金曲리-풍덕천 일대로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육군본부와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1950년 7월 4일 말죽거리 정면의 전황이 급변함에 따라 판교-풍덕천-수원에 이르는 수원 동북쪽 접근로에 대한 대책으로 수원 동북쪽의 방어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준식 준장을 혼성제3사단장에 임명하는 한편, 수원지구사령부(이응준 소장)를 해편하여 그 병력의 일부를 제3사단에 배속 조치하였다.

그리고 수원에 집결한 제1사단은 육사 생도대를 배속 받아 풍덕천으로 진출했다. 북한군 제3사단의 1개 연대가金曲리 부근의 제3사단 진지까지 육박해, 제22연대를 수용하여 이를 통합 지휘하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당시 전황으로는 수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미군 선발대가 오산까지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전개할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 시흥지구전투사령부로 하여금 촉차진지에 의한 지연작전을 전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제1사단을 풍덕천에 투입해 북한군 제3사단의 진출을 지연시키도록 하였다. 이곳의 지연작전 성패 여부는 제1사단이 얼마나 오랫동안 풍덕천 진지를 방어하느냐에 달렸다.

金曲리 부근까지 진출한 북한군 제3사단은 4일 날이 밝자 전차가 한강 남쪽에 진출하였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사열중대로 의기양양하게 풍덕천-수원도로를 따라 남하하고 있었다. 이에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 제3사단 선두에 선 2개 대대 규모가 제13, 제12양연대간의 V자형 진지 안으로 깊숙이 진출하게 되자, 그 좌우에서 Cal 50 4정을 비롯한 자동화기로 일제히 사격을 퍼부어 선두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렇지만 뒤따르던 북한군 주력이 풍덕천 삼거리 남쪽의 제22연대 진지를 강습해 188고지로 진출해 공격함으로써 사단의 방어선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오후에 들어서면서 전세가 역전되어, 국군 제1사단은 병력과 화력의 우세를 믿고 밀어붙이는 그들의 공격으로 더 이상 전선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북한군 전차가 수원 북쪽의 국도 상에 출현하여 퇴로를 위협하게 되자, 국군 제1사단은 수원으로 후퇴하게 되었

다. 이어서 육군본부를 뒤따라 평택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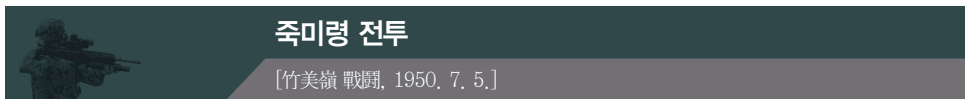
국군 제1사단은 풍덕천 일대에서 7월 5일 새벽까지 하루 동안 북한군 제3사단의 남진을 저지함으로써 미군 선발대의 배치 시간과 육군본부의 철수 시간을 벌어 주었다.

북한군 제3사단은 국군 제1사단의 선전으로 수원까지 진출이 늦어져 7월 5일 새벽 무렵에 수원 동남쪽에 집결할 수 있었다. 한편, 가평을 거쳐 용인 김양장 일대를 장악해 수원 선 이남으로 남진하려던 북한군 제2사단은 국군 제6사단 19연대와 혼성수도사단 제8연대 2대대의 일부 저지를 받아, 안성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조성훈 집필】



### 개요

6·25전쟁에 아군으로서 최초로 투입된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1950년 7월 5일 오산 북방 죽미령에서 북한군 제4사단 및 제105전차사단을 상대로 지연전을 전개한 방어 전투이다.

### 전개과정

죽미령은 오산 북방 약 5km 경부 축선상의 조그마한 횡격실 능선으로서 중앙에 주봉인 반월봉(△117), 서측에 무명고지(△90), 동측에 92고지 등 3개의 고지군으로 되어 있다. 90고지와 117고지 사이로 경부국도가 지나가고 92고지 동측에는 경부철도가 있다.

죽미령 지역으로 공격하는 북한군은 주공군단인 제1군단 예하 부대로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이 제1계대로 선두에서 공격하고, 제3사단과 제6사단은 제2계대로 이들을 후속하였다.

한편, 이 공격에 맞섰던 부대는 미군 지상 부대 중 최초로 한국전선에 투입된 미 지상군으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였다. 맥아더의 회고록에 의하면 스미스특임대대는 북한군에게 미군의 참전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북한군을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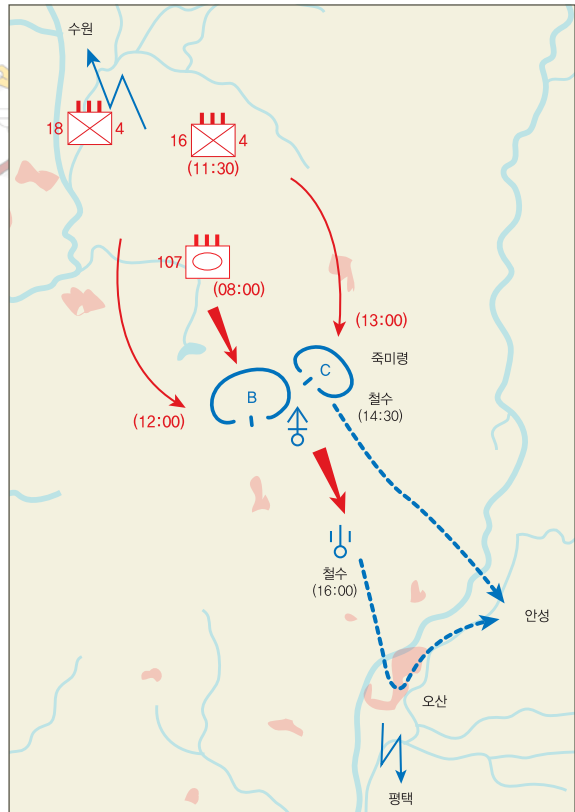
었다고 한다. 1950년 6월 30일 맥아더는 미 제8군사령관 워커에게 미 제24사단을 한국으로 급파하라고 구두로 명령했다. 이는 제24사단이 한국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었다. 워커는 이를 작전명령 0315호로 미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에게 즉시 예하부대를 한국전선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하였다.

1950년 7월 1일 오전 8시, 일본 이따즈케(板付) 미공군기지에서 미 제21연대 제1대대장 스미스 중령은 부대이동 준비 완료를 보고하였고, 대전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사단장으로부터 받았다. 스미스 중령은 C54수송기로 그의 부대원 406명과 함께 출동했다. 스미스 부대와 함께 한국으로 출동명령을 받은 제52포병대대(대대장 페리 Miller O. Perry중령)는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하카타 기지에서 부대편성을 실시 한 후 7월 2일 배편으로 부산에 도착하였다.

스미스 부대는 7월 1일 오후 1시 부산 수영비행장에 도착하여 시민들의 환영을 받은 후 오후 10시 부산을 출발 7월 2일 오전 10시 대전에 도착하여 극동사령부 전방지휘소 처치 준장에게 신고한 후 전방으로 지형정찰을 나갔다. 7월 5일

오전 3시 스미스 부대는 오산 북방 5km 지점의 죽미령에 포진했다. 제52포병대대는 보병진지로부터 1.8km 후방인 수청리 입구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대대장은 곡사포 4문을 보병 지원을 위해 이곳에 배치하고 다른 1문은 대전차포로서 운용하기 위해 포병진지 전방 500m의 90고지에 설치하고, 나머지 1문은 평택에 남겨두었다.

7월 5일 오전 7시에 죽미령 진지에는 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까지 볼 수 있었다. 이때 스미스 중령은 수원 부근에서 북한군 전차 8대가 남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두전차가 보병



진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전 8시 10분경에 포병사격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병진지에 나가 있던 관측장교는 포병사격 유도로 탄착을 조정하여 북한군 전차에 집중 사격을 퍼붓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전차는 꿈적도 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왔다. 이어서 75mm무반동총이 북한군 전차가 사거리 내에 들어오자 일제히 사격을 가하여 전차에 명중시켰으나 전차는 끄덕도 하지 않았다. 이때 도로 동쪽변의 2.36" 로켓포조가 지근거리(약 15야드)에서 북한군 전차의 장갑이 약한 측면과 후면에 22발을 사격하였으나 역시 별 효과도 없이 전차는 8시 반경에 죽미령을 넘어섰다. 그러나 포진지에서 추진된 105mm직사포로 대전차 포탄을 발사하여 고개를 넘어 내려가는 2대의 전차를 파괴시켰다.

북한군은 전차 4대를 1개 집단으로 편성한 듯 먼저 2개 집단 8대로 보병진지를 통과한 다음 포진지 쪽으로 향하고, 9시에는 모두 33대의 전차가 통과하였는데, 이때까지 전차 사격으로 미군은 20여 명의 전사상자를 내었다. 선두전차대가 지나간 다음, 10분 뒤에 그들의 본대로 보이는 전차대열이 포병진지에 접근하자 이번에는 포병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북한군 전차대가 보병진지를 통과한지 1시간 뒤인 오전 10시경에 스미스 중령은 117 고지로부터 수원 전방에 나타난 3대의 전차와 차량에 탑승한 북한군의 보병부대를 목격하였다. 적의 행군중대가 전방에 이르자 스미스 중령은 곧 사격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의 행군중대 선두에서 전진하던 전차 3대가 전방까지 근접하여 전차포와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하고, 화염에 휩싸인 차량중대의 후방으로부터 다른 북한군의 일단이 국도 양측에 산개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윽고 오후 2시에 북한군은 보병진지의 양측방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 일부는 후방에 까지 침입하였으며, 수원-죽미령 간의 국도에는 그들의 후속 부대들이 길을 매워 남하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스미스 중령은 2시 30분을 기하여 상호 엄호하에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죽미령 전투에서 스미스부대는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함으로써 미 제34연대의 전투준비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 죽미령에서 철수 시 스미스부대는 동쪽으로부터 적 공격에 병력이 분산되었고 모든 공용화기를 유기하는 등 많은 인원, 장비의 손실을 입었다. 이 부대가 안성을 거쳐 천안에 집결했을 때 스미스 대대원의 전사, 부상, 실종을 합하여 총 손실은 150여 명에 달했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오산 갈곶리 전투

[烏山 葛串里 戰鬪, 1950. 7. 5.]

## 개요

국군 제17연대가 1950년 7월 5일 오산 부근에서 죽미령을 통과한 북한군 제105전차 및 제4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갈곶리 지역은 오산 남쪽 1.5km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정리를 지나 평택으로 이어지는 경부 축선의 한 지역이다. 갈곶리 좌측으로는 오산천이 흐르며, 동측 도로를 따라 안성으로 이어진다.

오산 갈곶리 지역으로 공격하는 북한군은 주공군단인 제1군단 예하 부대로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이 제1제대로 선두에서 공격하고, 제3사단과 제6사단은 제2제대로 이들을 후속하였다.

이에 맞서 방어전을 전개하는 국군은 제17연대로 웅진반도에서 철수하여 대전에 주둔하고 있었다. 6월 29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금강선 배치를 명령받아 이동하여 방어진지를 선정 중, 6월 30일 평택으로 이동하라는 수정 명령을 받았다. 연대장은 1개 대대를 금강선에 배치하고 나머지 2개 대대를 7월 1일 평택으로 이동하였다.

이날 오후에 평택역에서 하차하여 8km 전방의 서정리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이곳에서 숙영하였다. 다음 날 7월 2일에 탄현(숯고개) 일대에 방어진지 편성에 들어갔고 연대지휘소는 평택의 성동초등학교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부대 주변인 평택역에 오후 3시 경 호주 공군기 4대가 나타나 오폭을 함으로써 병력 200명이 사상되고 연대장이 부상을 입어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부연대장인 김희준 중령이 연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국군 제17연대(-1)는 7월 3일에 평택 북방 서정리 부근에서 진지구축 중에 육군본부 작전명명에 따라 다시 7월 4일에 도보로 8km 북상하여 갈곶리(오산 남방 1.5km)로 전진 배치 되었다. 연대는 갈곶리-청호리(갈곶리 동쪽 1km) 부근의 낮은 구릉 일대에 제1대대를 서측으로, 제3대대를 동측으로 배치하였고, 제1대대에서 2개 중대를 빼내어 오산 북쪽 은개 부락 일대에 배치하여 전투전초로 운용하였다.

연대는 독자적으로 북한군 전차를 방어하기 위하여 1번 국도를 중심으로 2.36" 로켓포 여러 문을 배치하고, 제1대대 제4중대 81mm박격포와 중기관총을 1번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제3중대 지역에 집중 운용하였다.

7월 5일 오전 10시경에 은개 부락에 배치된 전초진지에서는 국도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 전차를 목격하고 즉각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총류탄과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포탑 뚜껑을 열고 남하하는 북한군의 전차병을 제압하였으나 전차에는 전혀 사격의 효과가 없었다. 더욱이 북한군 전차가 아군 진지를 향하여 전차포와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하자, 전초부대는 바로 돌파되고 말았다.

11시경에 북한군의 선두전차가 제17연대 주력이 배치된 갈곶리 진지 전방에 나타나자, 제4중대의 81mm 박격포소대로 하여금 선두전차 4대를 포격하도록 하였다. 이어 국도 좌우측에 배치된 제3, 제9 중대의 2.36" 로켓포조가 즉각 대전차 사격에 들어갔고, 81mm박격포를 비롯하여 총류탄 및 중기관총까지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북한군 전차는 아군의 집중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격하면서 서정리 쪽으로 바로 남하하고 20여대의 전차가 후속하였다.

북한군 보병부대들은 오후 4시경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아무 경계 대책도 없이 나타나자 국도주변의 아군 2개 중대가 먼저 일제사격을 가하여 이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국군이 보유한 81mm 박격포탄은 이미 소모하여 화력지원을 할 수 없었으며, 소화기 실탄도 바닥날 상태에 있어 더 이상 저항할 전투력이 없었다. 이에 5시부터 연대장이 철수 명령을 내려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7연대는 갈곶리 전투가 있기 전인 7월 3일 아군기의 오폭으로 200명 정도가 사상을 입었다. 전투 중에는 대전차공격을 위해 도로변에 배치되어 북한군 전차에 대해 사격을 하였던 로켓포반에서 전사 2명, 부상 9명이 있었고, 2.36" 로켓포 4정이 파괴되었다. 전투 후 제17연대(-1)는 육본 작명에 따라 7월 6일에 천안에 집결, 7일에 수도사단에 배속되어 조치원을 경유하여 진천으로 이동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평택 전투

[平澤 戰鬪, 1950. 7. 6.]

### 개요

미 제24사단 제34연대가 1950년 7월 6일 평택에서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및 제4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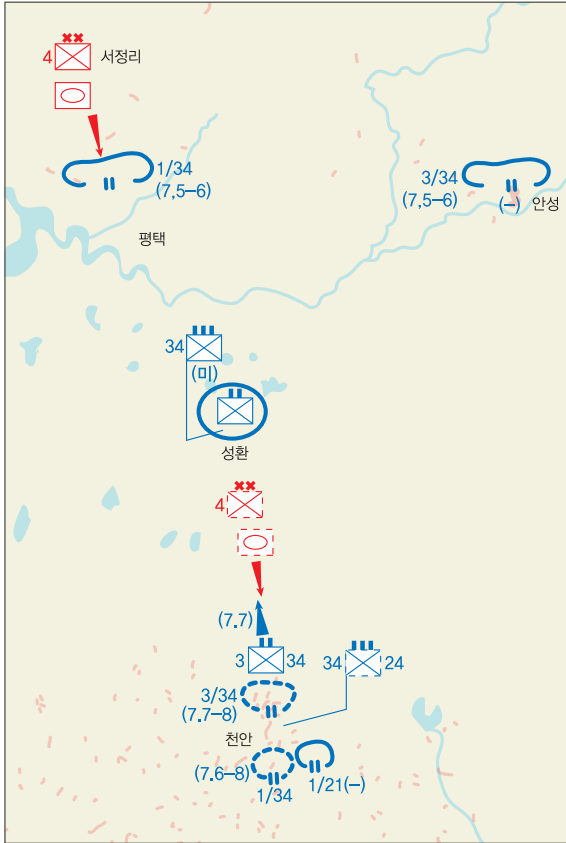
### 전개과정

평택은 금강 이북 지역에서 국도의 방어에 가장 유리한 지형으로 그 서쪽은 아산만에 연하는 안성천이 평택을 방어하는 형세이고, 동쪽의 안성과의 사이에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매우 빈약하여 적의 정면 공격 외에는 우회 포위가 어려운 방어상의 요지이다. 평택 및 안성 북방 지역은 100~200m의 낮은 고지군으로 형성되어 있어 방어의 이점을 활용하기 어렵고, 안성천 남쪽은 하천이라는 장애물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개활지로 이루어져 있어 적의 화력에 취약하였다.

북한군 부대는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으로 제4사단은 제5·제16·제18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로 공격에 가담했고, 제105전차사단(-)은 제107·제109·제203전차연대로 편성되었다.

미 제24사단 제34연대(연대장 러브리스 Jay B. Lovless 대령)는 일본 큐슈의 사세보(佐世保)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제1대대와 제3대대를 한국전선에 파견하였다. 제34연대는 7월 1일 밤에 한반도에 투입되기 위해 사세보항에서 승선을 끝내고, 7월 2일 저녁에 병력들은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장비는 하루 뒤인 7월 3일 오후에 2척의 LST편으로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북한군은 제2단계 작전 목표선인 평택-안성-영월-삼척선을 점령하기 위해 계속 공격 중에 있었다. 오산까지 진출한 그들은 7월 4일 오후 늦게 제4사단 예비부대 및 전차부



대 일부가 서정리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다음 날의 평택 공격을 준비하였다.

제34연대를 평택-안성선에 투입하기로 결심한 딘(William F. Dean) 사단장은 제1대대를 우선 평택으로 이동시켜 저지진지를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제1대대는 야간 열차편으로 대전을 출발하여 다음날인 7월 5일 새벽 5시에 평택에 도착하였다. 한편, 제34연대본부는 이날 오후 성환에 지휘소를 개설하고, 제3대대를 안성에 배치했다.

7월 5일 평택읍으로부터 4km 북쪽의 방어진지에 도착한 제1대대는 1번 국도를 포함하여 서쪽의 지제리 부근에 A중대, 그 동쪽의 철괴리 부근에는 B중대를 각각 배치하였고, 대대지휘소는 평

택읍 북쪽의 국도변에 설치하였다.

7월 6일 새벽 4시 30분경 북한군 제4사단의 선두부대가 전차를 앞세우고 국도를 따라 남하했다. 북한군 전차병이 교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차 밖으로 나온 것을 노려, 제34연대 제1대대장은 4.2" 박격포에 사격명령을 내렸고, 4.2" 박격포는 북한군 전차대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북한군 전차는 85mm전차포로서 대응사격하면서 끊어진 다리의 좌우로 산개하여 개울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전차가 개울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뒤따르던 보병들도 도로의 좌우로 전개하여 일부는 동쪽의 B중대 정면으로, 일부는 A중대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대대장은 연대장으로부터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며 천안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접수하여 예하 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대대는 오전 9시에 지휘소를 철수하여 연대지휘소가 있는 성환으로 이전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연대장 러브리스 대령은 정오경 안성의 제3대대(-)에도 천안 남쪽으로의 철수 명령을 하달하고, 연대본부를 천안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는 평택-안성선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려던 사단장의 판단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7월 7일 딘 사단장은 전격적으로 지휘 책임을 물어 제34연대의 지휘권을 러브리스 대령으로부터 마틴(Robert R. Martin) 대령에게 이양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무극리 전투

[無極里 戰鬥, 1950. 7. 5. ~6.]

### 개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1950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장호원에서 음성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15사단의 주력인 제48연대의 공격을 무극리에서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음성 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북도와 의 도계를 이루는 차령산맥의 중앙부에 형성된 분지로서 지리적으로나 교통상의 요충이었던 이유로 피아간에 이곳의 선점이 중부 지역 선점의 중요한 요충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15사단은 제12사단이 흥천을 점령하자 7월 1일 후속하여 전선에 투입되었다. 제15사단은 흥천-여주간 도로를 따라 국군을 추격한 후 장호원 및 음성을 점령하는 임무를 맡았다. 사단 예하의 제45연대와 제48연대는 사단의 주력으로 음성을 공격하고, 제50연대는 1개 포병대대를 지원받아 제12사단의 충주 점령을 지원하였다. 한편, 고속기동부대로 편성된 제603모터사이클연대 예하의 1개 대대는 제15사단과 함께 흥천에 투입되었다.

북한군 제15사단의 장호원 진출에 맞선 아군은 제6사단 제7연대였다. 제7연대는 제1대

대, 제2대대, 제3대대로 편제되었으며, 대전차포중대와 제16야전포병대대 제2포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제6사단 제7연대는 제1사단의 음성 전개에 앞서 북한군 제15사단이 점령한 장호원의 탈환 임무를 사단장(김중오 대령)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제6사단장은 충주중학교에 집결해 있던 제7연대장에게 장호원을 사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제7연대장은 제2대대로 하여금 7월 4일 밤 10시에 장호원으로 향할 것을 명령하였다.

장호원으로 향하던 제2대대가 음성 북쪽의 동락리를 지나 모도원 부근에 도달했을 때 첩병소대가 북한군 정찰대를 만나 사격전을 전개했다. 날이 밝은 후 대대는 교전장소에서 북한군 장갑차 1대와 사이드카 5대, 시체 5구를 발견하였다.

7월 5일 새벽 2시경 연대장은 공백 상태인 무극리-음성간 도로를 방어하기 위해 제1대대를 투입하는 한편, 제3대대를 병암리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5시를 기해 제2대대를 모도원에서 반전시킨 연대장은 연대본부를 음성으로 이동하였다.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제1대대장 김용배 소령은 7월 5일 오전 6시에 무극리로 부대를 출동시켰다. 오전 8시 제1대대 정찰대는 1개 중대규모의 북한군 병력을 발견하고 사격을 집중하여 40여 명을 사살하였다. 11시경 제1대대의 주력이 기름고개 정상에 이르렀을 때, 북한군의 본대로 보이는 1개 대대규모가 고개의 서쪽에서 포격을 가하면서 제1대대를 공격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연대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기름고개 동쪽의 385고지 일대에서 적과 대치했으며, 저녁에 용산리로 이동한 제2대대와 연계해 북한군의 야간침투에 대비하였다.

제7연대장은 7월 6일 새벽 4시를 기해 제1대대와 제2대대로 하여금 공격을 재개하여 무극리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대대장은 105mm 포의 사격을 보현산 서쪽의 346고지로 연신시킨 후 제2중대와 제1중대를 각각 좌일선과 우일선으로 하여 반격하였다. 1시간도 못되어 보현산을 점령한 제1대대는 제2대대와 제2포병중대의 지원 아래 도주하는 적을 추격해 무극리 북쪽 2km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은 이 전투에서 적 270명을 사살하고 6명으로 포로로 하였으며, 45mm대전차포 1문, 중기관총 9정, 경기관총 1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얻었다. 한편, 도주하던 북한군은 새로운 병력을 증원받아 1개 연대규모로 장갑차를 앞세운 채 포격을 가하면서 대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무극리의 확보를 포기하고 백야리 지역의 351고지에 진지를 편성,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동락리 전투

[同樂里 戰鬪, 1950. 7. 6. ~7.]

### 개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제3대대가 1950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음성군 동락리에서 북한군 제15사단 제48연대를 공격하여 괴멸시킨 전투이다.

###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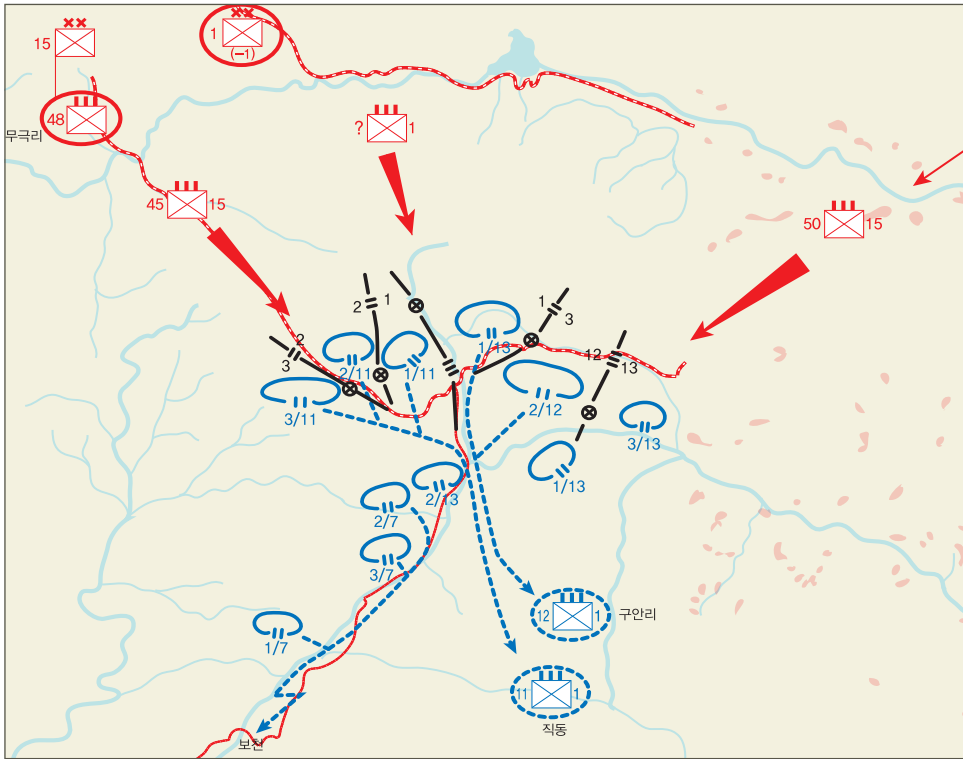
동락리는 음성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마을로 충주에서 경기도로 향하는 길에 위치해 있다. 바로 옆에 모도원이 있으며, 남쪽으로 가엽산이 있고, 충청북도에 경기도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요충지이다.

북한군 제15사단 예하의 제45연대와 제48연대는 사단의 주력으로 음성을 공격하고, 제50연대는 1개 포병대대를 지원받아 제12사단의 충주점령을 지원하였다. 동락리 지역으로 공격하는 부대는 바로 제2제대인 제48연대였다.

동락리 지역에서 방어를 담당한 국군은 제6사단 제7연대 제3대대였다. 병암리를 향해 출발한 제7연대 제3대대는 동락리 부근을 지나던 7월 5일 아침 8시경에 북한군 정찰대를 만나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제3대대는 적의 퇴로에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고 2개 중대로 그들을 추격하는 한편, 2개 중대로 공격중대를 지원하여 오후 5시에 주력은 동락리로 북귀해 야간 기습에 대비하였다.

7월 6일 아침 8시에 차량을 이용하여 동락리로부터 철수를 개시한 대대장은 병력 수송차량이 견학리(음성 북쪽 6km) 부근에 이르자 병력을 선두로부터 차례로 하차시킨 후 빈 차량은 음성의 연대본부로 돌려보내고, 병력은 은폐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대대는 아침의 철수 이전과 거의 같은 장소에 다시 배치되었다. 이러한 기동은 모도원과 동락리 주



민들이 보기에는 국군이 충주로 철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30분이 경과하자 남으로 향하는 피난민의 첩보를 통해 북한군이 모도원까지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된 제3대대는 부근에 방어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였다.

한편, 제1대대와 병행해 무곡리를 공격한 제2대대는 7월 6일 오후 1시 무렵 가엽산 서쪽의 644고지로 철수하였다. 이때 동락초등학교 여교사 김재옥이 북한군 연대병력이 동락초등학교에 숙영 중인 사실을 제보하였다. 이에 대대장 김종수 소령은 부대를 644고지로 이동시켜 배치한 후 쌍안경으로 사방을 두루 살피던 중 동락리의 학교 교정에 북한군의 대병력이 집결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적이 완전히 무방비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제2대대는 오후 3시에 이동을 하여 북한군이 주둔한 동락리 학교 주변에 진지를 구축하고 기습할 준비를 갖추었다. 오후 5시 정각에 제2대대는 북한군이 집결한 방면을 향해 사격을 집중하였다. 박격포대가 연이은 포격으로 북한군의 탄약고를 공격하여 명중시켰다. 휴식 중이거나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던 북한군은 기습사격을 받고 쓰러졌고, 일부는 사방으로 도주하였다. 주변

이 어두워짐에 따라 대대는 진지를 고수하며 경계태세에 돌입하였다. 이날 저녁 무렵 제3대대의 전면에도 북한군의 일부 병력이 접근하자 이들에 대해 집중사격을 개시하였다.

다음 날인 7월 7일 새벽 제2대대장이 전장을 둘러보았을 때 북한군의 유기시체가 1,000여 구에 이르고 각종 야포와 무기가 산재해 있었다. 약 30분 후 제2대대와 연계한 제3대대는 376고지 방향으로 도주하는 30여 명의 북한군을 추격해 5명을 사로잡고 나머지를 사살한 후 전투를 종결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동락리 전투는 지연전 단계에서 공세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통해 북한군에 심대한 타격으로 가하며 진출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7연대는 동락리에서 북한군 제15사단 제48연대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이후 제3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모도원으로 이동, 그들의 역습에 대비하면서 노획품 후송 작전을 엄호하였다. 이 전투로 제6사단 제7연대는 전 장병의 1계급 특진이 있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Ra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천안 전투

[天安 戰鬪, 1950. 7.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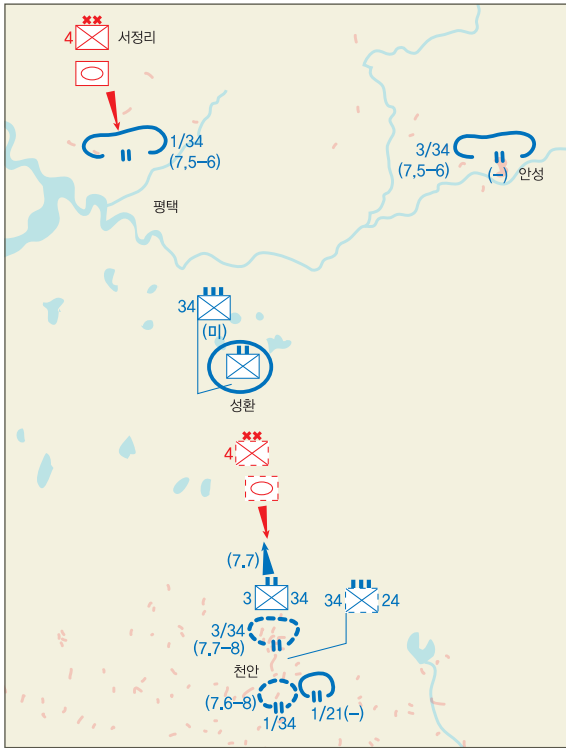
### 개요

미 제24사단 제34연대가 1950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천안에서 제4사단 및 북한군 제105전차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천안은 차령산맥의 북쪽 줄기에 위치해 있으며 대체로 북부 평지와 남부 산지로 나눌 수 있다. 북부평지는 대체로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환천과 입장천이 북쪽으로 흐른다. 교통이 발달하여 1번 국도를 따라 평택에서 성환을 거쳐 천안에 이르고, 더 나아





가 전의를 거쳐 조치원 방면으로 갈 수 있다. 또한 광정리를 거쳐 공주로 갈 수 있으며, 온양을 거치면 예산을 통해 서해에 이른다.

북한군은 7월 6일 평택을 점령한 후 천안 방면으로 남하했다. 남하하는 북한군 부대는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으로 제4사단은 제5·제16·제18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로 공격에 가담했고, 제105전차사단(-)은 제107·제109·제203전차연대로 편성되었다.

천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지키고 있는 아군은 미 제24사단 제34연대 제3대대였다. 안성에서 접적 없이 철수한 제3대대는 7월 6일 야간에 천안에 도착하여 천안 남쪽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때

1개 중대를 북상시키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3대대 L중대에 연대 정보수색소대를 배속시켜 성환 쪽으로 이동하여 적과 접촉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였다.

오전 10시 30분경 사단장은 전날 밤에 연대에 하달한 1개 중대에 추가하여 1개 대대를 접적 전진시키도록 하였다. 7월 7일 아침부터 천안에서 경부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전진을 하고 있던 제3대대는 부대리 부근을 이동 중에 북한군의 기습을 받고 철수 중이었다.

새로 부임한 제34연대장 마틴(Robert R. Martin) 대령은 제3대대로 하여금 당초의 대대 진지를 확보하라고 명령한 후 직접 전방으로 향했다.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연대 작전과장이 제3대대의 일부 병력을 수습하여 곧 차량으로 이들과 함께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동 중에 다시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제3대대는 저녁 7시에 천안을 외곽 지대에 방어진지를 새로이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제1대대는 이날 오전부터 점령한 동북쪽의 안성가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천안 외곽진지에서 결전을 하기로 다짐한 마틴 대령은 밤 8시에 제63포병대대의 A포대와 제78전차대대 A중대의 M-24 경전차 1개 소대가 급히 증원되자, 이들을 연대지휘

소 부근에 위치하여 제3대대를 화력지원을 하게 하였다.

7월 8일 새벽 6시부터 천안 정면에서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6대의 전차를 선두로 북한군 제4사단 제16, 제18연대가 서북쪽의 경부 본도와 동북쪽의 안성가도를 따라 공격하였는데, 제34연대는 전날 800여 발에 달하는 대전차지뢰를 매설하여 쉽사리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믿었지만, 북한군 전차는 의외로 그 지뢰지대를 유유히 통과하였다.

이런 상황으로 천안 읍내에서는 2시간 가까이 시가전이 벌어졌다. 연대장 마틴 대령은 직접 2.36" 로켓을 들고 읍내 한복판에서 북한군 전차와 대결하다가 오전 8시에 전사하고 말았다. 연대장의 전사 소식에 연대의 상황이 악화되자 제3대대장은 오전 9시를 기해 병력을 천안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사단장은 제34연대 부연대장 외들링턴(Robert H. Wadlington) 중령에게 연대장을 대리하여 병력을 수습하도록 한 다음, 공주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금강으로 철수하면서 지연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천안 전투에서 제34연대 본부 병력 일부와 제3대대 장병들의 인명 피해와 장비 손실이 심대했다. 신임연대장 마틴 대령과 제3대대 작전장교가 전사하고, 연대작전과장을 포함하여 60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 또한 박격포, 기관총 등 공용화기 대부분을 유기하였다. 천안 전투에서 패배한 제34연대는 공주 정면으로 철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진천 전투

[鎮川 戰鬪, 1950. 7. 7. ~9.]

### 개요

1950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이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2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중산리 일대에서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진천은 주변이 전답과 구릉 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서쪽과 남쪽은 300~400m의 고지들로 둘러싸여 있다. 주변 교통로는 천안-장호원을 잇는 583번 도로와 성환-증평간 584번 도로, 이천-청주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585번 도로가 진천을 통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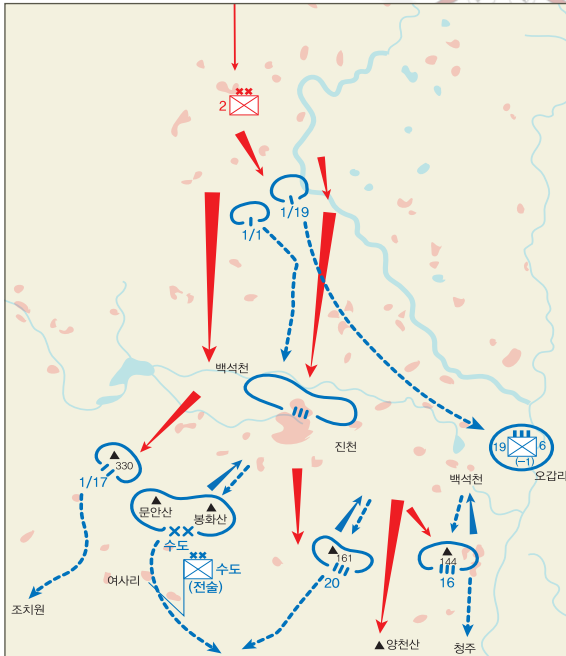
북한군 제2사단은 이천 지역에 투입된 제6사단 제19연대를 추격하며 7월 1일 김량장리 방면으로 남진을 계속하였다. 7월 2일 제2사단은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되어 서부 지역에서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2사단은 예하에 제4연대, 제6연대, 제17연대와 포병연대로 편성되어 있었고, 1개 전차연대(-)를 배속 받았다. 그들은 7월 6일 포병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공격을 전개해 안성을 점령했고, 동남 방면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7월 7일 오후 5시 진천 북쪽의 중산리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이에 맞서는 국군은 수도사단으로 예하에 제1연대, 8연대, 18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립기갑연대와 제17연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수도사단장(이준식 준장)은 군단장으로부터 진천 북쪽으로 진출해 제6사단 제19연대를 수용, 통합 지휘해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1연대장에게 병력을 진천 북쪽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작전계획에 따라 제1연대를 진천 백곡천 남안에 배치, 축차 지연전을 실시하도록 한

사단장은 제8연대와 제18연대에 대해서는 봉화산과 문안산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여기에 독립기갑연대 장갑 제1중대와 기갑연대 도보대대, 신설된 제1포병단 예하의 1개 중대를 수도사단에 증원하였다.

선봉 중대로 백곡천을 건넌 제1연대 제1중대는 급행군으로 중산리(진천 북쪽 4.5km)에 이르러 제19연대의 후위 중대와 합세하였다. 그리고 진천-청주간 585번 도로를 중심으로 동쪽의 116고지로부터 서쪽의 90m 능선에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송림리에 집결한 북한군 제2사단 제6연대는 7월 7일 오후 2시를 기해 포병의 지원을 받으면서 585번 도로 양측으로 전개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연대 제1중대와 제19연대 후위중대는 북한군의 집중적인 포격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후 8시경 미호천 동안(東岸)으로 우회한 북한군이 청룡리로 침투해 중대의 배후를 위협하였다. 진천 북쪽에 병력을 집결하고 있던 북한군은 7월 8일 오전 8시를 기해 대구경포를 이용해 공격준비사격을 재개하였다. 이어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은 제1연대 제1중대와 제19연대 후위중대의 방어진지를 공격하였다. 양 중대는 혼란에 빠져들었고, 병력은 분산된 채 진천으로 빠져나가 연대에 합류하였다.

7월 8일 육군본부는 수도사단장을 갑작스럽게 교체하여 새로운 사단장에 김석원 준장을 임명하였다. 사단장으로 보임된 김석원 준장은 진천으로 직행해 사단지휘소가 설치된 역리에 도착하였다.

백곡천 제방 뒤쪽의 경사면에 호를 파고 도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던 병사들은 북한군의 포화에 희생이 속출하였다. 계속된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악전고투하던 제1연대는 오후 5시에 백곡천 남안의 방어선을 부득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2사단은 7월 9일 오전 9시경에 진천을 점령하였다.

제8연대는 사단의 우일선으로 봉화산에, 그리고 제18연대는 좌일선으로 문안산에 각각 진입하고, 제1연대 및 독립기갑연대는 양 연대의 중앙인 잣고개를 장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7연대(-2)는 사단의 예비로 상계리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편, 진천을 점령한 북한군은 감제요지인 봉화산과 문안산을 탈취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야간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물러났다. 북한군은 다음날인 7월 9일 오전 9시에 집중적인 포격을 시작으로 주저항선인 봉화산 및 문안산에 대해 보·전·포의 일제 공격을 개시하였다. 아군은 악전고투했으나 주저항선을 지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마침내 주저항선이 붕괴되었고, 정오경 북한군은 진천을 중심으로 남쪽 2.5km에 이르는 반월형의 거점을 점거하였다.

수도사단장은 주저항선이 붕괴되자 연속된 반격을 통해 사단은 7월 10일 봉화산-문안산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진격을 담당할 예비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부 국도를 따라 남진한 북한군이 천안을 지나 전의에 도달함으로써 사단의 배후가 위협받고 있었다. 이에 지연전을 전개하기로 하고 병력을 미호천 남안으로 배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진천전투는 결과적으로 축차적인 철수와 지연전을 통해 국군과 유엔군이 소백산맥-금

강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한 중요한 전투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기간을 통해 수도사단이 올린 전과와 피해는 다음과 같다. 적 사살 550명, 포로 5명을 획득하였고, 장총 10정과 다발총 21정, HMG 9정, LMG 3정, 권총 2정 등을 노획하는 한편, 박격포 5문을 노획 및 파괴하였다. 반면, 수도사단은 전사 28명, 전상 13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이상호 집필】

## 전의 전투

[全義 戰鬪, 1950. 7. 9.~10.]

### 개요

미 제24사단 제21연대가 1950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경부 국도상의 전의 일대에서 북한군 제4, 제3사단 및 제105전차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전의는 연기군의 한 소읍으로 차령산맥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 곳으로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다. 대부천이 남쪽의 계곡을 통과하여 금강에 합류한다. 도로가 발달된 지역으로 1번 국도 상에 위치에 있으며 북쪽에서 천안을 거쳐 대전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7월 8일 천안을 수중에 넣은 북한군 제4사단은 제105전차사단과 함께 계속 1번 국도를 따라 남하하여 7월 9일 오전에는 전의에 도달하였다. 그 배후에는 북한군 제3사단이 따라서 남하하고 있었다.

미 제24사단 제21연대는 일본 구마모토의 우드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가, 미 제34연대에 이어 두 번째로 6·25전쟁에 투입된 연대이다. 그런데 제1대대(대대장, Charles B. Smith 중령)가 이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로 편성되어 투입되었으므로, 그 나머지의 A, D 양개 중대와 대대본부 일부 병력이 천안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이 부대를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로 칭한다.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제21연대는 전의마을 남동쪽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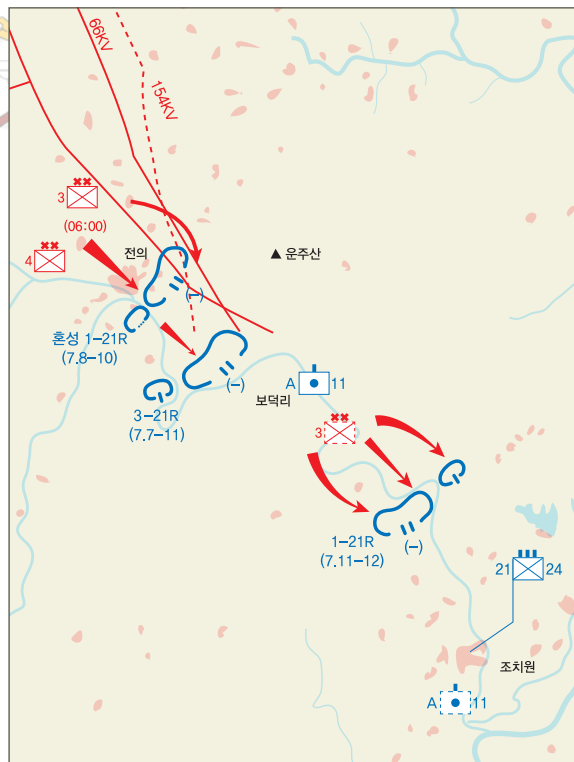
7월 9일 오후 3시경 미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는 북한군 전차 11대가 국도와 철로를 따라 전의로 진입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제11포병대대 A포대의 155mm곡사포와 4.2" 박격포가 북한군 전차에 대해 포화를 집중하였고, 근접항공지원사격을 요청한 결과, 바로 제5공군의 전폭기 편대가 출격하여 전차를 공격하여 오후 5시경에 11대의 전차 중 5대를 파괴하였다.

다음 날인 7월 10일 북한군은 새벽 안개를 이용하여 일부 병력을 은밀히 접근시켜 요란사격으로 아군의 진지 배치 상태를 탐지한 다음, 오전 7시에 박격포 지원사격을 실시하고, 보병 병력들은 소대 정면으로 공격하였다.

북한군 일부가 우회하여 박격포 진지로 침투하였고, 오전 8시 30분경을 전후하여 전차와 합류하여 박격포 진지를 유린하였다. 주진지 정면에서는 곧바로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었는데, 포병사격 요청으로 이들을 저지시켰다. 오전 11시 30분에 출격한 공군기가 도로에 늘어선 북한군 전차에 로켓탄을 퍼붓고 능선을 기어오르는 북한군 부대 위에 기총소사를 가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잠시나마 저지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어 방어진지로 포화가 집중

되었다. 더는 저지할 수 없게 되자 스티븐스(Richard W. Stephens) 연대장은 철수명령을 내려 혼성 제1대대원들은 제3대대 진지로 철수하게 되었다.

제3대대 진지로 철수한 연대장은 제3대대장에게 역습을 명령하였다. 연대장으로부터 역습명령을 받은 제3대대장 젠슨(Carl C. Jensen) 중령은 오후 2시에 제78 전차대대 A중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대대 병력을 이끌고 서북쪽으로 나아가 당초의 혼성 제1대대(-) 진지를 다시 확보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야간 공격의 위협성을 판단한 사단장은(William F. Dean) 다시 원래의 대대진지



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날 제3대대의 공세적인 전투에서 특징적인 것은 제78전차대대 A중대의 M-24경(輕)전차가 처음으로 전의 마을 남쪽 국도상에서 북한군 전차를 상대로 대전차전을 벌였는데 아군 전차 2대가 파괴되었고 적군의 전차 1대를 격파하였다.

또한 미 공군이 대량 공중강타를 시도하였는데, 이에 제5공군이 가용한 전폭기를 총동원하여, 그 차량중대를 공중공격 한 결과 전차 38대와 자주포 7대 그리고 트럭 117대를 파괴하였다.

7월 11일 새벽 미곡리 부근의 진지를 다시 점령한 제3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때의 북한군은 새로 투입된 제3사단이었다. 7월 12일 새벽 북한군 제3사단은 먼저 야포와 박격포로서 진지 남동쪽의 도로변에 위치한 지휘소 부근에 집중 포격을 가하여 통신소와 탄약저장소를 파괴하였다.

새벽 6시 30분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제3대대는 북한군 전차 4대가 지뢰지대를 뚫고 도로를 따라 방어진지를 돌파하자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혼란한 전투 상황이 정오까지 계속되자 부대원들은 개별적으로 진지에서 이탈하여 조치원으로 철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대장 켄슨 중령과 정보장교가 전사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전의 전투에서 미 제21연대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북한군 제3, 4사단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이들의 진출을 4일 간이나 지연시킴으로써 국군의 지연전을 지원할 수 있었다.

전의 전투 이후 미 제21연대 혼성 제1대대(-)는 조치원으로 철수하였다. 이날 저녁 병력을 점검한 결과 A중대는 181명 중 27명이 부상을 입고 30명이 실종되었으며, D중대는 3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박격포는 모두 유기된 상태였다. 한편, 7월 12일 제3대대 병력은 전차 2대가 파괴된 것을 비롯하여 병력 60%와 장비 대부분을 잃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2],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2006.

Roy E. Appel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조치원 전투

[鳥致院 戰鬪, 1950. 7. 11.~12.]

### 개요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제34연대가 1950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조치원과 공주 부근 일대에서 남하하는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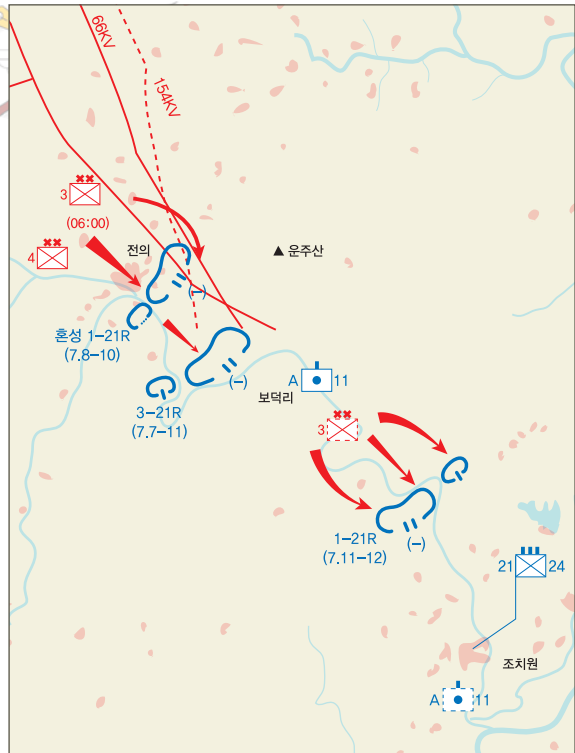
### 전개과정

조치원 일대는 차령산맥을 관통하는 경부 국도 상에 200~400m의 고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로 도로 외에는 차량 기동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서쪽으로 조천이라는 소하천이 흐르는데, 이는 전의 북쪽에서 경부 국도 및 철도와 나란히 남동쪽으로 향하여 조치원 남쪽에서 미호천과 합류한다.

전의 지역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한 북한군은 전의 전투에 투입된 제4사단이였다. 북한군 제4사단은 제5·

제16·제18보병연대와 3개 포병대대를 주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부국도를 따라 남하하였다.

조치원 일대와 공주 방면에서 이들을 방어하는 부대는 미 제24사단 제21연대와 제34연대, 그리고 국군 기갑연대 제6중대였다. 미 제34연대 제1대대에는 M-24 경전차 1개 소대가 배속되었다. 7월 10일 밤에 사단장에게 조치원 북쪽 3km선까지 철수를 승인 받은 연대장 스티븐스(Richard W. Stephens) 대령은 제1대대장 스미스(Charles B. Smith) 중령에게 대전에서 조치원에 도착하는 대로 진지를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7월 11일 새벽에 스미스 중령은 B, C 양개 중대를 이끌고 조치원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 먼저 도착한 혼성 제1대대(-)를 통합하였다. 이어서 오전 7시 30경에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조천 남안에 있는 무명고지(△170)를 점령한 다음 진지공사를 실시하였다.

7월 12일 오전에 조치원 북쪽에 홀로 남았던 제1대대는 2,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적으로부터 동·북·서쪽의 3개 방향에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진지 고수만을 고집할 경우, 전날 제3대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대대를 철수하기로 결심하였다.

대대장 스미스 중령은 철수 시 적과의 교전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1개 중대씩 한꺼번에 진지에서 이탈하도록 함으로써 철수 중 접전 없이 조치원 부근에 집결하였고, 차량으로 경부국도를 따라 금강을 건너 독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미 제34연대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천안에서 철수하여 수촌리 부근의 지연진지를 각각 점령하고 연대지휘소는 공주에 설치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이 전의에서 공주 방향으로 전환한 후, 7월 11일에 광정리의 제34연대 제3대대 진지에 도달하여 공격하자, 제3대대는 가벼운 전투 끝에 철수하여 바로 금강을 건너왔다.

미 제34연대 제1대대(장, Harold B. Ayres 중령)는 M-24 경전차 1개 소대(제78전차대대 A중대) 지원 하에 금강 이북에서 마지막 지연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적 공격에 대비하여 제3공병대대 D중대는 금강에 이르는 도로의 교량을 모두 폭파하고 도로를 절단하였다. 7월 12일 제1대대를 철수시킴으로써 연대 전 병력이 금강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7월 8일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미 제34연대에 배속된 국군 기갑연대 제2기병대대 제6중대는 천안 서쪽 지역(예산-청양 부근)의 적정을 수집하기 위해 7월 9일 대전에서 공주로 이동하였다. 제6기병중대는 지휘소를 공주사범학교에 정하고 공원에 무선통신소를 설치하여 대전의 연대와 교신을 유지하였다. 7월 11일 아침 7시에 공주에 있던 제6기병중대 2개 소대가 예산으로 향하다가 유구(예산 남동쪽 16km)에서 북한군 2개 중대를 습격하여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는 한 시간만인 오후 1시에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는데, 전투 결과 북한군의 시체 60여구가 확인되었고, 소총도 60여 정이나 노획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조치원 전투에서 미 제21연대는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북한군 제3, 제4사단에도 많

은 피해를 입히며, 이들의 남진을 4일 간이나 지연시켰다. 또한 미 제21연대는 모두 금강을 건너 금강선을 연한 방어진지를 편성할 수 있었다.

7월 11일 미 제21연대는 금강 남안의 대평리 일대 제방을 연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으나, 다음 날 미 제19연대에 방어진지를 인계하고 대전 동측방 방호를 위해 옥천 터널 일대로 이동하였다. 한편, 미 제34연대는 7월 12일 공주 북쪽의 금강선에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미호천 전투

[美湖川 戦闘, 1950. 7. 11.~13.]

### 개요

국군 수도사단이 1950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청주 북방의 미호천 일대에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미호천은 청주 북쪽 7km에서 동서로 흐르는 금강의 지류로써 하폭은 200m, 수심은 1m로 유속은 완만하여 도섭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미호천 지역으로 공격한 북한군은 진천을 점령하고 계속 남하하는 제2사단으로 예하에 제4연대, 제6연대, 제17연대와 포병연대, 1개 전차연대(-)를 배속하고 있었다.

7월 10일 오후 4시 명령에 따라 수도사단은 배속된 제17연대 및 제20연대의 엄호를 받으며 철수를 시작하였다. 사단 주력은 북한군으로부터 이탈, 여사리를 거쳐 585번 도로를 따라 밤늦게 작명에 명시된 진지를 점령했으며 미호천 남안인 오근장에 도착하였다.

한편, 제20연대는 사단의 배후를 차단하기 위해 전환한 북한군의 위협에 처했으나 유엔공군의 근접항공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사단장(김석원 준장)의 명령에 따라 미호천 남안으로 철수한 수도사단은 서에서 동으로 제8연대, 제1연대, 제18연대순으

로 저지진지를 점령하였다. 또한 제17연대(-2)는 철수과정에서 통신 두절로 행방을 알 수가 없었고, 제20연대는 청주 남쪽 영운동에서 부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제1연대는 오근장에서 제9연대를 흡수해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양천산과 585번 도로를 따라 남진한 북한군은 오전 8시경 청주 북방 10km의 오창에 도달해 미호천 도하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단은 공군에 항공지원을 요청했고, 약 30분 후 F-51전투기 2개 편대가 나타나 기총사격과 네이팜탄 공격을 가하였다. 오후 2시에 다시 한 번 공군의 항공지원을 요청해 오근장 북쪽의 북한군 집결지를 공격해 많은 손실을 주었다.

공중폭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정찰대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도하지점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이어 오후 2시경에는 1개 연대가 화산리에 집결하였다. 그들은 밤 9시를 보·전·포 협동으로 화산리 및 오근장으로 도섭을 개시하였다. 남안의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18연대와 제1연대는 포병의 탄막사격과 전후 저격사격으로 도섭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북한군의 도하는 다음 날인 7월 13일 새벽 4시부터 재개되었다. 그들은 30여 분에 걸쳐 각종 포화를 미호천 남안의 아군 진지에 집중한 후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 도섭을 시작하였다. 일진일퇴의 격전을 반복했으나, 5시간 동안 지속된 격전이 있을 후 병력의 열세로 인해 사단의 주저항선은 와해되었다.

수도사단은 북한군으로부터 이탈해 청주 남쪽 431고지-국사봉간에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진지구축에 주력하였다. 7월 13일 새벽 5시 무렵 청주로 접근한 북한군은 시가지를 향해 포격을 하며 공격을 개시했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수도사단은 청주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결국 북한군은 자정 무렵 청주를 완전 점령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미호천 전투는 결과적으로 축차적인 철수와 지연전을 통해 국군과 유엔군이 소백산맥-금강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한 중요한 전투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이상호 집필】



## 가장동 전투

[佳壯洞 戰鬪, 1950. 7. 11.~13.]

### 개요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음성 부근 가장동 지역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의 공격을 방어하여 지연시킨 전투이다.

### 전개과정

가장동은 음성의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괴산을 거쳐 상주로 이어진다. 따라서 남진하는 북한군의 경상북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음성 지역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요충지이다.

북한군 제15사단은 1950년 7월 1일 전선에 투입된 사단으로 예하에 제45연대, 제48연대, 제50연대를 두고 충주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북한군은 7월 10일 아침 제1사단의 우일선에 배치된 제13연대의 정면을 돌파하려고 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최대한 지연시키며 미원 부근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새벽 6시를 기해 전 사단에 미원지구로 철수를 명령하였다.

제12연대는 사단명령에 따라 괴산 북쪽의 오룡동-정용리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제11연대의 철수에 대비하였다. 제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오전 6시에 각 대대의 철수를 지시하면서 오후 6시까지 계획된 저지진지를 점령한 후 제13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명령하였다. 제11연대는 7월 12일 새벽 2시에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괴산 방면으로 철수를 시작, 송정리(미원 서남쪽 5km)로 이동해 사단의 서측방 방어에 들어갔다.

7월 11일 아침 제13연대가 507번 도로를 따라 철수를 개시하자 북한군 정찰대가 오전 10시경 구만리고개 일대에 출현하였다. 이에 제11연대장은 오후 2시경 신기리부근 262고지에 제1대대를 배치하였다. 저녁 8시 무렵 야포와 박격포 지원을 받는 북한군 1개 개개가 제11연대 제1대대가 배치된 262고지로 공격하였다.

7월 12일 새벽 2시를 기해 제11연대장은 제2대대를 가장동 남쪽 1km의 507번 도로 좌우측에 긴급 투입한 후, 4시에는 제3대대를 제2대대 좌측의 371고지에 투입하였다. 아침 6시에 제11연대는 371고지-369고지를 연하는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한편, 가장동으로 진출한 북한군 제15사단 대대병력은 오전 10시 무렵 제2대대를 공격했으나 연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가장동 뒤편으로 물러났다. 오후 2시에 증원을 받은 그들은 2개 대대병력을 가장동 일대에 전개하고 야포 및 박격포 사격을 가하며 재공격을

준비하였다. 제11연대는 그들을 포위 격멸할 계획 하에 오후 7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어둠 속에서 근접전을 치르는 격전을 전개하여 262고지-신기리 선을 확보하였다.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미원지역으로의 철수를 결정하고 제11연대와 제12연대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7월 13일 새벽 3시 제11연대는 제2대대의 엄호 하에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괴산을 경유해 미원으로 철수를 시작하여 7월 13일 저녁 미원에 집결을 완료함으로써, 북한군 제15사단이 괴산을 점령하게 되었다.

제1사단은 7월 12일 새벽 3시에 단행된 제11연대의 신기리-가장동선 철수를 계기로 음성지구전투를 종결하였다. 사단사령부를 미원에 개설하는 한편,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해 추격해오는 북한군 제15사단과의 전투를 전개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사단은 음성 일대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을 방어하여 중서부 지역을 동남진해 영남의 발판인 상주 방면으로 접근하려던 계획을 지연시켰다. 북한군 제15사단의 남진을 계획대로 저지하고 지연한 제1사단은 괴산-미원으로의 축차적인 철수와 지연전을 통해 인접 부대의 전선 조정에 기여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 2006.

[이상호 집필]

## 공주 전투

[公州 戰鬪, 1950. 7. 12. ~14.]

### 개요

미 제24사단 제34연대가 1950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금강에 방어선을 편성해 공주에서 전차를 앞세우고 남진하는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을 강 남안에서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공주 지역은 대전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해당하며 천연의 장애물인 금강이 흐르고 있어 전략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금강은 강폭 500~1,000m, 수심 2~5m인데다가

유속이 매시 5~10km로 빨라, 도섭이 불가능하다.

미 제24사단의 방어책임 지역은 공주 서측으로부터 신탄진 일대의 경부철교 동측까지로 직선 거리만으로도 30km가 넘으며, 강의 굴곡을 감안한다면 무려 48km가 넘었다. 따라서 딘(William F. Dean) 제24사단장은 북한군의 도하 공격이 예상되는 1번 국도(대평리 정면)와 23번 국도(공주 정면) 방향에 병력을 집중하고자 했다.

7월 12일 오후 딘 사단장은 재편성한 제34연대를 공주에, 조치원전투에서 손실을 입은 제21연대는 대평리에 배치하였다. 13일 대구에 있던 제19연대가 대평리에 도착하자, 제21연대를 사단 예비대로 대전비행장으로 이동시켰다.

제34연대 방어지역은 공주 동쪽 4km 구곡천에서 공주 서측 검상리까지이며, 방어 정면 직선거리가 약 10km를 넘었다. 이에 따라 연대장은 제3대대를 공주 정면에 배치하고, 제1대대를 예비로서 공주 남서쪽 10km되는 이인리 일대 지역에 배치하였다. 배속된 사단 수색중대는 공주 서쪽 강안을 맡도록 하였다. 제63포병대대는 공주와 이인리 중간에 위치한 삼교리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게 하여 제3대대를 화력 지원하는 한편,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는 북한군이 공주 정면으로 도하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지역에 병력을 중점 배치하였고,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은 화력으로 제압하려 하였다.

그런데 제3대대는 공주-논산도로에서 동쪽으로 구곡천까지 사이에 진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논산가도의 서쪽 지역에 K, I, L중대의 순으로 집중 배치시켰으므로, 동쪽 측방의 논산도로에서 구곡천에 이르는 1.5km의 지역이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되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공주 북방에서 금강 도하 공격 준비를 완료한 후, 7월 14일에 미 제34연대를 정면과 측방에서 공격하였다. 이때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은 서측방으로 몰래 검상리 일대로 도하해 미 제34연대 63포병대대 진지를 기습했다. 그 결과 제63포병대대는 조기에 초토화 되어 전방부대에 대한 화력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제3대대 L중대는 검상리 지역에서 측방으로 보트를 타고 도하하는 북한군을 확인하고도 대대와 통신이 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후방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전방 진지에서 임의로 철수하였다. 또한 후방에 예비로 집결되어 있던 제1대대는 뒤늦게 제63포병대대를 구출하기 위해 전방으로 기동하였으나, 날이 어두워지자 임무를 중단하였다. 결국 제34연대는 북한군의 공격 하루 만에 와해되어 논산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딘 소장이 “사단은 어떠한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금강선을 고수한다.”라는 명령을 내렸

다. 그렇지만 미 제34연대는 금강 하천선을 이용한 방어배치는 북한군의 전차를 막는데 유리했으나 침투 및 우회부대를 저지하지 못하고 후방이 차단된 상황에서 공주로부터 14일 철수했다. 특히 제63포병대대는 장교 11명과 사병 15명이 실종되었고, 105mm 야포 10문과 탄약이 적재된 차량 약 70대를 잃은 손실을 입어 화력의 열세를 가중시켰다. 결국 금강선의 붕괴는 대전 전투에까지 영향을 미쳐 낙동강선으로 철수의 첫 신호가 되고 말았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 (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2007)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조성훈 집필】

## 대평리 전투

[大坪里 戰鬪, 1950. 7. 12. ~ 16.]

### 개요

미 제24사단 제19연대가 금강방어전의 일환으로 1950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연기군 대평리 일대에서 금강을 이용해 북한군 제3사단의 공격을 지연시킨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지역은 방어에 유리한 금강이라는 천연적 장애물이 가로로 놓여 있다. 대평리 부근에는 사주(沙洲)가 발달해 높이 1.2~2.4m, 길이 4km 정도의 제방이 양안에서 마주보고 있었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도섭은 불가능하였다. 이곳에서 적을 막지 못하면 낙동강까지는 마땅한 방어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던 미 제24사단장은 금강선을 결정적 방어의 지역으로 선정했다.

북한군 제3사단은 전의 및 조치원 전투에서 미 제21연대를 공격해 연속적으로 승리했지만, 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1950년 7월 12일 야간에는 금강 북안(北岸)의 종촌리 및 나성리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그들은 대평리 북방에서 도하 공격 준비를 완료한 후, 미 제19연대를 정면과 측방에서 공격하려 하였다.

미 제24사단은 12일 제19연대를 북한군의 주공격로로 판단되는 대평리 정면에 투입했다. 미 제19연대는 저녁에 대평리 일대에 도착하여 13일 오전 9시 30분경에 방어 지역을 미 제21연대로부터 완전히 인수받았다. 연대의 방어 책임 지역은 서측으로 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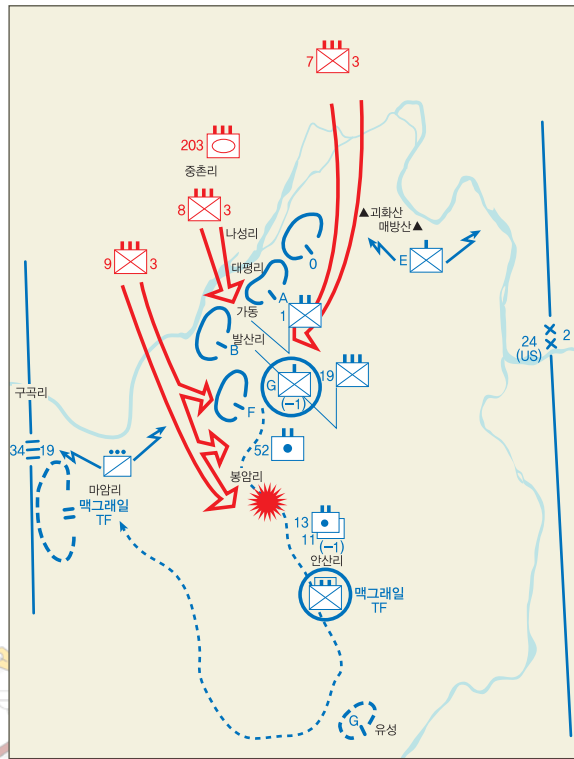
동쪽 4km 구곡천에서 동측으로 신탄진까지이며, 직선 거리가 약 22여 km이고 강안을 따라 곡선 거리는 30km가 넘었다. 그런데 연대는 2개 대대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병력을 적의 예상 도하 지점인 대평리 일대에만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기타 지역은 경계 병력만 두었다. 하지만, 미군은 금강을 건널 수 있는 교량을 모두 파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의 도하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14일 인접부대인 미 제34연대가 공주에서 북한군 제4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돌파된 다음 날인 15일 오전 7시경 북한군 제3사단 병력 일부가 서측으로 도하를

시도하는 등 하루 종일 대평리 정면에서 도하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날 저녁 무렵에 북한군은 전차와 포병이 전방에 배치된 제1대대 진지 정면에 대한 포격과 함께 본격적인 야간 도하공격을 시작하였다.

가동(佳洞)에 위치한 대대지휘소에서 도하 상황을 지켜 본 윈스테드(Otho T. Winstead) 제1대대장은 공중폭격을 요청해 전차 1대를 격파하고, 포병사격을 무력화시켰다. 전투기가 기지로 사라지자, 북한군은 많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도하를 강행하였다. 제1대대는 무반동총과 기관총, 박격포 등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두 차례나 격퇴시켰으나, 북한군은 야크(YAK)기 1대와 포병 화력의 엄호 아래 계속 도하를 기도하였다.

미 제19연대는 북한군의 야간 도하 공격을 저지하고자 조명탄으로 수면을 대낮같이 밝히는 가운데 포병대대와 연대 박격포중대의 각종 중화기의 지원을 받아 도강하는 북한군을 타격해 강남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때 뜻하지 않게 적의 움직임이 낱알이 밝혀주던 조명탄이 20여 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 그 결과 북한군 도하 병력들은 칙흑같은 어둠을 틈타 남쪽 강안에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북한군은 미호천이 금강과 합류하는 합강리(괴화산 동북쪽 3.5km) 부근에서 강을 건너 C중대와 E중대 사이의 간격으로 우회해 제1대대 동측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C중대 진지를 먼저 공격하였다. 하지만 C중대에서 그들의 기습공격을 네 차례나 물리치자, 그들은 괴화산 일대에 배치된 중대 주력을 우회하여 그 배후부터 공격하고자 기도하였다.

북한군들은 제1대대의 서측방에서도 도하였고, 16일 오전 6시가 지나면서 중앙 정면에서 파괴된 금성교의 교각을 엄폐물로 삼아 건넜다. 그들은 전차포의 엄호 아래 오전 8시 경에는 A중대의 서측 진지 일부와 B중대의 우측 진지를 점령하고, 이어 가동(佳洞)의 대대지휘소를 습격했다.

이렇게 도하한 북한군은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연대 주보급로를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9연대는 차단당한 보급로를 개척하기 위해 임시 예비대를 편성하여 투입했고, 후방에 위치한 사단장도 연대보급로를 개척하기 위해 맥그레일(McGrail)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여러 차례 투입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는 하루 전날 연대 예비대의 2/3 정도를 서측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투입하여 예비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19연대도 북한군의 공격 하루 만에 붕괴되었고, 병력들은 소규모 부대 또는 각 개인별로 야간에 산악 소로를 이용하여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은 화력도 열세하고 정상적인 도하 장비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측후방 도하 공격으로 미 제19연대의 후방을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미 제19연대는 전차를 동반하지 않은 북한군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미 제24사단은 공주에 이어 대평리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금강방어선을 구축한 지 4일 만인 16일 밤에 대전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제19연대마저 많은 병력과 장비 손실을 입고 제34, 제21연대에 이어 또 한번 참담한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다. 105mm 곡사포 9문 가운데 8문을 잃은 제52포병대대는 화력의 열세를 면치 못한 사단에 타격을 안겨 주었다. 금강선이 붕괴되고 대전이 위협을 받게 되자, 미 제24사단은 대전 방어를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 참고문헌

국방군사연구소, 『오산·대전전투』(199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2007)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조성훈 집필】



## 영덕 전투

[盈德 戰鬪, 1950. 7. 14. ~ 8. 9.]

### 개요

국군 제3사단이 1950년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경상북도 영덕 일대에서 동해안 7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 제5사단과 제766부대의 공격을 25일 동안 지연시킨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포항에서 약 45km 북방에 위치한 영덕은 지형상으로 북쪽에 활인산과 237고지로 연결되는 횡격실 능선이 있어 방어에 유리하였다. 그 남쪽에는 북에서 남으로 흘러 강구에서 동해로 이어지는 오십천이 있으며, 영덕에서부터 이 강변을 따라 뻗어 있는 7번 도로는 강구에서 오십천교를 거쳐 포항으로 이어져 있었다. 영덕-강구 간 약 6km 구간은 오십천이라는 천연장애물의 우측 강변에서 동해안까지의 너비가 1~6km밖에 안되는 역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간지역에는 207고지와 181고지와 같은 중요지형이 있어 방어에 매우 유리하였다. 더욱이 강구와 포항 사이에는 사단 규모가 방어진지를 편성할만한 지형이 없었다. 따라서 영덕은 포항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서 전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북한군은 동해안지역으로 북한군 제5사단(제10·제11·제12연대)과 유격부대인 제766부대를 투입하였다. 북한군 제5사단은 7월 12일 평해를 점령한 후 이틀간 부대정비를 마치고 14일부터 제10연대를 진보 방면으로 우회시키고, 제11연대와 제12연대를 영덕 방면으로 남하시켰다. 북한군 제5사단의 임무는 중동부지역을 담당할 북한군 제2군단의 진출에 앞서 신속히 포항을 장악하여 부산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군은 유격부대인 제766부대를 동해안지역에 투입하였다. 북한군 제766부대의 임무는 전선 후방에서 무장폭동을 유발하고 철도와 수송시설물을 파괴하며 국군의 퇴로 및 증원부대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북한군 제766부대는 북한군 제5사단이 포항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

한편 동해안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게 된 국군 제3사단은 7월 1일부터 제23연대만으로 울진-영해 간 60km의 공간에서 북한군 제5사단과 제766부대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었다. 7월 13일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독립 제1대대 배속)는 영해에서 철수하여 영덕 북쪽

에 새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이 선에서 제22연대가 증원될 때까지 영덕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육·해·공군은 긴밀한 협조 아래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제22연대의 원대복귀와 독립기갑연대의 제3사단 배속이 뒤이어 진행되고 있었다.

1950년 7월 1일 울진을 탈취한 후 12일 영덕 북쪽 14km 지점인 평해까지 남하한 북한군 제5사단은 14일부터 제10연대가 청송군 진보면으로 우회하고, 제11·제12연대가 7번 도로를 따라서 영덕과 포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23연대(독립 제1대대 배속)는 병력의 부족과 화력의 열세로 인하여 방어진지가 돌파되기 시작하자 명령에 따라 축차진지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철수 시 영해-영덕 간 교량과 터널 및 도로를 파괴하였고, 유엔 공군과 해군이 북한군의 집결지와 접근로를 타격하여 진출을 지연시켰다.

북한군 제5사단 제11·제12연대는 유엔 해·공군의 포격과 폭격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여 7월 16일에 영해를, 19일에 영덕을 각각 점령하였다. 이에 국군 제23연대는 주력을 우곡동(영덕 동남쪽 1km)의 181고지-207고지 능선으로, 독립 제1대대를 오십천 남쪽의 208고지로 각각 철수시켰다. 이때부터 국군 제23연대와 북한군 제5사단은 181고지와 207고지를 두고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은 영덕 부근의 전황을 크게 우려하여 매 시간 단위로 보고받고 지휘조치를 하였다. 이때 미 제8군사령부가 영덕 전투에 큰 관심을 둔 것은 포항의 항구와 영일비행장의 확보를 위해 더 이상 후퇴하면 안되었기 때문이었다. 국군 제3사단은 7월 24일 제22연대가 원대복귀하고, 뒤이어 해군 포항 경비부 소속의 육전대가 이 지역에 투입되면서 전투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군 제3사단은 7월 25일부터 영덕 탈환을 위한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계속해서 전개하여 마침내 8월 2일 오후 6시경 영덕을 재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북한군 제5사단의 주력부대가 7번 도로를 따라 남진하는 동안 영덕 서측방 진보방면으로는 북한군 제766부대가 청송을 목표로 남하하고, 제5사단 제10연대가 울진에서 영덕으로 우회기동을 위해 제766부대를 후속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이 일대의 적을 저지·격퇴하기 위해 7월 26일 독립기갑연대를 국군 제3사단에 배속하여 진보면에 투입하였다. 독립기갑연대는 연대주력과 장갑차 5대를 반변천 남안에 배치하고 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강원경찰 제5대대를 통제하여 동쪽 측방에 배치하였다. 독립기갑연대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북한군 제766부대와 격전을 벌인 후 진보 남쪽으로 철수하였는데, 이 4일 동안의 지연작전으로 북한군 제10연대는 영덕으로 우회 기동하는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1950년 8월 2일까지 40% 이상의 병력 손실을 입은 북한군 제5사단은 영덕 북방 산간계곡으로 은신하여 부대정비를 완료 한 후 8월 8일 야간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공격으로 국군 제3사단은 방어선이 와해되어 남쪽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제22연대장이 임의로 오십천교를 폭파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영덕에서 포항으로 진출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오십천교는 오십천의 수심이 깊어 도섭이 불가능해 전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제22연대장의 오판으로 오십천교가 파괴되어 국군 제3사단의 작전은 큰 차질을 빚었고, 결국 영덕 전투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 결과 및 영향

1950년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국군 제3사단(독립기갑연대 배속)은 영덕 부근에서 북한군 제5사단의 공격을 25일간 저지하여 북한군 제2군단의 작전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 7월 하순까지 포항을 전령할 계획이었던 북한군 제2군단은 유엔 해·공군으로부터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은 국군 제3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22연대장의 오십천교 임의 폭파는 영덕 전투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겨졌다. 이 교량의 조기폭파로 오십천 북쪽의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음은 물론 영덕으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국군 제3사단은 제23연대가 오십천 남안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제22연대가 오십천교 남쪽 3km 지점에 위치한 남호동으로 철수하여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 참고문헌

- 육군본부, 『제3사단 제23연대 전투상보』 『한국전쟁사료』 (50), 19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Ⅱ,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Ⅳ, 20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Ⅴ,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안강-포항전투』, 1986.

[박동찬 집필]

## 풍기-안동 전투

[豊基-安東 戰鬪, 1950. 7. 14. ~8. 1.]

### 개요

국군 제8사단이 1950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경상북도 풍기-영주-안동 일대에서 중앙선 축선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 제12사단과 제8사단의 공격을 18일 동안 지연시킨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풍기-안동 전투가 전개된 지역은 경상북도 영주시와 안동시 일대로 5번 도로와 중앙선 축선 상에 위치한 곳이었다. 소백산맥의 남동쪽에 위치한 풍기-영주 지역은 북서쪽 일대가 높고 남동쪽 지역이 낮은 지세를 이루고 있어 남쪽에서의 방어가 불리하였다. 반면에 낙동강 중류지역에 위치한 웅천-안동 지역은 천연장애물인 내성천과 낙동강이 있어 하천선 방어에 유리하였다. 작전 지역 내에는 단양-영주-안동-의성으로 이어지는 5번 도로와 중앙선이 남동쪽으로 관통하고, 예천-영주-봉화-울진으로 이어지는 36번 도로와 예천-안동-진보-영덕으로 이어지는 34번 도로가 내륙에서 동해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풍기-순흥-부석, 영주-순흥으로 이어지는 도로 등 많은 소로들이 곳곳에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였다.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진출하던 초기의 위력이 점차 약해지고 기동력이 크게 저하되자 제3단계 작전(1950. 7. 9.~23.) 중반부터 국군 방어지역인 3번과 5번 도로 축선에 전투력을 집중하려 하였다. 이때 5번 도로 상의 풍기-안동 방면으로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2사단(제30·제31·제32연대)과 제8사단(제81·제82·제83연대)이 투입되었다. 북한군 제12사단은 1950년 7월 6일 제천을 점령한 후 7월 7일부터 13일까지 국군 제8사단과 단양 전투를 수행한 부대로, 이들에게는 단양-영주-안동 접근로를 따라 계속해서 한반도 동남부로 진출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북한군 제12사단은 총 병력이 약 1만 명이었으며, 76mm 자주포 16문과 각종 곡사포·대전차포·박격포 116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군 제8사단은 7월 초 강릉에서 북한군 제1경비여단을 기간으로 하여 증편된 사단으로 북한군 제12사단을 증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한편 중앙선 축선의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8사단(제10·제21연대)은 7월 12일 단양 전투를 종료하고 죽령을 넘어 풍기로 철수한 후 5번 도로를 중심으로 좌측에 제10연대를, 우측에 제21연대를 각각 배치하여 V자형의 살상지대(殺傷地帶)를 만들어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당시 국군 제8사단의 총 병력은 약 6,000명이었으며, 장비는 편제상의 70%를 유지하고 있었다.

풍기-안동 전투는 북한군 제12사단이 7월 14일 오전 7시경 죽령을 넘으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북한군 제12사단은 제30연대를 선두부대로 하여 차량을 이용해 죽령을 넘어 10시경 창락초등학교에 집결한 후 오후 1시경부터 5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국군 제8사단이 영주로 철수했다고 판단하고서 행군대형으로 남하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 침병부대의 후미가 풍기교를 건넌을 때 일제히 공격을 가해 그들을 격퇴하였다. 사단은 15일 새벽 2시경 트럭 34대에 1,000여 명의 병력을 태운 채

국군 제8사단 방어진지를 돌파하려는 북한군에게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해 크게 승리하였다. 두 차례의 정면공격이 실패하자 북한군은 이날(15일) 오후부터 정면 돌파 대신 측면 공격으로 전환하여 공격을 계속하였지만, 이마저도 국군 제8사단의 강력한 방어에 부딪쳐 실패하였다.

풍기 점령에 실패한 북한군은 중동부전선의 작전을 일부 조정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제12사단을 계속해서 풍기-영주 정면을 공격하게 하고, 제8사단을 문경-예천 방면으로 투입해 국군 제8사단의 퇴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12사단은 16일부터 접촉을 단절하고 후속부대인 제32연대를 풍기로 진출시켜 공격부대의 병력을 증강시켰으며, 북한군 제8사단은 문경-예천 방면으로 우회 기동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8사단도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육군본부로부터 신편 제50포병대대의 1개 포병중대(M-2 105mm 곡사포 6문)를 배속 받는 등 차후작전에 대비하였다.

공격준비를 갖춘 북한군 제12사단은 7월 18일 새벽 2시를 기해 국군 제8사단의 주저항선인 장군봉-426고지-258고지-377고지를 일제히 공격하였다. 이때부터 국군 제8사단과 북한군 제12사단은 풍기와 영주 북방에서 7월 23일까지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국군 제8사단은 7월 20일 새벽 1시부터 국군 제2사단 소속이었던 제16연대가 배속되어 3개 연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영주 북방에서 국군 제8사단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7월 23일, 육군본부는 북한군이 예천 북방에서 영주 방향으로 북상 중이라는 항공관측 보고를 받았다. 이에 육군본부는 영주 지구에서 고군분투 중인 국군 제8사단의 퇴로가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이날(23일) 오후 국군 제8사단에 안동 북쪽의 웅천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육군본부는 예천에 배치된 국군 수도사단 제18연대에게 국군 제8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7월 24일 밤에 웅천 북쪽 약 5km 지점에 위치한 내성천에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날(24일) 국군 제8사단은 국군 수도사단과 더불어 국군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 석탑동-364고지 간의 20km에 달하는 내성천 남안에 3개 연대를 배치한 국군 제8사단은 7월 28일 새벽에 방어선이 돌파될 때까지 3일 동안 북한군의 도하공격을 저지하였다. 사단이 내성천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에 국군 제1군단사령부가 7월 25일 안동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안동에는 군단예비인 국군 수도사단이 집결해 있었다.

국군 제8사단은 7월 28일 새벽에 내성천 방어선이 돌파되자 웅천-안동 간에 방어선 2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지연전을 펼치며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국군 제8사단의 웅천-안동 간 방어선은 제1선이 안동에서 9km 북방의 천등산-204고지-연곡-오로

봉-233고지를 잇는 선이었으며, 제2선이 첫 번째 방어선에서 3km 남쪽에 위치한 200고지-오산동-240고지를 잇는 선이었다. 북한군 제12사단은 7월 30일과 31일 국군 제8사단의 제1방어선과 제2방어선을 각각 돌파하였다. 안동에서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국군 제8사단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군단에서는 풍산에 배치되어 있던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를 안동읍 뒷산(북쪽)에 배치하여 제8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였다.

국군 제1군단은 7월 31일 오후에 육군본부로부터 낙동강-반변천 남안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철수명령이 예하부대에 전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철수와 엄호에 관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군 제8사단과 수도사단 제1연대는 8월 1일 새벽에 북한군과 접촉을 유지한 상태에서 철수를 단행할 수밖에 없어 대혼란이 야기되었다. 더욱이 선두 철수부대인 제10연대를 제외하고 3개 연대가 모두 안동교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교량이 폭파되어 수많은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특히 철수부대의 엄호를 담당한 제16연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전사 137명, 부상 120명, 실종 594명 등 총 851명의 병력손실을 입었다. 이는 철수를 개시할 당시 1,100여 명이던 연대 병력의 77%에 해당하는 막대한 피해였다.

도하철수를 완료한 국군 제8사단과 수도사단 제1연대는 8월 1일 군단의 명령에 따라 낙동강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구미동-상아동에 이르는 낙동강선 방어진지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7월 14일부터 시작된 국군 제8사단의 풍기-안동 전투도 18일 만에 종료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0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국군 제8사단은 풍기-영주-안동으로 이어지는 5번 도로 축선에서 북한군 제12사단과 제8사단의 공격을 18일간 저지하여 낙동강방어선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국군 제8사단은 풍기-영주 전투에서 북한군 제12사단에 비해 크게 열세인 전투력을 지휘관의 적절한 지형 이용과 임기응변의 용병 그리고 장병들의 불굴의 투지와 용기로 12일 동안이나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여 북한군 제2군단뿐만 아니라 북한군전선사령부의 작전 전반에 큰 혼선을 빚게 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8사단이 소속된 국군 제1군단의 안동 철수작전은 철수시간과 낙동강 도하대책을 등한시 하여 막대한 피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반변천 방어선 형성과 그 이후의 군단작전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안동에서 철수한 국군 제8사단은 1950년 8월 2일 고란동-입암동-상화동을 잇는 24km의 낙동강방어선 책임지역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때부터 사단은 본격적으로 낙동강 방어전투를 수행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20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교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20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단양-의성전투』, 1987.

【박동찬 집필】



## 미원 전투

[米院 戰鬥, 1950. 7. 15.~23.]

## 개요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미원지역에서 북한군 제15사단 제50연대의 공격을 방어하여 지연시킨 전투이다.

## 전개과정

미원은 충청북도 청주의 서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인경산과 좌구산 등이 있고, 곳곳에 500m 내외의 산들이 솟아 있어 산지를 이루고 있다. 미원천, 구룡천 등이 흐르고 있으며 북쪽으로 증평군, 남쪽으로 보은군과 접해 있고, 괴산, 증평, 보은, 청주로 가는 국도가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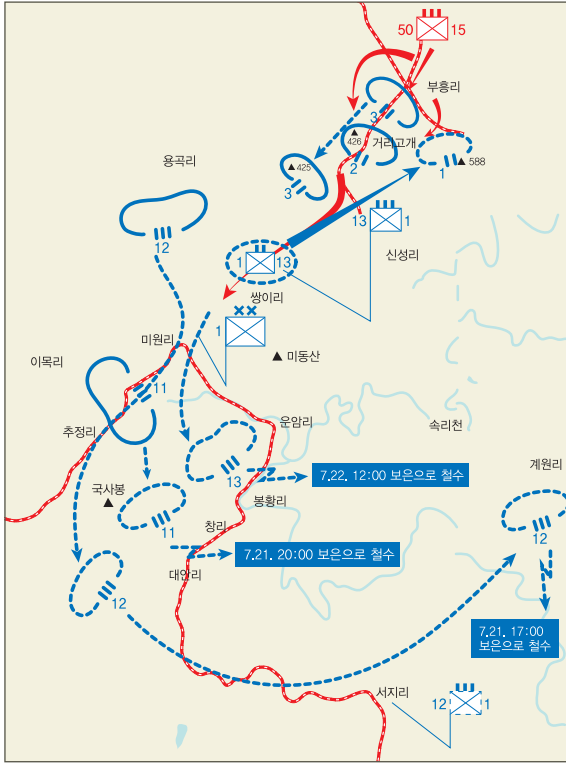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15사단은 제45, 제48, 제50연대 3개 연대로 편성되었고, 총 병력 약 9,000명으로 주요 장비로는 122mm 곡사포 12문, 76mm 곡사포 8문과 각종 박격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여기에 76mm 자주포 4문과 일부 전차대가 배속되었다.

한편, 제1사단은 7월 12일까지 음성-괴산 부근 전투를 종결하고 7월 13일 미원 지구로 이동해 제11연대를 추정리에, 제12연대를 용곡리에, 제13연대를 부흥리에 각각 배치하여 북한군 제15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제1사단의 총 병력은 5,600여 명이었으며, 105mm 곡사포 4문(배속), 81mm 박격포 24문, 60mm 박격포 20문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군 제1사단이 미원 일대에서 방어 준비를 갖추어 무렵, 미원 방면으로는 북한군 제15사단(사단장 박성철 소장) 제50연대(연대장 이을설 대좌)가 진출 명령을 받고 있었다.

7월 15일 청안을 점령한 북한군 제15사단 제50연대는 16일 새벽 5시부터 19번 도로상의 국군 제13연대 제3대대를 삼면에서 포위 공격하였다. 부흥리의 제3대대는 북한군을 맞아 3시간 동안 교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군의 포위망이 좁혀짐에 따라 오전 8시경 분산 철수하였다. 제3대대 진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계속해서 거리고개의 제2





대대 진지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이날 북한군은 거리고개를 돌파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북한군은 제15사단 제50연대는 7월 17일 아침 6시 전차 3대와 장갑차 12대를 앞세우고 거리고개의 좌우측에 위치한 426고지와 588고지를 우회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426고지의 제13연대 제2대대와 588고지의 제1대대는 근접전을 전개한 끝에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3대대와 제2대대의 협공을 받은 북한군은 마침내 이날 저녁 7시 부흥리로 철수하였다.

부흥리로 물러선 북한군은 예비대를 투입해 저녁 8시경에 각종 포화를 동원하여 제13연대 정

면으로 재차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 공격으로 제3대대는 밤 9시경 사단장의 철수 명령에 따라 운암리의 517고지로 철수하였다.

7월 18일 국군 제1사단이 국사봉-517고지 선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한 후 21일까지 3일간 북한군은 정찰 활동만 강화할 뿐 공격을 가해오지는 않았다. 이때 북한군 제15사단 제50연대 대신 청주 방면의 북한군 제2사단(사단장 최현 소장)이 국군 제1사단과 수도사단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보은을 향해 동남진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다.

7월 20일 제1사단장은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의거 군단장으로부터 춘양으로의 이동을 명령 받았다. 따라서 예비부대를 보은으로 철수하고 있을 때, 다시 화령장으로 이동하라는 수정명령을 받았다. 육군본부에서는 북한군 제15사단의 화령장 전개를 국군 제2군단 서측방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으며, 나아가 이들이 국군과 미군을 분리하면서 상주-대구 방면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제1사단을 급히 화령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화령장으로의 이동 명령을 받은 제1사단은 철수 중인 제11연대를 화령장으로 직행하

계 하고 제12연대를 다음 날 아침에 이동하게 하였다. 제11연대는 행군을 계속한 끝에 22일 아침 7시경 화령장에 도착하여 오후에 화령장 동쪽 4km 지점의 상곡리 일대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제12연대는 17시경에 화령장 서쪽 5km 지점의 평온리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517고지에 있던 제13연대는 22일 아침에 공격을 감행해 온 북한군과 교전을 펼치다가 사단의 철수 명령을 받고 23일 아침 8시에 화령장 남쪽 2km 지점의 봉촌리에 집결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사단은 미원지구 전투에서 북한군 제15사단 50연대의 공격을 2차례나 방어하며 이들의 상주 진격을 3일간이나 저지하였다. 이로써 상주, 점촌 방향으로 동진하여 낙동강으로 돌파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지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화령장에 이동을 완료한 제1사단은 제12연대를 좌, 제11연대를 우, 제13연대를 예비로 하여 23일부터 화령장 일대에서 북한군 제15사단과 전투를 재개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④, 2006.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고은리 전투

[高隱里 戰鬪, 1950. 7. 16.~18.]

### 개요

국군 수도사단이 1950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고은리 부근에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저지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고은은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에 있는 작은 마을로 대부분 낮은 구릉과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남서쪽으로는 무심천이 흐른다. 지형이 굽어서 휘어 있다 하여 고은이라 칭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신탄진을 거쳐 대전으로 이어져 있고, 동쪽으로는 미원을 거쳐

문경으로 이어진다.

북한군 제2사단은 개전 이후 춘천과 이천 등지에서 상당한 인명 손실을 보았으나, 병력 보충을 시도해 총 병력이 약 1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주요 장비로는 76mm 자주포 12문, 122mm 곡사포 26문, 76mm 곡사포 13문, 45mm 대전차포 43문, 120mm 박격포 12문 등을 보유하고 전차 연대(-)가 배속되었다.

수도사단은 제8·제1·제18연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배속된 제17연대를 예비로 하였다. 수도사단 총 병력은 6,700여 명이었으며, 105mm 곡사포 4문, 81mm 박격포 16문, 60mm 박격포 27문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주 방면의 국군 수도사단(사단장 김석원 준장)은 7월 13일 새벽 4시경부터 시작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으로 청주 미호천 남안의 주저항선을 포기하고 제1군단장 김홍일 소장의 명령에 따라 미리 계획된 고은리 지역으로 물러났다.

청주에서 고은리 방면으로 남하한 북한군은 오후 2시에 선두부대가 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남일초등학교(고은리 북쪽 1.2km) 전방 1km지점까지 접근하였다. 한편, 청주에서 부강 방향으로 남진하던 북한군 제2사단 예비부대는 오후 3시에 수대리-고치리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렇듯 북한군이 14일 오후 2시부터 전차를 앞세우고 2개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하자 수도사단장은 군단에 항공지원과 병력 증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저녁 6시경 F-51 전투기 1개 편대가 작전지역 상공에 나타나 북한군 집결지와 남하하는 북한군 병력을 집중 공격하여 그들을 분산시켰다. 군단에서는 수도사단의 병력 증원 요청을 받아들여 보은에 도착해 대기 중이던 제17연대 제2대대를 사단에 배속 조치하였다.

7월 15일 오전 6시부터 북한군 제2사단은 전날에 이어 수도사단 제1연대와 제8연대 정면에 포격을 집중하면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수도사단은 시간이 갈수록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북한군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계획하여 제17연대 제2대대가 제3대대와 더불어 장암리-효촌리 방면으로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 효촌리를 목표로 한 제2대대는 오후 1시에 105mm 야포와 81mm 박격포의 지원 하에 공격을 개시하여 오후 3시경에 목표인 190고지를 점령하였다. 190고지를 점령하자 남일초등학교 일대에서 저항하던 북한군은 포위될 것을 우려해 효촌리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장암리를 공격 목표로 한 제17연대 제3대대는 국사봉 동쪽 능선에 전개한 후 오후 1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여기에 F-51 전투기 2개 편대가 작전 지역 상공에 나타나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투기들이 아군에 대해 오폭을 가해 피해가 발생하자 철수하였다.

진격속도가 늦어지자 북한군 제2사단장은 예하부대들에게 수대리, 고은리, 성무봉 등 3개 방면으로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북한군의 성무봉 공격은 국군 제18연대 제1대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지만 전차를 동반한 고은리 방면의 공격은 피아간에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수도사단에서 군단에 항공지원을 요청하자 F-51전투기 편대가 작전상공에 나타나 기관총 사격과 네이팜탄 공격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군 전차 1대가 파괴되고 나머지 5대는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날 오후 전열을 재정비한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재개하였다. 북한군은 보병부대를 정면에 투입하고 전차를 고은 삼거리 동쪽으로 우회시켜 170고지 배후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 결과 오후 5시경 170고지가 북한군에게 피탈되었다.

이 무렵 사단 좌측에 위치한 국사봉(△282)의 제8연대도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어서 사단은 새로 배속된 제17연대 제10중대를 북한군이 점령한 방어선 전방의 무명고지 점령에 투입하여 북한군을 제압하고 고지를 탈환하였다.

7월 16일 제1사단이 거리고개에서, 수도사단이 고은리에서, 제2사단이 봉무산에서 각각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지만, 군단장 김홍일 소장은 미 제24사단 제19연대가 대평리 일대에서 북한군 제3사단의 도하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유성 쪽으로 철수함에 따라 전선 재조정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에 수도사단을 보은으로 철수시켜 군단 예비로 전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수도사단은 고은리 전투에서 청주를 점령하고 고은을 거쳐 대전 공격에 참가하려는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어 이들의 진출을 저지시켰고, 적절한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북한군 전차대를 격퇴하였다.

수도사단은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의 고은리 부근 전투를 끝내고 17일 제8연대가 최종적으로 보은에 집결하였다. 보은에서 이틀간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제1연대가 함창으로, 제18연대가 예천으로, 그리고 제8연대와 사단 사령부가 안동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④, 2006.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화령장 전투

[化寧場 戰鬥, 1950. 7. 17.~24.]

### 개요

국군 1사단과 제17연대가 1950년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상주군 화서면의 화령장 지역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의 제45연대 및 제48연대에 괴멸적인 타격을 준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상주군 화서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보은과 괴산에서 상주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인 화령장은 속리산과 주흥산으로 연결되는 소백산맥 지대를 말하는데, 800m 고지와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보은-상주간의 25번 도로와 괴산-상주 간의 977번 도로가 교차하는 소백산맥 방어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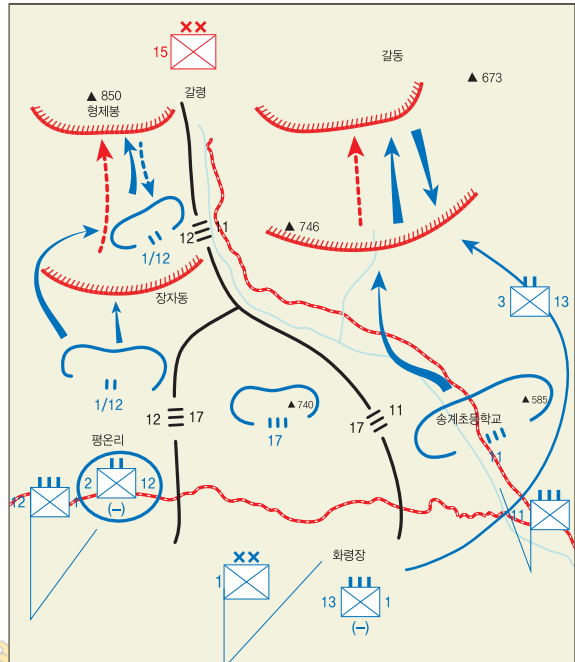
북한군 제15사단은 제45·제48·제50연대로 편성되어 7월 10일 음성을 점령한 후 제50연대를 청안-미원을 경유해 보은으로 진출시키고, 그 주력(제45·제48연대)을 괴산-상주 방향으로 남하시켰다. 북한군 제50연대는 미원에서 국군 제1사단과의 접촉을 피한 채 16일 20시부터 상주 방향으로 우회 진출을 기도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국군 제6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문경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제17연대를 이곳에 투입하였다. 명령에 따라 국군 제17연대는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됨과 아울러 17일 오전 6시까지 함창에 도착해야만 했다. 그러나 16일 현재, 보은에 집결한 제17연대의 병력은 1개 대대 뿐이었으며, 고은리 부근 전투에 참가한 2개 대대는 아직 보은으로 철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제17연대 제1대대는 17일 새벽 4시에 병력을 차량화하여 함창으로 출발하였다. 오전 7시경 차량행렬이 화령장을 지날 무렵, 주민 한 명이 행군 대열을 제지하면서 북한군의 상주 이동을 알려왔다. 정황상 북한군의 출현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국군 제17연대 제1대대장(이관수 소령)은 부대를 화령초등학교에 집결시키고, 지역 상황을 연대장(김희준 중령)에게 보고하였다.

대대장 일행이 상곡리 일대를 정찰할 무렵, 상주 방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북한군 병사 1명을 상곡교에서 생포하였다. 이를 심문한 결과, 상주 점령을 임무로 하는 북한군 제15사단 제48연대 소속 전령으로 연대 주력이 이날 오후에 후속하여 금곡리에서 휴식할 예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제17연대 제1대대장인 이관수 소령은 금곡리에 매복하여 적 주력을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김희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각 중대는 오후 2시경 진지 편성을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예상한 대로 갈령 계곡으로부터 북한군 제48연대의 행군 대열이 나타났다. 이들은 16일 삼송리에 도달해 17일 오후 전투 행동을 개시한 북한군 제15사단 주력의 선두 부대였다. 도보부대와 더불어 40여 대의 우마차에 각종 포와 탄약을 싣고 남하한 북한군 제48연대는 국군의 매복 지역 정면인 하송리의 송계초등학교와 상곡리 일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저녁 7시 30분경 제1대대장은 북한군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저녁 식사를 위해 집결지에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격명령을 하달하였다. 대대장의 사격 명령에 따라 400여 정의 소총 사격과 함께 박격포와 기관총 등 공용화기의 사격이 이어졌다. 국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은 북한군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피해만 양산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퇴각을 견제하기 위해 제1대대장은 예비인 제2중대를 제3중대 북쪽으로 우회시켜 977번 도로를 차단, 북한군의 북상을 막게 하고 제1중대와 제3중대를 저지대로 이동시켰다.

매복해 있던 제1대대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의 공격으로 북한군 250여 명을 사살하고 30여 명을 생포하였으며, 박격포 20문, 45mm 대전차포 7문, 소총 1,200여 정 등을 노획하였다. 그후 제1대대는 제3대대가 585고지를 점령하자 연대예비가 되어 화령초등학교에 집결하였다.

7월 18일 오전 10시경 제17연대장은 상곡리의 격전지를 돌아본 후, 북한군의 후속부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연대 정보주임에게 갈령 부근의 적정을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 연대수색대는 12시 30분경 또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갈령을 넘어오는 북한군 병사 2명을 생포하였다. 이들은 북한군 제15사단장이 제48연대장에게 보내는 전령이었다.

이 노획 문서를 통하여 제17연대장은 조만간 북한군의 후속 부대가 이곳을 통과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제17연대장은 화령초등학교에 대기 중이던 제2대대(송호림 소령)를 봉황산 북쪽 기슭으로 진출시켜 매복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송호림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2대대 병력은 화령장에서 봉황산 동측 능선을 넘어 동관리로 진출하여 주요 지점에 배치되었다. 여기에 예비인 제3대대를 제2대대 좌측인 장자동으로 이동시켜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7월 21일 새벽 5시 30분 경 제2대대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대대장의 사격명령에 따라 적색 신호탄 3발이 발사되면서 대대의 모든 화기가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아침 8시경 안개가 걷히어 시야가 확보되자 적이 패배하여 도주하였다.

제2대대는 14시경에 소탕작전을 종결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2대대는 북한군 356명을 사살하고 26명을 생포하였으며, 박격포 16문, 대전차포 2문, 기관총 53정, 소총 186정, 무전기 1대, 전화기 1대 등을 노획하였다. 반면에 제2대대는 전사 4명, 부상 30명의 피해를 입었다.

북한군 제15사단은 예하인 제45연대가 동관리 일대에서 기습을 받고 큰 타격을 입자 오후 3시부터 동관리의 제17연대 제2대대 지역에 포격을 가하였고, 제3대대 지역에도 무차별 포격을 가하였다. 제17연대장은 북한군이 전면공세를 취할 경우 이를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군단사령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군단에서는 제1사단이 화령장에 투입될 것임을 알려왔다. 이와 더불어 미 제25사단 제24연대 제2대대가 상주에서 화령장으로 북상하였다.

국군 제1사단과 제17연대가 화령장 부근에서 북한군 제15사단과 교전을 벌이고 있던 7월 24일 제1군단에서는 작전 지역을 미 제25사단에 인계하고 제1사단은 안동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미 제24연대와 진지교대 명령을 받은 제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25일 05시로 함창으로 이동하여 제2군단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함창으로의 이동 명령을 받은 제1사단은 미 제24연대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일단 상주로 이동하여 제2사단의 제5연대와 제20연대를 흡수 통합하여 부대재편을 단행하였다.

## 결과 및 영향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개된 화령장 전투는 국군의 대승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은 2개 연대가 괴멸되는 참패를 당하였으며, 병력과 장비의 대부분을 상실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뚫고 상주를 점령한 후 일거에 대구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전선사령부의 야심찬 계획도 좌절되었다. 제17연대는 연대장 김희준 중령 이하 연대 전 장병이 1계급씩 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후 제17연대

는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편제되어 중동부 지역 작전에 투입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④, 2006.

Ra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대전 전투

[大田 戰鬪, 1950. 7. 19. ~20.]

### 개요

미 제24사단이 1950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대전에서 북한군 제3·4사단과 제105전차사단의 공격에 맞서 지연전을 전개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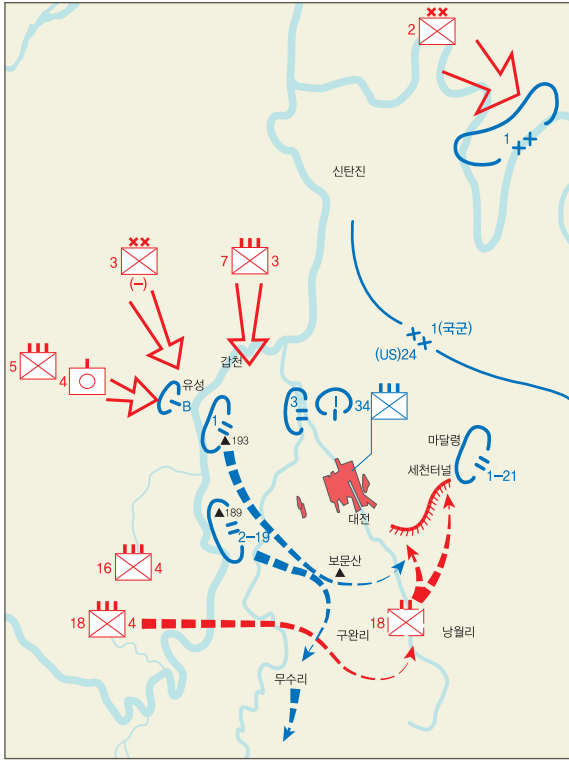
대전 지역은 서울에서 160km, 부산에서 200km 거리에 위치해 남한의 중부와 남부, 영남과 호남을 잇는 도로와 철로의 연결지점으로 한반도 남부의 허리에 해당하는 정치적,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곳이다. 대전은 전쟁 당시 인구 13만여 명으로 남한에서 네 번째 큰 도시였다.

북한군은 제105전차사단의 전차로 증강된 제3, 제4사단과 제2사단을 동시에 투입해 대전을 삼면에서 공격하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2사단이 진천-청주지역에서 저지되자, 제203전차연대가 지원하는 제3사단을 유성에서 대전을 공격하면서 일부 병력을 대전 서북방으로 우회시켜 대전에서 옥천에 이르는 경부국도를 북쪽에서 차단하도록 하였다. 제107전차연대가 지원하는 제4사단은 유성에서 논산 방향으로 공격해 서남쪽에서 대전을 우회하여 경부국도 남쪽에서 옥천에 이르는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금강방어선이 공주와 대평지구에서 무너지자, 단(William F. Dean) 미 제24사단장은 대전 방어를 위해 제34연대를 대전에, 제19연대는 영동에, 제21연대를 마달령에 배치했고, 사단 수색 중대는 대전 남쪽 금산에서 적정을 수집하도록 배치했다.

대전에 있는 사단 병력은 실제 전투력은 1개 연대 병력 규모에 불과하였다. 제34연대





는 천안전투에서, 제21연대는 전의전투에서 손실을 많이 입어 새로 보충된 제19연대 등을 포함해도 병력 규모는 4,000명 수준이었다. 제34연대는 가용한 병력을 전부 동원해 북한군의 주접근로로 예상되는 유성가도에 제1대대를 배치하고 제3대대를 비행장에 예비로 배치했으나 논산가도와 청주도로, 금산도로에는 경계 수준의 병력밖에 배치할 수 없었다. 4개 포대는 혼성대대로 편성해 비행장에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딘 사단장은 사단의 전투능력을 고려하여 1950년 7월 19일 오후에는 대전에서 철수할 복안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워커(Walton H. Walker) 미 제8군

사령관이 18일 대전비행장에 도착하여 제1기병사단이 대전 남쪽에 방어 진지를 편성할 때까지 대전을 방어하도록 요구해, 딘 사단장은 대전 철수 시기를 20일로 24시간 연장시켰다.

북한군은 금강교두보를 확보한 후에 이틀 간의 공격 준비를 실시하고, 7월 19일 오전 선봉 부대가 대전 근교까지 진출해 야크기로 미군 보급로를 차단했다. 북한군 제4사단 제5연대는 19일 오전에 유성 방향에서 미 제34연대 제1대대 주진지와 대전비행장에 위치한 연대지휘소 부근에 포병 화력을 집중하는 한편,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유성에 추진 배치되었던 B중대(-)를 공격하였다. 대대관측소(△138 부근)에서 이를 보고 있던 대대장은 즉각 포병과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그들을 제압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B중대(-)에서는 소대장 2명이 모두 부상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자, 대대장은 B중대를 유성에서 철수시켰다. 대대장은 밤에 침투할 것을 우려해 철수를 요청했으나, 연대장은 20일까지 진지를 고수하도록 했다.

이튿날인 20일 새벽 3시경 북한군이 유성 방면에서 공격 준비 사격에 이어 전차와 함께

공격을 개시하였다. 갑천을 건넌 북한군 보병은 포병 지원을 받아 전방에 배치된 A중대와 대대 지휘소 주변 진지를 집중적으로 타격했다. 또한 전차들이 단독으로 미 제34연대 제1대대 방어진지를 통과하여 후방으로 돌진하자 3.5" 로켓포로 일부 전차를 파괴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제1대대장은 연대와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후방이 차단된 것으로 오인하여 연대에 보고도 없이 철수하였다. 이때 증원을 나갔던 제3대대는 이동 중 전차 6대를 앞세운 북한군 1개 대대 규모와 접촉하여 원래 고지인 비행장 동쪽으로 철수하였다.

미 제34연대 2개 대대가 20일 오전 중에 방어진지에서 모두 이탈해, 북한군 전차들은 보병들과 함께 유성가도를 따라 대전 시내로 진입하였다. 논산가도에서도 오후 1시 제19연대 2대대 병력이 모두 철수함에 따라 북한군에 완전 개방되어 대전방어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북한군은 오전 6시 30분경 전차 3대와 함께 유성가도를 따라 시내로 진입해 대전비행장을 점령한 후, 후방 차단을 기만하기 위해 전면적인 대전 시가지 공격을 실시하지 않고 포병사격과 전차 단독 공격으로 종일 시내를 교란했다. 그런데 미 제34연대장과 제24사단장은 오후 2시까지도 갑천방어선이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채, 북한군의 후방 차단 기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전방대대와는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시내로 진입한 북한군 전차를 저지하도록 했다. 사단장은 직접 3.5" 로켓포를 들고 적 전차에 사격을 가해 파괴시켰다. 미 제5공군 항공기들도 대전에서 전차 15대 이상을 격파했다.

북한군 침투부대들이 후방 도로를 모두 차단할 때까지, 미 제34연대 주력 주대들은 시내에 남아 대전에서 철수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사단장이 제34연대에 철수명령을 내린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었고, 행군 본대가 출발한 시간은 6시였다. 이때 북한군 침투부대들은 이미 금산 및 옥천 방향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다. 당시 제34연대 철수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달령에 배치되었던 제21연대는 북한군이 차단한 세천터널과 떨어져 있어서 철수로 개방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철수병력들은 도로차단선을 끝내 돌파하지 못하고 소부대와 개인별로 산길로 영동으로 철수했다.

### 결과 및 영향

미 제24사단은 워커 제8군사령관이 요구한 7월 20일까지 대전에서 지탱하였으나, 1,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을 뿐 아니라 딘 사단장이 실종되었다가 완주에서 포로가 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영동으로 집결한 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에 작전책임 지역을 인계하고 왜관 일대로 철수하여 부대 정비에 들어갔다.

대전을 점령한 북한군은 하루 동안 대전에서 부대정비를 한 후 7월 22일부터 제3사단

과 제105전차사단이 경부국도를 따라 남진하고, 제4사단이 금산·안의·거창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제3사단은 제8연대를 옥천·영동 도로 방향에, 제7연대와 제9연대를 금산·무주·영동 도로 방향으로 우회시켜 영동을 점령하려 했다.

#### 참고문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19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2007).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조성훈 집필]

## 함양-거창 전투

[咸陽-居昌 戰鬪, 1950. 7. 25.~29.]

### 개요

국군 민부대(민기식 부대)와 미 제24사단이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북한군 제4사단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운봉으로 이동하여 지연작전을 수행하며 치른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남도 북서부의 내륙산간지방에 위치한 함양과 거창은 전형적인 산간분지지역으로 소백산맥과 그 지맥인 가야산맥을 경계로 경상북도·전라북도와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1950년 7월 19일과 20일에 북한군 제4사단은 대전에서 미 제24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는 소백산맥의 서측인 금산, 무주 방면으로 진출하였으며 제1군단 제17포병연대 예하 1개 대대와 함께 안의, 거창 방면을 지향하고 있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에 불과 11일(7. 16.~26.)만에 호남지역 전체를 상실하고, 또다시 영남 지역 서남부마저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7월 24일, 남원에서 철수한 민부대(민기식 부대)는 김부대(김병화 부대), 오부대(오덕준 부대), 그리고 해병대(김성은 부대)와 함께 운봉으로 이동하여 지연전을 계속하려 하였다. 그러나 7월26일에 장계-안의로 공격해 온 북한군 제4사단의 주력이 안의를 거쳐 거창과 함양으로 접근하자 함양으로 철수하였다. 함양으로 이동한 민부대는 함양에 있던

경찰과 청년방위대를 흡수하여 방어병력을 재편성하였다. 이때 육군본부는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를 해체하고, 채병덕 소장을 영남서부지구 사령관에 임명하여 민기식 부대와 전남지구편성관구 산하 통합병력인 이응준 부대를 지휘하도록 조치하였다. 서남부 전선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예비로 배치 중인 미 제24사단을 급파하였다. 미 제24사단은 제34연대를 거창에 배치하고 제19연대를 안의-진주에 배치하였다.

7월 27일에 북한군 제4사단이 장계-안의 도로에 주력을 투입하여 전진해 왔을 때 이 접근근로에 배치되어 있던 아군은 안의 서쪽 15km 지점인 육십령 고개에 있던 대대 규모의 경찰 혼성부대가 전부였다. 경찰병력은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사격을 집중하여 상당한 전과를 올렸으나, 병력과 화력이 우세한 북한군에 의해 밀려 안의로 분산 철수하였다. 함양초등학교에 지휘소를 설치한 민부대는 즉시 오부대와 김부대를 추진시키고 안의에 배치되어 있는 미 제19연대 제1대대의 A중대와 안의 서쪽에서 남북으로 진지를 점령시켰다. 미 제19연대는 당시 진주에 집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9연대 A중대는 제29연대 제1대대에게 진지를 인계하였다.

오전 5시 경 북한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오부대, 김부대는 사력을 다하여 적을 저지하였으나 오후 8시 위기에 처하여 함양으로 철수하였다. 인접한 미 제19연대 A중대의 진지를 인수한 미 제29연대 제1대대 B중대는 18명(장교 2, 부사관 및 병 16명)만이 거창으로 철수하였고 나머지 215명은 전사하였다. 안의에서의 저지선이 무너지고 북한군이 북으로 거창, 남으로 함양 지역까지 진출하자 민 부대장(민기식 대령)은 민부대의 함양 이동 후 운봉고개 일대에서 오부대와 연결하고 있었던 해병대를 수습하여 함양 동쪽 6km 지점인 화산리로 병력을 철수시켰다. 당시 국군 해병대 김부대는 4개 중대 가운데 제1·제3·제7중대를 전개하고, 제2중대로 하여금 민 부대 본부를 경계하고 있었다. 민 부대장은 미 제29연대 제1대대장과 협의한 끝에 당시 상황은 병력 손실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후 8시 40분 경 병력을 산청으로 철수시키고, 이 중 오부대 200명은 진주까지 철수시켰다. 안의에서 거창 방향으로 진출하는 북한군에 의해 미 제34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를 거창 동쪽으로 철수시켰다. 미 제34연대는 거창에서 함천으로 철수하면서 공병으로 하여금 철저히 도로를 파괴하도록 하였다. 이 지역에 있던 경찰 및 기타 부대 등도 분산되어 함천 등지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함양, 거창에서 벌인 국군의 지연전은 성과없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민부대는 미군을 지원하여 7월 26일부터 3일간 북한군 제4사단의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산청으로 철수한 이후 민부대는 진주 북방 산청 가도를 점령하여 방어임무에 들어갔고,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미군에 배속되어 남강 남쪽 방어선을 맡았으며, 미 제29연대 제1대대는 진주 동쪽 28km 지점인 함안으로 이동하였다. 미 제34연대는 합천에서 방어에 임하게 되었다.

미 제8군은 거창전투가 종료된 직후인 7월 31일에서야 비로소 정면의 적이 북한군 제4사단이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진주 정면의 북한군 제6사단과 함께 2개 사단이 유엔군 좌측 넓은 정면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북한군 제4사단이 대구 서측을, 북한군 제6사단이 진주, 마산을 각각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을 판단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2008.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1, 2001.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하동 전투

[河東 戰鬪, 1950. 7. 25.~27.]

### 개요

미 제24사단 제29연대 제3대대가 1950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호남지역을 거쳐 하동으로 우회침공하는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남도 서남단에 위치한 하동은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경계에 있으며, 소백산맥의 영향으로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으로는 지리산의 연봉을 비롯한 높은 산이 험준한 산지를 이루며, 남쪽해안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져 북고남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섬진강이 서쪽 전라남도와의 경계를 남동류하여 남강의 진양호로 흘러든다. 즉, 하동은 영호남의 관문인 동시에 사천과 진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나,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북한군 제6사단은 1950년 7월 23일에 광주를 점령한 뒤 순천, 진주를 거쳐 낙동강선 서측 마산으로의 진출을 기도하고 있었다. 7월 25일 주력으로 순천과 광양을 장악한 후 하동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었고, 일부 부대는 선발대로 지리산 서쪽의 종격실 능선을

따라 화개장을 거치면서 신원리(하동의 대안)에 이르러 하동을 협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하동으로 진출한 북한군은 하동으로 우회한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로 제13연대와 제15연대는 목포와 나주를 각각 점령한 후 하동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7월 26일 야간, 와해된 국군 혼성부대가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을 받아 진주로 철수하면서 하동이 북한군에게 함락되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육군총참모장이었던 채병덕 소장은 패전 책임을 지고 물러나 육군본부에 의해 7월 24일에 경남지구편성관구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남원-하동에서 이응준 부대와 민기식 부대를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이응준 부대는 순천에서 여수로 철수 중이었으며, 민기식 부대는 운봉으로부터 함양 부근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동 지역에는 신원된 제5사단 제15연대의 일부병력 100여 명만이 집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채병덕 소장은 진주에 위치한 미 제19연대장에게 하동방어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 제19연대장(Need D. Moore 대령)은 배속부대인 미 제29연대 제3대대로 하여금 하동을 탈환하도록 하였으며, 채병덕 소장이 동행하여 안내하였다.

7월 27일 아침, 미 제29연대 제3대대는 하동으로 이동(L중대-대대본부-K중대-M중대-I중대 순으로 행군)하던 중 쇠고개에 이르렀을 때 하동으로 진출하는 대대규모의 북한군을 발견하고 L중대는 고갯마루로 돌격하여 통로 남쪽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30연대장이 지휘하는 1개 중대가 151고지(쇠고개 마루 남쪽 400m)로 진출하여 L중대와 연결하였다. 미 제29연대 제3대대장은 북쪽 181고지의 북한군을 목격한 L중대장의 보고에 따라 K중대를 계동(쇠고개 동쪽 1km)에서 산개하여 약진토록 하였다. 이때 채병덕 소장이 피아를 확인하려던 순간 북한군의 기습적인 사격을 받아 전사하게 되었다. 곧이어 2개 편대의 아군 항공기가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공에 출현하였으나 지상의 무전기가 파괴되어 연락도 못한 채 돌아가 버렸다. L중대와 K중대가 쇠고개 일대에서 북한군을 수차례 격퇴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군의 병력과 화력이 점차 증강되어 미 제29연대 제3대대의 각 중대는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계동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한편 쇠고개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격으로 K·I중대장이 실종되었다. 이후 북한군의 추격전으로 각 중대는 분산되어 진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단 하루(7월 27일)의 하동 전투에서 국군은 전 육군총참모장이며 경남지구편성관구사령관 채병덕 소장이 전사하고, 김용주 중령이 지휘하는 제30연대 50여 명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었다. 미군은 K·M중대장이 전사하고, 대대장과 부대대장 등 50여 명이 부상

을 당했으며, 300여 명이상이 행방불명 되었다. 9월 말에 미 제25사단이 반격작전시 하동을 재탈환하면서 행방불명되었던 미군이 계동과 두전동 사이에서 대부분 전사(313구의 시체 발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북한군 포로진술에 따르면 미군포로도 100여 명에 이르렀다. 미 제29연대 제3대대의 희생으로 미 제19연대는 열세한 병력으로 진주를 방어해야 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20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1, 2001.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함창 전투

[咸昌 戰鬪, 1950. 7. 28. ~29.]

### 개요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함창의 경들저수지 및 국사봉 일대에서 북한군 제1사단 및 제13사단의 병력의 공격을 저지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함창은 경상북도 상주에 속한 면으로 소백산맥 남쪽사면의 낙동강 상류를 차지하는 분지의 지형에 위치해 있다. 경상도 북부의 교통 요지로 문경과 상주를 잇는 3번 도로와 보은과 용궁을 잇는 동서의 도로가 있다.

함창 지역을 공격하는 북한군은 제13사단으로 예하에 제19연대, 제21연대, 제23연대와 포병연대를 두고 11,000명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전선에 투입되었다.

상주에서 재편성을 마친 국군 제1사단은 1950년 7월 26일 12시경 함창에 도착하여 국군 제6사단의 전면을 위협하는 북한군의 후방 차단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7월 27일 오전 6시에 국군 제1사단은 제11연대를 우일선, 제12연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영강 동쪽에서 문경 탈환을 목표로 공격하였으나 북한군 제13사단 제21연대로부터 집중 포격을 받아 진출이 지연되었다.

이 무렵 국군 제6사단은 제1연대를 증원 받아 북한군을 조봉-작약산 선에서 저지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제13사단 병력을 함창 서북쪽의 농암리 방면으로 우회시켜 아군의 후

방을 교란하고자 하였다. 유재홍 제2군단장은 군단 우익의 제1사단을 좌익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하여 제1사단장에 문경 공격을 중단하고 함창으로 철수하여 군단의 서측방을 방어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28일 오전 6시부터 제2군단 서측방의 동막리-366고지 간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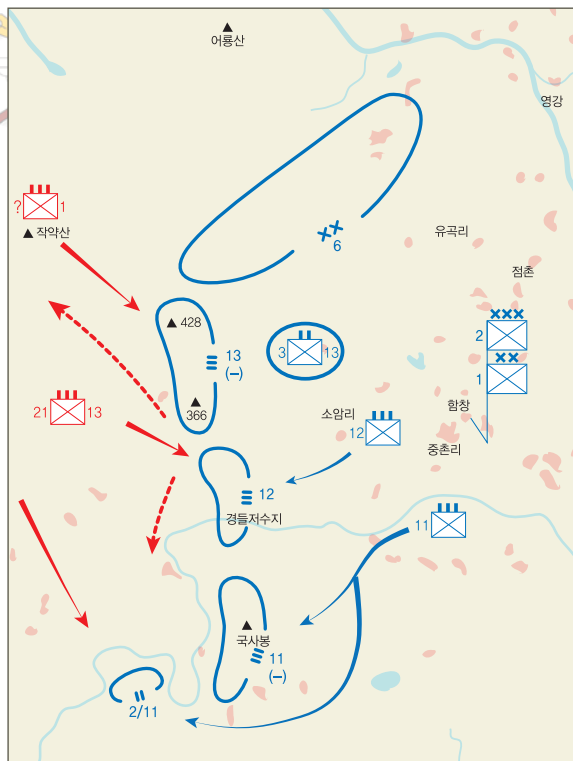
7월 26일 오후 3시 함창에 도착한 제13연대(연대장 최영희 대령)는 제5연대로부터 진지를 인수하여 992번 도로를 중심으로 제1대대를 366고지에, 제2대대를 212고지에 각각 전개시켰다.

연대 정찰대는 “밤 10시에 장갑차를 동반한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주막동(함창 서쪽 12km)에서 2개 제대로 나뉘어 1개 제대는 992번 도로를 따라 아천리 방면으로, 다른 1개 제대는 주막동에서 무명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992번 도로를 따라 동진한 북한군 제1사단의 예하 연대가 28일 새벽 4시경에 아천리의 감바우에 도달하였다. 이에 제1대대는 57mm 대전차포 2문을 비롯한 각종 화기를 동원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이 저항하였으나 곧 분산되었고, 이들 분산된 북한군 병력 중 170여 명이 도로 남

쪽 산으로 피신하여 경들마을로 숨어들었다. 제2대대는 마을로 숨어 든 북한군에 대해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7월 29일 여명에 760고지 방면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은 일부 병력을 760고지와 장암리 쪽으로 우회시켜 제13사단 제21연대 병력과 더불어 428고지 서북쪽으로 공격하였다. 428고지의 제13연대 제1대대(대대장 김진위 소령)는 즉각 사격을 가하는 한편, 연대를 통하여 제6사단 포병대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제1대대의 끈질긴 저항으로 인해 북한군은 100여 구의 시체를 유기





한 채 구미리 북쪽으로 퇴각하였다. 제1대대가 428고지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 366고지의 제2대대도 4대의 장갑차를 앞세운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사단의 좌일선으로 지평리-동막리 간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된 제11연대가 28일 06 시경에 국사봉을 점령하였을 때, 안개로 가득한 이안천변에서 총성이 요란하였다. 이는 06시부로 작전을 통제하게 된 제13연대 제3대대(대대장 최병순 소령)가 이안천을 도하여 예주리(국사봉 북쪽 1km)로 침입하려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교전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제11연대장 김동빈 중령은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우선 제19연대 제2대대에게 제13연대 제3대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결국 예주리로 향하던 북한군은 제대로 대응한 번 못하고서 분산 도주하였다. 제13연대 제3대대와 제19연대 제2대대가 이안천을 도하려는 북한군을 격퇴시키자 제11연대장은 도주하는 북한군을 추격 격멸하기로 결심하고 제1대대와 제3대대를 투입하였다.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끊임없는 항공폭격과 포격 등으로 인해 병력 손실이 커지고 국군 후방 지역으로의 침투도 용이하지 않게 되자 은척산에 잠입해 병력 수습과 재편성을 서둘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사단이 함창지역에서 북한군 제1사단의 예하연대와 제13사단 21연대의 공격을 저지함으로써 제1군단의 서측방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였고, 미군의 증원 병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8월 1일을 기하여 자신의 작전통제하에 있는 한미 양군을 현 전선에서 철수시켜 낙동강선에 방어진지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7월 31일 우인접한 제6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는 한편, 8월 1일 야음을 이용하여 함창 지구를 철수해 8월 3일 낙동강을 도하 완료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2], 197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제1권, 20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2006.
- Roy E. Appel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이상호 집필]



## 강경 전투

[江景 戰鬪, 1950. 7. 28.~ 31.]

### 개요

충청남도 강경경찰서의 병력이 북한군 남진을 저지하고자 1950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강경 지역에서 북한군 제6사단 예하 대대규모 부대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강경은 논산천, 강경천이 논산평야를 가로질러 금강으로 유입되는 곳으로 수로와 육로를 잇는 큰 포구로 번성하였다. 금강은 강폭 300~500m에 유수폭 70~100m로 평균 수심은 2~5m로 대전을 가로막는 천연의 장애물이었다. 이는 영남과 호남 분기점인 대전의 관문으로서 지리적 가치를 지닌 것 외에, 지연전을 벌이고 있던 국군에 있어서 절호의 방어선이 되고 있었다.

1950년 7월 12일에 미 제24사단은 영동-옥천-신탄진-대평-공주-강경-장항 등의 도시가 연하여 있는 금강 남안에 경찰병력과 함께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강경에서는 7월 15일 전주 부근으로 철수하였던 강경경찰서(現 논산경찰서, 서장 정성봉 경감) 병력 67명이 다시 강경을 탈환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16일 오전 8시부터 7시간에 걸쳐 전투훈련을 실시한 다음, 오후 5시에 정 서장의 진두지휘 하에 강경으로 진격하고 시가의 중요 지형지물을 점령하면서 북한군을 색출하였다. 이들은 시내에 도착하여 공비 5명을 포획하여 적정을 파악하고 17일 새벽 3시에는 무장괴한 10명을 포획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들은 아군을 가장한 북한군 제6사단 예하부대 편의대의 유인전술에 말려 대대규모 이상의 북한군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정 서장 이하 전 경찰은 북한군에 의해 포위된 사실을 알고 경찰서 구내에서 항전을 계속하였으나 열전 18시간 만에 탄약이 바닥나고 말았다. 이들은 몇 차례 퇴로를 타개하고자 육박전까지 감행하면서 돌파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67명 모두 전사하였다. 그리하여 강경은 18일 아침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 결과 및 영향

강경을 점령한 북한군은 계속하여 남진한 후 전북경찰 제1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충남경찰 혼성병력과 접전 후 강경으로 일시 후퇴하였다. 그러나 19일 아침에 다시 공격하

여 경찰 혼성부대는 지휘체계가 무너진 채 여산과 익산을 거쳐 남쪽으로 철수하여 완주 경찰서 병력과 합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2008.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II), 1973.

【박종상 집필】

## 진주 전투

[晉州 戰鬪, 1950. 7. 28. ~ 31.]

### 개요

미 제24사단 제19연대가 1950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상남도 하동을 점령하고 진주를 거쳐 낙동강선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북한군 제6사단의 공격을 방어하여 지연시킨 전투이다.

경상남도 남서부에 위치한 진주는 험준한 산지는 없고 대부분 5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다.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이 진주 중앙을 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곡류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며, 덕천강이 하동군과의 경계를 따라 남동류하여 진양호로 유입된다. 그밖에 대소 하천들이 남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23일 이후 광주, 순천, 하동을 점령하였고, 26일 진주를 거쳐 마산으로의 진출을 기도하고 있었다. 미 제24사단 제19연대는 진주를 방어하기 위하여 제2대대를 하동-진주 도로간 유수리 부근 고지에 배치하고, 제1대대(-)를 사천비행장 서측 구호리에, 제29연대 제3대대 잔여병력과 민부대를 진주 주변에서 수습하며, 29일 새벽 전쟁발발 후 최초로 지원된 M26 퍼싱 중형전차 3대를 시내에 배치하였다.

29일 북한군 제6사단은 선두 공격부대를 하동-진주 도로를 따라 투입하여 정면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하동에는 북한군 2개 연대와 전차가 집결해 있었다. 북한군은 제19연대 제2대대의 매복작전과 유엔 공군편대의 공습으로 진출이 저지되자, 30일에는 제2대대 정면을 공격하면서 일부 부대를 우회시켜 좌일선 제1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미 제19연대 제2대대는 남강 북안으로 철수하면서 전투를 수행하였으며, 제1대대도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였으나 점차 피해가 속출하여 진주 남쪽 외곽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연대는 마침 도착한 해병대 김성은 부대를 투입하여 전력을 보강하였다.

31일에 북한군이 3개 방면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미 제19연대 제2대대는 사격을 집중하여 적을 저지하였으나 연대규모의 압도적인 북한군 공격으로 주저항선이 무너지자 결국 진주로 철수하였다. 곧이어 북한군이 장갑차를 앞세워 미 제19연대 제2대대를 추격하여 진주를 공격하자 미 제19연대는 다시 무촌리(진주 동남쪽)로 철수하였다. 진주가 함락되자 미 제24사단장은 즉각 마산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철수하는 제19연대, 제29연대 및 민부대 병력은 충암리 일대에서 부대를 수습하여 북쪽 접근로를 차단하였고, 이날 새로 배속된 미 제25사단 제27연대,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진동리로 진출하여 개방된 남쪽도로를 차단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진주전투를 마치고 삼삼오오 군복에 집결한 국군 각 부대는 매우 처참한 상황이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동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북한군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분산된 각 부대를 재편성하여 이응준 소장이 지휘하도록 하였다. 미 제24사단장은 7월 31일 진주가 북한군에게 함락되자 새로 배속받은 미 제25사단 제27연대를 진동리에 배치하고, 진주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군복에서 수습하여 급편진지를 편성하였다. 이후 사단은 8월 1일 미 제8군사령관의 낙동강 철수 명령에 따라 마산 서측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갖추게 되었다. 민 부대는 미 제24사단 제19연대와 군복선에, 그리고 해병대는 미 제25사단 제27연대와 진동리선에서 각각 진지를 점령하였고 오 부대, 이 부대, 김 부대는 후방 지역 경계임무로 전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④,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②, 19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권빈리 전투

【勸賓里 戰鬪, 1950. 7. 30. ~ 8. 1.】

### 개요

국군 제17연대가 1950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경남 거창을 거쳐 합천에서 대구로 동진하려는 북한군 제4사단 제5연대를 권빈리 일대에서 격퇴하여 낙동강방어선으로

의 진출을 지연시킨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남도 북서부에 위치한 합천은 소백산맥의 영향으로 북쪽과 서쪽이 높고 험준한 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과 동쪽은 비교적 완만하다. 합천 서북부에 위치한 권빈리 지역은 거창-고령-합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서 동으로는 현풍(창녕 북쪽 18km)을 경유하여 대구에 이르고, 서로는 거창을 지나 호남지방과 대전으로 연결되며 남으로는 합천에 닿고 있다. 또한 거창으로부터 합천에 이르는 황강이 주류를 이루며 북쪽에서 흐르는 가천이 가천리(권빈리 서쪽 6km)에서 합류하고 있다.

1950년 7월 23일 금산을 출발한 북한군 제4사단은 26일에 안의, 29일에 거창을 거쳐 계속 동진하여 낙동강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였다. 북한군 제18연대를 합천 쪽으로 진출시켜 미 제21연대 제1대대를 공격하고, 제5연대를 거창에서 황강(낙동강 지류)을 따라 남진시켜 거창 동남쪽 6km 지점인 감토봉을 장악한 다음 317고지와 명당산(감토봉 남쪽 3km 383고지)의 미 제34연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미 제24사단은 북한군 제4사단의 동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19·제21연대를 진주에 배치하고, 제34연대를 거창으로 전진시켰으며 사단사령부도 대구에서 합천으로 이동하였으나 거창-함양-하동을 잇는 방어선이 3일도 버티지 못하고 돌파된 것이다.

미 제8군사령관은 7월 29일 국군 제17연대를 덕암리(고령 서쪽 12km)로 전진시켜 미 제2사단 제34연대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국군 제17연대는 미 제24사단의 작전계획에 따라 권빈리로 이동하여 미 제34연대의 전방인 551고지(권빈리 서쪽 3km) 서측 능선에 배치하였다. 거창에서 철수한 미 제34연대는 명당산(△383, 거창 동남쪽 8km) 서북능선에 주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1개 대대를 317고지(가천리 서쪽 1km)에 투입시켜 국군 제17연대의 전방에서 가천~명당산선을 방어하고자 계획하였다. 미 제34연대는 국군 제17연대 제2대대가 망일산 서측 능선에 투입되자 30일에는 월현산 서측 능선에 있던 1개 대대를 정상으로 옮기고 317고지의 1개 대대와 연대지휘소는 합천으로 철수하였다.

감토봉(거창 동남쪽 6km)을 점령한 북한군 제4사단 제5연대는 31일에 명당산-317고지를 각각 1개 대대규모로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국군 제17연대 제1대대가 551고지 동쪽 사면에서 미 제34연대를 지원하였으나 저지하지 못하였다. 명당산과 317고지를 탈취한 북한군 제5연대는 8월 1일 국군 제17연대의 주저항선인 551고지-망일산을 향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17연대는 방어선으로 접근하는 북한군에게 사격을 집중

하며 저지하였다. 북한군은 아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모두 격퇴되어 명당산 쪽으로 분산 도주하였다. 북한군 제5연대는 가천리와 망일산 서쪽으로부터 317고지와 명당산 쪽으로 패주한 후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하였다.

국군 제17연대장(김희준 대령)은 연대의 후방지역이 위협을 받아, 권빈리에 예비대로 두었던 제3대대를 망일산으로 전진시켜 북한군을 제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제3대대의 공격축선을 피하여 계속 연대 주저항선인 망일산과 551고지에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에 전력의 열세로 점차 위기에 처하게 되어 주저항선이 돌파되었고 결국 국군 제17연대는 숙성산~상현리선으로 철수하였다. 연대는 부대를 정비한 뒤 북한군을 역습하여 551고지와 망일산을 탈환하였다. 결국 북한군 제5연대는 명당산과 대야리 일대로 퇴각하였다. 이후 국군 제17연대는 8월 2일에 미 제24사단의 낙동강방어선으로의 철수 명령에 따라 덕암리 일대로 철수하여 현풍으로 이동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북한군 제4사단은 7월 29일에 거창을 장악한 후 대구를 목표로 동진을 기도하였으나 권빈리 일대에서 국군 제17연대에 의해 8월 1일까지 공격이 둔화되었다. 그 후 국군 제17연대가 낙동강방어선으로 철수하자 이들은 고령-합천을 점령하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이동하였다. 국군 제17연대는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 제4사단 선발대의 도하를 1차 저지하고 8월 2일 현풍 서쪽 낙동강 돌출부를 거쳐 8월 7일 청송 남방의 구산동으로 전진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20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전쟁 보고서』 11, 2001.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용기동 전투

【龍基洞 戰鬪, 1950. 8. 1.~11.】

### 개요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8월 1일부터 11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동 지역 일대에서 북한군 제13사단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낙동강 방어선(Y선) 군위 일대로 철수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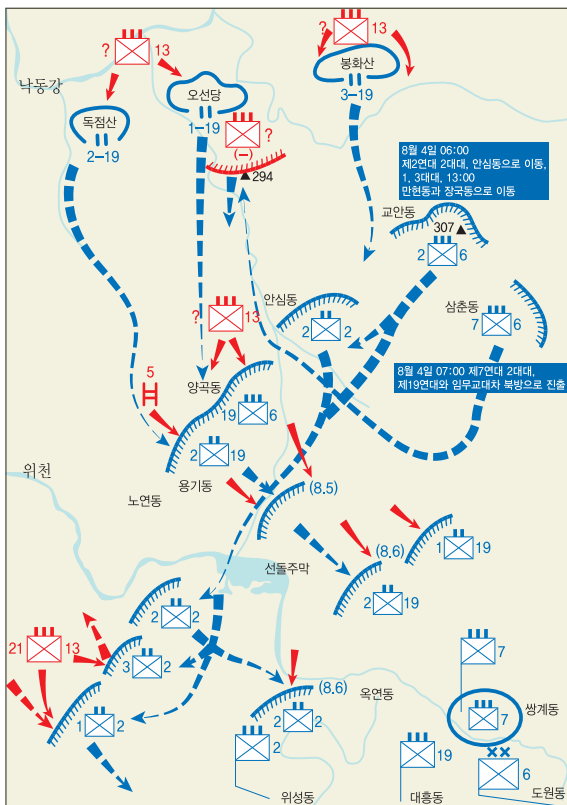
## 전개과정

1950년 8월 초, 낙동강 수심은 30년 만의 흑심한 가뭄으로 수심이 1~1.5m로 격감되어 도섭이 가능하였으며 작전지역 내에는 고령·왜관·상주와 안동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 도로망은 북한군의 양호한 접근로가 될 수 있었다.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서의 결전을 위해 5개 사단(제1·제3·제8·제13·제15사단)으로 대구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주공에 대한 방어병력으로 아군은 3개 사단(제1·제6·제8사단)이 배치되었다. 그 중 낙정리에서 의성 서쪽까지를 국군 제6사단이 담당하였다. 함창 일대에서 부대를 재편한 북한군 제1사단은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하여 일부 병력의 은밀한 도하를 준비하고 있었다.

8월 1일, 국군 제6사단은 함창지역에서 지연전을 수행하던 중 용기동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미 제25사단의 엄호 하에 운성 나루터에서 낙동강을 도하하여 산막 나루터에서 동쪽으로 상아동 북방 낙동강변까지의 약 20km에 달하는 지역을 방어책임지역

으로 부여받았다.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의 좌측에 배치된 국군 제1사단이 미 제25사단의 방어책임 지역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제6사단은 제1사단의 책임지역을 인수하여 방어정면이 2배로 확장되었다.

북한군 제13사단은 병력 1만 2,000여 명을 보유했으나, 이들 중 80%는 군사훈련이 미약한 남한 출신이었다. 주요장비는 122mm 곡사포 9문, 76mm 곡사포 20문, 45mm 대전차포 11문, 120mm 박격포 7문, 82mm 박격포 9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총수는 개인당 탄약 200발을 소지하였다. 8월 2일, 낙동강을 도하한 국군 제6사단은 제19연대를 용기동 정면에, 제2연대를 서측 장자봉에 배



치하고 제7연대를 예비로 하는 방어편성을 하였지만 인접사단과는 연결되지 못하였다. 8월 3일,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가 낙동강 남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 북한군 제13사단 연대병력이 은밀히 낙동강을 도하하여 국군 제19연대 제3대대의 동측방을 우회공격하여 국군 제6사단은 낙동강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8월 4일에는 사단지휘소를 용기동에서 도원동(의성군 봉양면)으로 이동하고, 제2연대는 위성동(의성군 구천면)에서, 제7연대는 쌍계동(의성군 비안면)에서, 제19연대는 대흥동(군위군 군위읍)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8월 5일에는 북한군 제13사단 제21연대가 전차 5대를 앞세우고 남진하여 옥연동(의성군 비안면) 북방에서 공격해 오자, 국군 제6사단은 다시 철수하였다. 이후 용기동과 양곡동을 연하는 지역을 일시적으로 확보하였으나 지속적인 북한군의 공격으로 제19연대 및 제7연대는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1사단과 협조하여 북한군 제13사단 제21연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퇴각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철수하면서 수시로 북한군 진지를 공격하면서 대흥동, 선돌주막, 위성동 등지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북한군을 저지하다가, 공격이 거세지면 후퇴하기를 반복하였다. 몇 차례 역습을 받은 북한군은 공격이 더디어졌다. 양곡동 지역에서 철수한 국군 제6사단은 선돌주막 지역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은 제19연대 제2대대가 방어중인 선돌주막 남쪽 고지에서 북한군 제13사단 1개 대대규모로부터 공격을 받고 외곡동으로 후퇴하였다. 제2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는 2개 대대규모의 북한군을 교전 끝에 격퇴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13사단이 병력을 증강하여 공격하자 국군 제6사단은 예비진지로 철수하였다. 8월 10일, 북한군 1개 대대규모가 낙동강의 지류인 위천을 도하하여 제2연대 제2대대의 방어진지로 침투해 옥연동-막동 간을 공격하였다. 주공을 제19연대 정면인 236고지로 지향하던 북한군은 국군 제6사단의 모든 정면에 일대 공격을 가해왔다. 8월 11일, 육군본부에서 국군 방어선을 새롭게 조정하였다. 기존 낙동강 방어선에서 철수하여 왜관-포남동-수암산-유학산-군위-보현산 선으로 방어선을 조정함에 따라 국군 제6사단은 계획된 철수작전을 단행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6사단은 예하 3개 연대가 연결하지는 못하였으나, 반격을 반복하는 공세적인 방어작전을 감행하여 4일 동안 북한군 제13사단의 진출을 저지시키고, 8월 9일에는 청화산-368 고지를 잇는 선상에 지연진지를 구축하여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북한군을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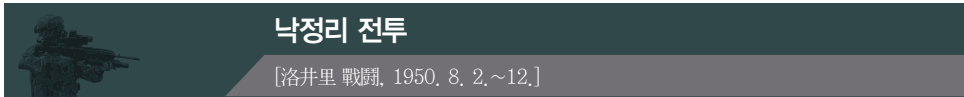


지하였다. 이후 제6사단은 군위 남방의 새로운 방어진역으로 이동하여 인접부대와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신냉·영천전투』, 198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 (53)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73.(1950. 8. 8.)

【박종상 집필】



#### 개요

국군 제1사단이 낙동강 방어선(X선)으로 철수하여 1950년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 낙동강 연안의 42km의 넓은 정면에서 북한군 제13사단 및 제15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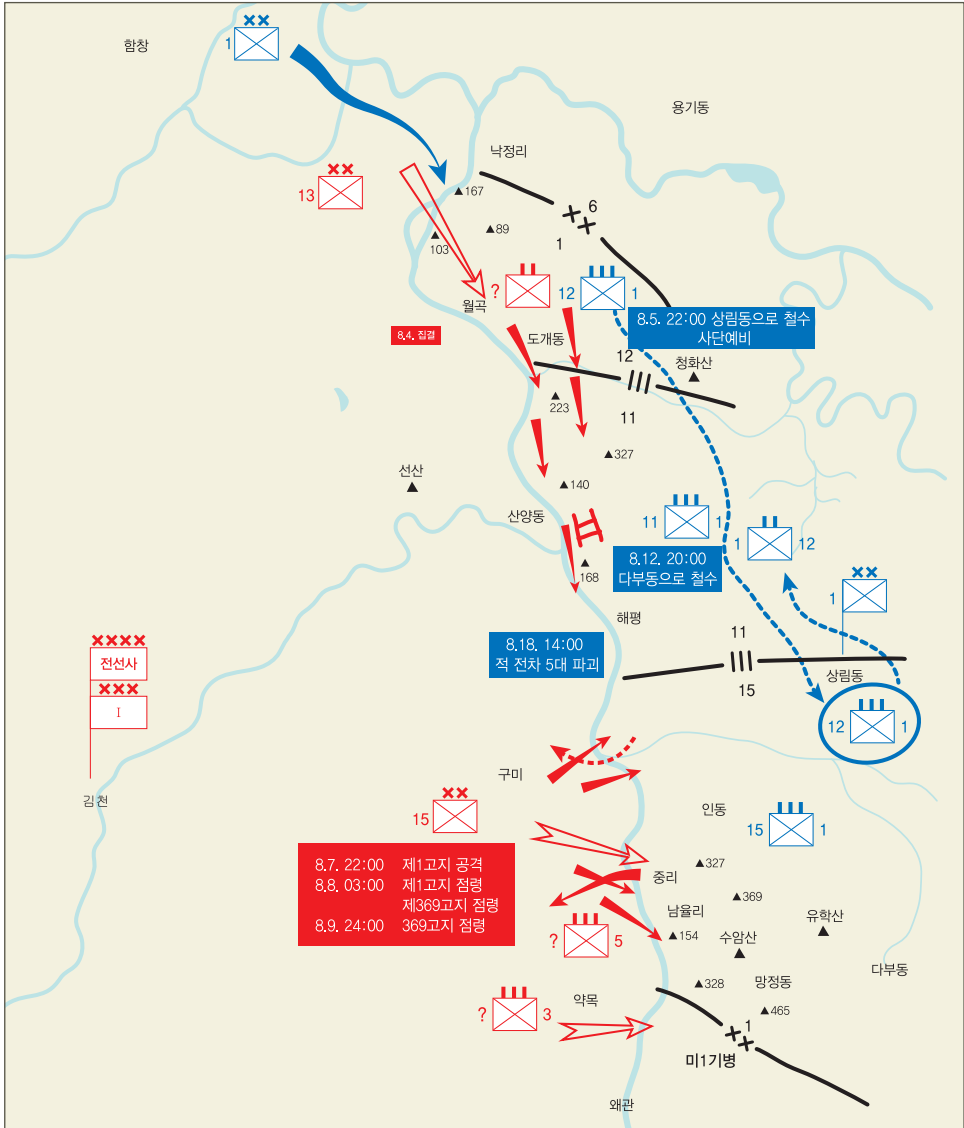
#### 전개과정

낙동강 연안의 전투지대는 낙동강을 제외하고는 지형의 기복이 심하다. 지역 내 고지들은 경사도가 가파르고 대부분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다. 사단 방어진역 서단을 남북으로 흐르는 낙동강은 강폭이 500~1,000m에 이르지만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아져 수심은 1~1.5m 정도여서 대부분 도섭이 가능하였다.

1950년 7월 말 미 제8군 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방어진면이 넓은 하동-거창-김천-함창-안동-영덕을 연하는 낙동강 방어선(X선)을 왜관 이남의 낙동강 본류와 대구 북방의 험준한 산악지대의 방어선(Y선)으로 조정하였다. 이것은 대구 점령을 목표로 총력전을 펴는 북한군을 좁은 지역으로 끌어들이 방어한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은 1950년 7월 31일 밤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서북쪽의 국사봉-영강 일대에서 8월 1일에 상주를 경유하여 운성나루터와 낙동나루터에서 낙동강을 도하여 위천(渭川) 하구-산막 사이에 3개 연대(제11·제12·제15연대)를 배치하였다. 그런데 이날 사단 좌측 부대로 왜관-낙정리 간을 담당할 미 제25사단이 갑자기 경상남도 마산으로 이동하게 되자 8월 2일부터는 위천 하구로부터 왜관 북쪽까지 확장된 42km에

달하는 방어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국군 제1사단 정면에 배치된 북한군 제13사단(제19·제21·제23연대)은 상주 일대에 집결해 낙동강을 도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사단병력은 편제의 약 80%인 약 9,000 명이었다. 북한군 제15사단(제45·제48·제50연대)은 선산 일대에 집결하고 있었고, 병력은 편제의 42%인 약 5,000명이었다. 북한군 사단의 장비와 무기는 국군 제1사단에 비



해 10:1로 우세하였다. 이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은 T-34전차 20대, 122mm 곡사포 20문, 76.2mm 곡사포 60문, 76.2mm 자주포 20문, 45mm 대전차포 50문, 120mm 박격포 20문, 82mm 박격포 150문, 61mm 박격포 180문을 보유하였다.

북한군은 1950년 8월 4일부터 낙동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1사단이 낙동강 연안의 방어진역에서 제일 먼저 교전한 부대는 낙정리 일대에 배치된 제12연대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도하공격이 개시되자 방어진면을 조정하고 제12연대를 예비로 전환시켜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국군 제1사단은 8월 5일부터 북한군 제13사단 주력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제11연대가 제12연대 지역으로 도하한 북한군 1개 연대의 공격으로 빼앗긴 낙산동 일대의 고지를, 배속받은 제12연대 제1대대의 역습으로 탈환하였다.

8월 8일에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 제13사단과 북한군 제15사단으로부터 본격적인 도하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북한군은 미리 비밀리에 가설한 수중교(水中橋)를 통해 도하시킨 전차와 함께 1개 연대 병력으로 제15연대 정면을, 다른 1개 연대 병력으로 제11연대 정면을 각각 도하해 공격하였다.

제11연대는 유엔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 전차 4대를 파괴하는 등 결사적으로 저항하였지만, 결국 도하를 허용하여 해평천(海平川)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다음날(8월 9일) 해평천으로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화력을 집중하고 대전차특공대를 투입하여 전차 5대를 파괴하는 등의 전과를 달성하면서 진지를 방어하였다.

방어선이 돌파될 위기에 처한 제15연대는 예비인 제12연대(-)의 지원으로 위기를 타개하였으며, 유엔 공군의 지원 하에 역습을 실시하여 8월 9일에 154고지를 탈환하였다. 곧 이어 제12연대의 대전차특공조가 전차 4대를 파괴하고 1대를 노획하였다. 제15연대는 10일에 역습을 전개하여 북한군을 낙동강 서쪽으로 격퇴하였다.

8월 11일부로 국군 제1사단은 축소된 방어선(Y선)인 왜관 북방 303고지-다부동-군위-보현산을 잇는 선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1950년 8월 12일에 낙동강 연안 방어선에서 최후의 방어선인 다부동 지역으로 전개하여 포남동의 270고지-수암산(△519)-유학산(△839)-신주막을 연하는 20km의 신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사단이 8월 초에 낙동강 연안 일대에서 낙동강이라는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여 북한군 2개 사단의 진출을 저지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전황을 타개하였다. 작전기간 동안 국군 제1사단은 넓은 정면의 방어진역에 3개 연대를 투입하여 방어하다가 1개 연대를 예비로 활용하여 융통성 있게 부대를 운용하여 방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후 국군 제1사단은 신녕 서쪽지역으로 이동하여 팔공산-가산 전투를 수행한 후 유엔군의 총 반격작전에 가담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다부동전투』, 1981.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73, SN. 1226.

【박종상 집필】

## 의성 전투

[義城 戰鬥, 1950. 8. 3.~13.]

### 개요

국군 제8사단이 1950년 8월 3일부터 13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 일대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을 저지하여 대구 방어에 기여한 방어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의성 일대에는 향로봉, 등운산을 비롯한 표고가 300~600m 미만의 대소 고지군이 연이어져 있으며, 안동-의성-군위-대구로 이어지는 5번 도로가 작전지역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중앙선 철로가 이 도로와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성-신녕(28번 도로), 의성-구산동(912번 도로), 의성-길안-청송(914번 도로)가 의성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다.

안동에서 낙동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8사단은 대구를 목표로 안동-의성-신녕-대구 축선을 따라 진격하고 있었다. 8월 4일, 북한군 제8사단은 예천 지역으로부터 의성 방면에 투입되어 안동 서쪽의 마애동과 계평동 일대에서 은밀하게 도하를 개시해 무릉동에 집결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낙동강 남안에 약 20km의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하지만 불리한 지형 및 제반 여건에 따라 의성 북방 10km 지점 향로봉과 그 일대로 방어진지를 이동하였다. 또한 주저항선이 돌파될 경우의 역습에 대비해 미천 남쪽 318고지-396고지간 횡격실 능선에 제2선인 예비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8사단은 좌측에 있는 국군 제6사단이 의성에서 20여 km 떨어진 안계



였다. 그러나 북한군 공격이 시작되면서 포탄이 의성에 집중되자 국군 제8사단은 의성 동남방의 구산동을 경유해 벌전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군단의 방어정면 재조정계획에 따라 구산동-도평동 선에 2개 연대를 배치하고 보현산 일대에 투입되었다.

### 결과 및 영향

8월 4일부터 북한군 제8사단과 교전을 개시한 국군 제8사단은 의성을 방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향로봉 일대에서 격전을 벌이며 8월 12일까지 의성을 방어하였다. 이에 따라 의성을 조기에 점령하고 대구를 향해 남진하려던 북한군은 전투력을 재정비해야만 했고, 8월 15일까지 대구를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다. 반면에 아군은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대를 재편·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아군이 대구를 방어하고 차기 공세작전을 준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단양-의성전투』, 1987.  
제2군사령부, 『2군 지역 전사』, 199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8사단 전투상보』 (55).



【박종상 집필】



## 영산 전투

【靈山 戰鬥, 1950. 8. 5. ~19.】

### 개요

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8월 5일부터 19일까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일대에서 낙동강에 연하여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을 때 미 제24사단과 그 증원부대가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방어한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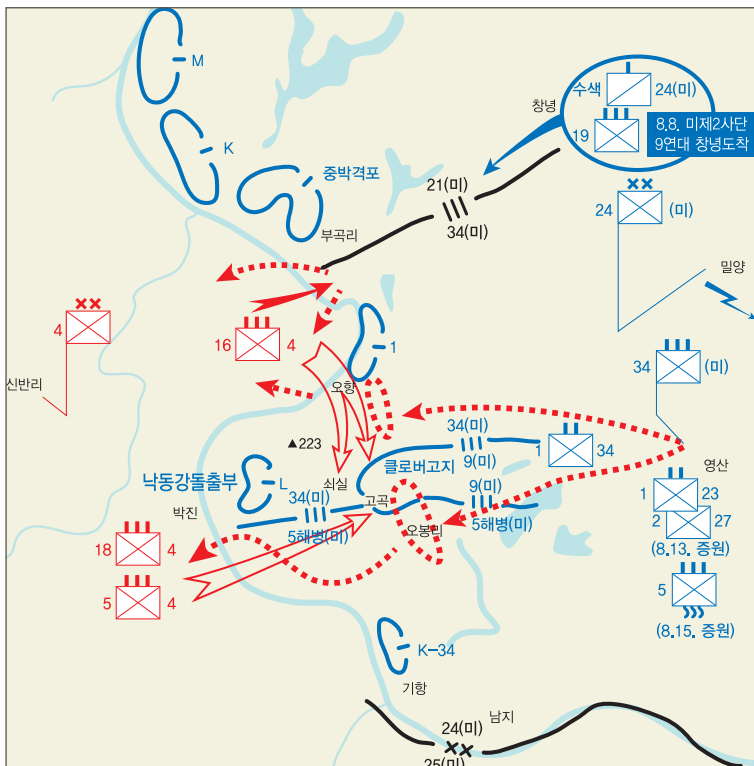
### 전개과정

경상북도 창녕군에 위치한 영산 지역은 남으로 내려오는 낙동강이 동으로 휘어지면서 반원형으로 돌출되어 있어 '낙동강 돌출부'라 부르는 지역이다. 이곳은 합천-진주 서측에서 남지교를 통해 연결된 도로와 여러 곳에 도섭장과 도선장이 산재해 있고 창녕과 영산을 지나 밀양을 거쳐 부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접근로였다.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4사단(제5·제16·제18연대)은 미 제8군이 방어하고 있는 왜관에서 마산까지의 '낙동강 방어선' 서쪽에서 창녕-영산 축선을 통해 대구-부산 간 미 제8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결정적 타격을 가하려 하였다. 이때 북한군 제4사단의 전체병력은 약 7,000명이었고, 1개 보병연대의 병력은 약 1,500명 수준이었다. 사단 포병은 야포 총 12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1950년 8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에 방어선을 편성하고 있을 때, 미 제24사단은 대구 서측방 현풍에서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점 남지에 이르는 37km 정면을 방어하고 있었다. 미 제24사단은 대전 전투 이후 입은 손실로 병력이 부족하였고, 손실로 인한 병력 보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사단 예하 각 연대는 2개 대대로 편성되었고, 이들 대대도 500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대 병력은 기껏해야 1,000명 안팎이었다. 또한 사단에는 전차가 배속되었으나, 사단 포병은 105mm 17문과 155mm 12문을 보유함으로써 사단 전체의 전투력은 약 40%에 불과하였다.

8월 5일 자정 무렵에 북한군 제4사단 제16연대는 영산 정면의 오흥나루터와 부곡리



일대에서 도하하여 미 제34연대 제3대대의 중대 방어진지 사이로 침투한 이후, 다시 후방으로 침투하여 영산 입구의 감제고지인 클로버그지를 점령하였다. 미 제19연대는 오항 동쪽에서 북한군에 저지사격을 집중하였다. 미 제34연대 제1대대가 클로버그 고지 일부를 탈환하였으나 북한군은 박진나루터와 오항나루터, 부곡리를 통해 계속 도하를 시도하였다. 결국 2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야간도하에 성공하여 8월 7일 오전에 클로버그고지와 오봉리 일대를 점령하였다.

북한군은 클로버그 고지를 넘어 고지 일대와 미군 후방의 주보급로는 물론 밀양까지도 관측 가능한 요충지인 오봉리 능선까지 진출하였다. 8월 8일, 미 제8군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즉각 예비인 미 제2사단 제9연대를 투입하여 클로버그 고지와 오봉리 능선 일대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후퇴하였다.

8월 10일, 미 제9연대는 미 제24사단 제19연대와 함께 오항 일대와 클로버그 고지를 다시 공격하여 일부를 탈환하였다. 미 제24사단은 힐 특수임무부대(Hill Task Force)를 편성(미 제9연대, 제34연대, 제19연대, 제21연대 제1대대, 기타 배속부대로 구성)하여 낙동강 돌출부 지역 내 북한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북한군 제4사단 주력부대가 야음을 이용하여 오항나루터와 박진나루터에 수중교 가설작업을 완료하고 대규모 병력과 함께 전차, 박격포, 야포 등 중장비를 도하하여 힐 부대를 기습공격하였다. 이때 미 제21연대 제1대대가 집결지에서 북한군의 기습을 받고 와해되면서 힐 부대의 공격 시도는 좌절되고 분산하여 후퇴하였다. 결국 북한군 제4사단 제18연대가 미군 진지 좌측방으로 우회하여 영산 북방으로 침투, 영산 동쪽 및 남지교를 점령하여 미 제24사단의 주보급로를 차단하였다.

8월 12일, 힐 특수임무부대는 미 제9연대 1개 중대와 박격포 소대로 북한군 차단부대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미 제8군은 예비인 미 제27연대 제2대대를 남지교에 투입하였다. 제2대대는 항공기의 지원 하에 영산 동쪽의 북한군 차단부대를 공격하였다. 8월 13일, 미 제2대대는 영산 후방으로 침투한 북한군을 공격하여 격퇴시켰다. 또한 영산에 집결한 미 제14공병대대와 증원된 미 제2사단 제23연대 제1대대가 영산 주변의 북한군을 격퇴하고 영산의 위기를 타개하였다. 영산 일대 위기가 해소되자 힐 특수임무부대는 주공인 미 제2사단 제9연대가 클로버그 고지를 공격하여 15일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거듭하며 클로버그 고지와 오항 고지 일부 탈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관은 힐 특수임무부대와 지원부대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 제8군의 예비대인 미 해병 제1여단을 영산 전투에 투입하였다. 8월 17일, 오봉리와 클로버그 고지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미 제9연대는 클로버그 고지를 점령하였고, 미 해병대는



오봉리 능선상의 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저녁 무렵 북한군 제4사단은 전차를 투입하여 재차 공격하였으며, 미 해병대는 M26 퍼싱 전차와 75mm 무반동총, 3.5" 로켓포 등의 지상화력과 항공화력으로 북한군 전차를 타격하여 대부분 파괴시켰다. 이후 미 제19연대, 제9연대, 해병대는 총공격을 감행하여 오항고지 전체를 탈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북한군 제4사단이 낙동강 동안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영산 지역으로 침입하였으나 미 제24사단의 힐 특수임무부대와 미 제8군의 예비인 미 해병 제1여단이 강 서쪽으로 격퇴하고 방어진지를 회복하였다. 북한군 제4사단은 이 전투에서 그 병력이 3,500명선 이하로 저하되고, 야포와 전차를 비롯한 중화기의 대부분이 손실되어 커다란 타격을 받아 다시는 낙동강 전선 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하였다. 8월 19일 오후, 미 해병 제1여단은 미 제24사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됨과 동시에 마산 동북쪽의 창원으로 이동하여 재차 미 제8군의 예비가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다부동전투』, 1981.  
 제2군사령부, 『2군 지역 전사』, 199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킨 특수부대 작전

[Kean 特殊部隊 作戰, 1950. 8. 7.~12.]

### 개요

미 제25사단을 중심으로 편성된 ‘킨 특수임무부대(Kean Task Force)’가 1950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상남도 마산 일대에서 북한군 제6사단의 마산 지역 진출을 방어하고 격퇴하였고 이는 부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마산은 경상남도 제2의 도시로 1950년 전쟁 당시 인구는 10만 명에 이르고 부산에서 서쪽으로 57km 지점, 진주에서 동쪽으로 6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도시이자, 육로·철

로·해로 등 교통이 발달된 상업 도시이다. 북한군 제6사단은 1개 모터사이클연대와 함께 서해 방면의 아군을 계속 추격하면서 목포와 여수항을 점령하고 마산을 공격하고자 기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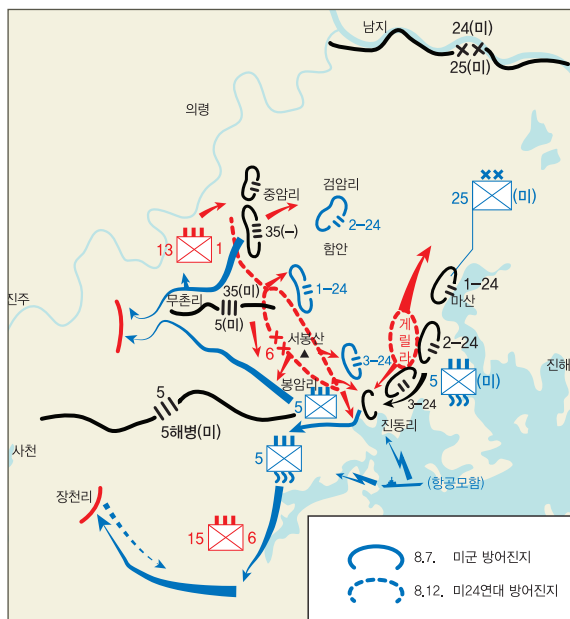
북한군 제6사단 제13연대는 1950년 7월 24일 목포항을 점령한 데 이어, 제1연대가 7월 25일 여수항을 점령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목포항과 여수항의 방어를 위해 증강된 1개 대대씩을 그곳에 주둔시킨 다음 7월 28일 오후에 주력을 하동지역에 집결시키고, 다음날(7월 29일) 마산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그 중 제15연대가 7월 30일 진주-마산간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아군이 동쪽으로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31일 진주를 점령한 후 아군을 계속 추격하여 마산을 직접 위협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북한군은 아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미 제8군은 북한군 제6사단의 대 우회기동이 마산을 거쳐 부산을 점령하려는 의도를 뒤늦게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상주 남쪽에서 방어 중인 미 제25사단을 마산 방면으로 이동시켰다. 미 제25사단은 미 제24사단으로부터 방어책임지역을 인수받고 미 제35연대는 중암리, 미 제24연대는 함안 부근, 미 제27연대는 진동리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미 제27연대, 국군 민부대, 국군 해병대 김부대를 작전통제하였다.

미 제8군은 마산 정면의 북한군을 격파하여 부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북한군 제6사단을 반격하기 위하여 미 제29연대를 해체하여 미 제25사단의 제27연대와 제35연대에 1개 대대씩 증편하여 이들 연대를 3개 대대로 편성하였다. 미 제25사단에 미 제5연대 전투단, 전차와 포병으로 증강된 미 해병 제1여단, 국군 민부대, 국군 해병대 김부대, 경찰 중대 등을 배속하여 총 병력 2만여 명, 전차 100여 대, 야포 100여 문을 보유한 '킨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반격계획은 현 배치 선에서 3개 도로로 진주를 탈환하는 것이었다. 북쪽에서는 미 제35연대가 남해안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중암리에서 무촌리로, 미 제5



연대가 진동리-봉암리-무촌리로 진출한 후 제35연대와 함께 진주고개를 공격하며, 미 해병 제5연대가 고성-사천 간 도로를 따라 진주 남동쪽을 공격하고, 미 제24연대(민부대·김성은부대·경찰 배속)가 서북산 일대로 침투하여 보급로를 차단하는 적을 소탕하고 함안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공격을 개시하여 미 제35연대가 괘방산을 탈환하고 늦치 부근에서 북한군 1개 대대 병력을 격파하였으며, 미 해병 제5연대 제2대대는 야반산에서 북한군 제6사단을 격퇴하였다. 미 해병 제5연대 제3대대와 미 제24연대 제2대대는 항공기, 포병, 전차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 제6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진동리 감제고지를 공격하여 격퇴하였다. 미 해병 제5연대는 봉암리까지 진출하였으며 북한군의 야간 기습공격을 미 공군의 지원 하에 격퇴하였다.

8월 12일, 북한군에게 노출된 킨 특수임무부대의 포병은 봉암리 계곡에서 미 제555포병대대가 사상자 180명과 105mm포 8문, 미 제90포병대대는 사상자 190명, 155mm포 6문, 차량 26대 등의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무렵 미 제8군은 대구 북방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이 강화되고 낙동강 돌출부의 전선 상황이 악화되어 예비대 확보가 시급하였다. 따라서 미 제8군은 킨 특수임무부대의 반격작전을 종료하고 기동예비대 확보를 위해 배속부대에 대한 배속을 해제하였다.



### 결과 및 영향

킨 특수임무부대의 반격작전은 진주를 탈환하고 대구 정면의 북한군을 유인한다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마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전투 이후 킨 특수임무부대의 예하 연대는 서북산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배속이 해제된 미 제5연대 전투단은 마산으로 철수하였으며, 미 해병 제1여단은 낙동강 돌출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8월 16일 해체되었다. 북한군 제6사단은 병력 4,000~5,000명, 전차 13대 등 많은 손실을 입고 마산에서 퇴각하였다. 이후 전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 접전은 9월 공세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다부동전투』, 1981.
- 제2군사령부, 『2군 지역 전사』, 1995, 4.
-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금무봉 전투

[錦舞峰 戰鬪, 1950. 8. 9.~13.]

### 개요

미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가 1950년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일대 금무봉에서 북한군 제3사단의 도하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일대에 위치한 금무봉(錦舞峰, △268)은 부산-서울-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에 이르는 경부선 철도가 이 산의 북쪽 기슭을 지나고 있고, 주보급로가 인접해 있는 중요한 고지이다. 따라서 금무봉은 왜관-대구간의 주보급로와 경부선 철도를 제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다.

왜관 약 8km 남쪽의 성주에 집결한 북한군 제3사단은 제7·제8·제9연대로 편성되어 개전 초기 최선봉부대로 서울로 침입한 뒤 조치원과 대전을 거쳐 낙동강 방어선에서 편제병력의 약 50%인 6,000여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3사단은 대구-부산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낙동강을 도하하여 공격할 예정이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현풍-작오산 간의 40km 지역에 좌로부터 제7(-)·제8·제5기병연대를 배치하고 제7기병연대 제1대대를 대구 근교에 예비로 확보하고 있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1950년 8월 9일에 북한군 제3사단의 도하공격을 받았다. 북한군 제7연대가 왜관과 남쪽 3km 지점의 노촌에서 도하하였다. 정면의 미 제5기병연대는 즉시 낙동강을 향해 사격을 실시하였지만 이미 상당수가 도하한 뒤였다.

그러나 미 제5기병연대장은 북한군 주력부대의 추가적인 도하를 예상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곧이어 북한군 제3사단 제8연대와 제9연대가 야간에 신기 부근에서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미 제5기병연대는 모든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 조명탄과 예광탄을 발사하고 강력한 화력을 북한군 도하부대를 향해 집중하였다. 도하 중인 북한군은 순식간에 대부분이 궤멸되었으며 그 일부만이 다시 낙동강을 건너 퇴각하였다. 그러나 이미 북한군 1개 대대가 금무봉으로 침투했음이 정찰대에 의해 밝혀졌다.

이날(8월 9일) 미 제1기병사단장(Hobart R. Gay 소장)은 북한군이 왜관 남쪽에서 도하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미 제5기병연대 정보장교를 도하지점으로 급히 보냈다. 날이 밝기 전에 연대정보장교가 지휘하는 수색대는 약 750명의 증강된 대대 규모로 판단되는 북한군이 금무봉 북서쪽 능선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 제5기병연대

정보주임장교(대리)의 보고를 받은 미 제1기병사단장은 사단예비인 제7기병연대 제1대대장에게 역습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대대는 공격준비사격 후 미 제71중전차대대 A중대(5대) 지원 하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다음날인 8월 10일 미군은 화포와 항공기의 공격 준비사격 후 공격을 재개하였다.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는 전차를 금무봉 후면으로 진출시켜 전후에서 협공을 개시하여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하지만 이 전투 중에 금무봉 옆 왜관도로상에서 미 제1기병사단 지휘소가 북한군에게 매복기습을 당하여 부사단장·참모장·정보참모 그리고 헌병이 부상을 입었으며, 또한 현장에서 사단장과 대화를 하던 제1대대 부대대장과 일부 병사들이 북한군의 박격포 직격탄을 맞아 사단장과 부관을 제외하고 모두 죽거나 부상을 입었다.

### 결과 및 영향

8월 13일 현장 확인 결과, 미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는 북한군 제3사단 제7연대를 대파하였으며 그 중 제1대대는 300~400명이 사살되었다.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도 2일 간에 걸친 금무봉 전투에서 전사 14명과 부상 48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후 북한군 제3사단은 1950년 8월 13일을 기해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 방어진역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로써 북한군은 8월 공세의 중점을 다부동 일대에 형성하려고 기도하였다.

결국 서울사단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북한군 제3사단은 낙동강 도하작전의 실패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패잔병 2,500여 명과 함께 후퇴하였다. 이로써 북한군 제3사단은 부대 재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타격을 입었다. 북한군 제2군단장은 이날부터 대구 서측방의 공격임무를 북한군 제10사단에게 부여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다부동전투』, 1981.

제2군사령부, 『2군 지역 전사』, 199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보현산 전투

[普賢山 戰鬪, 1950. 8. 9. ~28.]

### 개요

경상북도 의성에서 철수한 국군 제8사단이 경상북도 영천 보현산(普賢山, △1,124) 일

대에서 1950년 8월 9일부터 28일까지 북한군 제766부대와 합류한 북한군 제12사단을 저지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보현산 일대를 포함한 동부전선은 국군 제3사단의 작전지역이었다. 하지만 동해안 도로 축선 상 전략적 요충지인 영덕(포항 북방 43km) 지역은 상황이 긴박하여 제3사단은 전 병력을 그 지역에 투입하여 북한군 제5사단과 전투 중이었다. 따라서 보현산과 그 북방의 구산동, 도평동, 그리고 죽장일대에는 전투부대를 배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보현산 일대는 태백산맥 남단의 행정구역상 청송군, 영천군, 영일군 일부가 포함되며, 해발 300~1,100여 m의 크고 작은 고지와 계곡들이 얽혀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작전지역 내에는 높이 1,124m인 보현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노고령(△502)-751고지, 서쪽으로는 838고지에서 수석봉(△821)을 거쳐 봉화봉(△650)으로 연결된 21km에 달하는 산줄기가 북쪽을 향하여 횡격실을 이루고 있을 뿐더러, 그 남쪽에는 중심 깊은 방어진지를 준비할 수 있는 기룡산(△961)이 있으므로 방어작전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다.

1950년 7월 중순 국립경찰 강원도경찰 비상경비사령부 예하의 전투경찰 제3대대와 제6대대가 청송과 도평동 일대에서 청송-기계 및 의성-기계로 통하는 도로교차점인 도평동을 점령하고 아군 전방부대 주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는 북한군 제766부대와 격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전투경찰 제3대대가 도평동을 탈환하자 잔적 중 일부는 보현산 북쪽 산악지대에 거점을 확보하고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구산동에 증원된 제1201건설공병단은 전투경찰 제3·제6대대와 함께 보현산과 그 주변 산악지대에 출몰하는 북한군 제766부대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8월 4일, 육본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는 자천으로 이동하여 제1201건설공병단의 임무를 인수하고 그 이틀 뒤(8. 6.)에 보현산 정상을 점령하였다. 이때 보현산 북쪽 산악지대로 퇴각한 북한군 제766부대는 청송-도평동-죽장-기계로 통하는 도로 주변의 주요지형을 점령하고 청송 부근에서 남하 중인 북한군 제12사단 선발대와 연결하였으며, 북한군 제12사단 주력부대는 죽장을 경유하여 기계로 진출하였다.

8월 12일, 육군본부와 제1군단은 기계·안강이 함락되어 포항·경주·영천이 동시에 위협받게 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사단 기갑연대와 제18연대를 도평동과 죽장에 투입하여 기계·안강에 진출한 북한군을 북쪽에서 공격하게 하였다. 의성전투를 중

료하고 보현산 지역으로 이동한 국군 제8사단은 이 일대에서 작전 중인 제1유격대대, 제2유격대대, 그리고 전투경찰 2개 대대를 통합지휘하면서 매봉-노고령-보현산-봉화봉을 연결하는 선에 주저항선을 설치하였다.

주저항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을 진전에서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좌측방의 국군 제6사단이 화산-갑령-370고지 선으로 철수하고, 우측방의 국군 수도사단 또한 북한군 제12사단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다시 기계가 피탈되자 안강으로 후퇴하였다. 따라서 국군 제8사단은 방어지역 좌우 양측방이 노출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군 제8사단은 고모산, 봉화봉에서 공방전 끝에 북한군 제15사단에 게 빼앗기고, 8월 28일에는 수석봉마저도 빼앗기며 주저항선은 붕괴되었다. 국군 제6사단에서 배속이 해제된 제5연대가 다시 제8사단에 배속되어 자양지역에 투입되었으며, 제8사단 제3연대 제1대대는 기룡산에 투입되어 북한군을 저지하였으나 북한군의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영천으로 철수하였다. 북한군 제15사단은 우주산과 봉화봉 사이에 형성된 공백지대를 최대로 이용하면서 죽장-자양-영천 축선상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하고, 9월 2일 저녁에 공격하여 돌파구를 형성한 뒤, 계속 공격하여 영천 북방 16km 지점의 자양을 점령하고 영천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결과 및 영향**

보현산 일대로 이동한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 제15사단을 견제하는데 성공하였다. 보현산 전투는 영천 전투를 위한 전초전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단계 전투였다. 즉, 북한군이 총력을 집중한 9월 공세로 부득이 국군 제8사단 예하 제16연대와 제21연대, 제7사단 제5연대와 독립 제1·제2유격대대, 그리고 강원도 전투경찰대대 등이 9월 4일을 기해 인접부대와 연결 작전을 위해 기룡산 방어선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8사단은 모든 병력을 집중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천 일대에서 결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신녕·영천 전투』, 1984.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00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8사단 전투상보』 (55).

【박종상 집필】



## 기계 전투

[杞溪 戰鬪, 1950. 8. 9. ~18.]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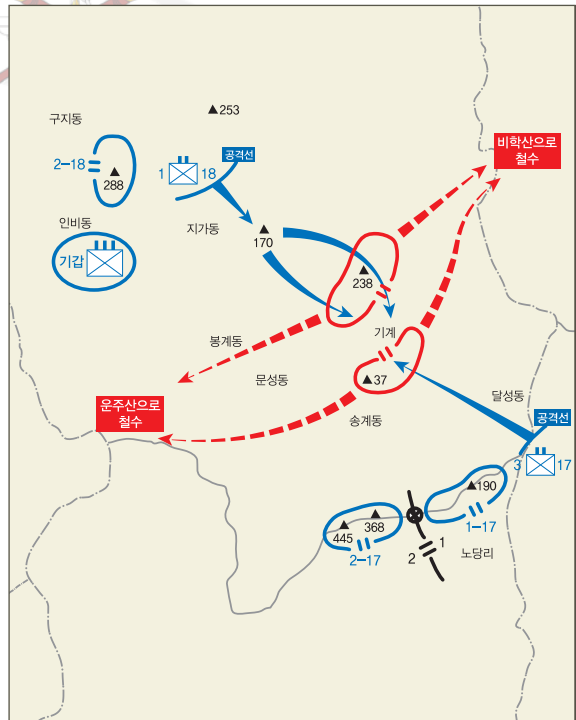
국군 수도사단 작전통제 하에 있었던 포항지구 전투사령부가 1950년 8월 9일부터 18일까지 북한군 제12사단에 의해 피탈된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을 탈환하고 북한군 제12사단을 격멸하여 안강·경주로의 진출을 저지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은 낙동강 방어선상의 중요한 거점으로 동해안에서 대구에 이르는 주요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고지군이 북쪽을 향하여 횡격실을 이루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다. 그러나 기계면이 북한군에게 함락되면 인접한 안강 및 경주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경상북도 안동의 길안과 청송에서 방어전을 실시하던 국군 수도사단이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으로 제18연대가 의성으로 철수함에 따라 8월 5일 이후 경상북도 청송군 일대에는 광대한 공백지대가 형성되었고, 청송-기계 축선에는 국군 병력이 거의 배치되지 않았다. 이때 북한군 제12사단 예하 1개 연대 규모가 청송, 입암리를 거쳐 기계 북쪽으로 남진하고 있었다. 기계 북쪽까지 남하한 북한군은 부근에 배치된 국군을 격파하고 기계를 점령한 이후 진출을 일시 중단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기계와 안강을 거쳐 경주지구로 남하하려는 북한군 제12사단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에서 제25연대를 급파하





고, 1950년 8월 9일 포항지구전투사령부를 편성하여 기계·포항지구의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는 제17·제25·제26연대와 육군본부 직할의 독립 제1유격대대, 제2유격대대, 해군육전대 포항지구대, 그리고 미 제18야전포병대대 C포대로 편성되었다.

한편 8월 12일에 국군 제1군단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여 기계-포항선 일대에 고착시키기 위한 포위작전의 일환으로 제1연대를 안강지구로 이동시켰으며, 제17연대를 수도사단으로 배속시켜 안강·기계지구작전을 수도사단이 관장하도록 조치하였다. 수도사단 예하 제18연대와 독립기갑연대를 구산동-현동에 전개시켜 북한군 제12사단의 주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북에서 남으로 진격토록 함으로써 기계지구의 북한군을 포위 공격하는 역포위작전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제1군단장은 제8사단을 보현산지구로 이동시켜 구산동-도평동 선에 임시방어선을 편성해 제18연대와 독립기갑연대의 공격을 엄호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구산동을 거쳐 실곡에 집결한 수도사단 제18연대는 독립기갑연대와의 협조하에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8월 14일, 제18연대는 361고지-자초산-520고지-죽장-기계를 연하는 축선에 2개 대대를 공격부대로 투입하고 1개 대대를 예비로, 기갑연대는 475고지-847고지-441고지-운주산 축선에 1개 대대를 공격부대로, 1개 대대를 예비로 하여 공격을 전개하였다.

국군 제18연대와 독립기갑연대는 거의 교전이 없는 상태에서 31번 도로를 중심으로 한 보현산 북쪽과 구암산 서편의 산악지대를 따라 20여 km를 남하하여 죽장은 물론 봉화봉과 538고지까지 탈환하였다. 이에 따라 죽장에 위치하고 있던 북한군 제12사단의 2개 대대와 후방지원부대는 비학산으로 철수하였다.

8월 15일, 제18연대는 죽장을 탈환한 이후 죽장-기계 방향을 담당하고, 기갑연대는 잔적소탕과 측방엄호 임무를 맡았다. 제18연대와 기갑연대는 남쪽에서 북상하는 제1연대 및 제17연대와 함께 기계 일대의 북한군 제12사단을 역포위하였다. 결국 북한군 제12사단은 지휘체계가 와해되어 소부대 단위로 분산된 채 비학산으로 철수하며 국지적인 저항을 지속하였다.

8월 18일, 제18연대는 전과확대로 전환해 기계 북쪽의 무명고지와 238고지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을 격멸하고 기계로 돌입해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북한군을 소탕하였다. 기계 남쪽의 445고지와 190고지를 장악하고 있던 제17연대는 제18연대 공격에 맞춰 연대 예비인 제1대대를 기계 남쪽에 투입해 협공을 가하였다. 기계 부근의 북한군은 대부분이 격멸되고 일부 병력만 포위망을 뚫고 북쪽으로 후퇴하였다.

**결과 및 영향**

북한군에게 피탈되었던 기계를 성공적으로 탈환한 국군은 이 전투에서 적 1,245명을 사살하고, 포로 17명을 잡았으며, 무기 및 탄약 다수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나, 전사 92명, 부상 171명, 실종 500여 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은 기계 부근에서 전투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일부 패잔병력만이 비학산으로 퇴각하였으며, 기계의 탈환으로 인접한 안강, 경주는 위기를 모면하였다.

기계 전투 이후 독립 제1유격대대는 제8사단에 배속되고, 독립 제2유격대대는 제8사단 제16연대를 지원하였다. 또한 기갑연대는 제6사단에 배속되었고, 포항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됨으로써 해군육전대 포항지구대도 원대복귀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19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국군 수도사단 전투상보』(41).

【박종상 집필】

**포항 전투**

[浦項 戰鬪, 1950. 8. 9. ~9. 14.]

**개요**

국군 제3사단이 1950년 8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기계를 점령하고 포항으로 남하하는 북한군 제5사단과 제12사단을 방어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경상북도 포항은 항만과 철도, 육로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동해안 최대의 병참기지일 뿐만 아니라 포항남쪽 6km 지점의 영일비행장은 미 제40전투비행대대가 주둔해 지상부대를 근접지원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1950년 8월 중순 이후 약 1개월여간의 포항 전투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의 포항 방어전,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국군 제3사단의 독석동 철수전, 8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국군 민부대의 포항탈환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국군 제3사단의 포항부근 격전, 9월 6일부터 13일까지의 형산강 방어전 등을 포함한다.

1950년 8월 10일, 북한군 제12사단의 증강된 1개 연대는 기계를 점령한 후 흥해 남쪽의 냉천동 일대로 진출해 다음날 포항을 점령함에 따라 포항지구의 국군은 구룡포 및 감포 일대로 후퇴하였다. 이 무렵 포항에는 국군 제3사단 후방지휘소가 포항여자중학교에 위치하여 후방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해군 포항경비부와 공군 포항지구대 1개 중대, 그리고 경찰과 청년방위대 등이 있었다. 국군 제3사단 후방지휘소에는 학도병 7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도병들이 북한군의 포항 시내 진출을 저지하는 동안 제3사단 사령부와 기타 지원부대 및 경찰, 그리고 행정기관은 무사히 안전지대로 철수할 수 있었다. 미 제8군사령부는 기계가 피탈되고, 흥해 부근의 냉천동에 북한군이 출현하자 영일비행장 방어를 위해 미 제2사단 부사단장 브래들리(Joseph S. Bradley) 준장이 지휘하는 브래들리 특수임무부대(Bradley Task Force)를 급파(8월 10일)하였다.

기계와 포항지구에 침공한 북한군 제12사단과 제766부대는 포항지구전투사령부 예하 제25연대와 제17연대 그리고 해군육전대가 반격을 실시하자 북쪽으로 후퇴하였으며, 북한군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은 안강 북쪽 3km 지점의 165고지에서 국군 제17연대의 반격을 받고 동북방의 236고지와 터널고지로 퇴각해 안강 북쪽과 포항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8월 15일 군단에비대인 민부대로 하여금 포항을 탈환하도록 함에 따라 민부대는 이날 영천과 경주를 거쳐 경주 동북방 12km 지점의 화산동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포항 북쪽에 진출해 있던 북한군 제5사단의 일부 병력이 8월 15일 포항에 도달하자, 북한군 제12사단의 1개 연대는 포항 서측방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북한군은 포항과 안강 사이의 북방지대를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화산리에 집결하고 있던 민부대는 포항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부대는 소수의 북한군을 격퇴시키고 포항 시내에 진입하여 포항을 탈환한 즉시 북으로 퇴각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여 천마산을 목표로 전진을 계속하였다.

국군 제3사단이 해상철수를 함에 따라 북한군 제5사단은 남진을 거듭해 흥해에 주력을 집결시켜 포항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한편 국군 제3사단은 도구동에서 포항으로 진출한 후 제23연대가 민부대 배치선에서 진지를 인수하였고, 제22연대는 예비대로 포항에 잔류하였다. 민부대는 제3사단과 임무교대 후 신녕지구로 이동하여 8월 20일에 제5연대로 개편되었다. 8월 21일 국군 제3사단은 인접한 수도사단과의 협조 아래 포항 북부지역에서 국부적인 반격을 감행하여 북한군을 격퇴시켰다. 국군 제1군단은 제3사단의 반격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현 진출선을 주저항선으로 확보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9월 1일에 국군 제3사단은 일제히 반격을 하였으며, 북한군 제5사단도 9월 2일에 미 제21연대와 제9연대 제3대대가 집결대기하고 있는 포항과 영일비행장을 목표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3사단은 주저항선이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 돌파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철수하였다가 포항 방어에 필요한 128고지, 105고지, 93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역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파상공격으로 인해 소티재-두호동 선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9월 5일에 국군 제3사단은 북한군 제5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형산강변으로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9월 7일 일부의 북한군 침투부대가 운제산으로 남하하였으며 이후 14일까지 공방전 끝에 9월 14일 새벽에 제23연대의 2개 대대가 연일을 탈환하였다. 국군 제3사단은 9월 6일 방어선이 돌파된 이후 8일 만에 형산강변의 방어진지를 전부 회복하고 반격을 위해 진지를 편성하였다. 이후 포항지구의 북한군은 더 이상의 공세를 중단하고 패잔병력의 수습 및 재편성을 하며 북쪽과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동해안 축선을 따라 남진하던 북한군 제5사단은 영덕지구에서 국군 제3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2주일이 넘도록 지체함으로써 북한군 제2군단의 작전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북한군 제5사단은 국군 및 유엔군이 방어선을 형성하기 이전인 7월 하순까지 포항을 점령하고 안강-경주 축선으로 남하해 울산을 거쳐 최종 목표인 부산에 진출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군의 기도는 유엔 해군 및 공군으로부터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은 국군 제3사단에 의해 좌절되었다.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운제산과 형산, 그리고 곤계봉을 빼앗긴 북한군은 공격에 한계를 느끼고 공세작전에서 수세로 전환하였다. 경주 북방까지 진출해 동부전선의 위기를 조성했던 북한군은 더 이상의 공세를 중단하고 병력을 수습하여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형산강 방어전에서 북한군 제5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고 반격의 기틀을 마련했던 제3사단은 9월 14일 형산강 방어선을 재편성하고 반격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9월 19일에 형산강을 도하하여, 20일에는 포항을 탈환한 후 포항-청하-영덕 축선을 따라 북진을 개시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안강-포항전투』, 1986.

[박종상 집필]



## 수암산-유학산 전투

[水岩山-遊鶴山 戰鬪, 1950. 8. 13.~30.]

### 개요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가 1950년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칠곡군 수암산 및 유학산 일대에서 북한군 제13·제15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328고지-수암산-유학산-741고지의 방어선을 확보하여 다부동-대구 접근로와 대구 방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방어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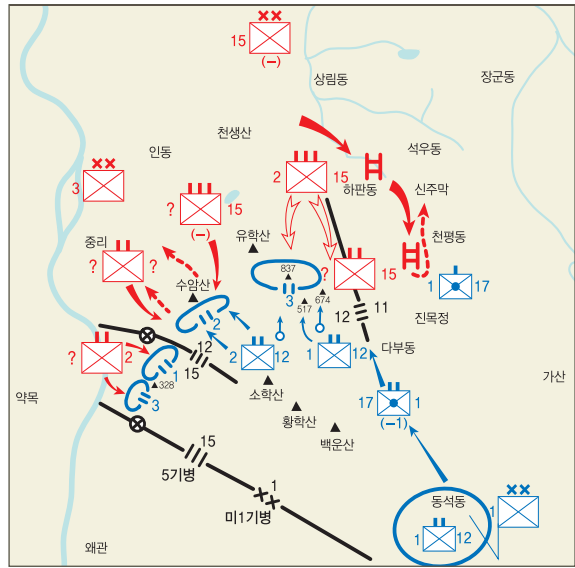
### 전개과정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수암산(水岩山, △518, 속칭 숲데미산)은 997번 도로를 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69고지-소학산-동석동 접근로를 제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유학산(遊鶴山, △839)은 안동에서 대구에 이르는 5번 국도와 상주에서 대구에 이르는 25번 국도를 제압할 수 있어 북한군으로부터 대구를 방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술적인 요충지이다. 수암산 일대에는 316고지, 369고지를 비롯한 다수의 고지들이, 유학산 일대에는 674고지, 517고지, 837고지를 비롯한 다수의 고지들이 산재한 산악지대이다. 316고지는 수암산 정상 남쪽 8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674고지는 유학산 제2봉인 837고지에서 동남쪽 능선으로 연결된 고지로서 다부동 북쪽 1.7km 지점에 위치하며, 517고지는 유학산 주봉인 839고지 남쪽 1km 지점에, 837고지는 유학산 제2봉으로 주봉의 동쪽 1.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국군 제1사단이 낙동강 연안에서의 전투를 종결짓고 12일 야간에 다부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어선으로 이동하였을 때는 이미 북한군이 수암산과 유학산을 선점하고 있었다. 국군 제1사단은 8월 13일 다부동지역에 집결한 후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하여 제15연대가 328고지 일대, 제12연대가 수암산과 유학산 일대, 제11연대가 신주막 일대로 진출하였다. 북한군도 13일에 제3사단 일부 병력이 약목 일대에서 도하하여 328고지로 공격하고, 제15사단이 국군 제1사단보다 먼저 유학산에 진출하였으며, 제13사단은 다부동 접근로상에 있는 제11연대 방어의 674고지를 선점하였다. 국군 제1사단의 제12연대는 8월 13일에 다부동 일대에 집결하여 제1대대를 유학산, 제2대대는 수암산에, 제3대대는 예비로 517고지를 점령하고자 하였다.

한편, 제2대대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69고지 공방전을 치르는 동안 전투력이 약화되어 재편성을 하였다. 8월 12일 야간에는 철수하는 제3대대를 엄호한 다음 제6중

대를 수암산에 잔류시키고, 대대 (-)는 망정리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제1대대는 674고지 맞은편의 517고지 하단에 병력을 배치하고 지형을 정찰한 후 다음날인 8월 14일에 공격하기로 하였다. 8월 14일에 제1대대는 2개 중대로 원정 부근에서 2차에 걸친 공격으로 674고지를 탈환하였으나 유엔 공군기의 오폭으로 북한군에게 다시 고지를 빼앗겼다. 제2대대는 수암산에서 369고지를 공격하여 저녁 때까지 근접전을 수행하였다.



8월 15일에 제1대대는 674고지에 대하여 3차 공격을 하였으나 북한군 2개 대대의 반격으로 철수하고 제11연대 제3대대에게 다시 674고지 공격임무를 인계하였다. 16일에는 원정동에서 837고지를 공격하여 북한군 1개 대대 규모를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때 제2대대는 수암산 일대에서 북한군의 반격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는 유학산의 진지를 보강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이날 야간에 유학산의 병력을 증원하여 진지를 보강하였으므로 제1대대는 항공지원을 받아 17일에 유학산을 다시 공격하였다. 제2대대는 16일과 17일에 걸쳐 369고지를 공격하였으나 목표 점령에 실패하였다.

8월 18일에 제1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여 박격포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북한군 진지 가까이 도달하였으나 이날은 유엔 공군기의 오폭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날부터 대대관측소에 미군 전방항공통제관이 파견되었다. 8월 19일에도 제1대대는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유학산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 제15사단은 8월 20일에 제13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8월 21일에 제12연대 제3대대는 연대에 배속된 제10연대 제3대대의 엄호 하에 공격을 개시하였고 주봉 남쪽의 절벽지대로 침투하여 주봉을 점령하였다. 제1대대는 8월 23일에 837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제1대대는 9회에 걸친 백병전과 천여명의 손실 끝에 8일 만에 목표를 탈취하였다.

한편 좌측의 제3대대도 8월 23일에 유학산 주봉인 839고지를 탈환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와 제3대대가 유학산에서 연결된 방어진지를 구축함으로써 제12연대는 비로소

유학산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8월 25일에 연대특공대가 316고지를 탈환한데 이어 오후에는 수암산의 6~7부 능선까지 진출하였다. 제2대대(-)는 25일 밤 가듬이재(사곡동에서 성곡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진출해 수암산 능선 북쪽으로 진출하여 513고지를 점령하였다. 제2대대는 26일과 27일에 걸쳐서 수암산 일대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하여 28일에 수암산의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이로써 제12연대의 수암산-유학산 전투는 종결되었다.

### 결과 및 영향

제12연대는 수암산-유학산 일대의 9km에 달하는 넓은 정면을 담당하여 공격 위주의 치열한 전투를 치루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되었지만 사단의 주저항선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8월 30일에 국군 제1사단은 방어지역에 대한 임무를 미 제1기병사단에게 인계하고 대구, 하양을 거쳐 신녕으로 이동하였으며, 제12연대는 다시 신계동으로 이동하였다. 제1사단은 방어선상의 가장 중요한 지형인 수암산-유학산을 북한군에게 선점당하여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탈환하였고, 마침내 다부동 전선을 방어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다부동전투』, 1981.  
 제2군사령부, 『2군 지역 전사』, 1995.  
 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韓國戰亂1年誌』, 1951.



【박종상 집필】

## 다부동 전투

[多富洞 戰鬪, 1950. 8. 13.~28.]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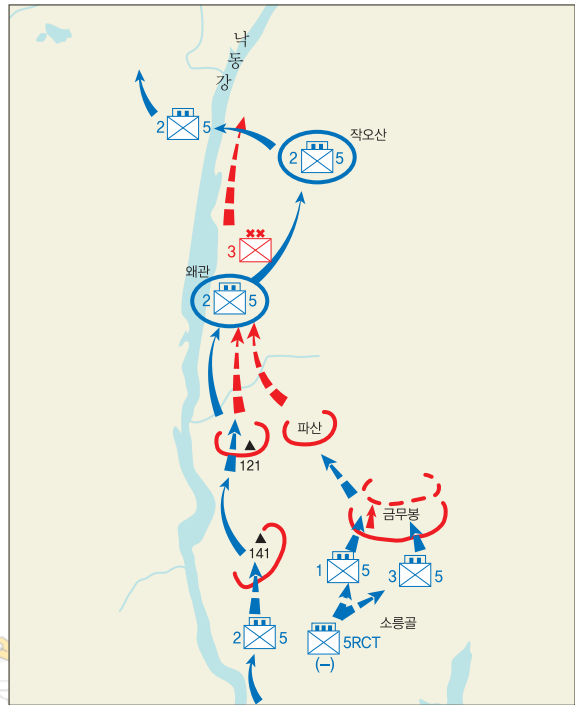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과 가산면 다부동(現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일대에서 북한군 제1·제13·제15사단 및 제105전차사단의 공격을 저지하여 대구방면의 위기를 해소한 성공적인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은 대구 방어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다부동은 대구 북쪽으로부터 22km에 위치하며, 상주와 안동에서 대구에 이르는 5번 및 25번 도로

가 합쳐지고 왜관에 이르는 997번 지방도로의 시점이 되는 교통의 요지였다. 다부동을 중심으로 북서쪽에는 유학산(△839)이 북쪽을 향하여 횡격실을 이루고 있고, 그 동쪽에는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가산(△902)이 있어 방어에 유리하였다. 그러나 이 방어선이 돌파되면 10km 남쪽의 도덕산(△660) 일대까지 철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구가 북한군 포병사격의 사정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북한군은 1950년 8월 부산과 대구로 통하는 고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 공격에 투입된 5개 사단 중 제1사단, 제13사단, 제15사



단과 제105전차사단을 대구 축선에 집중시켜 공격하였다. 이에 따라 아군은 왜관~낙정리 일대에 국군 제1사단, 낙정리~의성 일대에 국군 제6사단, 현풍~왜관 일대에 미 제1기병사단 등 3개 사단을 배치하였다. 북한군은 다부동 지역의 국군 제1사단, 효령 지역의 제6사단, 그리고 왜관 지역의 미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 일제히 대구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당시 국군 제1사단은 좌측의 제15연대가 왜관 북쪽 5km 지점에 위치한 전술적 요충지인 328고지에서 북한군 제3사단과 13일부터 쟁탈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중앙의 제12연대가 북한군 제15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유학산을 탈취하기 위해 14일부터 공격을 반복하고 있었다. 우측의 제11연대는 14일 오후부터 시작된 북한군 제13사단의 공격으로 15일 아침에 저지진지 후방 3km 지점인 진목동(다부동 동북방 4km)으로 철수한 상태였다.

8월 15일을 전후로 대구 북방의 위기는 절정에 달하였다. 국군 제1사단 우측의 국군 제6사단은 좌측의 제7연대가 15일 오전에 북한군 제1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한때 봉산 남서쪽 3km 지점인 373고지를 피탈당하기도 했지만, 포병과 항공화력의 지원 아래 원진지를 회복한 후 혈전을 거듭하였다.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을 받은 제2연대와 제19연대도 큰 피해를 무릅쓰고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다. 왜관 지역을 담당하던 미 제1기



병사단은 좌측의 제7기병연대가 14일 새벽에 낙동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10사단의 공격을 받고서 포병과 항공화력의 지원 아래 이를 격퇴하였으나, 우측의 제5기병연대가 수중교를 이용해 도하한 북한군 제3사단 병력과 작오산(△303) 일대에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대구 전선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미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북한군 집결지인 왜관 일대에 대한 융단폭격을 지시하였다. 국군 제1사단 방어정면의 낙동강 서안 5.6×12km 지역이 표적으로 선정되었다.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8월 16일 B-29폭격기 98대를 출격시켜 960톤의 폭탄을 표적지역에 투하하였다.

융단폭격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점령하려는 북한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북한군은 제13사단을 투입하여 국군 제1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다부동 서쪽을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시켰다. 아울러 제1사단과 제8사단을 군위와 의성 축선으로 공격하도록 하면서 일부 병력을 다부동 동쪽 가산으로 진출시켜 다부동을 포위하려 하였다. 따라서 미 제8군사령관은 군사령부 예비인 미 제25사단 제27연대를 8월 17일 다부동지역에 투입하였다.

또한 미 제8군사령부는 8월 19일 미 제2사단 제23연대를 후방인 두전동에 배치하여 방어중심을 증가하고, 육군본부에서도 제8사단 제10연대를 제1사단에 배속시켜 가산 일대에 배치하였다. 다부동 정면에서는 이날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국군 제1사단과 미 제27연대가 역습을 감행하였으나 전선을 돌파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9월 공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유학산 일대에 전개한 제15사단을 영천 방면으로 전환시켜 8월 20일의 다부동 전선은 잠시 소강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다부동전선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국군 제1사단과 미 제27연대는 진목동에서 신주막에 이르는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 협동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8월 21일 밤 북한군이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우고 신주막-다부동 접근로의 양측 능선을 따라 각각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하고, 5번 도로를 따라 보·전 협동부대로 미 제27연대 정면에 주공을, 국군 제11연대 정면에 조공을 지향하여 공격해 왔다. 미 제27연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군의 보병과 전차를 분리시킨 후 가용한 전차를 동원해 전차전을 전개하였다.

다부동 접근로의 좁은 골짜기에서 미군과 북한군의 전차전이 전개됨에 따라 장병들은 전차 포탄이 어둠을 뚫고 좁은 계곡의 도로를 따라 상대방의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곧장 날아가는 모양이 마치 볼링공이 핀을 향하여 재빠르게 미끄러져 나가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볼링장(Bowling Alley) 전투'라고 불렀다. 이날 밤 미군은 야포 1,661발을 비롯해 4.2" 박격포 902발, 81mm 박격포 1,200발, 60mm 박격포 385발 등의 화력지원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다음 날(22일) 아침, 미군 정찰대는 진전에서 파괴된 북한군

전차 9대와 자주대전차포 4문, 그리고 여러 대의 차량과 1,300여 구의 북한군 시체를 확인하고 포로 11명도 획득하였다. 이로써 대구를 목표로 다부동으로 공격하던 북한군은 약 75%의 병력이 손실된 채로 진출을 포기하고 철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는 그동안 8차례의 공격 끝에 이날 밤 야간기습을 통해 유학산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8월 23일 북한군 제1사단 제1연대는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가 지키고 있던 741고지를 점령하고 일부 병력이 가산까지 침투하여 제11연대 지휘소와 미군 포병진지를 공격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은 미 제27연대와 ‘볼링장 계곡’에서 반격을 실시하여 신주막까지 진출하고, 국군 제10연대와 미 제23연대는 우인점 국군 제6사단에 배속된 독립기갑연대와 더불어 공격작전을 전개하여 가산 일대에 침투한 북한군을 격멸하고 741고지를 재탈환하였다. 8월 28일에는 수암산을 피탈 10일 만에 탈환하였다. 이로써 다부동 동측방의 위협은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국군 제1사단은 당초 ‘최후 저지선’으로 설정했던 328고지-수암산-유학산-741고지를 잇는 방어선을 회복하고 북한군을 내려다보면서 방어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 3개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328고지-수암산-유학산-741고지 방어선을 확보하고 다부동-대구 접근로를 방어하여 대구 방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대구 북방의 다부동전선이 안정되고, 8월 말에 미 제2사단 병력 전부가 미국 본토로부터 증원되자 미 제8군사령부는 미군 방어정면을 넓히고 국군의 방어정면을 좁히는 조치를 취하여 다부동 지역을 미 제1기병사단이 담당하도록 전선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1사단을 가산에서 신녕-의성 사이의 도로까지 12km의 팔공산 기슭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냄에 따라,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북한군의 공격의도를 좌절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북한군은 이 전투에서 전력을 상당히 소진하여야 했고 이는 이후 전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다부동전투』, 1981.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작오산 전투

[鵲烏山 戰鬪, 1950. 8. 14.~17.]

### 개요

미 제1기병사단 제5기병연대가 1950년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에 위치한 작오산 일대에서 낙동강을 도하하여 왜관을 위협하며 남하하는 북한군 제3사단 예하부대를 격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일대에 위치한 작오산(鵲烏山, △303)은 왜관 철교 북동쪽에 위치한다. 작오산은 왜관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고지이며 남쪽은 왜관 시내를 향해 경사졌고 서쪽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작오산은 왜관 일대를 감제할 수 있고 경부국도의 교량과 철교를 통제할 수 있는 지형으로 방어에 매우 중요한 고지이다.

왜관 동북쪽에서 북한군 제3사단이 수증가도를 이용하여 낙동강 도하를 기도하고 있었다. 8월 14일 야간 북한군 제3사단의 연대 규모 병력이 왜관 북쪽 10km 지점에서 수증가도를 이용하여 도하한 뒤 국군과 미군과의 전투지경선 북쪽에서 국군 제1사단을 공격하여 왔다. 그러나 8월 15일 아침 미군 전폭기가 북한군이 설치한 수증가도를 폭파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은 수증가도가 폭파되자 남쪽으로 공세를 확장하였으며 작오산 정상에 배치된 미 제5기병연대 G중대와 H중대의 박격포소대가 북한군으로부터 포위되었다. 8월 16일 미 제5기병연대는 즉시 작오산 정상 주변에 있는 북한군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미 제61포병대대와 제82포병대대 B포대까지 투입하여 하루종일 북한군을 포격하였다. 미 제5기병연대 G중대는 이튿날 이용하여 작오산에서 철수하였으나 고지 정상에 있던 H중대의 박격포소대는 미처 철수하지 못하고 소대원 26명 모두 북한군 포로가 되었다. 후에 미군이 작오산을 탈환했을 때에는 소대원 전원이 손이 뒤로 묶인 채 사살되어 있었다.

8월 17일에 미 제5기병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제70전차대대 A중대의 지원을 받으며 작오산을 공격하였으나 북한군의 박격포 사격으로 저지되었다. 왜관 근교에서 공격을 중지하고 즉시 화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미 제61포병대대가 1,159발의 포탄을 적진에 집중 포격하였고, 오후에는 항공기가 출격하여 공중폭격을 집중하였다. 미 제5기병연대는 치열한 공중공격과 포사격 직후 즉시 공격을 재개하여 303고지를 탈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미 제5기병연대는 왜관일대에서 낙동강을 도하하여 공격하던 북한군제3사단 일부 부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였다. 이 전투 직후 유엔군사령관은 8월 20일에 미 제5기병연대 H중대 박격포소대원에 대한 북한군의 비인도적이고 잔악한 학살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8월 28일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포로 대우에 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는 모든 포로에 대한 살상을 엄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쟁 중 북한군의 비인도적인 처사는 계속되었다. 한편 미 제1기병사단 정면에서는 그동안 많은 손실을 입은 북한군이 접촉을 단절함으로써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다부동전투』, 1981.

제2군사령부, 『2군 지역 전사』, 199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군위-의흥 지역 전투

[軍威-義興 戰鬥, 1950. 8. 1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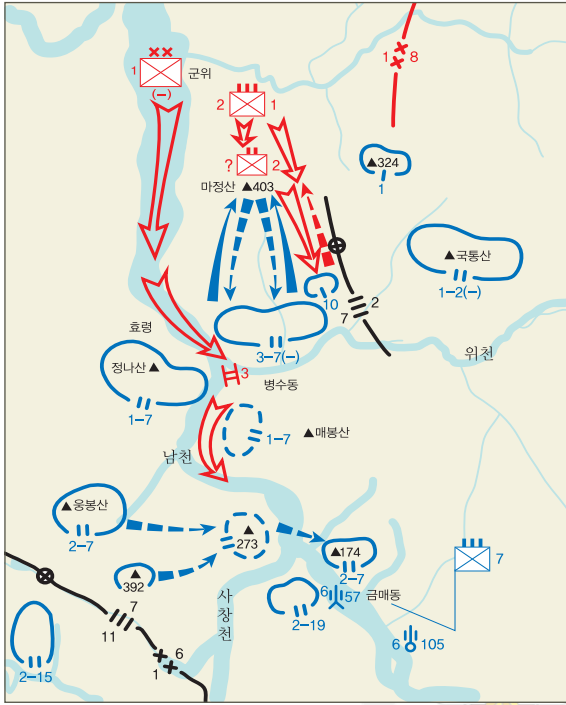
## 개요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8월 15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의 군위 및 의흥 일대에서 대구를 조기에 점령하기 위해 공세작전을 감행하던 북한군 제1사단을 조림산을 연하는 북쪽지역에서 저지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국군 제6사단의 방어지역은 경상북도 신녕(대구 동북쪽 32km)을 중심으로 군위군과 영천군 신녕면, 의성군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대봉산, 선암산, 492고지, 화산, 팔공산 등 해발 400~1,100m 높이의 고지군으로 형성된 산악지대로 지형의 기복이 심하다. 위천을 제외한 지대 내 나머지 하천은 장애물로서의 이용가치는 없었다. 교통망은 도로 4개와 중앙선이 남북으로 작전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작전지역 내로 통하는 철로와 도로망은 아군 작전에 매우 유리하였다.

연대 규모 병력의 북한군 제1사단이 낙동강을 도하하여 군위를 점령한 다음, 군위-의



흥 사이의 산악지역을 이용한 기습작전으로 대구를 점령하고자 하였다. 당시 방어정면의 북한군 제1사단은 전차로 증강되어 아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8월 13일, 국군 제6사단은 용기동 부근에서 지연전을 계속하면서 오위동-현산동-318고지를 연하는 선에서 방어하던 중 인접한 국군 제1사단 및 제8사단과 협조하여 도원리, 군위, 의흥을 경유하여 매봉산과 산운동 일대로 철수하여 진지를 편성하였다. 8월 15일 이른 아침에 안동을 떠나 군위에 집결한 북한군 제1사단은 국군 제7연대 정면을 일제히 공격하여 효령을 점령하고 제2대대가 배치된 건너편의 273고지로 진출하였다. 제14연대의 일부 병력이 가산산성까지 침투하였지만 매봉산을 점령하지 못하고 국군 제7연대의 방어지대를 돌파하지 못하였다. 8월 16일 새벽, 북한군 제1사단 제14연대가 365고지를 공격하여 국군 제7연대는 365고지 동쪽 금매동 일대로 후퇴하였다.

한편 유엔 공군에 의해 전 전선의 북한군이 제압된 가운데, 포항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었던 민부대(민기식 대령)와 기계-안강전투에 참여한 후 대구에서 재편성 중이던 제5연대와 기갑연대가 제6사단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기갑연대 제1대대가 558고지 점령에 실패하자 국군 제2군단은 제1사단 우측방 방어정면을 약 2km 축소해 사창천 계곡 일대를 제6사단이 담당하도록 조정하였다.

8월 22일, 국군 제5연대 제2대대는 매곡동에서 527고지로 철수하였으며, 매봉산(△488)에서 물러난 국군 제7연대 제3대대는 유엔 공군의 지원을 받아 다시 고지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2연대 제1대대는 북한군 제81연대의 공격으로 매봉산 남쪽 능선으로 철수하였다. 8월 23일, 국군 제7연대는 효령 방면에서 공격해 오는 북한군 제1사단 1개 연대를 격퇴하였지만, 사단 서측방을 담당하고 있던 기갑연대는 일진일퇴 공방전으

로 북한군에게 매봉산을 빼앗겼다. 국군 제7연대 제3대대가 매봉산을 공격하여 탈환하고, 제19연대도 반격전을 감행하여 북한군 제1사단을 격퇴하였다. 이후 북한군 2개 연대가 국군 제2연대 정면으로 공격하여 국군 제2연대는 의성동 일대로 후퇴하고 연대지휘소는 운산동에 설치하게 되었다. 제19연대도 북한군 제8사단 제83연대의 공격을 받아 제2대대장이 전사하고 제3대대장이 부상을 당하는 등 많은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6사단은 주저항선을 370고지-갑령-화산을 연결하는 선에 설치하고 방어지대를 재편성하였고, 사단 방어지역의 좌측 일부를 국군 제1사단에 인계하였다.

한편 8월 27일에 국군 제5연대 제1대대는 365고지를 재탈환하였으며, 국군 제7연대 제1대대는 매봉산 동측방 1km 지점으로 이동 배치하였다. 국군 제5연대 제1대대는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과 492고지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318고지로 철수하였으나, 제2대대는 북한군과 교전하여 격퇴하였다. 국군 제2연대의 제1대대는 미성동 동남쪽 능선에서 북한군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6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1사단은 주야간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국군의 완강한 저항과 반격, 그리고 유엔 공군에 의해 병력 손실이 증가하자 공격력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피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군 제1사단은 많은 전투력을 상실하고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8월 23일 이후 야간작전 위주로 전환하였다. 군의-의흥 전투 이후 국군 제6사단은 북한군 주공이 투입된 의흥-갑령 축선에서 마지막 결전을 전개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제2군사령부, 『2군 지역 전사』, 1995. 4.

【박종상 집필】



## 비학산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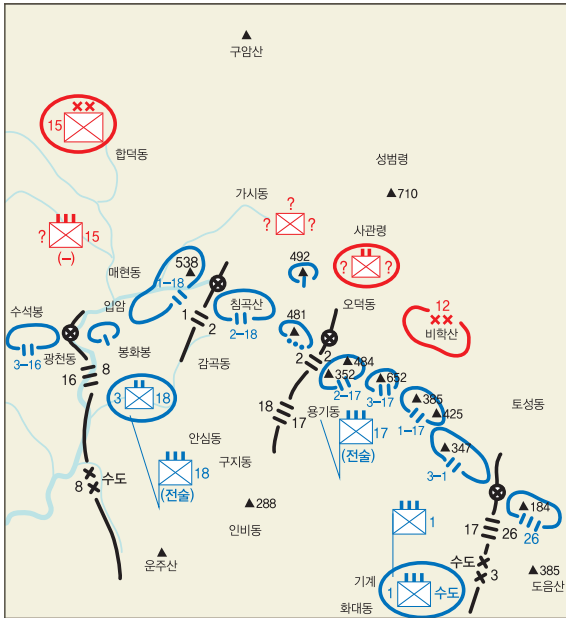
[飛鶴山 戰鬪, 1950. 8. 18.~26.]

### 개요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이 1950년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방에 위치한 비학산(飛鶴山, △762) 일대에서 기계 전투 이후 비학산 일대로 퇴각하여 부대를 재편성한 북한 제12사단과 수행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북한군 제12사단은 1950년 8월 14일부터 전개된 국군 제1군단과의 기계 전투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비학산 지역으로 퇴각하였다. 이후 북한군은 제12사단과 유격부대인 제766부대를 재편성하여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였다. 즉, 제766부대를 해체하여 그 병력(1,500명)을 제12사단에 분배하고 신병 2,000명을 보충받아 총 병력 5,000명으로 제12사단을 재편성하였다.



8월 20일, 국군 수도사단은 전과확대와 차기 작전의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18연대를 좌일선, 제17연대를 우일선으로 각각 전개하고 제1연대를 예비로 편성하여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제18연대는 516고지-538고지-492고지 선으로 순조롭게 진격하였으나, 제17연대는 공격 초기부터 방어에 유리한 중요지형상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북한군에 의해 많은 병력손실이 발생하면서 사단 좌일선의 18연대보다 뒤쳐져 측방이 노출되었다. 사단 예비인 제1연대도 단구동 부근 도

음산에 대한 공격에 나섰으나 실패하여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화봉리 일대에 집결하였다.

8월 23일, 제17연대는 많은 병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학산을 공격했으나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고 제18연대와 의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기계 북쪽 2km 지점의 345고지까지 후퇴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제18연대는 계속된 북한군의 압력으로 현 전선의 남쪽 약 2km 지점으로 후퇴하여 북한군 남하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공격으로 제18연대의 방어선이 와해되어 350고지-369고지-대곡동 선까지 후퇴해 방어진지를 급편하였다. 또한 8월 25일에는 주저항선상의 우인점부대인 제3사단 제26연대도 도음산 전방에 방어진지를 편성했으나,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실패하고 후퇴하여 도음산 정상을 중심으로 8부 능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결국 국군 제

1군단은 북한군 제12사단이 예상외로 완강하게 저항하고, 비학산을 목표로 공격중인 제17연대의 피해가 속출하자 좌우 인접부대간에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함에 따라 수도사단의 공격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수도사단은 8월 18일 기계를 탈환한 이후 계속하여 비학산 점령을 시도함으로써 일선 방어선은 우로부터 단구동-625고지-오덕동-725고지를 연하는 선까지 확보하였다. 하지만 부대 재편을 완료한 북한군 제12사단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 국부적인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선이 단구동-현내동-인비동-지가동 선까지 수축되었다. 이로써 국군이 본래 계획했던 비학산 점령기도는 실패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19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국군 수도사단 전투상보』(41).

【박종상 집필】



## 안강 전투

[安康 戰鬥, 1950. 8. 27.~9. 13.]

### 개요

국군 수도사단이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의 공격을 저지하여 안강 남쪽 주저항선을 회복하고 공세로 전환할 수 있었던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은 포항과 기계 사이에 위치하여 북한군에게 피탈될 경우 인접한 포항과 경주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국군은 북한군으로부터 안강을 반드시 방어하여야만 하였다. 비학산 일대에서 병력보충과 부대를 재편성한 북한군 제12사단은 8월 24일에 기습적인 야간공격을 개시하여 수도사단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후 기계를 점령하였다. 이후 미 제8군 '잭슨(Jackson) 특수임무부대'의 지원을 받아 국군 제17연대가 기계를 일시적으로 탈환하였으나 다시 북한군에게 피탈되었다.



기계를 점령한 북한군은 9월 2일에 일제히 공격(9월 공세)을 개시하였다. 전차를 선두로 기계-안강 도로를 따라 주공을 투입한 북한군 제12사단은 일부 병력이 제18연대를 우회 공격함으로써 국군 수도사단의 좌측 방어선이 돌파되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1군단장은 전선을 재편성하고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수도사단 우측 제1연대를 형산강 이남의 호명리 선으로, 중앙부대인 제17연대를 갑산리 선으로, 좌측부대인 제26연대를 경주로 이동하도록 명령하였다. 국군의 철수로 안강을 점령한 북한군 제12사단은 증강된 1개 연대로 구련봉을 점령하고 일부 병력은 경주 북서쪽 5km 지점의 안태봉과 소현동, 구미산까지 침투해 경주를 위협하였다.

한편 국군 제1연대는 북한군 제12사단이 이미 안강을 점령한 이후이기 때문에 퇴로가 차단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1연대는 호명리 남쪽 2km 지점의 모서동으로 철수하기 위해 호명리에 집결하였다. 호명리는 주변 일대를 통제할 수 있는 낙산이 북쪽에 위치하고, 형산강이 고지 서쪽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감돌고 있어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었다. 따라서 국군 제1연대는 호명리와 낙산에 전면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성주봉 남쪽 기슭과 낙산 동쪽 3.5km 지점의 부조나루터에서 형산강을 도하하는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수도사단이 무릉산-곤계봉-호명리 선으로 철수하자 북한군 제12사단은 주력을 안강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포항지역 북한군 제5사단과 함께 경주지역을 점령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24사단은 경산에서 이동하여 경주에 집결하여 잭슨 특수임무부대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처치(Church) 특수임무부대'로 개칭하였다. 수도사단은 무릉산과 곤계봉간 약 5km 정면에 기갑연대, 제3연대, 제17연대를 배치하고 처치 특수임무부대는 곤계봉 남쪽 2km 지점의 무명고지에 미 제17연대 제3대대를 배치하여 방어중심을 증가시켰다. 수도사단과 북한군 제12사단은 남북간 거리가 2.5km, 동서간 폭이 2km인 곤계봉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결국 9월 13일에 국군 수도사단 제17연대가 안강지역에서 최대격전지였던 곤계봉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여 국군은 안강 남쪽 주저항선을 회복하고 공세로 전환할 수 있었다.

### 결과 및 영향

총공세를 위한 공격의 발판을 확보한 동부전선 북한군은 9월 2일에 일제히 공격을 재개해 안강을 점령하고 일부 병력은 경주 북서쪽 4~5km 지점까지 육박함으로써 동부전선엔 최대의 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국군 수도사단은 안강 지역에서의 최대 격전지였던 곤계봉을 탈환하여 북한군 제12사단의 낙동강 전선 동부지역 돌파작전은 실패하

였다. 안강 전투에서 근계봉을 확보함으로써 국군 제1군단은 공세 이전의 전기를 마련하여 기계와 포항지역 북방으로 후퇴한 북한군을 추격하고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1986.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HQS, Korean Army, Periodic Operations Reports, Korean Army, No. 129, (1950. 8. 27.)

【박종상 집필】

## 가산-팔공산 전투

[架山-八公山 戰鬪, 1950. 8. 30.~9. 14.]

### 개요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경상북도 칠곡군 일대의 가산-팔공산에서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1사단의 9월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1950년 8월 초부터 왜관-다부동 지역에서 대구를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을 계속하던 북한군 제2군단은 8월 말에 이르러 험준한 산악지대로 침투하여 우회공격을 준비하였다. 따라서 북한군 제2군단은 효령 일대에서 다부동으로 남하 중인 북한군 제1사단을 가산-도덕산과 대울동-팔공산선으로 진출시켜 그 동쪽의 북한군 제8사단과 협동으로 대구 외곽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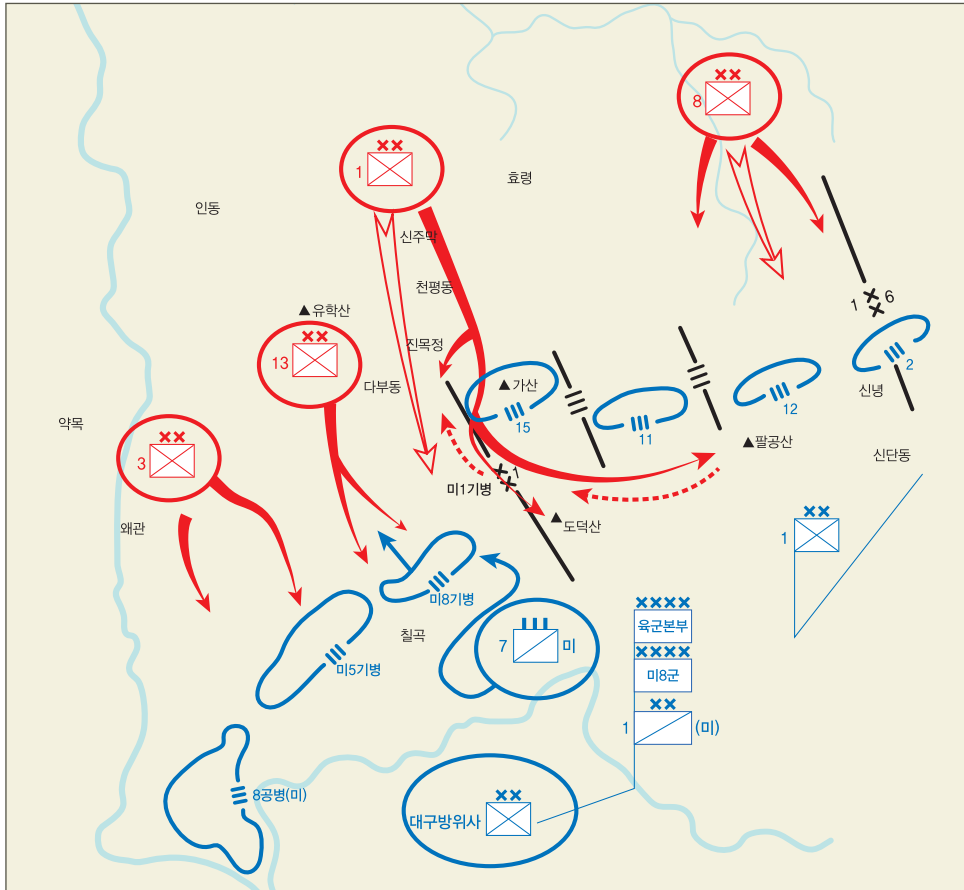
8월 30일 국군 제1사단은 다부동 전선의 동쪽으로 이동하여 국군 제6사단 지역의 일부와 제5연대 및 기갑연대가 담당하고 있던 팔공산(八公山, △1193)과 가산(架山, △902) 지역에 대한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국군 제11연대와 제12연대가 배치된 가산 서북지역 일대에는 558고지, 527고지, 655고지, 381고지, 그리고 318고지 등이 산재해 있으며, 제15연대가 방어편성 중인 팔공산 지역 일대에는 583고지, 756고지, 783고지 등이 산재해 있다.

국군 제1사단은 8월 31일에 제6사단 지역인 신녕 부근으로 이동한 후 방어진지를 인수할 준비를 하였다. 사단 예하의 제11연대와 제12연대는 가산 동북지역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한 제5연대와 기갑연대 그리고 제7연대의 방어진지를 인수할 준비를 하였다. 그

러나 제11연대가 인수할 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던 제5연대와 기갑연대 지역 내의 558고지와 527고지 그리고 655고지가 30일 밤부터 시작된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으로 점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제11연대는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제5연대, 기갑연대와 함께 공격을 개시하였다. 한편 제12연대는 제7연대의 방어진역을 계획대로 인수하여 전선을 유지하고 신녕으로 이동한 후 사단예비가 되었다.

기갑연대는 제11연대 제2대대의 지원을 받아 558고지를 공격하여 탈환하고 제11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신녕으로 이동하였으며, 제5연대 제2대대는 655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제11연대 제1대대는 북한군 제1사단의 야간 기습공격을 받고 381고지에서 318고지로 이동함으로써 우측에 배치되었던 제12연대 제1대대가 적의 위협을 받게 되었으나 예비



인 제2대대의 증원을 받아 이를 격퇴하였다. 그러나 제11연대는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을 받고 제2대대가 538고지로 이동하였으며, 제1대대는 원진지인 318고지로 다시 복귀하였다. 제12연대는 370고지를 점령하여 진지보강 작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제5연대 제2대대는 제11연대 제3대대의 화력지원을 받아 527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제11연대 제3대대에 인계한 후 신령을 거쳐 대구로 이동하였다.

북한군 제15사단이 중부전선의 제8사단을 돌파하여 영천을 점령함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은 전반적으로 전선을 조정하고 새로운 방어선(583고지-팔공산 북쪽-317고지)을 점령하였다. 이 때 제12연대는 지휘소를 제6사단 제2연대 및 제7연대의 지휘소와 함께 신령에 위치하였으며, 제1사단 지휘소는 하양 북쪽의 덕촌동에 설치하였다.

9월 6일 북한군 제1사단은 대구에 이르는 최단 접근로에 주력을 투입한 가운데 일부 병력이 583고지로 침투하여 가산 부근에서 중리를 향해 남진하였다. 그러나 제15연대 제1대대가 남진하고 있는 북한군을 격퇴하고 583고지를 점령하였다. 미 공군과 사단 제17포병대대의 화력지원으로 북한군은 공세행동을 하지 못하였다.

국군 제1사단 정면의 북한군 제1사단은 7일과 8일에 공세행동 없이 정찰활동만 실시하다가, 9일에 팔공산 북쪽에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도덕산(△660) 일대에서 제15연대에 의해 격퇴되었다. 이날 제15연대는 연대지휘소를 중리에서 2km 남쪽에 위치한 '매골'로 이동하였고, 제12연대도 연대지휘소를 신령 부근의 왕산동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북한군 제1사단은 군단으로부터 1,200여 명의 병력을 증원받아 대구 동촌(東村)비행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국군 제15연대(-)와 제11연대(-)가 도덕산을 탈환함으로써 진출에 실패하였다.

이때부터 이 지역에서의 전투는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9월 13일 국군 제11연대 제1대대는 인접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와 함께 756고지 부근에서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583고지를 방어하던 제15연대 제1대대는 포병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고지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국군 제1사단은 9월 13일에 국군 제2군단으로부터 소속이 바뀌어 미 제1군단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작전은 계속 수행하였다. 제11연대 제1대대는 적이 장악하고 있는 756고지를 야간에 기습 공격하여 탈환하였다가 다시 적의 역습을 받고 빼앗겼다. 제15연대 제1대대는 14일 783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제11연대 제1대대는 다음날인 9월 15일 미군 전폭기와 포병지원사격을 받으며 756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가산산성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북한군 제1사단의 대구 동촌비행장을 점령하려는 의도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사단은 대구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1사단에 맞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가산과 팔공산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전투에서 북한군 제1사단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 재기불능에 빠진 상태가 되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단행된 낙동강 방어선의 총반격명령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은 팔공산 지역에서 북한군을 추격하여 가산 부근을 탈환한 후 다부동 지역의 미 제1기병사단과 협조하여 9월 22일 이 지역에서 북진의 돌파구를 만들었다.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8월 3일 청계동-낙정리에 진출한 이후부터 8월 30일 미 제1기병사단에 진지를 인계할 때까지의 전과 및 손실이 정확하게 집계된 기록은 없지만 북한군은 약 1만7,500여 명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아군도 1만여 명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다부동전투』, 1981.

제2군사령부, 『2군 지역 전사』, 1995.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조림산 전투

[烏林山 戰鬪, 1950. 8. 30.~9. 4.]

## 개요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조림산(烏林山, △638) 일대에서 대구를 우회 공격하는 북한군 제8사단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방어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북서쪽 10km 지점의 표고 200~400m 야산지대 중앙에 위치한 조림산은 사방 10여km 지역의 감제와 중앙선 및 28번 도로의 통제가 가능하며, 남서쪽으로 뻗은 능선이 화산과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이곳은 신녕 방어를 위한 중요한 전술적 요지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주공이 지향된 다부동-효령 일대에서 돌파계획이 좌절되자, 의흥-신녕 축선에 투입된 북한군 제8사단에 전차부대를 증원하였다. 병력은 편제

의 약 70%인 7천여 명이었다. 그러나 북한군 제8사단은 경북 의성과 의흥 등지에서 국군 제6사단과의 전투로 국군과 미 공군에 의해 많은 손실을 입어 의흥을 거쳐 대구를 우회공격하려 기도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신녕 북쪽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준비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예하의 3개 연대(제2·제7·제19연대)와 제7사단의 제5연대(-1) 및 기갑연대(-1) 등 5개 연대로 동서간 32km의 산악지역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방어정면의 조정으로 운산동-화산에 이르는 15km의 정면을 담당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병력 6,5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속된 제5연대와 기갑연대를 포함한 전체병력은 약 8,500여 명이었다.

8월 28일에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와 제19연대를 재배치한 후 화산탈환작전을 전개하였고, 조림산을 점령한 적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상동-갑령간 5km 지역에 4개 대대를 배치해 조림산을 서쪽과 남쪽에서 포위하는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제19연대 제3대대와 배속된 제15연대 제2대대를 투입하여 조림산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8월 30일에 제2연대 우측의 제19연대 제3대대가 조림산 부근 경사면에서 월산 부근의 동남쪽 경사면에 배치된 제1사단 제15연대 제2대대와 함께 방어하고 있었다. 또한 신녕 지구로 이동하고 있던 제15연대 제1대대는 530고지에, 제3대대는 모고산(△558) 일대에 집결하여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7사단 제8연대 제2대대는 괴산동 부근 고지 일대에서 화산 부근으로 침입을 기도하는 북한군에 대비하고 있었다. 방어선에서는 국군 제2연대가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8월 31일에 제19연대 제3대대와 제15연대 제2대대가 조림산 탈환전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고 조림산 남쪽으로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한 후 다시 반격하였다.

9월 3일에 북한군 제8사단은 화산, 조림산 지구의 국군 제19연대 정면에 전차 12대를 선두로 대병력을 투입하여 전면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국군 제2연대 제1대대 및 제2대대는 우측방에 대한 북한군의 위협으로 무암동 서북쪽 일대 및 무암동 일대를 점령하여 조림산 부근에서 북한군의 측방 위협 행동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제19연대 3대대와 제15연대 2대대는 새로 증원된 제7연대 3대대와 함께 조림산에서 남하하고 있던 북한군을 타격하고 조림산을 향해 추격전을 전개하였다. 이어 북한군이 전 전선에서 공세행동을 시작하자 미 제5공군 전폭기 편대의폭격으로 북한군은 많은 병력 손실과 전차 3대와 야포 3문 등의 피해를 입었다. 9월 4일, 국군 제6사단 전면의 북한군 제8사단은 많은 손실을 입고 진출이 저지되었다.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국군 제19연대 1대대는 화수동 깊숙이 은폐되어 있던 북한군 전차 8대를 발견하여 특공대를 조직하여 모두 파

괴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 결과 및 영향

8월 말부터 북한군 제8사단은 인접한 북한군 제13사단 및 제15사단과 함께 신녕 지구를 돌파한 다음 대구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최후의 총공세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6사단이 대구 외곽선을 사수함으로써 북한군의 진출은 저지되었다. 북한군 제8사단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전투능력을 상실하였다. 이후 미 제8군사령부와 육군본부는 9월 6일 총반격작전계획을 완성하였다. 국군 2개 군단은 태백산을 중심으로 동서 양측방에서 병진해 퇴각하는 북한군을 섬멸하고 38도선으로 진격하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제6사단은 신녕-도원동-함창-예천 축선으로의 진격을 담당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신녕·영천전투』, 1984.  
제2군사령부, 『2군지역전사』, 199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박종상 집필】

## 창녕 전투

[昌寧 戰鬥, 1950. 8. 31.~9. 9.]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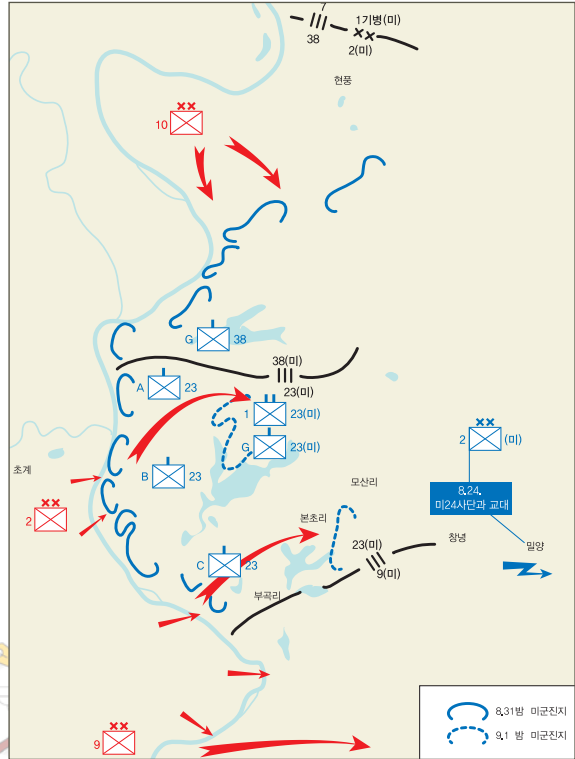
미 제2사단과 미 해병 제1여단이 1950년 8월 31부터 9월 9일까지 경상북도 창녕군의 낙동강 돌출부 지역에서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창녕군 일대의 낙동강은 동으로 굽어져 남강과 합류하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0km 거리에 있는 영산 맞은편에서 서쪽으로 굽어 넓은 반원형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미군은 이곳을 ‘낙동강 돌출부(Naktong Bulge)’라고 불렀다. 이 지역은 낙동강이 천연장애물 역할을 하였다. 이 지역의 낙동강은 하폭이 300~1,000m에 이르렀고, 강물의 폭도 200~500m나 되었으며, 물의 깊이는 평균 2~4m로 적이 도섭하기에는 어려운 지형 조건이었다. 더구나 강기슭은 거의 절벽에 가까운 단애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적

이 도하하기에는 부적합한 지형이었다. 그렇지만 이곳은 거창·합천 지역에서 영산을 거쳐 밀양과 삼랑진에 이르는 중요한 접근로였다.

미 제2사단은 8월 하순 미 제24사단으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받아 제9연대를 영산 정면의 부곡리에서 남지까지, 제23연대를 창녕 정면에, 그리고 제38연대를 현풍 정면의 강안고지에 각각 배치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은 제9사단(-)이 8월 말경부터 미 제9연대가 배치된 영산 정면에, 김천에서 재편성을 완료한 제2사단이 창녕 정면에, 제10사단이 현풍 정면 낙동강 대안에 집결하여 최후공세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8월 31일에 북한군은 미군의 포격을 받으면서 낙동강을 도하해 미 제2사단을 기습 공격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을 받은 미 제2사단은 창녕과 영산으로 양분되어 북쪽의 창녕과 현풍 정면의 부대는 사단 포병사령관인 하인즈(Loyal M. Haynes) 준장이, 남쪽의 영산 정면의 부대는 부사단장인 브래들리(Joseph S. Bradley) 준장이 지휘하여 북한군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북한군은 미 제23연대 제1대대의 우측방을 통과하여 사단 포병진지를 거쳐 미 제23연대 본부와 근무중대 및 기타 부대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까지 침투하였다. 이날 제1대대는 붕괴되었고, 미 제23연대는 북한군에게 포위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낙동강 방어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 해병 제1여단을 미 제2사단에 배속시켜 중앙에서 영산 서쪽으로 공격하였다. 이와 병행해서 미 제9연대(제72전차대 1개 중대와 고사포대대 1개 포대 배속)가 북서쪽으로 진출하여 미 제23연대와 연결하고, 남쪽에서는 미 제9연대 제1대대 잔존 병력, 미 공병대대, 미 제72전차대대(-)가 공격하여 미 제25사단과 연결하도록 하였다.



북한군은 도로 북쪽과 구룡산(九龍山, △209)의 미 제38연대 제3대대를 공격하였으며, 현풍 정면에서도 북한군 제10사단이 도하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38연대 제1대대는 현풍 일대로 후퇴하면서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영산 서쪽에서 미 해병대는 공군과 포병의 화력지원을 받으면서 공격하였다. 도로 남쪽의 미 해병 제1대대는 퇴각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였고, 도로변의 미 해병 제2대대는 북한군 전차 4대를 파괴하면서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미 해병 제3대대는 제2대대를 초월하여 공격기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창녕 정면의 미 제23연대는 주매리와 모산리 및 본초리 3개소에서 북한군 포위망을 뚫고 곧 반격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하인즈 준장은 제38연대와 제23연대 사이의 전투지경선을 변경하여 미 제38연대로 하여금 창녕으로 가는 남쪽 접근로를 방어하도록 하고, 미 제23연대는 부곡-창녕 도로 축선으로 책임지역을 조정하여 창녕 정면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미 제9연대는 영산 남서쪽으로 공격하여 미 해병 제1여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미 해병 제2대대는 영산 서측 116고지를 점령하였고, 제1대대는 북한군 제9사단 사령부가 설치된 지역과 영산을 공격하여 탈환하였다. 미군 전폭기 편대가 북한군의 증원을 차단한 가운데 미 공병대대가 영산 서쪽에서 북한군 전차 3대를 격파하면서 밀양으로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영산 정면의 미 해병대는 전진을 계속하여 오봉리 능선을 점령하였고, 미 제9연대는 클로버고지(Clover Leaf Hill, △165)까지 진출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은 9월 5일부터 대체로 중단되었으나, 창녕 정면의 북한군 제2사단이 9월 8일에 마지막 공격을 재개하여, 미 제23연대를 돌파하고 본초리까지 진출하여 창녕을 약 5km 남겨두고 있었다. 미 제23연대는 항공기 지원을 받아가며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9월 9일에 북한군의 공격이 중지되었으나 중대 규모의 부대를 창녕까지 침투시켜 교란작전을 전개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북한군 제2사단의 T-34전차는 작전 기간 중 대부분 파괴되었고, 탄약과 연료마저 부족하였으며, 보병부대 손실도 극심하여 공세를 취할 수 없었다. 따라서 9월 3일부터 감행된 미 해병대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9월 6일 클로버 고지와 대봉리 고지를 연결하는 낙동강 동쪽의 조그마한 교두보를 간신히 확보하면서 미군의 역습을 막아내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제2사단 제17연대 군의관은 북한군 제2사단이 전사 1,300여 명, 부상 2,500여 명의 손실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전투를 통해 북한군은 심각한 손실을 입고 공격력을 상실하였으며, 미 제2사단도

많은 손실을 입었다. 그 중 가장 커다란 손실을 입은 미 제23연대의 전투력은 38%로 감소되었다. 작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9월 5일에 미 제2사단으로부터 배속 해제와 동시에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미군은 북한군을 낙동강선에서 견제함으로써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유리하게 전개하도록 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다부동전투』, 1981.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마산 서북방 전투

[馬山 西北方 戰鬪, 1950. 8. 31.~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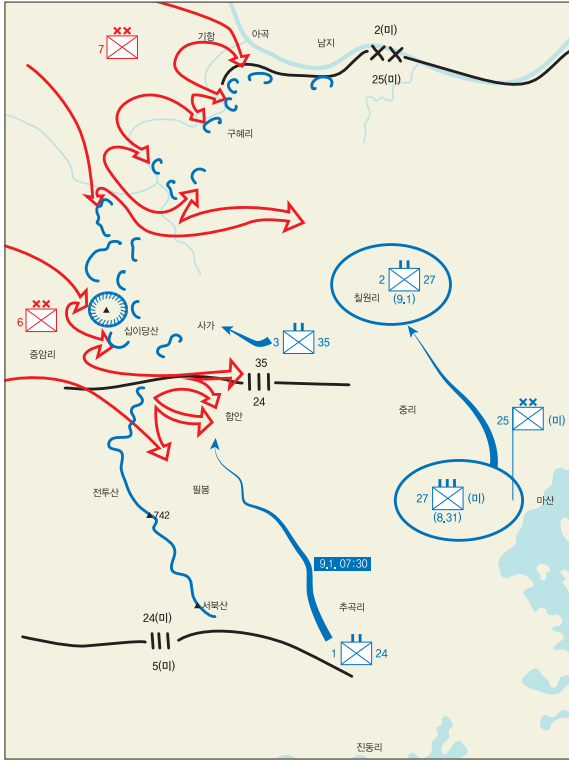
### 개요

미 제25사단이 1950년 8월 31부터 9월 6일까지 경상남도 마산의 서북방 일대에서 북한군 제6·제7사단에게 소모전을 강요하는 공세적인 방어로 작전의 주도권을 탈취하여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반격의 계기를 마련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남도 마산은 부산에서 서쪽으로 57km 지점, 진주에서 동쪽으로 6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6·25전쟁 당시인 1950년에는 인구가 10여만 명에 이르는 항구도시이자 육로·철로·해로 등의 교통이 발달된 상업도시였다. 1950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킨 특수임무부대'가 북한군 제6사단의 마산 지역 진출을 방어하고 격퇴한 이후 1950년 8월 하순까지 마산 정면의 전선은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6사단은 진주에 집결하여 부대정비와 아울러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제7사단이 의령 동북 일대에 집결하여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북한군의 작전계획은 북한군 제6사단이 진주-검암리-마산도로를 따라 돌파하고 북한군 제7사단이 남강남쪽 도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미 제35연대를 각개 격파하여 마산을 점령한 다음 부산 방면으로 진출하여 삼랑진과 구포 선상에서 미군의 동맥선인 주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한편 미 제25사단은 남지교에서부터 십이당산(△271), 진주-마산간 철도를 따라 남



쪽의 험준한 산악지대인 전투산 (△665)과 필봉(△743)을 거쳐 진동리 해안에 이르는 48km의 방어선을 담당하여 남강변과 검암리 일대에 미 제35연대, 전투산과 필봉 등 함안 일대의 산악지대에 미 제24연대, 서북산 남쪽에서 진동리 해안까지는 미 제5연대전투단을 배치하였으며 미 제27연대는 마산에 예비로 확보하였다.

8월 31일 야간에 남지 지역에서 북한군은 제6·제7사단의 2개 사단병력으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9월 1일 북한군 제7사단은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을 도하하여 미 제35연대 진지를 공격하여 제1대대와 제2대대 간격을 돌파하였으나 유엔공군의 집중폭격으로 저지되었다.

또한 검암리 정면 고지 일대에 배치된 미 제35연대 제1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첫날 공격에 미 제25사단 정면의 사태가 위급해지자 9월 3일에 미 제27연대 제2대대는 미 제35연대 제2대대 잔여병력과 함께 보·전·포병의 협동공격을 전개하여 진지를 탈환하였다. 9월 4일 아침에는 미 제27연대 제2대대가 검암리 동쪽으로 진출하여 미 제24연대 후방을 위협하고 있는 고지(말굽)상의 북한군을 공격하여 고지를 탈환하였다. 이후 미 제27연대 제2대대는 미 제35연대 제2대대의 강변진지가 돌파되자 다시 북상하여 후방지역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이 때 미 제25사단 포병은 검암리 일대에 집결한 북한군의 병력과 보급품에 대해 포병사격을 집중하였다. 미 제25사단의 북쪽 남강 전선을 지원한 포병은 미 제159포병대대·제6포병대대(105mm)의 5개 포대와 미 제90포병대대(155mm) 1개 포대의 36문이었다. 미 제5공군도 사단포병에 추가하여 공중지원을 수행하였다.

한편 미 제25사단 미 제24연대는 8월 31일 야간에 북한군 제6사단 주력의 공격을 받아 함안 정면에 배치된 제2대대가 돌파되어 함안이 피탈되었다. 미 제25사단장은 즉시 미

제2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북한군을 함안 서측고지에서 저지하였다. 함안 일대를 탈환한 미 제27연대 1대대는 9월 4일 야간에 미 제24연대 1대대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철수하였다. 낙동강과 남강에서 미 제25사단지역을 돌파한 북한군 제6사단과 제7사단은 해안선의 고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전투산, 필봉, 서북산 일대에 포병사격을 실시하였다. 북한군이 다시 전투산을 점령하였으나 함안을 탈환한 미 제27연대 제3대대가 다시 탈환하였다. 미 제5연대전투단 작전지역에서는 제1대대가 서북산 탈환전에 실패한 후 정찰전만 반복되는 가운데 북한군은 공격력이 그 한계에 이르자 수세로 전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미 제25사단은 8월 31일부터 9월 초에 걸친 마산 서북방 전투에서 방어선을 유지하며 강력한 포병화력과 공중지원으로 북한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후 북한군은 공격력이 그 한계에 이르자 수세로 전환하였다. 반면 미 제25사단은 공세적인 방어로 북한군에게 소모전을 강요하다가 9월 7일 이후부터는 구 진지의 대부분을 회복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반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제2군사령부, 『2군 지역 전사』, 1995. 4.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수암산 전투

[水岩山 戦闘, 1950. 9. 2.~5.]

### 개요

미 제7기병연대가 1950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수암산 일대에서 북한군 제1사단 및 제13사단의 공격을 받아 왜관-다부동도로 남쪽 방어진지로 철수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칠곡군 서북쪽에 위치한 수암산(水岩山, △518)은 왜관-다부동을 연하는 도

로의 북방에 위치하여 그 좌우의 328고지 및 유학산(遊鶴山, △839)과 함께 남쪽의 대구에 이르는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중요 고지로서 당시에 북한군이 병력을 집중하여 돌파를 기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제13사단을 상주-다부동 축선의 서측 고지군으로, 제1사단을 이 도로 동측 고지군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이 8월 30일 전투지경선을 조정함에 따라 미 제1기병사단은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지점-왜관-741고지까지를 담당하고, 국군 제1사단이 그 좌측 741고지-팔공산 북방 중앙선까지 담당하여 대구 북쪽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미 제5기병연대를 왜관 동남쪽에, 미 제7기병연대를 유학산 일대에, 미 제8기병연대를 다부동 북쪽 도로변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다. 사단 우인접 부대인 국군 제1사단은 팔공산 북방 정면에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8월 31일 밤에 시작된 북한군 제1군단의 공격으로 낙동강 돌출부지역이 위기에 처하자 9월 1일 미 제8군사령관(Walton H. Walker 중장)은 미 제1기병사단장(Hobert R. Gay 소장)에게 북쪽 또는 북서 방향으로 공격하여 서측의 북한군을 유인하라고 명령하였다. 즉 미 제8기병연대 정면에서 상주에 이르는 도로 방향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북한군 대부분이 이미 아군 방어진지 전방에서 공격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또 아군이 공격할 경우 발생하게 될 기동공간을 방어할 병력이 없어 북한군에게 역포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 제1기병사단장은 미 제7기병연대로 하여금 수암산을 탈환하고 미 제8기병연대가 그 우측에서 견제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미 제7기병연대가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인 9월 2일에 북한군 제13사단 제19연대 작전참모 김성준 소좌가 귀순하여, 북한군 제2군단이 9월 2일 오후 6시를 기해 총공격을 개시할 것이며 북한군 제13사단은 이번 최후공세를 위해 병력 4,000명(의용군)을 보충하여 총 9,000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김성준 소좌의 제보에 따라 미 제8군은 즉시 예하 전 부대에 북한군의 총공격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미 제1기병사단장은 계획대로 수암산을 탈환하도록 명령하였다.

유엔 전폭기 편대가 수암산 일대를 집중적으로 폭격하고 사단포병도 일제히 사격을 집중하였다. 곧이어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가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능선의 기동로가 너무 좁아 공격부대는 중대-소대-분대 규모로 축소되어 북한군의 강력히 준비된 진지를 1개 분대로 공격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공격에 실패하였다. 이 때 미 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서쪽에서 엄호진지를 미리 점령하였고, 제3대대는 제2대대 배후에서 수암산과의 공간지대에 배치되었다.

9월 3일 미 제7기병연대 제3대대가 수암산 공격 임무를 인수하였지만 제1대대와 마

찬가지로 분대 중대 대형으로 남쪽에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9월 4일의 공격에서도 제3대대는 실패하였다. 이날 밤 북한군이 519고지 남쪽 능선 비탈에 있던 미 제7기병연대 제3대대와 서쪽에 위치한 제2대대 사이의 공간을 뚫고 침투하여 465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사단 좌측에서는 미 제5기병연대 제2대대가 왜관 북쪽의 303고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따라서 9월 5일 북한군이 수암산 후방에 위치한 465고지를 점령하고 왜관-다부동에 이르는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미 제7기병연대는 북한군에게 포위될 위기에 처하였다. 유엔 전폭기의 폭격과 미 제7기병연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수암산의 북한군 제3사단이 부대간격을 따라 왜관-다부동 도로 남쪽 464고지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우측방에서는 북한군 제13사단이 다부동까지 진출하였다. 가산으로 진출하던 미 공병대 역시 북한군 제1사단 1개 대대의 공격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기병사단장에게 야음을 이용하여 왜관-다부동을 연하는 도로 남쪽의 방어진지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국군 제1사단도 이날 우측 영천의 국군 제8사단이 돌파됨으로써 전선균형을 위한 군단장의 철수명령을 받았다.

### 결과 및 영향



미 제1기병사단은 수차례에 걸친 공격에도 불구하고 수암산 탈환작전에 실패하고, 낙동강 방어선의 일부인 영천과 창녕 방어선이 무너지자 예비방어진지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단은 정면의 북한군과 접전 중이었으며 이미 북한군 일부가 왜관 동남쪽과 다부동 일대로 침투하고 있었으므로 철수가 용이하지 않았다. 특히 신방어진지인 465고지 일대를 북한군이 이미 점령하고 있어 제7기병연대의 진지전환이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사단은 6-7일 양일간에 새로운 진지로 철수하여 미 제5기병연대(제7기병연대 제1대대 배속), 미 제8기병연대로 왜관-대구 간 도로 남쪽에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미 제7기병연대(-)를 대구 부근에 사단예비로 확보하였다. 국군 제1사단장은 좌로는 미 제1기병사단과의 간격을 봉쇄하고 우로는 국군 제6사단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남산동-대울동-가산성 남쪽에 부대를 배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연대사 : 다부동전투』, 1981.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가산 전투

[架山 戰鬪, 1950. 9. 2.~11.]

### 개요

미 제8기병연대가 1950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대구 북쪽 16km에 위치한 가산 일대에서 북한군 제1사단 및 제13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산을 방어하여 대구 방어에 기여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대구 북쪽 16km에 위치한 중요한 감제고지인 가산(架山, △902)은 다부동-대구간 도로와 대구까지 통제할 수 있으며, 유화산과 팔공산으로 이어져 대구방어에 중요한 고지였다. 이 고지는 8월 29일 미 제8기병연대가 국군 제1사단으로부터 인수받은 방어지역으로, 산 정상에는 돌로 쌓아올린 10m 높이의 산성이 위치한 타원형의 평탄한 지역이며, 사방의 산비탈은 경사가 험하였다.

9월 2일 밤에 북한군은 미 제1기병사단의 우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미 제8기병연대를 공격하여 다부동 서측 448고지에 배치된 미 제8기병연대 제2대대를 돌파하고, 우측의 가산성지에 배치된 정찰소대와 경찰까지 유린하고 있었다. 이처럼 미 제8기병연대가 다부동 일대의 요충지인 가산을 북한군에게 빼앗겨 대구 방어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1기병사단은 부사단장 알렌(Frank A. Allen) 준장이 지휘하는 “알렌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대구 북쪽 주변에 배치하고 북한군의 대구 외곽 돌파에 대비하였다. 또한 미 제8군사령부에서도 이날 대구 중앙훈련소의 제5교육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신병을 기간으로 1개 대대(대대장 중령 이상철)를 편성하여 미 제8기병연대 후방으로 전진하여 다부동-대구돌파에 대처하였다. 신병대대는 미 제8기병연대에 배속되어 제2전선인 도덕산(道德山, △660)에 배치되어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가산이 북한군에게 빼앗기자 미 제8군에서는 미 제1기병사단에 제8야전공병대대 D중대를 지원하여 가산을 탈환하고자 하였다.

9월 4일에 미 제8기병연대는 제8야전공병대대 D중대와 함께 기성동에서 가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가산은 북한군 제1사단 제14연대 제2대대가 점령하고 있었다. 미 제8기병연대 E중대와 미 제8공병대대 D중대는 미 항공기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공격하였으나 가산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가산 일대를 점령하고 있는 북한군 제1사단과 제

13사단이 다부동 4.5km 남쪽도로를 봉쇄하였고 대구에 이르는 도로를 감제하는 570고지마저 점령하였다. 570고지는 대구 북쪽 12km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 입장에서 큰 위협이었다.

미 제8군 정보처는 570고지에 북한군 약 1,000여 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 제8군은 미군과 국군의 전투지경선을 조정하여 가산공격의 임무를 우인접 부대인 국군 제1사단에게 부여하였다. 9월 7일, 미 제1기병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수색중대의 전차 5대가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북한군을 격퇴하였으며 가산 및 570고지 일대는 유엔 전폭기의 폭격으로 북한군의 공격은 저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미 제8기병연대 제3대대가 570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1일부터 대구북방 고지 일대에서의 교전으로 미 제8기병연대의 우측진지가 돌파되어 그 남쪽 314고지마저 피탈됨으로써 대구방어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무렵 제8기병연대 우측 도덕산에서는 국군 제5신병대대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대구가 이와같은 위협에 직면하자 경찰 14개 대대가 대구시 주위에서 호를 구축하고 방어선을 형성하여 최후저지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다음날 제7기병연대 제3대대가 역습을 개시하여 고지정상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가산 전투 이후 9월 12일부터 대구 북쪽 상황은 크게 안정되었으나, 아직 여러 고지에서 전투가 수행되고 있었다. 미 제8기병연대 제2대대는 다부동 도로 동쪽 570고지에서 쟁탈전을 계속 수행 중이었으며, 제3대대는 연대간격으로 침투하여 칠곡 서북쪽 401고지를 장악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있었다. 국군 제1사단은 13일 정오부로 대구방어의 지휘통일을 기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미 제1군단에 배속되어 주로 북한군 제1사단과 작전을 계속하였다. 한편,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의 패잔병들은 다부동, 가산성 북쪽으로 철수하고 있었으며 결국 대구 점령을 위한 북한군 제2군단의 9월 공세는 좌절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다부동전투』, 1981.

육군본부, 『유엔군 전사』 제1집, 1963.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기룡산 전투

[騎龍山 戰鬪, 1950. 9. 2.~5.]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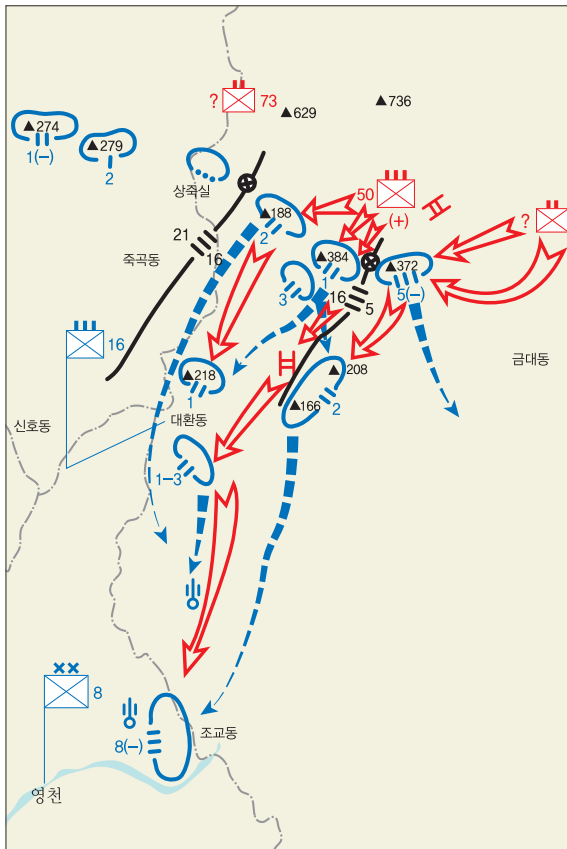
국군 제8사단이 1950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북방에 위치한 기룡산 일대 방어진지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의 공격으로 많은 병력손실을 입고 방어작전을 수행하며 영천으로 철수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북 영천시 자양면의 기룡산(騎龍山, △961)은 보현산 동남쪽에 위치하여 보현산에 배치된 국군이 중심 깊은 방어진지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다.

이 지역 일대는 해발 300~1,100여 m의 크고 작은 고지와 계곡들이 얽혀있는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이러한 지형으로 지대 내의 교통로는 죽장-자양-영천으로 이르는 도로 외에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1950년 9월 5일, 북한군 제15사단은 전차 12대와 각종 포 166문의 지원을 받으며 영천을 정면 돌파하기 위하여 입암과 영천 사이 도로를 따라 3개 방면에서 공격하였다. 보현산 일대를 방어하던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 제15사단의 공격으로 주저항선상의 유일선인 제16연대 방어진지가 붕괴되면서 영천 북방 기룡산 일대로 철수하여 횡격실 능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좌일선에 제21연대, 중앙일



선에 제16연대와 제3연대 제1대대, 우일선에 배속된 제7사단 제5연대를 배치하였다. 배속된 국군 제7사단 제8연대는 사단 예비대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 제15사단이 입암과 영천 사이의 도로를 따라 3개 방면에서 공격준비사격과 함께 공격을 개시하자 지휘체제가 와해되어 분산 철수를 하였다. 북한군 제15사단에 의해 사단 방어선 중앙의 제16연대가 돌파하자, 우일선의 제5연대는 적지에 고립되어 372고지에서 백병전으로 북한군 공격을 저지하여 격퇴하였다. 그러나 제16연대 제1대대가 384고지로부터 철수한 후 금대동으로 우회기동한 북한군 협공을 받고 분산되었다. 사단의 좌일선인 제21연대는 북한군 선봉대가 평천동-대환동 선에서 병력을 수습 중인 제16연대와 제3연대 제1대대를 공격함으로써 우측방이 노출되자 선천동-대환동 선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던 북한군 제15사단은 용천동 일대에서 공격을 일단 중지하였다. 이때 분산 철수하던 제16연대는 낙오병을 수습하고 각종 보급품을 추진하며 전투력을 정비하였다. 사단은 지원포병의 화력을 제16연대 방어정면에 지향하고, 사단 직할대 병력으로 예비대를 편성해 영천 동쪽 외곽선에 배치하였다.

전차를 앞세운 2개 대대규모의 북한군은 자양-영천간 도로를 따라 양향동까지 진출해 도로 양쪽 218고지와 208고지를 공격하였다. 제16연대는 강력한 화력과 전차로 증강된 북한군 공격으로 단포동-언하동 선으로 후퇴하였다. 양향동 뒷산에 배치된 제3연대 제1대대 또한 제16연대 철수를 엄호한 후 조교동에 배치된 제8연대 엄호를 받으며 영천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8사단은 영천 북방 기룡산 일대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의 공격을 받고 방어선이 돌파되어 영천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효과적인 작전지휘를 위해 제8사단의 배속을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변경하고, 영천과 아화 일대를 제2군단 작전지역에 포함시켜 제8사단과 수도사단의 사단 전투지경선을 군단 전투지경선으로 변경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1, 200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55).

【박중상 집필】



## 호명리 전투

[虎鳴里 戰鬪, 1950. 9. 4. ~13.]

### 개요

국군 수도사단이 1950년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경상북도 경주 북부지역에 위치한 호명리에서 북한군 제12사단과 제5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경주 북부지역의 호명리는 주변 일대를 통제할 수 있는 낙산이 북쪽에 위치하고, 형산강이 고지 서쪽에서 북쪽과 동쪽으로 감돌고 있어 방어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었다. 또한 형산강에 가설된 낙산교와 안강-포항, 포항-경주 간의 도로를 제압할 수 있는 전술적 요지이다.

북한군의 '9월 공세'로 국군 수도사단의 전선 재조정이 있던 9월 4일, 수도사단의 우측 방어를 담당하던 제1연대에 호명리 남쪽 2km에 위치한 모서동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제1연대는 철수를 개시하여 호명리에 집결하였다. 제1연대는 호명리와 낙산에 전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낙산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북한군 제12사단 주력은 안강에 집결해 국군 제1연대 서측의 무릉산을 향하고 있었고, 동측에서는 북한군 제5사단의 1개 연대가 유금리에서 형산강을 도하한 후 흥계동을 거쳐 운제산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북한군 진로의 중간에 위치한 국군 제1연대의 호명리 방어진지는 소규모의 정찰전만 있었을 뿐 한동안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수도사단의 전방지휘소가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국군 제1군단은 경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제1연대는 현 방어진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호명리 진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호명리와 낙산에 전면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성주봉 남쪽 기슭과 낙산 동쪽 3.5km 지점의 부조나루터에서 형산강을 도하하는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9월 8일과 9일 양일간 북한군은 수도사단 전면에 걸쳐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경주-안강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에선 북한군 제12사단이, 그리고 동쪽에선 북한군 제5사단이 공격을 감행하였다. 국군 제1연대 제1대대는 북한군 제5사단 제10연대 일부 병력에 의해 정면공격을 받았으나 일제 사격으로 격퇴하였으며, 국군 제1연대는 운제산에 북한군이 침투함에 따라 노출된 우측방을 보강하기 위해 낙산-222고지에 병력을 배치해 방어진지를 재조정하고, 연대 전술지휘소를 모서동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제1연대의 호명리 전투는 종료되었다.

**결과 및 영향**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는 9월 4일 이후 북한군에게 고립된 상황에서도 호명리 일대를 확보함으로써 북한군은 작전상 큰 차질을 빚게 되었지만 국군 제1군단과 수도사단은 무릉산-곤계봉-형산강 선을 연하는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즉, 국군 제1연대가 호명리를 방어하여 9월 9일 미군 지원부대가 경주에서 모서동까지 후보급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안강·포항전투』, 1986.

【박종상 집필】

**화산 전투**

[花山 戰鬪, 1950. 9. 5.~15.]

**개요**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1950년 9월 5일부터 15일까지 북한군 제8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경상북도 영천시 서북방에 위치한 화산 지역을 역습으로 탈환하여 신녕-대구로 지향하려던 북한군의 진출을 막아낸 전투이다.

**전개과정**

경상북도 영천시 서북방의 화산면은 노고산(△560)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00m 이하인 낮고 평탄한 산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북한군이 신녕을 우회하여 대구로 진입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주요지역이었다. 1950년 9월 2일에 북한군이 9월 공세를 시작하면서 국군 제8사단 방어지대가 돌파되어 영천이 함락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9월 5일 저녁,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제3대대 방어지역 전방인 산성-운산동 일대에는 증강된 북한군 1개 연대 규모가 집결하였다. 북한군 제8사단은 영천 돌파구 확대를 위해 국군 제6사단 지역에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특히 북한군 주공은 제2연대 제3대대의 방어정면인 산성-봉림동 간을 지향하고 있었다.

한편 육군본부는 9월 5일에 제1군단에 예속되었던 제8사단을 제2군단으로 예속 변경하고 제8사단과 수도사단의 전투지경선을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전투지경선으로 조정하고

였다. 이에 따라 제1군단은 수도사단과 제3사단, 제2군단은 제1사단과 제6사단, 제8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제7사단은 육군본부 예비로서 각 사단을 증원토록 하였다. 또한 국군 제2군단은 제1사단과 제6사단에서 각각 1개 연대씩을 차출해 영천 전투에 투입하고, 군단의 방어력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 연대는 가능한 한 많은 예비를 보유하도록 지시하였다.

9월 6일에 북한군 제8사단이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고 주간공격을 단행하였다. 국군 제6사단도 북한군 제8사단을 포병의 화력지원으로 저지하고 있었다. 미 공군 B-26 폭격기와 전폭기 혼성편대가 운산동-봉림동-조림산-갑령 고개 일대에서 북한군을 폭격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후 국군 제2연대는 방어진지 전방으로 반격하여 전과를 확대하였다. 한편 국군 제6사단에서 배속된 제8연대(제7사단)는 북한군 2개 대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제2대대와 제3대대는 방어진지를 약간 후방으로 이동한 후 포병·박격포·미 공군 전폭기 등의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9월 8일에는 국군 제7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가 북한군을 공격하여 723고지와 제2대대 진지를 다시 탈환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7연대는 1,000여 명의 북한군을 격퇴하고 많은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9월 9일에 제7연대 제3대대는 723고지로 침투해 온 2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을 포위 공격해 격퇴하였다. 국군 제2연대 제1대대는 469고지 전방의 무명고지에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을 격퇴하였으나 북한군 2개 대대로부터 반격을 받고 다시 469고지로 후퇴하였다.

국군 제2연대 제1대대는 북한군이 점령한 469고지 북쪽의 무명고지를 다시 공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제3대대는 북한군 1개 대대병력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예비대인 제2대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 중간지역에서 방어준비를 강화하면서 북한군 2개 대대규모를 격퇴하였다. 9월 12일 이후부터는 피아간의 산발적인 정찰전을 제외하고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6사단의 완강한 저항과 반격, 유엔 공군의 공중폭격으로 북한군 제8사단은 인접사단인 제13사단 및 제15사단과 서로 호응하면서 신녕 지구를 돌파한 다음 대구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8월 말부터 총공세를 감행하였으나 전투력의 손실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결국 실패하였다. 국군 제6사단의 공세적인 방어 작전으로 전투력의 대부분을 상실한 북한군 제8사단은 조림산-화수동 일대에서 방어로 전환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신녕

을 거쳐 영천을 우회공격하려던 북한군 제8사단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대구 외곽 선인 신녕지구의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대구를 점령하려던 북한군의 기도를 좌절시켜 총반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신녕·영천전투』, 1984.  
 제2군사령부, 『2군지역전사』, 199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6사단 전투상보』(53).

【박종상 집필】

## 영천 전투

[永川 戦闘, 1950. 9. 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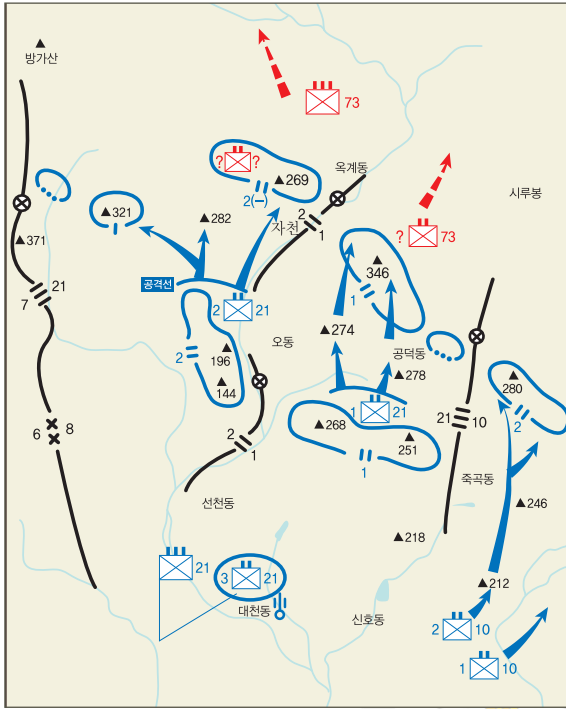
### 개요

국군 제8사단이 1950년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영천 일대로 침공한 북한군 제15사단의 돌파를 저지하고 영천을 탈환함으로써 국군이 총공세를 단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영천은 대구 동쪽 34km 지점에 위치한 요충지로서 대구와 포항 중간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이다. 북한군이 영천을 점령한다면 국군은 제1군단과 제2군단이 분리되고 포항-대구 간 병참선이 차단될 수 있었다. 이후 북한군이 대구 방면으로 진출한다면 왜관과 다부동 일대의 아군 방어선 후방이 차단되어 낙동강 방어선 전체가 붕괴될 수 있고, 경주 방면으로 진출하여 제12사단과 합류할 경우 부산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북한군 제15사단은 각종 포의 지원 하에 전차를 선두로 입암과 영천 간 도로를 따라 남진하여 3개 방면에서 공격을 가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중앙의 제16연대와 제3연대가 북한군의 주공으로 중심 깊이 돌파됨으로써 좌우측 제21연대, 제5연대와 함께 영천 북방 대천동과 상리동 선으로 철수하였다. 국군의 방어진지는 북한군의 공격 기세에 밀려 점점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전방 제8사단 제16연대와 제7사단 제8연대는 더 이상 북한군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영천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결국 영천은 북한군에



게 함락되었다. 그러나 영천 읍내에서는 국군 제8사단과 북한군 제15사단 간에 세 차례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영천 읍내 남쪽에 배치되었던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도 영천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북한군 선두부대의 진격을 저지하였다.

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 증원부대가 도착하여 제11연대가 영천 남쪽에서 방어준비를 갖추고, 제19연대가 제8사단 오른쪽 측방으로 진출함에 따라 후방 깊숙이 침투한 북한군 제15사단이 국군에 의해 포위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갔다. 9월 8일에는 국군 제19연대가 영천을 장악한 북한군을

격멸하고 영천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9일에는 북한군의 돌파구를 봉쇄하기 위한 연결된 방어선이 형성되었다.

포위망이 완성되자 9월 10일부터 국군 제2군단(제7·제8사단)은 영천-경주 간 도로 남쪽에서부터 반격을 개시하여 구전동-자천동-삼매동 북방-인구동 남쪽을 연결하는 9월 공세 이전의 국군 주저항선까지 진격하였다. 이로 인해 경주 방면의 북한군 제12사단과 의성 방면의 북한군 제8사단이 후방과 측면을 위협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군 제8사단은 진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영천을 점령하고 경주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은 제8사단을 중심으로 한 국군 제2군단의 효과적인 방어에 좌절되었다.

### 결과 및 영향

6·25전쟁의 전환점을 이룬 영천 전투는 북한군이 제15사단을 주축으로 5개 연대 병력을 투입하였으며, 국군은 제8사단을 주축으로 7개 연대병력이 투입되어 승리한 전투이다. 영천탈환을 계기로 국군은 낙동강 전선 동반부를 방어하는데 성공한 반면, 북한군

은 좌우인접사단과 측방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어 신녕 방면에서 대구지역으로 공격한 북한군 공격이 좌절되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작전에 차질을 빚어 9월 공세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6·25전쟁의 전세가 역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권,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신녕·영천 전투』, 1984.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00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8사단 전투상보』 (55).

【박종상 집필】

## 314고지 전투

[314高地 戰鬪, 1950. 9. 11.~12.]

### 개요

미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제3대대가 1950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의 도덕산(道德山, △660) 남쪽 능선상의 314고지에서 북한군 제1사단의 공격을 방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의 도덕산 남쪽 능선상에 위치한 314고지는 북한군이 점령한 고지 중에서 대구와 12km밖에 안되는 가장 근접한 곳이었다. 314고지는 570고지와 깊은 협곡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곳에서부터 대구시가 북한군의 곡사포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되어 대구방어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50년 9월 5일, 미 제1기병사단은 다부동 일대의 주저항선에서 철수를 개시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이 철수하자 주저항선 연결을 위하여 583고지-팔공산 북단-317고지 선으로 철수하였다. 9월 8일에 북한군이 왜관까지 진출하자 미 제1기병사단은 대구 북쪽 11km 지점의 180고지까지 철수하여 이 일대에서 반격과 역습으로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9월 10일, 미 제1기병사단은 예비부대를 대구 동쪽 측방에 배치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 때 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에 배속되었던 미 제7기병연대 제3대대는 대구 북쪽 봉암리 181고지와 182고지에 있었고, 미 제7기병연대(-)는 대구 동쪽



6km 지점인 동촌비행장 부근의 금호강 기슭에 있는 산골짜기에 위치하였다.

9월 11일, 미 제8기병연대 제3대대가 가산 남서쪽 3.5km 지점에 위치한 570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공격하고 있을 때 북한군 제1사단의 일부 병력이 314고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기병연대 우측 도덕산에 배치된 국군 제5신병대대는 전투경험도 없고 장비도 보잘 것이 없었지만 북한군의 공격을 잘 저지하였다. 국군 제5신병대대는 미 제1기병사단의 주저항선이 위태롭게 되자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대구 중앙훈련소 제5교육대대에 기간병 및 훈련병으로 1개 대대(5개 중대)를 잠정 편성하여 미 제8기병연대에 배속(1950. 9. 3.)된 부대이다.

314고지에 대한 탈환임무는 9월 11일 미 제7기병연대 제3대대에게 부여되었다. 제3대대는 미국 조지아주의 포트베닝(Fort Benning)에서 편성된 미 제3사단 제30연대의 예하 대대였으나, 1950년 8월 말 한국전선에 참전해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었다. 대대장은 린치(James H. Linch) 중령이었다. 제3대대는 첫 전투인 수암산 전투에서 중대가 중대 공격을 하여 실패한 사례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2개 중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9월 12일에 314고지를 대대 단독으로 공격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는 공격 중에 북한군 120mm 박격포의 집중사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대대는 미군 전폭기의 지원과 미군 포병의 지원사격으로 계속 공격하여 일시적으로 고지 정상을 점령하였으나 북한군의 강력한 역습을 받아 철수하였다. 제3대대는 부대를 정비한 후 다시 포병과 미군 전폭기의 지원 하에 고지 정상을 재공격하였다. 대대는 북한군의 기관총과 수류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돌격을 감행하여 마침내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수차에 걸친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 결과 및 영향

이 전투로 미 제7기병연대 제3대대는 도덕산 남쪽 능선 상의 314고지를 점령하여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였지만 공격의 선두에 섰던 2개 중대의 중대장이 전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대원 수도 40명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포로진술에 의하면 북한군 손실도 700여 명에 달하였다. 이 전투 이후 북한군은 공격력이 둔화되었으며 대구 북방의 상황은 다소 안정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00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다부동전투』, 1981.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박종상 집필】



## 다부동 방면 돌파

[多富洞 方面 突破, 1950. 9. 16.~22.]

### 개요

미 제1기병사단이 1950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낙동강 연안의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 제3사단 및 제13사단을 격멸시키고 왜관 및 다부동을 돌파하여 북진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칠곡군의 다부동은 대구 북쪽으로부터 22km에 위치하며, 상주와 안동에서 대구에 이르는 5번 및 25번 도로가 합쳐지고 왜관에 이르는 997번 지방도로의 시점이 되는 교통의 요지였다. 다부동을 중심으로 북서쪽에는 유학산(△839)이 북쪽을 향하여 횡격실을 이루고 있고, 그 동쪽에는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가산(△902)이 위치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된 1950년 9월 15일 현재, 미 제1기병사단은 188고지(독산동)-175고지(성문동)-402고지(명봉산)-571고지(성원동)를 연해 좌로부터 제5기병연대, 제8기병연대, 제7기병연대가 배치되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미 제8군은 미 제10군단이 인천상륙작전을 시작한 다음날인 9월 16일 오전 9시를 기해 낙동강전선에서 총반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반격작전이 개시될 무렵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은 왜관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제1군단을, 동쪽으로는 제2군단을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 왜관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전선을 담당한 북한군 제2군단은 국군 제1사단이 9월 18일 다부동 동쪽에서 북한군 방어선 후방 깊숙이 진출하여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왜관-다부동선에 배치된 북한군 제3·제13사단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대구 방면 제1사단도 와해되어 상주 방면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이때 북한군 제13사단 참모장인 이학구(李學九) 총좌가 투항하여 중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였다.

9월 21일을 기해 미 제1기병사단 부대들이 대구돌출부를 돌파하기 시작하자 미 제1기병사단은 린치(James H. Lynch) 중령의 제7기병연대 제3대대를 중심으로 기갑추격부대인 제777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제777특수임무부대는 후퇴하는 북한군을 추격하기 위하여 선산도하장에서 낙동강을 건너 다부동 서쪽에서 진격하였으며 낙동리를 향해 북진하여 부대의 선두전차가 도하점이 내려다보이는 낙동리의 절벽 위까지 진출하였다. 린치부대는 다부동을 출발한 이래 북한군 500여 명을 사살 또는 생포하고 5대의 전차와 각종 장비를 노획하면서 마침내 낙동강을 건넜다. 이날 중 제1대대는 낙동강 도하 후 16km 서북방의 상주까지 진격했으나 북한군은 이미 후퇴한 후였다.

왜관 탈환전은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된 제5연대전투단이 담당하였다. 제1기병사단의 진출 부진으로 군단에서는 예비로 경산에 대기 중인 제24사단을 군단 서측방으로 투입하고 제5연대전투단을 배속 전환하였다. 제5연대전투단은 19일 하루 종일 치열한 전투를 치른 끝에 북동쪽 능선을 제외한 금무봉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왜관을 방어하던 북한군 제3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왜관에서 분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제5연대전투단은 5일간에 걸친 공격 끝에 북한군 제3사단의 중앙부와 그 우측방을 격파함으로써 북한군을 축출하고 진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날 미 제1군단은 영국군 제27여단을 미 제24사단에 배속시켜 낙동강 도하를 준비시키고 사단 공격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날까지 미 제24사단의 3개 연대와 배속된 영국군 제27여단이 완전히 낙동강을 도하하였다. 이로써 미 제5연대전투단은 왜관-김천간 도로상의 고지대를 장악하였고, 제24사단은 대구-김천-대전-서울가도에 연한 서측방에서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 결과 및 영향

9월 20~21일에 걸쳐 전개되었던 낙동강 연안 왜관부근 전투에서 미 제24사단은 북한군의 전차 29대를 파괴하였으며, 9월 22일 오전 10시경에는 미군 공병들이 36시간에 걸친 작업을 계속한 끝에 M-2주교의 가설작업을 완성시켰다. 미 제24사단이 9월 18일부터 5일간 수행한 낙동강 방어선의 돌파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왜관을 탈환하고 낙동강 도하작전을 끝마친 사단은 왜관-대전 사이에 북한군 야전군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김천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RG 407, Entry No.429, Box1488, After Action Report(1950. 9. 12-19), G-3 Section I Corps(1950. 9. 25.), NARA.

【박종상 집필】

## 창녕-영산 방면 반격전

[昌寧-靈山 方面 反擊戰, 1950. 9. 16.~22.]

### 개요

미 제2사단이 1950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창녕-영산 일대에서 북한군 제2·제4·제9·제10사단을 돌파하고 북진하기 시작한 전투이다.



전차대대 C중대의 직접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을 시작하여 퇴각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였다. 이날 오후 늦게부터 후퇴하기 시작한 북한군은 제2사단사령부 및 3개 보병연대(제4·제6·제17연대)와 포병연대를 비롯하여 기타부대가 이튿날까지 계속 낙동강을 건너 서쪽으로 후퇴하였다. 북한군이 후퇴하자 9월 18일 오전 제38연대는 낙동강을 도하하여 대안에 교두보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미 제2사단은 유엔군 총반격작전이 시작된 지 3일째에 201고지와 409고지를 제외하고 낙동강의 서측방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북한군 제9사단은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포병의 화력지원하에 이루어진 미 제2사단 제9연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1고지와 409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제38연대의 제3대대가 전차와 포병, 그리고 중박격포 등과 함께 강을 건너 저녁 무렵에 201고지의 북한군을 무력화시켰다.

제38연대의 낙동강 도하에 이어 9월 20일에는 제23연대도 낙동강을 도하하여 228고지를 점령하였다. 제23연대와 제38연대의 낙동강 도하 이후 제23연대와 제38연대(-)는 21일 정오부터 각각 신반리와 초계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3연대 제3대대는 연대 공격명령에 따라 고지 탈환전에 돌입하였으며, 제23연대 제1대대도 제72전차대대의 1개 전차소대와 함께 신반리 방면으로 진진하였다.

제23연대가 진출한 곳에서 북쪽으로 9.5km 떨어진 지점에서는 제38연대 제2대대가 초계방면으로 진격하던 중 239고지(초계 동쪽 3km)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239고지는 초계를 감제할 수 있는 중요한 고지였다. 제2대대는 항공지원을 받으면서 239고지를 공격하였지만 북한군도 239고지 도로 맞은편에 위치한 102고지와 289고지(101고지 남동쪽 1km)에서 격렬히 저항하였다.

한편 제9연대(-)는 20일과 21일에 낙동강 도하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사단에서는 제9연대(-)에게 사단의 북쪽 측방(현풍 방면) 방어와 작전 지역내의 북한군 패잔병 섬멸이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제9연대(-)는 제2대대가 제38연대 제1대대, 제3대대가 제38연대 제3대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미 제8군 예비로 삼랑진에 있던 제2대대가 원대로 복귀하였다.

미 제2사단의 주력인 제23연대와 제38연대는 22일 이른 아침부터 신반리와 초계 탈환을 위한 공격에 나섰다. 제23연대는 제3대대가 신반리를 점령하였으며, 제38연대도 제2대대와 제3대대가 초계를 공격하여 초계읍, 239고지, 208고지(239고지 북동쪽 4km)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야간에 낙동강 동쪽에 있는 409고지에서 북한군 제10사단을 견제하는 임무를 제9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고, 연대와 합류하기 위해 신속히 강을 건넜다.

**결과 및 영향**

미 제2사단은 사단 우측방(현풍 지역)의 북한군을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했지만, 22일에 주력이 사단 목표 지점인 신반리와 초계를 점령함으로써 합천-논산 진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4, 1971.

【박종상 집필】

**마산 방면 반격전**

[馬山 方面 反擊戰, 1950. 9. 16.~23.]

**개요**

미 제25사단이 1950년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마산에서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북한군 제6·제7사단을 격퇴하고 진주로 진격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경상남도 마산은 부산에서 서쪽으로 57km 지점, 진주에서 동쪽으로 60km 지점에 있다. 마산은 경상남도 제2의 도시로 6·25전쟁 당시인 1950년에는 인구가 10여만 명에 이르는 항구도시이자, 육로·철로·해로 등의 교통이 발달된 상업도시였다. 인천상륙작전과 미 제8군의 낙동강 전선에서의 총반격명령 이후 미 제25사단의 서부 마산지역에서는 북한군 제6·제7사단이 필봉(여항산, △742), 서북산(△738), 전투산(△661) 등 주요 고지에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제25사단은 제35연대 제3대대를 중심으로 울포크(Woolfolk)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9월 19일 아침에 전투산을 점령하였다. 이에 미 제35연대(연대장 Henry G. Fisher 대령)는 사단의 우측방에서 진격을 시작해 중암리 전방에 있는 고지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사단 좌측방을 담당하던 제27연대(연대장 John H. Michaelis 대령)는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9월 20일까지도 전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 무렵 북한군은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 소장)과 제7사단(사단장 이익성 소장)이 9월 18일 이후 전투산, 서북산 등지에서 물러나 남강 북쪽으로 후퇴한 상황이었지만, 작전지역 내에는 여전히 북한군의 패잔병들이 출몰하고 있었다. 9월 21일, 사단의 전진로인 진

주 도로에는 북한군 제6사단의 엄호부대가 곳곳에서 미 제25사단 제35연대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있었으나, 제35연대는 중암리 남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좁은 도로를 점령한 후 서쪽으로 북한군 패잔병들을 축출하면서 무촌리 도로의 분기점을 지나 진주 도로의 고지대로 진격하였다. 이후 북한군 제6사단의 엄호부대는 진주로 진격하던 미 제35연대를 저지하고 진주 남강교량을 폭파하였다. 그러나 미 제35연대는 야음을 이용하여 남강교의 하류쪽에서 남강을 도하하여 진주로 진입하였다.

### 결과 및 영향

9월 23일부터 낙동강 교두보 전역에서는 북한군의 저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미 제8군은 낙동강교두보선 도처에서 북한군을 격파하였으나 실질적인 전과는 많지 않았다. 이것은 인천상륙작전의 실질적인 군사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제25사단은 전과확대를 위해 남쪽 해안선에서 제27연대를 초월 전진한 제25수색중대(중대장 Charles J. Torman 대위)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토만(Torman) 특수임무부대로 명명된 제25수색중대는 해안선을 따라 진주를 향하여 전진하였다. 그리고 다음날(25일) 아침에 특수임무부대는 남강교에 도달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육군본부, 『유엔군전사』 제1집, 1963.

【박종상 집필】

## 신녕 방면 반격전

[新寧方面反擊戰, 1950. 9. 16.~22.]

### 개요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신녕 일대 조림산에서 반격작전으로 전환하여 북한군 제8사단을 격퇴시키고 돌파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은 대구 동북쪽 32km에 위치한다. 지대 내에는 신녕천이 남동쪽으로 흐르지만 장애물로서의 가치는 없다. 교통망은 의성-신녕-대구에 이르는 28번 도로, 효령-신녕에 이르는 908번 도로와 영천-신녕-의성으로 연결되는 중앙선이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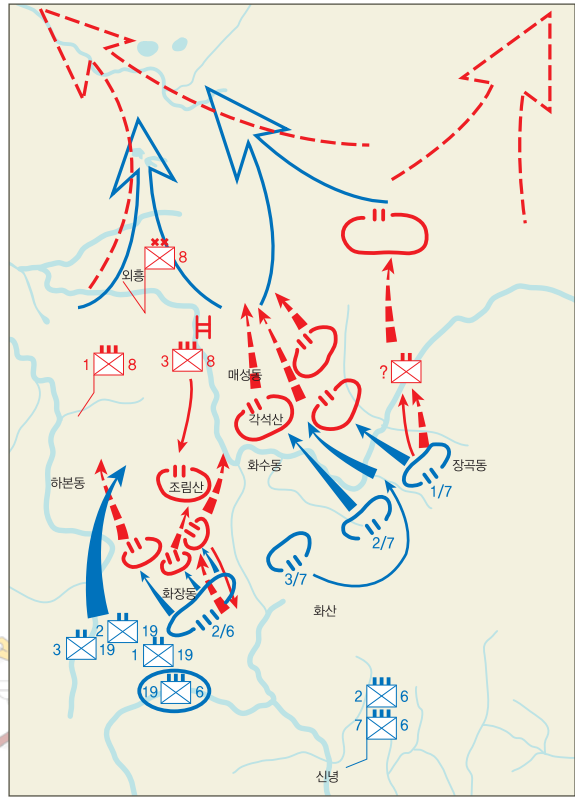
북으로 관통하고 있어 착잡한 지형에 비하여 교통은 편리하다. 이러한 지형은 공격, 방어 어느 편에도 대체로 대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9월 15일에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됨에 따라 낙동강 전선 중동부지역의 국군 제2군단은 제6사단이 신녕에서, 제8사단이 영천에서 북한군 제8사단과 제15사단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작전을 준비 중이었다. 신녕의 제6사단(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반격작전 제1단계 작전목표로 예천-함창선을 점령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9월 16일, 작명 제44호를 통해 국군 제6사단은 군단의 주공으로 제1차 진출예정선인 도원동으로

진격하고, 공격 도중 중간목표인 청노동(靑路洞)을 탈환하면 금성산과 271고지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6사단은 제19연대를 사단 예비로 하고, 제2연대는 사단 좌측에서, 제7연대는 우측에서 도원동-예천-함창 방향으로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신녕 북쪽의 전술적 요충지인 조림산을 공격하여 점령함으로써 공격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북한군은 9월 14일에 전 병력을 집중하여 국군 제2연대 정면을 돌파하기 위해 공격을 했으나 실패를 거듭하고 방어태세에 돌입했으며, 국군 제7연대 지역에서는 북한군 주력이 국군의 화력에 전력소모가 극심해져 금양동(조림산 북쪽 2km) 부근에서 부대 재정비에 들어갔다. 9월 16일에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가 349고지와 332고지 방향으로 진격하여 고지를 탈환하였으며 정면의 북한군은 조림산 방향으로 후퇴하였다. 제7연대는 영덕동 방향으로 공격하여 조림산 동쪽의 능선 일대를 점령하였다. 제2연대와 제7연대의 공격이 성공함에 따라 국군 제6사단은 남원리-332고지-조림산 우측 능선까지 제





19연대, 제2연대, 제7연대 순으로 병력을 병렬 배치하였다.

9월 17일에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를 주공으로 하고 제7연대를 조공으로 하여 조림산 탈환작전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조림산 서남쪽의 아치동(조림산 서남쪽 2km) 일대와 남쪽 1km지점 능선 일대에서 중심을 강화한 가운데 국군 제2연대의 공격에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조림산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조림산 일대로 퇴각한 북한군을 포위 섬멸하기 위해 국군 제6사단은 제2연대와 제7연대를 좌우 병립의 주공부대로 하고, 제19연대를 조공부대로 하여 공격을 하였으나 북한군도 정상을 거점으로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21일에도 제6사단장은 제19연대와 제7연대의 화력지원하에 정면의 제2연대가 조림산 정상 북한군 진지를 돌파하도록 하였으나 조림산 정상 부근의 지형적 특성과 완강한 북한군의 저항으로 인해 고지 점령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제2연대장은 차량 170여대를 동원하여 국군의 증원부대가 신녕 북쪽으로 전진하는 것으로 오판하도록 기만전술을 사용하였다. 기만전술로 북한군 시선을 분산시킨 제2연대는 전 병력을 투입해 재차 조림산 공격을 감행하여 탈환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조림산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퇴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조림산을 탈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6사단은 조림산을 탈환한 이후 제19연대는 우보로 진출하는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였으며, 제7연대는 조림산 북방의 각석산을 탈환하고 계속해서 도원동-함창-충주선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8사단은 신녕 북방에 구축되었던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의성-청송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신녕·영천전투』, 198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4권, 1971.

【박종상 집필】

## 의성 방면 반격전

[義城方面反擊戰, 1950. 9. 16.~22.]

### 개요

국군 제8사단이 1950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의 구산동에 위치한

북한군 제15사단을 격퇴하고 기룡산과 보현산을 돌파하여 의성 방면으로 반격을 실시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의성 일대에는 향로봉(△930), 등운산(△786)을 비롯하여 해발 300~600m의 대소 고지군이 연이어져 있다. 이 지역은 안동-의성-군위-대구로 이어지는 5번 도로가 작전지역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중앙선 철로가 이 도로와 병행한다. 또한 의성-신녕(28번 도로), 의성-구산동(912번 도로), 의성-길안-청송(914번 도로)이 의성을 중심으로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다.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고 낙동강전선에서의 총반격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영천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루고 영천 방어에 성공한 국군 제8사단(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구전동-자천동-삼매동 북쪽-인구동 남쪽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병력을 재정비한 후 총반격작전을 실시하였다. 9월 13일, 국군 제8사단이 배속된 제2군단(군단장 유재홍 소장)에서는 제6사단(사단장 김종오 준장)을 주공으로 하여 도원동-함창-충주선을, 제8사단을 조공으로 하여 의성-안동-영주선을 따라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8사단은 제21연대(연대장 김용배 대령)를 사단정면의 좌측에, 제10연대(연대장 고근홍 대령)를 우측에 각각 전개시키고, 제16연대(연대장 유의준 중령)를 예비로 하여 제1차 진출예정선인 구산동-의성 쪽으로 공격하여 이 지역을 점령 확보한 후 계속해서 안동 방향으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제8사단은 북한군 제15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기룡산(△961)과 보현산(△1124)을 탈취해야만 하였다. 9월 16일, 제8사단은 우선 제10연대를 기룡산 남쪽 고지군에, 제21연대를 영천-구산동 도로축선에 전개하고 기룡산, 노고령(보현산 서쪽 고개)을 최초 목표로 반격작전을 전개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

9월 17일, 북한군 포로 노획문서에 따른 첩보와 적정을 비교분석하여 전방의 제21·제10연대로 하여금 공격을 재개하고 사단예비인 제16연대를 기룡산 서북쪽의 보현산 탈환을 공격목표로 부여하여 전방 양개 연대의 간격으로 투입하였다. 이리하여 제10연대는 기룡산을, 제16연대는 보현산을, 제21연대는 노고령을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여 동측의 제10연대는 18일에 기룡산 주봉을 점령하였고, 사단의 서측에서 노고령을 목표로 공격하던 제21연대도 19일 아침에 노고령을 탈취하였다. 또한 사단 예비로 있다가 투입된 제16연대도 북한군이 북쪽으로 철수함으로써 21일에 보현산으로 진출하였다. 북한군 제15사단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노고령을 점령한 제21연대는 21일에 구산동 남쪽

3km지점에 있는 거무실까지 진격하여 구산동 남쪽 고지 일대에서 격전을 벌여 북한군을 의성-청송 방면으로 물리치고 구산동을 완전히 점령하고 의성 방면으로의 진격을 준비하였다. 제10연대와 제16연대도 23일까지 고평동 우측방의 북한군을 물리치고 의성 방면으로의 진격 준비를 갖추었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8사단은 영천 북쪽의 전술적 요지인 기룡산과 보현산을 탈취한데 이어 작전의 중간 통제선인 구산동을 점령함으로써 추격작전의 발판을 구축하였다. 이후 육군본부의 국군 총반격명령에 따라 제8사단은 작전지역 내의 잔적을 소탕하고 총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신녕·영천전투』, 1984.

[박종상 집필]



## 형산강 전투

[兄山江 戰鬪, 1950, 9, 16.~22.]

### 개요

국군 제3사단이 1950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북한군 제5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경북 포항을 형산강을 도하하여 탈환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포항은 항만과 철도, 육로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동해안 최대의 병참기지일 뿐만 아니라 포항남쪽 6km 지점의 영일비행장은 미 제40전투비행대대가 주둔해 지상부대를 근접지원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지역 내 형산강은 경북 울산과 경주·포항을 거쳐 동해 영일만으로 흘러드는 강으로 경주시 중심 부근에 경주평야, 안강읍 부근에는 안강평야, 하구지역인 포항 일대에서 포항평야를 형성한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고 낙동강전선에서 총반격작전이 실시될 무렵인 1950년 9월 15일에 국군 제1군단(군단장 김백일 준장) 예하 제3사단은 포항 남쪽에



군 제3사단은 제22연대가 흥해를 탈환하고, 계속해서 고현리선에 진출하였으며, 제23연대는 자명동과 학전동 일대 북한군 제10연대를 공격하여 주력을 격퇴시킨 후, 도음산 남쪽 능선상의 295고지 일대로 진출하였다. 제26연대는 북한군 패잔병들을 섬멸하면서 계속 북상하여 소동리(청하 동남 4km) 부근에 진출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3사단의 반격이 시작된 기간 북한군 제5사단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고 주력은 동해안 7번 도로를 따라 울진 방향으로 후퇴하였으며, 일부는 흥해 서북쪽 비화산으로 잠입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안강·포항전투』, 1986.

【박종상 집필】



### 개요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 2개 연대가 1950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양양에서 국군 최초로 38도선을 돌파한 후 원산을 점령하기 위하여 양양-간성-고성-통천 방향으로 공격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국군 제3사단이 공격 목표로 하고 있었던 양양-통천 일대에는 동해안을 따라 도로가 북쪽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고, 철도도 일제 강점기에 양양에서 안변까지 연결되었다.

이무렵 동해안에서 후퇴 중이던 북한군 패잔병들은 국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려고 박격포와 76mm 대전차포로 국군의 추격을 견제하였다. 또한 도로에 수많은 지뢰를 매설했고 요소마다 엄체화와 교통호로 보강된 견고한 저지 진지를 구축하여 국군의 추격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려고 하였다.

9월 30일 정일권 총참모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명령을 받고 워커(Walton H.

Walker) 미 제8군사령관을 만나 제3사단이 38도선 바로 북방에서 적의 치열한 사격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있으므로 부득이 이 고지를 점령해야겠다며 설득시켰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강력한 돌파 의지를 피력했지만 미국은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9월 20일 “만일 유엔군이 38도선에서 정지하더라도 국군은 북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유엔군을 압박했고, 국회에서도 북진을 결의했다

국군 제1군단장은 9월 30일 제3사단이 양양을 확보하고, 수도사단은 태백산맥의 평창-광월리-서림가도를 전진하여 차기 작전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제3사단은 제23연대 3대대를 선봉으로 10월 1일 새벽 5시에 인구리(仁邱里) 북쪽 진지에서 38도선을 넘어 양양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이는 국군이 전쟁 후 처음으로 38도선을 돌파해 북진했던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어서 오전 8시 10분에는 제3대대 선두가 양양 남쪽 약 3마일 지점까지 북진하였다. 이무렵 제26연대는 주문진에서 차기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22연대는 강릉 일대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일 오후 2시 제23연대 주력부대는 38도선 북쪽의 20km 지점인 양양에 돌입하였고, 서림 북쪽에서 38도선을 돌파한 수도사단 제18연대도 양양을 점령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주력은 간성으로 퇴각하고, 일부는 설악산으로 잠입하였다.

뒤따라 온 제26연대가 3일 오후 12시 50분경에 간성을 점령하였으나, 다시 제23연대가 선두로 나서 북한군과 일부 교전을 한 후 간성 북쪽 거진리로 진출했다. 이후에는 사단예비로 후속하던 제22연대가 제23연대를 초월하여 오후 6시에 거진리 북쪽 4km 지점의 마달리로 진출하였다. 수도사단은 제18연대가 간성에 진출한 후 동해안 도로를 따라 북상하였다.

4일 선두로 나선 제22연대는 고성을 점령한 후 북한군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장전에 돌입하였다. 이때 제23연대와 제26연대는 고성을 향해 이동하였다. 이어서 6일, 장전을 출발한 제22연대는 전진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북한군의 저항을 물리친 후 통천을 점령하였다. 이튿날에는 뒤따르던 제23연대가 제22연대를 초월해 고저(庫底)를 점령한 다음에 송전리 선까지 진출하였다.

8일 오전 9시, 제23연대는 자산리 북쪽의 북한군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약 3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이를 격파했고, 이어서 송현리를 거쳐 쌍음리로 진격하였다. 내륙으로 우회한 제26연대는 괴화리에서 진격방향을 전환하여 패천리를 경유 정오 12시에 비운령을 점령하고 안변으로 향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이 최후 항복권고문을 발표하였던 10월 9일 새벽에는 제3사단 23연대가

월봉산 일대 북한군 300여 명을 제압하고 남대천을 도하해 상사고리를 통과한 후 지경리 부근까지 진출하여 원산 공략의 거점을 확보하였다. 비운령을 넘어 우회기동한 제26연대는 안변을 점령하였다.

한편, 사단 좌측에서 공격 중이던 수도사단은 제18연대가 5일, 군단 좌측으로 우회하여 태백산맥 동쪽에서 준동하는 북한군 패잔병을 소탕한 후 신고산-남산리-방화리를 거쳐 지경리 부근에 이르렀다. 제1기갑연대는 도남리를 경유하여 안변으로 진격한 후 원산을 향해 공격하고 있었으며, 제1연대는 회양에서 신고산으로 진출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38도선을 돌파한 후 안변과 지경리 일대에 도달함으로써 원산 공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수도사단 제18연대-수도사단 제1기갑연대-제3사단 제26연대-제3사단 제23연대 등이 원산 서남쪽의 신고산에서 동해안 쌍용리까지 원산을 향해 타원형으로 공격축선을 형성함으로써 원산을 공격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평양탈환전』 (19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제3사단 작전명령 제45호(1950.10.3)』.



【박동구/조성훈】

## 서림-안변 진격전

[瑞林-安邊 進擊戰, 1950.10.1.~9.]

### 개요

국군 수도사단이 1950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양양 서남쪽 서림리에서 38도선을 돌파한 후 원산을 점령하기 위해 양양-간성-양구-말회리-회양-철령을 경유하여 신고산을 점령하고 안변까지 진격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강원도 양양군 서림에서 함경남도 안변 지역은 양양-간성-고성의 동해안을 따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 내륙에는 험준한 태백산맥이 있어서 미처 퇴각하지 못한 북한군이 산악 지대에 잠입해 게릴라 활동을 하고 있었고, 퇴각한 부대는 원산으로 집결해 국군

의 전진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1950년 9월 30일 국군 제1군단장으로부터 38도선을 돌파 명령을 받은 수도사단은 10월 1일 서림리에서 38도선을 돌파한 후 제1대대가 이튿날 오후 2시에 양양에 돌입하였다. 제18연대를 뒤따르던 제1기갑연대도 대화에서 광원리로 진출한 후 양양에 진입하였다. 강릉 방면으로 우회하기로 계획된 제1연대는 영월에서 속사리로 이동한 후 2일부터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향하였다.

3일 수도사단은 제18연대를 선두로 양양을 점령하고, 제3사단을 따라 강선리를 거쳐 간성으로 진격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제18연대를 뒤따르고, 대관령으로 우회한 제1연대는 차량을 이용하여 강릉-주문진을 경유하여 오후에 양양에 진입하였다.

4일 수도사단장은 군단의 명령에 따라 제18연대를 원통-양구 방면으로 우회시켜 30대의 차량에 약 2주간의 보급품을 싣고 간성을 출발하여 진부리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5일 새벽 5시 제18연대 제1·제2대대가 진부리를 출발해 진부령을 경유하며 원통-양구를 공격해 저녁에 양구 동쪽 송우리까지 진출하였다. 제3대대는 원통까지 본대와 함께한 후 인제 방면으로 진격하여 잔적을 소탕하고 원대로 복귀하였다.

이어서 제18연대 제1대대가 6일 오전 7시에 송우리를 출발해 10시에 양구를 완전 점령하고 임당리까지 진출하였다. 제2대대는 송우리에서 457고지로 진격해 월운동까지 진출하였다. 제3대대는 제1·제2대대 뒤를 따랐다. 양구에서 내륙으로 진격 중이던 제18연대는 7일 말회리까지 진출해 원산을 공격하기 위해 안변 공격에 나섰다.

한편, 제1기갑연대는 고성 남강 북안을 거쳐 외금강까지 진출한 후 6일 통천에 진입하고, 제1연대도 조산리-간성 사이에서 북한군을 소탕한 후, 고성을 경유하여 장전 남쪽 3km 지점 성북리에 도달하였다. 이어서 제1기갑연대는 태백산맥의 추지령(금강군, 회양군, 통천군 경계)을 넘어 화천까지 진출하였다. 제1기갑연대 뒤를 따라 제1연대는 추지령까지 진출하였다.

이후 제1연대는 8일 새벽에 회양 남쪽에서 신고산을 향해 진격했고, 제18연대는 제1연대 뒤를 따라 말회리에서 제2대대를 선두로 하여 쌍계평리(현 신고리)-신안리(현 館里)를 경유하여 회양에 도달하였다. 제18연대 제1대대가 제1연대 진지를 인수하고 오후 7시에 야간공격을 실시하였으나 공격이 좌절되었다. 제1대대장이 배기통을 뚫은 트럭 5대와 기타 차량으로 전차 소음처럼 기만하고 돌진을 하였다. 북한군이 전의를 상실하고 철령을 포기한 후 신고산 쪽으로 도주하게 되자 야간에 철령을 넘어 이튿날 아침 신고산을 점령하고 경원선을 차단하였다.

사단의 우측에서 제1기갑연대 제1대대는 화천리에서 도남리로 진격하여 9일 안변까



지 진출하고, 제2·제3대대는 제18연대를 후속하여 신안리를 경유, 회양에 진출하였다가 철령을 넘었다. 제1연대도 신고산으로 진출하여 북한군을 소탕하면서 원산공격 준비에 들어갔다.

### 결과 및 영향

수도사단 제18연대가 내륙의 양구-말회리-회양-신고산 선까지 진격하여 원산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기갑연대와 제1연대도 동해안 쪽으로 원산 앞 약 4km 지점까지 육박함으로써 원산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북한군은 신고산 일대에서 원산으로 철수하여 태백산맥 일대에서 후퇴한 병력과 합세하여 남산리-방화리 선에 병력을 배치하고 국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④ (1970).  
 육군본부, 『육본작명 제205호(1950.10.5.)』, 『한국전쟁사료』(63), 1987.

【박동구/조성훈】



##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

[湖南地區 Guerrilla 討伐作戰, 1950. 10. 4. ~ 1951. 4. 6.]

### 개요

국군 제11사단이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4월 6일까지 게릴라의 근거지 파괴와 재집결을 봉쇄한다는 목표 아래 지리산을 중심으로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던 게릴라들을 토벌한 작전이다.

### 전개과정

전선에서 피아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는 동안 후방지역에서는 국군 제11사단이 지리산과 호남지구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불갑산, 백아산, 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둔 게릴라들은 중공군이 개입하자 6·25전쟁 초기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것으로 믿고 1951년 1월 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2월 중순 이후부터 게릴라들은 100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으로 집단 출몰해 살인·방화·약탈 등을 통해 유엔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였다. 당시 미 제8군사

령부에서는 전북에 3,600명, 지리산 일대에 2,100명, 전남에 2,600명 등 총 8,300명의 게릴라들이 호남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1950년 9월 25일 창설된 후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담하게 된 국군 제11사단은 게릴라들의 근거지 파괴와 지휘자 체포를 통해 게릴라의 재집결을 봉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제9연대를 전남에, 제13연대를 전북에, 제20연대를 지리산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배속된 경찰 및 청년방위대에 후보급로와 통신망을 확보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국군 제11사단의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제1단계 작전은 1950년 10월 4일~10월 25일까지로 사단의 주력이 호남지구에 집결한 후 행정기관 복구와 적정수집, 그리고 훈련과 소규모 토벌작전을 병행하였다. 특히 이 기간 중에 퇴로를 차단당한 게릴라들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아군의 보급로와 통신망을 파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2단계 작전은 1950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소위 ‘견벽청야(堅壁淸野)’작전 개념에 입각해 산간벽지에 있는 민간인들을 소개하고 게릴라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적을 기아 상태에 몰아넣은 후 소탕에 주력한 시기였다. 제3단계 작전은 1951년 1월 1일~4월 6일까지로 이 작전기간에 게릴라들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군이 전략상 후퇴를 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지역별 연대를 이루며 약탈·납치·방화·기습 등의 활동을 감행하였다. 이에 경찰 및 청년방위대가 후보급로와 통신망을 확보하는 가운데 국군 제11사단이 게릴라 근거지 파괴에 전 병력을 집중하던 시기였다.

국군 제11사단의 토벌작전은 게릴라들의 근거지를 파괴하고 그들의 조직적 활동을 분쇄함으로써 후방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작전기간 중에 ‘저창사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군 제11사단은 1951년 4월 6일 국군 제8사단과 임무를 교대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게릴라의 근거지 파괴와 재집결을 봉쇄한다는 목표를 두고서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4월 6일까지 약 180일 동안 3단계로 진행된 국군 제11사단의 토벌작전은 게릴라와 주민들을 분리시켜 그들의 조직적인 활동을 초기에 분쇄함으로써 후방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는 등 작전상의 오류도 남겼다. 국군 제11사단의 작전 성과와 오류는 이후 전개되는 게릴라 토벌작전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 참고문헌

Hq. KMAg,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January-March 1951, RG 407, NARA.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서울 : 육군본부, 1971).

【박동찬 집필】

## 춘천-신고산 진격전

[春川-新高山 進擊戰, 1950. 10. 5. ~19.]

### 개요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춘천 북방 모진교에서 38도선을 돌파한 후 신고산-원산을 경유하여 양덕-강동 축선을 따라 평양을 공격하기 위해 화천-김화-평강-회양-신고산 선으로 진격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함경남도 안변군 신고산은 경원선과 원산~김화간 도로, 세포, 평강 등지로 통하는 큰 길이 분리되는 교통 요지이다. 또한 이 지역은 태백산맥을 비롯한 산악 지대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북한군은 이를 이용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면서 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었다.

국군 제2군단 예하 3개 사단은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1950년 10월 3일부터 8일 사이에 38도선에 모두 도달하였다. 군단의 우익인 제6사단이 가장 먼저 춘천 북방 모진교 남단 38도선에 도달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3만여 명만 38도선을 넘었을 뿐이었고, 보급계통도 두절되었으며 전의마저 상실해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제6사단은 10월 5일 모진교에서 38도선을 돌파해, 제2연대 제1대대가 말고개 일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물리치고 오후 3시경에 38도선을 넘어서었다. 이튿날 정오경 원주에서 출발한 제2대대가 사북면 가일리까지 진출하였고, 제3대대는 오전 11시경 인람리로 진출하였다. 제7연대 제1대대는 춘천 북쪽 서원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1개 대대 규모와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그 사이 제2대대는 6일 아침에 오음리 뒷산에서 북한군 1개 대대를 격파하고 구만리발전소를 점령하였으며, 제3대대는 오전 11시에 지촌리에서 사창리 동쪽 용암리로 진출하였다.

8일 오후 국군 제6사단은 북한군 제9사단 소속 2개 연대(실제 병력은 2개 대대로 추산)를 격파하고 화천을 점령하였다. 다음 날 오전 제7연대를 선두로 화천을 출발해 산양리 서쪽 마현(화천 북쪽 15km)까지 진출하고, 뒤따르던 제2연대는 사방거리까지 진출하였다. 계속해서 제7연대는 제2대대가 마현에서 평강 방향으로 진출하고, 제1대대는 오후 4시에 584고지에서 적과 교전 후 김화에 진출하였으며 제3대대는 학사리에 배치되어 김화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제2연대는 제1대대가 오전 7시에 상서리를 출발해 금성에 진출하고, 제3대대가 11시에 금평리를 출발해 김화를 경유하여 오후 5시에 금성에 도착하였다. 제19연대도 주력이 금성에 집결하였다.

11일에는 제2연대 제2대대가 오전 7시에 금성을 출발해 오후 6시에 신안(현 창도군 관리)에 진출하고, 제3대대가 뒤를 따라 신안을 경유해 자정에 신안 상리에 도착하였다. 제2연대 제1대대는 다음 날 회양에 도착하였고, 제7연대는 이천 방향으로 북한군을 추격하였다.

13일 오후 10시 30분 제2연대가 신고산에 도달하였고, 뒤를 따라 제7연대가 세포에서 회양을 거쳐 상평리 방향으로 진격하였다. 제19연대는 회양에 집결하였다. 이튿날 제2연대는 원산 북쪽 덕원까지 진출하였고, 제7연대도 덕원에 진출하였다. 사단 예비인 제19연대는 신고산에 집결하였다.

사단 주력이 덕원에 집결함에 따라, 사단은 15일 오전 7시 덕원을 출발하여 태백산맥의 마식령고개를 넘어 평양을 향해 장거리 진격을 시작하였다. 제2연대는 덕원을 출발해 마식령을 넘는 과정에서 북한군 1개 대대 규모와 1개 중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동양 방향으로 격퇴하였다. 제7연대는 제1대대를 정오에 덕원에서 차량으로 마전리 방향으로 진격시키고, 제2·제3대대는 덕원에 집결 대기시켰다.

이어서 제2연대는 양덕을 향해 전진하고, 제7·제19연대는 마전리 부근까지 진출하였다. 17일에 제2연대 제1·제3대대가 동양 부근까지 진출하고, 제2대대가 대륜면 인민학교 앞 400m 지점에서 1개 중대 규모의 패잔병을 격퇴하고 계속 전진하였다. 제7연대는 제1대대가 온정리까지 진격하고, 제2대대가 1개 중대 규모의 저항을 물리치고 온정리 북쪽 고지까지 진출하였으며, 제3대대도 온정리까지 전진하였다. 제19연대는 평암리 남쪽 2km 지점의 세갈랫길까지 전진하였다.

18일 제7연대는 선두부대가 되어 제1대대가 양덕을 측방에서 공격하는 가운데, 제2대대가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이들을 물리치고 오후 10시에 양덕읍내에 돌입하였고, 이튿날 새벽 성천을 향해 진격하였다. 제2연대는 오전 7시에 온정리를 출발하여 양덕으로 향하였다. 제19연대는 오후 10시에 성천까지 진출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6사단이 중부전선 춘천 지역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화천-김화-평강-회양-신고산-덕원을 경유하여 서쪽으로 평양을 향해 양덕-장림리-성천 방향으로 진격을 함으로써 지역 내 북한군을 물리치고, 평양을 향해 진격 중인 미 제1군단의 우측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었다. 이어서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군단의 청천강을 향한 북진이 순조롭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4 (197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 (53), 1987.

[박동구/조성훈]

## 개성-금천 진격전

[開城-金川 進擊戰, 1950. 10. 9. ~14.]

## 개요

미 제1기병사단이 1950년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개성 정면의 38도선을 돌파한 후 금천 일대의 북한군을 격퇴하고 황주 방향으로 진격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서부 전선의 미 제1군단 작전지역은 예성강이 금천-신계-수안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개성-금천-서흥-사리원-평양을 따라 1번 국도와 경의선 철도가 잘 발달된 곳으로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는 중요한 축선이 되는 곳이다.

금천은 개성 바로 위쪽에 있고 38도선을 지난 첫 번째 관문이었다. 만약 이곳이 뚫리면 그뒤는 금천에서 사리원-평양으로 통하는 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금천-평산-서흥-봉산-사리원-황주-중화-대동강 하구-평양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낮은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평양까지는 적의 강고한 저항이 없다면 쉽게 진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 지도부는 금천을 평양방어를 위한 제1차 지연전을 치르고자 한 최일선의 거점으로 삼았다.

미 제1군단 정면에는 북한군 주력으로 평가되는 제19사단, 제27사단, 제43사단 및 제17기갑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들은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

해 참호, 교통호 및 화기호와 철조망으로 구축된 3중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게이(Hobart R. Gay) 미 제1기병사단장은 38도선에 3개 연대를 모두 병행 배치하고 사단에 배속된 영연방 제27여단을 예비로 하여, 최초 목표로 38도선 24km 북쪽의 금천을 공격하였다. 1950년 10월 7일 유엔에서 북진 결의안이 통과되어 유엔군사령부에서는 미 제8군의 북진 준비가 완료되는 그날이 바로 북진공격 개시일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워커 제8군사령관은 10월 9일로 북진개시일을 확정 통보하였다.

9일 오전 9시 미 제1기병사단은 좌측에서 제7기병연대 제1대대 C중대를 선봉으로 파괴되지 교량을 통해 예성강 도하를 시작하여 북한군 제43사단의 집중 사격을 뚫고 해질 무렵에 연대 전체가 모두 도하하였다. 사단의 중앙에서 정면 공격을 시작한 제8기병연대는 도로에 매설된 지뢰 제거에 많은 시간이 걸려 개성 북쪽 3.5km 지점의 송악산을 탈취하는 데 그쳤다. 사단 우측에서 공격하는 제5기병연대는 장단에서 동북쪽으로 우회 기동하여 포위공격을 한 후 오후 7시 30분에 38도선에 진출하였다.

10일 제7기병연대 제2대대가 G중대를 선두로 새벽 2시에 철교 남동쪽 고지와 배천 도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8기병연대는 전날에 이어 대전차 지뢰제거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국도를 진격한 제3대대가 북한군 제19사단의 강력한 방어거점인 봉명산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단 우측의 제5기병연대는 개성 동북방에서 38도선을 돌파해 적의 산발적인 저항을 격퇴하면서 화장산 북쪽 10km까지 진출하였다.

11일 미 제7기병연대 제3대대가 예성강을 도하한 후 한포리를 목표로 밤새 이동하였다. 제8기병연대는 두석산 일대를 비롯해 적의 강력한 저항을 받아 2km도 진출하지 못하고, 제5기병연대도 화장산 북쪽에서 더 이상 진격을 못하였다. 제7기병연대 제3대대는 12일 아침에 금천 북방 한포리로 진출해 북한군 제19사단과 제27사단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중앙의 제8기병연대는 금천 못 미쳐 두석산 부근에서 작전 중이었다. 우측의 제5기병연대는 북우에서 구화리 방면으로 북진해 온 국군 제1사단과 연결하고 국군보다 8km 더 북진한 다음 금천으로 향하였다.

13일 제7기병연대가 금천 북방 한포리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공군의 지원을 받아 500여 명을 사살하고 201명을 생포하였다. 제5기병연대는 금천 동쪽에서, 제8기병연대는 금천 남쪽에서 금천을 포위하기 위해 북한군 제19사단 주력의 저항을 뚫고 진격하고 있었다. 제5기병연대 제2대대가 금천 외곽을 방어하던 북한군을 소탕하고 금천 시가지 북반부를 점령하였으며 이어 진출한 제3대대는 금천 남반부를 점령하였다.

14일 제5기병연대 제2대대가 북쪽으로 진격하여 한포리의 제7기병연대와 연결에 성공하여 2,400여 명의 적은 산악 지대로 도주하였고, 제3대대는 북상 중인 제8기병연대

와 금천 남쪽 6.5km 지점에서 연결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서부지역 개성 일대에서 10월 9일 38도선을 돌파한 미 제1기병사단은 금천 포위작전 개시 5일 만에 북한군의 저항을 제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금천에서 물러나 남천점으로 후퇴해, 서부전선에서 북한군의 제1방어선이 무너졌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평양탈환작전』 (1986).  
윤창일 외, 『6·25전쟁 60대전투』 (황금알, 2010).

【박동구/서상문】

## 구화리-시변리 진격전

[九化里-市邊里 進擊戰, 1950. 10. 11. ~14.]

### 개요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임진강 북쪽 고랑포 일대에서 38도선을 돌파한 후 신계-평양 축선으로 북진하기 위해 위천리-시변리와 삭령-시변리 일대로 진격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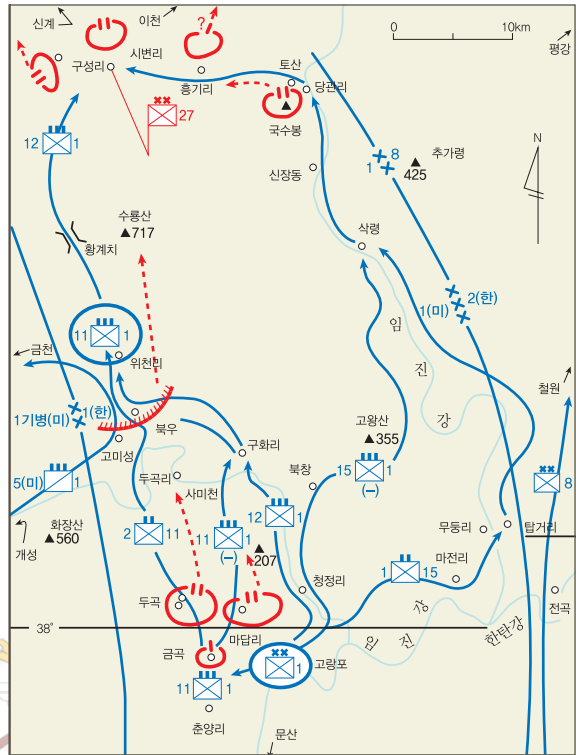
경기도 연천군 고랑포 일대에서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쪽으로 진격을 하게 된 국군 제1사단의 작전지역은 서해안에서 동북쪽으로 임진강이 삭령-토산을, 사미천이 구화리-위천리를 따라 흐르고 있고, 토산-신계에는 463번의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토산-신계를 확보한 후 수안-울리-상원 선으로 진격하면 평양 동쪽 측방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다.

국군 제1사단의 정면에는 북한군 제27사단 패잔병들이 부대를 정비하여 아군의 북진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연대 규모의 병력과 전차도 보유하고 있어서, 지뢰매설, 포격 등으로 사단의 진격을 저지하려 했다.

1950년 10월 10일 저녁 국군 제1사단은 고랑포 일원에 사단 주력을 집결시켜, 첫 공격목표를 38도선 북쪽 32km 지점에 위치한 황해도 내륙의 교통요지인 시변리로 하고, 제11연대

를 좌일선, 제15연대를 우일선, 제12연대를 예비로 하여 38도선을 돌파하고 계획된 축선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11일 먼저 도착한 제15연대 제1대대가 동북쪽으로 진격한 후 38도선 3km 북쪽에 위치한 마전리를 점령한 다음 탐거리를 거쳐 정오에 38도선으로부터 25km 북쪽의 삭령을 점령하였다. 그 북쪽 13km 지점의 토산까지 계속 진격한 후 북한군 제27사단 소속 1개 대대 규모에 대해 야간 공격으로 토산을 점령하였다. 연대 주력은 오후 3시에 고랑포를 출발하여 38도선을 돌파하고, 38도선에서 2.5km 북쪽인 사미천 변의 청정리까지 진출하였다.



좌일선인 제11연대는 제1대대가 마답리를 점령한 다음 계속해서 북진하고, 제2대대는 야간 11시경에 38도선 북방 4km 지점인 서두정장(西頭井場)에 진출하였다. 백선엽 사단장은 진격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자 보전포 협동작전을 위해 군단에 전차 배속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군단에서 M-46형 전차 21대로 편성된 미 제6전차대대 C중대를 배속시켰다.

사단장은 제12연대 제1대대를 미 제6전차대대 C중대에 탑승시키고 고랑포 북방 14km 지점의 구화리를 목표로 진격하였다. 2번 전차에 사단장이 탑승하고 사미천 해안을 따라 구화리를 거쳐 해질 무렵에는 구화리 북서쪽 10km 지점의 북우 근처까지 진출하였다.

제11연대는 제2대대가 12일 새벽 1시 고미성에서 사미천을 이용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연대 주력은 구화리를 거쳐 두곡리로 진출하였다. 토산을 점령하고 있던 제15연대 제1대대는 진로를 서쪽으로 바꾸어 시변리를 목표로 진격하였다. 이어 제2대대와 제3대대가 오전 8시에 청정리를 출발하여 삭령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북창을 거쳐 고왕



산 동측방을 우회하여 저녁 10시에 삭령에 도착하였다.

제15연대 제1대대가 13일 새벽 1시 토산리로부터 시변리를 목표로 우회 기동하여 오전 7시 30분에 시변리 동쪽 끝부분을 점령하였다. 아침 삭령을 출발한 제2대대가 오후 2시 시변리 서쪽 3km의 구성리로 진출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제3대대도 오후 3시에 시변리에 진출하였다.

위천리에서 제11연대를 초월 공격한 제12연대는 마식령산맥의 황계치를 넘어 시변리를 목표로 계속 진격하여 오후에 시변리에 도착한 후 제15연대와 연결하고 시변리 북쪽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곽으로 진출하였다. 제11연대는 제12연대를 따라 일몰경에 시변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사단은 시변리를 확보하고 북한군 퇴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14일 국군 제1사단은 보전포 협동작전으로 시변리를 점령하고 계속 신계-곡산 쪽으로 후퇴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여 연대 규모의 북한군과 전차전을 벌인 후 야간에 신계까지 진출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사단은 38도선을 돌파한 후 시변리를 목표로 보전포 협동작전으로 북한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시변리-신계 선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울리-상원 방향으로 계속 진격하고 평양을 탈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평양탈환작전』 (1986).

【박동구/조성훈】

### 원산 탈환작전

[元山 奪還作戰, 1950. 10. 10.~11.]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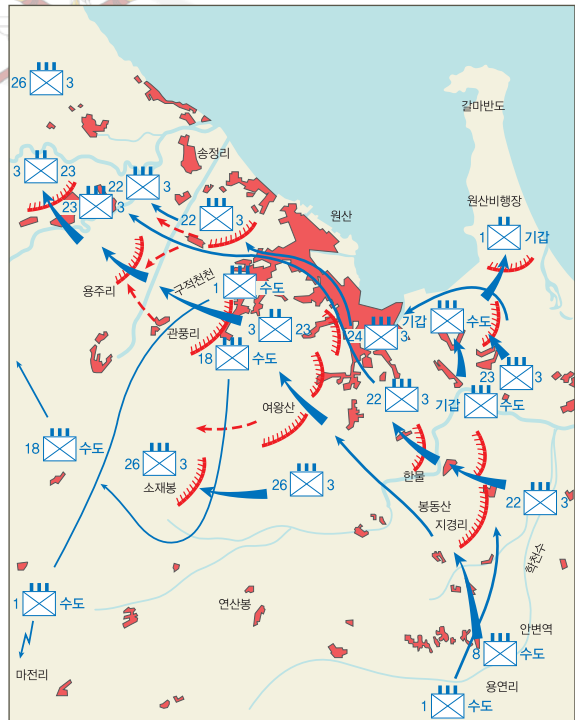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제3사단이 1950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먼저 서쪽과 동쪽의 고지군을 점령한 후 중심 시가지지를 협공해 원산을 탈환한 작전이다.

## 전개과정

원산은 북한 동부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군사적 요충지로 경원선, 평원선, 원라선(원산-라진)이 시작되는 곳이다. 특히 원산-평양을 연결하는 통로가 차단되면 평원선의 횡적 작전선이 위협을 받아, 북한군은 동서부 전선이 분리되어 평양이 동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원산 항구는 소련으로부터 각종 전투장비 및 보급품 등 전쟁 물자가 반입되는 모항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원산비행장은 평양까지 20~30분밖에 안 되는 비행거리에 있어서 북한 지역의 제공권 장악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지이다.

북한군은 원산지역 방어를 위해 해군사령부(동해안방어사령부)로 하여금 모든 역량과 기재를 통천 남쪽 광교천(통천군) 좌안으로부터 원산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지상으로 공격해오는 국군과 해상으로 상륙하는 미군에 대항하고자 해안에 기뢰를 설치하였다. 그들은 원산 동남쪽 25~30km를 잇는 선에 제1방어계선을, 10~15km 지점을 연결하는 지역에 제2방어계선을 설정해 원산 주변 교외에 원형으로 진지를 만들어 시가지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다. 북한군 병력은 패잔병과 증원부대의 집결로 2만여 명으로 늘었고, 전차 12대, 122mm 곡사포, 76mm 곡사포 3개 대대, 120mm 박격포 8문, 82mm 박격포, 76mm 직사포 76문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10월 10일 새벽 국군 제1군단의 원산공격작전이 시작되었다. 원산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지를 감제할 수 있는 동서 2개의 고지군을 점령하여야 했다. 그중 하나는 원산시 동쪽 끝의 189고지를 비롯하여 136고지, 73고지 등이고, 다른 하나는 시의 서쪽에서 중앙까지 뻗어 내린 여왕산(△355)으로부터 북망산(△143)으로 이어지는 능선이다. 또한 원산 동쪽에는 정유공장 등 산업시설이, 서쪽에는 시청을 비



릇한 주요 행정 관청 등이 들어서 있었다. 이에 따라 군단장은 우일선의 제3사단은 시가 동쪽 고지군을, 좌일선의 수도사단은 시가 서쪽의 여왕산을 최초 공격목표로 각각 부여하였다. 고지군의 목표를 점령한 다음에는 원산시를 향해 각각 동쪽과 서쪽에서 공격하도록 하였다.

원산시 동쪽에서는 제3사단 제23연대가 새벽 5시 30분에 제일 먼저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는 야포 및 박격포 사격과 76mm 자주포 5대의 지원을 받아 저항하는 북한군을 공격해 원산조차장-73고지-원산비행장을 잇는 방어선을 격파하고, 오전 7시에 시가전에 돌입하였다.

이어 일제 트럭으로 장갑차량 기동타격부대로 가장하여 적진을 돌파해 온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 제1대대가 원산으로 돌진해, 제3사단 제23연대를 후속하여 시가전을 전개한 후 원산시 동쪽을 확보하였다.

내륙으로 우회기동한 제3사단의 좌일선 연대인 제26연대는 수도사단 책임지역인 여왕산을 목표로 진격하고, 수도사단의 선봉인 제18연대도 여왕산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수도사단장과 제26연대장이 여왕산 산록에서 만나, 수도사단 제18연대가 여왕산을 계속 공격하기로 하였다. 제3사단 제26연대는 원산시 서남쪽을 차단하기로 하고, 춘산리, 장흥리를 거쳐 여왕산 3km 좌측방에 있는 소재봉(△297)으로 향하였다.

여왕산 공격에 나선 제18연대가 제10포병대대의 지원을 받아 3개 대대를 전부 투입하여 공격하였으나 진출이 좌절되었다. 이때 수도사단을 지원하던 모스키토기 폴리곤(polygon)호의 유도로 미 해병비행단의 F-4u기 편대가 여왕산의 북한군 진지를 공습해 수도사단의 진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여왕산을 점령할 수 있었다. 제18연대의 일부 부대는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 원산시 일각에 돌입하고, 수도사단의 예비인 제1연대는 이날 아침 신고산을 출발하여 원산 외곽 배화 부근으로 진출하였다.

수도사단과 제3사단이 원산을 먼저 점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북한군은 정오까지 시내 곳곳에 각종 포를 배치하고 저항하다가 오후에 원산시 북서쪽 외곽으로 철수시킨 후에도 시가지를 향해 계속 포격을 하면서 국군의 소탕작전을 방해하였다. 오후 10시경 76mm 자주포 10대를 앞세운 북한군 기갑부대가 역습을 가해와 제3사단장과 수도사단장은 병력을 일시 외곽 고지로 철수시켰다. 북한군 자주포 3대가 기갑연대 제1대대의 경계선을 뚫고 원산비행장까지 들어와 대부분의 건물과 격납고를 파괴하고 도주하였다.

11일 새벽 3시 북한군 기갑부대가 후퇴하자, 제3사단은 공격을 재개해 저녁 때 원산역 북쪽의 적전천(赤田川) 제방까지 진출하고, 수도사단은 시내 잔적을 소탕하면서 비행장 경비를 강화하였다. 이날 미 제8군사령관과 제5공군사령관이 원산비행장을 시찰하였다.

이튿날 제5공군사령관이 전투화물수송사령부 소속 수송기 22대를 동원해 국군 제1군단에 보급품 131톤을 원산비행장으로 긴급 공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이 원산을 확보함으로써 동북 지방으로 후퇴하려던 북한군의 퇴로를 봉쇄하게 되었고, 동해의 여러 항구와 연결된 영흥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어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작전은 의미없게 되었다. 또한 평양 동쪽을 위협함으로써 서부전선에서 미 제1군단의 평양탈환작전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 당시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1군단이 10월 9일 38도선을 돌파하고 개성-금천 선에서 작전 전개를 하고 있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④ (1971).  
 국방부 정훈국, 『한국전쟁1년지』 (1951).

【박동구/조성훈】

## 황주-울리 진격전

[黃州-栗里 進擊戰, 1950. 10. 15.~17.]

### 개요

미 제1군단의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을 탈환하기 위해 당시 진출선인 한포리-신계로부터 60km 거리인 황주-울리 선을 향해 진격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미 제1기병사단의 작전지역인 한포리-남천점-서흥-사리원 선은 1번 도로와 경의선 철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평양 남쪽을 위협할 수 있고, 국군 제1사단이 진격한 신계-수안-울리는 평양 동쪽을 위협하고 평양-원산 간 도로를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1950년 10월 15일 미 제1군단 중앙에서 제1기병사단 제7기병연대 제2대대가 오전 7시 경부터 금천 북방 한포리에서 남천점 공격을 시작하여 정오경에 남천점을 점령하였다.

미 제7기병연대는 제1대대를 선봉으로 사리원 북쪽 26km인 황주를 목표로 진격시키

고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계속 북진을 하도록 했다. 오후 6시에 제1대대가 남진하여 저녁 10시에 호주군 대대진지에 도착하여 상호 연결을 하였다.

군단의 우익인 국군 제1사단은 신계를 점령한 후 제12연대가 신계 서쪽 2km 지점 신계-수안 도로를 따라 수안 남쪽 4.5km 지점 하유리까지 진출하였다. 신계리를 출발하여 대평리-도아리-능리 축선으로 진격한 좌익선 제11연대도 21km를 진격하여 해질 무렵까지 도아리 남쪽 6km 지점 광수리로 진출하고, 사단 예비인 제15연대와 사단사령부도 시변리에서 신계리로 이동하였다.

16일 아침 남천점으로부터 진격을 개시한 미 제7기병연대 제3대대가 신막을 경유해 정오에 서흥을 점령하고, 뒤를 따르던 제1대대는 서흥에서 북쪽 신당리로 진출하였다. 남천점에서 서쪽의 누천리 방향으로 서진한 미 제5기병연대와 제24사단 제19연대는 각각 청석두리를 목표로 진격하였다.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는 하유리를 출발하여 북서쪽의 수안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오전 9시 연대가 오류동으로 진출하고, 우측의 제2대대가 전차의 지원을 받아 오후 12시 30분에 장흥동 뒷산으로 진출한 후 제3대대의 요동산 공격을 화력으로 지원하였다. 오후 3시 30분경에 제3대대가 요동산을 점령하고 연대의 목표지점인 수안을 점령하였다. 저녁 8시 경에는 연대 전 병력이 수안에 집결하였다. 사단 좌익인 제11연대는 16일 새벽 5시에 광수리를 출발하여 7km를 진격해 도아리를 점령한 후 일몰까지 좌익점 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과의 전투지경선 가까이에 있는 능리로 진출하였다.

17일 새벽 미 제7기병연대는 신당리의 제1대대를 선두로 사리원 북쪽 26km 지점인 황주를 목표로 원거리 우회기동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서흥에 도착한 영연방 제27여단이 서흥에서 미 제7기병연대 진지를 초월하여 사리원으로 진격하였다. 선두의 영국군 아길대대가 사리원 남쪽 6km 지점까지 진출한 후 오후 4시에 사리원으로 진출하였다. 오후 5시에는 호주군 제3대대가 황주 쪽으로 8km를 북진하여 사리원-평양 선의 도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리원을 출발하였다.

제12연대는 오전 7시 수안 북서쪽 27km의 울리를 목표로 진격을 시작해 제1대대가 울리 남쪽 2.5km 지점의 상암리까지 진출하였다. 제1대대는 제2대대의 증원을 받아 저녁 7시경에 울리를 점령하였다. 울리를 점령한 제2대대는 울리 서쪽 17km 지점인 상원으로 진격해 오후 9시경에 상원에서 제11연대와 연결하였다. 사단예비로 제12연대를 뒤 따르던 제15연대도 울리로 진출하였다. 제11연대는 새벽 5시에 능리를 출발하여 오후 6시에 상원을 점령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사단은 10월 17일 상원선에 도달하였다. 같은 날 황주까지 진출한 미 제1기병사단보다 이를 늦게 출발하였지만, 먼저 평양에 근접하였다. 그 결과 국군 제1사단은 평양 공격에서 서로 경쟁하던 미 제1기병사단에 앞서서 평양을 점령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평양탈환작전』 (198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4 (1970).

[박동규/조성훈]

## 영흥-함흥-성진 진격전

[永興-咸興-城津 進擊戰, 1950. 10. 16. ~30.]

### 개요

국군 수도사단이 두만강까지 진격하기 위해 1950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18연대가 함흥, 신흥, 장진, 부전령을, 제1연대는 흥남, 흥원, 황수원, 풍산을, 제1기갑연대는 북청, 이원, 단천, 성진을 향해 진격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함흥 일대는 길이 약 40km, 폭 20km 정도의 넓은 평야지역으로 엄폐물이 없고 감제하기 좋아 공격하는 부대에는 불리한 지형이고,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과 장진호, 부전호, 황수원호 등에 이르는 험준한 산악 지형은 방어하기에 용이한 지역이었다.

북한군은 이무렵 함흥 북쪽에서 장진호 및 부전호 방향으로, 북청에서 황수원호-풍산 방향으로, 북청에서 동해안 도로를 따라 단천-성진 방향 등 세 방향으로 분산해서 패주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이 제3사단과 함께 1950년 10월 10일 원산탈환작전을 마친 후, 제1군단장은 15일 제3사단에 원산과 그 부근 일대를 경계하는 동시에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수도사단에는 함흥과 흥남으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이에 제18연대가 원산 북방의 영흥과 정평의 중간 지점인 금진강까지 진격해 있었고, 제1연대는 함흥-흥남 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제1기갑연대는 영흥에서 제1·제18연대와 합류해 있었다.

송요찬 사단장의 공격명령에 따라, 10월 16일 오전 6시 30분 제18연대는 제2대대를 선두로 차량으로 영흥을 출발해 오전 12시에 정평에 진격하였다. 이튿날 새벽 5시에 공격을 시작해 오전 11시 30분에 함흥을 점령하였다. 제1연대도 오전 6시에 운남리를 출발해 오전 10시에 흥남에 돌입하고, 제1기갑연대도 함흥 남쪽 지경리에 진출하였다.

이무렵 함흥과 흥남을 방어하던 북한군 제249여단과 제588포병대대가 함흥 북쪽의 오노리를 경유해 장진호와 풍산 방면으로 철수하고, 흥남 동북쪽에 있던 제598부대가 흥원을 경유해 나남 방면으로, 흥원에 주둔하고 있던 제10여단이 갑산 방면으로 각각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18연대를 장진호와 부전호 방면으로,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각각 풍산과 성진 방면으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18일 제18연대는 장진, 신흥으로,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는 흥남에서 흥원 방면으로 각각 공격하고, 오후 3시에 제1연대는 흥원으로 진격했으며, 제3대대는 신포까지 진출하였다. 이어서 제18연대는 제1대대가 장흥리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19일 교통의 요충지인 오노리를 점령한 후 오전 11시 30분 고토리를 향해 진격하고, 제2대대는 오전 10시 30분 신흥까지 진격하였다. 이튿날 사단은 신흥과 흥원을 점령하였다.

21일 제18연대 제1대대가 마전동 부근에서 장진호 진격 준비를 하고, 제2대대는 신흥 북쪽에서 신포를 향해 공격하였다. 다음날 제1연대는 북청을 점령한 다음 풍산 방향으로 진격하여 후치령 남쪽 상직동까지 진출해 각 대대별로 후치령 일대의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23일 정오 제1기갑연대가 신북청에 진출하였다.

26일 제18연대는 신포에서 화점치(불거미재)를 공격하였다. 제3대대가 오후 늦게 화점치를 돌파하고, 제2대대가 부전호 남쪽 원풍리에서 중공군 전초부대 약 500명과 최초 접전하였다. 제1기갑연대가 단천을 점령한 후 성진을 향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27일 오후 제1연대가 황수원리, 풍산을 점령한 후 해산진 진격 임무를 미 제7사단에 게 인계하고, 단천으로 기동하기 위해 고성까지 진출하였다. 기갑연대는 오후 5시에 마천령 최고능선(△873)을 점령한 다음 성진 서북쪽 고지를 차례로 확보하고 29일 성진을 점령하였다.

30일 수도사단은 단천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제18연대는 부전호 남단과 화점치 북쪽 수상리 일대에서 진지를 강화했으며, 제1연대는 풍산-고성-단천으로 이동하고, 제1기갑연대는 성진 북쪽 3km 지점의 학성동 부근에서 진지를 점령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수도사단은 10월 말까지 제1연대가 함경산맥 풍산 일대를, 제18연대가 개마고원 부

전령 일대, 제1기갑연대는 백두산에서 뺀 마천령산맥에 올라서게 되어 한중 국경선을 눈앞에 두었다. 그러나 10월 28일 부전에서 제18연대 제2대대가 중공군과 최초 접전을 한 후, 미 제10군단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이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과 접전을 하면서부터 동부전선의 전세가 급변하였다. 특히 서부전선에서의 진격 작전 실패는 동부전선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20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5).

【박동구/조성훈】

## 평양 탈환전

[平壤 奪還戰, 1950. 10. 18. ~ 20.]

### 개요

미 제1군단의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 국군 제2군단의 제7사단 제8연대가 1950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쪽 황주-울리를 잇는 선과 서북쪽 수안-울리-삼등선에서 평양을 공격하여 북한군 제17사단과 제32사단 잔류병으로 편성된 혼성부대를 격파하고 탈환한 작전이다.

### 전개과정

평양은 북한의 수도로 개성-신의주 축선 중심에 있고 평양-원산 선을 따라 동해안에 이르며, 순천-개천-강계-만포를 경유하여 압록강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평양을 점령하면 북진작전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시가지의 남쪽을 동서로 관통해 흐르는 대동강은 강폭이 400~500m 정도로 유속이 매우 빠르고 깊어, 도섭이 불가능한 하천이다. 평양은 대동강을 기준으로 북서쪽의 본평양과 동남쪽의 동평양으로 구분된다.

북한군은 평양에 평양방어사령부를 설치하고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동강 및 동평양 일대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미 제8군 정보참모부는 평양 방위부대 규모를 북한군 제17사단과 제32사단 소속의 잔류병 약 8,000여 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평양탈환작전은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1사단, 국군 제2군단 제7사단 제8연대에 의해 전개되었다. 국군 제7사단은 육군본부 예비로 있다가 1950년 10월 14일부로 국군 제2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된 후, 미군보다 평양을 먼저 점령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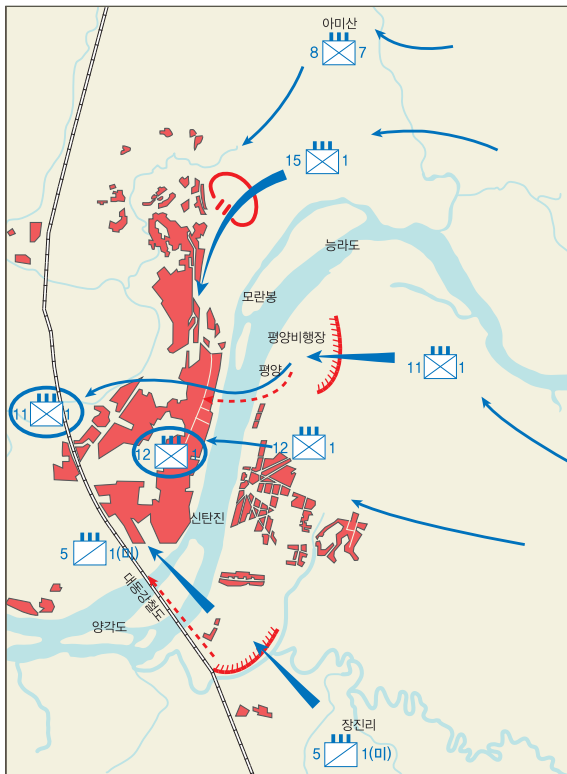


군단 병력 가운데 평양에 가장 가까운 제8연대를 평양 공격부대로 선정하였다.

10월 18일 미 제1기병사단은 새벽에 제7기병연대 제3대대를 선두로 평양 공격을 시작해 황주천을 도하한 후 평양 남쪽 12km 지점인 흑교리 근교로 진출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오전 7시 평양탈환을 위해 주공인 제12연대가 배속 받은 미 제6전차대대 소속의 2개 중대와 보전협동으로 초귀동에서 제11연대를 초월하여 대동리를 목표로 진격해 오전 10시경에 대동리를 점령하였다. 오후 11시경 제12연대 제1·제2대대가 야음을 이용해 상원강을 건너 북한군 진지 능선 하단부까지 진출하였다.

울리를 출발하여 삼등으로 우회기동한 제15연대는 오전 7시에 대동강을 도하하기 위해 서쪽으로 진격한 후 제1대대가 삼청리 부근의 광청리까지 진출하였다. 제2대대는 운학동 북서쪽 2km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연대직할대는 오후 5시에 연대 주력이 집결한 삼청리 남쪽 1.5km 지점의 괴음리로 진출하였다. 밤 10시경 제15연대는 평양 시내 대동교로부터 서쪽 11km 지점에 있는 대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쌍강포 상류쪽 남안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국군 제7사단 제8연대는 이날 아침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선봉으로 하고, 제2대대를 예비로 하여 수안을 출발해 울리를 지나 저녁 8시경 삼등에 도착하였다. 제3대대는 해질 무렵에 김일성대학을 거쳐 모란봉-기림리(서평양역)선까지 진출하였다. 자정 무렵 연대에서 모란봉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아 시내 소탕전을 중지하고 모란봉으로 복귀하였다.

19일 미 제5기병연대 제2대대는 흑교리에서 5대의 전차와 공병 1개 소대 그리고 중기관총 1개 반으로 증강된 F중대를 선두로 오전 11시 02분에 평양의 서남단에 진입하여 무진천을 도하해 오후 3시경 대동강 한북판에 있는 양각도까

지 진출하였다. 이때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제2대대가 대동교 동쪽 100m 거리인 선교리 로터리에 도착해 미 제1기병사단의 선봉부대와 동평양 선교리 일대에서 상호 연결하였다.

제11연대는 오후 12시 35분에 미림비행장에 도착한 후 진격을 계속해 최종 목표인 문수리 비행장을 오후 2시40분에 점령하였다. 제15연대는 제3대대가 마산리에서 새벽 5시에 대동강을 도하해 평양-원산간 도로를 노산리에서 차단하였다. 제2대대는 오전 8시 30분에 이천리에서, 제1대대는 오전 10시 30분에 삼산동에서 도강을 완료한 다음 본평양 모란봉과 김일성대학을 목표로 진격을 하였다. 제15연대의 본평양 탈환은 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김일성대학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3대대가 김일성대학을 확보한 후 오후 2시 50분경에 모란봉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제2대대는 능라도 대안의 제방 길을 따라 제3대대와 거의 같은 시각에 모란봉 동측을 점령하였다. 연대 예비인 제1대대는 모란봉 서측을 점령하고 북으로 철수하는 적 퇴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서평양역을 향해 서진하였다. 국군 제8연대 제1·제3대대는 잔적 소탕에 투입되고, 연대(-)는 기림리-모란봉 선에서 만수대와 전매서 부근으로 진출하였다.

20일 국군 제1사단은 제11·제12연대가 오전 7시부터 대동강을 도하해 제15연대와 합류한 후 오전 10시를 기해 평양시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국군 제1사단에 이어 미 제1기병사단도 제5기병연대를 선두로 대동강을 도하 완료하였다.

평양탈환작전은 국군 제1사단의 제11·제12연대와 미 제1기병사단의 제5기병연대가 동평양을,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와 국군 제7사단 제8연대는 본평양을 각각 점령함으로써 종료되었다.

### 결과 및 영향

평양탈환작전의 성공은 국군과 유엔군에 북한군을 궤멸시키고 통일을 달성하는 일이 눈앞에 다가오게 한 반면, 북한군은 그들의 수도마저 함락당하자 전의를 크게 상실해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전과 확대를 위해 10월 20일 평양 북방 숙천과 순천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24일에는 전 유엔군에게 한중국경을 향한 총진격을 명령하였다. 평양 북쪽에 집결한 국군 제7사단은 국군만이 전담하게 될 선천-고인동-평원-풍산-성진을 잇는 맥아더라인 이북지역 작전을 위해 23일 자정을 기해 미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평양탈환작전』(1986).

【박동구/조성훈】



## 숙천·순천 공수작전

[肅川-順川 空輸作戰, 1950. 10. 20.~22.]

### 개요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이 1950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북한군 퇴로와 증원을 차단하는 동시에 후송될 것으로 추정되는 미군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 평양 북쪽 숙천과 순천에 투하되어 전개한 작전이다.

### 전개과정

평양 북방 약 56km 거리에 위치한 숙천과 그 동쪽으로 17km 떨어진 순천은 평양에서 숙천을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 철도와 평양에서 순천을 거쳐 만포진에 이르는 만포선 철도와 함께 만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발달한 교통 및 군사상의 요충지이다. 숙천-순천을 지나면 청천강을 따라 묘향산맥과 적유령산맥이 가로놓여 있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미 제8군 병력이 평양을 향해 진격하고 있을 때, 북한 정권 수뇌와 북한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포로가 된 미군을 구출하기 위해 미 극동군사령부의 예비대로 있던 공수보병연대를 평양 북쪽에 투하할 계획을 세웠다. 공수연대는 10월 16일 이후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20일 아침에 투입하기로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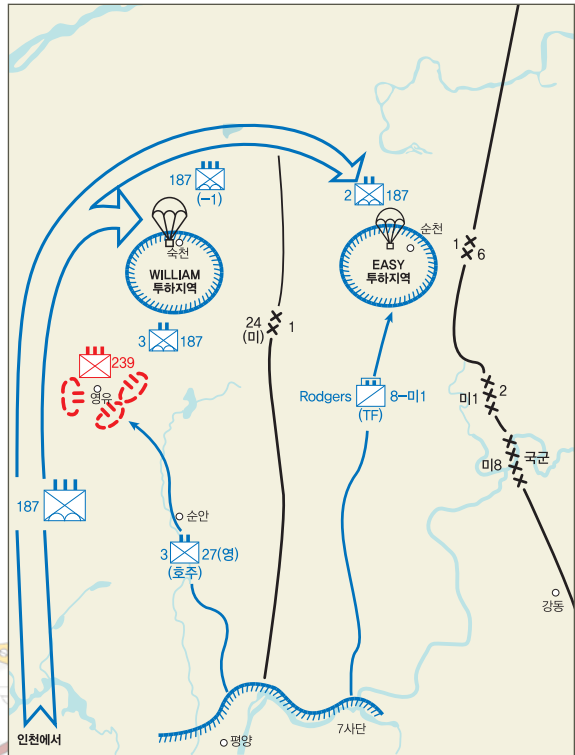
북한군은 1950년 10월 18일부터 평양에서 철수를 시작해 제239연대로 하여금 지연전을 하도록 하면서, 그 주력은 기계화부대인 제17·제105사단을 정주지역으로, 보병부대인 제4사단을 강계지역으로 집결시키고 있었다. 이때 미 제8군은 청천강 이남에 아직 1만 5천여 명 정도의 북한군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20일 공수부대원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2시 30분에 기상해 김포비행장에서 출동 준비를 하면서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오 무렵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지자, 미 제314 및 21수송비행대의 C-119수송기와 C-47수송기 등 113대에 분승하였다. 후퇴를 거듭하던 북한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었으나, 미군은 포로로 잡혀 있는 동료들을 한시 바빠 구출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기가 숙천 투하지점에 접근하였을 때, 미군 전투기들이 이에 앞서 투하 지점에 맹렬한 폭격을 해서, 오후 2시경에 주목표 지역인 숙천 상공에 선두기로부터 강하를 시작하였다. 이때 북한군 대공화기사격은 없었으나 투하지역으로부터 저지사격은 있었다.

공수연대 제1·제3대대, 연대본부 및 직할대가 먼저 낙하하고 그 뒤를 이어 105mm 곡사포와 탄약, 90mm 대전차포와 차량 등 74톤 가량의 장비가 투하되었다. 공수작전

에 처음으로 중장비가 전투지역에 공중 투하되고, C-119수송기도 처음으로 전투지역에 운용이 되었다. 연대는 목표지역에 투하 후 숙천 동북방의 감제고지들을 점령하고 숙천 시내를 소탕한 후 북방도로를 차단, 봉쇄하였다. 오후 5시까지 목표지를 탈취하고 전술적 절단을 완료하였으며, 적 5명을 사살하고 포로 42명을 잡았다. 공수연대 제2대대도 계획대로 오후 2시 20분에 숙천 서남방에 낙하하여 이날 밤 목표지역을 확보하였다. 대대의 2개 중대는 숙천 남쪽과 서쪽 도로를 차단하고, 1개 중대는 동남방에서 청천강을 향하여 기동하는 국군 제6사단과 접촉을 이루었다.



21일 아침 공수연대 제1대대는 북쪽으로 가는 주보급로를 차단하라는 임무를 받아 숙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를 확보하고, 오후에는 숙천에서 공수연대 제2대대와 연결하였다. 공수연대 제3대대는 평양으로부터 철수하여 숙천 남방 12km 지점인 어파리와 영유에서 방어 중인 북한군 제239연대 2천 500여 명과 조우하여 후방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하였다. 공격은 평양에서 청천강을 향하여 북진을 하던 영연방 제27여단이 영유까지 진격하여 남쪽에서 이들 적과 조우함으로써, 공수연대 제3대대와 함께 북한군을 남과 북에서 포위, 공격해 많은 인원을 생포하였다.

공수연대 제2대대는 숙천 북쪽 약 9km 지점 터널에서 200여 명의 미군포로가 학살되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수색작전을 벌여 생존자 23명을 구출하고 시체 66구를 찾아냈다. 이후 평양에서 북쪽으로 이동한 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 제1대대 및 70전차대대 1개 중대로 편성된 특수임무부대와 오전 9시에 연결하였다.

22일 새벽 영 제27여단의 아길(Argyll) 제1대대가 먼저 영유리에 돌입하였다. 여기서부터 호주군 제3대대가 미 제89전차대대 D중대의 전차에 탑승하여 제3대대 C중대를 선

두로 아길 제1대대를 초월 공격하였다. 호주군 제3대대장의 지휘 아래 영유리 북쪽 도로 양쪽의 과수원에 있는 북한군의 저항을 물리친 후, 영국군의 미들섹스 제1대대가 호주군 부대를 추월하여 오전 11시에 미 제187공수보병연대와 합세하였다. 이 싸움에서 북한군은 소총 및 자동화기는 물론 박격포까지 사용하였으나, 호주군 대대는 소총과 수류탄 및 총검만으로 적 270여 명을 사살하고 200여 명을 포로로 하였다. 호주군은 단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수연대 제3대대는 영유리 전투에서 805명의 적을 사살하고 681명을 포로로 획득하였다. 공수연대가 연결할 때까지 전과는 사살 2,000명, 포로 3,818명이었다. 공수연대 피해도 공수낙하 시 46명, 지상전투에서 65명 등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 결과 및 영향

공수보병연대의 공중투하 작전이 성공해 북한군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포로 3,818명을 획득했다. 이 작전으로 일시적으로 서해안 방면에서의 미 제24사단과 영 제27여단의 기동에는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북한군 주력부대의 퇴로가 차단되지 못해, 그들은 이미 숙천과 순천 북쪽으로 철수하여 청천강을 건넜고 북한 정부는 평양 함락 이전인 10월 12일경 강계로 철수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200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편(육군본부 역), 『한국전쟁』 6 (1987).

【박동구/조성훈】

## 순천-개천-희천 진격전

[順川-介川-熙川 進擊戰, 1950. 10. 20. ~22.]

### 개요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10월 20일 순천-개천-희천 방향으로 진격하기 위해 제7연대를 선두로 순천에 돌입하고, 국군 제8사단은 강동에서 군단의 우측 사단으로서 가창-북창-덕천을 경유하여 22일 희천까지 진격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순천 일대를 지나면 북쪽으로 묘향산맥과 개천-희천 선으로 청천강이 흐르고 만포선

철도와 도로가 강계까지 이어지는 주요 교통축선이 되는 곳이다.

북쪽으로 도주한 북한군은 초산-강계 쪽으로 퇴각하면서 후방보급로 차단과 유격활동을 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의 전진을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중공군이 참전하여 국군의 북진을 기다리며 기동 방어로 국군의 사단 섬멸을 기도하고 있었다.

1950년 10월 20일 오전 7시 개천을 탈환하고 희천으로 진격하라는 국군 제2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6사단 제7연대는 성천을 출발하여 순천으로 진격하였다. 저녁 8시에 차량으로 기동하여 순천에 돌입하고 미 제187공수연대와 연결하였다. 미 제187공수연대는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평양 북방 60km 지점인 순천에 공중 투하되었다.

21일 오전 6시 제7연대 제2대대는 개천 남쪽 15km 지점까지 진격하였다. 제3대대는 연대장으로부터 제1·제2대대를 초월하여 북쪽 50km 지점에 있는 개천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고, 개천을 향해 차량으로 기동하여 개천까지 진격하였다. 이튿날 제3대대는 연대 예비로 개천에 잔류하고, 제1대대가 제3대대를 초월하여 희천을 탈환하기로 하고 제1대대가 개천-군우리-월리-자작을 거쳐 구장동을 점령하였다. 다시 구장동 동북방 12km 지점 원참의 청천강을 가로질러 제1중대를 선두로 화평참(구장동 동북방 13km) 북쪽 도로변에서 북한군 장교 13명을 생포하고 북한군 500여 명과 교전 끝에 대부분의 병력을 생포하였다. 제7연대장은 제1대대가 본대와 40km나 떨어져 있어서 희천 남쪽 25km지점, 화평동 북쪽에서 숙영하였다.

제19연대는 22일 낮 12시에 용원리를 출발하여 개천까지 기동하고, 제3대대는 영변 쪽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제2연대도 제1대대가 개천까지 기동하고, 제3대대와 연대(-)는 개천 남쪽 2km 지점까지 기동하였다.

23일 오전 6시 제7연대 제1대대는 화평참을 출발하여 희천으로 진격하였다. 9km를 기동하여 하행동 삼차로에 이르고 오후 2시 30분에 희천 시내가 보이는 유중참 마을로 들어섰다. 오후 4시경에 북한군 주력이 철수하고 일부 잔류 병력이 투항하여 왔다. 포로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북한군 제18사단 일부였고 그 주력은 강계로 통하는 희천 북쪽 25km 지점인 구현령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다. 제7연대 제2대대는 희천 서남쪽 16km 지점 하행동에, 제3대대와 연대지휘소는 그 남쪽 구장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단 예비인 제2연대는 온정리를 탈환하기 위해 구장동 남쪽 자작으로 진출하고, 19연대(-)는 군우리에 대기하고 있으며, 제3대대는 영변을 점령하고 있었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6사단은 압록강을 향해 제7연대를 선두로 하여 개천-구장동-희천 선에서 대

규모의 북한군 패잔병을 물리치고 희천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북진하는 사이 중공군이 참전하여 이미 적유령산맥과 묘향산맥의 산악 지역에 은거해 있으면서 국군의 북진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북진이 저지되고 전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20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1985).

【박동구/조성훈】

## 영변-운산 진격전

[寧邊-雲山 進擊戰, 1950. 10. 22. ~31.]

### 개요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수풍댐을 목표로 진격하기 위해 순천을 거쳐 안주 부근에서 청천강을 도하해 영변을 탈환한 다음, 운산으로 진격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평양-신의주 도로는 신안주에서 청천강을 건너 서해안을 따라 잘 발달되어 있다. 도로의 동부인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에는 개마고원에서 뻗어 나온 강남·적유령산맥의 높고 험한 산악지대가 있고, 청천강과 더불어 아군의 기동작전에 천연적인 장벽을 이루었다. 영변-순천 사이에는 청천강이, 운산으로부터 압록강 중류까지는 청천강의 지류인 구룡강이 흐르고 있으며, 북쪽으로 도로가 수풍댐까지 이어져 있다.

평양을 빼앗긴 북한군은 압록강에 접근하기 전까지 일부 격렬한 저항과 게릴라 활동을 제외하고 제32사단 패잔병들도 예상외로 저조하였다. 하지만 이미 중공군은 압록강을 건너 산악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평양을 탈환한 후, 밀번(Frank W. Milburn) 미 제1군단장은 국군 제1사단이 수풍댐을, 미 제2사단은 순천을 향해 추격하게 하고, 미 제1기병사단은 평양 일대에서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백선엽 제1사단장은 순천을 거쳐 영변을 탈환한 다음 운산으로 진격해, 그곳에서 압록강 중류로 이어지는 산간도로를 이용해 수풍댐으로 진격할 것을 계획하였다.

1950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국군 제1사단은 순천을 지나 군우리 부근에 진출한 후 영변 일대까지 확보하였다. 제12연대는 순천을 지나 군우리에서 탈주한 미군포로 40여 명을 구축해 평양으로 후송하고 22일 오후 10시 개천에 진출하고, 제11·제15연대는 평양 서성리에서 순천에 진출하였다. 이튿날 제11·제15연대 주력이 안주 부근에서 청천강 남안에 진출하였다. 이때 사단에 배속된 미 제6전차대대 D중대는 적 전차 2대와 자주포 2문을 격파하고 전차 1대를 노획하였다. 동쪽의 국군 제6사단은 온정-희천까지 진출하였다.

24일 제1사단은 청천강 도하를 완료하고, 좌익인 제12연대가 구룡강 서쪽에서 용산동을 탈환한 후 운산 정면으로 돌입하고, 우익의 제15연대가 구룡강 동쪽에서 운산 동쪽을 향해 공격하기로 하며, 제11연대는 사단예비로 제12연대가 용산동을 탈환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명령을 대기하도록 하였다. 제15연대는 오후 3시에 영변에 도착하여 연대보다 2일 먼저 도착한 제6사단 제19연대 제3대대로부터 영변 지역을 인수하였다. 제19연대 병력은 차량으로 제7연대가 위치한 희천으로 떠났다. 사단 좌익의 제12연대는 제15연대의 전차 소대와 협공하여 대대 규모의 적과 전차대를 격파하고 용산동을 탈취하였다.

25일 아침 제1사단은 운산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5연대는 영변에서 구룡강 동측을 따라 운산의 동쪽으로, 제12연대는 용산동에서 운산 남쪽으로 각각 공격하여 경미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오전 11시경 운산 시내에 돌입하였다. 이후 제15연대가 수풍댐으로 진격하기 위한 중간 목표인 청산장사에서 갑자기 적과 교전을 벌였다. 연대는 이들이 북한군이 아닌 중공군임을 확인하고 사단에 보고하였다. 백선엽 사단장이 이 사실을 밀번 군단장에게 보고하였다. 미 제1군단장은 중공군은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일 것이라 하고, 오후 4시에 압록강을 향해 총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사단 좌측으로 우회한 중공군이 운산-용산동 도로를 차단하자 제11연대가 운산 쪽으로 후퇴하였다.

27일 날이 밝자 상황이 호전되었다. C-119수송기 10대에 의해 탄약을 공중보급 받은 제15·제12연대가 각각 2~3km씩 진출하고, 사단예비인 제11연대도 운산-용산동 도로를 차단하고 있는 중공군을 격퇴시켰다. 이후 운산 정면은 소강 상태가 되었다.

29일 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가 용산동으로 진출하였고, 이튿날 미 제5기병연대도 용산동에 도착하였다. 제8기병연대는 국군 제1사단 제12·제15연대의 전선을 인수하기 위하여 운산으로 출발하였다.

31일 미 제8기병연대의 제2·제3대대가 운산 서쪽 3km에 배치된 국군 제12연대의 진지를 인수하고, 미 제8기병연대 제1대대는 오후 4시에 국군 제15연대 제2대대와 진



지 교대를 하였다. 이로써 운산 서쪽에는 미 제8기병연대가, 그 동쪽에는 국군 제15연대 제1·제3대대가 배치되었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가 1950년 10월 25일 운산 동쪽과 북쪽인 조양동과 옥녀봉 일대에서 중공군과 최초 접전을 하였다. 이후 국군 제1사단이 더 이상 북진을 하지 못하고, 중공군은 계속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증원부대의 공격을 저지하고 공격으로 전환해 구장동-영변-용산동 선까지 진출하였다. 유엔군과 중공군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200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5).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④ (1971).

【박동구/조성훈】

## 초산 진격전

[楚山 進擊戰, 1950. 10. 23. ~ 26.]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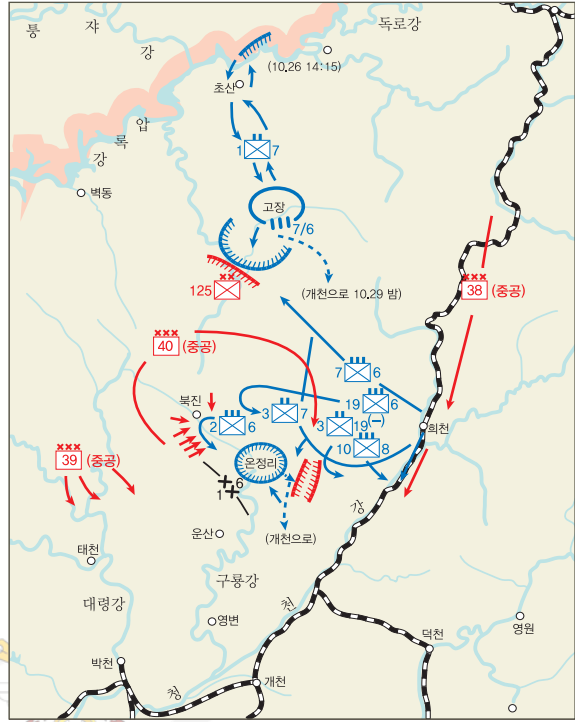
중부전선의 산악 지대를 따라 북진을 계속한 국군 제2군단 제6사단이 1950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한중 국경선 압록강 변에서 북한군을 섬멸하고 국토통일을 이룩하고자 초산을 향해 진격했던 전투이다.

### 전개과정

국군 제6사단이 북진한 온정-희천-고장-초산에 이르는 지역은 청천강을 따라 희천에 이르고, 회목동을 지나서 적유령산맥을 넘어 고장-초산에 이르면 한중국경선인 압록강 변과 연결된다.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에 도달하여 남북을 종으로 하여 국경선까지 장악하면 북한의 동서전선을 차단하고, 서부전선 부대의 북진을 위한 측방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었다.

국군의 북진을 저지하고 있던 북한군은 평양 부근에서 패주를 거듭한 후 청천강에 이르며 지연전을 하면서 계속 퇴각 중에 있었다. 초산 부근에는 북한군 제8사단 주력이 아군을 유인하여 공격할 의도로 감제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유재홍 제2군단장은 압록강 변을 제압해 한중국경선을 감시함으로써 국토통일을 완수하려는 작전개념으로, 제6사단은 좌측 수풍댐으로부터 동쪽지역을 담당하고, 제8사단은 그 동북쪽으로 만포진 방면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김종오 제6사단장은 제2연대를 좌로 하여 벽동을 목표로 진격하고, 제7연대를 우로 하여 초산을 목표로 돌진하도록 하는 동시에 제19연대를 예비로 온정리에 집결 보유하도록 하였다. 임부택 제7연대장은 초산으로 진격하기 위해 제1대대를 선두로 제2·제3대대 순으로 극성령을 넘어 회목동-관하동-고장을 점령하고 초산에 돌입하여 압록강변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10월 23일 오후 2시 국군 제7연대 제1대대는 희천을 출발해 극성령 부근에서 1개 소대 규모의 북한군을 격파하고 저녁 8시에 회목동까지 진출하였다. 제2대대는 제1대대를 뒤따르고, 제3대대는 연대본부와 같이 구장동에서 차량으로 태평을 경유해 오후 1시 15분에 온정리까지 진출하였다. 온정리 동북방 30km에 위치한 회목동 쪽으로 진출하던 중 저녁 6시에 용연 남쪽 관대동에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과 30분간 교전 끝에 이를 격퇴하고 용연까지 진격하였다. 이 무렵 태천 부근에 중공군이 출현하였다는 소문이 들어왔으나 연대에서는 이를 공산군의 역선전이나 낭설로 일축하고 진격을 위한 태세를 갖추었다.

24일 제1대대는 제3중대를 선두로 제1·제2중대 순으로 초산을 향해 진격하였다. 오후 11시 태천 부근에 중공군이 출몰하였다는 수색대의 첩보를 입수하였다. 제1대대장이 관하동에서 적의 통신선을 역이용하여 풍장에 있는 소속 미상의 적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였다. 적이 아군의 기만통신에 속아, 지원병 30여 명이 차량으로 남하하였다. 즉시 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중공군 출현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제7연대장으로부터 적

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중공군이 대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며 계속 진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25일 제7연대는 판하동에서 고장에 이르는 가도를 따라 풍장을 확보하고 계속 전진하여 저녁 6시에 고장 남쪽 안곡동까지 진출하였다. 적이 고장을 방어할 목적으로 동북쪽 야산 일대에 1개 대대 규모의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연대는 제1대대를 고장 동쪽으로, 제2대대를 서쪽으로, 제3대대를 정면에서 각각 전개하도록 하고, 2시간여 교전 끝에 저녁 8시 30분경 고장 일대를 점령 확보하였다.

26일 저녁 7시 국군 제7연대 제1대대가 초산을 점령하기 위해 대전차포 1개 소대를 배속 받아 제3중대를 선두로 제1·제2중대 순으로 눈 덮인 산야를 따라 초산을 향해 전진하였다. 초산 남쪽 6km 지점에서 중공군의 기관총사격을 받았다. 제3중대가 차량에서 내려 전개하고, 제1중대도 병행 공격하였다. 1시간여의 교전 끝에 중공군을 격파하고 오후 2시 15분에 압록강 변에 이르러 태극기를 꽂았다. 제1중대장은 신도장으로부터 좌로 제1·제2·제3소대 순으로 경계병을 배치하고 국경선을 감시하였다. 제1대대 주력은 초산 지역 경계에 임하고, 연대 주력은 고장 부근에서 적의 반격에 대비하였다.

한편 제2연대는 온정리에서 벽동을 목표로 진격하고 있었다. 온정리 서북방 15km에 위치한 북진으로 진격하던 중 선두대대인 제3대대가 동림산(△1165) 기슭 양수동에서 중공군과 조우하여 교전이 벌어졌다. 중공군은 썰과리와 피리까지 동원하였다. 선두인 제3대대가 분산되자, 예비인 제2대대까지 투입하였으나 전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이튿날 제2연대는 중공군에 온정리를 빼앗기고 퇴로가 차단된 후 부대가 분산된 채 태평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0년 10월 26일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제1대대가 한중국경선인 초산 일대의 압록강변까지 진출하였다. 하지만 중공군은 이미 10월 19일부터 압록강을 도하하여 적유령산맥과 낭림산맥을 따라 은거해 있으면서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을 유도하고 있었다. 압록강변까지 진출한 제7연대를 비롯해 제2연대는 퇴로가 차단된 채 적의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과정에서 부대가 모두 분산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200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5).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④ (1971).

【박동구/조성훈】



## 덕천-희천 진격전

[德川-熙川 進擊戰, 1950. 10. 24. ~26.]

### 개요

서부전선으로 북진을 하게 된 국군 제2군단의 우익을 담당한 제8사단이 1950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10연대는 맹산을 경유하여 영원-희천으로, 제16연대는 북창을 경유하여 덕천-구장으로, 제21연대는 사단의 예비로 사단사령부와 함께 제16연대를 뒤 따라 희천과 구장 일대까지 진격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희천 일대는 청천강과 묘향산맥을 따라 구장에서 강계-만포까지 이어지는 곳이다. 사단 병력이 위치하고 있는 덕천과 영원에서 희천에 이르기 위해서는 묘향산맥의 좌우측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산악지대에는 도주한 북한군 패잔병이 숨어 있다가 국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다. 1950년 10월 24일 국군과 유엔군이 국경을 향해 공세를 개시했을 때, 다음 날 운산과 온정리 일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공군의 기습을 받았다. 압록강을 도하한 중공군이 운산-희천 방향으로 공격해 전황이 돌변하고 있었다.

국군 제2군단의 우익을 담당한 제8사단은 제6사단 제7연대가 희천을 점령한 1950년 10월 23일에 덕천을 탈환하였다. 이때 사단은 유재홍 군단장으로부터 희천-강계 축선으로 진격해 만포진과 중강진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제16연대는 묘향산 서측의 산간도로를 따라 구장으로 이동한 후 희천으로 기동하고, 제10연대는 영원에서 묘향산 동측의 좁은 산길을 따라 오령(五嶺)을 넘어 희천으로 기동할 계획이었다. 사단에 비인 제21연대와 직할대는 제16연대의 뒤를 따랐다.

24일 오전 7시 제16연대는 덕천에서 묘향산 서쪽 통로를 따라 구장동을 목표로 기동하였다. 덕천 서북방 11km 두일령과 서북방 25km 지점에 위치한 탁고개 사이의 분지인 천동 일대에서 북한군 패잔병 250명을 포로로 하였다. 우측에서 맹산을 경유하여 영원으로 진격하려는 제10연대는 오후 4시에 영원 북방 10km 지점인 송평동까지 진출하였다.

25일 제10연대는 다시 대동강 지류를 따라 소패산(△1543) 남쪽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북한군 중대 규모가 도로 양측방 능선을 점령하고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려 했으나 사격과 포격으로 이들을 격파하였다. 이날 오후 3시 제16연대(-)가 구장동에 도착하고, 뒤이어 제3대대와 사단 예비인 제21연대도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제21연대가 좌일선 연대

로 희천을 향해 진출하고 제16연대는 사단 예비가 되었다.

26일 오후 1시 사단의 우익인 제10연대가 제8사단 가운데 제일 먼저 희천에 도착했다. 당시 희천에는 제6사단 예비인 제19연대가 위치하고 있었다. 오후 2시 제21연대가 좌익에서 구장을 경유해 신흥동에 도착했을 때, 중공군의 출현으로 인해 희천에 있던 제6사단 19연대와 제8사단 10연대는 온정리의 제6사단 제2연대를 구출하고, 제8사단(-)은 구장동에 집결하여 군단 철수부대를 엄호하라는 긴급 명령을 받았다. 이에 제19연대와 제10연대가 온정리로 출동해, 국군 제8사단의 임무는 제2연대 구출작전과 군단 철수부대 엄호로 전환되었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2군단 주력이 희천까지 진격하였으나 중공군의 출현으로 제6사단과 제8사단 제10연대가 곤경에 처하였다. 군단장이 제8사단 2개 연대를 구장동 북쪽으로 전개시켜 철수부대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그곳 일대에는 이미 중공군에 의해 곳곳에서 아군의 퇴로가 차단되었다.

특히 적진 깊숙이 초산까지 진출한 제6사단 제7연대나 온정리에서 분산을 당한 제2연대는 퇴로가 차단되어 있었다. 제2군단은 미 제1군단의 예비로 있던 국군 제7사단까지 배속 받아 군단의 동쪽 엄호를 위해 구장동-덕천 지역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곳에도 이미 중공군이 진출하고 있어서 제7사단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하고, 국군 제2군단은 개천-원리 선으로 철수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200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5).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1985).

【박동구/조성훈】

## 온정리-초산 전투

[楚山-溫井里 戰鬪, 1950. 10. 24. ~30.]

### 개요

벽동을 목표로 진격하던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1950년 10월 24일부터 온정리 북쪽의 동림산 일대에서 중공군 제40군단 제118사단의 공격을 받아 와해되고, 초산까지 진

격한 제7연대도 30일 풍장에서 방어선이 무너져 구장동을 향해 철수한 방어전투이다.

### 진개과정

온정리는 구룡강을 따라 북쪽으로 수풍, 벽동, 초산에 이르고, 남으로는 운산, 영변, 희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 교통 요충지이며, 일대는 적유령산맥과 묘향산맥의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온정리에서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벽동을 목표로 진격하고 있을 때, 중공군은 온정리 북쪽 3~12km 지점의 대소 능선 상에 잠복을 하고 있으면서 제2연대를 포위공격해 제7연대 후방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중공군은 제13병단 예하 제40군으로서 병력은 약 4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군과 미군을 분할해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국군을 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북쪽으로 돌출되어 김일성이 숨어 있던 벽동과 북한 임시정부가 위치한 만포진을 위협하는 제6사단을 우선 공격목표로 하였다.

1950년 10월 24일 국군 제2군단에 한중 국경을 향한 총 진격명령이 내려져, 군단의 좌일선인 제6사단은 초산과 벽동을, 우일선인 제8사단은 만포진과 중강진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청천강을 도하한 국군 제6사단은 제7연대가 희천에서 극성령에 이르렀고, 제2연대는 군우리 북쪽 자작에서 온정리로 진출하였으며, 제19연대는 예비로 온정리로 진격하기 위해 희천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25일 오전 9시 제2연대 제3대대가 차량으로 온정리를 출발하고, 제2·제1대대가 뒤를 따라 양수동 부근에 이르렀을 때 매복진지를 구축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공군으로부터 일제 사격을 받았다. 중공군이 동림산(△1165), 도리산(△841)과 온정리 북쪽에 잠복해 있었다. 중공군은 제40군 소속 제118사단 제354연대와 제353연대로 기습공격하여 피리와 나팔을 불고 팽과리를 치면서 심리적으로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공격을 받은 제2연대는 사상자가 속출하고, 특히 3면에서 공격을 받은 제3대대는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온정리 방면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뒤를 따르던 제2대대가 제3대대 철수를 엄호하였으나, 온정리 퇴로가 차단되어 제1사단이 작전 중인 운산으로 철수하였다.

26일 새벽 3시 중공군 제118사단과 제120사단이 온정리 주변의 주요 도로와 고지 등에서 기습공격을 하였다. 제2연대 장병들은 결국 분산 철수하였다. 연대 주력은 희천으로 통하는 소로를 이용해 후퇴하였다. 연대장이 제3대대장과 함께 병력을 수습해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을 시도하였으나 돌파되어, 연대는 와해되었다. 사단장은 제2연대를 구출하기 위해 희천에서 대기 중인 제19연대(-)를 온정리로 급파하고 군단장에게 초산으로 진출한 제7연대의 철수를 건의함으로써, 군단장이 제6사단장의 건의를 승

인하였다.

27일 희천의 제8사단 제10연대로 하여금 제2연대를 구출하고 온정리를 탈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19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가 온정리로 진출하여 공격준비를 하던 중, 중공군 제120사단이 역공해 온정리 동쪽 산악지대에서 격전을 벌였다. 제19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는 29일까지 3일 동안 중공군과 총력전을 펼쳤으나 중공군 제40군과 희천 방면으로 남하한 제38군 소속 1개 사단 등 4개 사단에 의한 공격으로 퇴로마저 차단되었다.

한편, 제7연대는 26일 고장과 초산을 점령하고, 제1대대는 한중 국경 경비임무에 돌입하고 있었다. 후방이 차단된 고장에서 공중 보급을 받은 제7연대는 29일 오전 7시 제2·제3대대, 연대본부, 제1대대 순으로 철수작전을 단행하였다. 선두 제2대대가 고장-회목 동 중간의 주원리 계곡에서 중공군 제118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제3대대도 명장산 남쪽에서 공격을 받았다. 자정에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어 제2대대 진지는 격전을 치루었고 제3대대 진지는 무너졌다.

30일 새벽 3시 무렵 제1대대 진지도 돌파되어 연대의 방어선이 와해되었다. 제7연대는 적진을 각개 돌파해 구장동으로 집결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중삼중의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100km가 넘는 구장동으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온정리의 중공군은 국군 제6사단의 약 4배에 달하는 대병력이었다. 10월 26일 중공군 제40군은 온정리를 점령하고 청천강선으로 남진하여 국군 제8사단 정면의 제38군과 희천에서 합류하였다.

초산으로 진격한 국군 제7연대 장병은 고장 남쪽에서 각개 돌파를 하고, 목표 지점인 구장동이 중공군의 집결 장소로 변함에 따라 11월 6일까지 130km를 남하하여 청천강 남안 개천에 집결하였다. 이때 연대는 총병력 3,552명 중 875명에 불과하였다. 제2연대와 제19연대도 온정리 부근에서 개천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중공군의 역습이 확인되자, 제6사단은 제2군단의 방어계획에 따라 진지 확보를 준비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⑦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5).  
온창일 외, 『6·25전쟁 60대전투』 (황금알, 2010).

【박동구/조성훈】



## 운산 전투

[雲山 戰鬪, 1950. 10. 26. ~ 11. 3.]

### 개요

국군 제1사단이 미 제1기병사단의 지원을 받아 1950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구룡강 연안의 운산 지역에서 중공군 참전 이후 전선에서 조우한 제39군과 전개한 방어 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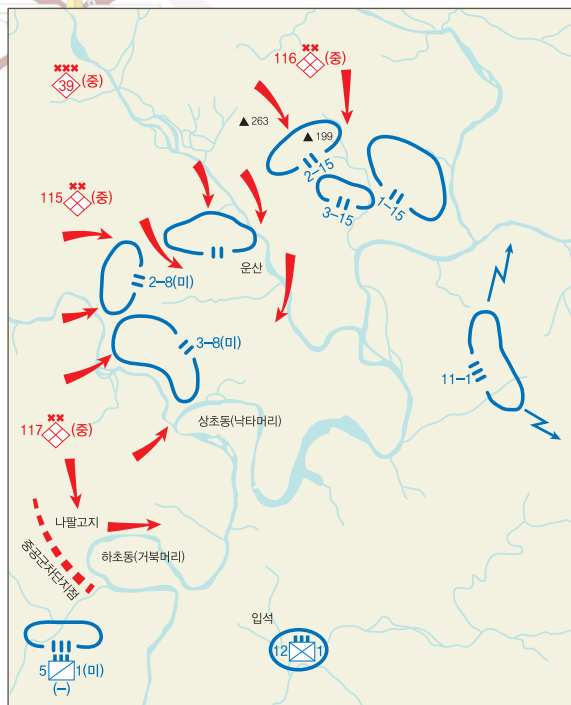
### 전개과정

평안북도 운산 지역은 북한의 서북부 지역으로 청천강이 개마고원부터 서해안으로 흐르고, 그 지류로서 하류에 대령강과 구룡강이 흐르고 있다. 지역 내 도로는 신안주에서 청천강 상류를 따라 안주-군우리-희천-강계를 거쳐 만포진으로 연결되는 65번 도로와 박천-온정의 63번 도로, 온정-초산의 3번 도로가 있다. 청천강 하류 지역을 기점으로 압록강을 향해 부채꼴 모양으로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

중공군은 적유령산맥 남쪽에 제13병단 이하 4개 군(군단)을 전개시키고, 운산 서쪽 백벽산과 오봉산 일대에 중공군 제39군을 배치하고 있었다. 온정리 방면에서는 제40군이 동시에 공격을 개시했다.

미 제1군단의 우익인 국군 제1사단은 청천강을 건너 영변-운산선으로 북진한 후 작전목표인 수봉호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사단이 중간 목표인 청산장시(靑山場市)로 진격하던 중 운산 북쪽 3km 지점의 상동과 간동, 용포동 일대에서 중공군의 저지를 받았다.

1950년 10월 26일 제15연대장은 삼탄천을 건너 고지를 공격해





점령하였다. 제12연대 제2대대는 운산 서북쪽 용포동 고지를, 제3대대는 운산 서남쪽 송현동 서쪽 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른 시간부터 남하한 연대 규모의 중공군이 운산 남쪽 상초동 '낙타머리' 하구로 진출하여 운산-용산동 사이 사단 후보급로를 차단하였다. 백선엽 사단장이 제11연대를 투입하고 이들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7일 오전 11시경 미 제6전차대대의 지원을 받아 제15연대가 간동에서 공격을 시작해 일대 고지를 점령하였다. 제11연대는 2개 대대를 투입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 차단되었던 보급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12연대 수색대가 28일 오후 6시경 운산 서북쪽 백백산 부근에서 중공군 포로 2명을 획득하고 중공 정규군의 참전을 확인하였으나, 미 제8군 수뇌부는 중공군의 전면 개입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미 제8군은 본래의 계획대로 진격하기 위해 군 예비로 평양을 경비 중이던 제1기병사단으로 하여금 국군 제1사단을 초월하여 목표지점인 수풍호까지 진격하도록 하였다.

29일 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가 저녁 무렵에 용산동에 진출하였다. 이어서 미 제5기병연대가 이튿날 오전 용산동에 진출하고, 제8기병연대는 오후에 운산에 도달하였다. 이때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기병사단 주력이 운산에 도달하자 작전지역을 변경시켜, 국군 제1사단은 온정을 경유하여 초산으로, 미 제1기병사단은 삭주를 향해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31일 오전 국군 제1사단이 중공군과 공방전을 하면서 진지교대를 시작하였다. 좌전방의 제12연대와 미 제8기병연대가 진지교대에 들어가자, 중공군이 부대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고의로 산불을 냈다. 오후에 국군 제12연대장과 미 제8기병연대장이 부대 교대를 협의하였다.

11월 1일 오후 4시부터 진지를 교대하였다. 운산을 중심으로 좌에 미 제8기병연대가, 우에 국군 제15연대가, 후방에서 국군 제11연대가 동쪽에, 미 제5기병연대가 서쪽에, 예비로 제12연대가 운산 남쪽 입석에 집결하고, 미 제7기병연대가 개천에서 국군 제2군단의 측방 엄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미 제5기병연대 제3대대가 구룡강 동쪽으로 이동하여 구장동 서북쪽 운흥리 계곡에서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와 연결하였다. 그러나 오후 전개를 완료한 중공군 제39군 제115사단과 제116사단이 운산을 압박하여 오봉산 남쪽 하초동 고개를 점령하고 운산-용산동의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일선의 2개 연대가 위기에 처하였다. 미 제5기병연대가 하초동의 중공군 진지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운산-용산동의 도로를 장악하고 있던 중공군이 거북머리 하구에서 낙타머리 하구로 북상하자 미 제8기병연대가 삼면으로 포

위되는 상황에 빠졌다. 오후 11시경 중공군 제38군과 제40군 병력이 청천강 계곡을 통해 쇄도하였다.

국군 제2군단의 전선이 붕괴되면서 운산 지역 부대들의 철수가 시급한 문제였다. 이에 북진을 개시한 이래 최초로 철수 방어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명령이 전달되기도 전에 제15연대는 중공군 제116사단의 공격을 받고 진지가 돌파되어, 장비를 유기하고 분산 철수하였다. 미 제8기병연대도 철수 명령을 전달받기 전에 퇴로가 차단된 채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혼란에 빠졌다.

2일 새벽 2시 30분 제8기병연대 부연대장이 전차를 앞세우고 퇴로 타개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미 제8기병연대 제3대대가 적중예 고립되고 우군과의 연결이 단절되었다. 제3대대는 6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견뎠으나 대대 주력이 대부분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미 제5기병연대가 중공군 진지를 공격하였으나 350여 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3일 청천강 방어선 형성이 요구되고 구출작전에 집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청천강 남안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운산 전투로 중공군의 참전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운산 전투에서 중공군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으나 방어에 실패하고, 영변과 용산동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 일대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국군 제1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출동했던 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는 중공군에 포위되어 병력의 과반수를 잃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1985).

【박동구/조성훈】

## 혜산진 진격작전

〔惠山鎭 進擊作戰, 1950. 10. 27. ~ 11. 28.〕

### 개요

미 제7사단이 1950년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원산 외항에서 이원예 상륙한 후 풍산을 경유해 갑산과 혜산진에서 북한군 제42사단과 제126사단 패잔병을 격퇴하고 혜산진을 탈환한 작전이다.

## 전개과정

미 제7사단이 진출한 이원-북청-풍산-갑산-혜산진 축선은 개마고원과 함경산맥의 산악지대로 북청-풍산에는 후치령을 비롯한 산악 도로가 있다. 풍산에서 혜산진을 경유하여 압록강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 북한군 후방 지역에 최대한 압박을 가해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주요 지역이다.

함경남도 풍산 북쪽에서는 북한군 제42사단과 제126사단 패잔병과 내무서원, 당원 등 혼성 병력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후방 지역에서 유격대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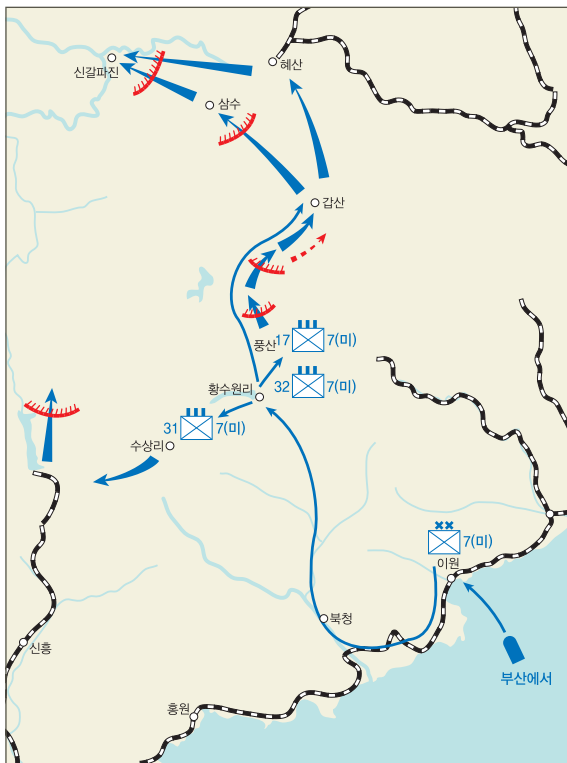
미 제7사단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부여된 임무를 미 제8군에 인계하고, 원산에 상륙하여 평양을 우회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천-문경을 경유하여 1950년 10월 19일 부산항을 출항하였다. 영흥만에 도착하여 동해상에서 10일 동안을 머물렀다.

소해작업이 완료되고 미 제1해병사단의 원산상륙이 개시될 무렵, 미 제7사단은 제10군단으로부터 원산 동북 240km 지점의 북청과 단천 사이에 위치한 이원에 상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바르(David G. Barr) 제7사단장은 군단의 작전 기도에 따라 제17연대를 이원으로 상륙시켜 북청-풍산-혜산진으로 전진시키고, 제31연대는 이원에 상륙하는 즉시 북청-함흥-오로리-신흥 축선을 따라 부전호-신갈과진으로 진격시키며, 제32연대는 예비로 후방을 경계하도록 할 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10월 29일 미 제7사단 제17연대가 이원에 상륙하여 북청-장흥리를 거쳐 초리로 진출한 후, 풍산을 향해 이동하여 30일 일몰 무렵 풍산에 도착해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와 합류하였다.

풍산 북쪽에서 국군 제1연대가



2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과 교전을 하던 중, 11월 2일 공격에 나선 미 제17연대는 축차적으로 도착한 연대 주력과 함께 풍산 일대에서 북한군 제42사단과 제126사단 소속의 패잔병들과 10여 일간 치열한 교전을 벌인 끝에 14일 풍산 전방 20km 지점에 위치한 웅이천에 이르렀다. 그 사이 풍산에 도착한 알몬드(Edward M. Almond) 미 제10군단장이 계속 북진할 것을 독려했다.

제7사단장은 제17연대에 갑산을 거쳐 혜산진으로 진격하고, 제31연대는 부전강을 따라 북진하여 신갈과진으로, 제32연대는 이원-풍산의 후방 보급로 유지와 경비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사단장 명령에 따라 미 제17연대가 15일 웅이천을 도하하여 갑산 도로와 삼수 도로의 교차로인 상리까지 진출한 후, 갑산 남쪽 16km 지점의 석우리 부근에 도달하였다. 이어서 19일 오전 10시 30분 보전포 협동으로 갑산을 공격 점령하였다. 눈과 빙판을 무릅쓰고 혜산진으로 계속 진격해, 21일 오전 10시경에는 혜산진과 압록강 연안 일대를 무혈점령하였다. 이때 알몬드 군단장은 혜산진을 방문해 대안의 중국을 배경으로 바르 사단장 등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28일 미 제32연대의 우측방을 엄호하기 위해 북한군의 저항을 격퇴하고 신갈과진을 점령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미 제7사단 제17연대는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눈보라를 무릅쓰고 320km에 이르는 산악 지대를 돌파해 1950년 11월 21일 혜산진을 점령함으로써 미군 부대로서는 첫 번째로 압록강에 진출한 부대가 되었다. 제17연대는 30일 혜산진을 국군 제3사단 제22연대에 인계하고 압록강을 따라 서진했으나, 이날 중공군의 공세로 미 제10군단은 동북부전선의 모든 병력에 대해 철수를 명령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2호』 (1950.10.2).

【박동구/조성훈】



## 합수-백암 진격작전

[合水-白岩 進擊作戰, 1950. 10. 27. ~ 11. 30.]

### 개요

국군 제3사단이 원산에 상륙한 미 제1해병사단에 원산지역 방어임무를 인계하고,

1950년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해안을 따라 북한 동북쪽 국경지대로 진출하기 위해 합수-백암을 경유하여 해산진까지 진격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길주-합수-해산진과 백암으로의 축선은 백두산에서 뺏어 내린 마천령산맥을 중주하는 통로로 내륙 산악에서 동해안으로 최단시간 내 진출할 수 중요한 지역이다.

함경북도 합수 지역에는 수도사단의 공격을 받고 후퇴한 1,000여 명의 북한군 병력이 협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 북쪽 백암에도 새로 편성된 노동여단 병력으로 추정되는 약 4,500명이 집결 중에 있었다.

국군 제3사단은 1950년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한 후 송전반도-영흥-고원-안변을 연결하는 원산 서북방의 외곽선을 확보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역 평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어 알몬드 미 제10군단장으로부터 미 제1해병사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동해안선을 따라 동북쪽 국경지대로 진출하라는 명령을 받아, 함흥으로 주력을 이동시켜 연포비행장-홍남-홍원-신포 일대까지 병력을 분산 배치하고 해안선 일대를 방호하였다.

29일 이종찬 제3사단장은 미 제1해병사단에 임무를 인계하고, 제22연대와 제23연대를 함흥에 집결시켰다. 제26연대는 장진호와 황초령 아래 연대봉에서 북한군 제14사단 4,000여 명과 치열한 접전을 한 후, 미 제7해병연대에 수동 일대의 진지를 인계하고, 오로리를 경유하여 11월 3일 함흥에 집결하였다.

11월 4일 제3사단은 수도사단과 미 제10군단과의 전선 연결을 위해 예하 연대를 홍원-신포-북청-이원-단천으로 이동시켰다. 제22연대는 신북청으로, 제23연대는 신포, 제26연대는 홍원으로 이동해 서북쪽 일대 경계를 담당하였다.

9일 오후 12시 30분 제3사단은 제26연대를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하라는 지시를 받아 제1대대를 중립에, 제2·제3대대를 중창령에 각각 배치하고, 제23연대 제3대대를 홍원으로 이동시켜 군단사령부 경비를 맡도록 하였다.

13일 수도사단이 성진을 점령하고 길주로 진격하자, 제3사단은 성진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수도사단이 어랑천에서 북한군 제41사단 증원부대와 제507여단 병력과 접전을 벌일 때, 16일 제3사단은 김백일 군단장으로부터 수도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합수에 대한 공격명령을 받았다. 이에 새로 임명된 최석 사단장은 제22연대를 길주-합수로, 제23연대는 성진-임명동-합수로 공격하여 한중 국경선을 향해 진격하도록 하였다.

제22·제23연대가 합수-백암을 공격해, 합수 동남쪽에서 공중지원 아래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거듭한 후 합수에 돌입하였다. 22일 오전 11시 제23연대 제1대대가 합수를

점령하고, 백암을 향해 계속 진격하여 25일 정오 무렵 백암을 점령하였다.

제23연대는 백암지구 작전임무를 제22연대에 인계하고, 무산 공격을 위해 30일 나남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제22연대는 연대본부와 제1대대(-)가 백암에 위치하고, 제3중대는 북진을 계속해 이날 오후 1시경 해산진에 돌입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3사단은 한중 국경선으로 진출하기 위해 험준한 산악 고원지대의 흑한과 폭설을 무릅쓰고 백암을 거쳐 해산진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중서부 전선에서 국군 제2군단 정면에 가해진 중공군의 반격으로 위기에 빠졌고, 사단 좌인접인 미 제7사단과 제1해병사단도 중공군의 포위작전으로 장진호 부근에서의 전투와 서부전선에서의 전투는 계속 악화일로에 있었다. 제3사단은 11월 30일 미 제10군단의 명령에 따라 철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국군 제3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2, 56호』 (1950.11.20.)



【박동규/조성훈】

## 구성-정거동 진격작전

[龜城-停車洞 進擊作戰, 1950. 10. 29. ~ 11. 1.]

### 개요

미 제1군단의 좌측을 담당하던 미 제24사단이 배속된 영국군 제27여단과 호주군 제3대대와 함께 195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의주를 향해 진격하던 중 구성 및 정거동 일대에서 방어 중인 북한군 제1군단을 공격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미 제24사단과 영국군 제27여단이 진격한 작전지역은 청천강에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도로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었다. 청천강의 지류인 대령강을 넘어 태천-구성-수봉호에 이르는 도로가 있고, 정주-선천-신의주에 이르는 도로가 있다. 압록강에서는 곧바로 중국과 접경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축선이 되는 곳이다.

북한군은 평양에서 철수 후 지연전을 하면서 청천강을 넘어 보병부대는 강계 지역으로,

기계화부대는 정주 지역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유엔군 정면의 북한군은 제17기계화여단으로서 전차, 자주포, 포병 및 보병대대로 편성되었고 병력은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었다. 유엔군은 미 제24사단과 영국군 제27여단, 호주군 제3대대 등의 병력이 있었다.

1950년 10월 28일 미 제24사단에 배속된 제5연대전투단은 박천 북쪽에서 대령강을 건넌 후 영국군 제27여단의 우측에서 태천을 향해 전진하였다. 이튿날 태천 인근에서 북한군과 접전을 벌여 태천을 점령하였다. 호주군 제3대대는 박천 인근에서 대령강을 도하하고 미군 전차의 지원을 받아 정주를 점령하였다. 북한군 제17기계화여단은 신의주 지역으로 후퇴하여 남시와 비현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저항하였다.

30일 미 제24사단은 영 제27여단장으로부터 미 제24사단의 1개 연대에 의한 초월 전진 요청을 받고, 제21연대로 하여금 전진하도록 하였다. 제21연대 제2대대가 영국 여단을 초월하고 정주 시가지를 통과한 후 북진을 계속하였다.

31일 새벽 2시경 미군의 기동 중대를 공격하기 위해 북한군 500여 명과 전차 7대가 관산동 서쪽 4km 지점 고지대에 잠복하여 포병 사격과 동시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미 제21연대장과 제2대대장이 전차 화력전을 지휘해 새벽녘 이들을 격퇴시켰다. 이날 자정 무렵 태천 서북쪽으로 진격한 미 제5연대전투단이 구성을 점령하였다.

11월 1일 제5연대전투단은 구성 북쪽 약 8~9km 지점의 교차로까지 전진해 전차와 자주포 및 야포 등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 5,000~6,000명을 미 전술공군기의 근접 지원에 힘입어 이를 격파하였다. 제5연대전투단 선두부대가 구성 북쪽 16km 지점을 지나던 중 미군 연락기로부터 전진을 중지하고 현지에 머물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청천강 선으로 철수하였다.

정오 무렵 미 제21연대 제1대대가 신의주 남쪽 33km 지점에 위치한 정거동에 이르렀을 때, 사단장이 진격을 중지하고 중심방어진지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밤이 되자 북한군 전차 7대와 함께 500여 명이 공격을 해왔으나, 미 제6전차대대가 대응하여 약 30분 동안 전차전으로 이를 격퇴하였다. 이어 동쪽 운산 일대 전황이 급박해짐에 따라 미 제21연대는 청천강선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미 제24사단이 배속된 영국군 제27여단과 함께 신의주 남쪽 정거동과 수풍호 남쪽 구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운산 지역에 출현한 중공군과의 접전에 의한 전황 악화로 국경선 진출이 좌절되었다. 신의주를 목표로 진격하던 미 제1군단은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청천강선으로 철수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박동구/조성훈】

## 개천-비호산 전투

[价川-飛虎山 戰鬪, 1950. 1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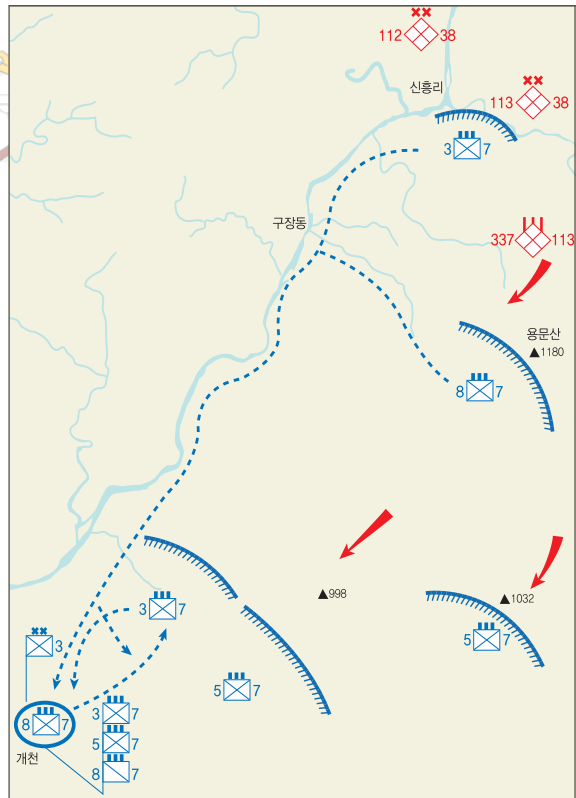
### 개요

국군 제7사단이 1950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묘향산맥 아래 개천 동쪽 비호산 일대에서 중공군 제38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개천 일대는 서해안으로부터 동북쪽 청천강을 따라 희천-강계로 이어지는 도로와 북쪽으로 태천과 운산을 경유 압록강에 이를 수 있는 도로와 철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개천 동쪽에 위치한 비호산(△622)은 청천강 하류 지역에 형성된 평야지에서는 제일 높은 강제고지로, 군우리에서 안주와 순천에 이르는 도로와 철로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적 요충지인 군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고지이다. 비호산을 빼앗기면, 미 제8군의 후방지역 통로가 개방되어 제8군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결정적인 지형이었다.

이미 중공군은 압록강을 도하





하여 온정리와 운산에서 아군을 타격한 후 청천강까지 진출하였다. 여세를 몰아 중공군 제38군은 청천강 이북의 국군과 유엔군을 포위하여 북상하는 증원부대를 차단하려 하였다. 제38군은 제112사단, 제113사단, 제114사단으로 편성되었고, 병력은 약 3만 명 규모였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중공군의 출현으로 미 제8군의 우측이 적의 위협을 받자, 워커 사령관은 국군 제7사단을 국군 제2군단의 전력을 강화하도록 미 제1군단에서 배속을 전환시켰다. 서부전선에서 국군 제2군단은 초산-만포진을 향해, 미 제1군단은 신의주-벽동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국군 제7사단은 미 제1군단을 따라 영변을 향해 북진하고 있었다.

유재흥 제2군단장은 구장동-덕천 간의 진지를 점령해 군단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중공군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 11월 1일 오전 8시 국군 제7사단은 공격을 개시해 제3연대와 제8연대가 백령천과 1190고지를 일시적으로 점령하였으나, 일몰 후 중공군의 역습에 밀려 각각 영변과 개천 북방 원리(院里)로 철수하고 말았다. 결국 구장동-덕천 일대의 점령이 실패로 돌아가자, 군단장은 2일 제7사단을 군우리 북쪽의 비호산을 방어하도록 지시하였다.

2일 오후 신상철 제7사단장은 제3연대를 좌일선 비호산에, 제5연대를 우일선 비호산 동쪽 760고지 일대에, 제8연대는 사단 예비로 용현리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다음 날 새벽 3시 중공군 제38군 제112사단이 좌일선 제3연대를 목표로 공격을 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제3연대를 예비로 있던 제8연대와 교대시키고, 제3연대는 개천에 배치시켰다. 제5연대는 적을 격퇴하였으나, 적의 주공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제3연대는 새벽까지 3차례나 주인이 바뀌는 밀고 밀리는 치열한 근접전투를 벌인 끝에 비호산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고, 적이 전선에서 물러나 11월 4일 오전부터 소강 상태를 지속하자 제8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5일 새벽 3시 중공군 제38군은 사단 규모의 병력으로 비호산 동쪽 제5연대를 공격하였다. 비호산 동남쪽 2km 지점에 위치한 535고지의 제2대대 진지가 돌파되었다. 제5연대는 2km 후방 지역으로, 동쪽의 미 제5연대전투단도 1km 후방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비호산 주봉의 제8연대 제2대대도 비호산을 상실하였다. 개천이 위기에 몰리자, 제3연대가 출동하여 제5연대 철수를 엄호하였다. 제3연대가 포병 화력으로 적의 진지 편성을 방해하면서 우일선의 미 제9연대와 합동으로 역습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6일 오전 8시 제5연대와 제8연대가 고지 남북에서 공격을 재개하였다. 남쪽의 제5연대가 신성리에서 미 제5연대를 초월하여 535고지를 공격하여 진지를 탈환하고, 북쪽에

서 비호산 주봉을 공격한 제8연대도 3시간의 격전 끝에 목표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7사단은 비호산 일대 진지를 회복하고, 미 제8군의 동쪽 방어에 성공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7사단이 비호산을 끝까지 확보함으로써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중공군과 대결에서 첫 승리로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반면에 개천 지역을 장악해 국군과 유엔군 후방을 차단하려던 중공군 제38군의 작전기도는 비호산 전투 실패로 좌절되었다. 정면공격을 하던 중공군 제40군과 제39군도 이 전투를 기점으로 하여 공격을 중지하고 중공군 제1차 공세를 종료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2010).  
 온창일 외, 『6·25전쟁 60대전투』 (황금알, 2010).

【박동규/조성훈】



## 길주-청진 진격작전

[吉州-淸津 進擊作戰, 1950. 11. 1. ~30.]

### 개요

국군 수도사단이 1950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미 제10군단의 우일선으로 동북 해안도로를 따라 한소 국경으로 진격하기 위해 길주, 봉강, 청진 등에서 북한군 제41사단을 비롯한 혼성병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전개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길주 일대는 성진 북쪽 30km에서 함경선과 혜산선의 철로와 간선도로의 분기점이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북쪽으로 명천-어랑천-주을-나남-청진으로 통하고, 서쪽으로 협수-백암-혜산진에 이르고 있다. 한중 및 한소 국경인 두만강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곳이다.

이무렵 장진-풍산 선에 중공군 제42군이 진출하여 있었고, 성진에는 북한군 제41사단 및 제507여단 등 혼성병력이 길주와 명천, 어랑천 등지에서 축차적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해 저항하고 있었다.

1950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국군 수도사단은 제18연대가 장진호-부전호 남단과 수상리 북쪽까지 진출하여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에 임무를 인계하고 차기 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제1연대는 홍원-북청을 경유해 풍산과 홍군을 점령하고 미 제7사단 제17연대에 임무를 인계한 후, 동해안 도로로 우회해 단천을 거쳐 성진에 도착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성진에서 길주 방면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11월 1일 제1기갑연대는 남대천을 따라 일신동을 향해 전진하여 길주 동남쪽 4~8km 외곽까지 진격하였다. 제1연대는 동북해안도로를 따라 화대동-와현동으로 진격하였다.

4일 제1기갑연대는 미 제1해병사단 제1비행단 전폭기의 지원을 받으며 길주 공격에 나서서, 다음날 오전 10시경 길주를 완전 점령하였다. 제1연대는 북한군 제507여단을 공격하기 위해 황곡동 일대로 진출하였다. 길주를 점령한 송요찬 사단장은 적이 어랑천 일대에서 저항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함흥 북쪽에 있던 제18연대를 명천으로 이동시켜 어랑천 및 봉강 일대의 북한군 공격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당시 어랑천에는 봉강리를 중심으로 북한군 제507여단 패잔병과 청진에서 증원된 해안경비부대, 전차대 등 6~7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임충식 제18연대장은 정면의 전황이 여의치 않자 진지를 후방인 명간천 남안으로 이동시켜 175고지 일대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이곳에서 제18연대는 적과 공방전을 반복하다가 16일 영안과 극동 뒷산을 연결하는 고지군으로 형성된 적의 주저항선을 공격하여 5시간에 걸친 치열한 격전 끝에 돌파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무렵 제1연대도 영안 서북쪽 어랑촌 남쪽의 468고지 일대까지 북상하여 점령하였다. 이처럼 제18연대와 제1연대가 어랑천 남안 일대에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명천-영안에서 봉강에 이르는 명간천 부근의 치열한 공방전은 일단락되었다.

수도사단은 10여 일간의 어랑천 전투에서 북한군을 물리치고 청진 탈환을 위해, 22일 제18연대가 주을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하고 제1연대가 주을-경성의 도로 좌측 고지로 진격하였으며, 제1기갑연대가 주을로 진격하여 병력을 배치하였다.

사단은 주을과 경성을 경유해 24일 나남으로 점적없이 진출해, 제18연대 제1대대가 서북쪽에서 청진을 감제하는 303고지를 저녁 8시에 야간공격을 재개하여 1시간 만에 고지를 점령해 이튿날 청진을 확보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사단장은 청진 점령 다음 제1군단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제18연대가 부령 방면으로 공격을 하고 좌일선인 제1연대가 청진 서쪽을 경계하며, 제1기갑연대는 부거-웅기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이튿날 오전 8시 제1기갑연대가 부거-웅기 방면 공격

을 위해 토막동을 점령했으나, 사단은 30일 군단으로부터 전선 상황 악화로 인한 흥남으로의 철수 명령을 받았다.

### 결과 및 영향

수도사단은 1950년 11월 25일 청진을 점령하고 어랑천 일대 전투를 성공한 후 한중 및 한소 국경까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전선 상황이 악화되자 30일 흥남을 향해 철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수도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6,110,120,121호』 (1950.11.).

【박동구/조성훈】

## 덕천 전투

[德川 戰鬥, 1950. 11. 22. ~ 26.]

### 개요

국군 제7사단이 1950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덕천 일대에서 묘향산과 백애산(白崖山) 탈환을 위해 공격하였으나 중공군 제38군과 제42군의 반격을 받고 순천-승호리 선으로 철수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평안남도 중북부 지역에 있는 덕천군은 북쪽의 묘향산맥과 낭림산맥의 연장선 상에 있다. 왼편으로는 구장-개천에 이르는 도로가 있고, 오른편으로 는 영원군-맹산군이 이어져 있다. 묘향산맥을 따라 남쪽으로 우회하게 되면 국군의 후방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이다. 중공군은 덕천 일대를 장악하면 한반도 북부와 서북부 지구를 확실하게 보장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공군 제38군은 희천 지역에서 부대를 재편성 중에 있었으며, 제40군은 구장동-운산 사이에 있었다. 그들은 공세를 취할 때 국군 제2군단을 유엔군 전선에서 취약점으로 보고, 제7사단과 제8사단을 집중 공격하려 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개천-비호산 전투를 수행한 후 미 제8군의 우익으로 덕천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제7사단의 정면은 약 35km에 이르고, 사단의 우일선에는 제8연대가 풍전리-신덕리를, 좌일선인 제3연대는 안상리-장하리를 각각 점령하고 있었고, 예비인 제5연대는 서창에 위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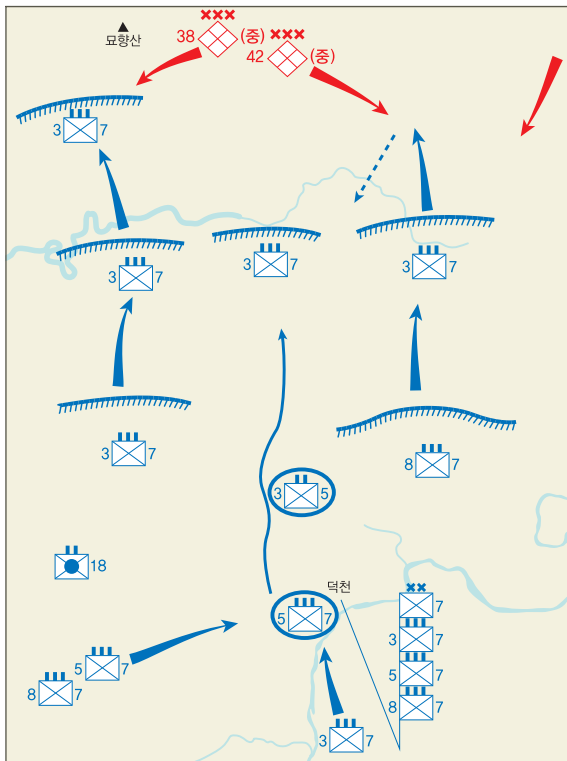
1950년 11월 22일 오전 8시 제8연대는 하령곡산-사향산간을 점령하고, 제3연대는 목표인 우현동-용연동의 백령천 남쪽 능선상의 고지를 점령하였다. 예비인 제5연대는 덕천으로 이동하였다.

23일 묘향산 일대에 대규모 중공군이 배치되어 있다는 걱정을 확인하고, 이튿날 제3연대는 묘향산 서쪽 능선의 1531고지를 목표로 전진하고, 제8연대는 묘향산 남쪽의 가마봉과 동쪽의 백애산을 향해 공격을 시작하였다. 사단은 정오 무렵까지 3km 밖에 전진하지 못하였다. 제3연대와 제8연대가 모두 목표지점에 근접하기 전에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공격이 중단되었다.

25일 사단이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진전이 없었다. 형제봉을 공격한 사단 왼쪽의 미 제2사단 제38연대도 목표고지의 7부 능선에서 사격전을 하고 있었다. 오른쪽의 국군 제8

사단 제10연대도 1139고지 중간에 머물고 있었다. 저녁 9시경 우현고개에 대규모의 중공군이 출현하자, 군단은 북창에 있던 제6사단 제2연대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제2연대가 도착하기 전에 중공군 선두부대는 풍상리를 전진하고 있었다.

26일 새벽 2시 중공군 제38군과 제42군이 공격을 시작하고 사단 우측의 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 지대가 돌파되고 덕천 동쪽이 위기에 빠졌다. 상황이 악화되어 제8연대는 사향산 계곡을 탈출하여 4km 후방의 추동리로 후퇴하였다. 진지를 구축하기 전에 배후로 침투한 중공군의 기습으로 퇴로가 차단되어, 제8연대는 산길



을 따라 서쪽의 신평리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새벽 4시경 제8연대 좌측의 제5연대(-)도 풍덕리에서 덕천 방면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덕천의 사단사령부도 중공군에 의해 도로를 차단당하고 기습을 받게 되자, 사단장은 덕천 지역 부대들을 북창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제5연대 제3대대가 중공군의 차단진지를 격파하고 퇴로를 확보하고, 제5연대(-)와 제8연대가 일부는 북창으로, 일부는 개천 방면으로 탈출하였다.

사단의 좌일선인 제3연대는 덕천으로의 퇴로가 차단되자, 덕천 대신 구장동으로 기동하여 형제봉 남쪽에서 미 제38연대와 합류한 후, 미 제2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구장동 전투에 참가하였다. 국군 제2군단장은 전투력이 온전한 제3연대는 미 제2사단과 협동작전을 하고, 제7사단(-)은 순천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묘향산 일대에서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던 국군 제7사단이 덕천 지역 방어에 실패하자, 중공군 제38군은 여세를 몰아 국군과 유엔군을 포위할 목적으로 덕천에서 개천으로 공격 방향을 전환함과 동시에 일부는 북창을 경유해 순천으로 남진하였다. 이로 인해 제7사단은 순천에서 부대를 정비한 후 승호리에 집결해 대동강선 방어작전에 대비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박동구/조성훈】

## 영원-맹산 전투

[寧遠-孟山 戰鬪, 1950. 11. 23. ~27.]

### 개요

국군 제8사단이 1950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묘향산 동쪽의 영원과 맹산 지역에서 중공군 제42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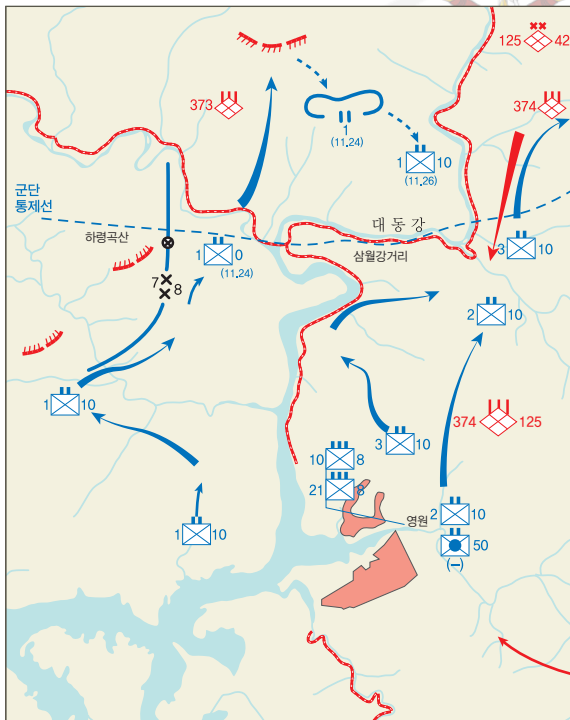
평안남도 영원-맹산 지역은 묘향산맥과 낭림산맥 사이 대동강 상류 지역에 있다. 남북으로 산악지형이 길게 뻗어 있고, 대동강 지류가 순천-북창을 지나 덕천-영원-맹산

에서 장진호 방향까지 잘 발달되어 있는 복잡하고 험준한 지형이다.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제1차 공세이후 소강상태가 지속되자, 중공군이 조직적인 공격을 실시하기 이전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계획에 따라 1950년 11월 24일 총공세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서부에서는 청천강을 도하해 북진을 계속하였다.

한편 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을 동서로 양분하여 서부에서는 청천강 선에서 포위 격멸한 후 남진한다는 계획 아래 11월 25일 야간에 대반격을 시작했다. 이때 낭림산맥과 묘향산맥에는 중공군 제42군 소속 제124·제125·제126사단의 약 3만 명이 잠입하여 있었다. 제125사단은 신읍 방면, 제126사단은 영원과 덕천 북쪽 대동강 상류 일대, 예비인 제124사단은 구창리(舊倉里)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야간 산악 기동을 하여 1950년 11월 20일 백암산(△1105)-소래산(△1543)-백애산(△1524) 선에 주력을 분산 배치하고, 경계부대는 강을 건너 덕인봉-신기봉-송평리 선에 있었다.

국군 제2군단은 최초 공격개시선을 덕인봉-신기봉-삼월강거리-백령천 선으로 설정하고, 제8사단으로 하여금 23일까지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날 오전 8시 제8사단은 전방지휘소를 맹산에 개설하고, 제21연대를 우일선, 제10연대를 좌일선, 제16연대를



예비로 하여 목표를 향해 진격하였다. 제21연대는 문곡리 부근에서 진격을 개시하여 덕인봉과 신기산 사이의 양감령 일대를 점령하고, 영원에서 대동강 연안을 따라 진격한 제10연대는 하령곡산 일대에서 삼월강거리-하령곡산 간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제16연대는 덕천에서 맹산으로 이동 집결하였다.

24일 오전 10시 제21연대는 백암산, 제10연대는 소래산을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1연대는 소양감령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오후 3시경 대양감령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튿날 좌일선의 제10연대는 소래산을 목

표로 진격을 하였으나 강력한 포병 지원을 받은 중공군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우측의 제21연대도 중공군의 저항에 막혔다.

그사이 중공군은 제126사단 병력을 동부 산악 지대로 우회시켜 25일 오후 1시경 맹산 동북쪽 애창천 계곡에 출현하여 사단의 배후로 침투하였다. 이튿날 형제봉-광리 선의 제16연대가 대규모의 중공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진지의 일부를 잃고 맹산 북쪽 소가래 봉으로 탈출하였다. 오후 5시경 중공군이 연대의 애창 방어진지를 우회하여 맹산으로 진출한 중공군과 풍림리에서 교전하고, 일부 병력이 분산되어 초항령으로 후퇴하였다. 연대본부가 피습되고 맹산이 위협을 받았다. 이성이 사단장이 제16연대에 맹산강과 애창천이 합류되는 소요동에서 지연전을 하도록 하고, 제10연대와 제21연대는 영원 지역에서 철수하여 측방에서 침투하는 중공군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사단지휘소는 맹산과 북창의 중간지점인 신석리에 위치하고, 제10연대와 제21연대는 퇴로가 차단된 채 영원으로의 철수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돌파 시도에 실패하고 분산 철수하였다. 장병들은 맹산 방면으로 나아갔으나 중공군이 도로를 차단하고 있었고, 북창을 향해 62번 도로를 따라 매재령도 점령 하고 있었다. 유재홍 군단장이 제6사단 제7연대와 제19연대를 북창 주변에 배치하고 전방 철수부대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27일 새벽 1시 군단장은 제7사단은 순천으로, 제8사단은 가창으로 집결하도록 명령하였다. 제8사단 제16연대는 오전 8시에 매재령의 차단 진지를 돌파한 후 북창을 경유해 오후에 가창으로 철수하고, 제10연대와 제21연대도 병력을 분산하여 북창과 가창으로 집결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8사단이 영원-맹산선 확보에 실패하자, 중공군 제42군은 여세를 몰아 덕천으로 공격한 제38군과 합세하여 북창과 가창을 공격하고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을 배후에서 포위하였다. 중공군이 신창-순천선까지 진출하여 성천-평양선에 대한 공격을 기도하자, 제8사단은 강동 일대에서 방어 진지를 편성하여 평양-원산선 방어작전을 대비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⑦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제8사단 전투상보』 55, 1987.

【박동구/조성훈】





## 구장동 전투

[球場洞 戰鬥, 1950. 11. 24. ~28.]

### 개요

미 제2사단이 1950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희천을 점령하기 위해 진격한 후 태평 지역 일대에 집결해 있던 중공군 제40군과 전개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미 제2사단이 기동한 희천 지역에는 청천강을 따라 강계로 통하는 도로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 좌우에는 적유령산맥과 묘향산맥이 남북으로 뻗어있어 산악 지형을 이용하여 우회 침투를 하거나 방어하기에 좋은 지형적 이점이 있는 곳이다.

압록강을 도하하여 제1차 공세를 단행한 중공군은 청천강 북쪽 고두보를 공격하고 정주-박천-영변까지 진출해 있었다. 특히 제40군은 청천강과 묘향산을 따라 개천 방면으로 남하하여 미 제2사단 정면을 향해 공격하고 있었고, 제39군은 청천강을 건너 미 제2사단의 좌측 부대인 미 제25사단을 압박하고 있었다.

1950년 11월 24일에 시작된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에서 미 제9군단은 미 제8군의 중앙을 담당해 운산-온정을 경유하여 초산-벽동의 압록강 연변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 제2사단은 우측에서 희천을, 미 제25사단은 좌측에서 운산을 목표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24일 오전 10시 미 제2사단 제38연대는 우일선에서 백령천을 넘어 묘향산 서쪽 능선상의 형제봉을 향했고, 제9연대는 좌일선에서 청천강 연안을 따라 65번 도로 축선으로 공격을 개시하고 제23연대는 예비로 구장동 15km 후방의 원리(院里)에 대기하였다.

25일 오전 9시 미 제9연대가 백령천 하구의 구장동 북쪽 지역을 확보해 공격을 계속하였다. 신흥역을 통과하여 백령천 북쪽 도로변의 감제고지인 219고지(일명 '중공군의 모자고지')를 공격했으나 중공군의 저지를 받았다. 전차4대와 장갑차 2대를 동원하여 고지 점령을 시도하였으나 그들의 완강한 저항과 집중적인 박격포 사격으로 저지되었다. 이 영향으로 우측방의 미 제38연대의 형제봉 공격도 차질을 빚었다.

26일 새벽 2시 중공군 제40군의 기습으로, 미 제9연대 좌측의 제3대대는 절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제2대대는 포위가 되었으며 제1대대는 지휘체계가 마비되었다. 미 제38연대 지역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콜터(John B. Coulter) 미 제9군단장이 제2사단장에게 구장동을 중심으로 저지진지를 급편하고 청천강 통로를 봉

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2사단장은 제9연대를 청천강 좌측, 제38연대를 우측, 제23연대를 정면으로 하여 구장동 방어선을 강화하였다. 일몰 무렵 국군 제7사단 제3연대가 미 제38연대 지역으로 철수하여 미 제2사단에 배속되고, 12월 2일 승호리에서 본대에 합류하였다.

27일 미 제9연대 제2대대가 청천강을 건너 구장동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원참에 집결해 있던 미 제9연대 본대와 합류하였다. 어둠이 깔리자, 중공군 제38군과 제40군이 미 제2사단의 방어진지를 우회하여 후방으로 침투하였다. 이어서 이튿날 새벽 1시경 미 제23연대 제1대대가 진지 후방으로부터 적의 기습을 받았다. 원참 북쪽의 제2대대와 제3대대도 진지가 돌파되었다. 좌측의 미 제9연대도 중공군으로부터 배후공격을 받고 청천강을 도하하여 자작으로 후퇴한 후, 사단 사령부가 있는 원리에서 미 제23연대 병력과 합류하였다. 우측의 미 제38연대는 하운곡참에서 철수하여 비호산을 점령하여, 원리-비호산 일대에 저지선을 구축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미 제2사단은 희천과 운산을 목표로 진격하였으나 중공군의 공세로 구장동으로 철수하여 저지 진지를 구축하고 이를 방어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이 사단 방어진지를 우회하여 후방으로 침투 배후공격을 함으로써 청천강 지역으로 후퇴한 후, 유엔군의 철수계획에 따라 청천강으로부터 후퇴하는 철수 부대를 엄호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1985).

[박동규/조성훈]

## 와원 전투

[瓦院 戰鬥, 1950. 11. 27. ~ 30.]

### 개요

티키 제1여단이 1950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미 제8군의 북한 지역 철수시 동쪽을 방어하기 위해 개천-덕천 사이 와원 일대에서 중공군 제114사단의 남진을 지연시킨 방어 전투이다.

## 전개과정

평안남도 개천군 와원은 묘향산맥의 하단부와 개천-덕천 사이 알일령 남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의 월봉산(△1032)과 남쪽의 백담산(△1203) 사이에 있는 산촌이다. 알일령을 넘어서면 덕천 평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중공군 제38군은 덕천에서 국군 제7사단의 방어진지를 무너뜨리고 개천과 삼소리 방향으로 우회하여, 미 제9군단의 후방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중 제114사단이 터키 제1여단을 향해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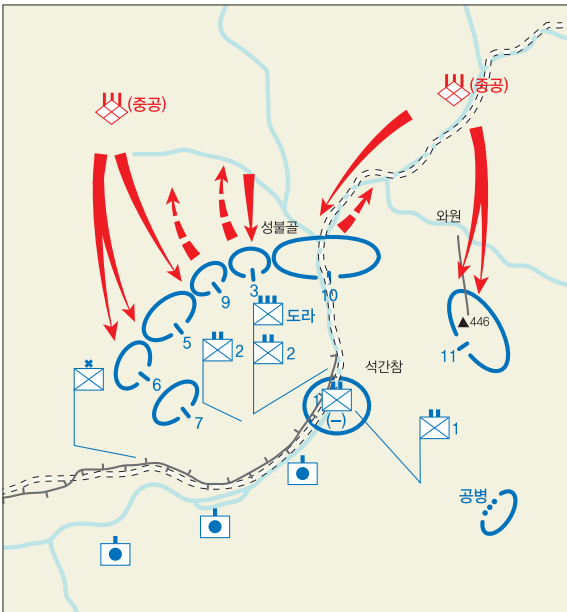
국군 제2군단의 전선이 와해되자, 콜터(John B. Coulter) 미 제9군단장은 군단의 예비로 있던 터키 제1여단으로 하여금 국군 제7사단이 방어하던 덕천 지역을 탈환하고 덕천 서북쪽의 미 제2사단 제38연대와 연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야치시(Tahsin Yazici) 터키 제1여단장은 공격작전을 위해 부여단장 지휘 아래 도라 특수임무부대(Dora Task Forces)를 편성하고, 1950년 11월 26일 오후 6시에 차량 25대로 편성된 제1대대를 선두로 하여 제2·제3대대 순으로 개천 동쪽 20km 지점인 와원으로 진출하였다.

27일 오전 6시경 여단이 정찰대와 전차 소대를 선두로 공격을 개시하여 제1대대가 알일령 정상에 이르렀다. 뒤이어 제3대대와 포병대대가 고갯마루를 넘고 있을 때, 군단으

로부터 알일령에 저지진지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받아 알일령 남쪽 백담산과 547고지 일대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28일 새벽 3시 30분경 제1대대를 후속하던 정찰대가 중공군의 기습을 받았으나, 제11중대가 성불골 남쪽으로 진출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오전 6시경 물러났던 중공군이 다시 대대 규모로 증강하여 3면으로 파상공격을 해와, 터키여단의 전 진지가 위협을 받았다. 오후 2시경 중공군은 좌단의 제2대대 진지를 향해 제3차 공격을 해왔다. 대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수차례 격전을 벌여 저지진지를 방어하였다. 도라(Celal Dora) 대령은 유리한 지형으로의 후퇴를 건의하여 5km 후방의 신립리로 철수를 승인받았다.

미 제9군단은 터키여단에 미 제2사단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998고지와 백담산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터키여단장은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여 신립리로 철수할 것을 보고하였다. 여단은 오후 5시 30분에 포병대대를 선두로 철수하여 11시 30분경 신립리로 집결 완료하였으나, 자정 무렵 중공군으로 기습공격으로 대대별로 봉명리 일대로 물러났다.

29일 오전 6시경 제1대대(-)가 철수하여 봉명리에 도착하고, 오전 10시경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3대대가 전차중대와 함께 신립리 탈환을 위해 봉명리로 지원해 왔다. 신립리에서 제1대대 제2중대와 제2대대가 우측계곡으로 철수하여 왔다.

봉명리에서도 터키여단은 추격하는 중공군으로부터 계속 포위 공격을 받았다. 터키여단의 퇴로가 차단되었고, 제1대대가 삼면에서 집중공격을 받았다. 여단장이 다시 각 대대에 군우리 일대로 철수를 지시해 오후 5시 30분에 제2대대를 선두로 포병대대와 제3대대가 철수하였다. 저녁 9시경 미군 전차중대와 제1대대가 퇴로 개척에 나섰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군우리에 위치한 미 포병대대의 포격과 유엔공군 편대의 폭격 지원을 받아 계곡을 빠져나와 군우리 외곽에 집결하였다.



### 결과 및 영향

터키 제1여단이 와원 일대에서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압도적인 전력을 앞세운 중공군의 퇴로 차단으로 인해 축차로 철수하여 군우리 지역에서 지연전을 전개하였다. 이어 유엔군 철수 계획에 따라 철수 부대 암호를 하면서 미 제2사단과 함께 자산을 경유하여 평양을 향해 철수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1985).

【박동구/조성훈】

## 군우리 전투

[軍隅里 戦闘, 1950. 11. 29. ~ 12. 1.]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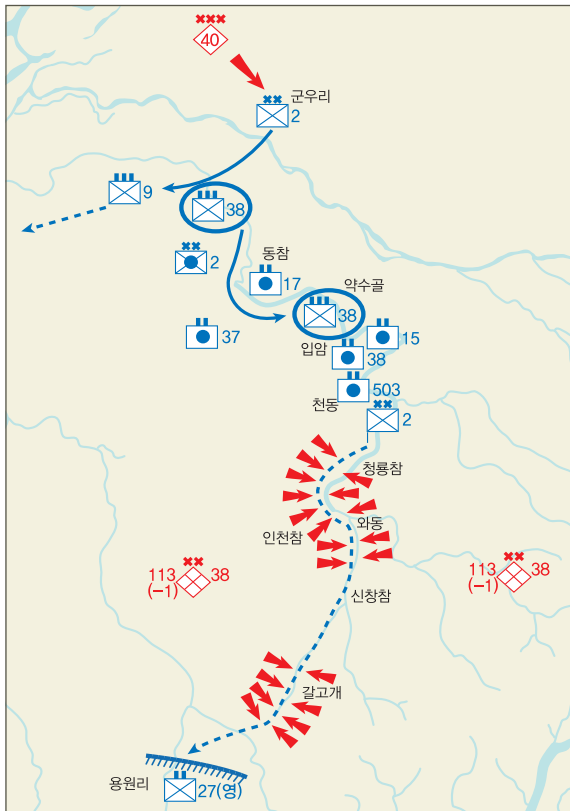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시한 미 제8군이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밀려 철수작전을 전개

할 당시 군우리에 남아 철수 병력을 엄호하던 미 제2사단이 195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군우리-순천간 협곡지대인 일명 ‘태형의 계곡’을 통과하던 중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를 돌파한 전투이다.

**전개과정**

군우리는 청천강 상류의 남쪽, 개천(价川) 북쪽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순천을 경유하면 바로 평양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서쪽의 평야지대와 묘향산맥이 있는 동쪽의 산악지대를 구분하는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미 제9군단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중공군 제38군 제113사단은 군우리-순천간 남행통로를 덕천지구에서부터 남하해 제338연대가 1950년 11월 28일 오전 7시경에 삼소리를 점령하고, 제337연대가 삼소리에서 서쪽으로 용원리를 점령하고 있었다. 29일 오전 4시에 제113사단은 군우리와 순천 간의 요충지 갈고개 일대에 진출함으로써 유엔군의 철수에 쐈기를 박았다.



미 제9군단 예하 미 제2사단의 온정리 공격과 미 제25사단의 운산 공격이 실패하고, 묘향산맥 일대의 국군 제2군단이 중공군의 포위망에 갇혀 전황이 불리해졌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청천강 연안으로의 철수를 결심하고 28일 철수를 시작하였다. 청천강 북쪽의 철수병력을 엄호하기 위해 미 제9군단의 우익을 담당하던 미 제2사단은 새로 배속된 터키여단 및 국군 제7사단 제3연대와 함께 군우리 지역에서 지연전을 하였다. 미 제8군의 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은 제1군단의 예비인 영연방 제27여단과 함께 순천과 성천의 동쪽에서 서부전선의 철수부대를 엄호하고 국군 제2군단

지역에서 남하하는 중공군을 저지하였다.

29일 아침 미 제1군단이 철수를 위해 청천강을 도하하여 숙천과 성천 지역에 도착하자, 쿨터(John B. Coulter) 미 제9군단장은 미 제2사단의 순천 후방으로 철수하도록 승인하였다. 이무렵 미 제2사단 제23연대는 군우리 북쪽 2km 지점에 있었고, 터키 여단은 신타리-봉명리로 축차 철수를 하며 지연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단이 철수하는데 최단 기동로인 군우리-순천 도로를 중공군이 차단하고 있었다. 미 제2사단의 전력 또한 반감이 되어 있었고 보병대대는 단지 200~250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카이저(Lawrence B. Keiser) 사단장이 퇴로에 대한 정찰을 해보았으나 정찰대가 기습을 받았다. 순천-개천간 도로를 통해 복상하던 보급중대가 이른 아침 청룡참(靑龍站)에서 적의 기습으로 전원 전사하였다. 사단장은 국군 제3연대와 터키여단 및 제9연대에 청룡참 남쪽의 적을 격파하고 사단의 철수로를 개척하도록 하였다.

30일 아침 중공군은 전 전선에 걸쳐 압박을 계속하여 덕천-북창-안주 선을 돌파하고 개천을 중심으로 한 청천강 북안까지 진출해 있었다. 미 제9연대는 국군 제7사단 제3연대 및 터키 보병부대 그리고 미 제38연대 1개 대대와 협동하여 청룡참 도로 전면의 고지를 공격하고 이를 점령하였다. 이어 전차 1개 소대를 청룡참으로 보내 군우리-순천간 도로에 대해 위력수색을 하였다.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하고 계속 남하하였다. 그러나 사단 수색중대가 도로수색에 나섰다가 적의 기습공격에 생존자가 35명에 불과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다. 적의 계략이었다.

복상을 계속하던 영연방 제27여단 역시 갈현 남쪽의 3차로를 우회하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중공군 제113사단 제337연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다.

미 제9연대 제2·제3대대가 미 제72전차대대 소속의 1개 전차소대와 함께 동참을 출발해 3.5km 남쪽의 도로 폐쇄 지점을 향해 공격에 나서 제3대대가 청룡참의 동쪽 능선을 점령하였으나 중공군의 역습으로 다시 철수하였다. 제9연대는 2개 대대병력이 500여명 수준에 불과하였다. 사단장은 미 제38연대 제2대대를 제9연대에 배속시켰다.

오전 10시 30분경 국군 제3연대가 공격에 나서 용우리 남쪽 중공군 진지를 차례로 제압하였으나 도로를 따라 남하하던 미 제72전차대대 소속의 선두 전차가 국군 제3연대를 중공군으로 오인하고 전차포와 중기관총으로 공격을 하여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중공군이 미 전차부대에 박격포 공격을 집중하였다.

미 제2사단장이 제23연대로 하여금 군우리 지역 계곡을 벗어나도록 하고, 제38연대 제2대대는 제9연대를 초월 전진하도록 하였다. 터키군 2개 중대도 청룡참 남쪽 능선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터키군과 국군 제7사단 제3연대의 공격을 물론 미 제38연대

제2대대의 퇴로 개척도 좌절되어 공격부대가 분산되었다.

오후 2시경 철수대열이 일명 '태형(鎗刑)의 계곡'에 진입하고, 계곡 양편의 능선에서 중공군이 맹렬한 공격을 하였다. 사단은 중공군이 잠복하고 있는 청룡참에서 갈고개에 이르는 10km 계곡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유엔군의 전폭기 편대가 출격하고 2~3km를 전진한 후 폭격이 끝나면 진격을 중단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기계화부대는 계곡을 통과하였으나 보병부대는 대부분 산길로 들어가 남쪽으로 탈출하였다. 사단장도 오후 3시 15분에 산길을 따라 갈고개 서쪽으로 우회하여 철수하였다. 선두에서 진로를 개척하던 미 제38연대의 보전협동부대가 일몰 무렵에 맨 먼저 갈고개를 통과하였다. 오후 9시 30분에 미 제17포병대대가 통과하였다. 이후 갈고개가 다시 차단되고 사단 포병은 대부분의 장비를 유기한 채 산길을 통해 탈출하였다. 사단이 순천 남쪽에 도달했을 때 생존 장병은 20%에 불과하였다.

군우리에 잔류한 엄호부대인 미 제23연대는 사단의 후위로 사단 주력의 마지막 철수부대가 동참 집결지를 출발하자 보유하고 있던 포탄을 모두 발사하고 중공군의 공격부대를 고착시켰다. 이후 연대는 안주 방면 서해안 도로를 따라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미 제2사단은 중공군의 남진을 지연시키고 유엔군의 철수를 엄호한 후에 사단의 철수를 개척하기 위해 일명 '태형의 계곡'을 통과하던 중 중공군 제38군에 의해 퇴로를 차단당하였다. 이때 그들의 공격을 받아 4,037명의 사상자와 포 77%, 개인 화기 45%, 차량 30% 등을 상실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터키여단 및 미 제1기병사단과 함께 순천 남쪽 자산을 경유하여 평양으로 철수하였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201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1985).

【박동구/조성훈】

### 평양철수 작전

[平壤撤收 作戰, 1950. 11. 30. ~ 12. 4.]

#### 개요

미 제8군이 1950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부전선에서 중공군의 제2차 공세

에 밀려 평양을 거쳐 38도선으로 철수한 작전이다.

### 전개과정

청천강 이남에서 평양에 이르는 지역은 묘향산맥과 언진산맥이 동에서 서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는 형세로 산맥을 따라 순천-평양을 향해 우회하여 기동하기에 유리한 지형이다.

중공군은 이러한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덕천-영원 축선에서 제38군이 삼소리-신창을 잇는 방향으로 우회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유엔군이 평양-원산선 방어를 기도할 때, 제42군은 성천-삼등을 우회해 미 제8군의 측방을 압박하고 퇴로를 차단하여 조기 후퇴를 강요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1950년 11월 28일 우익은 국군 제2군단으로 성천-양덕 일대로, 중앙의 미 제9군단을 안주-군우리 일대로, 좌익은 미 제1군단을 신안주 일대로 철수시켜 차기작전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30일 미 제8군은 미 제5연대와 영연방 제27여단의 엄호를 받으며 청천강 남안에서 숙천-순천 선으로 철수하여 평양 북쪽에 방어진을 구축하였다. 국군 제1사단과 미 제25사단이 평양 북쪽에서 좌우익으로 숙천-순천의 방어선을 분담하였다. 미 제1기병사단은 신창-성천 선을 방어하고, 미 제24사단은 강동 일대에서 중공군의 우회공격을 저지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성천-강동을 거쳐 삼등 부근으로 철수하고, 제8사단은 화천리(貨泉里)-흑령산 일대에서 북한군 출몰을 저지하였다.

12월 2일 중공군이 안주와 신창을 점령하고 계속 순천 동남쪽으로 진출하였다. 유엔군은 미 합참의 승인을 받아, 38도선을 향해 철수하기 시작하여 방어선을 이동하면서 평양으로 철수를 단행하였다.

미 제25사단과 함께 국군 제1사단이 평양으로 철수하는 부대의 엄호를 하였다. 미 제24사단은 계속 강동을 확보하고, 자산의 영연방 제27여단은 사인장으로, 미 제1기병사단과 터키여단은 각각 평양으로 철수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자산에서 평양 북쪽으로 철수한 미 제2사단을 따라 철수하였다.

3일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를 시작하고, 중공군은 평양 동북쪽 성천을 점령하고 삼등 일대로 우회하였다. 미 제8군이 전면적 철수를 단행하여 국군 제1사단과 미 제25사단의 엄호를 받으며 평양을 향해 남하하였다.

남하를 계속한 중공군이 강동-삼등 일대로 우회하여 산악 지대의 북한군 패잔병과 합류를 하고, 평양 북쪽과 동쪽에서 압박을 가하였다. 유엔군은 극동 공군의 폭격기가 적진을 폭격하는 동안 평양에서 철수를 완료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철수부대를 엄호하고



마지막으로 대동강을 건너 4일 오후 2시에 사리원에 도착하였다. 미 제25사단은 중화 부근까지 철수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동쪽의 국군 제6사단 및 미 제24사단과 함께 송림-중화-수안-곡산을 잇는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신계에서 시변리를 향해 도보행군을 시작하고, 국군 제7사단이 그뒤를 따랐다.

### 결과 및 영향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내주고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가 고량포 일대에, 제12연대와 제15연대는 임진강 남안에 배치되어 38도선 방어태세에 돌입하였다. 미 제8군은 김포반도-임진강-화천-양양을 잇는 선을 주저항선으로 선정한 후 포천-김화 도로를 중심으로 중서부전선은 미군이, 동부전선은 국군이 전담하여 방어하도록 하였다.

국군이 평양을 마지막 떠나던 12월 4일 아침 대동강철교는 폭파됐고, 피란민들은 끊어진 철교를 넘어 목숨을 걸고 평양을 탈출했다. 한편 중공군은 여세를 몰아 휴식과 부대 정비 그리고 병력을 충원한 후 1950년 12월 31일부터 제3차 전역을 단행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20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청천강 전투』 (1985).



【박동구/조성훈】

## 합수-청진-흥남 철수전

[合水-淸津-興南 撤收戰, 1950. 12. 1. ~ 16.]

### 개요

합수 및 청진 북쪽까지 진출한 국군 제1군단이 중공군 제9병단의 공세로 공격을 중단하고 1950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성진을 경유하여 흥남으로 철수한 작전이다.

### 전개과정

미 제10군단의 작전지역인 함경도 일대는 함경산맥, 낭림산맥, 마천령산맥이 있고, 함흥에서 장진호를 지나 강계와 혜산진에 이를 수 있으며 동해안 도로를 따라 성진, 청진을 경유해 두만강에 이를 수 있는 곳이다.

중공군의 제2차 공세의 하나로 제9병단은 1950년 11월 27일 저녁 무렵 장진호 부근의

미 제7사단과 제1해병사단에 대해 공격을 시작하였다.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가 청진 북쪽 판막동, 제18연대가 부령 남쪽 장흥리, 제1연대는 청진 농포동에 있었고, 미 제7사단 제17연대가 해산진을 점령한 데 이어 국군 제3사단은 합수, 백암, 해산진에 도달하여 있었다. 그러나 장진호 일대에서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 일부가 중공군 제9병단에 의해 포위되고 전선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유엔군은 11월 30일 오후 전 부대에 대해 철수 명령을 내렸다.

12월 1일 김백일 제1군단장은 수도사단에 북청과 이원을 목표로 철수하고, 제3사단은 길주-명천 방향으로 이동하여 수도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하였다. 이때 미 제10군단 예하의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도 장진호 및 해산진-신갈과진에서 함흥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2일 수도사단은 제3사단의 엄호 아래 길주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제22연대는 해산진-백암-합수에 있던 병력을 길주로 이동시키고, 제23연대도 길주로 후퇴하여 수도사단을 엄호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수 부대에 대한 적의 기습이 있었지만, 4일 수도사단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는 성진에 집결하였고, 이튿날 제18연대도 성진에 도달하였다. 이무렵 중공군이 명천과 청진 사이에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지만, 미 공군은 제1군단의 요청으로 군단 정면을 수시로 폭격하였고 미 해군 또한 함포사격으로 지원하였다.

6일 오전 8시 30분 제1기갑연대가 이원을 경유하여 홍원으로 이동하였고, 제1연대는 열차편으로 홍남을 향해 출발하였다. 7일 제1기갑연대가 홍남의 서호진 부두까지 이동 집결하고, 제1연대는 퇴조역에서 하차하였다. 오후 4시에 제18연대 주력이 성진항에서 서호진을 향해 출항하였다. 수도사단도 퇴조 및 서호진으로 기동을 8일 완료하였다.

9일 아침 성진에 집결한 제3사단이 승선하여 오후 1시에 성진항을 출항하였다. 이튿날 오후 3시, 제3사단 해상 철수부대가 부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11일 야간 10시 30분 미 제1해병사단이 함흥-홍남의 집결지에 도착하였다. 교두보는 수도사단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가 홍남 동북쪽을 맡고, 홍남항 서북쪽은 미 제3사단과 미 제7사단이 맡았다.

12일 미 제1해병사단이 홍남 내항에서 승선하였다. 국군 제3사단이 저녁 7시에 부산과 구룡포에 도착하였다. 13일 홍남시를 중심으로 약 10km의 홍남교두보를 구축한 후, 신흥리-호상리-연포 선으로 축소하였다. 15일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미 제3사단과 미 제7사단이 주저항선에서 격퇴하면서 철수를 대비하였다.

16일 수도사단 제1연대가 미 해군 LST에 승선하기 시작하고, 제26연대와 제1기갑연대는 부두집결을 완료해 이튿날 새벽, 홍남항을 떠나 동해안의 묵호를 향해 항진하고 국군 제1군단의 해상철수가 완료되었다.

## 결과 및 영향

국군 제1군단의 해상철수 이후 흥남교두보작전은 12월 24일 마지막 부대가 흥남항을 출항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철수작전 성공으로 부대 전투력을 보존하고 제3사단은 구룡포 및 부산에 상륙하여 흥천으로 전개하고, 수도사단은 묵호에 상륙한 후 양양으로 진출하여 38도선 북쪽의 북한군 게릴라를 소탕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⑦ (20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5.  
미 제10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0-50호』 (1950.12.11.)

【박동구/조성훈】

## 흥남철수 작전

[興南撤收 作戰, 1950. 12. 14. ~ 24.]

## 개요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1950년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중공군의 반격에 밀려 육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흥남항에서 피란민과 함께 125척의 수송선으로 철수하여 38도선 남쪽에 병력을 전개시킨 작전이다.

##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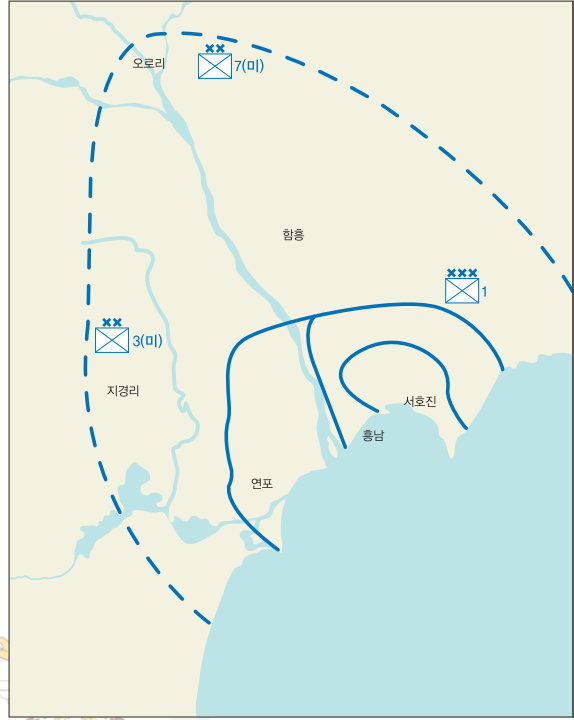
한반도 동북지구의 장진호 및 함흥-흥남 지역은 1950년 11월 말 중공군의 개입으로 함경남도 장진호 남쪽 하갈우리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포위되어 12월 11일 밤 11시쯤 함흥을 거쳐 흥남에 도착함으로써, 적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기나긴 철수작전의 막을 내리게 됐다. 해병사단이 11월 27일 유담리에서 철수를 개시한 이래 적과 접촉을 단절한 12월 11일까지 17일이 소요됐다.

10월 25일 서부전선의 중공군 1차 공세에 이어, 중공군 제9병단 12개 사단이 가세한 대규모 2차 공세가 11월 25일부터 전 전선에 걸쳐 이뤄졌다. 견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 속에서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이 38도선 이남으로 철수하게 되자,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후방의 퇴로를 차단당해 함흥-원산-38도선을 잇는 육로기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미 제10군단이 철수할 무렵, 서부전선에서는 중공군 제13병단이 이미

38도선 부근까지 남진하여 서부 전선과 동부전선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12월 10일 무렵 함흥-홍남 일대로 이동을 완료하고 홍남교두보를 구축하였다. 미 제10군단장은 유엔군사령부로부터 12월 9일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홍남에서 부산, 마산 및 울산으로 철수하여 미 제8군사령관 지휘하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홍남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외곽선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전초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당시 홍남에는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 병력 10만 명 외에 피난민이 몰려들었다. 국군 제1군단은 크고 작은 어선을 총동원하여 피난민들을 이남으로 철수시켰으나 제한된 어선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은 수송시킬 수 없어서 미군의 지원을 받았다. 알몬드(Edward M. Almond) 미 제10군단장은 함정이 부족하고 피란민 중에 첩자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란민의 승선을 반대했다. 그러나 김백일 국군 제1군단장, 수송책임자인 포니(Edward Forney) 미 해병 대령, 통역장교인 현봉학 박사 등의 설득으로 군수물자 대신 피난민을 수송하도록 하였다.

12월 14일 미 제1해병사단이 용역상선 7척에 분승하여 이튿날 새벽에 홍남항을 출항하였다. 이때 함포지원전단이 홍남에서 양쪽으로 10마일씩 확장시킨 해역에서 함포사격을 하고, 미 제7함대 소속의 고속항공모함 또한 포격으로 적의 접근로를 차단하였다. 해군함재기는 근접항공지원을 하고 지상부대의 포격도 중공군의 함흥 진출을 저지하였다.

16일 밤 수도사단은 미 제1해병사단-국군 수도사단-미 제7사단-미 제3사단 순으로 제1연대, 제1기갑연대, 제26연대순으로 전 병력을 홍남에 집결하고 승선을 개시하여 자정 무렵 출항준비를 완료하고 해상대기하고 이튿날 새벽에 묵호로 출항했다. 이무렵 태

백산-오대산-설악산 지역에는 적 정규군의 남하에 앞서 북한군 제2전선 유격부대가 출몰하고 있어 미 제10군단장은 국군 제1군단장과 협의를 하고 수도사단을 묵호에 상륙시켜 적의 기도를 무산시키고자 하였다. 18일 오후 3시경, 수도사단 주력이 묵호에 상륙하고 양양으로 북상할 준비를 하였다.

18일에는 미 제10군단 예하 3개 사단이 흥남철수를 완료하고, 미 제7사단과 미 제3사단은 주저항선의 교두보를 압축하면서 중공군을 유리한 지대로 유인하여 이를 섬멸하고자 하였다. 미 제3사단이 흥남교두보 방어선을 축소하면서 아군의 함포사격과 공중폭격의 지원을 받아 미 제7사단의 승선을 엄호하였다.

19일 흥남 점령의 목표에 차질을 빚은 중공군 제9병단과 북한군 제4군단 및 제5군단이 연합하여 총공격하였다. 20일 전 병력이 흥남부두에 집결해 승선준비를 완료하자, 미 제10군단장은 군단지휘소를 해상합대로 이동하고 흥남방어임무를 기동합대에 인계하였다. 지상의 미 제3사단은 흥남항 외곽 2~5km로 교두보(MLRⅢ)를 축소시키고 해안방어를 전담하였다. 흥남 외곽에 대한 방어임무는 미 해군에 인계하였다. 미 해군은 연포비행장이 봉쇄된 시점부터 교두보 방어임무를 화력으로 전담하였다. 이날부터 피난민들도 상륙정에 승선하기 시작하였다.

21일 새벽 미 제7사단이 부산을 향해 출항하고, 흥남항에는 미 제3사단 제7연대와 제15연대, 제65연대 등 3개 연대전투단과 전차부대, 그리고 6개 포병대대와 3개 대공포대만이 최종 방어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미 제10군단장과 기동합대사령관은 흥남철수작전의 최종 철수일을 12월 24일로 예정하였다.

이튿날 함포 지원사격과 함께 교두보축선을 축소시켜가면서 미 제10군단 포병부대 등의 중장비가 탑재되는 대로 출항하였다. 이날 미국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Meredith Victory)는 피난민 1만 4천여 명과 함께 흥남항을 떠났다.

24일 미 제10군단장과 기동합대사령관은 미 제3사단의 철수계획을 검토하면서 동시 승선을 위한 탑재지점을 선정하였다. 흥남항을 동쪽부터 서쪽까지 Yellow해안-Green해안-Blue해안-Pink해안으로 구분하여 7개의 탑재지점으로 세분하고, 미 제3사단 제7연대는 Pink해안, 제15연대는 Yellow해안, 그리고 제65연대는 Blue 및 Green해안에서 각각 탑재하도록 하고 작전지원을 위해 미주리호를 흥남항으로 급파하였다. 함포사격과 대지공격이 집중된 가운데 오전 8시에 지상 및 해상에서의 철수준비가 완료되고, 오전 11시경 승선준비를 완료하였다. 오후 2시 무렵 미 제3사단의 최종부대가 승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안의 모든 지상부대 승선이 완료되었다. 수송선단의 모든 출항준비가 완료된 오후 2시 15분에 기동합대 함장은 예하 UDT 대원으로 하여금 주요 시설과 해안

가에 방치되어 있던 400톤의 다이ना마이트 및 50만 파운드의 폭탄을 폭발하도록 하고, 약 5분 후 수송선단을 출동시켰다.

24일 드디어 마지막 병력과 피난민 그리고 가용한 모든 장비를 승선시킨 수송선이 항구를 이탈했고, 항구에 남은 200여 톤의 탄약과 얼어붙은 폭약을 항만시설과 함께 폭발 시킴으로써 흥남철수작전은 완료됐다.

### 결과 및 영향

흥남철수작전 결과 국군 1군단과 미군 10군단 장병 10만 5천여 명, 피난민 10만여 명, 차량 1만 7천520대, 화물 35만 톤을 안전하게 동해상으로 철수시켰다. 흥남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전투력을 보존하고 1951년 1월부터 시행한 유엔군의 재반격 작전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7권 (2010).  
 해병대사령부, 『작전명령 제46호』 (1950.12.13.)  
 현봉학, 『현봉학과 흥남 대탈출』 (경학사, 1999).  
 스탠리 웨인트라움(송승중 역),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 (북코리아, 2015).

[박동규/조성훈]

## 춘천-인제 부근 전투

[春川-麟蹄 附近 戰鬪, 1950. 12. 24. ~ 1951. 1. 6.]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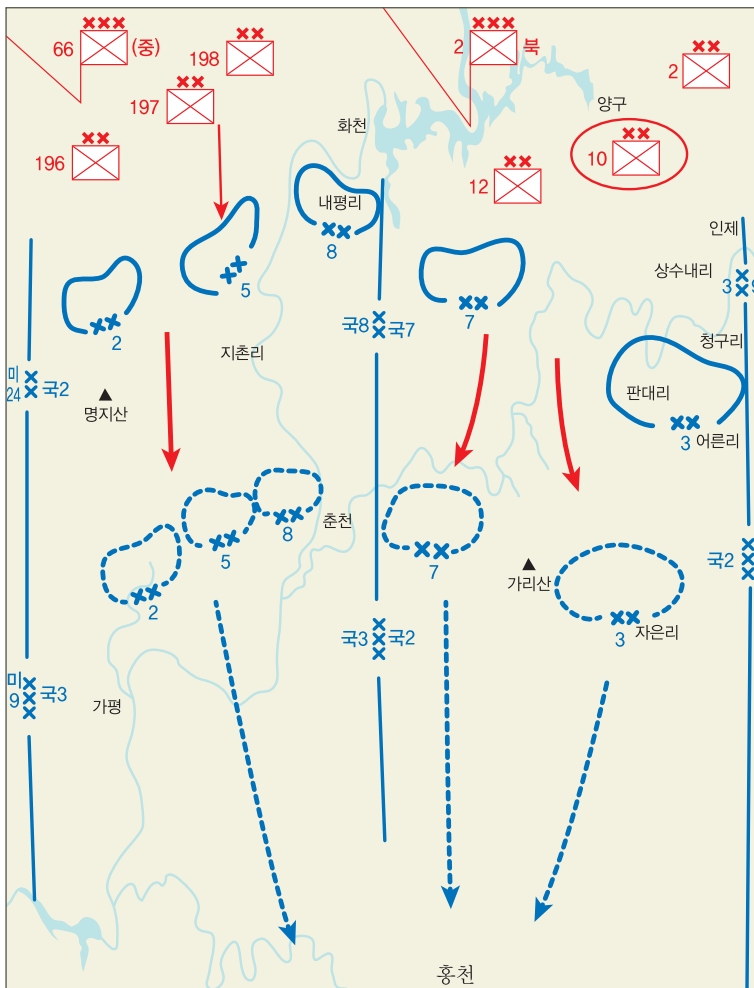
국군 제3군단(제2·제5·제8사단), 제2군단(제3·제7사단) 그리고 제1군단의 제9사단 등 국군 6개 사단이 1950년 12월 24일부터 1951년 1월 6일까지 가평-춘천-인제 부근에서 중공군 제42·제66군과 북한군 제2·제5군단의 공격을 맞아 여주-평창-하진 부리 일대로 철수하면서 적의 공격을 지연시킨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춘천-인제 부근 전투가 전개된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인제군 일대로 태백산맥과 그 지맥인 광주산맥 등의 영향으로 고지들이 종횡으로 연결된 산악지대였다. 작전지역 내에 흐르는 소양강과 북한강은 방어에 유리한 천연장애물이었으나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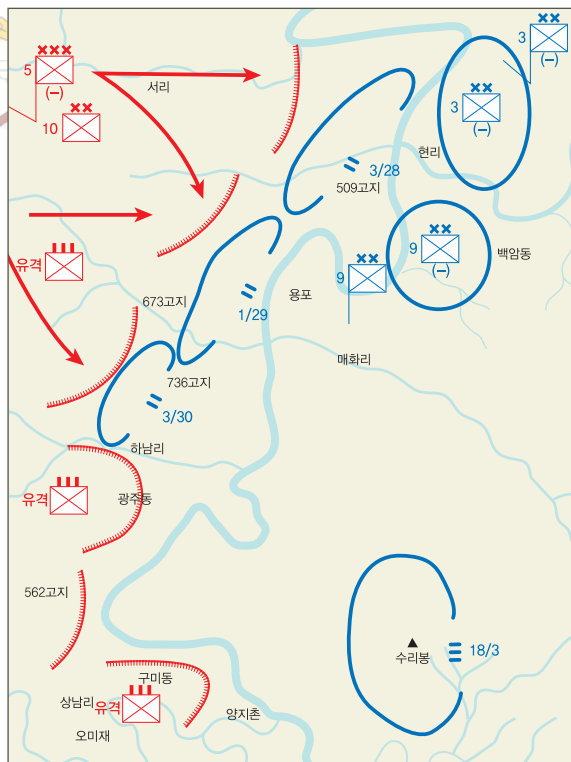
기간 중 영하 15도 이상의 날씨가 결빙 지역이 많아 도섭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 지역 내 주요 도로는 화천-춘천-홍천-횡성을 잇는 5번 도로, 인제-홍천-양평으로 이어지는 44번 도로, 양구-인제-홍천-영월로 이어지는 31번 도로, 서울-가평-춘천을 잇는 경춘국도 등이 있었다. 이들 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굴곡이 심하고 노면상태가 불량한 소로들로 차량통행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 소로들은 산악전을 선호하는 공산군 측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작전지역 내의 가평, 춘천, 홍천, 횡성, 인제 등은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컸다.

1950년 12월 25일 제3차 공세시기를 12월 31일로 확정된 중·조연합사령부는 12



월 30일까지 공격부대의 배치를 완료하였다. 이때 중동부전선으로는 중공군 제42군(제124·제125·제126사단)과 제66군(제196·제197·제198사단),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단이 공격할 예정이었다. 중공군 제42군은 포천군의 관음산(△733, 이동 서쪽 5km)-배선동(이동 서북쪽 2km, 현 장암리) 일대에서 공격을 개시해 제125·제126사단이 화현리(가평 서북쪽 18km)-청평리(가평 서남쪽 14km)와 명지산(△1252)-가평읍 방면으로 남하하여 청평천과 가평도로를 차단하고, 우회침투부대로 제124사단이 적목리(명지산 동북쪽 3km)에서 재령리(적목리 동남쪽 9km) 방면으로 진출한 후 남쪽에서 동북쪽으로 공격할 예정이었다. 중공군 제42군 우측에서는 중공군 제66군이 용소동(적목리 서북쪽 3km, 현 용수목)-화악산-마평-원평(춘천 서북쪽 16km) 선에서 동남쪽으로 공격하여 가평 동쪽에서부터 춘천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한 후 홍천 방면으로 계속 남하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일부 병력이 이미 38도선을 넘어 홍천과 현리 일대까지 침투한 북한군은 제2군단이 홍천 동남쪽으로 진출하여 전선부대와 연결작전을 준비하고, 제5군단이 양구-인제 방면에서 국군 제1·제2군단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공격하여 홍천으로 진출할 예정이었다.

중공군의 제3차 공세가 시작될 무렵, 가평 동쪽의 중동부전선은 국군이 전담해서 방어하고 있었다. 서쪽에서부터 국군 제3군단 예하의 제2사단이 명지산 북쪽 고지군에, 제5사단이 화천-춘천간 도로변의 지촌리 일대에, 제8사단이 화천저수지 남쪽의 내평리 일대에 배치되어 있었고,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제7·제3사단이 춘천 동북쪽과 인제 남쪽 관대리 일대에,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제9사단이 인제 동남쪽 현리 일대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중동부전선의 국군은 강설과 혹한으로 진지구축이 어려웠고, 도로마저 결빙되어 식량과 탄약의 보급도 제





한되었다. 그럼에도 각 군단은 적의 주접근로에 수많은 지뢰와 장애물을 설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제3차 공세가 1950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중동부전선에서는 12월 하순부터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는 북한군 제2전선부대가 국군의 주저항선 후방지역인 홍천과 현리 일대로 침투하여 거점 확보를 시도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제 방면의 국군 제9사단과 제3사단 지역에서 피아 간의 전투가 격렬하였다. 국군 제9사단은 진동리-현리-상남리 일대를 점령한 12월 24일부터 북한군 제2군단 및 우격부대 병력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며, 인제 관대리 일대에 주저항선을 구축한 국군 제3사단은 12월 30일부터 현리에서 횡성으로 침투하여 홍천방면으로 북상하던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과 접전을 벌였다.

중공군 제3차 공세가 시작된 12월 31일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제2·제5·제8사단)과 제2군단(제3·제7사단)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군 제3군단의 좌측 사단인 제2사단과 중앙 사단인 제5사단은 중공군 제42군과 제66군의 공격을 받고 이날(31일) 주저항선이 돌파되어 가평과 춘천 방면으로 분산 철수하였으며, 우측 사단인 제8사단은 접적이 경미하였으나 좌우측 사단의 철수로 적에게 포위될 것을 우려하여 홍천으로 철수하였다. 국군 제3군단 우측의 국군 제2군단도 제7사단과 제3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 이하의 4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방어진지 일부가 무너져 적에게 포위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중공군 제3차 공세 당일(31일) 유엔군 전선에서 유일하게 공격작전을 전개한 부대는 국군 제1군단 이하의 국군 제9사단이었다. 이날 국군 제9사단은 제28연대가 침교(현리 남서쪽 13km) 북쪽의 북한군을 공격하였으며, 제29연대가 대암산(△1091, 침교 북쪽 8km)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고, 사단에 배속된 수도사단 제26연대가 오대산-평창 방면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였다. 국군 제9사단은 다음날(1951년 1월 1일) 상남리-1091고지와 광주동-용포를 목표로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런데 이날 정오경 좌측 인접부대인 국군 제3사단 지역을 돌파한 북한군 1개 연대 규모가 오미재 서쪽의 금부리에서 기습공격을 가하여 사단은 진출을 멈추고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1951년 1월 1일 정오에 미리 계획한 단계적인 철수작전을 명령하였다. 이때 중동부전선의 국군 제1·제2·제3군단에도 C방어선(한강-양평-홍천-양양)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각 군단은 전선 상황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C방어선 점령에 들어갔다. 국군 제3군단은 양평-홍천 방면으로 철수하여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으며, 제2군단은 제7사단이 춘천 동쪽 평촌리 지역을 거쳐 홍천 일대로, 제3사단이 자은리로 철수한 후 육군본부 직할로 배속이 전

환되어 평창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1군단 예하의 제9사단은 현리 부근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다가 1월 3일 오후 1시에 국군 제3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어 속사리 방면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사단은 전투와 철수를 적절히 운영하여 북한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1월 4일 창춘을 지나 속사리에 집결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사령관은 중동부전선을 조기에 안정시킬 목적으로 흥남에서 철수하여 경주 일대에서 부대정비에 주력하던 미 제10군단의 조기투입을 결정하고, 군단간의 전투지경선과 예하 부대의 배속을 일부 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미 제10군단이 여주-원주 방면으로 진출하고, 1월 3일부로 국군 제3군단의 제2·제5·제8사단을 배속 받았다. 그리고 국군 제3군단이 제7사단과 국군 제1군단으로부터 배속 받은 제9사단으로 미 제10군단 우측의 태백산맥 지역을, 국군 제1군단(수도사단, 제3사단)이 국군 제3군단의 우측 지역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중동부전선의 국군이 1월 4일까지 C방어선을 점령하였지만, 1월 2일 가평과 춘천을 점령한 중공군과 북한군이 공격을 계속해 이날(4일) 흥천을 점령하고 선두부대가 횡성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따라서 C방어선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1월 5일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제3군단에게 D방어선(평택-안성-장호원-원주-삼척)과 E방어선(영월-삼척)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1월 6일까지 국군 제2·제5사단이 여주에, 국군 제3사단이 평창에, 국군 제7사단이 창동리 일대에, 국군 제9사단이 속사리 일대에 집결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1950년 12월 24일부터 시작된 춘천-현리 부근 전투는 13일 만에 국군이 여주-평창-하진부리 선을 점령하면서 종료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0년 12월 24일부터 1951년 1월 6일까지 전개된 춘천-현리 부근 전투에서 국군 6개 사단(제2·제3·제5·제7·제8·제9사단)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인 철수작전을 전개하면서 전투력을 보존하여 차후 반격작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무렵 공산군은 중공군 제42군과 제66군이 흥천 일대에 배치된 가운데 북한군 제2·제5군단이 1월 7일과 8일 횡성과 원주를 점령한 후 계속해서 영주 방면으로 남하 중에 있었다. 북한군은 1월 8일 이후 제2·제5군단의 편제와 담당 작전지역을 재정비하고 중앙선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제5군단이, 동쪽으로는 제2군단이 계속해서 내륙지역으로 침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국군은 일명 황우선(영월-삼척)을 주저항선으로 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2월 5일부터 본격적인 공격작전으로 전환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1996.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임진강 부근 전투

[臨津江 附近 戰鬪, 1950. 12. 31. ~ 1951. 1. 3.]

### 개요

미 제1군단 예하의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12월 31일부터 1951년 1월 3일까지 제3차 공세를 개시한 중공군 제39군 예하의 제116사단에 맞서 임진강 일대에서 도하저지작전을 수행한 방어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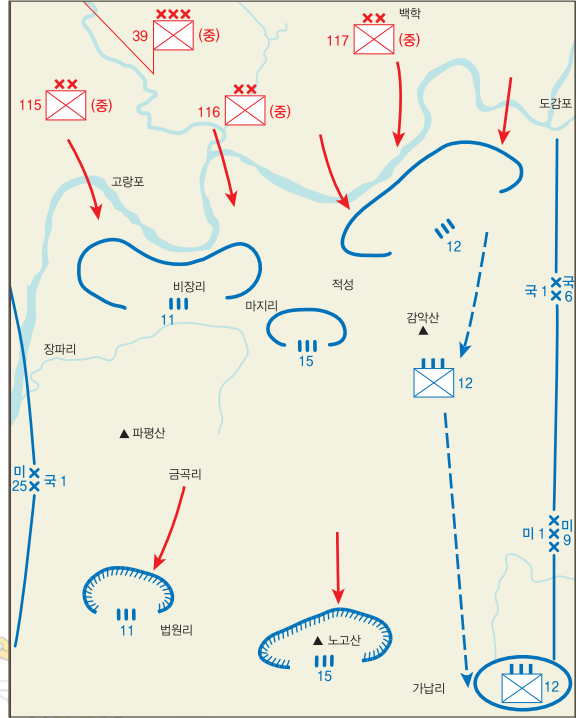
### 전개과정

임진강 부근 전투가 전개된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남쪽 장파리-마포리-도감포 일대와 법원리-노고산(△401) 일대였다. 임진강은 강폭이 300~1,000m에 이르고 수량이 풍부하며 남·북쪽 강변을 따라 단애(斷崖)가 형성되어 있어 여울이나 나루터를 제외한 지점에서의 도섭이 불가능한 천연장애물이었다. 그러나 당시 기온이 영하 25도에 달해 강이 결빙되어 도섭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 1번 국도와 경의선 철로가 임진강에서 문산-서울로 연결되고, 문산에서 적성리로 연결되는 37번 도로와 양주 덕정리로 연결되는 56번 도로, 그리고 이들 도로들과 연결되는 소로들이 산재해 있어 지역 내의 교통망은 비교적 발달된 편이었다.

1950년 12월 25일 제3차 공세 개시일을 31일 오후 5시로 확정된 중·조연합사령부는 12월 30일까지 공격부대 배치를 완료하였다. 이때 임진강 지역의 국군 제1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39군(제115·제116·제117사단)이 배치되었다. 중공군 제39군은 강습도하와 돌파작전에 중점을 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포병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폭탄뭉치 등 폭발기자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특히 병사들에게는 대전차공격, 거점공격, 철조망 파괴, 산악공격 방법 등을 숙지시켰다. 공격개시 하루 전인 12월 30일, 중공군 제39군 예하 제116사단은 국군 제1사단을 공격하기 위해 영하 25도 혹한 속에서 지형

지물과 눈·벗짚 등을 이용해 병력 7,500여 명과 화포 70여 문을 위장하고 공격대기 중에 있었다.

이 무렵 미 제8군사령부는 중공군이 주공의 목표를 서울 방면에 두고 미 제1군단 예하 국군 제1사단의 고랑포 정면과 미 제9군단 예하 국군 제6사단의 의정부 북방으로 공격하고, 조공을 춘천 북방에 두어 돌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당시 미 제1군단의 우전방 사단으로 임진강 남쪽의 장파리-도감포 선에 배치된 국군 제1사단은 방어정면이 넓어 제11연대를 비장리 일대에, 제12연대를 도감포 일대에 중점 배치하였다. 또한 국군 제1사단은 전방연



대의 전투지경선을 보강하고 유사시 전방연대들의 철수를 신속히 엄호하기 위하여 사단예비인 제15연대를 적성 남쪽의 마지리 일대에 배치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방어진지 강화를 위해 지뢰와 철조망을 가설해 놓았으며, 진지가 돌파될 경우 운암리 남쪽-경신리-신촌-법원리 일대에서 적을 저지하면서 각 대대별로 고양 일대 주요 지역에 집결한다는 철수계획도 수립해 놓은 상태였다.

1950년 12월 31일 오후 5시 중공군은 그 동안의 소강상태를 깨고 전 전선에서 제3차 공세(일명 '신정공세')를 개시하였다. 국군 제1사단의 임진강 정면에서는 돌격임무를 부여받은 중공군 제39군 예하 제116사단이 2개 포병연대의 화력지원 아래 임진강을 도하여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방어진지를 집중 공격하였다. 국군 제12연대 전방대대들은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화력을 집중하였으나 적이 계속해서 후속부대를 투입함에 따라 더 이상 진지를 방어하지 못하고 감악산(△675)과 적암리 일대로 분산 철수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 제39군은 제116사단을 후속하여 제115사단과 제117사단을 국군 제1사단 방어정면의 서쪽과 동쪽으로 각각 우회 침투시켰다.

임진강 남쪽에 교두보를 확보한 중공군은 제116사단 주력과 후속한 중공군 제117사단

병력이 계속해서 국군 제12연대를 추격하고, 일부 병력이 좌측의 국군 제11연대 후방으로 침투공격을 가하였다. 31일 저녁 8시경 분산된 국군 제12연대 병력과 뒤섞인 중공군이 국군 제1사단 예비인 마지리의 제15연대를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국군 제15연대의 진지 일부가 돌파당하면서 사단 동쪽 지역에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이때부터 국군 제1사단은 밤새도록 돌파구 확대를 기도하는 중공군을 맞아 총력전을 전개하였다. 사단에서는 공병, 통신병 등의 병력으로 대전차공격대대를 편성하여 제12연대와 제15연대 지역으로 투입하였으나 전선의 위급한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51년 1월 1일 오전까지 국군 제1사단은 방어와 철수를 반복하면서 중공군의 진출을 지연시켰다. 제12연대는 분산되었던 제1대대가 비석거리(동두천 서남쪽 7km)에 집결하였고, 적 포위망을 뚫고 철수한 제2·제3대대가 가납리(비석거리 남쪽 4.5km) 서쪽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제12연대 좌측 제15연대는 설마리의 제3대대가 낙오병과 뒤섞여 밀려드는 적의 공격으로 방어에 실패하고 분산 철수하였지만, 제2대대와 제1대대가 각각 금곡리(법원리 북쪽 5km) 북쪽과 매곡리의 신촌(금곡리 동북쪽 6km) 부근에 진지를 점령하고 중공군의 공격을 지연시켰다. 국군 제1사단의 좌측 부대인 제11연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금곡리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은 제116사단이 대촌리(금곡리 서북쪽 4km)-무건리(신촌 북쪽 2km) 선을 점령하고 남하 중에 있었으며, 제117사단 선두연대가 동두천 서남쪽 약 4km 지점의 선암리까지 우회 진출하여 국군 1사단과 국군 제6사단의 연결을 차단하였다.

포병의 화력지원과 유엔 공군의 항공폭격으로 중공군의 공세가 잠시 주춤한 사이 미 제1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소장은 문산 일대에 배치된 미 제25사단을 원당 일대로 이동시키고, 군단 예비로 신둔리에 집결 중인 영국군 제29여단을 추진시켜 고양 일대를 점령하게 하였다. 미 제1군단의 철수를 탐지한 중공군은 국군 제1사단 정면으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법원리 북쪽의 제11연대와 노고산 일대의 제15연대가 이를 저지하면서 돌파에 실패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기동한 미 제25사단과 영국군 제29여단이 자정 무렵 원당과 고양 일대의 저지선을 확보하였다.

중공군의 공격은 1월 1일 자정이 지나서도 계속되었다. 특히 중공군은 노고산 일대의 국군 제15연대에 공격을 집중하였다. 제15연대는 1월 2일 새벽까지 적의 돌파구를 저지하고자 고군분투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고양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좌측의 국군 제11연대가 적중에 고립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다행히 날이 밝으면서 중공군이 유엔 공군의 항공폭격을 우려한 듯 공격을 중지하여 국군 제11연대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날(2일) 미 제8군사령관은 서울 남쪽 방어선으로

의 철수를 결정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미 제25사단과 영국군 제29여단의 엄호 아래 한강 이남으로 철수를 개시하여 1월 3일 한강 남쪽의 영등포-노량진-동작동을 잇는 선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이날(3일) 미 제8군 예하의 모든 부대에 수원-양평-홍천-주문진선으로 철수하라는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1사단도 수원으로 철수할 준비를 갖추고 다음날(4일) 서울에서 철수하였다. 피난령(避難令)이 내려진 가운데 시민들도 함께 한강 남쪽으로 피난하였다. 전국적으로 764만여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것이 이른바 ‘1·4후퇴’였다.

1951년 1월 4일 오후 1시에 한강의 임시 교량이 완전히 폐쇄되었다. 이 무렵 중공군의 정찰대가 서울 서남쪽 교외까지 침투하고, 중부전선에서는 홍천이 적에게 점령되면서 미 제8군사령관이 설정한 방어선(수원-양평-홍천-주문진)의 지탱도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미 제8군사령관은 다시 예하부대에 평택-안성-원주-삼척을 잇는 북위 37도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국군 제1사단은 안성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1950년 12월 31일 중공군 제39군의 공격을 단계적으로 방어하면서 철수작전을 전개한 국군 제1사단은 안성 일대에서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0년 12월 31일부터 1951년 1월 3일까지 진행된 임진강 부근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공산군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단계적인 방어작전을 전개하면서 적의 진출을 지연시켜 미 제1군단의 안전한 철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중공군 1,151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고, 전사 63명, 부상 153명, 실종 490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사단은 1951년 1월 6일 천안 입장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제15연대를 안성천 남안에, 제11연대를 안성 서쪽의 경부국도 연변에 각각 배치하고 광주-판교를 거쳐 철수한 제12연대를 사단예비로 안성 일대에 집결시켰다. 안성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국군 제1사단은 1월 7일부터 신병 약 1,000명을 인수하여 병력을 보충하고 부대 정비와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반격으로의 전환을 꾸준히 준비해 나갔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⑧,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보병 제1사단 『전진약사』 (서울 : 육군인쇄공장, 1966).

【박동찬 집필】



## 동두천 부근 전투

[東豆川 附近 戰鬪, 1950. 12. 31. ~ 1951. 1. 3.]

### 개요

미 제9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6사단이 1950년 12월 31일부터 1951년 1월 3일까지 제3차 공세를 개시한 중공군 제40군 예하의 제118·제119사단, 제38군 예하의 제113·제114사단, 제39군 예하의 제117사단 등 5개 사단의 공격을 맞아 경기도 동두천과 의정부 일대로 철수하면서 적의 진출을 지연시킨 방어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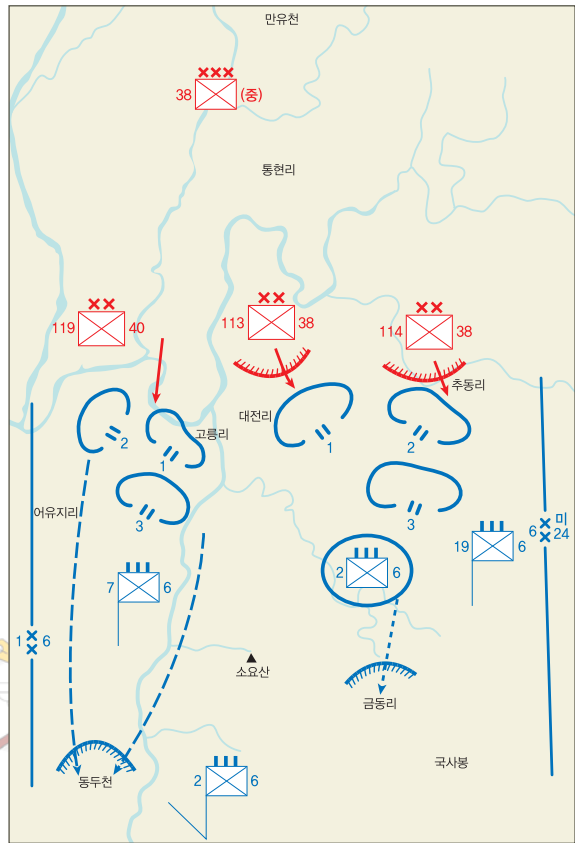
### 전개과정

동두천 부근 전투가 전개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일대로 38도선에서 서울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접근로 일대였다. 이 지역은 연천-동두천-의정부-서울로 이어지는 3번 도로를 중앙에 끼고 동쪽에는 종현산(△588)과 서쪽에는 마차산(△588)이 높이 솟아 전방에 대한 감제가 가능하였다. 전면의 한탄강은 단애(斷崖)와 굴곡이 심하여 천연장애물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3번 도로는 개전초기 북한군이 주공을 지향하던 곳으로 도보부대와 기계화부대의 기동이 매우 용이한 접근로였다. 이 지역이 돌파될 경우 수도 서울은 물론 광주산맥을 넘어 청평 방면의 중부전선도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1950년 12월 25일 제3차 공세시기를 확정한 중·조연합사령부는 12월 30일까지 공격부대의 배치를 완료하였다. 이때 연천-동두천-의정부-서울 방면으로는 중공군 제40군 예하의 제118·제119사단, 중공군 제38군 예하의 제113·제114사단, 중공군 제39군 예하의 제117사단 등 총 5개 사단이 공격할 예정이었다. 중공군 제40군은 제118·제119사단이 연천지역에서 임진강과 한탄강을 건너 동두천 서쪽과 정면으로 공격하고, 중공군 제38군은 제113·제114사단이 포천 방면에서 동두천 동쪽의 칠봉산(△506)-신읍리 방면으로 공격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중공군 제39군 예하의 제117사단은 중공군 제40군의 서쪽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남하할 예정이었다. 이 중 중공군 제117사단과 제114사단은 우회침투부대로 각각 서쪽과 동쪽에서 신속히 의정부 남쪽으로 기동하여 국군과 유엔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 무렵 미 제8군사령부는 중공군이 주공의 목표를 서울 방면에 두고 미 제1군단 예하 국군 제1사단의 고랑포 정면과 미 제9군단 예하 국군 제6사단의 의정부 북방으로 공격하고, 조공을 춘천 북방에 두어 돌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당시 미 제9군

단의 좌전방 사단으로 고릉리(전곡 남서쪽 4km)-대전리(전곡 남동쪽 4.5km)-추동리(대전리 동쪽 4km) 선에 배치된 국군 제6사단은 방어정면이 넓어 좌측의 제7연대를 고릉리 일대에, 우측의 제19연대를 추동리 일대에 중점 배치하고 사단예비인 제2연대를 덕정리 일대에 배치하여 방어중심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단은 적의 예상접근로인 연천-동두천 도로에 대전차지뢰와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국군 제6사단 좌측에는 국군 제1사단이 적성면 일대에, 우측에는 미 제24사단이 포천 북쪽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1950년 12월 31일 오후 5시 중공군은 그 동안의 소강상태를 깨고 전 전선에서 제3차 공세(일명 ‘신정공세’)를 개시하였다. 국군 제6사단의 연천-동두천 방면에서는 중공군 제40군 예하 제118·제119사단이 아미리(연천군 미산면)-고탄(연천군 전곡읍)에 이르는 지역에서 임진강과 한탄강을 건너 국군 제7연대를 공격하고, 중공군 제38군 예하 제113·제114사단이 누대(포천 중현산 서남쪽 2km, 현 문암동)-판거리(포천 중현산 동남쪽 1km, 현 늘거리)에 이르는 지역에서 한탄강을 건너 국군 제19연대를 공격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가용한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적의 초기 공격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951년 1월 1일 새벽 중공군이 사단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면서부터 전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날(1일) 새벽에 중공군 제40군 예하의 제119사단이 동두천 서북쪽 5km 지점의 안흥리 부근까지 침입하고, 중공군 제39군 예하 제114사단이 동두천 서북쪽에서 칠봉산 방향으로 공격을 가하였다.

국군 제6사단의 전방연대들이 중공군에게 포위될 위기에 처하자 사단장 장도영 준장은



전방지휘소를 양주 덕정리에서 서울 북쪽의 창동으로 이동하고, 제2연대의 엄호 아래 주력의 철수를 지시하였다. 사단의 우전방 연대인 제19연대는 새벽 3시 40분경에 철수를 시작하여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으면서 덕정리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예비진지인 용암리(덕정리 서북쪽 2km)로 철수하지 못한 제7연대는 오전 8시까지 치열한 교전을 벌인 후 제2연대 제2대대의 엄호 아래 철수를 시작하여 의정부를 경유해 창동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사단예비인 제2연대는 1월 1일 오후까지 전방연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창동으로 철수하였다. 중공군의 공격에 밀려 국군 제6사단 전방연대들이 철수할 무렵 미 제9군단장 무어(Bright E. Moore) 소장은 사단을 증원하기 위하여 군단예비인 영국군 제27여단을 덕정 부근에 투입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중공군 제3차 공세 3일째인 1월 2일 주력의 대부분을 창동에 집결시키고 수도권 방어를 위해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중공군은 퇴로 차단 임무를 부여받은 중공군 제117사단과 제114사단의 기동이 늦어 국군 제6사단을 포위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날(2일) 미 제8군사령관은 서울 남쪽 방어선으로의 철수를 결정했고, 미 제9군단은 미 제24사단이 의정부 일대를 방어하는 동안에 예하부대들이 한강선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1월 2일 밤늦게 서울 광장동과 경기도 하남-광주 일대로 철수하여 차후작전을 준비하였다.

중공군의 제3차 공세 4일째인 1월 3일, 미 제8군 예하의 모든 부대에는 수원-양평-홍천-주문진선으로 철수하라는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군 제6사단도 경기도 광주지역으로 철수할 준비를 갖추고 다음날(4일) 서울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른바 ‘1·4후퇴’가 이루어진 1월 4일 미 제8군사령관은 또다시 예하부대에 평택-안성-원주-삼척을 잇는 북위 37도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국군 제6사단은 진천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1950년 12월 31일 중공군 제3차 공세를 단계적으로 방어하면서 철수작전을 전개한 국군 제6사단은 진천 일대에서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0년 12월 31일부터 1951년 1월 3일까지 진행된 동두천 부근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에도 불구하고 담당지역을 고수하면서 적의 진출을 지연시켜 미 제9군단의 안전한 철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중공군 594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고, 전사 50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사단은 이 전투에서 담당 방어 정면을 고수하고, 그 임무를 완수한데 대한 전공으로 대통령표창과 미 제

9군단장 부대표창을 받았다. 이후 국군 제6사단은 1951년 1월 6일 충북 진천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제2연대를 안성시 일죽면에, 제7연대를 용인시 백암리 일대에, 제19연대를 음성군 대풍리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다. 진천 북쪽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국군 제6사단은 1월 7일부터 전력의 보충과 탐색전을 전개하면서 반격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갔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보병 제6사단 『청성부대사』(서울 : 육군인쇄공창, 1981).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원주 전투

[原州 戰鬥, 1951. 1. 6. ~12.]

### 개요

미 제10군단 예하의 미 제2사단(프랑스대대, 네덜란드대대 배속)이 1951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강원도 원주 부근에서 북한군 제5군단과 1주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적을 격퇴하고 원주를 사수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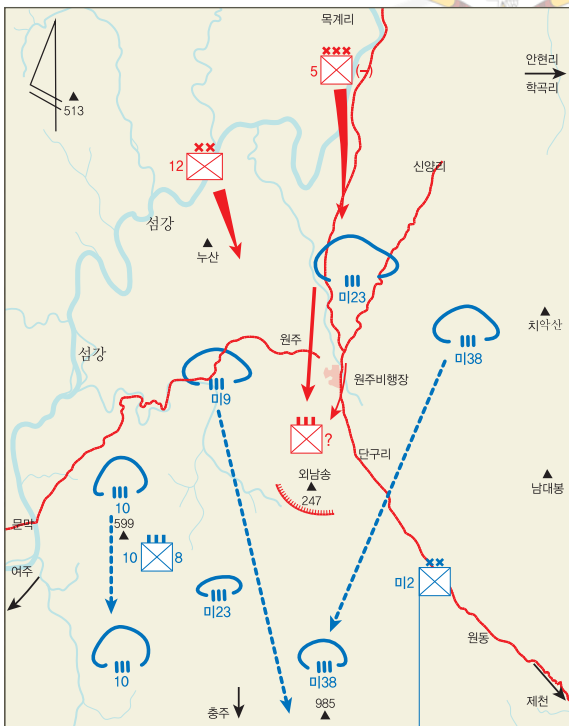
강원도 원주 지역은 중동부전선 제일의 요충지로 적이 이곳을 점령할 경우 충주를 거쳐 대전과 김천으로 진출하여 서부전선의 유엔군을 고립시킬 수 있으며, 동남쪽으로 제천-영주를 지향하여 안동과 대구를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따라서 원주 지역 점령은 차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피아 간에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작전목표가 되었다.

서부전선에서 중공군이 제3차 공세를 시작할 때(1950. 12. 31.) 중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 제2군단(제2·제4·제9·제10·제31사단)과 제5군단(제6·제7·제12·제27·제38·제43사단)이 인제 방면에서 흥천-횡성선으로 중심 깊이 침투하였다. 중공군 제66군이 1951년 1월 2일과 4일에 춘천과 흥천을 각각 점령한 후 흥천 일대에 주력을 배치한 가운데 북한군 제2·제5군단은 내륙으로의 침투작전을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이때 북한군 제5군단이 흥천-횡성-원주-제천으로 이어지는 5번 도로 축선을 따라 남하하고, 그 동쪽

에서 북한군 제2군단이 평창과 영월 방면으로 공격하였다.

중공군의 제3차 공세로 국군이 담당하던 중동부전선에 위기가 고조되자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중동부전선을 조기에 안정시킬 목적으로 흥남에서 철수하여 경주 일대에서 부대정비에 주력하던 미 제10군단의 조기투입을 결정하였다. 이는 중동부전선의 위기가 이 전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부전선에 배치된 유엔군 주력부대의 오른쪽 측방이 공격을 받게 됨으로써 결정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군단간의 전투지경선과 예하 부대의 배속을 일부 조정하여 전투편성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이 여주-원주 방면으로 진출하고, 1월 3일부로 국군 제3군단의 제2·제5·제8사단을 배속 받았다.

미 제10군단은 미 제2·제7사단과 배속 받은 국군 제2·제5·제8사단 등 5개 사단으로 춘천-홍천 간 도로를 작전지역의 중앙에 두고 C방어선(양평-홍천) 상의 48km에 달하는 방어선을 점령하였다. 이때 미 제2사단이 횡성지역에 배치되었다. 미 제2사단은 예하에 제9·제23(프랑스대대 배속)·제38연대(네덜란드대대 배속)와 미 제37야전



포병대대를 두었으며, 병력은 약 1만 5,000명 정도였다. 그러나 1월 4일 홍천이 적에게 피탈당하고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횡성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유엔군의 C방어선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1월 5일 예하부대에 D방어선(평택-안성-장호원-원주-삼척)과 E방어선(영월-삼척)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미 제2사단도 횡성에서 원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날(5일) 밤 10시 30분에 지휘소를 충주에 개설한 미 제2사단은 다음날(6일) 사단 좌측 연대인 제23연대가 학성리-만경리 일대의 진지를, 우측 연대인 제38연대가

홍양리-청암리-장양리 간의 진지를 각각 점령하였다. 그리고 사단에비인 제9연대가 원주-제천 간 기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봉양면 장평리(제천 서쪽 10km)로 이동하였다.

원주 외곽진지를 점령한 미 제2사단은 1월 7일 동·북·서쪽 3면에서 북한군 제5군단의 공격을 받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이날 북한군의 공격은 새벽 5시경 원주 동북쪽의 미 제38연대 진지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낮 동안에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으로 미 제38연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였지만, 일몰 이후 북한군 3개 사단이 동·북·서쪽 3면에서 일제히 공격함에 따라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격전이 계속되었다. 특히 미 제2사단 방어진지 중앙에 위치한 미 제37야전포병대대의 포진지가 적에게 유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포병대대는 사수와 탄약수까지 모두 동원하여 적을 저지하고 백병전까지 감행하면서 포진지를 사수하였다. 미 제2사단장 맥클루어(Robert B. McClure) 소장은 방어선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전방부대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23연대가 원주 남쪽 7km 후방으로, 미 제38연대가 그 보다 남쪽의 미천 부근으로 각각 철수하였다. 이는 사실상 원주에서의 철수를 의미하였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은 전술적 요충지인 원주의 점령 여부가 중동부전선을 장악하는 관건이라 판단하고 미 제2사단장에게 4개 대대 규모 이상을 원주 시가지 남쪽 고지군에 배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미 제2사단은 제23연대를 투입하여 247고지를 비롯한 원주 남쪽의 고지군 점령에 나섰다. 247고지는 원주 남쪽에서 시가지를 감제할 수 있어 원주 공격의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원주-충주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 지형이었다. 이 고지 점령을 위해 미 제23연대는 1월 8일 오전부터 11일 오후까지 모든 예비부대를 동원하여 공격에 나섰다. 미 제23연대는 연일 계속되는 눈보라 속에서 북한군과 수차례의 혈전을 벌여가며 공격을 감행해 1월 11일 오후 마침내 247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미 제2사단은 1월 12일 미명에 원주 탈환을 위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미 제23연대와 미 제38연대가 충주-원주 간 도로를 따라 원주 서측방을 공격하여 북한군을 격퇴하고 시내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원주를 탈환한 미 제2사단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원주 전투는 미 제2사단이 원주를 재탈환하여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이후 북한군 제5군단은 원주를 다시 점령하기 위해 역습을 계속 시도하였지만, 끝내 원주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1월 17일 북한군 제5군단은 제27사단을 전방에 배치하여 접적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력이 황성 부근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개된 원주 전투에서 미 제2사단은 북한군 제5군단과 일주일간의 공방전을 전개하여 원주를 사수하는데 성공하였다. 미 제2사단의 원주 사수는 영주와 안동지역으로 침투하려는 북한군의 기도를 좌절시키고, 원주-제천 축선과 원주-충주 축선의 주요 도로를 확보하여 중동부전선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군이 1월 15일부터 위력수색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미 제2사단의 원주 전투 승리가 결정적인 계기였다. 미 제2사단은 원주 전투 기간 중 북한군 약 1만여 명을 살상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패배한 북한군 제5군단은 재편성이 요구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1996.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적성리 전투

[赤城里 戰鬪, 1951. 1. 12. ~15.]

## 개요

미 제10군단 예하 특수작전단 소속의 국군 특공대대가 1951년 1월 12일부터 1월 15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에서 중공군 제3차 공세 때 경상도 내륙까지 침투한 북한군 제10사단 소속의 1개 연대와 교전을 벌여 승리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는 단양에서 계곡통로를 이용해 문경-상주, 문경-안동으로 나갈 수 있는 59번 도로와 충주 방면으로 이어지는 901번 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요충지였다. 이곳 지형은 소백산맥 주류에 속하는 지대로 북쪽에 황정산(△1077)이 솟아 있고, 서쪽에 천주봉(△823)이 남쪽으로 이어져 있으며, 동쪽으로 해발 600~700m의 산들이 펼쳐져 있는 산악지대이다. 작전이 실시되던 당시 기온은 평

군 영하 15℃였으며, 약 15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서부전선에서 중공군이 제3차 공세를 시작할 때(1950. 12. 31.) 중동부와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 제2군단(제2·제4·제9·제10·제31사단)과 제5군단(제6·제7·제12·제27·제38·제43사단)이 인제 방면에서 흥천-횡성-원주 선으로 중심 깊이 침투해 제2전선을 형성하였다. 특히 최현 상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제2군단은 1950년 9월 낙동강 전투 이후 동부 산악지대로 철수하면서 북한군 패잔병들을 모아 화천-김화-양덕 일대에서 재편성하여 게릴라전을 수행한 부대였다. 중동부와 동부전선의 산악지형에 익숙하고 침투전술이 능한 북한군 제2군단은 제10사단을 선두로 병력을 추진시켜 유엔군의 후방을 교란시키려 하였다. 이들의 목표는 단양을 거쳐 대구에 도달하는 것이었으며, 1월 7일과 8일 원주와 횡성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영주 방면으로 남하 중에 있었다. 북한군은 1월 8일 이후 제2군단과 제5군단의 편제와 담당 작전지역을 재정비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최현이 지휘하는 제2군단을 4개 사단(제2·제9·제27·제31사단)으로, 방호산 중장이 지휘하는 제5군단을 5개 사단(제6·제7·제10·제12·제43사단)으로 재편성하고, 중앙선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제5군단이, 동쪽으로는 제2군단이 작전을 담당하게 하였다.

중동부전선의 상황을 보고받은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단의 침투를 가장 큰 위험 요소로 파악하고 미 제10군단에게 지역 내 통로 차단과 북한군 격멸을 지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 제8군은 후방지역 차단을 위해 군예비로 상주에 대기 중이던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안동으로, 마산에 대기 중이던 미 해병 제1사단을 영천-경주-포항 지역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미 제10군단에서는 문막 동쪽에 위치한 국군 제5사단을 제천-영월 간에 배치해 차단작전을 수행하게 하고, 군단 특수작전단(Special Activities Group) 소속의 국군 특공대대를 황정산(단양 서남방 16km) 기슭의 적성리 일대로 수색정찰을 실시하게 하였다.

배동걸 소령이 지휘하는 300명의 국군 특공대대는 1월 11일 안동을 출발해 점촌을 거쳐 12일 오후 적성리에 도착했다. 대대는 도착 즉시 동로초등학교 북쪽에 위치한 100~200m 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황정산 계곡 일대에 수색대를 파견하였다. 이날 저녁 8시경 특공대대 수색대와 북한군 간에 첫 교전이 있었고, 곧이어 북한군 제10사단 소속의 연대 병력이 특공대대 진지를 포위하였다.

북한군은 1월 13일 새벽에 팽과리와 북소리를 신호로 하여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북한군은 첫날 3차례에 걸친 주간공격이 실패하자 야간공격으로 전환하여 1월 14일 새벽 1시경부터 파상공격을 가하였다. 특공대대는 탄약수량을 감안하여 정확한 사격

통제 아래 사격을 실시하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교전을 계속하였다. 작전지원을 위해 특공대대에 배치된 3명의 미 군사고문관은 이날 오전에 유엔 공군의 F-51기 1개 편대를 무선유도하였으며, 경찰과 청년방위대원 약 60명은 빗발치는 적의 포탄 속을 뚫고 동로 초등학교에 투하된 탄약과 보급품을 방어진지로 옮기는데 성공하였다.

북한군은 14일 밤 다시 공격해 왔지만, 특공대대는 이날 오후에 탄약과 보급품을 지원 받은 상태였고, 또 적의 공격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대대는 10m 앞까지 북한군을 유인한 후 수류탄을 투척하고 사격을 가하는 방식을 되풀이 하면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북한군은 여러 차례 공격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만 늘어나자 1월 15일 오전에 공격을 중단하고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1951년 1월 12~15일 3일간 진행된 적성리 전투는 국군 특공대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 결과 및 영향

적성리 전투에서 국군 특공대대는 북한군 1,247명을 사살하였으며, 장교 7명과 사병 72명을 생포하였다. 또한 박격포 2문과 각종 소총 370정을 획득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에 반해 아군의 손실은 전사 9명, 부상 2명, 미군 부상 2명, 민간인 사망 4명, 경찰 부상 1명, 청년방위대원 전사 7명 등이었다. 이와 같은 전과를 보고받은 미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은 참모들과 함께 직접 특공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군 특공대대의 적성리 전투는 중부전선의 대규모 돌파구 형성을 차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뒤이어 전개된 미 제10군단의 후방지역 차단작전에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전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Hq. X Corps, "Command Report", January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박동찬 집필]



## 남대리 전투

[南大里 戰鬪, 1951. 1. 15.~19.]

### 개요

국군 제3군단 예하의 제3사단이 1951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부근으로 침투해 있던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31사단을 옥석산, 선달산, 아래산 등지에서 격렬한 공격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의 남대리는 영월 동남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의 분기점이다. 이 지역은 북쪽으로 아래산(△1064), 선달산(△1236), 옥석산(△1241)이, 남쪽으로 1097고지, 봉황산(△819) 등이 연이어 있는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는 산악도로가 있으나 노면이 험소하고 굴곡이 심해 매우 불량한 상태였다. 당시 작전지역의 기온은 영하 12~20℃를 오르내렸으며, 강설과 결빙이 잦아 기동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침투작전시 기동력의 약점을 역이용할 수 있고 또 퇴각시에는 태백산맥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형상의 이점을 가지는 곳이기도 하였다.

유엔군의 후방지역을 교란하기 위해 중동부전선으로 침투한 북한군 제2군단은 1월 12일 경에 이르러 제31사단이 남대리에, 제2사단이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남대리 서쪽 11km)에, 제9사단이 영월군 김삿갓면 주문리(남대리 서북쪽 9km)에, 제27사단이 주문리 북쪽 3km 지점의 망경대산(△1088)에 각각 침투 중이었다. 이것은 영월-정선으로 이어지는 국군 제3군단의 방어선인 황우선을 7~20km 돌파한 것이었다. 북한군 제2군단의 침투공격은 부채꼴 형태를 띠었으며, 이들 중 선두부대가 남대리의 북한군 제31사단이었다.

중동부 내륙으로 침투하는 북한군 제2군단 병력을 저지하기 위해 국군 제3군단은 1951년 1월 초 제7사단을 좌측부대로 후천(영월 서남쪽 8km)-두평(영월 동쪽 4km)-완택산(△916) 간에, 제9사단을 우측부대로 정선-송계리 간에 배치하고 군단예비로 제3사단을 춘양에 집결시켰다. 그러나 북한군 공격부대들이 군단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춘양 방면으로 향하자, 국군 제3군단은 군단 예비로 춘양에 집결 중이던 제3사단을 남대리 방면으로 추진시켜 영월의 제7사단과 함께 남북에서 협공을 펼치게 했다. 국군 제3사단은 1월 14일 전투담당지역을 목표로 기동을 시작하였다. 제18연대가 봉화를 거쳐 물야면으로, 제22연대가 주실령 일대로, 제23연대가 녹전리로 각각 이동하였다.

국군 제3사단의 남대리 부근 전투는 1월 15일 제22연대의 주실령(남대리 동남쪽 8km) 공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22연대는 주실령을 삼면에서 포위하고 북한군을 공격하였다. 1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주실령 정면에서 공격하던 제1대대가 북한군의 방어



선을 돌파하자 적은 숲실(주실령 서남쪽 4km) 방면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북한군은 숲실에서 제3대대와 충돌하게 되자 다시 북쪽의 박달령(주실령 서북쪽 3km)을 향해 탈출을 시도하던 중 조제리(주실령 북쪽 6km)에서 남하하던 연대 수색대의 기습에 걸려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제22연대가 주실령을 공격하는 동안에 물야면의 제18연대는 선달산(남대리 동쪽 2km) 공격에 나섰다. 연대의 주공부대인 제1대대는 오록리를 출발해 이날 오후 선달산에서 북한군 1개 대대와 격돌하였다. 15일 오후 1시경부터 시작된 전투는 다음 날 정오 무렵에 제1대대가 선달산을 점령할 때까지 백병전을 동반한 치열한 공방전으로 전개되었다. 제1대대가 선달산을 점령한 후에도 북한군은 야간에 3차례에 걸쳐 선달산을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제2대대는 남대리 남쪽의 1097고지와 마구령을 점령하고 제1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남대리의 북한군을 서남쪽에서 압박하였다.

제18연대는 1월 17일 오전에 포병과 항공기의 화력지원 아래 공격을 재개해 오후 1시경에 북한군 제31사단의 거점인 남대리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후 제18연대는 녹전리 방면에서 남하해 아래산(남대리 서북쪽 2km)을 점령한 제23연대와 협공으로 의풍리(남대리 서북쪽 6km)를 점령하였다. 제18연대는 1월 19일 남대리 부근의 작전 임무를 국군 제7사단에 배속된 제23연대에 인계하고 주력을 후방으로 이동시켰다. 제23연대는 19일 오전에 우측의 제7사단 제3연대와 병진 공격하여 와석리 일대의 북한군을 섬멸하였다. 이로써 북한군 주력부대는 큰 타격을 입고 서북쪽의 영월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 결과 및 영향

남대리 전투에서 국군 제3사단은 북한군 제31사단을 공격하여 1,462명을 사살하고 67명을 생포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사단의 피해는 전사 42명, 부상 113명, 실종 43명이었다. 국군 제3사단의 남대리 전투는 중공군의 제3차 공세에 호응하여 원주에서 영월을 거쳐 경상도 내륙으로 침투하려던 북한군 제2전선부대를 차단하고 위기를 타개하였으며, 중동부전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과 북한군 섬멸작전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투였다.

## 참고문헌

- 육군본부, 「전투상보 : 남대리 방면 공격전, 『한국전쟁사료』 (49), 19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⑧,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박동찬 집필]



# 영월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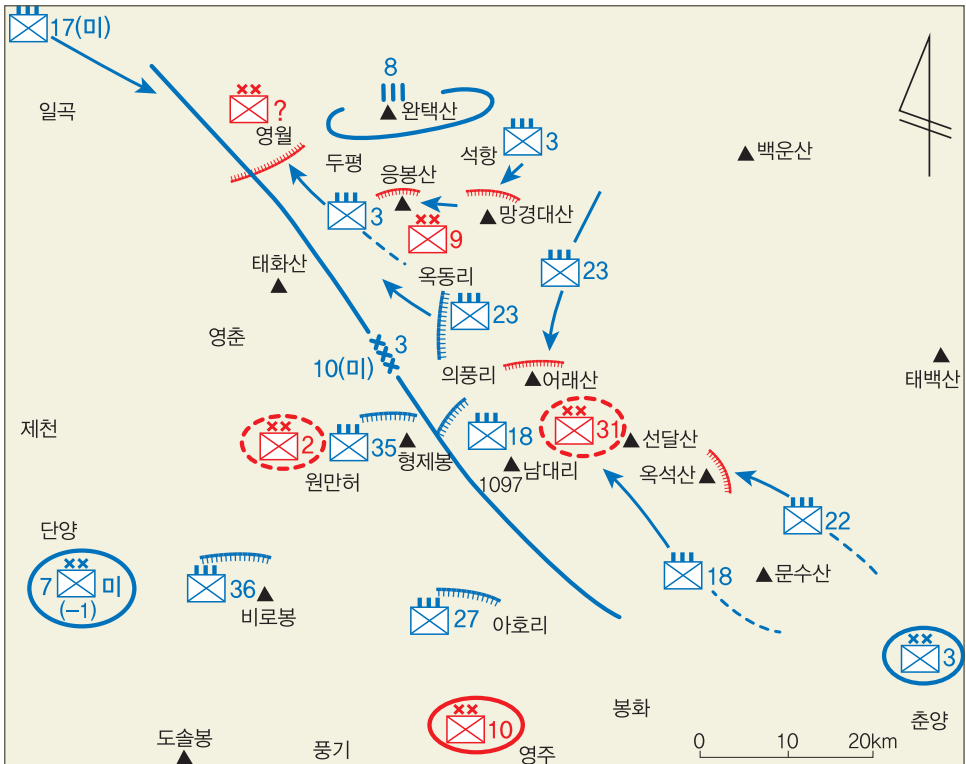
[寧越 戰鬪, 1951. 1. 19. ~24.]

## 개요

국군 제3군단 예하의 제7사단과 배속된 제3사단 23연대가 1951년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원주에서 영월 방면으로 침투한 북한군 제2군단을 영월 동쪽방면에서 공격해 큰 타격을 입히고 영월을 탈환한 공격전투이다.

## 전개과정

강원도 최남단에 위치한 영월은 태백산맥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차령산맥이, 남쪽으로는 소백산맥이 있어 전형적인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다. 분지형태의 영월을 제외하면 주변 지역은 평균 1,000m에 이르는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여 기동에 큰 제약 받았다. 정선과 평창에서 흘러온 남한강 지류가 영월 남쪽 끝에서 합류해 단양 쪽



으로 흐르지만, 이러한 하천은 작전 기간 동안에 결빙되어 보병의 기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지역 내 주요 도로는 영월을 중심으로 영월-석항(영월 동쪽 10km)-녹전리(영월 동남쪽 18km)-춘양, 영월-평창-대화, 영월-제천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보급로인 동시에 차량부대의 기동로였다. 이에 따라 영월은 피아 간에 중요한 쟁탈 목표가 되었다. 작전 기간 중의 날씨는 대체로 맑았으나 기온이 낮아 전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편이었다.

유엔군 후방지역에 제2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중동부전선으로 침투한 북한군 제2군단(최현 소장)은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31사단이 남대리(영월 동남쪽 20km) 부근에서 국군 제3사단의 공격을 받아 와해 된 이후에도 침투작전을 계속 전개하였다. 북한군 제2군단은 영월을 거점으로 삼아 제2·제9·제27사단이 영월 동쪽 방면의 응봉산(△1013, 영월 동쪽 7km)-만경대산(△1088, 영월 동쪽 11km)-옥동리(영월 동남쪽 9km)-마대산(영월 동남쪽 11km)-남천리(영월 남쪽 14km) 등을 잇는 선에 병력을 전개하고 영주-봉화-춘양 방면으로 침투하려고 시도하였다.

중동부 내륙으로 침투하는 북한군 제2군단을 격퇴하는 즉시 공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국군 제3군단(유재홍 소장)은 제3사단이 영월 동남쪽의 남대리 전투에서 승리하자, 곧바로 영월 동쪽에서 작전 중이던 제7사단을 영월탈환작전에 투입하였다. 제3사단 제23연대를 배속 받은 제7사단은 1월 19일을 공격개시일로 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때 사단의 부대배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제3연대가 완택산(△916)-석항리 간에, 제8연대가 석항리의 예미산(△989)-외룡리의 운교산(△915) 간에, 배속된 제3사단 제23연대가 외룡리-의풍리 간에 각각 배치되었으며, 사단 예비로 제5연대가 사단사령부와 함께 녹전리(영월 동쪽 15km)에 위치하였다.

국군 제7사단의 영월탈환작전은 1월 19일 오전 8시에 제3연대와 제8연대가 각각 주공과 조공부대로 만경대산과 연하리의 694고지(만경대산 서북쪽 3km)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날 주공부대인 제3연대는 예미산-이목리 선에서 정면과 좌측에서 동시에 공격을 가해 3시간 동안의 교전 끝에 만경대산을 점령한 후 북한군 패잔병들을 추격하였으며, 조공부대인 제8연대는 연상리에서 공격을 시작해 연하리의 694고지를 점령하였다.

공격 첫날 북한군의 주요 거점인 만경대산을 점령한 국군 제7사단은 다음날(20일) 만경대산에서 서쪽으로 4km지점에 위치한 응봉산(△1013) 탈환에 나섰다. 영월에서 약 6km 동쪽에 위치한 응봉산은 영월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국군 제7사단에게는 영월 탈환의 최후 교두보였으며, 북한군에게는 최후 방어거점이었다. 국군 제7사단의 주공부대인 제3연대는 북한군이 응봉산을 고수하기 위해 전초진지로 활용하던 988고지와

832고지 등에서 약 3시간에 걸친 공방전을 전개하여 점령한 후 오전에 응봉산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날 사단의 조공 부대인 제8연대도 제3연대의 우측에서 공격을 개시해 연하리의 583고지를 점령한 후 응봉산의 제8연대와 연결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1월 21일 영월에서 단양으로 흐르는 남한강변까지 진격하여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지역 내의 잔적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은 퇴로를 차단당하자 분산된 상태로 남한강을 건너 서쪽의 미 제10군단 지역으로 퇴각하였다. 1월 21일을 기해 정선-영월 선을 확보한 국군 제7사단은 1월 22~23일 양일간 국군 제3군단의 작전계획에 따라 좌측의 미 제10군단이 체천-영월 선으로 진격해 연합작전을 벌일 경우를 대비해 진지를 보강하면서 영월 탈환을 위한 공격을 준비하였다.

국군 제7사단의 영월 시가지 탈환작전은 1월 24일 미 제7사단과의 연합작전으로 전개되었다. 이 작전은 국군 제3군단장과 미 제10군단장이 북한군에게 재편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격파하기 위해 연합작전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국군 제7사단장과 미 제7사단장이 상호 연결작전을 계획하면서 이루어졌다. 연결지점은 영월에서 서쪽으로 약 7km 지점에 위치한 후탄리의 일곡마을이었으며, 영월 동쪽에서 공격하는 국군 제7사단은 제3연대가, 영월 서북쪽에서 공격하는 미 제7사단은 제17연대가 주공부대로 투입되었다.

국군 제7사단의 주공부대인 제3연대는 1월 24일 새벽에 공격개시선으로 이동한 후 오전 7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했다. 연대의 주공부대인 제2대대가 영월로 진격한 후 백병전을 전개하면서 영월 북쪽의 675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제1대대가 675고지 우측의 봉래산을 점령한 후 퇴각하는 북한군을 섬멸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수많은 시체와 무기들을 그대로 버려둔 채 뿔뿔이 흩어져 퇴각하였다.

국군 제3연대 제1·2대대가 영월 북쪽지역을 완전히 탈환할 무렵인 오후 2시경에는 영월 시가지 남쪽으로 진출한 제3대대가 후탄리의 일곡에서 미 제17연대와 연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1951년 1월 19일부터 진행된 영월 부근 전투는 1월 24일 국군 제7사단이 영월을 점령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 결과 및 영향

영월 전투에서 국군 제7사단은 북한군 1,044명을 사살하고 41명을 생포하였으며, 박격포 2문과 각종 소총 237정을 노획했다. 반면에 사단의 피해는 전사 71명, 부상 90명, 실종 2명이었다. 국군 제7사단은 6일간에 걸쳐 지역 내에 침투한 북한군을 격파해 승리를 거두고, 북한의 덕천에서 고전한 사단의 명예를 회복하였다. 특히 이 전투의 결과, 북한군의 중동부전선 침투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보병 제7보병사단, 『상승철성부대』, 2007.

【박동찬 집필】

## 김량장 전투

[金良場 戰鬪, 1951. 1. 25.~27.]

### 개요

미 제1군단 예하의 미 제25사단에 배속된 터키여단이 1951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용인의 김량장과 151고지에서 중공군 제49사단 제447연대와 제150사단 제448연대를 격퇴하고 목표를 탈환한 공격전투이다.

### 전개과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김량장은 현재 용인읍이며, 151고지는 기흥구 신갈저수지 동쪽 약 3km 지점의 보라동에 위치하고 있다. 김량장과 151고지는 오산-송전리 선에서 수원-광주 방면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전술상 반드시 점령해야 할 요충지였다. 특히 151고지는 1번 국도를 통제할 수 있는 감제고지이기도 하였다.

중공군의 제3차 공세(신정공세) 이후 김량장과 151고지는 중공군 제50군 예하 제148사단과 제150사단의 전초진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썩썩성(曾澤生)이 지휘하는 중공군 제50군은 제148·제149·제150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병력이 약 3만 2,000명이었다. 당시 중공군 제50군은 한강 남안의 교두보 확보를 주요임무로 하였으며, 수원을 경계로 북쪽에 주력을 배치하고 남쪽에 전초부대를 파견하였다.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북위 37도선까지 밀려난 유엔군은 1951년 1월 15일 공세로 전환한 후 1월 25일부터 공격부대를 증강시켜 단계적인 반격작전을 시작하였다. 썩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으로 명명된 이 작전에서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미 제25사단을 공격부대로 투입하였다. 미 제25사단은 5개의 공격제대를 편성하고 1번 국도를 중심으로 좌우측에서 북상하는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때 사단의 우측 부대로 야찌시(Tahsin Yazici) 준장이 지휘하는 터키여단이 신갈과 김량장 탈환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터키여단은 1월 25일 오전에 제3대대가 오산 동쪽에서 신갈 방면으로, 제2대대가 송



는 실패하였다.

김량장으로부터 약 8km 서쪽에 위치한 신갈의 151고지에서는 26일 정오부터 터키여단 제3대대가 목표를 탈환할 때까지 약 5시간에 걸쳐 피아 간에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제3대대는 군우리 전투에서 명령 없이 철수해 얻게 된 불명예를 이번 전투에서 만회하려는 듯 쏟아지는 적의 포화 속을 뚫고서 목표를 향해 돌진하였다. 후에 확인되었지만 중공군은 이 고지에 유엔군의 직사포 사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진지마다 기관총도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형의 사주방어진지 내부는 박격포진지까지 구축한 강력한 요새였다.

터키여단 제3대대는 포병의 화력지원 아래 그들이 믿는 ‘알라’를 외치면서 돌격해 백병전까지 수행하면서 고지를 탈환하고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를 계기로 터키군은 군우리에서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었다. 제3대대의 151고지 점령은 김량장리의 전선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151고지에서 터키여단 주력이 전장 정리를 하는 동안에 김량장리의 제2대대도 갑작스런 중공군의 퇴각에 따라 1월 27일 오전에 시가지 북쪽 고지군을 탈환할 수 있었다.

김량장과 151고지 전투를 승리한 후 터키여단은 1월 27일 신갈의 제1·제3대대가 미 제3사단 제65연대에, 김량장리의 제2대대가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차기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 김량장과 151고지 전투에서 터키장병들은 총검에 의한 백병전으로 중공군을 격퇴함으로써 ‘용감한 터키군’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3일간의 전투에서 확인된 중공군의 시체만도 김량장리 전투에서 77명, 151고지 전투에서 397명 등 총 474명이었다. 이들 중공군 전사자의 대부분은 개머리판에 의해 턱이 깨지고 총검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터키군의 백병전 상황은 유포아이(U.P.I) 기자에 의해 생생한 모습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었으며, 참전국들은 백병전 하면 터키군을 연상하게 될 정도로 ‘인류 역사상 길이 빛날 터키군의 전공’이라고 극찬하였다. 이 전공으로 터키여단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다.

## 참고문헌

- 25th Infantry Division, "Command Report", January 19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박동찬 집필】



## 수리산 전투

[修理山 戰鬪, 1951. 1. 31. ~ 2. 6.]

### 개요

미 제25사단(터키여단 배속)이 1951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한강선 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목표로 경기도의 안양·군포·안산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에서 중공군 제150사단을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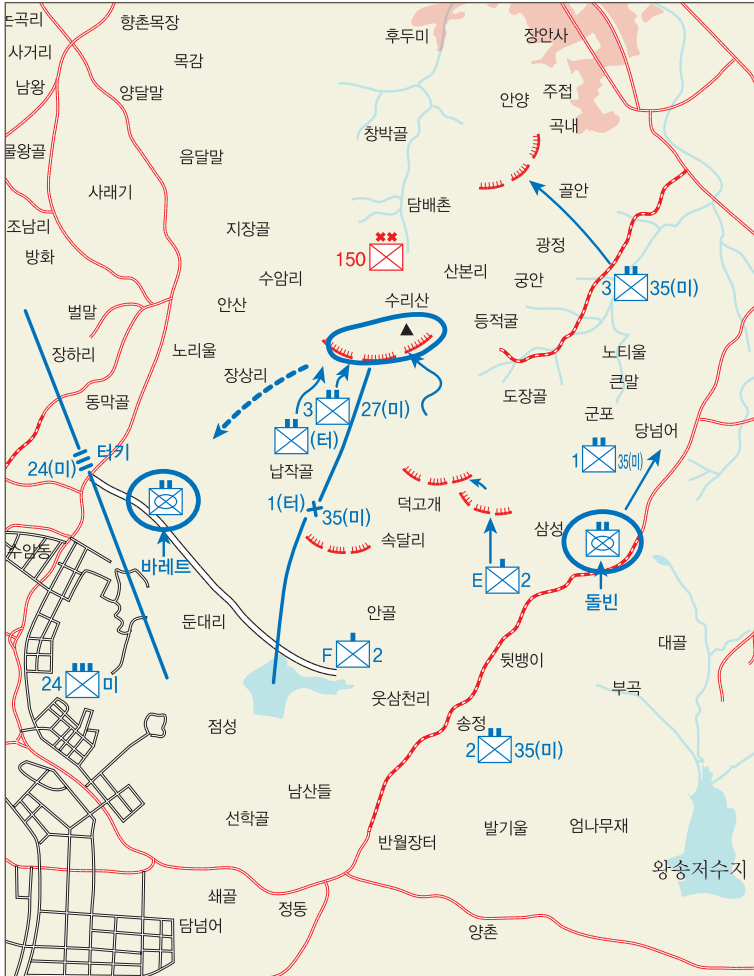
경기도의 안양, 군포, 안산 등 3개 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은 수원에서 영등포로 이어지는 국도와 안산을 거쳐 소사 또는 인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감제고지였다. 474m 높이의 수리산은 골짜기를 두고서 양 갈래 능선을 이루고 있는 북쪽 방향에서의 접근이 유리한 반면에, 비교적 완만한 능선을 이루고 있으나 형세가 복잡한 남쪽 방향에서의 접근이 불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쪽 방향에서 공격할 경우 공격보다는 방어하는 측에 유리한 지형이었다.

방어와 감제고지로서의 전술적 중요성 때문에 공산군 측에서는 중공군 제150사단의 1개 연대를 투입해 수리산 정상은 물론 주요 능선과 접근로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중공군은 474고지(수리산 정상), 431고지(수리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약 800m), 440고지(431고지와 서쪽으로 연결된 고지) 등 수리산 정상부근에 제3선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정상에서 남쪽으로 약 2km 지점에 위치한 253고지에 제2선 방어진지를, 그리고 대야동 250고지에서 용호동 210고지까지의 능선에 제1선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 방어진지에는 견고한 엄체호와 여러 개의 기관총 진지가 갖추어져 있었다.

1951년 1월 25일부터 썬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에 나선 유엔군은 1월 31일을 기해 각 군단의 주력을 전방에 투입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한강선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1군단이 서해안에서 광주 근지암에 이르는 지역에 미 제25사단(터키여단, 국군 제1사단 15연대 배속)과 미 제3사단을 병렬 배치하고 국군 제1사단 주력을 예비로 하여 전면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이 때 서해안에서 용인의 광교산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한 미 제25사단은 한강선 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수리산과 모락산을 상정하고, 이 목표물들을 점령하기 위해 미 제35연대와 터키여단을 수리산 공격에, 국군 제15연대를 모락산 공격에 각각 투입하였다. 미 제25사단의 수리산 탈환작전은 주공부대인 제35연대가 군포방면으로 우회하여 남동쪽





에서 능선을 따라 공격하고, 조공부대인 터키여단이 소사방면으로 우회하여 남서쪽에서 공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수리산 탈환작전은 1월 31일 오전에 주공부대인 미 제35연대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미 제35연대는 이날 오후까지 중공군의 제1선 방어진지인 대야동의 250고지와 용호동의 210고지를 무난히 점령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제2선 방어진지인 253고지는 적절한 화력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공격 시기를 놓쳐 점령에 실패하였다.

공격 둘째 날인 2월 1일 미 제25사단은 터키여단을 투입해 미 제35연대와 좌우측에서 연합작전을 펼치게 하였다. 이 공격으로 주공부대인 미 제35연대는 전날 공격에서 실패

한 253고지를 점령했고, 터키여단은 440고지 점령의 발판이 되는 266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수리산 정상 일대에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중공군도 모든 화력을 동원해 미 제35연대와 터키여단의 공격을 막았다.

미 제35연대와 터키여단은 2월 2일 사단이 보유한 모든 포병화력이 수리산 정상부근의 중공군 진지에 집중되는 가운데 연막탄으로 중공군의 시야를 교란하면서 정상 공격에 나섰다. 미 제35연대는 산본리로 이동한 미 제89전차대대 전차들의 직접조준사격 지원을 받으며 정상공격에 나서 정오경에 474고지를 점령했고, 터키여단도 오후 3시 45분경에 서북쪽으로 우회하여 440고지에 이어 431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미 제25사단의 수리산 탈환작전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런데 이때 중공군은 터키여단이 공격한 440고지의 남쪽 기슭에 위장이 잘된 진지를 구축하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터키여단의 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중공군은 밤이 되자 미 제35연대가 점령하고 있는 474고지를 서쪽에서 공격하고, 432고지 북쪽에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터키여단을 배후에서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터키여단은 431고지에서 각종 무기와 탄약을 유기한 채 철수를 강요당했으며, 474고지의 미 제35연대도 중공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440고지를 거점으로 하는 중공군과의 교전은 3일간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 제25사단은 사단예비로 있던 미 제27연대 제3대대를 투입하여 터키여단과 함께 440고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터키여단과 미 제27연대 제3대대는 총 4차에 걸쳐 440고지를 공격한 끝에 2월 6일 마침내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수리산 전투는 서부전선에서 한강선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컸다. 이 전투를 계기로 중공군 제50군은 수원 일대에서 물러나 안양 방면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미 제25사단은 한강선 확보를 목표로 계속해서 추격작전을 전개해 2월 10일 마침내 한강선에 도달하였다.

## 참고문헌

- Hq 25th Inf., "Command Report", Feb.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일본육전사보급회 편, 육군본부 역, 『한국전쟁 : 유엔군의 재반격』(서울 : 육군본부, 1986).

[박동찬 집필]



## 모락산 전투

[慕洛山 戰鬪, 1951. 1. 31.~2. 4.]

### 개요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가 1951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모락산과 그 주변 지역에서 중공군을 격퇴하고 한강선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공격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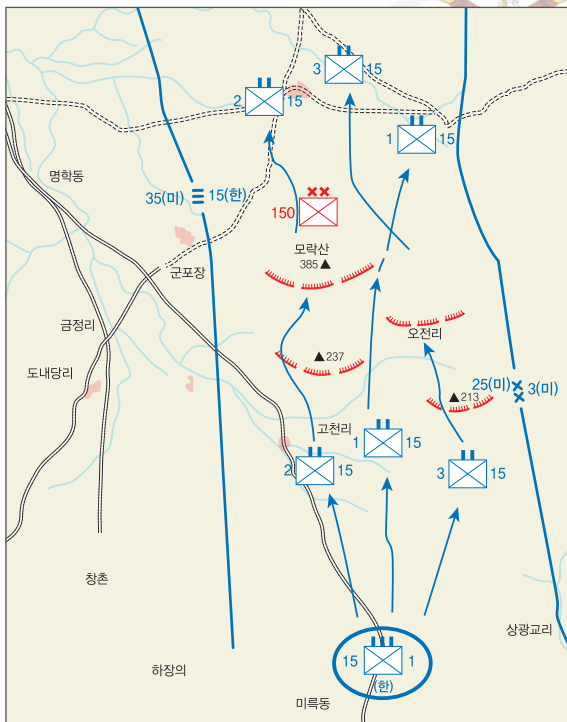
### 전개과정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모락산(△385)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 병렬해 있는 수리산과 함께 수원-서울 간 1번 국도를 통제할 수 있는 고지였으며, 관악산을 거쳐 한강으로 진출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모락산의 전술적 중요성 때문에 공산군 측에서는 모락산 정상을 중심으로 중공군 제50군 제148사단 예하의 1개 연대 병력을 투입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유엔군의 진출을 저지하려 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1개 대대 병력을 모락산 정상부근에 배치하고, 오전동 지역

의 237고지와 백운동 지역의 213고지 일대에 각각 1개 대대를 투입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공산군의 배치와 규모를 탐색할 목적으로 위력수색작전을 전개한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을 기해 수색정찰에서 지역확보로 작전개념을 전환하고 일제히 반격작전을 감행하였다. 특히 1월 31일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수원-여주를 연하는 선에 도달하자, 미 제8군사령부는 각 군단에서 1개 사단만을 전방에 운용하는 조심스러운 전투정찰 방침을 바꿔 각 군단의 주력을 전방에 투입하는 적극적인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후방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도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는 안성에서 군단예비로 주보급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모락산 전투에 투입되었다. 제15연대는 1월 31일 미군 전차의 지원 아래 제1대대와 제2대대가 공격부대로 모락산 점령을 위한 전투를 시작하였다.

공격 첫날인 1월 31일, 국군 제15연대는 미륵동(현 수원시 파장동) 일대에서 모락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대대가 미륵동 동북방에서 왕곡리 동쪽-백운사 일대로 진출한 후 213고지, 217고지, 220고지를 차례로 점령하고, 제2대대가 통산-곡정 일대에서 공격을 개시해 내곡을 지나 237고지를 점령하였다. 국군 제15연대의 첫날 공격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목표지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연대의 우측 인접부대인 미 제65연대의 전진속도가 늦어 국군 제15연대는 2월 1~2일 이틀간 진격을 멈추고 진지보강 작업에 주력하였다.

인접부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잠시 진격을 멈췄던 국군 제15연대는 2월 3일 모락산 점령을 위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날 좌측의 공격부대인 제2대대가 오전 7시 30분에 공격을 시작해 미 전차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오후 4시경에 모락산 정상에 점령하였다. 그러나 모락산과 연결된 200고지를 점령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공군의 역습으로 고지를 상실할 수 있었다. 200고지는 모락산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으로 모락산 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국군 제15연대의 모락산 전투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 200고지였다. 고지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제1대대는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격렬히 저항하는 1개 대대 규모의 중공군으로 인해 야간공격에도 번번이 고지점령에 실패하였다. 당시 중공군은 수리산-군포-광교산-문형리-천덕봉-이포리로 이어지는 제1선 진지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고 제2선 진지로 전환 중에 있었다. 200고지의 중공군은 수리산-군포-광교산 일대의 제1선 부대가 제2선으로 진지를 전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국군 제15연대 제1대대는 3일 밤부터 계속된 200고지 공격에서 밤새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2월 4일 오전 7시 15분경 대대 전 병력의 공격으로 200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5연대는 4일간 진행된 모락산 전투를 종료하고, 한강선 진출을 위한 다음 목표인 관악산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4일간의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는 중공군 663명을 사살하고 포로 90명을

획득했으며, 전사 70명, 부상 200여명의 피해를 입었다. 모락산 전투의 승리로 유엔군은 1번 국도와 47번 국도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안양을 거쳐 인천과 영등포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육군본부, 「관악산지구(수원-서울) 전투상보」 『한국전쟁사료』 (45), 19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⑧,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1996.

【박동찬 집필】

**관악산 전투**  
 [冠岳山 戰鬪, 1951, 2, 9.]

**개요**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가 1951년 2월 9일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한강선 진출을 위한 최후 교두보를 확보한 공격전투이다.

**전개과정**

경기도 과천시(당시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에 위치한 관악산(△629)은 유엔군의 한강선 진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으며, 면적이 8km<sup>2</sup>에 이르러 중공군이 이 지역을 고수할 경우 유엔군이 측면 또는 배후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유엔군의 위력수색작전으로 1951년 2월 3일을 전후해 중공군의 제1방어선이 무너지자 중·조연합사령부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던 중공군 제50군의 방어정면을 축소하고 중심방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2월 4일 북한군 제1군단이 중공군 제50군의 방어담당 지역 중 남태령-과천-군포로 이어지는 도로 서쪽의 14km 정면을 담당하게 되었다. 북한군 제1군단은 2월 5일 저녁에 교대를 완료했으나 2월 7일 주력을 한강 북안으로 철수시키고 일부 방어부대만을 한강 남안에 배치하라는 중·조연합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주력을 철수시키고 제47사단 예하의 4개 대대만을 안양과 과천 일대에 남겨놓았다. 이들 4개 대대는 유엔군의 북상을 지연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이때 중공군 제50군도 제450연대 및 제448연대 제1대대를 한강 남안에 배치하여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판단한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군단에 한강 진출의 마지막 관문인 관악산을 공격하도록 명령했고, 이에 제1군단은 모락산 전투에서 승리한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를 관악산 공격에 투입하였다.

국군 제15연대가 2월 9일 공격을 개시하자 북한군은 남쪽의 마지막 방어거점인 관악산을 고수하기 위해 고지 정상에 배치한 자동화기와 박격포 사격으로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이날따라 고지 정상 부근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여 지형식별은 물론 항공지원도 불가능하였다. 연대는 이러한 악조건 아래에서도 정면과 우회공격을 병행하여 이날 오전에 관악산 정상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대는 북한군을 추격하여 10일 오전에 노량진-영등포로 이어지는 한강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 결과 및 영향

관악산 전투는 서부전선에서 한강선 진출을 위한 최후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군 제15연대는 2월 10일 ‘1·4후퇴’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한강선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육군본부, 「관악산지구(수원-서울) 전투상보」, 『한국전쟁사료』 (45), 19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⑧,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박동찬 집필】

## 라운드업 작전

[Round-up 作戰, 1951. 2. 5. ~ 11.]

### 개요

미 제10군단이 1951년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국군 제3군단과 협조 아래 중동부전선의 전술적 요충지인 흥천을 점령해 공산군의 증원거점을 분쇄하고 동시에 후방침투에 실패한 후 퇴각 중이던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단을 추격 섬멸하기 위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라운드업 작전(Operation Round-up)이 전개된 지역은 강원도 흥천-횡성-원주에 이르는 지역으로 동쪽에는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이 산맥에서 남서쪽으로 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공산군은 서부전선에 중공군 2개 군(제38·제50군)과 북한군 1개 군단(제1군단)을 배치해 유엔군의 한강선 진출을 지연시키게 하고, 중공군 4개 군(제39·제40·제42·제66군)과 북한군 3개 군단(제2·제3·제5군단)을 흥천 일대와 그 동쪽 지역에 집결시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였다.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1월 중순부터 북한군의 제2전선 차단작전과 원주-횡성 일대에 대한 위력수색작전을 연이어 실시한 후 2월 1일 흥천 점령을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다. 흥천은 북동쪽의 인제, 북서쪽의 춘천, 남서쪽의 양평, 남동쪽의 횡성과 원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공산군의 증원거점이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은 전략 및 전술적 요충지인 흥천 지역을 신속히 양익(兩翼) 포위하여 탈환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중동부전선에서 적의 압력을 제거하고 서부전선의 썬더볼트 작전(Operation Thunderbolt)과 보조를 맞추어 한강 이남에서 흥천으로 연결되는 선을 확보해 서울 탈환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적의 증원거점을 분쇄하고 동시에 후방침투에 실패한 후 퇴각 중이던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단을 추격 섬멸하려는 것이었다. 셋째는 미 제10군단 우측의 국군 제3군단과 협조된 공격으로 흥천-풍암리 선으로 진출하여 차기공격에 유리한 발판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미 제10군단에서는 이 작전을 ‘몰이’, 즉 포위한다는 의미로 라운드업(Round-up) 작전이라고 명명하였다. Q-Q선(석항리-횡성-방림리)으로부터 R-R선(양평-흥천-풍암리)까지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라운드업 작전계획은 2월 1일 미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제8군사령관은 작전기간 중 국군 제3군단의 작전통제를 미 제10군단장이 맡도록 하였다.

흥천 점령을 위한 라운드업 작전은 2월 5일 개시되었다. 미 제10군단은 지평리-횡성에 미 제2사단을, 횡성 남동쪽 치악산 북쪽에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평창 남서쪽 주천리 일대에 미 제7사단을 각각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공격 제대로 좌측에 국군 제8사단을, 우측에 국군 제5사단을 투입하였다. 공격 제대인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은 각각 미 제2사단의 제21지원부대와 미 제7사단의 제7지원부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았다. 이들 미 지원부대는 1개 야포대대, 자동화기포대, 차량화보병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라운드업 작전은 썬더볼트 작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험준한 산악지형 때문에 서부와 중서부전선의 미 제1·제9군단처럼 철저한 수색작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공격부대인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은 작전 개시 후 약 3일 동안에는 예정대로 계획된 제한목표들과 통제선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 후 공산군의 주저항선에 부딪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특히 국군 제8사단은 2월 8일 우측 공격부대인 제21연대가 흥



천 진출의 관문인 5번 도로상의 삼마치고개와 오음산을 공격하면서부터 고지를 선점한 중공군 제66군 예하의 제198사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다. 2월 10일까지 제 21연대는 항공지원과 보병, 전차, 포병의 협조된 공격을 펼쳤으나 삼마치고개와 오음산의 적이 병력과 화력을 계속해서 증강함에 따라 목표탈취에 실패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 8사단의 우측에서 공격하던 국군 제5사단도 북한군 제5군단 예하 제6사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전진 속도가 예상외로 저조하였다. 미 제10군단의 공격은 점차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 제10군단장은 국군 제3군단의 예비인 국군 제3사단을 공격에 추가로 투입하였다.

홍천 점령을 목표로 한 라운드업 작전은 공격 개시 6일째인 2월 10일에 국군 제3사단이 추가로 투입되었지만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역으로 중공군의 대병력이 집중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후퇴만 하던 공산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하려는 기도라서 그들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2월 11일 중공군은 제4차 공세, 즉 ‘2월 공세’를 감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 제10군단의 라운드업 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7일간 진행된 미 제10군단의 라운드업 작전은 서부전선의 썬더볼트 작전과 보조를 맞춰 한강 남안에서 홍천으로 연결되는 선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개되었다. 작전개시 후 약 3일 동안에는 예정대로 계획된 목표들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공산군의 주저항선에 부딪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워졌다. 오히려 공산군은 미 제10군단의 우측과 국군 제3군단의 좌측 지역으로 강력한 반격을 시도해 왔다. 결국 공격제대는 공산군의 강력한 방어와 빈번한 역습으로 홍천을 장악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는 서부전선의 작전과는 정반대로 국군이 선봉을, 미군이 후속부대의 임무를 맡는 병력운용방식의 문제점과 협준한 산악지형으로 철저한 수색작전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공산군의 유인작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Hq. X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⑧,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전투사 : 황성전투』, 1995.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횡성 전투

[橫城 戰鬥, 1951. 2. 11. ~12.]

### 개요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 제8사단이 중공군의 제4차 공세(1951년 2월 11~18일)를 맞아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횡성 일대에서 중공군 4개 군(제39·제40·제42·제66군)의 공격을 받고 원주로 철수하면서 벌인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강원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횡성은 북쪽으로 홍천군, 서쪽으로 경기도 양평군, 남쪽으로 원주시와 영월군, 동쪽으로 평창군에 접해 있으며,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차령산맥이 지역 내 남서방향으로 가로질러 있어 완경사를 이루는 서쪽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횡성군의 중심지인 횡성읍은 북서쪽으로 섬강이, 남서쪽으로 전천이 흘러 도시를 감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도심지 서북쪽에 위치한 섬강의 횡성교는 홍천 방면에서 횡성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유일한 교량이었다. 지역 내의 도로는 춘천-홍천-원주-제천을 연결하는 5번 도로와 양평-둔방내리(둔내)-대관령을 연결하는 6번 도로가 횡성읍내를 관통하는 등 한반도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1951년 1월 중순 이후 유엔군으로부터 강력한 반격을 받은 공산군은 서부전선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중동부전선에 대한 집중 공격을 계획하였다. 공산군은 일부 부대로 서부전선에서 유엔군을 고착 견제하고 주력을 동부전선에 집결시켜 유엔군을 중심 깊이 유인한 다음 공세로 전환한다는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유엔군이 홍천 포위공격을 개시하자 2월 5~6일 부대 이동을 개시하였다.

제4차 공세를 준비하던 중공군의 펑더화이(彭德懷)와 각 군 사령관들은 2월 7~8일 이틀간 유엔군의 전선 가운데 가장 돌출된 지역인 지평리지구와 횡성지구 중 어느 곳을 먼저 공격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공산군은 전투력이 약한 횡성지구의 국군을 먼저 공격해 와해시킨 후 계속해서 지평리 지구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중공군 제4차 공세(2월 공세)의 최종 결정이었으며, 공격 일시는 2월 11일 오후 5시였다. 횡성지구 공격을 위한 중공군의 병력 집결은 2월 9~11일 사이에 완료되었다.

공산군이 제4공세를 준비하는 동안 중동부전선을 담당하던 미 제10군단은 1951년 2



월 5일부터 홍천을 탈환하기 위한 라운드업(Operation Round-up)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이 각각 주공과 조공부대로 투입된 라운드업 작전은 작전 개시 후 3일간 예정대로 계획된 제한목표들을 확보하면서 전개되었지만, 2월 8일을 전후해 공산군의 주저항선에 부딪치면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3사단까지 투입하고서도 2월 10일 현재 증안리(홍천 서남쪽 20km)-오음산(홍천 남쪽 10km)-포동리(홍천 서남쪽 25km)-하대리(포동리 동쪽 6km) 선까지만 진출할 수 있었다. 이때 국군 3개 사단은 30km가 넘는 전투정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강력한 적의 저항에 부딪쳤다.

중공군은 1951년 2월 11일 오후 5시를 기해 제4차 공세를 시작하였다. 중공군의 공격은 국군 제8사단에 집중되었다. 중공군 제42군 제124사단이 신속하게 금대리(횡성 서쪽 16km) 방면으로 공격해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중공군 제66군 제198사단이 국군 제21연대를, 중공군 제40군 제120사단이 국군 제10연대를, 중공군 제39군 제117사단이 국군 제16연대를 각각 공격하였다.

미 제10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예비대 없이 모든 연대를 전선에 투입한 국군 제8사단은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사력을 다했으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방어선

에서 밀리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2월 12일 새벽 1시경 사단은 지휘통신이 두절되고 전후방으로 침투한 중공군에 의해 고립되었다. 심지어 중공군의 선두부대가 황성까지 침투하여 사단지휘소를 기습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중공군에 의해 후방이 차단되자 국군 제8사단 장병들은 소부대로 분산되었다.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된 지 불과 17시간 만인 2월 12일 오전 10시경부터 황성은 철수하는 병력과 차량들로 큰 혼잡을 이루었다. 국군 제8사단장 최영희 준장은 이날 정오경에 지휘소를 주포리(원주 서남쪽 22km) 일대로 이동하고, 문막-원주와 원주-제천 간에 낙오자선을 설치하여 병력을 수습하였다.

국군 제8사단의 조기붕괴는 사단을 지원하던 미군 지원부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군 지원부대들은 전방사단의 붕괴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후방으로 침투한 중공군에게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미 지원부대들은 화포와 차량 등 많은 중장비를 버리고 산악능선을 따라 황성으로 철수하였다. 철수과정에서 미 제7사단 제38연대에 배속된 네덜란드대대는 대대장이 전사하는 위기상황에서도 12일 야간까지 황성교를 확보해 줌으로써 미 지원부대들의 철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 결과 및 영향



황성 전투 결과, 국군 제8사단은 잔여병력이 장교 263명과 사병 3,000여 명에 불과했고 이 중의 반 이상이 사단의 근무요원이었다. 전사하거나 실종된 인원은 장교 323명과 사병 7,142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여기에는 제10연대의 연대장과 모든 참모, 제16연대의 부연대장, 7명의 대대장과 30명의 중대장이 포함되었다. 또한 사단의 장비 손실은 포 14문, 대전차포 5문, 트럭 68대, 무전기 249대, 박격포 87문, 로켓포 137정, 기관총 164정, 자동화기 102정, 카빈소총 2,389정, 소총 4,096정이었다.

‘황성의 참사’로 불리는 이 전투 이후 국군 제8사단은 국군 제1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었으며, 황강리(주포리 동남쪽 26km)-제천을 거쳐 대구로 이동하여 재편성을 실시한 후 후방지역의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반면에 중공군은 황성 서쪽의 지평리와 남쪽의 원주로 진출하여 2월 공세를 계속하였으나 지평리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공세를 중단하였다.

### 참고문헌

- Hq. X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전투사 : 황성전투』, 1995.

【박동찬 집필】



## 평창 부근 전투

[平昌 附近 戰鬪, 1951. 2. 12. ~18.]

### 개요

국군 제3군단이 중공군의 제4차 공세 기간 중 1951년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강원도 횡성 동쪽 지역에서 중공군 제66군 제197사단과 북한군 제2·제5군단의 공격을 받고 평창-정선 선으로 철수하면서 벌인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강원도 횡성 동부지역과 평창군, 정선군을 포함하는 작전지역에는 태백산맥과 차령산맥이 위치하고 있어 계방산(△1577), 태기산(△1261), 청태산(△1,200), 황병산(△1407), 발왕산(△1458), 가리왕산(△1561) 등 높고 험한 산들이 연봉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 내에는 홍천-원주-제천을 연결하는 5번 도로, 장평리-평창-영월을 연결하는 31번 도로, 속사리-정선-영월을 연결하는 59번 도로가 남북으로 이어진 도로이고, 양평-둔방내리(둔내)-대관령을 연결하는 6번 도로, 횡성-평창-정선을 연결하는 42번 도로가 동서를 잇는 도로였다. 이들 도로와 연결되는 소로들이 계곡통로를 따라 산재해 있었으나 도로 대부분은 차량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소로였으며, 노면상태도 매우 불량하였다.

1951년 2월 8일 중·조연합사령부는 제4차 공세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중공군 4개 군(제39·제40·제42·제66군)과 북한군 2개 군단(제3·제5군단)을 전선에 전개시켰다. 이때 중공군은 횡성 방향의 국군 제8사단과 제3사단을 공격하기 위해 제66군을 삼현리 일대에, 제42군을 지평리 북쪽에 각각 추진 배치하고, 제39군과 제40군을 양덕원리 일대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북한군은 국군 제5사단을 공격하기 위해 제5군단이 횡성 북방 풍암리 일대에서 공격 준비를 갖추었으며, 제3군단이 양구-인제에서 제5군단의 뒤를 받치고 있었다.

1951년 2월 5일부터 중동부전선에서 라운드업 작전(Operation Round-up)을 전개 중이던 미 제10군단(국군 제3군단 작전통제)은 2월 8일을 전후해 공산군의 주저항선에 부딪치면서 작전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국군 제3군단 예하의 제3사단까지 투입했지만 전선 상황은 증안리(홍천 서남쪽 20km)-오음산(홍천 남쪽 10km)-포동리(홍천 서남쪽 25km)-하대리(포동리 동쪽 6km) 선에서 교착되었다. 전선 정면에 좌측으로부터 제8사단, 제3사단, 제5사단 순으로 배치된 국군 3개 사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강력한 적의 저항에 부딪혔다.

1951년 2월 11일 오후 5시에 시작된 중공군의 제4차 공세는 횡성 북방의 국군 제8사단에 집중되는 가운데, 12일부터 횡성 동쪽의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으로 확대되었다. 국군 제3사단은 12일 오전 9시경 중공군 제197사단을 향해 공격을 시도했으나 오후 1시경에 오히려 정면으로 진출한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1개 연대가 포위되면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3사단 우측의 국군 제5사단도 12일 아침에 군단 전투지경선 부근의 공격목표를 향해 북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북한군 제5군단의 반격과 중공군의 후방위협을 받게 되자 정오 무렵에 철수를 개시하였다.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은 북한군 제5군단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고 계획된 원주-평창 선보다 훨씬 남쪽으로 철수하여 제3사단이 성남리(원주 동남쪽 12km) 일대에, 제5사단이 주천리(성남리 동쪽 17km) 일대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강력한 적의 공격이 있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2월 14~15일 이틀간 이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탐색전만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2월 16일 아침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공격으로 주천리의 제5사단 제36연대의 방어선이 돌파당하면서 제3사단과 제5사단의 철수가 단행되었다. 이로 인해 국군 제3군단의 좌측에 약 30km의 공백지대가 만들어졌다. 이 지역으로 북한군이 공격할 것을 우려한 국군 제3군단은 즉시 횡성 동쪽의 창동리선에 배치된 국군 제7사단과 제9사단을 20~25km 남쪽으로 철수시켰다.

국군을 추격해 온 북한군은 평창을 점령한 다음 계속 남하하여 영월을 점령하려고 시도하였다. 당시 국군 제3군단은 좌측의 제7사단이 평창에서 영월로 남진하는 북한군 제2군단을 저지하는 데도 벅차서 국군 제5사단과의 11km에 달하는 공백지대를 메울 수가 없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장에게 미군 부대를 투입해 북한군을 격퇴하고 국군 제3군단과 연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7사단 제31연대가 이 지역에 투입되었다.

미 제7사단 제31연대가 투입되면서 국군 제1군단과 제3군단 사이의 측방노출이 해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군 제3군단은 2월 17~18일 양일간 계속된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을 도둔리(평창 서남쪽 5km)-정선 선에서 저지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북한군은 지금까지의 전투로 지친 상태에서 견고하게 형성된 국군의 방어선을 더 이상 공격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들이 점령했던 대부분의 지역은 국군의 역습으로 다시 유엔군의 수중에 들어왔으며, 18일 저녁 이후부터는 접적이 없었다.

#### 결과 및 영향

횡성 동쪽 평창 부근에서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은 중공군 2월 공세를 맞아 평창-

정선 선으로 철수해 새로운 저지진지를 형성하고 미군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 이 때 공산군 또한 공세의 한계점에 이르러 18일을 기해 전선은 소강상태에 이르렀으며 이로써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중공군의 2월 공세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의 피해가 상당히 컸지만, 한편으로 유엔군은 중동부전선에 투입된 공산군의 규모, 공격 및 침투전술 그리고 장차작전의 기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참고문헌

Hq. X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전투사 : 횡성전투』, 1995.

[박동찬 집필]

## 지평리 전투

[砥平里 戰鬥, 1951. 2. 13. ~16.]

### 개요

미 제2사단 예하의 제23연대전투단(프랑스대대 배속)이 중공군 제4차 공세를 맞아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원주 서북방 30km 지점의 지평리에서 중공군 제39·제42군 예하 4개 사단의 집중공격을 막아낸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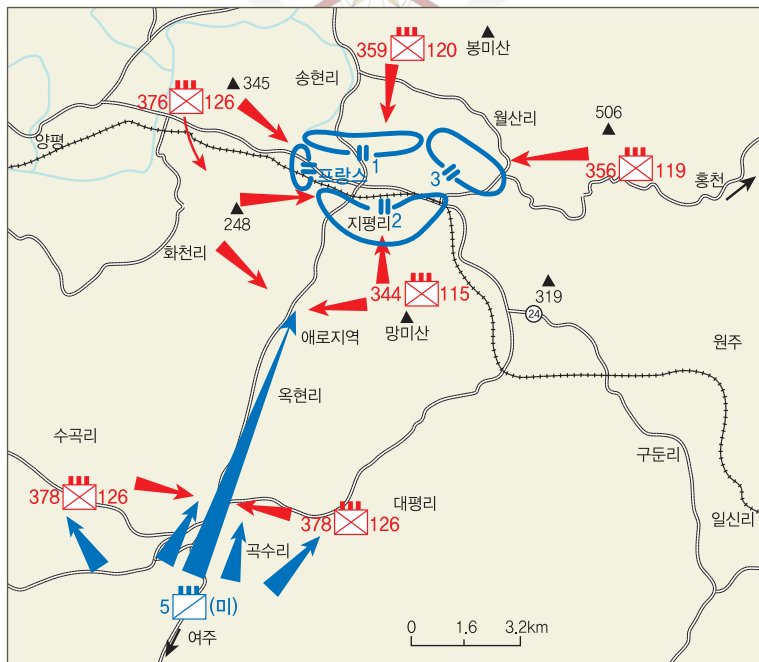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의 중심에 위치한 지평리는 도로 교차점이자 중앙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당시 이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지리적으로 사주방어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마을을 중심으로 직경 5km 주위에 망미산(△379), 248고지, 345고지, 207고지, 212고지 등이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 지점들을 연결하면 천혜의 원형진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

1951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 위력수색작전으로 유엔군이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한강선 남안까지 진출하자 중공군은 서부전선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중동부전선에 대한 집중 공격을 계획하였다.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와 주요 지휘관들은 2월 8일 전투력이 약한 횡성지구의 국군을 먼저 공격해 와해시킨 후 계속해서 지평리를 공격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2월 11일 오후 5시, 공산군은 횡성 방면에 대한

공격으로 제4차 공세(2월 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황성 방면에 주공부대를 투입하는 것과 더불어 지평리 일대에 미군 견제부대로 중공군 제39군 예하 제115·제116사단과 제42군 예하 제126사단 및 제125사단 제375연대를 배치하였다.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황성 방면의 국군과 유엔군이 원주-평창 선으로 밀리고 있을 때, 지평리 지역을 담당하던 미 제2사단 소속의 제23연대전투단(스랑스대대 배속)은 전선의 돌출부 지역인 지평리에 전면(全面)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지평리 사수를 결의하였다. 당시 유엔군 입장에서 볼 때 지평리는 인접지역의 전체 도로망을 통제하고 한강 선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던 곳이었으며, 또 미 제10군단의 좌측방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진지인 동시에 남한강 서쪽의 광주지역에 있던 중공군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은 미 제2사단 제23연대, 스타스대대, 제37야포대대, 제1특공중대, 제503야포대대 B포대, 제82대공자동화기 고사포대대 B포대, 제2공병대대 B중대로 편성된 미 제23연대전투단을 1951년 2월 3일부터 지평리에 배치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황성지구의 유엔군 방어선이 급속하게 무너지자,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는 12일 오전 8시에 지평리의 미군을 섬멸하라는 명령을 제39군에 하달





하였다. 중공군은 12일 저녁 곡수리(지평리 남쪽 6km)-지평리, 구둔리(지평리 동남쪽 5km)-지평리 간의 기동로를 각각 차단하고, 13일 아침부터 지평리를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다.

중공군이 지평리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에 미 제10군단은 한때 제23연대전투단을 지평리에서 철수시키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사령관이 군단장의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평리 사수가 최종 결정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지평리를 잃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서부전선의 썬더볼트 작전이 실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 전선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 제23연대장 프리만(Paul L. Freeman) 대령은 지평리 사수를 결심하고, 보유한 연대전투단의 전력을 고려하여 마을을 중심으로 직경 1.6km의 원형진지를 구축하였다. 연대는 예비 병력으로 연대에 1개 중대와 각 대대에 1개 소대씩만을 남기고 전 병력을 제1선에 투입하였다. 또한 전차중대를 일선 외곽에 배치하고 진지 주위에 지뢰를 설치하였으며 각 부대 간의 모든 간극을 자동화기의 화망으로 구성하였다.

중공군은 2월 13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은 미 제23연대전투단 방어진지의 사방에서 햇불을 들고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은 14일 아침까지 공격을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미 제23연대의 손실이 계속 커져갔다. 이날 오전에는 강풍과 중공군의 박격포 및 야포 사격으로 부상병의 헬리콥터 후송마저 어려웠으며, 기상악화로 유엔 공군의 항공지원도 불가능하였다. 그러던 중 오후 들어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오후 2시 30분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엔 공군 전폭기가 진지 남쪽 망미산 일대에 집결한 중공군을 공격하고 오후 3시경에는 일본에서 발진한 C-119S 수송기 24대가 3시간에 걸쳐 미 제23연대전투단 집결지에 보급품을 투하하였다. 이에 중공군은 간헐적인 박격포사격에만 의존하면서 주간 공격을 단념하고 야간 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중공군은 14일 저녁 8시 30분을 기해 K중대 방면을 시작으로 방어진지 전면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였다. 특히 중공군은 주공을 남쪽의 제2대대 G중대 정면으로 지향하였다. G중대는 백병전으로 맞서면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했지만, 중공군이 G중대와 스랑스 대대의 간극으로 공격해 오며 따라 15일 새벽 3시 15분경에 진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중심이 없는 협소한 원형진지의 일부가 적에게 탈취되었다는 것은 곧 전체 방어선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원형진지 일부가 무너지자 연대는 예비 병력인 2개 소대를 G중대에 증원했지만 진지 탈환에는 실패하였다. 결국 G중대는 연대 CP쪽으로 200m 가량 철수해 축차진지를 급

히 편성하였다. 이때 나머지 삼면에서는 격전을 벌이면서도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였다. 특히 서쪽에 위치한 스랑스대대는 인접한 제2대대의 진지 일부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였다.

지평리의 제23연대전투단이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장호원에서 전열을 정비 중이던 미 제9군단 소속의 제5기병연대가 군단장으로부터 지평리의 제23연대전투단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5기병연대는 14일 오후 5시에 남한강을 도하한 후 밤 11시 30분에 곡수리까지 진출하였다. 연대는 2월 15일 오전 7시를 기해 제23연대전투단과의 연결작전을 시작했지만, 곡수리 일대에 배치된 중공군의 공격으로 진출이 지연되었다. 이에 제5기병연대장 크롬베츠(Marcel G. Crombez) 대령은 곡수리에서 지평리까지 전차 종대로 적 포위망을 돌파하기로 결심하였다.

제5기병연대장은 2월 15일 오후 3시에 제6전차대대 D중대와 제70전차대대 2개 소대로 편성된 전차 23대에 제3대대 L중대원 160명을 탑승시켜 전차 종대를 편성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크롬베츠 특수임무부대였다. 유엔 공군이 곡수리 북쪽과 망미산 서쪽에 항공폭격을 실시하고 제5기병연대 제1·2대대가 곡수리 양쪽 능선의 적을 견제하는 가운데 크롬베츠 특수임무부대는 오후 3시 45분에 돌파작전을 개시하였다.

크롬베츠 특수임무부대는 적의 빗발치는 사격을 뚫고서 망미산에 근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차를 엄호하던 제3대대장과 L중대원 60여 명이 낙오되기도 했으며, 중공군의 육탄공격으로 L중대원 30~40명이 전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부대 선두는 6km에 이르는 적중을 돌파해 이날 오후 5시 15분경에 망미산을 공격 중이던 제23연대전투단 소속의 전차와 연결되었다. 망미산에 배치된 중공군은 제5기병연대의 증원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철수하였으며, 뒤이어 16일 새벽에는 중공군의 전면적인 퇴각이 정찰대에 의해 확인되었다.

### 결과 및 영향

지평리 전투에서 미 제23연대전투단이 중공군에 가한 손실은 총 4,946명으로 추산되었다. 반면에 제23연대전투단의 사상자 수는 전사 52명, 부상 259명, 실종 42명이었다. 4일간에 걸친 지평리 전투는 중공군의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처음으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싸워 진지를 고수하고 승리한 최초의 전투였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2월 공세에 실패하였으며, 유엔군은 중공군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작전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Hq. X Corps, 'Battle of Chipyeong-ni',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박동찬 집필】

## 태백산지구 게릴라 토벌작전

[太白山地區 Guerrilla 討伐作戰, 1951. 2. 13.~4. 8.]

### 개요

국군 제2사단과 제9사단이 1951년 2월 13일부터 4월 8일까지 중동부 산악지역으로 침투한 북한군 제2군단의 패잔병들로 구성된 게릴라들을 경상북도 안동과 강원도 정선 일대에서 토벌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태백산 지구의 게릴라들은 1950년 12월 말부터 중동부 산악지역으로 침투했던 북한군 제2군단 소속의 패잔병들로 구성되었다. 유엔군 후방지역에 제2전선을 형성할 목적으로 침투한 북한군 제2군단은 제10사단을 선두로 병력을 추진시켜 유엔군의 후방을 교란시키려 하였다. 단양-영주-안동을 거쳐 대구까지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북한군 제2군단은 남대리 전투(1951. 1. 14.~22.)와 영월 전투(1951. 1. 19.~22.), 그리고 유엔군의 라운드업 작전(1951. 2. 5.~11.) 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퇴로가 차단당하자 북으로 후퇴하지 못한 패잔병들을 중심으로 게릴라 부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기존에 유엔군 후방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남부군, 경북도당의 안동·영덕·영주·봉화군당 유격대 등과 합세하여 태백산을 비롯해 일월산, 속리산, 보현산, 동대산 등 산악지역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 게릴라들의 후방지역 활동이 증가하자 육군본부는 국군 제2사단과 제9사단을 각각 안동지구와 정선지구에 투입해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하게 하였다. 국군 제2사단은 중공군의 신정공세 때 피해를 입고 미 제10군단의 예비사단으로 전환되어 풍기에서 재정비를 하던 중 육군본부 직할로 배속이 전환되어 2월 13일 안동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9사단은 국군 제1군단 소속으로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정선-창리 전투를 수행한 후 2월 26일 국군 제3군단으로 배속이 전환되어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로 이동하였다.

1951년 2월 13일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의거해 안동지구로 이동한 국군 제2사단은 후방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제6·제7경비대대와 국민방위군 제3연대, 태백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 예하 경찰 2개 대대를 작전통제하여 영남 일대의 군 보급로 경비와 지역 내 게릴라 소탕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국군 제2사단은 제31연대와 국민방위군 제3연대에게 단양-영주-안동 간의 주보급로 경비를 책임지게 하고, 제17연대와 제32연대를 보현산 일대의 게릴라 소탕작전에 투입하였다. 제17연대와 제32연대는 보현산 서쪽의 개산동, 화수동, 용수동, 조락동, 조림산 일대에서 게릴라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으며, 제31연대가 청송 방면에서 북상 중인 게릴라들의 예상 기동로인 일월산 남서쪽의 장갈령을 차단하였다. 국군 제2사단의 추격과 차단작전으로 게릴라들은 큰 타격을 입고 삼삼오오 분산 퇴각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에서 제31연대장 박노규 대령과 제3대대장 이오열 중령이 일월산에서 전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국군 제2사단은 3월 10일 게릴라 소탕작전을 일단 종결하고 부대를 재배치하였다. 제31연대는 영주, 풍기, 단양 지역을, 제32연대는 신녕-의흥 간 도로경비를, 제17연대는 경주-울산, 경주-영천 간 도로경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1,700여 명으로 편성된 소위 '조선인민유격대' 제1·제3지대가 봉화군 소천면 일대로 남하하였다. 육군 본부는 이들을 선제공격하여 섬멸하기로 하고 국군 제2사단을 전담부대로 투입하였다. 제2사단은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17연대가 통고산 일대에서, 제32연대가 양구동 일대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해 적의 참모장과 중대장들을 사살하고 주력을 격멸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국군 제2사단은 3월 29일 제1단계 작전을 종료하고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제17연대를 주축으로 한 제2단계 작전을 전개해 통고산 북쪽 평전지구의 게릴라들을 소탕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2사단의 안동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은 종결되었으며, 이후 사단은 4월 22일까지 속리산지역 게릴라 소탕작전을 실시한 후 충북 제천으로 이동하였다.

국군 제2사단이 안동지구에서 게릴라 토벌작전을 전개하는 동안에 강원도 정선지구의 국군 제9사단도 1951년 2월 26일부터 게릴라 토벌작전에 돌입하였다. 사단은 3월 12일 약 2,000~3,000명의 게릴라가 평창동 일대에 은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제29연대와 제30연대를 송계리 남동쪽의 석이암산(△972)-백봉령(석이암산 북동쪽 10km) 사이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동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게릴라들을 차단해 섬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게릴라들은 기만전술과 양공작전으로 제9사단의 차단선을 뚫고 석병산과 산계리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국군 제9사단은 3월 16일 사단예비로 송현동에 집결 중이던 제28연대를 신속히 출동시켜 석병산-신계리 선 북방의 구하동-만덕봉(△1035)-금진리 선에 차단선을 형성하게 하고 동·서·남쪽의 3면에서 포위 공격을 가하였다. 이 공

격으로 게릴라들은 대부분 사살되었으며,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일부병력도 토벌부대의 적극적인 추격으로 소탕되었다. 제9사단의 전과는 게릴라 사살 2,188명, 생포 612명이었다.

### 결과 및 영향

중공군의 제4차 공세(2월 공세)가 시작된 다음날인 1951년 2월 13일부터 중동부전선에서 시작된 국군 제2사단과 제9사단의 게릴라 토벌작전은 4월 8일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작전을 계기로 1951년 1월부터 계속된 북한군 제2군단의 침투공격은 3개월 만에 많은 손실만을 남기고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 참고문헌

Hq. KMAC,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January-April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서울 : 육군본부, 1971).

【박동찬 집필】

## 킬러 작전

[Killer 作戰, 1951. 2. 21. ~ 3. 7.]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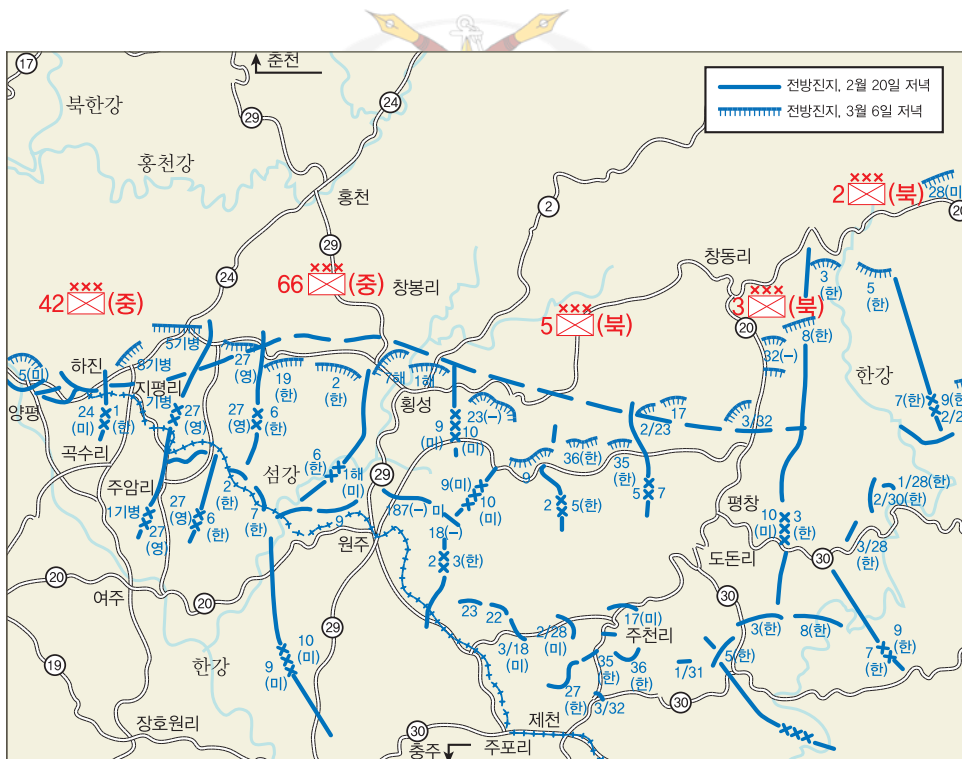
미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이 중공군의 제4차 공세(2월 공세)를 격퇴한 후 1951년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중동부전선의 공산군 주력을 섬멸하고, 아리조나선(양평-횡성-평창)까지 진출하기 위해 전개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킬러 작전(Operation Killer)이 전개된 지역은 강원도의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일대로 차령산맥 줄기인 치악산(△1288)과 배덕산(△1350) 등이 작전지역 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산들의 지류에 속하는 고지들이 종횡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다. 지역 내의 원주, 횡성, 안흥, 방림, 평창 등은 도로의 교차점으로 전술적 중요성이 컸으며, 이들 도시를 중심으로 연결도로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었다. 홍천-횡성-원주-제천을 연결하는 5번 도로와 장평-방림-평창-영월을 연결하는 31번 도로가 지역 내의 주요 남북도로였고, 원주-안흥-방림을 연결하는 42번 도로가 동서도로였

다. 그러나 작전기간 동안에 기상악화와 이상고온이 발생하여 하천의 유빙과 급류가 심했으며, 이로 인해 교량이 파손되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기동과 군수지원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지평리 전투에서 패한 후 중·조연합사령부는 1951년 2월 17일 전 전선에서 방어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각 예비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이 방어로 전환한 주된 이유는 참전부대를 교대하기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함이었다. 당시 중공군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대 병력인 제19병단(제63·제64·제65군)이 2월 16일부터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전선에 배치될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3월 중순경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조연합사령부는 우세한 장비와 기동력을 갖춘 유엔군이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얻는 지연작전’을 구상하고 전 부대를 방어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공산군은 한강 북안에서 38도선에 이르는 지역에 3개의 방어선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지연전을 펼치면서 시간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때 공산군은 8개 군단을 한강 하구-양평-중원산-횡성-봉화산-주봉-방림리-하진부리로 이어지는 정면 150여km, 중심 25~30km에 제1방어선을 편성하였다. 부대배치



는 서쪽으로부터 북한군 제1군단, 중공군 제50·제38·제42·제66군, 북한군 제5·제3·제2군단이었다. 각 군단은 이 지역에서 1개월 동안 방어할 계획이었다.

공산군이 방어로 전환하는 동안에 유엔군은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규모 공격작전을 준비하였다. 1월 25일 재반격작전으로 전환한 유엔군은 단계적인 공격작전을 전개하던 중 중공군의 제4차 공세(2월 공세)를 맞아 중동부전선에서 대규모 돌파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감을 되찾은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적에게 새로운 공격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내륙 깊숙이 침투한 적 주력을 포위 섬멸하려는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것은 중공군 개입 이후 두 번째 실시되는 유엔군의 반격작전으로, 미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이 주공부대로 참가하고 좌우측의 미 제1군단과 국군 제3군단이 엄호부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 작전은 적의 주력을 포위 섬멸하는데 목표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킬러 작전(Operation Killer, 격멸작전)’으로 명명되었으며, 미 제9군단이 원주-횡성 방향으로, 미 제10군단이 제천-평창 방향으로 각각 공격할 예정이었다.

유엔군의 킬러 작전은 1951년 2월 21일 오전 10시에 주공부대인 미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이 각각 양평-횡성 선과 횡성-방림리 선을 목표로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좌측 공격부대인 미 제9군단은 횡성 탈환을 목표로 4개 사단이 공격에 나섰다. 군단의 주공부대인 미 해병 제1사단이 중앙에서 횡성을 향해 공격하고, 나머지 3개 사단(미 제24사단,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6사단)이 해병사단의 좌우측에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군단은 공산군이 2월 공세에 실패한 이후 3일간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격멸하려면 조금이라도 진격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계속된 기상악화와 산사태로 인한 도로와 철도의 두절, 이상고온으로 인한 하천의 유빙과 급류 등으로 군단의 진격속도는 더뎠다. 게다가 2월 24일 전선을 시찰하던 군단장 무어(Bryan E. Moore) 중장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전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들 아래에서 미 제9군단은 임시군단장을 맡은 미 해병 제1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의 지휘 아래 3월 2일 총공세로 전환해 3월 4일 해병 제1사단이 횡성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미 제9군단 우측의 미 제10군단도 2월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군단 우측의 미 제7사단을 주공부대로 하여 영월-평창 간 도로를 따라 킬러 작전을 개시하였다. 군단의 작전 계획은 미 제7사단이 평창 북쪽 8km 지점의 방림리를 점령한 후 서쪽으로 42번 도로(원주-방림리)를 따라 공격하고, 중앙의 미 제2사단과 좌측의 국군 제3사단이 남쪽에서 42번 도로까지 북상하면서 작전지역 내의 공산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미 제10

군단의 공격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미 제7사단은 2월 말에 목표지점인 방림리를 점령하였으며, 국군 제3사단과 미 제2사단도 곳곳에서 저항하는 북한군을 격퇴하면서 2월 26일 원주-방림리 간의 기동로를 확보한 후 3월 7일까지 원주-방림리 도로 북쪽의 봉화산(△670)과 덕어산(△664) 등 주요 감제고지들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미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이 전개한 킬러 작전은 1951년 3월 7일 목표지점인 아리조나선(양평-횡성-평창)을 점령하고 완료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15일간 진행된 미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의 킬러 작전은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기 위하여 기동성이 우수한 미군 사단 위주로 전개된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으로 공격체대가 나란히 적을 추격해 올라가는 형태의 진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천후와 싸워 나가는 힘겨운 진군이었다. 그 결과 미 제9군단과 미 제10군단은 양평-횡성-평창을 잇는 공격 목표선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목표선 이남의 모든 적을 섬멸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 참고문헌

- Hq. IX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RG 407, NARA.  
 Hq. X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리퍼 작전

[Ripper 作戰, 1951. 3. 7.~25.]

### 개요

킬러 작전의 연장으로 미 제8군이 미 제9군단을 주공부대로 하여 1951년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서울 동쪽의 덕소-가평-춘천북방-한계리로 이어지는 아이다호(Idaho)선까지 진출해 전선을 양단하고 동쪽 방면에서 수도권 지역을 압박하기 위해 실시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리퍼 작전(Operation Ripper)이 전개된 곳은 경강국도와 그 북쪽으로 덕소-청평-가평-춘천북방-한계리로 이어지는 반(半)타원형의 지역으로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곳이었다. 지역 내에 춘천-홍천-횡성으로 이어지는 5번 도로를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도로가 발달되어 있어 기동에 유리했으며, 특히 주요 도로 교차점인 춘천과 홍천은 병력집결지인 동시에 보급기지로서의 전술적 가치가 매우 컸다. 돌출된 지역의 특성상 남쪽에서 공격하는 측이 이 지역을 확보할 경우 좌우측 전선을 일거에 복상시킬 수 있는 반면에 방어하는 측이 이 지역을 고수할 경우 공격자의 퇴로가 차단될 수도 있는 곳이었다.

1951년 2월 17일을 기해 방어로 전환한 공산군은 한강에서 38도선에 이르는 지역에 3개의 방어선을 설정하고 지연전을 펼치면서 전선부대 교체를 위한 시간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공산군은 한강하구-양평-중원산-횡성-봉화산-주봉-방림리-하진부리로 이어지는 약 150km의 방어정면과 25~30km의 방어중심을 갖는 제1방어선을 편성하고 1개월간 유엔군의 공격을 막아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개된 유엔군의 킬러 작전으로 공산군의 전투력은 급격히 약화된 상태였다.

이 무렵 유엔군은 킬러 작전을 통해 한강남안-횡성-강릉을 잇는 선까지 진출해 일직선으로 연결된 방어선을 확보하고 서울의 재탈환은 물론 38도선의 진출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이때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서울 재탈환을 서둘러 진행할 경우 희생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것은 전선의 중앙지역에 대규모 돌파구를 형성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을 분리시킨 후 서울을 남쪽과 동쪽에서 양익(兩翼) 포위해 탈환한다는 계획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이 작전을 ‘전선의 절단과 분리’라는 작전목적을 고려해 ‘리퍼 작전(Operation Ripper)’이라고 명명하였다.

리퍼 작전의 기본계획은 미 제9군단이 주공부대로 미 제10군단과 함께 중부전선에서 진격하고, 미 제1군단이 서울 서쪽과 한강 남안의 전선에서 적을 견제한 후 서울을 탈환하며, 국군 제1·제3군단이 동부전선에서 적 견제 및 후방 산악지대 잔적 소탕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공부대인 미 제9군단은 서울 동쪽의 덕소-가평-춘천북방-한계리로 이어지는 목표선(Idaho)까지 진출해 전선을 양단하고 적의 보급기지로 판단되는 홍천과 춘천을 점령해 수도권 동쪽에서 적을 압박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중공군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 제8군사령관은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주공부대인 미 제9군단의 진격에 중점을 두고 3개의 통제선(알바니선, 버팔



로선, 카이로선)을 설정하였다. 제1통제선은 미 제1·제9·제10군단 전방의 8~20km 북쪽에 위치한 양수리-양덕원리-노천리-태기산-속사리를 잇는 알바니(Albany)선이었으며, 제2통제선은 미금리-홍천북쪽-한계리를 잇는 버팔로(Buffalo)선으로, 이 선은 미 제1·제9군단 지역에만 설정되었다. 제2통제선으로 진출할 때 미 제9군단은 주공이 홍천을 목표로 진격하고, 미 제25사단이 버팔로선까지 진격해 서울 동쪽에 대한 포위망을 확대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제3통제선은 가평-춘천남쪽-한계리 북쪽을 잇는 카이로(Cairo)선으로, 미 제9군단지역에 국한되었다. 미 제9군단은 이 선을 점령한 후 최종 공격목표인 아이다호(Idaho)선까지 계속해서 북진할 계획이었다.

리퍼 작전은 1951년 3월 7일 오전 8시에 미 제9군단의 4개 사단(미 제24사단, 미 제1기병사단, 미 해병 제1사단, 국군 제6사단)이 용문산-홍천강-홍천으로 연결되는 선을 목표로 동시에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좌측의 미 제24사단(국군 제19연대 배속)이 용문산으로,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영연방 제27여단 배속)과 국군 제6사단(제19연대 결)이 홍천강 남쪽 산악지대로, 우측의 미 해병 제1사단이 홍천을 목표로 각각 공격을 개시하였다.

리퍼 작전의 주공부대인 미 제9군단이 공격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군단 우측에서는 미 제10군단이 풍암리-태기산-운두령을 목표로 공격하면서 주공의 우측방을 엄호하였고,

군단의 좌측에서는 미 제1군단이 주공의 좌측방을 엄호하면서 서울탈환작전을 준비하였다. 또한 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3군단이 산악지역인 운두령-황병산을 공격하였다. 이 무렵 동해안지역의 국군 제1군단은 이미 주문진의 연곡천을 따라 설정된 아이다호선에 진출한 상태였다.

미 제9군단은 경미하거나 통상적인 적의 저항을 물리치고 착실하게 전진하여 3월 13일 리퍼 작전의 제1단계 목표지점인 알바니선에 진출하고, 계속해서 이날 저녁에 제2통제선인 버팔로선을 향해 진격하였다. 미 제9군단은 적이 흥천 전방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적으로부터 경미한 저항만을 받고서 3월 15일까지 미 제24사단이 청평호에, 국군 제6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흥천강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동쪽에서 공격하던 미 해병 제1사단은 흥천 부근으로 진출하면서 줄곧 적의 소규모 부대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유엔군이 리퍼 작전을 개시하자 공산군은 3월 9일 제1방어선에 배치된 병력을 14일까지 고양-의정부-청평천-흥천강 북쪽-풍암리를 잇는 제2방어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결정하고, 각 예하부대에 이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9군단 정면의 중공군 제39군과 제40군은 소규모 부대만으로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가운데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청평천-가평-흥천강-흥천을 잇는 선과 그 이북 지역으로 철수해 중심 깊은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때 중공군 제39·제40군에 부여된 임무는 제2방어선에서 7~8일 동안 미 제9군단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미 제9군단은 3월 17일 예하의 전 사단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19일 야간에 제2통제선인 버팔로선을 확보하였다. 미 제9군단장 호지(William M. Hodge) 소장은 중공군이 다급하게 철수하는 양상을 보이자 19일 예하부대에 공격 기세를 유지하면서 마지막 통제선인 카이로선으로 진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때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9군단이 카이로선을 점령하면 대구에서 대기 중이던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22일 춘천 북쪽에 공중 투하해 제9군단과 연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수작전은 중공군의 조기 후퇴와 미 제9군단의 신속한 진격으로 취소되었다.

리퍼 작전의 최종 목표인 카이로선에 가장 먼저 도달한 것은 미 제1기병사단이었다. 미 제1기병사단은 3월 21일 카이로선을 확보한 후 이날 오후에 춘천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군단에서 진격이 가장 늦었던 미 해병 제1사단도 25일에 모든 공격제대가 카이로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미 제9군단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리퍼 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개된 리퍼 작전은 중부전선에 대규모 돌파구를 형성한다는 본래 목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마무리되었다. 미 제9군단이 리퍼 작전을 전개하는 동안에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도 3월 15일 수도 서울을 재탈환하는데 성공했으며,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도 홍천-양구 선을 확보하였다. 또한 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과 제1군단도 북한군을 격파하면서 순조롭게 진격해 3월 말에 이르러 38도선 북쪽의 양양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3월 말의 전선은 38도선에 근접하여 형성되었으며, 유엔군에게는 38도선을 다시 돌파할 것인가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와는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로 고도의 해법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 참고문헌

Hq. IX Corps, "Command Report", February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제2차 서울탈환작전

[第二次 서울奪還作戰, 1951. 3. 7.~16.]

## 개요

중서부전선에서 리퍼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1951년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강 도하작전을 전개한 후 수도 서울을 재탈환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제2차 서울탈환작전이라고도 불리는 서울 재탈환작전은 영등포 일대로부터 동쪽으로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이르는 한강 남안 지역과 서울 시가지로부터 동쪽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리에 이르는 한강 북안 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1951년 2월 17일을 기해 방어로 전환한 공산군은 한강에서 38도선에 이르는 지역에 3개의 방어선을 설정하고 지연전을 펼치면서 전선부대 교체를 위한 시간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서부전선의 공산군은 중·조연합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2월 18일까지 모든 부대를 한강 북쪽으로 철수시켰다. 이때 부대배치는 북한군 제1군단이 한강하구에서 서울 성

동구 독섬까지 32km를, 그 우측으로 중공군 제50군이 독섬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까지 17km를 담당하도록 편성되었다. 그리고 중공군 제50군의 우측에는 중공군 제38군이 팔당리에서 양평군 용문면 지역까지 31km에 이르는 지역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1951년 2월 초에 이미 한강 남안에 도달하여 도하작전을 준비하던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은 3월 7일에 시작되는 리퍼 작전에 맞춰 서울탈환작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군단이 약 1개월간 한강 남안에서 대기했던 것은 미 제8군사령관이 서부전선의 방어선을 한강 이남으로 제한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서울탈환’이 군사적으로 큰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에 부대를 배치할 경우 배후에 있는 한강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탈환작전은 중서부와 중동부전선 부대들의 복상에 따라 보조를 맞춰 진행하기로 계획되었다.

킬러 작전(1951. 2. 21.~3. 7.)으로 중동부전선의 유엔군이 양평-횡성-강릉을 잇는 선까지 진출해 일직선으로 연결된 방어선이 확보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리퍼 작전의 일환으로 서울을 재탈환하기로 결정하고 미 제1군단에게 한강도하와 서울탈환 임무를 부여하였다. 미 제1군단은 우측 공격부대인 미 제25사단(터키여단 배속)을 광주 남중면 분원리 일대에서 양수리와 팔당 부근으로 도하시켜 서울 동측을 위협하고, 이를 이용해 중앙 공격부대인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이 서울탈환작전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1군단의 서울탈환작전은 1951년 3월 7일 미 제25사단이 한강을 도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월 28일 광주 분원리 부근의 한강변에 진출한 후 6일간 도하공격을 준비해 온 미 제25사단은 이날(3월 7일) 오전 5시 50분에 96문의 야포와 15문의 전차포, 48문의 박격포가 동시에 불을 뿜는 20분간의 공격준비사격 후 미 제35연대의 선두공격 부대를 도하시켰다. 이때 10여 대의 전투폭격기가 근접항공지원과 차단임무를 맡았고,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이 김포와 서울 방면에서 양동작전을 전개하였다.

미 제35연대의 도하공격부대는 오전 7시 40분경에 도하를 완료하고 이날 정오경에 제1차 목표인 양수리의 고지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미 제25사단은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계획된 공격을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미 제25사단의 공격이 시작된 지 4일째인 3월 10일부터 중공군의 저항은 현저히 둔화되었다. 이는 3월 9일에 하달된 중·조연합사령관의 철수명령에 따라 10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공산군이 철수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서부전선에서도 10일부터 북한군 제1군단이 문산으로, 중공군 제50군단이 의정부 북쪽으로 각각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25사단은 어려움 없이 진격을 계속해 3월 15일 저녁에 서울-춘천 간 도로까지 진출하였다.

미 제25사단이 서울의 동쪽 측방을 확보하고 적이 서울을 포기하는 징후들이 나타나자 미 제1군단의 중앙 공격부대인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이 서울 탈환작전에 나섰다. 국군 제1사단은 3월 14일 5개의 정찰대를 강북으로 파견해 서울 시내를 정찰했으며, 미 제3사단 정찰대도 서울 동부지역의 매봉과 용마봉을 정찰하였다. 그러나 이들 정찰대는 서울에서 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서울에 공산군이 없음을 확인하고 3월 15일 미 제1군단장에게 서울 북쪽의 주요 고지군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였다. 미 제1군단장은 국군 제1사단이 1개 연대 규모로 북한산을, 미 제3사단이 1개 대대 규모와 2개 전차소대로 용마산을 각각 목표로 하여 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제15연대를 공격부대로 하여 3월 15일 서울 시내로 진출해 서울 전역을 장악했으며, 미 제3사단도 제65연대가 용마봉을 점령하였다. 이후 각 사단 정면에 가설된 교량을 이용하여 제1사단이 추가로 제11연대를 전방에 투입했으며, 미 제3사단도 1개 연대로 교두보선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3월 16일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은 서울 북쪽 외곽지역에 설정된 링컨선(한강-북한산-용마봉-미금리)까지 진출하였다. 이로써 미 제1군단의 서울탈환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9일간 진행된 서울탈환작전은 1950년 9월 말 서울수복작전 때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유엔군은 서울탈환의 심리적 효과보다는 공산군의 유생역량을 소멸하고, 무기와 장비를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작전을 전개하였다. 유엔군의 서울탈환작전은 중공군이 스스로 서울을 포기함으로써 ‘적의 유생역량 소멸과 무기·장비의 파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번 작전을 통해 수도 서울의 최종적 탈환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작전이었다. 반면에 공산군 측에서는 ‘서울 자진철수’ 결정을 두고서 북한과 중국 측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한동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Hq. EUSAK, "Command Report", March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온창일 외, 『6·25전쟁 60대전투』(서울: 황금알, 2010).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러기드 작전

[Rugged 作戰, 1951. 4. 3.~9.]

### 개요

미 제8군이 1951년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산군의 공격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고 38도선을 확보할 목적으로 임진강-전곡-연천-화천저수지-양양으로 연결되는 캔자스 선(Kansas Line)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러기드 작전이 전개된 지역은 문산-동두천-춘천-양양을 잇는 선의 북쪽에서부터 임진강-전곡-연천-화천저수지-양양을 잇는 선의 남쪽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서부 작전 지역은 예부터 전술적으로 중요시 되었던 군사상 요충지가 많은 지역이며, 지역 내의 임진강, 문산천, 곡릉천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다. 이 지역 일원은 교통망이 매우 발달되어 기계화부대를 운용하기에는 유리했지만, 주요 하천의 교량 일부가 파괴되어 부교를 통해 건널 수밖에 없었다. 중서부 작전지역은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주요 거점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적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서울-원산을 연결하는 3번 도로, 포천-의정부를 연결하는 43번 도로, 일동-서파-퇴계원-서울을 연결하는 47번 도로가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로 기계화부대 운용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중동부 작전지역은 춘천 일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화천-춘천-홍천을 연결하는 5번 도로와 양구-춘천으로 이어지는 46번 도로가 주요 기동로였다. 동해안 작전지역은 해안선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대부대 기동이 불리하였으며, 태백산맥 때문에 내륙과 단절된 별개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1951년 2월 제4차 공세(2월 공세)에 실패한 공산군은 한강에서 38도선에 이르는 지역에 3개의 방어선을 설정하고 지연전을 펼치면서 전선부대 교체를 위한 시간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유엔군의 공격작전(킬러 작전, 리퍼 작전)이 계속되자, 중·조연합사령부는 3월 14일 전 예하부대에 단계적으로 장연리-청석두리-백천리-누천리-삭녕-대광리-지포리-화천-양구-인제-양양을 잇는 제3방어선으로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선은 38도선에서 약 7~30km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특히 유엔군의 주공전선인 서부전선의 경우에는 38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20~30km에 이르렀다. 공산군은 4월 초까지 제3방어선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이때 전선부대와 교대를 위해 1951년 2월 중순에 입북(入





제24사단과 제25사단을 3번 도로(의정부-포천-김화)를 따라 북쪽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미 제1군단은 공격 개시 후 적이 산발적인 사격만을 가해올 뿐 저항이 경미하여 4월 6일 울우리-운산리-야미리-장암리를 연하는 캔자스선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미 제9군단도 좌측에 영연방 제27여단, 중앙에 국군 제6사단, 우측에 미 제1기병사단을 배치하여 4월 3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측의 영연방 제27여단과 중앙의 국군 제6사단은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6일 캔자스선에 도달했지만, 우측의 제1기병사단은 화천댐을 이용한 중공군의 수공작전으로 캔자스선 진출이 늦어져 9일 정오경에 가서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서부와 중서부전선과는 달리 중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작전지역 내 도로망이 제한되고 지형이 험준하여 미 제1군단·제9군단보다 진출이 다소 지연되었다. 군단은 4월 7일 부대배치를 조정하고 우측의 국군 제5사단을 주공부대로 하여 인제를, 좌측의 미 제2사단과 중앙의 미 제7사단을 조공부대로 하여 화천저수지 남쪽과 양구를 각각 공격하게 하였다.

미 제10군단의 주공부대인 국군 제5사단은 태기산 전투(3월 7일~14일)를 종료하고 부대정비와 위력수색에 주력하던 중 4월 7일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소양강 남쪽의 남전리(인제 남쪽 8km)-원대리(남전리 동쪽 5km)로 진출하여 인제 방면의 공격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단은 9일 제35연대를 선봉으로 하여 소양강을 도하한 후, 12일 제36연대가 인제-원통 도로를 따라 총공격을 개시해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서 인제와 그 서쪽 고지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군 제5사단은 개운리(인제 서남쪽 4km) 서쪽과 합강리(인제 북쪽 1km) 서쪽 고지군에 강력한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저항하는 북한군으로 인해 진격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에 국군 제5사단은 제36연대가 15일부터 야간공격까지 감행하면서 주·야간으로 북한군을 집중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사단은 마침내 공격개시 7일 만인 4월 17일에 캔자스선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국군 제5사단이 인제 부근에서 북한군과 격전을 벌이는 동안에 미 제10군단의 좌측 공격부대인 미 제2사단은 화천저수지로 진출하였으며, 중앙 공격부대인 미 제7사단도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북쪽으로 진출해 양구 점령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 무렵 동부전선의 국군 제3군단과 동해안지역의 국군 제1군단은 1951년 3월에 실시된 리퍼 작전(Operation Ripper)의 결과로 3월 말에 이미 한계리-양양 선을 확보하고서 차기 작전 준비와 북한군 견제 공격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 이와 같이 1951년 4월 9일에 이르러 유엔군은 러기드 작전의 목표인 임진강-전곡-연천-화천저수지-양구-양양으로 이어지는 캔자스선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 진행된 러기드 작전은 38도선을 기준으로 3.2~9.6km까지 북상한 캔자스선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서 종료되었다. 이것은 6개월 전 북한군의 공격을 분쇄하고 38도선 이북으로 진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전쟁 전 현상을 회복한 것이었다. 러기드 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은 중공군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전쟁 해결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Washington D.C., U.S. Joint Chiefs of Staff, 1978).

[박동찬 집필]

## 돈들리스 작전

[Dauntless 作戰, 1951. 4. 11. ~22.]

## 개요

서부와 중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1951년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산군의 병력과 장비 및 보급물자가 집중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철의 삼각지대(평강-철원-김화)를 확보하기 위해 전개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철의 삼각지대는 평강을 정점으로 하여 철원과 김화를 잇는 지리상의 삼각지대로 원산과 서울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데다 철도가 연결되고 도로망이 발달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중부전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 지역을 확보하지 않고는 중부전선을 장악하기가 어려웠다. 이 지역은 북쪽에서의 방어가 유리하고 남쪽에서의 공격이 불리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1951년 4월 3일 유엔군이 캔자스선 진출을 목표로 러기드 작전을 전개하자 4월 5일 중·조연합사령부는 38도선 일대에서 방어와 공격을 병행하면서 유엔군에게 타격을 가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12일에는 공산군의 최후 저지선으로 금천-위천리-삭녕-장거

리-문혜리-산양리 선을 확정해 예하 부대에 하달하였다. 당시 중·조연합사령부는 유엔군이 70여 일 동안 계속해서 공격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부대 손실과 피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유엔군은 캔자스선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지상과 항공 정찰, 포로심문 등을 통해 공산군의 공세징후가 전 전선에 걸쳐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공산군의 병력과 장비 및 보급물자가 집중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철의 삼각지대를 점령하여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고, 그 전방지역에 대규모 정찰대를 운용하여 공산군의 공세준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철의 삼각지대 공격에 앞서 미 제8군은 4월 9일 연천-고대산-와수리-대성산-화천저수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제선인 와이오밍선(Wyoming Line)을 설정하고 이 지역을 점령하기로 하였다. 이 선은 방어력이 취약한 중동부전선의 방어중심을 보강하고 공산군의 공격발판인 철의 삼각지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어선이었다. 미 제8군은 4월 11일부터 와이오밍선과 철의 삼각지대 공격을 개시하기로 하고, 이 작전을 ‘돈틀리스 작전(Operation Dauntless, 불굴의 작전)’이라고 명명하였다. 작전은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제1단계에서는 미 제1군단의 미 제3·제24·제25사단과 미 제9군단의 영연방 제27여단이 공격제대로 나서 캔자스선 북방의 임진강-금학산-광덕산-백운산으로 연결되는 유타선(Utah Line)을 점령하는 것이었으며, 제2단계에서는 제9군단의 국군 제6사단과 미 해병 제1사단을 추가로 투입해 와이오밍선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돈틀리스 작전은 4월 11일 계획대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그동안 전쟁지도 노선을 두고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유엔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를 해임하고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중장을 대장으로 승진시켜 그 후임으로 임명한 날이었다. 그리고 리지웨이 대장의 후임으로는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이 4월 14일부로 부임할 예정이었다.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8군사령부는 미국의 전쟁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이루어진 사령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타선 확보를 위한 작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무렵 전선에서는 그동안 접적을 단절하고 후퇴만 하던 중공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항공정찰에서도 중공군의 공세징후가 포착되었다. 이에 신임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은 서울을 고수한다는 방침 아래 공산군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강요하면서 단계적인 철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미 제1기병사단을 미 제8군 예비로 확보하여 언제든지 서울방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서울

외곽에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돈틀리스 작전의 공격제대들은 4월 20일을 전후하여 제1단계 목표인 유탄선을 점령하였다. 이때 미 제3사단이 연천을, 미 제25사단이 금학산을, 미 제24사단이 문혜리를 그리고 영연방 제27여단이 사창리를 각각 점령하였다. 신임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중장은 공격의 여세를 몰아 공산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철원과 김화를 위협할 수 있는 와이오밍선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와이오밍선을 목표로 한 제2단계 작전은 4월 21일 미 제1군단의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철원-김화를, 미 제9군단의 국군 제6사단과 미 해병 제1사단이 김화-화천을 목표로 각각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공격 첫날 미 제9군단의 2개 사단은 접적이 없어 캔자스선에서 북쪽으로 3.2~8km를 진출했지만, 미 제1군단의 좌측 공격부대인 미 제25사단(터키여단 배속)은 보개산에서 철원으로 공격하던 중 적의 포격으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공격 둘째 날인 4월 22일,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은 공산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특히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지역에서는 아군의 치열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적이 전방지역 중앙으로 집결하였고 또 임진강변에서는 적이 도하준비를 위한 정찰활동을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방지역에서는 생포되는 포로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포로들은 중공군이 야간에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것이 중공군 제5차 공세(4월 공세)의 서막이었다.

금천-위천리-삭녕-장거리-문혜리-산양리 선을 최후저지선으로 설정하고, 유엔군을 유인하는 작전으로 전환한 공산군은 4월 22일을 기해 이른바 '4월 공세'를 감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엔군은 돈틀리스 작전을 중단하고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개된 돈틀리스 작전에서 유엔군은, 제1단계 목표인 임진강-금학산-광덕산-백운산으로 연결되는 유탄선을 점령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계속된 와이오밍선 진격작전에서 다시 한번 중공군으로부터 대규모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 유엔군과 공산군은 상대방의 작전과 전술에 대해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유엔군이 병력보충을 못해 매우 피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캔자스선을 넘어 철의 삼각지대로 공격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유엔군 측은 중공군의 공세가 곧 있을 것을 예측하면서도 이를 충분히 격퇴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결국 양측의 작전구상은 4월 21~22일 유엔군의 공격과 중공군의 공세로 현실화되었으며, 양측은 다시 한번 대규모 공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Hq. EUSAK, "Command Report", April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1996.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설마리 전투

[雪馬里 戰鬪, 1951. 4. 22. ~25.]

### 개요

미 제3사단에 배속된 영국군 제29여단(벨기에대대 배속)이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중공군의 제5차 공세를 맞아 임진강변 설마리 일대에서 중공군 제63군(제187·제188·제189사단)의 집중공격에도 불구하고 3일간 이를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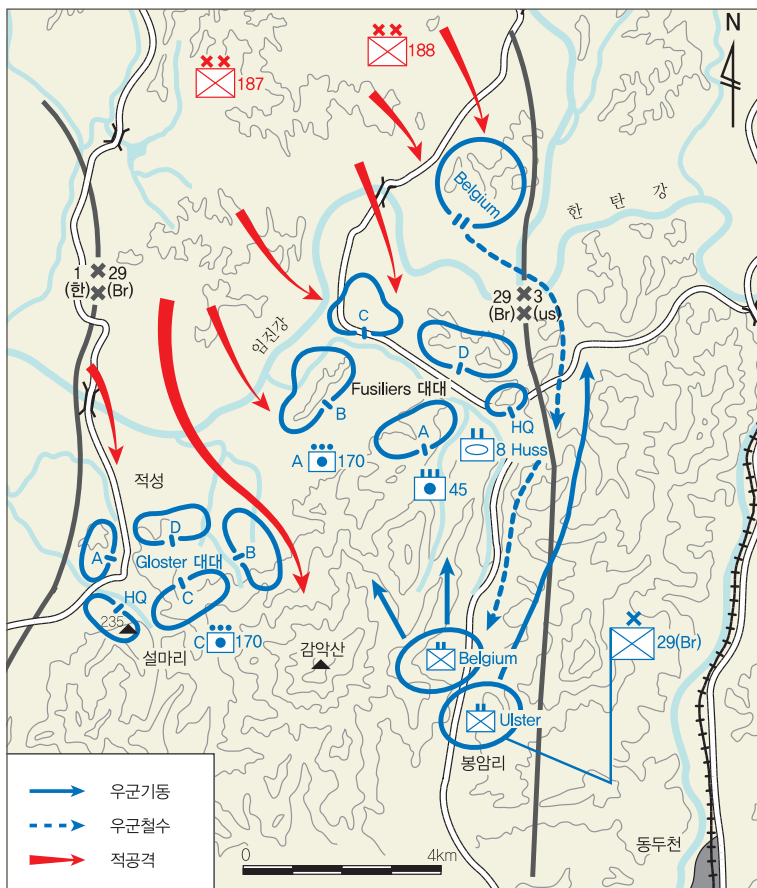
### 전개과정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설마리는 서부전선의 중앙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마을 전체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설마리 동쪽의 감악산(△674)과 서쪽의 파평산(△490)은 주변 일대를 감제할 수 있는 전술상으로 중요한 고지였으며, 적성에서 양주로 이어지는 적성로(371번 지방도)와 파평-전곡을 연결하는 37번 도로가 주요 기동로였다. 설마리 북쪽 약 5km 지점에 위치한 임진강은 강폭이 20~30m에 이르고 수심이 깊은 곳은 5~6m가 넘어 가여울 등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도하장비 없이는 도섭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도섭장을 통제할 수 있는 임진강 남안의 중성산(△148, 설마리 서북쪽 3km), 153고지(중성산 동북쪽 5km), 111고지(153고지 동북쪽 4km) 등을 확보할 경우 방어하는 측에 유리한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유엔군의 반격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공산군은 전황의 반전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공세작전을 준비하였다. 1951년 4월 10일 중·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제5차 공세 계획을 마오쩌둥(毛澤東)에게 보고하고, 4월 13일 이를 승인받았다. 중공군 지휘부가 계획한 제5차 공세의 목적은 유엔군 주력을 섬멸하여 유엔군의 작전기도를 분쇄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공군 제19병단(제63·제64·제65군)을 주공부대로 하고 중공군 제3병단(제12·제15·제60군)과 제9병단(제20·제26·제27·제39·제40군)을 조공부대로 하여 서부와 중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

단을 집중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중·조연합사령부는 각 참전부대에 4월 18일까지 공격위치로 이동하여 4월 20일까지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4월 19일 공격개시일을 22일 황혼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공산군이 제5차 공세를 준비하는 동안에 유엔군은 4월 11일부터 연천-고대산-와수리-대성산-화천저수지를 연결하는 와이오밍선(Wyoming Line)과 평강-철원-김화로 연결되는 철의 삼각지대를 목표로 돈틀리스 작전(Operation Dauntless)을 전개 중이었다. 2단계로 진행된 돈틀리스 작전은 4월 20일경 유엔군이 제1단계 목표인 유타선(Utah Line, 임진강-금학산-광덕산-백운산)을 점령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4월 21일 제2단계 작전에 돌입하면서부터 유엔군은 공산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진격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 지역에서는 아군



의 치열한 포격에도 불구하고 적이 전방지역 중앙으로 집결하였고 임진강변에서도 적이 도하준비를 위한 정찰활동을 증가하고 있었다. 전방지역에서 생포되는 포로들은 중공군이 22일 야간에 대규모 공세를 개시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중공군의 공세징후를 접한 미 제8군사령관은 22일 일몰 전 각 군단에 모든 공격을 중지하고 신속히 방어태세로 전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공산군은 4월 22일 해질 무렵 제5차 공세(4월 공세)를 개시하였다. 주공부대인 중공군 제19병단은 개성-문산 축선의 국군 제1사단과 영국군 제29여단을, 중공군 제3병단은 연천-전곡-동두천 축선의 미 제3사단과 터키여단을, 중공군 제9병단은 김화-포천-의정부 축선의 미 제25사단과 미 제24사단을 목표로 공격하였다. 그리고 중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 제3군단과 제5군단이 양구 남쪽의 미 제10군단과 인제 부근의 국군 제3군단을 공격하였다.

중공군 주공부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미 제1군단은 화력과 기동력을 이용하여 적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캔자스(Kansas), 델타(Delta), 골든(Golden) 선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철수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군 제29여단(벨기에대대 배속)이 설마리와 금굴산 일대에서, 국군 제1사단이 파평산 일대에서 중공군과 혈전을 펼치게 되었다.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시작될 무렵, 영국군 제29여단은 글로스터(Gloucester)연대 제1대대(이하 '글로스터대대')를 적성 부근에, 퓨질리어(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연대 제1대대(이하 '퓨질리어대대')를 감악산 북쪽에, 그리고 4월 4일부로 여단에 배속된 벨기에대대를 금굴산에 배치하여 임진강을 방어하고 있었다. 여단은 마지리-도감포간 11km의 광정면에 대대단위 거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대간은 물론 좌우 인접부대 간에도 공백지대가 형성되어 적의 침투나 돌파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영국군 제29여단 정면에서는 4월 22일 아침부터 임진강 주변에서 여단의 정찰대와 중공군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밤 10시경 중공군 제19병단 이하 제63군이 임진강을 도하하여 여단을 공격하였다. 중공군 제63군은 임진강 도하 후 감악산을 점령하여 영국군 제29여단과 미 제3사단 연결을 차단한 후 동두천 방면으로 진출하여 철원지역에서 철수하는 유엔군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영국군 제29여단의 좌측부대인 글로스터대대는 가여울 도섭장을 통제할 수 있는 중성산(△148)에서 조명탄 지원을 받아가며 중공군의 공격을 방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지는 중공군의 공격으로 전상자와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 무렵 중앙과 우측에 배치된 퓨질리어대대와 벨기에대대도 진내로 침투하는 적과 격전을 펼쳤다.

영국군 제29여단의 글로스터대대는 3면에서 공격하는 중공군에 결사적으로 맞섰지만

수적 열세로 4월 23일 오전 11시에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A중대와 D중대가 설마리의 235고지(일명 ‘설마리 고지’)로, B중대가 그 동쪽의 316고지로 각각 철수하였다. 글로스터대대가 설마리 일대에서 방어진지를 고수하는 가운데 4월 23일 온종일 고전을 면치 못하던 퓨질리어대대가 송산리로 철수하여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벨기에대대도 동두천을 거쳐 감악산 남쪽 화산리로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작전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감악산이 중공군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24일 새벽에는 글로스터대대가 중공군 제63군에 포위당하는 위급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여단에서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글로스터대대를 구출하기 위해 전차로 증강된 필리핀대대를 투입했으나 선두전차가 적 포탄에 맞아 도로가 차단되어 연결작전에 실패했으며, 오후에 다시 한번 구출작전을 실시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였다. 그동안 글로스터대대는 여단 구출작전을 기대하고 설마리 고지에 사주방어진지를 구축한 채 수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4월 24일, 고립무원의 상황에 버티던 글로스터대대는 일몰 직전에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부대원 전원이 고지 정상에 집결하였다. 최후 결전을 각오한 글로스터대대는 이날 밤에도 수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처절한 사투를 벌여가며 백병전으로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에 중공군 제63군은 이 지역 돌파가 지연되고 공격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25일 새벽에 예비사단을 투입해 총공세작전을 펼쳤다.

미 제1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중장은 4월 25일 오전 5시에 전 부대의 텔타선(성동리-덕정-포천-가평) 철수 명령을 하달하면서도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에게는 적중 포위된 글로스터대대를 구출할 때까지 현 진지를 고수하라는 별도 명령을 하달하였다. 특히 군단장은 미 제3사단장에게 사단이 역습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철수 이전에 반드시 글로스터대대를 구출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군단장의 명령이 하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공군이 미 제3사단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곡-동두천 축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 제3사단은 글로스터대대 구출작전을 준비 중이던 미 제65연대와 필리핀대대를 전곡-동두천 축선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영국군 제29여단 주력도 감악산으로 진출한 중공군에게 포위될 위기에 처하였다.

영국군 제29여단장은 여단 주력을 여단본부가 위치한 봉암리로 철수시키고, 글로스터대대장에게는 증원부대 투입이 불가함을 통보하면서 대대가 적중을 돌파하여 철수하든지, 아니면 중공군에게 투항하든지 양자택일의 결정 권한을 위임하였다. 글로스터대대장은 남쪽의 계곡만 통과하면 좌측 인접부대인 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남서쪽으로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글로스터대대는 4월 25일 오전 10시경 A중대를 선두로 B·C중대가 남쪽으로 하산



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대장을 비롯하여 군목과 군의관, 의무요원 등이 50여 명의 부상자와 함께 고지에 잔류할 것을 자원했으며, 주력의 철수엄호를 담당한 D중대는 주력과 정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철수하였다. 이후 남쪽으로 철수한 대대 주력과 235 고지에 잔류한 부대원들은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거나 사살되었고, 대대 철수를 엄호한 후 북쪽으로 철수한 D중대원 39명만이 국군 제1사단 지역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 결과 및 영향

설마리 전투에서 글로스터대대는 850여 명의 대대원 중 장교 21명과 사병 509명이 포로가 되는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글로스터대대의 희생은 적성-동두천을 따라 유엔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중공군을 3일간이나 지연시켜 미 제1군단 주력의 안전한 철수와 함께 서울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결과 글로스터대대의 설마리 전투는 6·25전쟁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된 고립방어의 대표적인 전례로 전사(戰史)에 기록되고 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전투』, 1991.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금굴산 전투

[金窟山 戰鬪, 1951. 4. 22. ~23.]

### 개요

영국군 제29여단에 배속된 벨기에대대가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중공군의 제5차 공세를 맞아 임진강 북방 금굴산(△196)에서 중공군 제188사단의 공격을 2일간 방어한 후 포위망 돌파작전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철수한 방어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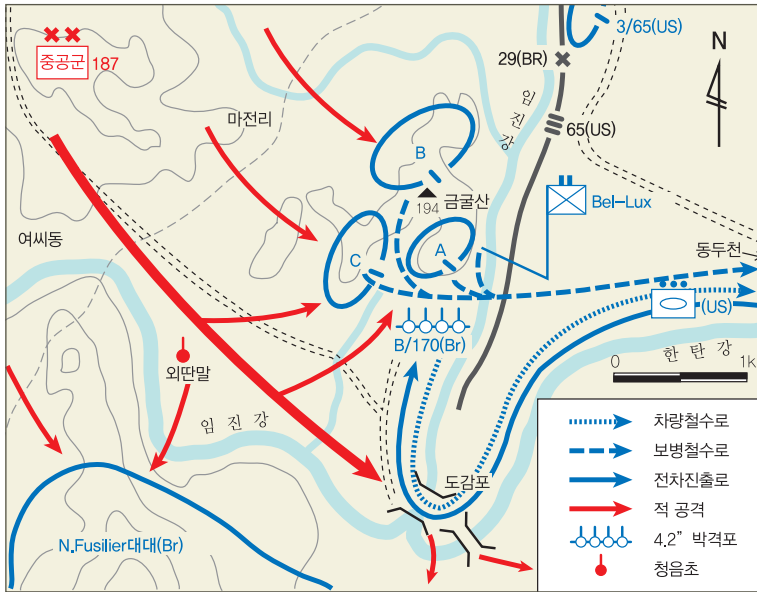
### 전개과정

금굴산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에 위치하며, 동쪽과 남쪽이 임진강으로 둘러싸인 임진강 북쪽의 돌출고지이다. 표고 196m의 이 산은 주변 일대에서 가장 높은 감제

고지로 임진강 남안지역과 전곡-백학을 연결하는 322번 도로를 감제관측 할 수 있는 전술적 요충지였다. 그러나 남쪽에서 금굴산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임진강과 한탄강에 설치된 교량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곳이 차단될 경우 군수지원은 물론 적의 공격에 고립될 위험도 안고 있었다.

1951년 4월 13일 마오쩌둥(毛澤東)으로부터 제5차 공세를 최종 승인받은 중·조연합사령부는 중공군 제19병단(제63·제64·제65군)을 주공부대로 하고 중공군 제3병단(제12·제15·제60군)과 제9병단(제20·제26·제27·제39·제40군)을 조공부대로 하여 서부와 중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을 집중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중·조연합사령부는 참전부대에 4월 20일까지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하도록 지시하고 4월 19일 공격개시일을 22일 황혼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때 임진강을 도하하여 감악산을 점령한 후 동두천으로 진출해 유엔군의 퇴로 차단 임무를 부여받은 중공군 제63군이 벨기에대대가 소속된 영국군 제29여단 정면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산군이 제5차 공세를 준비하는 동안에 유엔군은 와이오밍선(Wyoming Line)과 철의 삼각지대를 목표로 '돈틀리스 작전(Operation Dauntless)'을 전개 중이었다. 4월 20일경 돈틀리스 작전의 제1단계 목표인 유타선(Utah Line, 임진강-금굴산-광덕산-백운산)을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성공적인 작전으로 마무리될 것이 기대됐지만, 4월 21일 제2단계 작전에 돌입하면서부터 유엔군은 공산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 시작하였



다. 벨기에대대가 소속된 영국군 제29여단 정면에서도 적의 압력이 점차 강화되어 갔다.

영국군 제29여단에 배속된 벨기에대대는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임박한 4월 19일 얼스터(Royal Ulster Rifles) 연대 제1대대의 임진강 북쪽 금굴산 지역을 인수하여 여단의 전초부대가 되었다. 금굴산 진지에 투입된 벨기에대대는 C중대를 금굴산 서남쪽 능선에, B중대를 북쪽 능선에, 그리고 A중대를 전방 중대의 약 1km 후방인 금굴산 남동쪽 능선에 각각 배치하여 사주방어 진지를 편성하였다.

중공군의 금굴산 공격은 4월 22일 자정 무렵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벨기에대대는 수차에 걸친 중공군의 파상공격에도 불구하고 금굴산 진지를 사수하였다. 그러나 4월 23일 새벽에 금굴산 서쪽으로 우회한 중공군 일부가 철수로 상의 요충지인 임진강 남쪽 257고지를 점령하여 임진강에 부설된 두 개의 부교에 의존하고 있던 벨기에대대는 퇴로가 차단되어 적중에 고립되었다. 벨기에대대는 우측의 미 제3사단으로부터 전차 1개 소대를 지원받아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대의 방어정면은 점차 축소되었다.

영국군 제29여단은 적중에 고립된 벨기에대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4월 23일 오전에 전차로 증강된 퓨질리어(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연대 제1대대를 투입한데 이어 오후 2시에 미 제3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미 제7연대 제1대대를 257고지 탈환작전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벨기에대대 구출작전은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모두 실패하였다. 이날 오후 3시경부터 중공군의 공격이 더욱 거세져 벨기에대대의 방어정면은 점점 더 축소되어 갔다. 벨기에대대장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강력돌파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철수준비를 서둘렀다.

4월 23일 오후 5시경, 벨기에대대는 우측의 미 제3사단으로부터 접적단절에 필요한 항공지원이 개시되면 전곡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80대로 구성된 차량제대를 편성하여 전차의 엄호 아래 적중 돌파를 시도하게 하고 나머지 보병들에게 임진강 도하 후 남쪽 강변의 단애(斷崖)지역을 통과하여 철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잠시 후 유엔군 폭격기들이 금굴산 전방과 257고지에 네이팜탄 공격을 가하면서 생긴 연기로 적의 시계가 불량해진 틈을 이용해 벨기에대대는 먼저 차량제대를 출발시킨 후 보병들이 임진강을 도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공군도 벨기에대대의 철수를 극력 저지하기 위하여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였으나 대대의 강력돌파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벨기에대대 장병들은 공병이 절벽을 폭파하고 통로를 개척하더라도 1주일 이상 소요되는 15m에 달하는 임진강 남안의 단애지역을 필사적으로 기어올라 오후 6시 30분경 우측의 미 제65연대 제3대대 지역으로 철수하는데 성공하였다. 철수과정에서 벨기에대대는 인명피해 없이 적의 포격에 차량 4대만의 손실을 입었을 뿐이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된 금굴산 전투에서 벨기에대대는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와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중공군의 4월 공세를 저지하는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공군 차단선을 강력히 돌파하는데 성공하여 유엔군의 귀감이 되었다. 금굴산 전투 이후 4월 23일 저녁 8시 30분 전곡에 무사히 집결한 벨기에대대는 전선의 긴박한 상황으로 휴식 없이 곧바로 여단본부가 위치한 봉암리에 배치되어 차후작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유엔군』, 201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전투』, 1991.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파평산 전투

[坡平山 戰鬪, 1951. 4. 22. ~25.]

## 개요

미 제1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1사단이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중공군의 제5차 공세를 맞아 임진강 남쪽의 파평산(△496) 일대에서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4군의 공격을 3일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파평산 전투가 전개된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에서 적성면 마지리에 이르는 임진강 남안(南岸) 일대이다. 임진강은 강폭이 300~1000m에 이르고, 수량이 풍부하며, 남·북쪽 강변을 따라 단애(斷崖)가 형성되어 있어 여울이나 나루터를 제외한 지점에서의 도섭이 불가능한 천연장애물이었다. 임진강 철교와 적성리 북쪽의 가여울은 지역 내의 주요 도섭지점이었지만, 당시 임진강 철교는 파괴된 상태였다. 이외에 석포·고랑포·자지포 등이 나룻배를 이용해 건널 수 있는 주요 나루터였다. 임진강에서 문산으로 연결되는 1번 국도와 문산에서 적성리로 연결되는 37번 도로를 비롯해 이들 도로와 연결되는 소로들이 산재해 있어 지역 내 교통망은 비교적 발달된 편이었다. 임진강을 향하여 횡격실로 형성된 파평산은 고지 북쪽 일대의 넓은 개활지와 도로망을 감제할 수 있는 전술적 요충지였다.



각 배치하고 있었다.

국군 제1사단 지역에서 중공군의 4월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1년 4월 23일 새벽 2시 30분경이었다. 이때 중공군 제64군 제192사단의 선발대가 자지포 일대에서 피리와 나팔을 불며 임진강을 도하하였다. 이에 앞서 22일 저녁부터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 북쪽으로 파견한 정찰대들이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철수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중공군의 도하공격이 시작되자, 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의 장애물 효과를 최대한 이용해 적의 도하를 저지하고, 적의 예상 도하지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주력했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 일부 병력의 도하를 허용하고 말았다. 이에 더하여 우측의 영국군 제29여단 지역으로 도하한 중공군이 사단의 우측방을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4월 23일 날이 밝으면서부터 국군 제1사단은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포병의 화력지원 아래 중공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사단은 이날 항공폭격과 보·전·포 공격으로 중공군 3,000여 명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그로 인해 중공군의 공격 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으며, 이 사이에 사단은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해 방어진지를 보강할 수 있었다.

중공군은 국군 제1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게 되자 고랑포에서 도하한 제192사단을 파평산 정면에 투입하고, 새로 투입된 제190사단을 국군 제11연대와 제12연대의 전투지경선인 두포리-마산리-법원리 축선으로 진출시켜 전선을 분할하였다. 이로써 파평산의 제12연대가 고립되어 사단에서는 전방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봉일천 남쪽의 죽원리 일대에 대기 중인 제15연대를 법원리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전방연대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중공군의 파상공격에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이 돌파되어 방어정면이 파평산 정상 부근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공군 제190사단 제568연대는 24일 새벽에 국군 제11연대와 제12연대의 전투지경선을 돌파해 4km를 진출하기도 하였지만 사단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행히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았다.

4월 24일, 국군 제1사단은 유엔 공군의 항공지원과 포병의 화력지원 아래 사단 예비인 제15연대가 보·전 협동공격으로 돌파구 내의 적을 격파하여 사단의 방어진역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중공군의 집요한 공격으로 제12연대가 사단방어의 요충지인 파평산 일대를 빼앗겨 사단의 주저항선 일부에 돌파구가 형성되었다. 다음날(25일) 날이 밝자, 사단은 주간 역습으로 파평산 일대 주저항선을 회복하려 했으나 적은 북한군 제1군단을 추가 투입해 완강히 저항하였다.

4월 25일 오전에 실시된 역습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갈 무렵인 이날 정오경에 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군단장으로부터 철수명령을 하달 받았다. 이에 국군 제1사단은 3일간의 공방전을 종료하고, 금촌과 문산 사이의 월릉산-부곡리-삼방리로 이어지는 델타선(Delta Line)으로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된 파평산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공산군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3일간 방어진지를 사수하여 미 제1군단 주력의 철수를 효과적으로 엄호하고, 중공군의 공세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 후일 중공군은 “전역우회 임무를 맡은 제64군이 장파리와 고사동 일대를 점령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파평산 북쪽에서 국군 제1사단으로부터 저지를 받아 적의 주진지를 신속히 돌파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여 그들의 공세가 국군 제1사단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큰 차질을 빚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강전투』, 1991.
- 보병 제1사단 『전진약사』 (서울 : 육군인쇄공창, 1966).



【박동찬 집필】

## 장승천 전투

[長承川 戰鬪, 1951. 4. 22.~23.]

### 개요

미 제25사단에 배속된 터키여단이 중공군의 제5차 공세를 맞아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연천군 신서면의 장승천 전방에서 중공군 제12군 예하 제34·제35사단과 제60군 예하 제181사단의 공격을 이틀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장승천 전투가 전개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와 내산리 일대로 연천에서 동북방 5~7km에 위치한 곳이었다. 100~500m의 구릉지로 형성된 이 지역에는 연천에서 철원으로 연결되는 3번 국도와 경원선 철도가 지나고 도신리에서 내산리로 연결되는 376번 도로가 있어 교통망이 비교적 발달된 곳이었다. 서쪽의 신촌에서부터 옹고

개-306고지-350고지-348고지-425고지로 연결되는 거의 일직선상의 고지군은 3번 국도와 376번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요충지였다. 지역 내에는 아미천의 지류인 장승천이 있으나 폭이 좁고 수심이 얇아 장애물로서의 활용성은 낮았다.

1951년 4월 13일 마오쩌둥(毛澤東)으로부터 제5차 공세를 최종 승인받은 중·조연합 사령부는 참전부대에 4월 20일까지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하도록 지시하고 4월 19일에 공격개시일을 22일 황혼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때 터키여단이 배치된 연천지역으로는 중공군 제3병단(제12·제15·제60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전선부대와 교대를 위해 1951년 3월 18~28일 한반도에 들어와 4월 6~10일 삭녕-철원 지역에 전개한 중공군 제3병단은 4월 21일 4월 공세의 공격대기선에 집결을 완료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연천 지구의 미 제3사단 주력과 터키여단을 섬멸한 후 동두천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이 중 중공군 제12군 제34·제35사단과 제60군 제181사단이 터키여단을 공격할 예정이었다.

중공군 제3병단이 연천 북방에서 4월 공세를 준비하는 동안에 미 제1군단 예하 미 제25사단에 배속된 터키여단은 포천에서 신탄리 방면으로 공격작전을 전개 중이었다. 수리산 전투(1951. 1. 31.~2. 6.) 이후 경기도 광주-양수리-퇴계원을 거쳐 3월 말에 포천까지 진출한 터키여단은 4월 5일 한탄강 남안(전곡 5km 동쪽 궁평리 부근)의 미 제27연대 진지를 인수하였다. 이때부터 터키여단은 미 제25사단의 좌측 공격부대로 고대산(△832, 신탄리역 동남쪽 2.7km) 서남쪽 2.1km 지점의 부봉(△638)을 목표로 공격하던 중 4월 21일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터키여단은 장승천 북방의 신촌에서부터 옛고개-306고지-350고지-348고지-425고지로 연결되는 고지군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중공군은 4월 22일 저녁에 4월 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날 초저녁부터 계속된 포격은 저녁 7시 15분경에 급격히 증가되어 40분간 터키여단의 전 지역에 집중되었다. 특히 중공군의 포격은 여단 예비인 도리동의 제3대대와 부흥동의 포병진지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저녁 8시를 전후하여 중공군 제60군 제181사단이 터키여단과 그 우측의 미 제24사단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아군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공격했으며, 중공군 제12군 예하의 제34사단과 제35사단이 터키여단 정면을 공격하였다.

터키여단은 수적인 열세는 물론 진지도 미처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력을 다해 중공군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여단 좌측 필리핀대대와의 전투지경선으로 남하한 중공군 제35사단의 1개 연대가 여단의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여단 우측에서 공격한 중공군 제181사단의 1개 연대가 후방 예비대 지역까지 침투하면서 터키여단의 위기가 점차 고조되었다. 터키여단 장병들은 피리와 나팔을 불며 진내로 돌입하는 중공군과 뒤엉켜 백



병전까지 펼쳤으나, 도중에 포병지원이 중단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터키여단의 상황을 파악한 미 제25사단장은 자정 무렵 터키여단장 대리인 도라 대령에게 한탄강 남쪽의 캔자스선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우측방을 돌파한 중공군 일부가 철수로 상의 요충지인 다라미고개(425고지 남쪽 5km)를 방어하던 제1중대 경계소대를 공격하여 여단의 철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때 도라 대령으로부터 사수명령을 받은 도리동의 제3대대가 큰 동요 없이 여단 주력의 엄호를 철수하였다. 4월 23일 새벽 1시 25분에 시작된 철수는 한탄강 남쪽을 향해 포병대대, 전방대대 순으로 실시되어 1시간 만에 완료되었다. 그러나 퇴로가 차단되어 중공군에게 포위된 425고지의 제9중대는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중대장을 포함해 중대원 상당수가 부상을 입거나 포로가 되었다. 특히 철수로 상의 요충지인 다라미고개 정상에 배치된 제1중대 경계소대는 본대의 철수를 끝까지 엄호하면서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받아 소대원 전원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개된 장승천 전투에서 터키여단은 전사 66명, 부상 35명, 실종 105명의 인명손실을 입으면서도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지연시켜 인접부대들이 안전하게 추차진지로 철수하여 차후 반격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의 사상자 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최소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승천 전투 이후 터키여단은 퇴계원 일대로 이동하여 서울방어작전을 수행하였다.

## 참고문헌

Hq. 25th Division, "Command Report", April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81.

[박동찬 집필]

## 율동 전투

[栗洞 戦闘, 1951. 4. 22. ~23.]

## 개요

미 제3사단 제65연대에 배속된 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이 중공군의 제5차 공세를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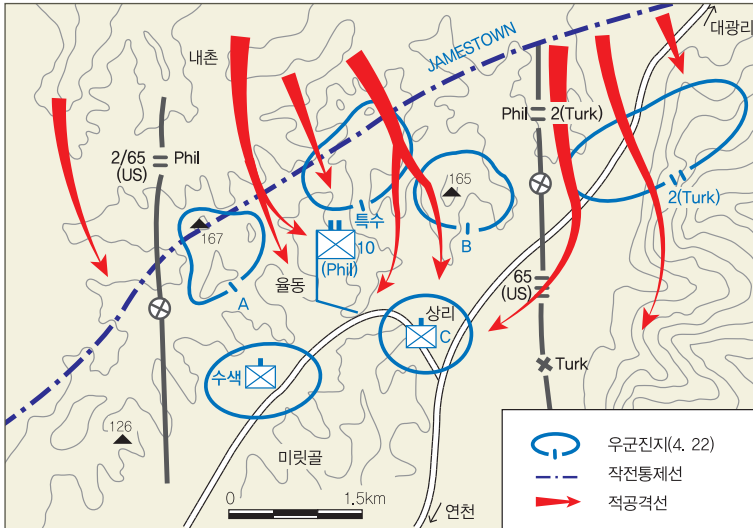
아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연천 북방의 울동에서 중공군 제12군 예하 제34사단과 제15군 예하 제44사단의 공격을 이틀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울동 전투가 전개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리 일대로 연천역에서 북쪽으로 약 4km 지점에 위치한 곳이었다. 100~200m의 구릉지로 형성된 이 지역은 연천에서 철원으로 연결되는 3번 국도와 경원선 철도가 마을 동쪽을 지나고, 상리에서 옥계리로 연결되는 78번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교통망이 비교적 발달된 곳이었다. 78번 도로 북쪽 약 1~1.5km에 위치한 167고지(경원선 철도 신망리역 서북쪽 2.5km)-165고지(167고지 동쪽 2km)는 북쪽의 적거리, 마거리, 도량리 방면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소로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요충지였다.

1951년 4월 13일 마오쩌둥(毛澤東)으로부터 제5차 공세를 최종 승인받은 중·조연합사령부는 참전부대에 4월 20일까지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하도록 지시하고 4월 19일 공격개시일을 22일 황혼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때 필리핀대대가 배치된 연천읍 상리 울동지역으로는 중공군 제3병단(제12·제15·제60군) 예하 제12군 제34사단과 제15군 제44사단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중공군 제34사단은 주력이 필리핀대대 우측의 터키여단을 공격하고, 일부 병력이 필리핀대대를 정면에서 공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중공군 제44사단은 공격명령이 하달되면 삭녕(연천역 서북쪽 19km)에서 감수봉(삭녕 동북쪽 6km)-유현(감수봉 남쪽 8km)-상삼관리(유현 동남쪽 6km)-금곡리(연천역 북쪽 9km) 방면으로 우회해 서남쪽에서 미 제3사단 제65연대와 필리핀대대의 후방을 공격한 후 연천으로 진격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중공군이 4월 공세를 준비하는 동안에 미 제3사단 제65연대에 배속된 필리핀대대는 1951년 4월 11일부터 시작된 돈틀리스 작전(Operation Dauntless)에 참가하여 선곡리(연천역 서쪽 4.5km)까지 진출한 후 4월 17일 연대 예비가 되어 전곡에 집결하였다. 전곡에서 휴식과 부대재편성을 실시하던 필리핀대대는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시작되기 전날인 4월 21일 밤 미 제65연대 제1대대의 울동진지를 인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날(22일) 오전에 상리의 167고지 서쪽에서부터 165고지 동쪽까지 5.5km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인수하였다. 대대장 오예다(Dionisio S. Ojeda) 중령은 방어선 정면의 서쪽 167고지에 A중대, 중앙에 특수중대, 동쪽 165고지에 B중대를 각각 배치하고 예비로 수색중대와 C중대를 미라동(167고지 남쪽 2km)과 상리초등학교 부근(165고지 남쪽 1km)에 위치시켰다. 필리핀대대의 좌측에서는 미 제65연대 제2대대가, 우측에서는 터키여단



제2대대가 방어 중이었다.

필리핀대대가 위치한 연천 북방에서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시작된 것은 4월 22일 저녁이었다. 이날 저녁 8시를 전후하여 중공군 제60군 제181사단과 중공군 제12군 제34·제35사단이 터키여단을 공격하면서 연천 북방에서의 중공군 4월 공세는 시작되었다. 중공군의 공격은 이날 저녁 11시경 필리핀대대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자정 무렵에 우측의 B중대와 중앙의 특수중대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서 필리핀대대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이에 더하여 4월 23일 새벽 1시경에는 중공군 제15군 제44사단 소속의 일부 병력이 필리핀대대 전방진지로부터 약 2km 남쪽에 위치한 옥녀봉, 탑거리, 미라동 일대까지 침투하였다. 이로 인해 필리핀대대는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하였다.

퇴로 차단 위기에서도 필리핀대대는 4월 23일 새벽까지 전후방에서 공격하는 중공군을 맞아 사력을 다해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B중대 지역과 특수중대의 일부 진지가 중공군에게 피탈되었다. 필리핀대대는 날이 밝자 즉시 예비인 C중대로 역습에 나섰다. 이때 미 제3사단 부사단장이 필리핀대대지휘소를 방문하여 오전 9시까지 캔자스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고 아울러 부사단장은 필리핀대대의 진지사수로 터키여단과 미군부대들이 무사히 철수하였다고 치하하였다.

사단의 철수명령에 따라 필리핀대대는 역습을 중단하고 철수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통신두절로 철수명령을 받지 못한 특수중대는 지난밤 중공군에게 빼앗긴 진지를 회복하기 위해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오 무렵 특수중대와 통신이 연결된 대대장은 즉

각 철수할 것을 지시했으나 특수중대장 압(Yap) 대위는 전우들의 시체라도 수습한 후에 철수하겠다고 보고한 후 역습을 실시하였다. 특수중대는 빼앗긴 고지로 진출해 여러 구의 전우 시체를 수습하고 철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대장 압 대위가 적의 기관총사격으로 전사하였다. 전사자를 수습한 필리핀대대 특수중대는 미라동 일대를 선점한 중공군 제44사단의 포위망을 뚫고 일몰 무렵에 대대 주력과 합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개된 울동 전투에서 필리핀대대는 중공군 2명을 생포하고 500여 명을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전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대대의 피해는 전사 12명, 부상 38명, 실종 6명이었다. 이 전투에서 필리핀대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이틀간 저지하여 우인접 부대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 울동 전투에서 보여준 필리핀대대 장병들의 책임감과 용맹성은 유엔군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 참고문헌

Hq, 3th Division, "Command Report", April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UN군』, 20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 1981.



【박동찬 집필】

## 사창리 전투

[史倉里 戰鬪, 1951. 4. 22. ~24.]

### 개요

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의 제5차 공세를 맞아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경기도 가평 북방의 사창리와 화악산 일대에서 중공군 제20군과 제40군 제120사단의 공격을 받고 3일간에 걸쳐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사창리 전투가 전개된 지역은 중서부를 가로지르는 광주산맥이 서남방으로 뻗어 있어 해발 1,000m 내외의 산들과 험준한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악전과 기습전을 주로 하



먼저 공격의 포문을 열고자 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미 해병 제1사단에 비해 전투력이 약하고 자신들의 장점인 산악기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국군 제6사단 지역을 집중 공격하기로 하였다. 중공군 제40군 제120사단이 국군 제6사단 정면에 배치된 가운데 중공군 제20군(제58·제59·제60사단)이 대성산(△1174)을 중심으로 한 화천과 김화지역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군 제6사단은 1951년 1월 오산-삼척선에서 반격을 개시한 이래 미 제9군단에 배속되어 충북 진천에서부터 장호원-여주-원주-가평을 차례로 점령한 후 4월 6일 캔자스선을 확보하였다. 이때 국군 제6사단이 점령한 캔자스선은 사창리 남쪽 8~9km 지점으로 석룡산(△1092)-화악산(△1468)-772고지(화천 지암리 부근)를 연결하는 산악지대였다. 사단은 이곳에서 군단의 계획에 따라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전열을 재정비하던 중 와이오밍선(Wyoming Line) 점령을 위한 유엔군의 돈틀리스 작전(Operation Dauntless)이 시작되자 4월 21일부터 석룡산-화악산에서 육단리와 북주산(△1057)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4월 22일 사단 전방에 적이 대규모로 집결 중이라는 항공관측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국군 제6사단은 오후 4시경 공격을 중지하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좌전방 제19연대가 방화동(사창리 서북쪽 10km) 일대에, 우전방 제2연대가 백적산(사창리 동북쪽 9km) 일대에 각각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사단예비인 제7연대가 제2연대 후방의 두류산(△993, 사창리 서북쪽 4km) 부근에 위치하였으며, 사단에 배속된 제27포병대대와 뉴질랜드 포병대대, 미 제2박격포대대 C중대가 사창리 부근에 배치되었다.

중공군은 4월 22일 오후 5시경 방화동과 실내리(사창리 북쪽 8km) 일대를 집중 포격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 제20군 제60사단과 제40군 제120사단이 국군 제6사단의 정면공격과 동시에 부대 간 간격을 뚫고 침투하여 상해봉과 두류산으로 진출하였다.

국군 제6사단장은 제19·제2연대장에게 현 진지를 고수하도록 강력히 명령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파상공격을 계속했으며 정면공격과 우회침투를 병행하여 국군 제6사단 전방연대들을 포위하였다. 전세가 점차 불리해지고 연대지휘소마저 적의 사정권에 놓이게 되자 제19연대와 제2연대 장병들 사이에서는 지난 1950년 10월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겪은 수많은 피해의 공포심이 되살아났다. 이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중공군에게 포위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무질서한 철수로 이어졌다.

후방으로 진출한 중공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고 통신마저 두절된 상황에서 국군 제6사단은 일시에 통제 불능상태에 빠졌다. 이때 좌전방 제19연대는 적중예 고립되었고 우전방 제2연대와 예비인 제7연대는 차량과 장비를 유기하고 일부는 좌우 인접부대로, 일

부는 중공군 포위망을 돌파하여 후방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전선을 돌파한 중공군은 계속해서 제7연대 후방의 국군 제27포병대대와 미 제2박격포대대 C중대를 공격하였다. 공격을 받은 부대원들은 유일한 철수로인 사창리-춘천 간 도로를 따라 신포리로 철수하였다. 사단이 주방어선에서 철수하자 사단을 화력지원하던 미 포병부대들도 동쪽의 북한강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창리 일대는 보병과 포병부대들이 뒤섞이면서 큰 혼잡이 발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받은 미 포병부대들이 다수의 화기를 유기한 채 철수하면서 철수로의 혼잡은 더욱 심해졌다.

4월 23일, 날이 밝아 중공군의 공격이 둔화되자 미 제9군단장 호지(William M. Hoge) 소장은 국군 제6사단에 신속히 부대를 재편성하여 캔자스선 방어진지를 점령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이날 오후 제19연대를 국망봉-석룡산 간에, 제2연대를 화악산-매봉 일대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러나 어둠이 깔리자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중공군이 공격을 재개하였다. 사단은 방어진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중공군의 파상공격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국군 제6사단은 작전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가평 방향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전개된 사창리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4월 25일 오후 6시경 가평에 집결한 병력이 총 6,320여 명이었다. 이는 개전 초 1만 3,000여 명과 비교했을 때 약 50%의 병력 손실을 의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소총 2,263정, 자동화기 168정, 2.36인치 로켓포 66문 등 다수의 손실을 입었으며, 사단을 화력지원 하던 미 포병부대도 105mm 곡사포 15문을 비롯하여 4.2인치 박격포 13문과 무전기 242대를 잃었다. 4월 초만 해도 험준한 산악지형을 뚫고 복주산까지 확보하여 용맹을 떨쳤던 국군 제6사단은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패하여 불명예의 치욕을 안게 되었다. 또한 이 전투로 당시 한국정부가 추진한 국군 10개 사단 증편계획이 지연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 참고문헌

- Hq. IX Corps, "Command Report", April 1951, RG 407, NARA.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⑧, 201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 육군군사연구소, 『1129일간의 전쟁 6·25』 (계룡 : 육군본부, 2014).

【박동찬 집필】



## 가평 전투

[加平 戰鬪, 1951. 4. 23. ~25.]

### 개요

영연방 제27여단이 중공군의 5차 공세를 맞아 1951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천 일대에서 중공군 제40군 제118사단의 공격을 3일 동안 저지하여 국군 제6사단의 철수를 엄호하고 서울-춘천 간 보급로를 확보하는데 기여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가평 전투가 전개된 지역은 태백산맥과 그 지맥인 광주산맥 등의 영향으로 1,000m 이상의 고지들이 종횡으로 연결된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가평은 중부전선에서 동부전선으로 이어지는 보급로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춘천, 서쪽으로는 청평, 북쪽으로는 화천, 남쪽으로는 양평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컸다. 지역 내 대표적인 하천으로 북면 적목리에서 발원하여 가평읍내에서 북한강과 합류하는 가평천은 하폭이 50~100m, 수심이 1~2m인 상류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피아의 도섭이 가능하였다. 지역 내 도로는 굴곡과 함께 노면상태가 불량한 산악도로여서 차량통행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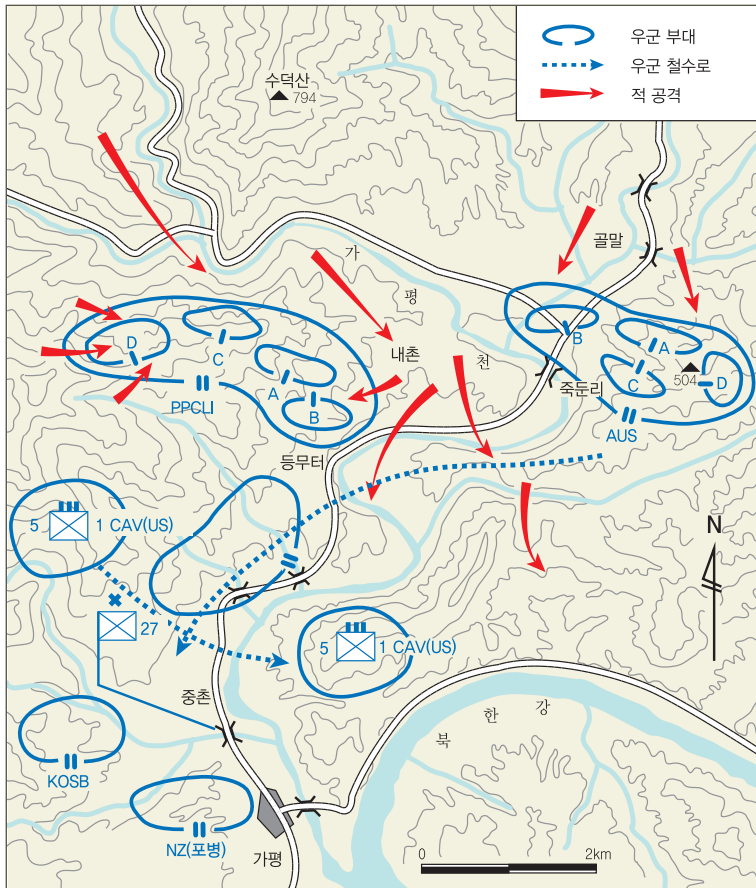
1951년 4월 22일 4월 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은 유엔군의 동서 간 증원을 차단하고 서쪽의 주공부대인 중공군 제19병단(제63·제64·제65군)을 동측방에서 엄호하기 위해 화천-가평 축선으로 제9병단(제20·제26·제27·제39·제40군)을 신속히 진출시켰다. 이때 중공군은 미 해병 제1사단에 비해 전력이 약하고 자신들의 장점인 산악기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국군 제6사단 지역을 집중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국군 제6사단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중공군 제9병단 예하의 제40군이 사창리에서 가평으로 철수하는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하였다. 중공군 제40군은 동쪽의 춘천 방향으로 제120사단을 투입해 국군 제6사단과 미 해병 제1사단을 분리시키고 사창리-화악산-가평을 잇는 산악도로로 제118사단을 투입해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하게 하였다. 4월 23일 중공군 제118사단은 화악산의 소운현을 넘어 목동리(가평읍 북동쪽 7km) 방면으로 급속히 남하 중이었다.

국군 제6사단이 사창리 축선에서 철수하게 되자, 미 제9군단장 호지(William M. Hoge) 중장은 4월 23일 저녁 군단예비로 있던 영연방 제27여단을 가평천 계곡에 배치하여 춘천-가평 간 도로 방향으로 진출중인 중공군을 차단하게 하였다. 영연방 제27여단 버크(B. A. Burke) 준장은 캐나다대대를 내춘 부근의 677고지에, 호주대대를 죽둔리의



504고지 일대에 배치하여 북동쪽에서 계곡으로 접근하는 중공군을 저지하게 하였다. 이때 여단을 증원하기 위해 배속된 미 제72전차대대 1개 소대가 계곡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죽둔리에, 제2박격포대대가 504고지 후방에, 제74공병대대가 가평 북쪽에 각각 배치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창리 부근에서 국군 제6사단을 지원하고 철수한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와 영국군 미들섹스(Middlesex)연대 제1대대가 가평 북쪽 가평천변에 배치되어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1951년 4월 23일 저녁 10시경, 국군 제6사단을 추격한 중공군 제118사단의 선두부대가 호주대대의 배치 상황을 모른 채 신속히 가평을 점령할 목적으로 중대대형으로 도로와 계곡을 따라 내려왔다. 이때 가평천 우전방 504고지에 배치된 호주대대는 지원포병과 전차를 집중 운영하여 중공군을 격퇴시켰다. 중공군은 4월 24일 새벽 1시경, 504고



지 전방에 배치되었던 미 전차소대가 재보급을 위해 후방으로 철수하자 또다시 포위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호주대대는 포위된 상황에서도 일부 진지가 피탈되면 즉시 역습으로 회복하면서 새벽까지 504고지 일대의 방어진지를 고수하였다. 날이 밝으면서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과 포병의 화력지원이 집중되자 중공군은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영연방 제27여단장 버크 준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공군 철수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호주대대를 미들섹스연대 제1대대 후방으로 철수시켰다. 이는 504고지의 호주대대 진지와 후방의 영국군 미들섹스연대 제1대대 지역이 적의 사격권 내에 들어있어 부상자 후송과 재보급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가평천 서쪽 667고지의 캐나다대대는 4월 24일 밤 10시경부터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뉴질랜드 제16포병대대가 가평천을 도하하는 적에게 집중포격하고 캐나다대대가 전 화력을 집중하자 적의 공격은 현저히 둔화되었고 자정 무렵에는 중공군의 공격이 중지되었다. 이후 재정비를 완료한 중공군이 4월 25일 새벽 2시경 캐나다대대를 재공격하였으나 대대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

중공군은 4월 23~24일 양일 동안 비교적 기동이 용이한 가평천 골짜기를 따라 진출하여 서울-춘천 간 도로 차단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영연방 제27여단의 강력한 저지작전과 포병의 화력지원에 많은 인명피해를 입자, 결국 4월 25일 새벽에 모든 공격을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개된 가평 전투에서 영연방 제27여단은 뉴질랜드 포병연대의 지원 아래 호주대대, 캐나다대대, 영국군 미들섹스연대 제1대대 등 3개 대대 병력으로 3일 동안 방어전을 전개하여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였다. 그 결과 중공군의 유엔군 전선 분할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고 반면에 유엔군은 북한강 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영연방 제27여단은 4월 25일 밤에 3일간의 혈전을 종료하고 미 제1기병사단의 제5기병연대에 작전지역을 인계한 후 양평으로 이동해 군단예비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1951년 4월 26일 부대명칭을 영연방 제28여단으로 개칭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⑧,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 II, An Honourable Discharge* (London: HMSO, 1995).

【박동찬 집필】



## 서울 방어작전

[서울 防禦作戰, 1951. 4. 26.~30.]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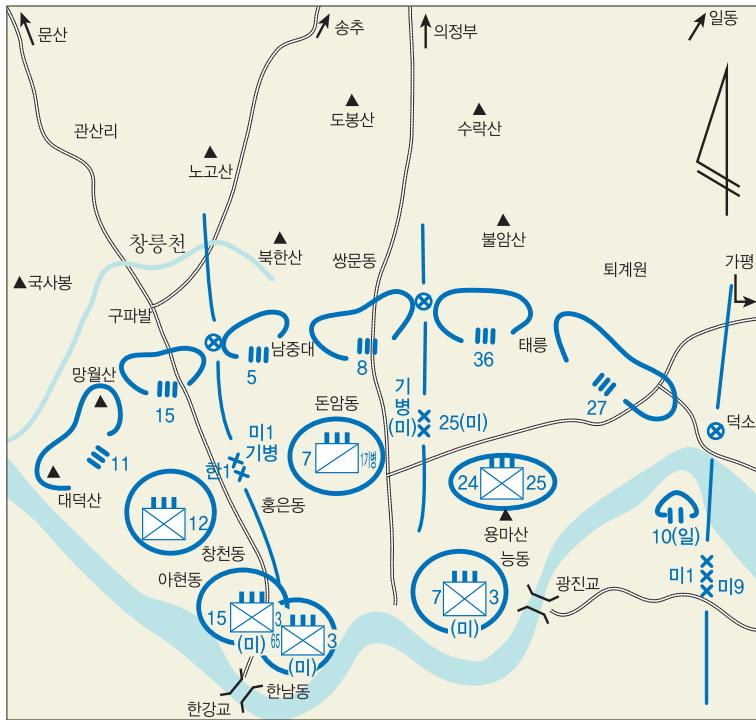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중공군의 제5차 공세를 맞아 1951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사수를 목표로 서울 북쪽 외곽지역에서 중공군 제19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의 공격을 저지한 방어작전이다.

### 전개과정

서부 작전 지역은 개성-문산-서울로 이어지는 1번 국도와 연천-동두천-의정부-서울로 이어지는 3번 국도를 주요 축선으로 하는 지역이었다. 1·3번 국도 이외에 포천-의정부를 연결하는 43번 도로와 일동-서파-퇴계원-서울을 연결하는 47번 도로가 남북을 관통하고 있으며, 문산-법원리-동두천을 잇는 도로와 고양-벽제-의정부를 잇는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고 있어 종적·횡적 도로망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다. 따라서 대부대 기동과 기계화 부대의 운용이 매우 용이하였다. 작전기간 동안 파주 월룡산(△218)과 서울 북방 고지군(노고산-도봉산-수락산, 국사봉-북한산-불암산)은 피아의 기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감제관측에 유리한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1951년 4월 22일 4월 공세를 개시한 공산군은 주공부대인 중공군 제19병단(제63·제64·제65군)과 북한군 제1군단(제8·제19·제47사단)이 설마리와 파평산 전투(1951. 4. 22~4. 25)에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4월 26일부터 중공군 제19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은 서울을 조기에 점령할 목적으로 과감하게 주간공격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의 공세가 계속되자 미 제8군은 계획된 철수작전을 전개하였다. 미 제8군은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있기 전에 철수를 강요당할 경우 단계적인 철수작전을 수행하면서 공산군에게 최대 출혈을 강요한 후 반격작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미 제8군은 단계적 철수작전의 통제선으로 성동리-노고산-덕정-포천-가평을 잇는 델타선(Delta Line)선과 서울 외곽의 수색-북한산-덕소를 잇는 골든(Golden)선 그리고 한강-양평-횡성-양양을 잇는 네바다선(Nevada Line)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4월 26일 미 제1군단의 예하 사단들이 골든선으로 철수하기 직전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작전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네바다선 대신 30~40km 북쪽의 용문산-홍천-한계령-속초를 잇는 노네임선(No Name Line)을 새로 설정하고



전군에 골든-노네임선 방어를 명령하였다. 이는 한강 이북의 서울지역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미 제8군사령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1951년 4월 22일부터 중공군의 파상공격에 밀려 4월 25일 성동리-덕정-포천을 잇는 델타선으로 철수한 미 제1군단은 이곳에서 군단의 골든선 방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획득하기 위해 지연전을 펼치기로 하였다. 미 제1군단장 밀번(Frank W. Milburn) 중장은 포병부대가 유효사거리 내에 잔류하면서 철수하는 보병부대에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화력지원을 위하여 델타선과 골든선 사이에 추가로 2개의 통제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통제선에서의 철수는 추격 중인 중공군에게 효과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항공지원과 포병 화력지원이 용이한 주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1951년 4월 28일 새벽, 미 제1군단장은 매일 야간에 기습공격을 가하던 공산군이 전 날 밤 공격을 일시 중지하자 이를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 징후로 판단하고 예하 사단에 골든선 점령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좌전방 국군 제사단이 한강 하구-구파발 간을, 중앙의 미 제1기병사단이 구파발-쌍문동 간을, 그리고 우전방 미 제25사단이 쌍문동-덕소 간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미 제1군단은 북한산을 연하여 상호 협

조되고 요새화된 강력한 방어선을 형성하였고 방어정면도 축소되어 포병의 집중운용과 충분한 예비대의 확보도 가능하게 되었다.

미 제1군단이 골든선을 점령한 후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곳은 국군 제1사단 지역이었다.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파평산 전투를 치룬 국군 제1사단은 델타선으로 철수하면서 북한군 제1군단 예하 제8사단과 파주시 금촌과 동거리 일대에서 격전을 벌인 후 군단 명령에 따라 4월 28일 골든선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제11연대가 고양시 화전동 일대에, 제15연대가 서울 불광동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문산-서울 축선으로 남하한 북한군 제8사단은 일산 부근에서 재편성을 한 후 4월 28일 새벽에 1개 연대 규모를 행주나루터로 은밀히 침투시켜 김포비행장 방면으로 도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국군 제1사단 수색대에 발견되어 2시간 동안 인천 외항에 대기 중인 순양함 톨레도(Toledo)호의 함포사격을 받고 시체 다수를 유기한 채 북으로 퇴각하였다. 이후에도 북한군의 공격은 4월 30일까지 계속되었지만,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가 백병전까지 전개하면서 이들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또한 북한군 제8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 제15연대 지역으로 양동작전을 펼친 중공군 제64군 소속 부대의 공격도 국군 제1사단 예비인 제12연대의 보·전 협동공격에 의해 격퇴되었다.

이 무렵 미 제1군단의 중앙 사단인 미 제1기병사단이 북한산과 도봉산 일대로 침투하던 중공군 제64군을 격퇴하였으며, 우전방 사단인 미 제25사단이 퇴계원 부근에서 중공군 제65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진지를 고수하였다. 이로써 중공군 제19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이 마지막 승부수로 던진 골든선 공격은 완전히 실패하였고, 4월 30일을 기해 전면 철수하면서 중공군의 4월 공세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개된 서울 방어작전에서 미 제1군단은 계획된 철수작전을 실시하여 중공군 제19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에게 최대 출혈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중공군의 4월 공세는 완전한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4월 공세에서 중공군은 유엔군의 항공폭격과 포병화력을 활용한 조직적인 지연작전으로 그들의 작전목표였던 유엔군 격멸은 고사하고 오히려 서울 북방에서만 7만 5,000~8만여 명이 사살되고 5만여 명이 부상당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서울 방어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미 제1군단은 본격적인 반격작전에 앞서 방어 중심을 늘리고 적정을 탐지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위력수색작전에 들어갔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매봉-한석산 전투

[鷹峯-寒石山 戰鬪, 1951. 5. 7.~10.]

## 개요

국군 제9사단 제30연대가 1951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중공군의 제5차 공세 때 국군 제3사단 제22연대가 북한군 제6사단에게 빼앗긴 인제 동남쪽의 매봉(△1066)과 한석산(△1119)을 공격해 탈환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매봉과 한석산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동남쪽의 고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1,119m인 한석산의 주요 봉우리 중 하나가 매봉이다. 인제읍내에서 약 8km 동남쪽에 위치한 한석산과, 한석산에서 남쪽으로 약 2km 지점에 위치한 매봉은 인제와 현리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공격의 발판이 되는 중요 감제고지였다.

매봉과 한석산의 전술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북한군 제6사단은 소양강에 배수진을 치고 이들 고지 일대에 2개 연대 규모로 강력한 거점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방호산(方虎山)이 지휘하는 북한군 제5군단의 예하부대인 제6사단의 주요 임무는 국군 제9사단의 인제 방면 진출을 지연시키면서 반격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당시 중·조연합사령부는 5월 공세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5월 6일부로 예하부대에 작전예령을 하달한 상태였다.

중공군의 4월 공세를 방어하는데 성공한 미 제8군은 중동부전선의 중요 전술도로인 흥천-인제-간성을 연결하는 46번 도로를 탈환하기로 하고 미주리선(Missouri Line)을 목표로 하는 공격을 계획하였다. 미주리선은 흥천-인제-간성 간 도로의 10~20km 북쪽 가리산-신월리-915고지-대진리로 연결된 선이었다. 이 공격에는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5·제7사단과 국군 제3군단의 제3·제9사단 그리고 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과 제11사단 등 국군 6개 사단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중 제9사단이 매봉과 한석산을 목표로 공격할 예정이었다.



국군 제30연대 제3대대는 5월 8일에 매봉 점령을 위한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한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제3대대는 이날 910고지 좌측으로 우회한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기습공격을 받고 한때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정면공격만으로는 매봉 점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군 제30연대 제3대대장 김진동(金鎭東) 중령은 5월 9일 새벽에 1개 중대를 매봉 우측의 856고지로 우회기동시켜 적의 측방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 공격이 주효하여 정면에서의 북한군 저항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를 기회로 제3대대 주력이 근접항공지원 아래 정면공격을 감행하여 3일 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적을 격퇴하고 매봉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제3대대의 매봉 점령으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국군 제30연대는 예비인 제1대대를 투입하여 5월 10일 저녁 무렵에 한석산마저 점령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9사단은 소양강 너머의 인제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개된 매봉-한석산 전투에서 매봉 점령의 주역인 국군 제9사단 제30연대 제3대대는 북한군 895명을 사살하고, 북한군 부연대장을 포함하여 포로 42명, 소화기 198정, 기관총 11정, 포 6문을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려 대대의 전 장병이 일제급 특진하는 영예를 얻었다. 그러나 제30연대 제3대대도 전투과정에서 대대원의 절반가량인 390여 명이 전사 또는 부상을 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이는 매봉-한석산 전투의 격렬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19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 1988.

【박동찬 집필】

## 설악산 부근 전투

〔雪嶽山 附近 戰鬪, 1951. 5. 8. ~13.〕

### 개요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과 제11사단 제20연대가 1951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미주리선(가리산-인제 서북방-원통 북방)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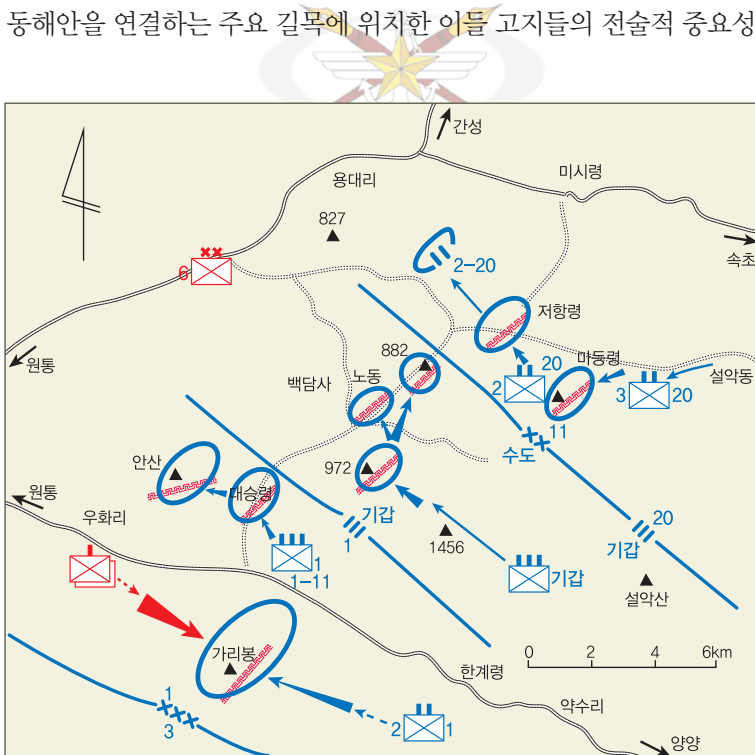


군단 예하 제6사단과 제12사단 소속의 북한군을 격퇴하고 설악산 일대를 점령한 공격 전투이다.

### 전개과정

설악산 부근 전투가 전개된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의 가리봉(△1519)-대승령(△1210)-노동-882고지-저항령으로 연결된 지역으로 설악산 대청봉(△1708)에서 서쪽과 서북쪽으로 약 8~11km 지점에 위치한 반원형의 고지군이였다. 인제읍 가리산리의 가리봉은 한계리와 양양을 연결하는 44번 국도와 인제, 원통, 한계에서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산악도로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요충지였다. 가리봉 북동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한 노동(현 영시동)과 882고지는 한계리에서 간성으로 연결되는 46번 도로와 속초로 연결되는 56번 도로로 진출할 수 있는 백담사계곡 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882고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1km 지점에 위치한 저항령은 설악산 주능선에 위치한 고개로 동쪽으로 설악동, 서쪽으로 백담사, 북쪽으로 미시령과 연결되는 길목이었다.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이들 고지들의 전술적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던 북한군은 제6사단과 제12사단 병력을 가리봉-대승령-노동-저항령으로 이어지는 주요 고지들에 배치하고, 단애(斷崖)와 협곡 그리고 울창한 산림을 이용하여 강력한 거점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방호산(方虎山)이 지휘하는 북한군 제5군단 예하부대인 제6사단과 제12사단은 인제-한계리-미시령 방면으로 진출하려는 국군을 최대한 지연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이는 5월 공세를 계획하고 있던 중·조연합사령부가 공격부대의 준비 시간을 벌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중·조연합사령부는 5월 6일부로 예하부대에 5월 공세에 관한 작전예령을 하달한 상태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은 중동부전선의 중요 전술도로인 홍천-인제-간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미주리선(Missouri Line)을 목표로 하는 공격을 계획하였다. 미주리선은 홍천-인제-간성 간 도로의 10~20km 북쪽 가리산-신월리-915고지-대진리로 연결된 선이었다. 이 공격은 5월 7일로 계획되었으며,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제3군단에 소속된 국군 6개 사단(수도사단, 제3·제5·제7·제9·제11사단)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 중 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과 제11사단이 설악산을 목표로 공격할 예정이었다.

미주리선을 향한 국군 수도사단의 공격은 험준한 지형과 산악 특유의 짙은 안개로 계획일 보다 하루 늦은 5월 8일에 시작되었다. 이날 좌측 공격부대인 제1연대가 포병의 화력지원 아래 근접전투와 백병전을 펼쳐 힘겹게 가리봉을 점령했고, 우측 공격부대인 제1기갑연대가 노동을 감제할 수 있는 972고지(백담사 남쪽 약 2km)를 점령하였다. 가리봉에서 철수한 북한군 제6사단 제1연대는 그들의 주보급로인 용대리-간성 도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패잔병과 증원 병력으로 부대를 재편성한 후 대승폭포-백담사-노동으로 이어지는 선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국군 수도사단은 전과확대를 목적으로 추격작전을 전개하였으나 곳곳에 기관총 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북한군으로 인해 공격이 부진하였다. 산악지형에서 적의 기관총 총성은 산악기동으로 체력이 소진되고 보급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수도사단의 공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5월 10일 오전에는 오히려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가리봉이 피탈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군 제1연대의 예비인 제1대대가 제2대대로부터 가리봉을 인수하는 도중에 발생한 상황이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리봉을 피탈당한 국군 제1연대 제1대대는 전열을 재정비한 후 공격에 나서 3차에 걸친 역습 끝에 5월 11일 새벽 가리봉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가리봉을 재탈환 한 국군 수도사단은 5월 11일 보병과 포병의 협조된 공격으로 좌전

방 제1연대가 안산(△1430, 가리봉 북쪽 6km)을, 우전방 제1기갑연대가 노동을 점령하여 차후공격의 발판을 확보하였다. 이 무렵 수도사단의 동쪽에서 진격 중이던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도 선두부대인 제2대대 제5중대가 저항령 부근에서 북한군과 31시간 동안에 걸친 격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고 저항령 북쪽 약 2km 지점의 986고지를 점령하였다. 공교롭게도 이날(11일) 미 제8군사령관은 공산군이 수일 내 공세를 재개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군과 유엔군의 공격을 중지시켰다. 이 명령에 따라 국군 수도사단과 제11사단 제20연대는 5월 13일 오전 6시를 기해 공격을 중지하고 방어로 전환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개된 설악산 부근 전투에서 국군 수도사단과 제11사단 제20연대는 북한군 2,200여 명을 사살하고, 포로 7명, 소화기 264정, 기관총 7정, 각종 포 25문, 실탄 2만 여발을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국군 수도사단과 제11사단 제20연대는 전사 97명, 부상 247명의 피해를 입었다. 이 전투 이후 국군 수도사단과 제11사단 제20연대는 5월 13일 방어로 전환하여 중공군 5월 공세에 대비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199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⑥, 1973.  
 보병 제11사단, 『회랑약사 : 1950. 8. 27~1975. 5. 31』 (서울 : 인쇄창, 1975).

[박동찬 집필]

## 현리 전투

[縣里 戰鬪, 1951. 5. 1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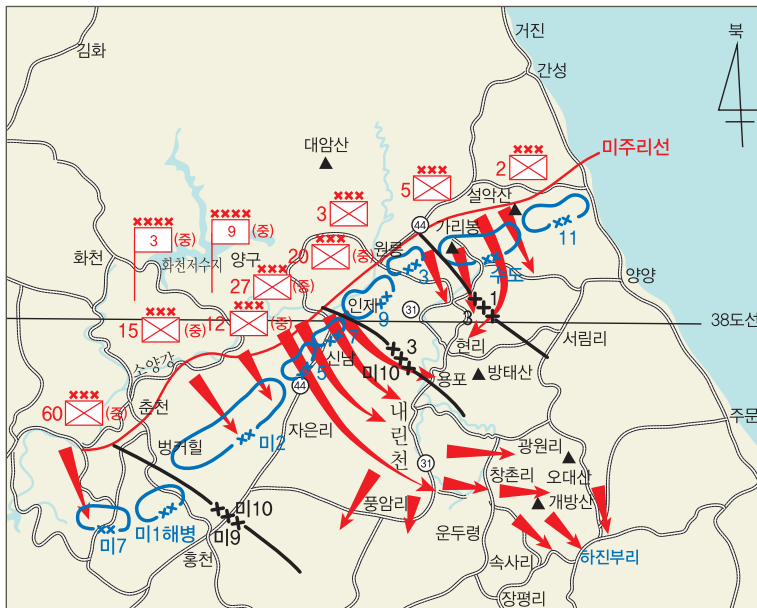
### 개요

국군 제3군단의 제3·제9사단과 미 제10군단의 국군 제5·제7사단이 중공군의 5월 공세를 맞아 1951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현리 일대에서 중공군 2개 군(제20·제27군)과 북한군 3개 사단(제6·제12·제32사단)의 공격을 받고 방어에 실패한 후 하진부리 부근까지 후퇴한 철수작전이다.

## 전개과정

작전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홍천군, 평창군 일대로 소양강변에 위치한 인제를 중심으로 북동쪽에 원통, 남동쪽에 현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험준한 계곡과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작전 지역 내의 도로망은 홍천-신남-인제-간성으로 연결되는 46번 국도가 있었으나, 피아가 대치하는 접촉선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도로는 인제-현리-오마치-침교-창촌-속사리로 이어지는 31번 국도가 유일했으며, 이 도로는 아군의 유일한 보급로였다.

공산군은 4월 공세에 실패한 후 전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1951년 4월 28일부터 5월 공세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공산군은 '3중 양익 포위전술'로 중동부 산악지역의 국군을 집중 공격해 궤멸시킨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미군보다 화력과 기동력이 열세인 국군을 궤멸시킴으로써 미군을 고립·섬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조연합사령부는 중공군 제3병단(제15·제39·제60군)과 제9병단(제12·제20·제27군), 그리고 북한군 3개 군단(제2·제3·제5군단)을 중동부전선에 집중 운용하기로 하였다. 5월 공세의 최종 계획은 5월 9일에 확정되었으며, 이때 중공군 제9병단과 북한군 제2·제5군단에게 주공 임무가, 중공군 제3병단과 북한군 제3군단에게 조공 임무가 부여되었다. 중공군의 포위전술은 먼저 중공군 제20군(제58·제59·제



60·제89사단)이 미 제10군단의 우전방 부대인 국군 제7사단의 우측 진지를 돌파하여 오미재(오마치)와 용포 일대를 점령하고 동쪽에서 공격하는 북한군 제5군단과 협공으로 국군 제3군단을 포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공군 제27군(제79·제80·제81·제94사단)이 국군 제7사단을 공격한 후 계속 진출하여 창춘 일대를 북한군과 함께 점령하여 두 번째 포위망을 형성하고, 중공군 제12군(제31·제34·제35사단)이 국군 제5사단을 섬멸하고 일부가 계속 진격하여 속사리로 진출, 북한군 제2군단과 합류하여 가장 외곽의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한편 중공군의 4월 공세가 약 1주일 만에 중단되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1951년 4월 30일을 기해 노네임선(No Name Line : 용문산-홍천-한계령-속초)을 요새화하는 동시에 적정파악을 위한 위력수색을 강화하도록 예비부대에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전 전선에서 위력수색작전을 전개하여 5월 9일 김포반도-봉일천-의정부-가평-춘천-인제-속초 선을 확보하였다. 상황이 호전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5월 12일을 기해 38도선을 향한 반격작전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5월 10일 이후 전 전선에서 공산군의 활동이 현저히 강화되고 새로운 공세 징후들이 포착되자 반격계획은 취소되었다. 이때 미 제8군은 항공관측을 통해 공산군의 대규모 병력이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으나, 5월 14~15일 기상악화로 5월 공세 직전의 공산군 기동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중공군의 5월 공세는 1951년 5월 16일 오후 4시 30분경 국군 제7사단 방어진지에 중공군의 강력한 공격준비사격이 가해지면서 시작되었다. 2시간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준비사격으로 국군 제7사단은 포병진지와 통신시설이 파괴되어 일시에 화력지원체계가 마비되었다. 중공군은 소양강변에 매설된 각종 장애물을 포격으로 제압한 후 중공군 제20군 예하 제60사단이 부평리의 국군 제5연대를, 중공군 제27군 예하 제79·제81사단이 음양리의 국군 제8연대를 각각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자정 무렵에 국군 제5연대가 대부분의 진지를 피탈당하고 분산철수를 강요당했으며, 국군 제8연대도 제1방어선이 붕괴되고 우회침투한 적으로부터 연대지휘소가 피습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군 제7사단 정면의 상황이 악화되자 미 제10군단장 알몬드(Adward M. Almond) 소장은 5월 17일 새벽 1시경 노네임선으로 철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때 국군 제7사단은 이미 조직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지휘통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공격을 개시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국군 제7사단의 방어진지를 돌파한 중공군은 이 지역의 유일한 후보급로인 오미재를 점령하기 위해 중심기동부대로 중공군 제60사단 제178연대 제2대대를 투입하였다. 중공군의 중심기동부대는 빠른 속도로 기동했고 침병중

대가 5월 17일 새벽 4시경, 대대가 오전 7시경에 오미재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후 이곳에는 중공군의 연대 병력이 증원되었다. 현리-용포-오미재-상남리-하진부리로 이어지는 31번 도로 상에 위치한 오미재가 중공군에게 점령되어 국군 제3군단(제3·제9사단)은 유일한 보급로이자 철수로를 완전히 차단당하였다.

5월 17일 오전에 퇴로를 차단당한 국군 제3군단은 중공군 제20군과 북한군 제5군단의 집중 공격을 받고 이날 오후 현리(오미재 동북쪽 약 8km)에 집결하였다. 국군 제3군단의 좌전방 부대인 제9사단(제28·제29·제30연대)은 17일 새벽 1시경 중공군으로부터 전·후방에서 동시공격을 받고서 새벽 4시경 철수를 시작해 오전 10시경 용포(오미재 동북쪽 약 6km) 일대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9사단은 용포 일대의 고지들을 선점한 중공군의 공격으로 오후 1시 40분경 용포에서 동북쪽으로 약 3km 지점에 위치한 현리로 이동·집결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3군단의 우전방 부대인 국군 제3사단(제18·제22·제23연대)도 현리에 집결하였다. 국군 제3사단은 17일 새벽 4시경부터 북한군 제5군단의 공격을 받았으며, 오전에 좌인접 부대인 국군 제9사단으로부터 주보급로인 오미재 일대가 적에게 점령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오전 8시경 철수를 시작하여 오후 1시경 현리에 집결하였다.

5월 17일 오후, 국군 제3사단과 제9사단, 제3군단직할대, 제7사단 제5연대 등 대규모 철수병력이 집결하면서부터 현리 일대에서는 지휘통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오미재의 차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포감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17일 오후 2시경 현장에 도착한 국군 제3군단장 유재흥 중장은 제3사단장 김종오 준장에게 지휘권을 위임하고 양개사단의 협조 아래 퇴로를 개척할 것을 지시한 후 하진부리의 군단지휘소로 복귀하였다. 국군 제3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제9사단장과 협의하여 사단별로 1개 연대씩을 차출해 퇴로를 개척하기로 하고 제9사단 제30연대를 선봉부대로 선정하였다. 이때 제9사단 제30연대에 부여된 임무는 현리와 오미재 사이의 736고지(현리 서남쪽 약 6km)와 785고지(736고지 남쪽 약 1.5km)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시 제3군단에서는 오미재 일대의 적을 2개 연대 규모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5월 17일 오후 오미재와 용포 일대에는 이미 중공군 제20군 예하 제58·제59·제60사단의 선두 연대들이 전개해 있었다.

공격 선봉에 나선 국군 제9사단 제30연대는 제3대대가 17일 밤 10시경 목표지점인 736고지를 무혈점령했지만, 785고지를 점령하기로 한 제1대대가 내린천을 따라 남하하다가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군 제9사단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하게 방태산(△1436, 현리 동남쪽 약 8km) 방면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현리 일대에서 공격대기 중이던 국군 제3사단도 일부 병력

이 중공군의 기습을 받아 방태산으로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제3사단장 김종오 준장은 5월 18일 새벽 3시 30분경 예하부대에 모든 장비를 파괴하고 방태산을 넘어 창춘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때부터 현리 일대에서는 8km나 늘어선 차량과 각종 중장비가 불태워지거나 유엔군의 항공 폭격으로 파괴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국군 제3군단의 철수는 조직적인 철수가 아니라 무질서한 패주였다. 장교·병사할 것 없이 뒤섞여 철수하면서 방태산은 밀려든 인파로 능선·골짜기 할 것 없이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다. 철수대열에는 국군 제3사단장 김종오 준장과 제9사단장 최석 준장 그리고 제3군단 참모장 심언봉 준장 등 3명의 장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뒤섞여 혼란이 가중되면서 부대들은 건제가 무시된 채 무질서하게 철수하였다. 철수 도중에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하거나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국군 제3군단의 우측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북한군 제5군단과 제2군단의 공격이 험준한 산악지형과 5월임에도 불구하고 쌓인 눈으로 진출이 늦어져 포위망을 완전히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포위부대인 북한군 제5군단과 제2군단의 진출이 좌절되어 후속부대인 북한군 제3군단의 후방진출도 실패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군은 방태산 방향의 산악철수로를 조직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였다.

국군 제3군단은 저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속사리 방향으로 퇴각하기 위해 창춘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이곳 역시 5월 18일 오후 6시경부터 중공군 제27군 예하 병력에 의해 점령되었기 때문에 국군 제3군단은 하진부리에 가서야 병력을 수습할 수 있었다. 5월 19~20일까지 하진부리에서 수습된 국군 제3군단 병력은 제3사단이 34%, 제9사단이 40% 정도에 불과하였다.

중공군은 5월 20일 야음을 이용하여 운두령을 넘어 속사리 북쪽까지 진출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국군 제3군단장에게 하진부리 일대에서 더 이상 철수하지 말 것을 못 박으면서 이곳에서 중공군을 저지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3군단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5월 21일 제3사단이 송계리로, 제9사단이 대화리로 각각 퇴각하고 제3군단사령부도 횡계리에서 영월로 퇴각하여 흩어졌다. 이것은 국군 제3군단의 해체에 결정적이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국군 제3군단의 붕괴로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되어 유엔군의 전 전선이 큰 위기에 봉착할 무렵, 돌파구 서쪽 흥천 북방에 배치된 미 제2사단과 대관령 부근의 국군 제1군단이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여 공산군의 포위망 구축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다.

중동부전선에서 중심 70km의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되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즉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미 제9군단의 방어정면을 확대하여 미 제10군단의 방어정면을 축소시키고, 미 제8군의 예비인 미 제3사단과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 그리고 호남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8사단을 서둘러 중동부전선에 투입하였다. 가장 먼저 기동한 미 제3사단 제15연대가 5월 19일 속사리-하진부리 일대에 배치되었으며 당일 도착한 사단 주력이 장평리 일대에 집결하였다. 미 제3사단은 5월 19일 아침부터 현리에서 속사리를 연결하는 31번 도로 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인 운두령을 공격해 5월 22일 오후 6시경 고지 정상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미 제3사단이 운두령을 차단함으로써 중공군은 오미재를 차단당해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국군 제3군단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었다. 이로써 6일 동안 진행된 현리전투는 종료되었으며, 아울러 중공군의 5월 공세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된 현리 전투에서 국군 제3군단은 지휘체계가 와해되고 수많은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입고서 방어작전에 실패하여 6·25전쟁사에서 가장 큰 패전의 기록을 남겼다. 미 제8군사령관은 현리 전투 패배의 책임을 물어 국군 제3군단을 1951년 5월 26일부로 해체시키고, 예하부대인 제3사단을 국군 제1군단에, 제9사단을 미 제10군단에 각각 배속시켰다. 국군 제3군단의 패퇴는 한국군 전체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미 제8군사령관은 국군 제1군단을 제외한 모든 군단사령부를 해체하고 일체의 작전지휘권을 미군 장성들에게 부여했으며, 또한 육군본부를 지휘선상에서 제외하고 직접 미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현리 전투는 공산군 측에도 상당히 큰 손실을 안겼다. 공산군은 현리 전투를 통해서 중동부전선에 대규모 돌파구를 형성할 수 있었으나, 유엔군의 차단작전과 뒤이은 반격작전으로 차후 2년이 지난 후 종전에 임박해서야 공세를 펼칠 정도로 전력과 보급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 참고문헌

- Hq. EUSAK, "Command Report", May 1951, RG 407, NARA.  
 Hq. X Corps, "Command Report", May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육군군사연구소, 『공산군의 의지를 꺾은 현리-한계 전투』(계룡 : 육군본부, 20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 1988.

【박동찬 집필】





## 병커고지 전투

[Bunker高地 戰鬪, 1951, 5, 17.~19.]

### 개요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3대대가 중공군의 5월 공세를 맞아 1951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강원도 홍천 북방의 병커고지(△778) 일대에서 중공군 제15군 예하 제44사단의 공격을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에 위치한 병커고지(Bunker Hill)는 춘천-홍천 간의 56번 도로와 인제-홍천 간의 44번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고지 주변은 태백산맥 서쪽으로 형성된 표고 600~1,500m의 산악지대이며, 평균 경사도가 60도로 비무장 행군도 험준운 깊은 계곡과 산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병커고지 전방 약 1.5km에는 916고지가 있었으며, 이 고지와는 완만한 산등성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병커고지보다 약 200m 쯤 더 높은 916고지는 당시 나무와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특히 남쪽 기슭에는 잡목이 우거져 공격하는 적이 기동과 집결을 엄폐하기에 유리하였다.

공산군은 4월 공세 실패에 따른 불리한 전황을 조기에 만회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5월 공세를 계획하였다. 이는 ‘서울 점령’이라는 정치적 목적보다 “중동부 산악지역에서 국군을 격멸하여 미군을 고립·분산시키고, 미군을 섬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중·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공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산군은 우선 현리지역 일대의 국군 4개 사단(제5·제7·제9·제3사단)을 다중포위로 섬멸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홍천 축선에는 중공군 제15군 예하의 제44사단을 투입해 국군 제5사단과 미 제2사단 간의 연결을 차단하려 하였다.

한편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중공군이 서울 점령을 눈앞에 두고도 약 일주일 만에 4월 공세를 중단한 것이 군수지원과 병력보충 등 일시적인 제한사항 때문이며, 전력을 강화한 후 다시 공세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미 제8군은 중공군의 주공방향이 중동부전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중앙부를 보강하는 부대배치를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2사단이 홍천북방 일대에 배치되었다. 새로운 부대배치가 완료되자 미 제8군은 1951년 4월 30일



대와 네덜란드대대로 역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때부터 사단은 일일 가용 탄약보급량의 5배인 3만여 발의 포격을 실시하여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이에 중공군은 돌파구를 확장하기 위해 야간공격으로 전환하였다.

중공군은 5월 17일 저녁 9시 30분경 미 제38연대 제3대대 K중대가 방어 중인 병커고지 정상으로 돌진해 왔다. 이 고지는 미 제8군 방어계획에서 예상돌파구의 왼쪽 건부에 해당하는 중요 지형으로, 이곳이 돌파될 경우 홍천 방면에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될 수 있었다. 따라서 미 제38연대는 지난 2주 동안 고지 일대에 2만 개의 모래주머니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 진지는 야포의 직격탄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지 전방에는 철조망과 대인지뢰 및 조명지뢰 등 강력한 장애물 지대도 구축하고 있었다.

미 제38연대 K중대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고지를 빼앗기고 뺏는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중대는 전 병력이 병커에 들어가 진내사격을 요청하여 고지 위의 중공군을 화력으로 격퇴하면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때 포병부대는 진지 25m 상공에서 자동 폭발하는 가변시한포탄을 집중적으로 사용했으며, 특히 5월 18일 자정부터 19일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5개의 포병대대가 1만 여발의 가변시한포탄을 고지 일대에 쏟아 부었다.

5월 19일 날이 밝자 중공군은 병커고지 공격을 단념한 듯 800여 구의 시체를 유기한 채 철수하여 혈전의 병커고지 전투는 종료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전개된 병커고지 전투에서 미 제2사단 제38연대 제3대대 K중대는 현리와 대관령 일대까지 중심 깊게 형성된 돌파구의 왼쪽 건부에 해당하는 병커고지를 사수하여 중공군의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였다. 그 결과 중공군은 병커고지 우측의 국군 제3군단 지역까지 돌파구를 확장하고도 홍천-횡성 방면으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여 그들의 작전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결국 병커고지 전투는 유엔군이 전선붕괴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반격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전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Hq. 2th Division, "Command Report", May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육군군사연구소, 『공산군의 의지를 꺾은 현리-한계 전투』 (계룡 : 육군본부, 20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현리전투』, 1988.

【박동찬 집필】



## 용문산 전투

[龍門山 戰鬪, 1951. 5. 17.~22.]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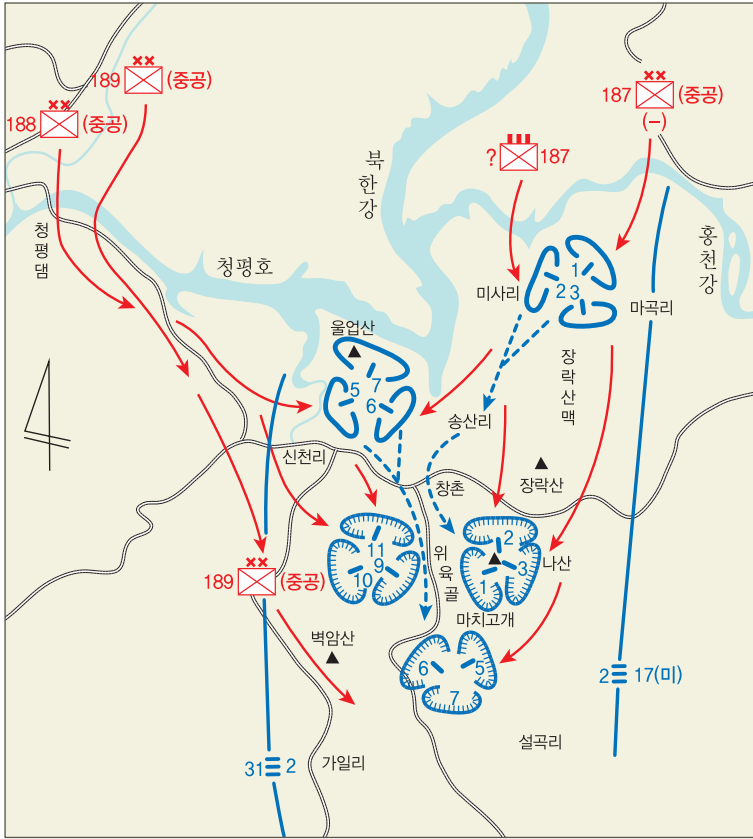
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의 5월 공세를 맞아 1951년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부근에서 중공군 제63군(제187·제188·제189사단)의 파상공격을 방어하고 반격으로 전환하여 중공군에게 큰 타격을 입힌 방어전투이다.

### 전개과정

작전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과 단월면,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 일대로 지역 내에는 해발 1,157m의 용문산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827고지, 중미산, 통방산 등이 연이어 있고, 북동쪽으로 봉미산, 나산, 장락산, 559고지가 산맥을 이루면서 홍천강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러한 지형은 산악 기동을 위주로 하는 중공군에게는 유리한 반면 국군에게는 관측과 사계의 제한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사면(四面)을 감제할 수 있는 용문산을 국군 제6사단이 점령하고 있어 중공군의 동태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또한 경계부대의 전투전초선인 용문산 북쪽 약 15km 지점의 울업산과 미사리, 그리고 엄소리의 353고지(용문산 북쪽 약 10km)와 왕방리의 427고지(용문산 북쪽 약 7km) 등은 토질이 비교적 양호하여 아군의 진지구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국군 제6사단 정면의 적은 중공군 제19병단 예하 제63군(제187·제188·제189사단)이었다. 푸충비(傅崇碧)가 지휘하는 중공군 제63군 1951년 2월에 압록강을 건너 정부-신계-금천을 거쳐 임진강 북쪽으로 이동한 후 4월 공세 때 설마리 전투를 수행하였고 이후 가평 방면으로 이동하여 국군 제6사단과 대치하였다. 5월 9일 중·조연합사령부가 5월 공세의 최종 계획을 확정하면서 중공군 제63군이 소속된 중공군 제19병단에게는 중동부전선 주공부대들의 작전에 호응하여 중서부전선의 유엔군을 고착·견제하라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날 중공군 제19병단 사령관 쑹스륜(宋時輪)은 제63군에게 용문산 일대의 국군 제6사단을 공격하여 용문산-청계산 사이의 노네임선(No Name Line)을 돌파한 후 광주-이천 선으로 진출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 무렵 미 제9군단의 중앙 사단인 국군 제6사단은 중공군의 4월 공세 때 사창리에서 큰 시련을 겪은 후 전선조정에 따라 용문산 일대에 배치되어 방어에 주력하고 있었다. 사단은 사창리 전투의 여파로 저하된 사기를 회복하고 약화된 전력을 보강하는 한편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정신무장과 훈련에 전념하고 있었다.



당시 국군 제6사단의 주저항선은 가일리의 866고지에서 삼천골에 이르는 지역으로 북한강에서 12~17km 떨어져 있어 중공군이 북한강을 도하하여 교두보를 확보할 경우 사단은 물론 인접한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도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 이에 사단은 제2연대를 홍천강 남쪽에 추진 배치하고 주저항선인 용문산 북서쪽에 제19연대를, 용문산 북동쪽에 제7연대를 각각 배치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특히 제2연대는 ‘결사’라고 색인된 머리띠를 두르거나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 유언으로 남기는 등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었다. 이때 국군 제2연대는 중공군의 공격이 임박하면서 좌측의 국군 제2사단과 우측의 미 제7사단이 주저항선으로 철수함에 따라 적 지역으로 유일하게 돌출된 상태에서 방어를 하게 되었다.

국군 제6사단 지역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은 1951년 5월 17일이었다. 이날 국군 제2연대 정찰대가 중공군의 예상 도하지점인 서천리와 강춘리 일대를 탐색하던 중

이미 도강하여 방하리 계곡에 집결 중인 중대 규모의 중공군을 발견하고 격퇴하였다. 그러나 일몰이 되자 중공군의 도하공격은 본격화되었으며, 18일에는 고성리, 가정리, 상박암리 등 곳곳에서 중공군의 도하공격이 계속되었다. 국군 제2연대는 사단과 군단에서 지원한 5개 포병대대의 화력지원 아래 진내로 접근한 중공군과 백병전을 전개하면서 적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국군 제2연대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화력을 지원받아 완강히 저항하며 진지를 고수하자 중공군은 5월 19일 새벽부터 제187·제188사단의 주력을 투입하여 돌파를 시도하였다. 중공군은 오전 8시경 홍천강변의 감제고지인 559고지의 제2연대 제1대대를 포위 공격하였다. 제1대대는 3시간 동안의 혈전 끝에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연대지휘소가 위치한 나산(△583)으로 철수하였다. 중공군은 559고지 공격에 이어 제2연대 제2대대가 방어 중인 울업산을 집중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제2대대는 울업산 진지를 포기하고 427고지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연대의 방어정면은 353고지-나산을 연결하는 선으로 축소되었다.

국군 제2연대는 나산 부근의 전초진지를 고수하였지만 이틀간의 격전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또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식량과 탄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국군 제2연대의 상황을 간파한 중공군은 5월 19일 저녁 8시를 기해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부터 국군 제2연대는 제1대대가 나산에서, 제3대대가 353고지에서, 제2대대가 427고지에서 중공군과 백병전을 치루는 혈전을 전개하였다. 국군 제2연대는 5월 20일 새벽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방어진지 일부가 돌파되고 통신이 두절되어 지휘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진지를 고수하는데 성공하였다.

국군 제2연대가 혈전을 벌이는 동안에 사단에는 미 제8군사령관의 공격명령이 하달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중동부전선에서 공산군의 공세가 현저하게 둔화되자 5월 19일 밤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에 문산-포천-춘천을 잇는 토페카선(Topeka Line)으로 공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미 제9군단장 호지(William M. Hoge) 중장으로부터 공격명령을 수령한 국군 제6사단장 장도영 준장은 5월 20일 새벽 5시를 기해 제7연대와 제19연대를 공격작전에 투입하였다. 국군 제2연대를 포위하고 있던 중공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국군 제7연대와 제19연대의 기습공격을 받게 되자 서둘러 홍천강 방향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국군 제7연대와 제19연대는 5월 21일 제2연대와 연결한 후 계속해서 중공군을 추격해 22일에는 홍천강 남안까지 진출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6사단은 사창리 전투의 불명예를 씻고 용문산 전투의 대승이라는 기록

을 세워 국군의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개된 용문산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중부전선에 형성될 수 있었던 공산군의 대규모 돌파구를 저지함으로써 전선의 절단을 막아 수도권에 미칠 위험을 배제하였다. 특히 이 전투에서 경계부대인 제2연대는 전면(全面)방어태세로 3일간을 지탱하면서 중공군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고 주저항선을 기만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군 제2연대가 필사적으로 방어하여 중공군은 이 지역을 주저항선으로 오판하고 예비대까지 투입했지만, 불굴의 투지로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며 싸운 국군 제6사단에 의해 중공군 제63군 예하 3개 사단이 전멸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국군 제6사단의 용문산 전투는 미 제2사단의 병커고지 전투와 더불어 중공군의 5월 공세를 격퇴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국군 제6사단은 용문산 전투의 승리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추격작전을 전개해 지암리 전투와 화천발전소 전투에서 다시 한번 대승을 거두었다.

### 참고문헌

육군본부, 「용문산지구 전투상보」 『한국전쟁사료』 (53), 19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⑧,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용문산전투」, 1983.

【박동찬 집필】

## 캔자스선 진출작전

[kansas Line 進出作戰, 1951. 5. 20. ~28.]

### 개요

미 제8군이 1951년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중동부전선으로 침투한 공산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섬멸한 후 임진강-전곡-연천-화천저수지-양양으로 연결되는 캔자스선(Kansas Line)으로 진출한 유엔군의 제3차 반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캔자스선 진출작전이 전개된 지역은 한강하구-서울북방-양평-홍천강-풍암리-속사리-하진부리-주문진을 잇는 선의 북쪽에서부터 임진강-전곡-연천-화천저수지-양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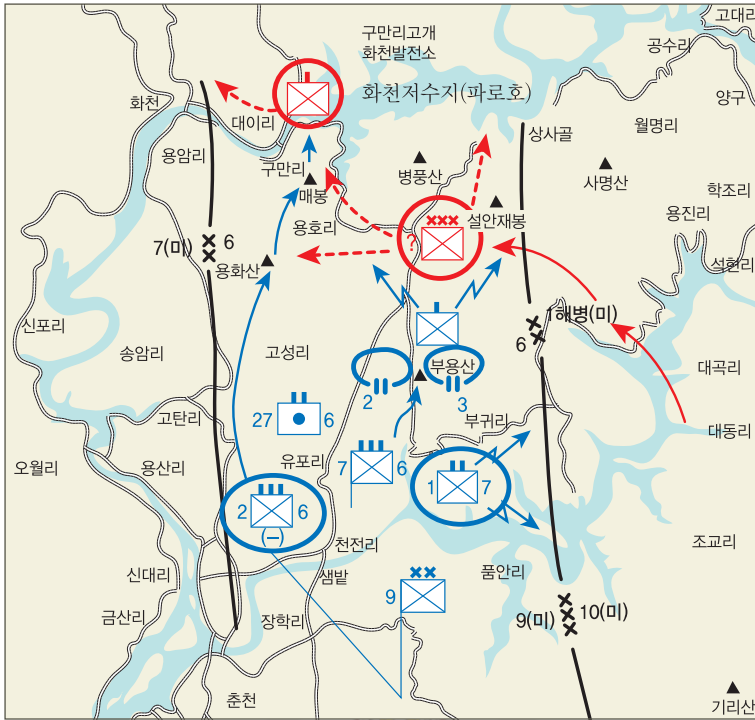
을 있는 선의 남쪽까지를 포괄하였다.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된 중동부 작전지역을 제외하면 1951년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 진행된 유엔군의 리그드 작전과 거의 유사한 지역에서 작전이 전개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춘계공세(4월·5월 공세)를 통해 중공군 지도부는 우세한 병력만으로 유엔군의 현대화된 무기와 장비를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제한적인 군수지원능력을 전쟁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조연합사령부는 5월 공세를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주요 부대들을 후방으로 철수시켜 주력을 정비한 후 기회를 보아 유엔군을 섬멸한다는 새로운 작전방침을 마련하였다. 이는 장기작전을 준비해 미군을 섬멸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지구작전(持久作戰)’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5월 21일 예하부대에 23일을 기해 위천리-연천-삭령-문혜리-산양리-양구-원통을 잇는 선의 북쪽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했고, 5월 23일부터 공산군 전선부대들의 철수가 시작되었다.

한편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대장은 중공군의 5월 공세가 절정에 달한 5월 18일 미 제8군사령관에게 중동부전선에 집중된 적의 공격 기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2개 사단으로 철원을 공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것은 서부전선에서 철의 삼각







지대로 이어지는 적의 주요 병참선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다음날(19일) 전 전선으로 확대하여 반격작전을 실시하라는 명령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유엔군 사령관이 전선 정찰을 통해 중동부전선에서 적의 전선이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이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면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때 미 제8군사령관도 적이 아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해 내륙 깊숙이 진출하고 있으나, 수일 내에 군수지원에 제한을 받아 공격이 지체되거나 정지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기회에 신속히 공격을 개시하여 적 후방의 병참선을 차단하면 적을 ‘긴자루’ 모양의 함정에 빠뜨려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미 제8군사령부는 2단계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먼저 제1단계 목표로 문산-가평-춘천으로 연결된 토페카선(Topeka Line)을 점령한 후 신속히 제2단계 작전으로 전환하여 교통의 요충지로 ‘긴자루’의 목 부분에 해당되는 포천-철원 축선상의 영평 부근과 춘천-김화 축선상의 화천 부근을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목을 조르듯 지대 내에 갇힌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격멸한다는 것이 이 공격작전의 핵심이었다. ‘데토네이트 작전(Operation Detonate)’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미 제9군단을 주공부대로 하여 전 전

선에 걸쳐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서부와 중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5월 20일 제1단계 작전에 돌입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에서는 국군 제1사단이 문산 축선으로, 미 제1기병사단이 동두천 축선으로, 미 제25사단(터키여단, 캐나다 제25여단 배속)이 포천 축선으로 공격에 나섰다. 미 제1군단은 5월 23일까지 제1단계 작전목표인 토페카선(문산-포천)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제2단계 작전목표인 캔자스선(임진강-전곡-영평)으로 진격하였다. 미 제1군단에서 가장 먼저 캔자스선에 도달한 것은 좌측 공격부대인 국군 제1사단이었다. 국군 제1사단은 5월 24일 중공군의 4월 공세 때 빼앗겼던 임진강변 진지를 한달 만에 다시 회복하였다. 그리고 미 제1군단의 중앙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과 우측부대인 미 제25사단도 5월 27일을 전후하여 각각 임진강-전곡 선과 전곡-영평 선까지 진출하여 캔자스선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미 제1군단이 서부전선에서 캔자스선 진출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도 가평-춘천을 잇는 토페카선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캔자스선 상의 요충지인 화천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에 나섰다. 미 제9군단은 서쪽으로부터 미 제24사단, 국군 제2사단, 국군 제6사단, 미 제7사단을 배치하여 5월 20일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던 중 군단은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5월 21일 우인접 부대인 미 제10군단의 작전지역 일부(홍천 부근)를 인수받아 군단의 작전지역을 확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9군단장 호지(William H. Hoge) 소장은 미 제7사단을 홍천-화천 간 도로를 따라 진출하여 화천저수지 서쪽을 공격하게 하고, 중앙의 국군 제6사단을 계관산-북배산-지암리 방향으로 공격하게 하였다. 동시에 군단장은 왼쪽에서 진격 중인 미 제24사단에게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가평을 공격하게 하고, 국군 제2사단에게 미 제24사단의 가평 진출을 엄호한 후 좌인접 부대인 미 제1군단의 미 제24사단과 대보리 일대에서 연결하도록 하였다.

전선 조정을 마친 미 제9군단은 5월 24일 오전 7시에 일제히 공격을 재개하였다. 화천을 향해 진격하던 미 제9군단은 5월 25일 춘천 방면과 속사리 방면에서 후퇴하는 중공군이 화천 일대에 집결하고 있다는 항공정찰결과를 보고받아서 화천저수지 서쪽의 도로 교차점을 조기에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군단장은 즉시 작전지역의 중앙으로 진출 중인 국군 제6사단 예하의 제19연대를 지암리로 기동시키고, 제6사단 주력을 미 제7사단과 함께 화천저수지 공격을 위해 춘천에 집결시켰다. 5월 26일 오전에 미 제24사단의 제21연대와 미 제7사단의 제17연대가 지암리에서 합류하였고, 국군 제6사단의 제19연대도 지암리 부근으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이들 3개 연대는 춘천-화천 간

도로와 가평-지암리 간 도로 그리고 지암리 남쪽의 국군 진출선으로 형성된 삼각형 모양의 우리 속에 중공군을 몰아넣는데 성공하였다.

중공군은 포위망을 탈출하려 했으나 퇴로를 봉쇄한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격멸되었다. 특히 5월 28일 미 제7사단 제17연대가 화천을 점령하고 국군 제6사단 주력이 화천저수지 남쪽에서 구만리발전소-병풍산을 잇는 캔자스선으로 진출하게 되자 중공군은 북쪽의 화천저수지에 막혀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들 중공군은 대부분 화천저수지에 익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1951년 5월 26일~28일까지 진행된 전투에서 중공군은 최소한 2만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았다. 이 전투 이후 화천저수지가 ‘파로호(破虜湖)’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랑캐를 대파한 호수”라는 뜻으로 화천저수지를 ‘파로호’라 이름 붙인 것에서 유래하였다.

한편 중공군 5월 공세의 대규모 돌파지역인 중동부전선에서는 5월 23일 미 제10군단 예하의 모든 공격제대들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해병 제1사단은 한계-인제 간 도로의 서쪽으로 진출하여 양구를, 미 제2사단은 한계-인제 간 도로의 동쪽으로 진출하여 인제를 각각 목표로 하여 공격하였다. 미 제10군단은 반격작전 초기 단계에서 공산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지만, 양구-인제 지역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포위망 구축에 실패하고 공산군의 탈출을 허용하였다.

동해안지역에서는 국군 제1군단이 5월 25일까지 하진부리에 진출한 북한군 제12사단 및 중공군 제27군 일부 병력과 대관령 일대에서 격전을 전개하여 이들을 격퇴한 후 26일 오전 6시를 기해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수도사단은 산간 내륙으로 공격하여 매복산과 북용산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설악산 방향으로 공격하였으며, 제11사단은 동해안을 따라 3개 연대가 동시에 공격을 실시해 5월 27일 캔자스선의 동쪽 끝 지점인 양양에 도달하여 캔자스선 확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이로써 미 제8군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임진강-전곡-연천-화천저수지-양양을 잇는 캔자스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개된 제3차 반격작전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을 전술적으로 방어하기에 용이한 캔자스선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작전은 국군과 유엔군의 적 퇴로차단 전략과 주요 부대의 궤멸을 방지하기 위한 공산군 측의 철수전략의 대결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 제9군단은 화천일대에서 약 2만 5,000명이 넘는 공산군 측 피해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 작전으로 중공군은 참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당분간 더 이상의 대규모 공세를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 캔자스선 진출작전 이후 유엔군사령부는 캔자스선의 요새화와 방어중심을 유지할 목적으로 전곡-철원-김화-화천을 연결하는 와이오밍선을 확보하여 캔자스선과 함께 이중 방어선을 형성하기로 하였다. 이는 철의 삼각지대가 공산군 공세의 근원지이므로 이곳이 적의 수중에 들어 있는 한 캔자스선의 지속적인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국군과 유엔군은 캔자스선 진출작전의 연속작전으로 6월 초부터 철의 삼각지대 확보를 위한 와이오밍선 진출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Hq. EUSAK, "Command Report", May 1951, RG 407, NARA.  
 Hq. I Corps, "Command Report", May 1951, RG 407, NARA.  
 Hq. IX Corps, "Command Report", May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8, 2011.  
 육군군사연구소, 『공산군의 의지를 꺾은 현리-한계 전투』 (계룡 : 육군본부, 20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2006.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철원-김화 진격전

[鐵原-金化 進擊戰, 1951. 6. 3. ~11.]

#### 개요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유엔군의 제3차 반격작전의 일환으로 1951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산군의 병력·장비·물자가 집중된 철의 삼각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철원-김화를 연결하는 와이오밍선(Wyoming Line)으로 진격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철의 삼각지대는 평강을 정점으로 하여 철원과 김화를 잇는 지리상의 삼각지대로 원산과 서울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데다 철도가 연결되고 도로망이 발달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중부전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 지역을 확보하지 않고는 중부전선을 장악하기가 어려웠다. 이 지역은 북쪽에서의 방어가 유리하고 남쪽에서의 공격이 불리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두 차례 춘계공세(4월·5월 공세)를 통해 중공군 지도부는 우세한 병력만으로 유엔군의 현대화된 무기와 장비를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5월 공세를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요 부대들을 후방으로 철수시켜 주력을 정비한 후 기

회를 보아 유엔군을 섬멸한다는 이른바 ‘지구작전(持久作戰)’을 새로운 작전방침으로 채택하였다. 중·조연합사령관 팡더화이(彭德懷)는 5월 21일 예하부대에 23일을 기해 위천리-연천-삭령-문혜리-산양리-양구-원통을 잇는 선의 북쪽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했고, 5월 23일부터 공산군 전선부대들의 철수가 시작되었다. 이때 서부전선의 중공군 제19병단은 유엔군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임진강의 상류지점과 철의 삼각지대 일대로 후퇴하여 휴식과 정비를 취하도록 했으며, 북한군 제1군단은 일부 부대가 파주 이남에서 유엔군의 북상을 저지하는 가운데 주력이 개성지구에서 휴식과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1951년 5월 28일을 전후하여 캔자스선(Kansas Line) 진출에 성공한 유엔군은 캔자스선의 요새화와 방어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전곡-철원-김화-화천을 연결하는 와이오밍선(Wyoming Line)을 확보하여 캔자스선과 이중 방어선을 형성할 예정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캔자스선에 대한 공산군의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철의 삼각지대에서 화천저수지와 춘천으로 향하는 공산군의 주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와이오밍선까지 진격하는 제한된 공격작전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 작전의 명칭을 ‘말뚝을 박듯이 전선을 튼튼히 한다’는 의미로 ‘파일드라이버 작전(Operation Pile Driver)’이라고 명명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와이오밍선 확보를 위한 파일드라이버 작전의 중점을 미 제1군단의 책임지역인 철원과 김화지구를 봉쇄하는데 두고, 미 제10군단에 배속되었던 국군 제9사단과 미 제3사단을 5월 29일부로 미 제1군단에 배속 전환하는 등 미 제1군단의 전투력을 강화시켰다.

미 제1군단은 1951년 6월 3일 국군 제1사단이 임진강 북쪽에서 군단의 왼쪽 측방을 엄호하는 가운데 좌측의 미 제1기병사단이 전곡-연천 도로를 따라 북서쪽의 임진강을, 중앙의 국군 제9사단이 향로봉-지장봉을 연하는 산악을 따라 고대산을, 미 제3사단이 운천-평강 도로를 따라 철원을, 그리고 우전방 미 제25사단이 도평-금성 도로를 따라 김화를 향해 각각 공격을 시작하였다.

군단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한 이후 미 제1기병사단은 적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전곡 북서쪽 지역의 임진강 일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군단의 중앙과 오른쪽 지역에서 공격하는 공격제대는 첫날부터 적의 완강한 저항과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공격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영평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향로봉과 지장봉을 거쳐 고대산을 목표로 공격하던 국군 제9사단의 공격이 지체되었다. 국군 제9사단은 적의 완강한 저항과 불리한 지형으로 인해 공격 첫날부터 악전고투하다가 공격개시 5일 만인 6월 7일에 향로봉과 지장봉을 점령하였다. 이후 국군 제9사단은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중공군 제65군단

예하 제165사단과 작전 개시 이래 최대 규모의 격전을 치른 후 6월 11일 사단의 우측에서 공격하던 미 제3사단과 신흥동 일대에서 연결함으로써 최종 목표인 고대산을 점령하고 와이오밍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군 제9사단의 우측에서 공격하는 미 제3사단과 미 제25사단은 6월 3일부터 8일까지 적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다소 고전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9일부터 추격작전에 들어가 6월 11일 철원-김화를 연결하는 와이오밍선의 왼쪽 절반 지역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무렵 미 제1군단 우측의 미 제9군단도 김화 동쪽의 와이오밍선을 점령함으로써, 미 제8군은 6월 11일을 기해 전곡-철원-김화-화천저수지에 이르는 와이오밍선 전체를 확보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6월 3일부터 전개된 와이오밍선 진격작전에서 미 제1군단은 공격개시 8일 만인 6월 11일 철원-김화 선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미 제1군단은 공산군의 병력·장비·물자가 집중된 철의 삼각지대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휴전협상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던 공산군 측이 적극적으로 휴전회담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후 미 제1군단은 와이오밍선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부대를 정비하는데 주력하였다.

### 참고문헌

Hq. EUSAK, "Command Report", June 1951, RG 407, NARA.  
 Hq. I Corps, "Command Report", June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⑩,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박동찬 집필】

## 신칸자스선 진출작전

[New Kansas Line 進出作戰, 1951. 6. 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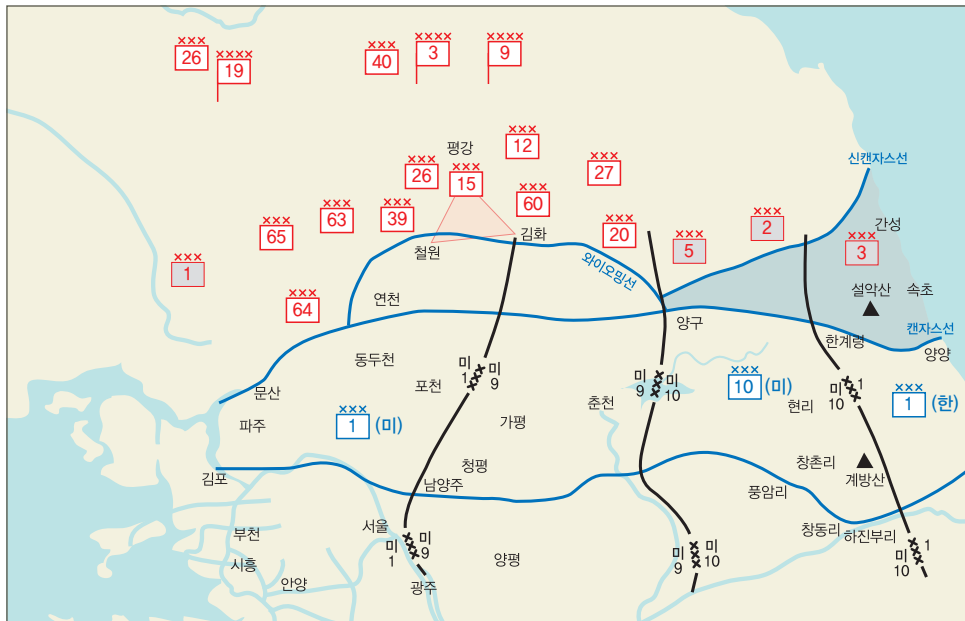
### 개요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1951년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파일드라이버 작전(Operation Pile Driver)'의 일환으로 화천저수지-해안분지(편치불) 남쪽-향로봉-거진으로 연결되는 신칸자스선(New Kansas Line)까지 진출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신칸자스선 진출작전이 전개된 지역은 화천저수지-원통-한계령-양양으로 이어지는 칸자스선의 북쪽에서부터 화천전수지-해안분지(편치불) 남쪽-향로봉-거진을 잇는 선의 남쪽까지를 포괄하고 있었다. 태백산맥 서쪽의 중동부 작전지역은 1,000m 이상의 고지들이 종횡으로 연결된 험준한 산악지대로 계곡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60°에 달하였다. 지역 내의 주요도로망은 양구-월운리-사태리-금강으로 이어지는 31번 도로와 원통-천도리-월산리로 이어지는 453번 도로가 남북을 연결하고 있었으며, 간성-인제-홍천으로 연결된 44번 도로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져 작전지역을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었다. 그리고 태백산맥 동쪽의 동해안 작전지역은 내륙과 단절된 별개의 전선을 형성하였다. 이 지역은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 있는 7번 도로가 주축을 이루고, 인제-양양 간 도로, 인제-속초 간 도로, 인제-간성 간 도로가 동서를 연결하고 있었다. 유엔군이 이 지역을 장악할 경우 46번 도로를 주보급로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성항구를 통해 보급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도로망이 결핍된 중동부전선의 군수지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1951년 5월 공세에 실패한 공산군은 주요 부대들을 후방으로 철수시켜 주력을 정비한 후 기회를 보아 유엔군을 섬멸한다는 이른바 ‘지구작전(持久作戰)’을 새로운 작전방침



으로 채택하였다. 중·조연합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5월 21일 예하부대에 위천리-연천-삭령-문혜리-산양리-양구-원통을 잇는 선의 북쪽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했고, 5월 23일부터 공산군 전선부대들의 철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빠르고 강력한 유엔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중·조연합사령부는 5월 27일 예하부대에 휴식과 정비 계획을 모두 중지하고 신속하게 방어로 전환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중공군 제63·제64·제15·제26·제20군과 북한군 제5·제2·제3군단 등 총 8개 군단이 임진강-한탄천 북쪽-지포리-화천-양구-간성을 연결하는 선에서 방어로 전환하였다. 이때 중동부와 동해안 전선은 중공군 제9병단 예하의 제26·제20군과 북한군 제5·제2·제3군단이 화천에서 간성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였다. 이들 중공군과 북한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하라”는 중·조연합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3선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유엔군의 예상 기동로에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유엔군 공격에 적극 대비하고 있었다.

1951년 5월 28일을 전후하여 캔자스선(Kansas Line) 진출에 성공한 유엔군은 캔자스선의 요새화와 방어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곡-철원-김화-화천을 연결하는 와이오밍선(Wyoming Line) 확보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은 ‘말뚝을 박듯이 전선을 튼튼히 한다’는 의미로 ‘파일드라이버 작전(Operation Pile Driver)’이라고 명명되었으며,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을 주공부대로 하여 6월 3일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중동부와 동해안 전선의 부대들이 46번 도로를 주보급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화천저수지-해안분지 남쪽-향로봉-거진을 연결하는 신캔자스선을 설정하고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에 게 이 선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의 신캔자스선 진출작전은 1951년 6월 4일 시작되었다.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7사단을 화천저수지 북쪽의 군량현으로, 미 해병 제1사단(국군 해병 제1연대 배속)을 양구 북쪽의 해안분지로, 국군 제5사단을 원통 북방의 서화리 일대로 각각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미 제10군단 우측의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이 신캔자스선에 위치한 간성을 이미 5월 29일에 점령하였기 때문에 이번 작전에서는 향로봉 일대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격에 나섰다.

미 제10군단의 신캔자스선 진출작전은 6월 4일 우전방 공격부대인 국군 제5사단의 서화리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국군 제5사단은 미 제2사단과 함께 캔자스선으로 진출하던 중 원통 부근에서 군단의 부대재배치 계획에 따라 미 제2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한 후 6월 4일 원통 북방 서화리 일대의 후덕리-981고지-산두곡산(1019고지)으로 연결된 신



캔자스선을 향해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때 국군 제5사단은 좌측에서 제27연대가 명당산-피양동-서화리-987고지 방향으로, 우측에서 제36연대가 향로봉산맥 서쪽의 1242고지-1122고지-산두곡산 방향으로 각각 공격하였다. 사단의 공격은 14일간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군 제5사단은 진출속도가 늦어 군단장으로부터 공격독촉을 받기도 하였다. 사단은 6월 17일 마지막 일전을 각오하고 적과 치열한 근접전투를 펼쳐 1122고지를 포함하여 서화리 일대의 후덕리-981고지-산두곡산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국군 제5사단이 서화리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에 미 제10군단의 좌전방 사단인 국군 제7사단도 군량현(양구 서북쪽 5km)에서 신캔자스선 진출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화천저수지 북쪽의 군량현을 향해 공격하게 된 국군 제7사단은 6월 6일 군단으로부터 신캔자스선 상의 마석봉-504고지(성골령)-757고지를 확보한 후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와 931고지에 강력한 정찰거점을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국군 제7사단은 산악지형의 협소한 기동공간을 고려하여 먼저 제5연대를 공격제대로 투입하고, 이어서 제3연대를 추가로 투입해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와 931고지 일대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제5연대는 6월 8일 마석봉-504고지-757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마석봉 이외에 나머지 공격목표를 점령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공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국군 제7사단은 작전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6월 10일 오전에 제3연대를 757고지 공격에 투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5연대를 757고지 좌측의 504고지 공격에 투입하였다. 이날(10일) 국군 제3연대는 2개의 특공대를 편성하여 공격로를 개척한 후 저녁 9시에 제1대대가 총공격에 나서 자정 무렵 757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앞서 제5연대도 공격목표인 504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6월 12일 공격을 재개하여 제3연대가 백석산(△1142) 능선의 917고지에, 제5연대가 백석산 남쪽의 731고지에 각각 진출함으로써 군단이 부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미 제10군단의 좌우측 사단인 국군 제7·5사단이 군량현과 서화리 일대에서 신캔자스선 진출작전을 전개하는 동안에 군단의 중앙 사단인 미 해병 제1사단은 6월 8일부터 양구 북방의 해안분지를 최종 목표로 하여 대암산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험준한 지형과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격 초기부터 미 해병 제5연대가 많은 인명손실을 입어 국군 해병 제1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6월 9일부터 공격에 나선 국군 해병 제1연대는 11일 새벽 2시에 연대 전 장병들이 공격에 나서 3시간의 혈전 끝에 대암산 점령에 성공하였다. 이어 국군 해병 제1연대는 6월 14일 미 해병 제1사단장으로부터 도솔산 점령 임무를 부

여받았다. 도솔산은 해안분지를 남쪽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전술상 요충지였다. 해병 제1연대는 6월 17일 공격을 개시하여 교통호를 구축하면서 적진으로 접근한 후 18일 야간 공격을 실시하여 다음날(19일) 새벽에 도솔산을 점령하였다. 국군 해병 제1연대가 대암산과 도솔산을 연이어 점령함으로써 미 해병 제1사단은 남쪽에서 해안분지를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미 제10군단 우측의 국군 제1군단은 신칸자스선 진출작전이 시작될 무렵 이미 목표지점에 근접해 있어 공격보다는 신칸자스선상의 진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국군 제1군단은 공산군의 춘계공세를 대관령 일대에서 저지하고 5월 26일 경강국도변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해 29일 오전 9시경 수도사단이 간성을 점령하였다. 다음날(30일)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국군 제1군단은 미 제10군단과의 전투지경선을 서쪽으로 10km 이동시키고, 예하 사단들의 책임지역을 일부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은 북에서 남으로 두무산(△1098)-대봉산-당정곡-안산-가리봉으로 이어지는 선이 되었으며, 수도사단이 향로봉산맥 일대를, 제11사단이 간성과 설악산 일대를, 제3사단이 마산리-가라피 지역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국군 제1군단 지역에서의 전투는 주로 향로봉산맥 일대에서 전개되었다. 향로봉산맥은 북쪽으로 남강, 서쪽으로 서화계곡을 통제할 수 있는 동부전선의 요충지였다. 이 지역을 담당한 국군 수도사단은 제1연대를 당정곡-칠절봉에, 제1기갑연대를 원봉 정면에, 제26연대를 향로봉-건봉령에 각각 배치한 후 전방지역에 대한 위력수색작전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6월 4일 북한군의 공격으로 국군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가 전초진지를 포기하고 주저항선으로 물러나자 국군 제1군단장은 부대배치를 일부 조정하여 신칸자스선(당정곡-향로봉-건봉령-거진)의 방어진지를 보강하였다. 북한군은 6월 8일부터 국군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가 방어 중인 향로봉과 그 북쪽의 1079고지를 집중 공격하였다. 이곳에서는 6월 12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피아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제1기갑연대는 6월 12일 북한군의 마지막 공격을 격퇴하고 향로봉과 1079고지를 굳건히 지켰으며 나아가 반격으로 전환하여 북한군의 거점인 산두곡산과 향로봉 서쪽의 940고지까지 점령하였다. 그 결과 국군 제1군단은 신칸자스선을 완전히 확보하고 향로봉산맥을 따라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6월 4일부터 전개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의 신칸자스선 진출작전은 6월 19일까지 미 제8군사령관이 설정한 신칸자스선(화천저수지-해안분지 남쪽-향로

봉-거진)을 모두 점령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중서부 전선의 와이오밍선과 중동부전선의 신캔자스선을 확보함으로써 한강하류-문산-전곡-연천-철원-김화-산양리-해안분지 남쪽-서화-거진 선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 선은 휴전에 대비한 유엔군의 방어선인 동시에 공산군을 휴전회담장에 끌어내기 위한 제한공격작전의 전진한계선이었다. 이후 유엔군은 이 선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장기간에 걸친 진지전과 고지쟁탈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Hq. EUSAK, "Command Report", June 1951, RG 407, NARA.  
 Hq. X Corps, "Command Report", May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1996.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 (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박동찬 집필]

## 대성산-취봉 진격전

[大成山-鷲峯 進擊戰, 1951. 6. 5. ~11.]

### 개요

중서부전선의 미 제9군단이 유엔군의 제3차 반격작전의 일환으로 1951년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김화와 화천 일대를 통제할 수 있는 대성산과 취봉을 점령하고 김화-화천저수지를 잇는 와이오밍선(Wyoming Line)으로 진격한 공격작전이다.

### 전개과정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과 화천군 상서면에 걸쳐 있는 대성산(△1175)은 김화와 와수리 일대의 교통요지를 통제할 수 있고, 오성산까지 감제관측이 가능한 지형지물로 이 지역 방어에 대단히 중요한 고지였다. 그리고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 위치한 취봉(사방거리 동북쪽 6km)은 화천저수지 북쪽에서 주변 도로를 감제할 수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김화-화천저수지를 잇는 와이오밍선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고지를 점령해야만 하였다.

중공군은 두 차례 춘계공세(4월·5월 공세)를 통해 우세한 병력만으로 유엔군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5월 공세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요 부대

들을 후방으로 철수시켜 주력을 정비한 후 기회를 보아 유엔군을 섬멸한다는 이른바 ‘지구작전(持久作戰)’을 새로운 작전방침으로 채택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5월 23일부터 공산군 전선부대들의 철수가 시작되었다. 이때 중동부전선의 중공군 제3병단(제15·제39·제60군)과 제9병단(제12·제20·제27군)은 주력을 철원-김화-화천 북쪽에서 휴식과 부대정비를 실시하게 하고, 제60군과 제20군을 각각 철원과 화천 방면에 전진 배치하여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할 계획이었다. 중공군 제3병단과 제9병단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김화-대성산-백적산(대성산 동남쪽 12km)-지암리(백적산 남쪽 20km)로 연결된 전투지경선(戰鬪地境線)을 사이에 두고 각각 좌우측 지역을 담당하였다.

1951년 5월 28일을 전후하여 캔자스선(Kansas Line) 진출에 성공한 유엔군은 캔자스선의 요새화와 방어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전곡-철원-김화-화천을 연결하는 와이오밍선(Wyoming Line)을 확보하여 캔자스선과 이중 방어선을 형성할 예정이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으로 와이오밍선까지 진격하는 제한된 공격작전인 ‘파일드라이버 작전(Operation Pile Driver)’을 계획하였다. 이 때 파일드라이버 작전의 우측 공격부대인 미 제9군단에게는 김화에서 화천저수지로 연결되는 와이오밍선 우반부(右半部)를 점령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미 제9군단은 6월 5일 3개 사단을 동시에 투입해 공격을 시작하였다. 서쪽에서는 국군 제2사단이 사창리-다목리-김화에 이르는 계곡 통로의 험준한 좌우측 능선을 따라 공격하고, 중앙에서는 미 제7사단이 화천-김화 도로를 따라서, 그리고 동쪽에서는 국군 제6사단이 백암산(△1179)에서 화천으로 뻗어 내린 취봉-992고지-887고지-643고지로 연결된 일련의 종격실(縱隔室) 능선을 따라서 공격하였다.

미 제9군단의 좌전방 공격부대인 국군 제2사단은 6월 5일 제31연대와 제17연대를 각각 좌우측 공격부대로 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사단은 6월 6일 제31연대가 복주산 일대에서 중공군과 7회에 걸친 공방전을 전개할 만큼 공격 초기부터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날(6일) 제31연대는 복주산 일대의 적을 격퇴한 후 그 북쪽의 853고지를 기습 공격하여 중공군 113명을 사살하고 20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를 동안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친 제31연대는 853고지 전투가 끝난 후 사단 예비인 제32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좌측 공격부대의 교대가 완료된 후 공격을 재개한 국군 제2사단은 그 동안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진격하던 우측의 제17연대가 대성산 서남쪽 약 2km 지점의 1041고지에서 중공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이때 제17연대는 제2대대가 과감한 돌격작전을 전개하여 1041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국군 제2사단이 대성산 공격의 발판이 되는 복주산과 1041고지를 점령하자 중공군은

지연전을 전개하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추격작전으로 전환한 국군 제2사단은 좌측의 제32연대가 6월 10일 육단리 부근을 점령한데 이어 우측의 제17연대가 11일 대성산을 확보하고 김화-화천 도로까지 진출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2사단의 우인접 부대로 군단작전의 중앙지역을 담당한 미 제7사단도 마현리-사방거리를 잇는 도로변까지 진출하였다. 미 제7사단은 6월 7일과 9일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들을 격퇴하고 공격을 계속하여 6월 10일 마현리-사방거리 선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은 와이오밍선 진출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한편 미 제9군단의 공격제대 중 가장 격렬하게 전투를 치른 부대는 우측에서 공격을 실시한 국군 제6사단이었다. 사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20군이 취봉(△989) 일대에 3개 연대 규모를 투입하여 단계적인 지연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사단은 좌측의 제7연대가 643고지(화천 북쪽 7km)-887고지-992고지-취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공격하고, 우측의 제19연대가 화천저수지 북쪽의 감제고지인 일산(△1190)과 재안산(△1034)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하였다. 우측에서 공격한 제19연대는 삼면으로 둘러싼 북한강으로 인해 퇴로차단의 위협을 느낀 중공군이 쉽게 퇴각함으로써 6월 8일 목표물 점령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좌측의 제7연대는 공격개시부터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연대는 6월 6일 제1공격목표인 643고지를 측방포위공격으로 점령하였지만, 제2공격목표인 887고지를 점령하는데 3일이나 걸렸다. 당시 887고지에는 중공군 연대 규모의 병력이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서 국군 제7연대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제7연대는 뺏고 빼앗는 격전 끝에 6월 9일 정오 무렵 887고지를 점령했고, 이를 계기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공격 5일째인 6월 10일 3개 대대가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지형상의 불리를 극복하며 연대 규모의 중공군을 격퇴하고 취봉 일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6사단은 와이오밍선을 확보하고 백암산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 참여한 중공군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취봉 북쪽 약 6km 지점에 위치한 백암산으로 퇴각하였다. 국군 제2·제6사단과 미 제7사단이 전개한 미 제9군단의 와이오밍선 진격작전은 6월 11일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6월 5일부터 전개된 와이오밍선 진격작전에서 미 제9군단은 공격개시 6일 만인 6월 11일 김화-화천전수지 선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미 제9군단의 와이오밍선

진출은 유엔군이 지역 내의 주요 감제관측 고지인 대성산과 취봉을 점령하여 김화와 화천 북방의 통제를 가능하게 했으며, 또 우측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의 신칸자스선(화천저수지-해안분지 남쪽-향로봉-거진) 진출작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미 제9군단은 와이오밍선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부대를 정비하는데 주력하였다.

#### 참고문헌

Hq. EUSAK, "Command Report", June 1951, RG 407, NARA.  
 Hq. IX Corps, "Command Report", June 1951, RG 407, NARA.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⑨, 20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2006.

【박동찬 집필】

## 노전평 전투

[廬田坪 戰鬥, 1951. 8. 9. ~9. 18.]

### 개요

국군 제8사단이 휴전회담 직후 유엔군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목표 공격’의 일환으로 1951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서화계곡의 노전평 부근에서 북한군 제2군단 제2·제13사단 및 제3군단 제15·제45사단과 3차에 걸쳐 전개한 고지쟁탈전이다.

### 전개과정

노전평 일대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과 고성군 수동면 지역으로 태백산맥의 서쪽에 형성된 서화계곡을 중심으로 한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이 지역은 서화계곡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남북으로 길게 뻗은 2개의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쪽 능선은 북으로부터 간무봉-812고지-달산령-793고지를 지나 907고지로 이어지며, 동쪽 능선은 854고지-1031고지-1056고지를 지나 981고지로 이어져 있다. 서쪽 능선 좌측에는 해안분지(편치불)가 자리하고, 서쪽 능선 우측으로는 향로봉 산줄기가 남으로 뻗어 내리고 있었다. 두 능선상의 고지들은 지대내의 감제고지로서 뿐만 아니라 서화계곡의 통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제2사단이 서화계곡 도로와 그 서쪽에, 제13사단이 제2사단 동쪽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북한군 제2·제13사단은 휴전회담으로 전선이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주방어진지는 물론 예비진지도 강력한 포격에 견딜 수 있는 유계호

(有蓋壺)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식량과 탄약 보급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휴전회담으로 전선이 소강된 상태를 이용해 전선 정비와 전력 강화에 주력한 공산군과는 달리 유엔군 내에서는 휴전을 갈망하는 심리로 은연 중 전투를 회피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에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1951년 7월 하순에 유엔군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목표공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은 유엔군의 방어선 중 남쪽으로 처진 만곡부(彎曲部)를 밀어 올려 방어선을 개선하는데 있었다. 특히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는 해안분지를 탈취하는 것이 이 작전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크리퍼 작전(Operation Creeper)’으로 명명된 이 작전은 해안분지의 서쪽에서 미 제10군단 예하의 미 제2사단이 피의 능선을, 동쪽에서 국군 제8사단이 노전평 일대를 공격하고, 미 제10군단 우측에서 국군 제1군단이 향로봉 일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때 미 제10군단의 우측 공격부대로 국군 제8사단이 서화계곡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전평 일대를 공격하게 되었다. 국군 제8사단의 공격목표는 서화계곡 통로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에서부터 1031고지-965고지-854고지로 이어지는 종격실(縱隔室) 능선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국군 제8사단의 공격은 1951년 8월 9일 오전 5시 노전평의 북한군 전초진지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북한군의 전초진지는 철미동 남쪽 약 1.5km 지점의 445고지에서부터 동쪽으로 562고지-785고지-1010고지로 연결된 횡격실(橫隔室) 고지군이었다. 이날 국군 제8사단은 제16연대 제3대대가 445고지를, 전차대대가 562고지와 785고지를, 그리고 제10연대 제3대대가 1010고지를 공격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격렬히 저항하는 북한군 제2사단과 제13사단의 전초부대를 격퇴하고 공격 첫날 전차대대가 562고지를 점령한데 이어 둘째 날(10일) 나머지 목표들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의 역습도 만만치 않아 한때 785고지와 1010고지가 북한군에게 피탈되기도 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8월 13일 전차대대와 새로 투입된 제10연대 제1대대가 피탈된 고지탈환에 나서 14일까지 785고지와 1010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 전초진지를 완전히 장악하고 제1차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군 제8사단이 제1차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8월 16일 미 제10군단장은 국군 제8사단에 18일 오전 6시를 기해 1031고지와 965고지를 목표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군단장은 사단에 국군 제5사단 제27연대를 배속시켰다. 국군 제8사단은 8월 18일 오전 6시 제10연대가 주공으로 1031고지를, 제21연대 제3대대가 조공으로 965고지를 각각 공격하였다. 제10연대는 북한군 제13사단의 완강한 저항을 물

리치고 8월 20일 1031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4일에 걸쳐 965고지를 공격한 제21연대 제3대대는 북한군 제2사단의 집요한 저항으로 목표 점령에 실패하고 임무를 제16연대 제2대대에 인계하였다. 8월 22일 공격을 개시한 제16연대 제2대대는 다음날(23일) 치열한 백병전 끝에 965고지를 점령했으나, ‘김일성 고지’라 칭할 정도로 965고지의 전술적 가치를 높게 여기고 있던 북한군의 역습으로 이날 밤 고지를 다시 상실하였다. 제16연대 제2대대는 8월 24일 오전에 공격을 재개하여 우측의 제10연대 제1대대와 배속된 사단수색중대의 지원 아래 격렬히 저항하는 북한군을 격퇴하고 마침내 965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8사단은 지역 내의 감제 고지를 대부분 확보하고 제2차 작전을 종료하였다.

국군 제8사단이 두 차례 공격전투를 통해 전선을 약 2km 북상시킨 후 전선의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군의 부대교대가 실시되어 북한군 제3군단 예하의 제15사단이 854고지 일대에 배치되었다. 국군 제8사단장은 854고지를 탈취하여 북한군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결심하였다. 854고지는 소양강과 남강 지류의 분수령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감제고지로 사단 방어선을 남강 남쪽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형이었다.

국군 제8사단은 9월 10일 오전 6시를 기해 3개 연대가 동시에 공격을 개시해 11일까지 854고지를 제외하고 주변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9월 12일부터 미 해군의 함포지원 아래 완강히 저항하는 북한군을 격퇴하면서 854고지 정상 부근의 6개 봉우리를 하나씩 점령해 들어갔다. 9월 16일 북쪽 봉우리를 점령한 이후 국군 제8사단은 9월 18일까지 6개의 봉우리를 모두 점령하고 마침내 854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8사단은 미 제10군단장이 부여한 1031고지-965고지-854고지 점령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제3차 작전을 종료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3차에 걸친 노전평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군단이 부여한 목표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서화계곡 도로망을 확보하여 해안분지를 공격하는 군단 주공부대의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 4,324명을 사살하고, 포로 256명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전사 540명, 실종 124명, 부상 2,464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노전평 전투 이후 국군 제8사단은 9월 22일 방어지역을 미 해병 제1사단에 인계하고 양구지역으로 이동하여 백석산 전투에 참가하였다.



#### 참고문헌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 (56), 19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국방군사연구소, 『노전평전투』, 1992.

【박동찬 집필】

## 924고지 전투

[924高地 戰鬪, 1951. 8. 18. ~23.]

### 개요

육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이 유엔군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목표 공격’의 일환으로 1951년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북한군 제2군단 예하 제13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강원도 고성군의 924고지-1000고지-751고지를 탈환한 공격전투이다.

### 전개과정

924고지는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과 인제군 서화면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로봉에서 서북쪽으로 약 7km 떨어져 있었다. 924고지 주변은 모두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 약 1km지점에는 북쪽에서 남강에 합류하는 소하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924고지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1000고지(924고지 북쪽 750m), 751고지(1000고지 북쪽 1km), 884고지(751고지 북쪽 1.2km)가 연이어 있으며, 남쪽에는 1031고지(924고지 남쪽 3km)가, 남서쪽에는 1056고지(924고지 남서쪽 5km)와 965고지(924고지 남서쪽 4km)가 있다. 이들 고지들을 연결하면 ‘남시 바늘(J-Ridge)’ 형상이 되었으며, 그 중 924고지는 ‘남시 바늘’ 허리의 중심부에 해당되었다. 이 고지들을 유엔군이 점령할 경우, 서화계곡의 기동로를 확보하고, 남강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까지 밀어 올려 동쪽 측방에서 해안분지를 압박할 수 있었다.

당시 북한군은 924고지와 884고지에 제2군단 예하의 제13사단을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군 제13사단 좌측에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2사단이 1031고지-965고지를, 우측에는 북한군 제3군단 예하의 제45사단이 884고지를 각각 방어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13사단은 제19연대가 924고지를, 제21연대가 751고지를 방어하고, 예비대가 서북쪽의 무명고지에서 증원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북한군 제13사단은 5월 공세 당시 전력의 손실이 없어 대체로 양호한 전력을 유지하였는데, 총병력이 약 5,500명이었으며, 야포 1개 대대가 사단을 직접 지원하였다.



시 바늘' 능선의 허리에 해당하는 924고지-751고지에 대한 공격을 담당하게 되었다. 수도사단의 우측에서는 국군 제11사단이 751고지 북쪽의 884고지를, 좌측에서는 국군 제 8사단이 노전평의 1031고지를 각각 공격할 예정이었다.

국군 수도사단의 924고지-751고지 공격은 1951년 8월 18일 오전 6시 제26연대가 동쪽 방면에서 924고지와 751고지를 동시에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공격 첫날 국군 제 26연대는 제2대대가 924고지 점령에 성공하였으나 곧 이은 북한군의 역습으로 709고지(924고지 동쪽 2km)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이날(18일) 751고지를 공격한 제3대대도 고지 동남쪽 500m까지 진출하여 좌우 양측에서 포위공격을 가했으나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고지 점령에 실패하고 철수하였다. 제26연대는 다음날(19일)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924고지와 751고지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치열한 공방전만을 전개하고 고지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그동안 북한군 제13사단은 계속해서 예비대를 증원하여 924고지와 751고지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이틀간의 공격에도 목표 점령에 실패한 국군 제26연대는 8월 20일부터 예하의 모든 병력을 공격에 투입하였다. 이날(20일) 제26연대의 제1대대는 924고지를, 제2대대는 924고지 좌측으로 우회하여 제1대대의 공격을 지원한 후 계속해서 751고지를 그리고 제3대대는 연대특공대와 함께 924고지와 751고지 사이에 있는 1000고지(924고지 북쪽 750m)를 각각 목표로 공격에 나섰다. 924고지 공격에 나선 제1대대는 제2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격렬히 저항하는 북한군과 5회에 걸친 백병전 끝에 이날 오후 6시 30분경 고지 탈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924고지 좌측으로 우회하여 751고지를 공격한 제2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으로 765고지(924고지 서북쪽 1km)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했으며, 1000고지를 목표로 공격한 제3대대도 북한군의 집중 포격으로 진로가 차단되어 목표 점령에 실패하였다.

국군 제26연대는 8월 21일 924고지를 거점으로 하여 제1·제2대대가 765고지를, 제3대대가 1000고지를 목표로 동시 공격에 나섰다. 이날 제1·제2대대는 북한군 제21연대 1개 대대 병력의 강력한 저항을 격퇴하고 765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1000고지를 공격한 제3대대는 하루 종일 격전을 벌였음에도 고지 점령에 실패하고 924고지로 철수하였다. 다음날(22일) 국군 제26연대는 3개 대대를 모두 1000고지 공격에 투입하였다.

8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1000고지 공격은 제3대대가 주공으로 정면을 담당하고, 제1대대와 제2대대가 각각 좌우측에서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주공부대인 제3대대는 정오 무렵 1000고지 중간지점에 진출한 후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진격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연대특공대 1개 소대와 각 중대에서 지원한 결사대원 30명을 진두지휘하여 적진으로 돌격하였다. 이들 결사대는 수류탄전과 백병전을 전개하면서 적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였고, 이를 계기로 제3대대가 총공격에 나서 오후 4시 30분경 마침내 1000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

계획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탈취한 국군 수도사단 제26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8월 23일 오후 1시에 작전지역을 제1기갑연대에 인계하고 향로봉과 산두곡산(향로봉 동남쪽 5km)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5일 동안 전개한 국군 수도사단의 924고지 전투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924고지 전투에서 국군 수도사단은 북한군 645명을 사살하고, 포로 7명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 국군 수도사단은 전사 47명, 부상 418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국군 수도사단의 924고지-1000고지-751고지 점령은 캔자스선에 대한 적의 위협을 제거함은 물론 유엔군이 해안분지 동쪽의 기동로인 서화계곡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무렵 국군 수도사단 우측에서는 국군 제1군단 예하의 국군 제11사단이 884고지(751고지 북쪽 2km)를 8월 24일에 점령하고, 좌측에서도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 제8사단이 노전평 전투에서 같은 날(24일) 1031고지-965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미 제8군사령관이 계획한 크리퍼 작전의 핵심인 낚시 바늘 능선 탈취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국군 수도사단은 전방지역에 대한 위력수색작전과 함께 주방어선 진지강화에 주력하였다.

### 참고문헌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수도사단 기갑, 제1, 제26연대)』 (42), 19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권, 20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6권, 1973.

【박동찬 집필】

## 884고지 전투

[884高地 戰鬪, 1951. 8. 18. ~29.]

### 개요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제11사단이 유엔군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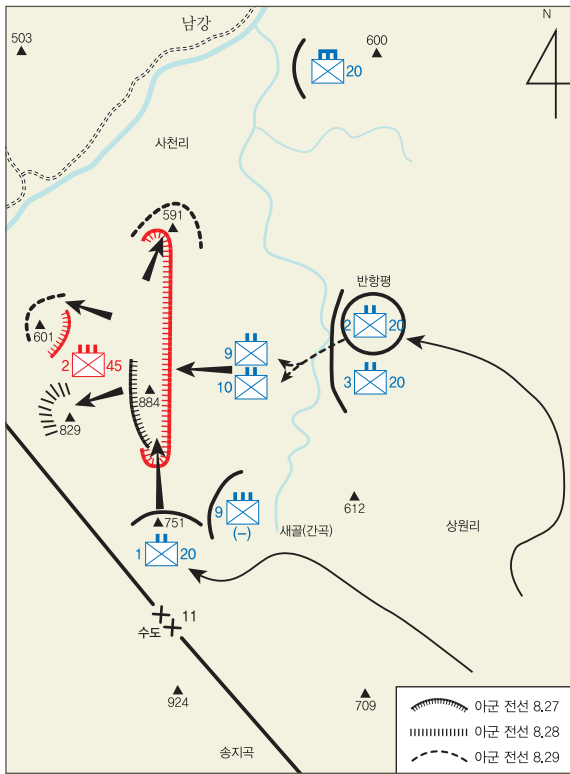
표공격'의 일환으로 1951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북한군 제3군단 예하 제45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강원도 고성군의 884고지-591고지를 탈환한 공격전투이다.

**전개과정**

884고지는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로봉에서 서북쪽으로 약 9km 떨어져 있다. 884고지 주변은 모두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동쪽 약 2km지점에는 북쪽에서 남강에 합류하는 소하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884고지에서 북쪽으로 약 1.8km 지점에는 591고지가 있으며, 북서쪽으로 약 1km 지점에는 602고지가 있었다. 남북으로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한 884고지-591고지와 서쪽의 602고지를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을 띠었다. 884고지 남쪽에는 751고지-1000고지-924고지-1031고지-1056고지-965고지가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고지들을 연결하면 '낙시 바늘(J-Ridge)' 형상이 되었다. 그 중 884고지-591고지는 '낙시 바늘' 능선의 윗부분에 해당되었다. 이 고지들을 유엔군이 점령할 경우, 서쪽의 서화계곡과 북쪽의

남강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쪽 측방에서 해안분지를 압박할 수 있었다.

당시 북한군은 884고지 일대에 제3군단 예하의 제45사단을 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군 제45사단 좌측에는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3사단이 751고지-954고지를 방어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45사단은 휴전회담으로 전선이 소강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이용하여 주방어진지는 물론 예비진지도 강력한 포격에 견딜 수 있는 유개호(有蓋壘)를 구축하고, 진지 전방에 지뢰와 철조망을 설치하여 유엔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45사단의 전력은 전투병력 약 6,500명



과 연대 당 박격포 14문, 75mm 직사포 8문, 중기관총과 경기관총 20정을 보유하고, 122mm 야포 1개 대대가 사단을 직접 지원하였다.

한편 유엔군은 1951년 7월 29일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목표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30년 이래 최악의 장마가 겹치면서 유엔군의 공격은 7월 31일 일시 중단되었다가 8월 중순에 재개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은 8월 14일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에 해안분지 공격의 전(前) 단계 작전으로 ‘크리퍼 작전(Operation Creeper)’을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해안분지 동쪽의 기동로인 서화계곡을 확보하기 위해 884고지-751고지-924고지-1031고지-965고지로 이어지는 ‘낙시 바늘’ 형상의 종격실 능선을 탈취하는 것이었다. 이때 국군 제1군단의 우측 공격부대로 국군 제11사단이 ‘낙시 바늘’ 능선의 가장 윗부분에 해당하는 884고지 일대의 공격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군 제11사단의 공격은 1951년 8월 18일 오전 6시 포병과 동해안의 유엔 해군으로부터 화력지원을 받으며 제9연대가 884고지와 591고지를 동시에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공격 첫날 국군 제9연대는 제1대대가 정오경 백병전 끝에 884고지를 점령하였으나 일몰 직후 3개 제대로 파상공격을 가하는 북한군의 역습으로 고지점령을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그리고 이날(18일) 591고지를 공격한 연대특공대도 3차례 돌격을 시도하였으나 목표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제9연대는 8월 19일과 24일 두 차례 더 884고지 점령에 성공하였지만, 그때마다 북한군의 대규모 역습으로 다시 피탈당하기를 반복하면서 많은 인명손실을 입었다.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의 공격에서 국군 제9연대가 입은 인명손실은 전사 65명, 실종 44명, 부상 322명이었다.

제9연대가 3번이나 884고지를 점령하고도 번번이 북한군의 역습에 고지를 피탈당하고 많은 병력손실을 입게 되자, 사단장 오덕준 준장은 8월 26일 제9연대를 대신하여 제20연대를 공격에 투입하였다. 제20연대는 제3대대를 703고지(884고지 동북쪽 3km)로 이동시켜 동쪽에서 884고지를 공격하게 하고, 제1대대를 751고지(884고지 남쪽 1.2km)로 추진시켜 884고지 서쪽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에는 703고지에서 출동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제3대대와 제1대대가 884고지를 탈취하면 602고지(884고지 북서쪽 1km)와 591고지를 목표로 공격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제20연대는 8월 26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공격대기선으로 이동한 후 사단과 군단포병의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오전 6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동쪽에서 공격한 제3대대는 북한군의 집중 사격을 뚫고 한걸음씩 전진하여 백병전을 전개한 끝에 884고지의 북반부(北半部)를 탈환하였다. 이 무렵 751고지에서 공격한 제1대대도 능선을 타고 884고지 8부 능선까지 진출한 후 제3중대의 돌격으로 북한군 진지 일부가 무너지자 일제히

공격을 가해 884고지를 탈환하였다. 제20연대는 884고지를 점령한 후 예비인 제2대대를 투입해 8월 29일 602고지와 591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1사단은 네 번째 점령 끝에 884고지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884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11사단은 북한군 1,252명을 사살하고, 포로 31명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 국군 제11사단은 전사 125명, 실종 44명, 부상 500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국군 제11사단의 884고지-591고지 점령은 캔자스선에 대한 적의 위협을 제거함은 물론 유엔군이 해안분지 동쪽의 기동로인 서화계곡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국군 제11사단은 8월 30일부터 9월 초까지 계속된 북한군의 역습을 저지하고 884고지-591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였다. 그 결과 국군 제11사단은 전초선을 남강 남쪽의 884고지-591고지-600고지-작은 까치봉까지 추진하여 방어선을 개선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11사단 제20연대)』 (60), 19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권, 201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6권, 1973.



【박동찬 집필】

## 피의 능선 전투

[血의 稜線 戰鬥, 1951. 8. 18. ~9. 5.]

### 개요

미 제2사단과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휴전회담 직후 1951년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일대의 피의 능선(731고지-983고지-940고지-773고지)을 공격하여 북한군 제12사단과 제27사단을 격퇴한 전투이다.

###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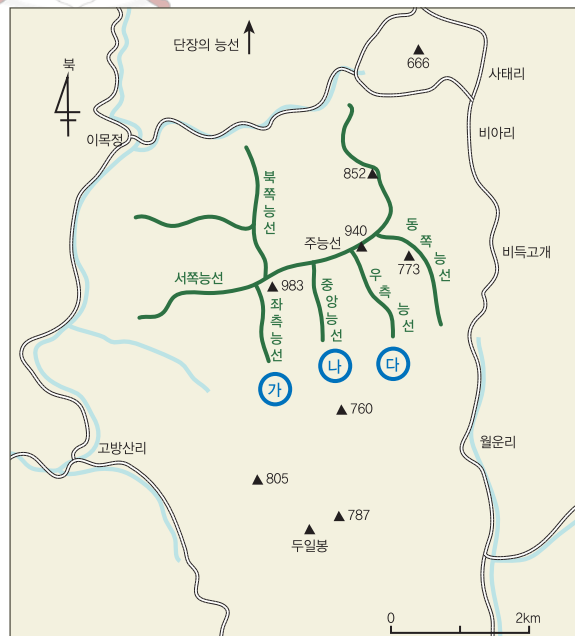
피의 능선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 문동리와 사태리 계곡의 중간에 위치한 731고지-983고지-940고지-773고지로 이어지는 8km 길이의 횡격실(橫隔室) 능선으로 남쪽으로 급경사를 이루어 남쪽에서 공격할 경우 대단히 불리한 지형이었다. 당시 피의 능선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북한군은 유엔군 방어선인 캔자스선과 그 후방지역을 감제 관측하여 부대 이동을 비롯한 모든 군사 활동을 포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엔군의 입장에서 볼 때, 방어진지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장차 공격작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의 능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당시 북한군은 피의 능선 서측에 북한군 제12사단 제1연대를, 동측에 제27사단 제14연대를 배치하여 2개 사단의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북한군은 강력한 포격에도 견딜 수 있는 유개호(有蓋壘)를 구축하고 고지 후사면에도 교통호를 준비하였으며, 진지 전방에도 5천여 발의 지뢰를 매설하여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다.

미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중장은 1951년 7월 하순에 유엔군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목표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에게 해안분지(편치벌) 탈취를 명령하였다. ‘크리퍼 작전(Operation Creeper)’으로 명명된 이 작전은 해안분지의 서쪽에서 미 제10군단 예하의 미 제2사단이 피의 능선을, 동쪽에서 국군 제8사단이 노전평 일대를 공격하고, 미 제10군단 우측에서 국군 제1군단이 향로봉 일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크리퍼 작전은 7월 29일 시작되었지만, 30년 이래 가장 심한 장마로 인해 7월 31일 취소되었다가 8월 18일 재개되었다. 이때 미 제2사단은 배속된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를 투입해 피의 능선 주봉인 983고지를 목표로 공격하게 하였다.

피의 능선 전투는 1951년 8월 18일 오전 6시 30분 미 제10군단과 미 제2사단의 7개 포병대대 126문의 야포가 피의 능선 일대에 가공할 만한 공격준비사격을 30분간 실시한 후 공격부대인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오전 7시에 일제히 공격에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국군 제36연대는 미 제2사단의 강력한 화력지원으로 쉽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 공격제대인 제2·제3대대는 포복과 근접전투를 병행하면서 전





진했지만, 북한군의 지뢰와 화력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고 공격이 지지부진하였다. 이날(18일) 국군 제36연대는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으며 야간 공격까지 전개하였지만 끝내 고지 점령에는 실패하였다. 연대의 과감한 돌격작전은 19일에도 계속되었으나 “힘준한 산악지역에 구축된 적의 요새진지는 화력과 정면공격만으로는 점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모든 공격이 실패로 끝났다.

정면공격만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국군 제36연대는 8월 20일부터 정면 공격과 우회공격을 병행하고 983고지 공격의 발판이 되는 동쪽 능선상의 773고지(983고지 동쪽 약 2.5km)와 940고지(983고지 동쪽 약 1.5km)를 먼저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날 연대는 773고지 후방으로 침투한 제2대대 제5중대의 후방 기습공격과 제1대대 제2중대의 정면공격으로 새벽 2시에 773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공격의 발판을 확보한 제36연대는 제1대대의 3개 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시켜 940고지 공격에 투입하였다. 제2대대는 치열한 전투를 반복한 끝에 공격 4일째인 8월 21일 저녁 8시 940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

국군 제36연대 제2대대의 940고지 점령은 제2대대 좌측에서 주봉인 983고지를 공격하던 제3대대의 공격에 활로를 제공하였다. 제3대대는 제11중대를 제2대대가 점령한 940고지 방면으로 우회시켜 983고지 후사면에서 기습공격을 가하였다. 이 공격으로 북한군은 퇴로차단을 우려하여 북서쪽으로 도주하였으며, 제36연대는 8월 22일 오전 11시 30분경 마침내 983고지 정상에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공격 5일 만에 피의 능선을 점령한 국군 제36연대는 방어로 전환했지만 전투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6연대는 8월 26일 북한군 1개 연대 규모의 공격을 받고 983고지 일대에서 포위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결국 8월 27일 밤 국군 제36연대는 피의 능선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다음날(28일) 국군 제36연대는 미 제2사단에서 배속이 해제되었다.

점령한 지 6일 만에 피의 능선이 피탈되자 미 제10군단장 바이어(Clovis E. Byers) 소장은 공격목표를 피의 능선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군단의 전 정면에서 동시공격으로 적을 압박해 피의 능선을 장악한다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은 8월 31일 오전 6시에 가용한 전 부대를 투입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때 미 제2사단에서는 제38연대가 가칠봉 일대를, 제9연대가 피의 능선 일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공격상황은 전과 다르지 않았으며, 9월 초순에 접어들어서도 피의 능선에서의 공격은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던 중 미 제2사단의 피의 능선 점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피의 능

선 좌측에서 공격하는 국군 제7사단과 우측에서 공격하는 미 제38연대의 공격이 호조를 보이면서 피의 능선에 배치된 북한군이 후방 차단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9월 3일을 기해 북한군은 피의 능선에서 약 6km 북쪽에 위치한 단장의 능선 지역으로 은밀히 철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 제9연대는 조심스러운 전진을 계속해 9월 5일 오후 2시경 피의 능선 주봉인 983고지를 무혈입성하게 되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8월 18일부터 미 제2사단과 배속된 국군 제36연대가 전개한 피의 능선 전투는 미 제2사단 제9연대가 9월 5일 피의 능선 주봉인 983고지를 무혈점령하면서 18일간의 혈전을 종료하게 되었다. ‘피의 능선’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 전투에서 북한군과 유엔군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다. 전선이 교착된 지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강력하게 편성된 북한군 진지에 대한 유엔군의 공격에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북한군의 저항이 맞부딪치면서 2만 여명에 달하는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북한군은 1만 5,000명 이상의 인명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유엔군은 741명(국군 154명, 미군 587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으며, 2,032명(국군 816명, 미군 1,216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피의 능선(Bloody Ridge)’이라는 명칭은 종군기자들이 ‘피로 얼룩진 능선’이라는 뜻으로 기사화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전투 이후 미 제2사단은 9월 12일부터 피의 능선 북방 약 6km 지점에 위치한 단장의 능선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에 들어갔다.

### 참고문헌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6연대)』 (52), 19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육군군사연구소, 『1129일간의 전쟁 6·25』 (대전 : 육군본부, 2014).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박동찬 집필】



## 가칠봉지구(1211고지) 전투

[加七峰地區[1211高地] 戰鬪, 1951. 8. 31. ~ 10. 14.]

### 개요

미 제10군단 예하의 국군 제5사단이 유엔군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 목표공격’의 일환으로 1951년 8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가칠봉 서북쪽 약 1km지점

의 1211고지를 공격하여 북한군 제27사단과 증원부대인 북한군 제2·제13사단 병력을 격퇴하고 목표를 점령한 공격전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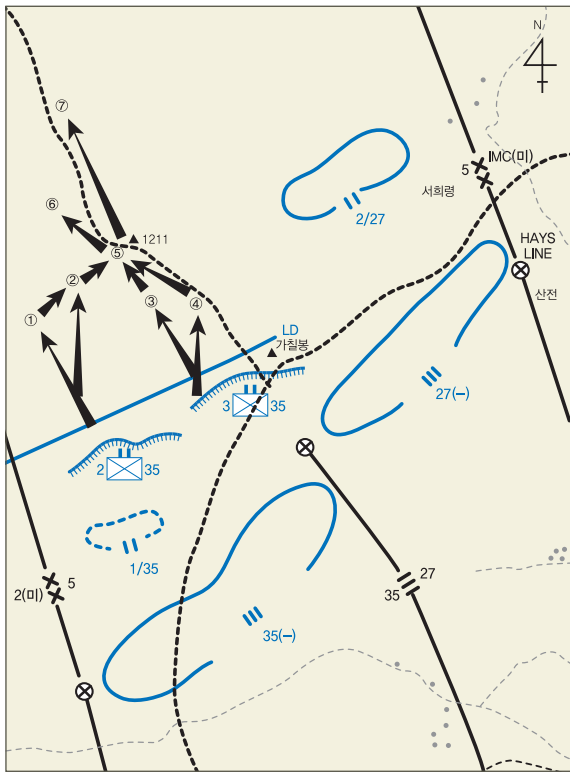
**전개과정**

1211고지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가칠봉(△1242)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봉(△1290)-가칠봉-대우산(△1178)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한 봉우리이다. 1211고지는 지형상으로 가칠봉에서 감제되지만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으며, 서남쪽으로 1211고지-1052고지(1211고지 서남쪽 1.8km)-841고지(1052고지 서남쪽 1.2km)로 연결된 능선은 사태리 작전로를 통제하고 단장의 능선을 동쪽에서 엄호할 수 있는 전술적 요충지였다.

1121고지를 비롯한 해안분지 일대는 북한군 제2군단이 전담하던 지역이었으나 1951년 8월 말 재편성을 완료한 북한군 제6군단이 동해안 지역에 투입되면서 방어정면이 조정되어 해안분지 서쪽을 북한군 제2군단이, 동쪽을 북한군 제3군단이 각각 방어하게 되었다.

이때 가칠봉 부근은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27사단이 담당하였다.

이 무렵 미 제10군단장 바이어(Clovis E. Byers) 소장은 1951년 8월 27일 북한군이 국군 제5사단 제36연대가 점령하고 있던 피의 능선을 탈취하자, 미 제2사단에 즉각 반격을 지시하고 군단 예비인 미 해병 제1사단과 국군 제5사단을 캔자스선에 배치시켰다. 미 제10군단장의 작전개념은 각 사단의 전투정면을 조정하면서 해안분지(편치봉)를 석권하여 헤이스선(박달치-가칠봉-서희령-성남동)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해안분지 동쪽을 점령한 국군 제8사단과 전선을 가지



런히 하고 피의 능선을 공격하는 미 제2사단의 동쪽을 엄호하는 동시에 피의 능선 북쪽의 고지군에 거점을 둔 적을 압박하려는 포석이었다. 이때 국군 제5사단은 군단으로부터 헤이스션 부근의 가칠봉 동북쪽 능선-서희령(가칠봉 동북쪽 2km)을 점령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국군 제5사단의 공격은 1951년 8월 31일 오전 6시에 시작되었다. 국군 제5사단은 제27연대가 좌측의 미 제2사단 제38연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해안분지 서쪽 고지들을 차례로 점령하고 9월 3일 사단목표인 가칠봉 동북쪽 능선과 서희령을 점령했다. 사단은 다음날(4일) 미 제2사단과의 전투지경선 조정으로 미 제38연대로부터 가칠봉을 인수하고 군단으로부터 1121고지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고지의 공격은 해안분지의 안전한 확보와 미 제2사단의 전투를 지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국군 제5사단은 제27연대가 공격부대로 9월 5일 오전 8시에 1211고지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제27연대의 공격은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사단에서는 제27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제35연대를 추가로 투입해 1211고지 서남쪽 500m 지점의 무명고지를 점령하게 하였다. 부대배치 조정과 공격준비를 마친 국군 제5사단은 9월 9일 새벽 5시 공격을 재개해 이날 오후 4시 15분에 1211고지 정상에 점령하였다. 이것이 국군 제5사단의 1211고지 제1차 점령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전개된 북한군의 역습으로 국군 제5사단의 공격부대들은 1211고지 서남쪽 능선과 가칠봉으로 다시 철수하였다.

1211고지 제1차 점령 당시 국군 제5사단을 역습한 북한군은 제27사단과 임무교대를 위해 투입된 북한군 제13사단 제23연대였다. 이 무렵 북한군은 1211고지 부근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부대들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었다. 9월 13일에는 북한군 제2사단이 새로 투입되어 제17연대가 1052고지-1211고지에 방어편성을 하고, 제4연대가 매봉(△1290)에, 제6연대가 서희리에 각각 배치되어 방어중심과 1211고지부근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북한군의 방어력이 강화되면서 국군 제5사단의 1211고지 공격은 답보상태가 계속되었다. 국군 제5사단은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13일 동안 제35·제36연대를 투입해 1211고지 점령을 시도하였으나 모든 공격이 실패로 끝났다. 그 동안 군단에서는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미 제2사단이 큰 피해를 입자, 단장의 능선 동쪽에서 적을 압박하기 위해 1211고지의 조속한 점령을 계속해서 국군 제5사단에 요구하고 있었다.

국군 제5사단장 민기식 준장은 북한군 포로로부터 획득한 북한군의 부대 교대시기 정보를 이용해 10월 1일 총공격을 감행하여 일거에 1211고지를 점령하기로 결심하고 3개

연대를 모두 공격에 투입했다. 10월 1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국군 제5사단의 총공격은 제35연대가 좌측에서 1211고지 서북쪽 능선상의 무명고지를, 제36연대가 제35연대 우측에서 1211고지를, 제27연대가 1211고지 동남쪽 능선상의 무명고지를 각각 공격목표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날 제36연대 제3대대 제11중대가 북한군 진지 전방 50m까지 진출한 후 돌격을 감행하여 오후 5시 40분경 1211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 이것이 제2차 1211고지 점령이었다. 그러나 다음날(2일) 오전 7시경에 시작된 북한군의 역습으로 국군 제5사단은 또 다시 1211고지를 빼앗겼다.

두 차례의 1211고지 점령과 피탈을 반복한 국군 제5사단은 10월 3일 좌측 인접부대인 미 제2사단 제38연대의 책임지역을 인수하면서 작전지역이 확대되자 부대를 재배치하기 위해 공격을 일단 중단하였다. 사단이 공격을 중지하자 북한군은 파괴된 1211고지의 진지를 보수하면서 정찰대를 가칠봉 서남쪽 5km 지점에 위치한 대우산까지 침투시키는 등 정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에 국군 제5사단은 북한군의 거점인 1211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10월 8일 제27연대를 다시 공격에 투입하였다. 제27연대는 이날(8일) 오전 5시에 제1대대가 1211고지 동쪽 700m 지점의 무명고지를, 제2대대가 제1대대를 후속한 후 1211고지 동쪽능선을, 제3대대가 남쪽 정면에서 1211고지 정상을 각각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 제27연대는 정면에서 공격한 제3대대가 백병전 끝에 10월 8일 오전 6시 15분에 1211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 이것이 국군 제5사단의 1211고지 제3차 점령이었다. 그러나 동남쪽에서 공격하던 제27연대 제1·제2대대의 공격이 북한군에 의해 저지되면서 고지탈환에 성공한 제3대대가 적에게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제3대대는 사주방어로 전환하여 북한군의 포위공격을 저지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자가 늘어나고 탄약이 고갈되어 점점 더 악화된 상황을 맞게 되었다. 결국 제3대대는 이날(8일) 저녁 9시 연대장의 철수 명령에 따라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가칠봉 서남쪽 능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1211고지를 세 번째 점령하고도 끝까지 사수하지 못한 국군 제5사단은 공격작전을 일단 중지하고 가칠봉-서희령을 잇는 헤이스션 상의 진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5사단은 10월 14일 단장의 능선 동쪽의 841고지를 점령한 후 가칠봉 부근 전투를 종료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8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가칠봉 부근 전투에서 국군 제5사단은 북한군

1,102명을 사살하고, 포로 250명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 국군 제5사단도 전사 722명, 실종 437명, 부상 4,251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국군 제5사단은 연대별로 또는 3개 연대로 1211고지를 공격하여 세 번씩이나 목표를 점령하였으나 그때마다 적의 역습에 이를 상실하고 가칠봉 부근 전투를 종결하였다. 비록 1211고지를 점령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국군 제5사단은 끈질긴 전투로 가칠봉-서희령 전선을 굳게 지켜 미 제10군단의 해안분지 확보에 기여하였고 단장의 능선 동쪽 측방의 위협을 차단하여 미 제2사단이 단장의 능선을 점령하는데 기여하였다. 국군 제5사단은 1951년 10월 20일 가칠봉 부근 전선을 국군 제3사단에게 인계하고 양양으로 이동하였다. 이후에도 가칠봉 부근 전선에는 여러 사단이 교대로 투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군 제5사단이 확보한 841고지-가칠봉-서희령 선이 최전방 전선이 되었다.

#### 참고문헌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27연대, 제35연대)』 (51), 198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5사단 제35연대, 제36연대, 수색중대)』 (52), 19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하), 1997.

【박동찬 집필】



### 단장의 능선 전투

【脚陽의 稜線 戦闘, 1951. 9. 13. ~ 10. 15.】

#### 개요

미 제2사단(프랑스대대, 네덜란드대대 배속)이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양구 북방에 위치한 ‘단장의 능선’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 제6·제12·제13사단 및 중공군 제68군 제204사단과 2차에 걸친 격전 끝에 주봉인 931고지를 점령한 공격 전투이다.

#### 전개과정

‘단장의 능선’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 사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894고지-931고지-850고지-851고지가 연결된 험준한 종격실(縱隔室) 능선이다. 이 능선의 주봉인 931고지는 ‘피의 능선’의 주봉인 983고지로부터 약 6km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단장의 능선은 서쪽의 문등리-이목정, 동쪽의 사태리-비아리 계곡의 작전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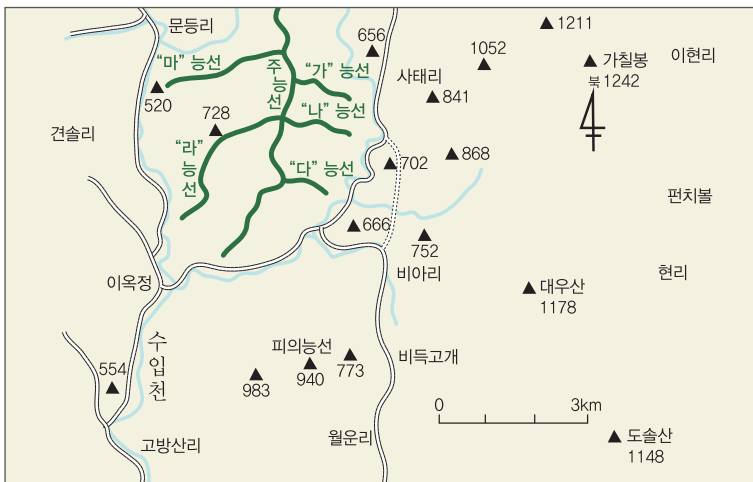
통제할 수 있는 전술적 요충지였다.

북한군은 단장의 능선 중 894고지와 주봉인 931고지를 포함한 서쪽의 문등리 계곡에 북한군 제5군단 예하의 제6사단을, 851고지와 동쪽의 사태리 계곡에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제12사단을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 이 중 북한군 제6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 기간 중 예비로 이곳에 투입되어 진지공사를 실시한 후 전투개시 직전까지 방어시설을 강화하여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군 제6·제12사단 이외에 이들 사단의 서쪽에는 피의 능선에서 후퇴한 북한군 제13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단장의 능선 공격은 미 제10군단 예하의 미 제2사단이 담당하였다. 미 제2사단은 9월 5일 군단이 중점을 둔 피의 능선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미 제8군의 제한공세 방침과 군단의 명령에 따라 단장의 능선 공격에 나서게 되었다. 미 제2사단은 9월 12일에 단장의 능선을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격부대로 미 제23연대를 선정하였다. 미 제2사단장은 북한군이 피의 능선에서 단장의 능선으로 철수한 지 불과 1주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단장의 능선이 북한군 전초진지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1개 연대만으로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미 제2사단 제23연대는 단장의 능선 동쪽의 사태리 계곡 방면에서 주봉(△931)과 북쪽의 851고지 사이에 있는 850고지를 공격해 능선을 절단한 후 북한군 진지를 각계 격파하기로 하였다.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미 제23연대는 9월 12일 사태리 계곡 동측 박달고개 일대의 엄호진지를 점령하였다.

단장의 능선에 대한 제1차 공격은 1951년 9월 13일 오전 6시에 시작되었다. 80여 문



의 야포가 동원된 공격준비사격에 이어 제2대대가 850고지를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날 미 제2사단은 단장의 능선을 단지 북한군 전초진지 정도로 생각한 것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북한군은 “한치의 땅도 피로써 굳게 지킨다”는 결의로 단장의 능선 일대에 겹겹의 중심(縱深)진지를 구축하고 미 제23연대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미 제23연대는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격전을 거듭한 끝에 공격 7일째인 9월 18일에 가서야 중간목표인 850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사단에서는 미 제23연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제9연대 제2대대를 투입해 단장의 능선 남쪽 고지인 894고지를 점령하였다. 그 결과 894고지-931고지-850고지-851고지로 이어지는 단장의 능선은 894고지와 850고지를 미 제2사단이, 931고지와 851고지를 북한군이 점령하는 형태가 되었다.

전선이 양분된 상태에서 미 제23연대와 북한군은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계속하였다. 북한군이 문둥리 계곡을 통해 병력을 계속해서 증원하는 가운데 미 제23연대는 남쪽과 북쪽에서 단장의 능선 주봉인 931고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단장의 능선에서는 피의 능선과 유사한 전투가 계속되어 인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20일 새로 부임한 미 제2사단장 영(Rebert N. Young) 소장은 북한군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미 제9연대 주력을 단장의 능선 서측 공격에 투입하였다. 9월 23일 미 제9연대가 문둥리 계곡 서측의 1024고지를 공격하는 가운데 미 제23연대도 강력한 공격을 가해 이날 새벽에 단장의 능선 주봉인 931고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전개된 북한군의 역습으로 931고지는 다시 적에게 피탈되었다.

미 제23연대는 9월 25일 프랑스대대를 추가로 공격에 투입했으나 이마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2주간의 작전 동안에 미 제2사단은 일일 평균 포탄 1만여 발을 사용하였음에도 북한군의 유개진지를 파괴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북한군이 쏜 일일 평균 1,000여 발의 박격포 사격으로 피해가 급증하였다. 2주간 미 제23연대의 인명피해는 950여 명에 이르렀으며, 사단 지원 병력까지 합할 경우 1,670여 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장의 능선 전투는 연대의 작전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결국 미 제2사단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군단장에게 보고한 후 현 상태에서 작전을 중지하고 보다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10월 초순에 작전을 재개하기로 결심하였다.

미 제2사단은 1951년 9월 27일 제1차 공격작전을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2사단장은 사단의 포병과 전차의 지원 아래 3개 연대의 협조된 공격을 실시하여 단장의 능선을 확보하고 전선을 추진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터치다운 작전(Operation



Touchdown)으로 명명된 새로운 작전계획은 단장의 능선을 남쪽에서부터 차례로 점령해 나가는 방식으로 먼저 단장의 능선 주봉인 931고지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북쪽의 851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단에서는 주공부대인 미 제23연대(프랑스대대 배속)의 공격과 함께 중앙에서 미 제38연대(네덜란드대대 배속)가 문등리 도로 주변의 북한군을 격멸하고, 서쪽에서 미 제9연대가 문등리 도로 좌측의 897고지-953고지-1005고지를 차례로 점령하게 하였다.

단장의 능선에 대한 제2차 공격은 10월 5일 밤 9시 30분 300여 명의 사단 및 군단 포병의 공격준비사격과 미 제1해병비행단의 야간항공폭격으로 시작되었다. 공격에 나선 미 제23연대는 제2·제3대대가 남쪽에서, 프랑스대대가 북쪽에서 각각 931고지를 협공하여 10월 6일 오전에 단장의 능선 주봉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중앙의 미 제38연대도 10월 9일까지 문등리 도로 축선을 완전히 통제하였으며, 미 제9연대도 최종 목표인 1005고지(백석산 서북쪽 2km)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미 제2사단은 단장의 능선의 북쪽 고지인 851고지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터치다운 작전 6일째인 10월 10일, 미 제2사단은 최종 공격목표인 851고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먼저 서쪽에서는 미 제72전차대대와 미 제38연대 1개 보병중대 및 사단 공병소대로 편성된 특수임무부대가 문등리까지 진출하였고, 미 제23전차중대와 프랑스대대 보병 및 공병으로 편성된 스트루먼 특수임무부대(Struman TF)가 사태리로 진입하여 851고지를 양쪽 측방에서 차단하였다. 이 무렵 공산군 측도 중공군 제68군 예하의 제204사단을 증원부대로 이곳에 투입하였다.

미 제23연대는 제1대대가 프랑스대대의 지원 아래 공격을 선도하고, 931고지의 제3대대가 제1대대의 서측에서 기동했으며, 제2대대가 문등리 남쪽의 고지를 점령하여 적의 증원을 차단하였다. 제1대대와 프랑스대대는 벙커 속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제압하면서 진격해 나갔다. 10월 11일 야간에 제1대대를 초월하여 공격에 나선 프랑스대대가 10월 13일 동이 틀 무렵 마침내 851고지 정상에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무렵 사단의 중앙 공격부대인 미 제38연대도 네덜란드대대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계속하여 10월 15일 백석산과 어은산 중간지점에 위치한 1220고지까지 진출하였다. 이로써 미 제2사단은 피의 능선 전투에 이어 9월 13일부터 1개월여의 혈전 끝에 단장의 능선을 탈취하는데 성공하고, 전선을 1220고지-문등리-가칠봉 선까지 추진시킬 수 있었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개된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미 제2사단은 북

한군 3개 사단과 중공군 1개 사단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단장의 능선을 점령하였다. 그 결과 유엔군은 백석산과 가칠봉 사이의 남쪽으로 돌출된 전선을 조정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은 2만 4,679명(사살 1,473명, 살상추정 2만 2,600명, 포로 606명)의 인명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미 제2사단은 3,745명(전사 597명, 실종 84명, 부상 3,064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단장의 능선(Heart Break Ridge)’이라는 이름은 중군기자 스텐 카터가 전투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전방의 대대 구호소를 방문했을 때, 한 부상병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해!”라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서 ‘단장의 능선’이라는 이름을 붙여 기사화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전투 이후 미 제2사단은 사태리와 문등리의 양 도로를 확보한 가운데 방어선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육군군사연구소, 『1129일간의 전쟁 6·25』 (대전 : 육군본부, 2014).

온창일 외, 『6·25전쟁 60대전투』 (서울 : 황금알, 2010).

Walter G. Hermes,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8).

【박동찬 집필】



## 백석산 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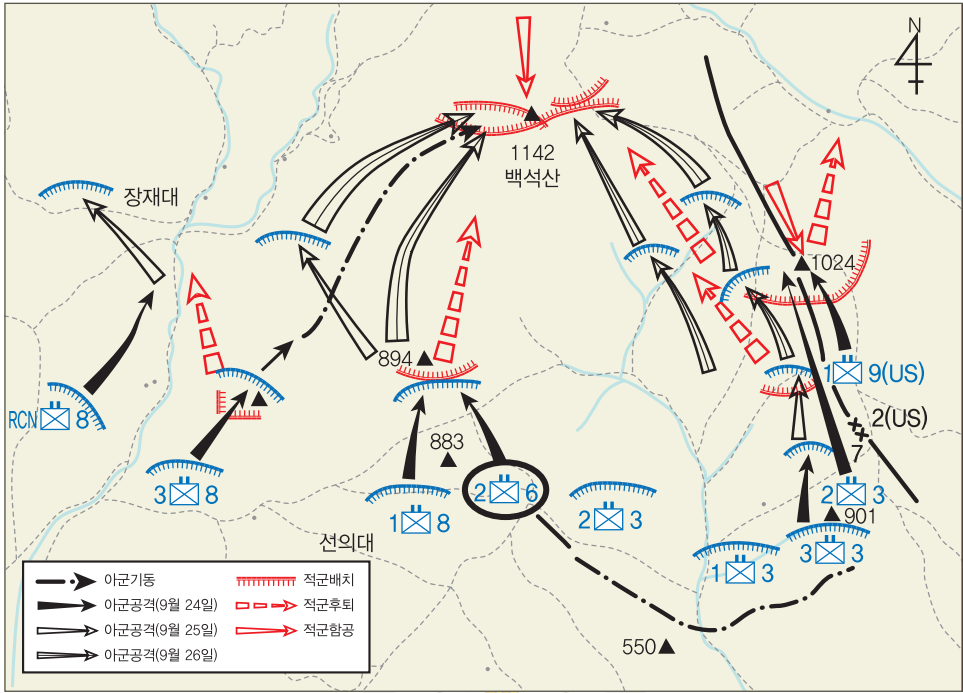
[白石山 戦闘, 1951. 9. 24. ~ 10. 1.]

### 개요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이 유엔군 방어선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한목표공격’의 일환으로 1951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강원도 양구 북방의 백석산(△1142)에 배치된 북한군 제32사단과 제12사단을 격퇴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전개한 공격전투이다.

### 전개과정

백석산 일대는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과 수입면 지역으로 태백산맥의 지맥이 뻗어 있어 60° 안팎의 심한 경사를 이룬 표고 800~1,300m의 고지군과 협소한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은산(△1277, 백석산 북쪽 8km)과 1220고지(백석산 서북쪽 5km)를 비롯하여 백석산-883고지-917고지와 서쪽의 892고지-1065고지 그리고 남동쪽의 1024고지-901고지-554고지 등은 전술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이 지역은 지세의 영향으로 도로



망이 매우 빈약하여 보급수송은 물론 부대기동과 전차운용에 매우 불리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제5군단 예하 제32사단이 백석산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883고지-901고지-554고지에 구축한 강력한 방어진지를 기반으로 남쪽 고지에 전초부대를 추진하며 정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의 가용병력은 약 3,500명으로 추정되었고, 연대 당 120mm 박격포 2문과 76mm와 45mm 직사포 각 2문, 고사기관총 4정을 보유하였으며, 대대별로 82mm 박격포 5문과 대전차포 7문, 기관총 12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해안분지(편치불) 탈취를 위한 '크리퍼 작전(Operation Creeper)'의 일환으로 1951년 9월 5일부터 시작된 미 제2사단의 단장의 능선 공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미 제10군단장은 공격정면을 확대하여 적의 병력을 분산시키기로 하였다. 미 제2사단장이 건의한 문등리 계곡 서쪽의 1024고지(백석산 동남쪽 2km) 공격에 앞서 군단장은 백석산에 배치된 적을 먼저 격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서 9월 22일 국군 제7사단에게 백석산 공격을 명령하였다. 9월 23일 국군 제7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제8연대를 주공으로 하여 백석산 서쪽의 능선(894고지-1142고지)을, 제3연대를 조공으로 하여 고지 동쪽의 능선을 각각 공격하게 하는 내용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국군 제7사단의 공격은 1951년 9월 24일 오전 6시에 시작되었다. 첫날 공격에서 주공부대로 서쪽에서 공격한 제8연대가 894고지(백석산 동서쪽 2km) 서쪽 1km지점의 696고지를, 조공부대로 동쪽에서 공격한 제3연대가 901고지(백석산 동남쪽 4km)를 각각 점령하였다. 다음날(25일) 국군 제7사단 우측의 미 제2사단이 1024고지를 점령하여 단장의 능선 공격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자, 미 제10군단장은 국군 제7사단에 9월 28일까지 백석산 점령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국군 제7사단은 과감한 돌격작전을 전개해 9월 25일 좌측의 제8연대가 894고지를, 우측의 제3연대가 1024고지 서쪽 300m 지점의 무명고지를 각각 점령함으로써 백석산 정상 점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군 제7사단은 9월 26일 제3연대와 제8연대로 백석산 주봉에 대한 공격작전을 감행하였다. 이때 사단은 군단으로부터 9월 28일에 국군 제8사단과 임무를 교대하도록 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사단은 기간 내에 고지를 점령하고 작전지역을 인계한다는 결의로 공격작전에 임하였다. 그러나 국군 제7사단은 제8연대가 26일 백석산 정상의 2개 봉우리 중 좌측 봉우리를 점령하였다가 빼앗기고, 27일 다시 우측 봉우리를 공격하였으나 끝내 목표를 점령하는데 실패하였다. 결국 국군 제7사단은 9월 28일 백석산 공격 임무를 국군 제8사단에 인계하고 캔자스선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북한군도 전투능력을 상실한 제32사단을 대신하여 제12사단을 이 지역에 투입하였다. 북한군 제12사단은 1220고지(백석산 서북쪽 4.5km)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백석산에 제30연대를, 그 좌우측에 제32연대와 제31연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국군 제7사단과 임무를 교대한 국군 제8사단은 9월 29일 공격준비를 완료하고 30일 오전 7시를 기해 제10연대가 주공으로 좌우측 능선을 따라 백석산 공격을 시작하였다. 국군 제10연대는 제1대대가 목표고지의 서남쪽 능선으로, 제2대대가 동남쪽 능선으로 각각 공격하였지만 북한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일단 공격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국군 제10연대장은 다음날(10월 1일) 공격을 재개하기로 하고, 각 대대에 100명씩 배속된 노무자들을 활용하여 탄약과 식량을 보급하였다.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는 10월 1일 이른 아침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1대대가 3시간의 혈전 끝에 돌격선으로 진입하자,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이 뒤따랐다. 이를 기회로 제1대대는 일제히 돌격을 개시하여 10시 50분경에 백석산 주봉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는 우측의 제2대대 공격이 지연되면서 적으로부터 역습을 받아 다시 백석산 주봉에서 밀려났다. 곧이어 제2대대의 과감한 공격으로 왼쪽 측방의 위협을 느낀 북한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제1대대는 재공격에 나서 11시 55분에 백석산 주봉을 완전히 장

약하였다. 이 무렵 제2대대도 포병의 화력지원과 유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을 받으며 돌격을 감행하여 백석산 우측 봉우리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8사단은 전선을 인수한 지 이틀 만에 백석산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 결과 및 영향

1951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2차에 걸친 백석산 전투에서 국군 제7사단은 북한군 740명을 사살하고 포로 75명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리고, 국군 제8사단은 북한군 111명을 사살하고 포로 28명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에 국군 제7사단은 전사 45명, 부상 250명, 실종 1명, 국군 제8사단은 전사 50명, 부상 243명 등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은 백석산 전투를 통해 전선을 캔자스선에서 10km 북쪽으로 추진시키고, 우측의 단장의 능선과 문등리 계곡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군단의 주공 사단인 미 제2사단의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국군이 백석산을 점령함에 따라 북한군은 주방어선을 5~10km 북쪽의 1220고지와 어은산(△1277)으로 물릴 수밖에 없었다.

#### 참고문헌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전투상보(제8사단)』 (56), 19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2012.  
국방군사연구소, 『백석산전투』, 1990.



【박동찬 집필】





## 6 · 25전쟁 주요전투 1

- 발행일 | 2017년 12월 28일
- 저 자 | 조성훈 전쟁사부장, 손규석 책임연구원,  
박종상 책임연구원, 박동찬 책임연구원, 이상호 선임연구원,  
박동구 중국군사연구소 소장, 배안석 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이근석 사)역사 향방 대표, 김현기 해병대 전략연구소 부소장
- 감 수 | 김광수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양영조 군사사부장
- 발행인 | 김철수
- 발행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주 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 전 화 | 02-709-3175
- 디자인 | 커뮤니케이션 쿤(02-521-4260)
- 인쇄처 | 국군인쇄창 M18020225

# The Korean War



Military History Institute, MND



바래출/무류

04380

9 791155 980460

ISBN 979-11-5598-046-0

(ISBN 979-11-5598-045-3(세트))